제주역사 자료총서 14

프란게문고 제주기사 자료집

- 재일조선인 미디어(Ⅱ)

Jeju 제주특별자치도 JRI 제주학연구센터

일러두기

○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프란게문고에는 재일조선인이 발행한 미디어가 다수 소장되어 있다. 이 중에서 이번 조사 자료는 조선정보(구주)(朝鮮情報)(九州), 조선정보(관서)(朝鮮情報)(關西), 신아통신(新亞通信), 공화통신(共和通信), 동아통신(東亞通信), 조선특신(朝鮮特新) 등 통신 6개, 민주신문(民主新聞), 민청시보(民靑時報), 민청대판(民靑大阪), 대판민단시보(大阪民團時報), 여맹시보(女盟時報), 학동뉴스(學同ニュース), 학동관동시보(學同關東時報), 조련가나가와(朝聯神奈川), 문련시보(文連時報), 문교신문(文敎新聞), 동경조련뉴스(東京朝聯ニュース), 과학기술시보(科學技術時報) 등 기관지 12개, 해방신문(解放新聞), 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조선신보(朝鮮新報), 대중신문(大衆新聞), 국제타임스(國際タイムス), 신조선신보(新朝鮮新報), 조선일보동경(朝鮮日報東京), 국제일일신문(國際日日新聞), 해방신문(대판)(解放新聞)(大阪) 등 신문 9개로 총 27개 미디어를 대상으로 했다. 이 가운데 한국어로 기사를 게재한 미디어는 여맹시보, 해방신문, 신세계신문, 조선신보, 대중신문 등 5개이며, 학동뉴스는 한국어와 일본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그 외는 일본어를 사용하고 있다.

○ 제주 관련 기사에서 통신은 조선정보(구주) 29건, 조선정보(관서) 7건, 신아통신 36건, 공화통신 23건, 동아통신 19건, 조선특신 16건 등 130건, 기관지는 민주신문 25건, 민청시보 20건, 민청대판 4건, 대판민단시보 1건, 여맹시보 3건, 학동뉴스 2건, 학동관동시보 3건, 조련가나가와 1건, 문련시보 2건, 문교신문 2건, 동경조련뉴스 1건, 과학기술시보 1건 등 65건, 신문은 해방신문 58건, 신세계신문 44건, 조선신보 27건, 대중신문 18건, 국제타임스 9건, 신조선신보 9건, 조선일보동경 5건, 국제일일신문 5건, 해방신문(대판) 2건 등 177건으로 이번 자료집에 총 372건을 수록하고 있다.

○ 기사는 미디어별 연, 월, 일 순으로 수록했다. 한국어 기사는 제목과 신문기사 내용을 옮겨 정리했고, 일본어 기사는 번역하여 문자화했다. 기사 원문은 이미지 형식으로 수록했다. 신문기사 내용은 원문에 충실하게 옮겨 번역했으며,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글로 옮기거나 번역한 후 ( )내에 한자를 병기하는 방식으로 했다. 부득불 판독이 어려운 경우에는 ○○○으로 표기하거나 <판독 불가>라고 명시했다.

○ 본 자료집에 실은 기사들은 저작권법으로 인해 소장처 미국 메릴랜드대학 도서관과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서 게재 허가 승인 받았음을 밝혀 둔다.

발간사

제주학연구센터가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프란게문고 제주기사 자료집-재일조선인 미디어(Ⅱ)』를 냅니다.

「프란게문고(Dr.Prange Collection)」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군총사령부(GHQ)가 일본에서 검열제도를 실시한 약 4년 2개월간(1945. 9.~1946. 10.)에 수집한 방대한 간행물로, 그 자료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 미국 메릴랜드대학의 고든 윌리엄 프란게 교수가 대학 내에 보관한 자료를 말합니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은 1992년부터 미국 메릴랜드대학과 공동으로 프란게문고 소장 자료의 목록화와 마이크로화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문고에는 일본 패전 직후부터 약 4년 3개월간 일본에 재류했던 재일조선인이 발행한 미디어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주 4·3을 비롯하여 당시 조국의 정세와 재일조선인의 생활상 등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규명되지 못한 제주 현대사의 조각을 맞춰나가는 데에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센터는 2019년 여름 연구팀을 꾸리고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 소장된 프란게문고의 마이크로화 필름 자료를 열람하고, 제주 관련 미디어 자료를 수집하여 프란게문고 제주 관련 미디어 자료를 번역하여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에 이어 두 번째 발간하는 이번 자료집에는 1948년부터 1949년까지 일본에서 발행된 통신, 기관지, 신문에 실린 제주 관련 기사 총 372건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 19 확산으로 한국과 일본 간의 왕래가 어려워지면서 추가 현지조사를 못한 게 아쉽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코로나 19 유행에 따라 지역 간의 이동 자제가 요청되는 상황이라 걱정도 많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일본 현지에 있던 무라카미 나오코 선생님께서 방역 지침을 지키며 도쿄에 있는 국립국회도서관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보완 조사를 해 주셔서 제주 관련 미디어 자료까지 포함시켜 번역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미디어 자료들은 일일이 대조하며 분류 정리한 후에 일본어 기사는 강경희· 김순임 선생님께서 번역해 주셨고, 한국어 기사는 박찬식 선생님께서 맡아서 정리해주셨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의 값진 노고가 재일 조선인들의 생활상 등이 담긴 가치 있는 자료 발굴로 이어지고, 이를 널리 소개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또한 자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 사업을 함께 기획하여 자료집을 최종 발간하기까지 여러모로 애를 써준 우리 센터 임승희 선생님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이 자료집이 재일제주인과 제주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귀한 자료로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센터는 앞으로도 제주 역사 연구를 위한 중요한 기초 사료 수집과 연구 성과를 축적하여 제주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2020년 12월

제주학연구센터장 **김 순 자**

자료해제

프란게문고 제주기사 자료집 - 재일조선인 미디어(Ⅱ)

본 자료집은 해방 후부터 1949년경까지 일본에서 발행된 신문·기관지·통신 등에 실린 제주도 관련 기사를 수집·번역하여 공개하는 제주학연구센터 연구사업의 제2차 성과물이다. 이 연구사업은 해방 직후의 제주에 관한 기사를 수집하고 연구자뿐만 아니라 널리 시민들이 이 자료들을 가까이 접하고 쉽게 접근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사를 번역하고 수록했다. 향후 이 기사들이 활용되고, 해방 직후의 제주 사회와 재일제주인에 관한 이해와 논의가 심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연구사업 제2차 본권에는 당시 일본에서 재일조선인이 발행하고 있었던 신문·기관지·통신 가운데, 통신 6개, 단체기관지 12개, 신문 9개를 선정하여(각 매체에 대한 상세한 것은 후술함), 여기에 게재되어 있는 제주 관련기사를 발췌해서 수록했다.

일본이 패전할 때 200만 명 이상의 조선인들이 다양한 요인으로 일본에 재류하고 있었는데, 한반도가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일본 외에 생활 기반이 없거나, 귀향 시기를 연기해야 하는 등 다양한 사정으로 약 60만 명의 사람들이 나중에 귀국을 준비하면서 일본에서 계속 생활했다(그 중에는 많은 제주도 출신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들은 패전 직후의 혼란한 일본에서 동포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생활하면서 조국의 정세에 매우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 사실은 일본 각지에서 조선인 단체나 기관, 또는 개인이 발행하고 있었던 다수의 신문, 통신, 기관지, 잡지의 내용에서 명백히 알 수 있고, 본권에 수록된 기사에서도 읽을 수가 있다.

본 자료집에 수록된 기사는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이 프란게문고에 수집하여 마이크로필름화한 것을 인쇄했다.

프란게문고란

프란게문고(The Gordon W. Prange Collection)는 일본 패전 후, 일본을 점령 통치한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GHQ/SCAP)가 검열 목적으로 수집한 출판물 등의 컬렉션이다. GHQ/SCAP는 1945년 9월[1]부터 1949년 10월 말까지 '연합군의 점령 목적 수행에 유해한 정보가 일반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본 전역에서 출판물 및 우편, 각본, 영화, 방송, 전화, 전신과 같은 민간 통신 보도활동 전부에 대해 검열을 실시하였다. 출판물에 대한 사전 검열의 경우는 출판 전의 교정쇄를, 사후 검열의 경우는 출판물 2부를 제출할 의무가 있었다(교정쇄와 출판물 1부는 검열 후에 반환되었다). 따라서 컬렉션의 규모는 방대했다. 당시 검열 업무를 담당한 것은 GHQ/SCAP의 G-2(참모 제2부)로서, 또 미국태평양육군(후에 극동군)의 G-2로서 기능한 CIS(민간첩보국 Civil Intelligence Section)[2] 산하 CCD(민간검열지대 Civil Censorship Detachment)[3] 이다. 출판물은 CCD 내의 PPB(프레스·영화·방송 부문 Press, Pictorial, and Broadcast Division)가 검열했다.

1949년 10월에 검열 제도가 종료되었고, CCD가 폐지될 때 CCD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 가운데 도서, 잡지, 신문 등이 미국 메릴랜드대학으로 이관되었다. 그 경위는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 명기되어 있는데[4], 이 자료들의 역사적 가치를 중시하여 메릴랜드대학으로 이관에 힘쓴 역사학자 고든.W.프란게 박사(Dr.Gordon William Prange)의 이름을 따서 '프란게문고'로 명명되었다. 프란게문고는 도서·팸플릿 약 71,000 타이틀, 잡지 약 13,800 타이틀, 신문·통신 약 18,000 타이틀, 기타 보도 사진과 지도와 전단류 등 다양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5]

본 자료집 작성에서 조사원이 열람·인쇄한 자료는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이 보유한 프란게문고 내 자료의 마이크로필름이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은 1992년부터 메릴랜드대학과 공동으로 프란게문고 소장 자료의 목록 작업과 마이크로화를 실시했다. 1997년에는 국회도서관에서 모든 잡지의 공개가 완성됐다. 또 신문·통신은 메릴랜드대학에서 마이크로필름화한 자료를 국회도서관이 구입하여 2003년에 전부 공개했다. 이 마이크로필름은 국회도서관에 이용자 등록을 하고 동경 본관의 헌정자료실에서 이용 신청을 하면 그 자리에서 열람·복사

1) 1945年 9月 10日 SCAPIN18

2) 小林知子(1994), 168~169쪽. 이 논문에 의하면, 민간첩보국이 수집한 정보는 워싱턴의 국무장관에게 송부되었다고 한다.

3) CCD는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삿포로에 지구 본부를 둔 거대한 조직이었다. '그 인원수는 한창 때인 1947년에 일본인 검열자 8,100명을 필두로 미군속, 장병 등 총 8,700명이나 됐다.' (山本(2001) 6쪽).

4) https://rnavi.ndl.go.jp/kensei/entry/Prange.php(2019年 10月 31日 참조)
고든.W.프란게(1910-1980)는 당시 미국 메릴랜드대학을 휴직하고 GHQ/SCAP의 G-2에서 전사(戰史) 편찬 작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메릴랜드대학에서는 이관된 자료를 정리하고, 1978년에 '프란게 문고: 1945-1952년 일본에서의 연합국 점령'이라고 명명했다.

5) 国立国会図書館月報(2016.1.), 7쪽.

할 수 있다. 2004년 10월부터는 국회도서관 온라인(https://ndlonline. ndl.go.jp/#!/)에서 프란게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미디어 타이틀을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프란게문고 소장 미디어 중에서 잡지 기사 및 신문 기사에 관해서는 NPO법인 인텔리전스연구소가 '20세기 미디어정보 데이터베이스(http://20thdb.jp/)'를 회원 대상으로 공표하고 있으며, 각 잡지·신문에 어떤 기사가 게재되어 있는지 검색하는 것이 가능하다(신문은 일부이며 재일조선인 간행 신문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단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도 기사 본문은 볼 수 없고, 기사 본문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국회도서관 동경 본관의 헌정자료실로 가야만 한다.

프란게문고 내 재일조선인 간행 미디어

프란게문고는 패전 직후부터 약 5년간 일본의 상황을 아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들이고, 그 중에는 재일조선인이 발행한 다수의 미디어가 포함되어 있어 당시 재일조선인의 생활과 활동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재일조선인이 당시 발행하고 있었던 신문이나 잡지, 기관지 등이 대부분 흩어져 없어졌기 때문이다. 일부 기관이나 단체가 보관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그 수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6]. 따라서 GHQ/SCAP가 수집한 프란게문고 내 재일조선인의 신문·기관지는 지방에서 발행된 것도 포함하고 있어 다른 데서 찾기 어려운 것이 대부분이다.

프란게문고에 재일조선인 간행 신문과 잡지가 다수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일본 패전 후(즉 한국 해방 후), GHQ 점령 통치하의 일본에서 재일조선인의 출판 활동이 각 방면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小林聡明 씨의 연구에 따르면 신문·뉴스 레터는 100타이틀 이상이고[7], 잡지는 38타이틀 발행됐는데, 그 중 32타이틀이 프란게문고에 소장되어 있다[8]. 또 기관지에 대해서는 프란게문고에 소장된 29타이틀 목록이 소개되고 있다[9]. 신문·통신을 비롯해 재일조선인 미디어가 당시 전체적으로 얼마나 존재했고, 그 중 어느 정도 프란게문고 내외에 보관되어 있는지, 또 각각의 미디어가 수행한 역할 등 아직도 전모가 파악되지는 않았다.

6) 지금까지 발간된 자료집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朴慶植, 『朝鮮問題資料叢書 補巻 解放後の在日朝鮮人運動 III』(1984), 『在日朝鮮人関係資料集成〈戦後編〉』 第4巻(2000), 第8巻(2001), 第9巻(2001). 이 자료집들이 이 분야 연구에 미친 역할은 크다. 단지 결호도 많고 각 자료집의 취지에 따라 신문의 일부분만 싣고 있는 것도 있다.

7) 小林聡明(2007), 4쪽.

8) 小林聡明(2010).

9) 小林聡明(2012), 50쪽.

검열에 대해서

기사를 참조할 때는 검열제도 하에서 써진 기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10]. 앞에서 말한 것처럼 수집 목적은 검열이다. GHQ/SCAP가 1945년 9월 중순에 발령한 10개조의 '프레스코드(일본출판법)'에 근거하여 검열이 실시됐다. 사회적 영향력이 크거나 문제시된 출판물은 발행 전에 CCD의 체크를 받는 사전 검열이 의무화되어 있었다. 프레스코드 위반으로 간주됐을 경우는 삭제나 정정, 출판 금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점령기 동안 프레스코드는 불변했지만, GHQ의 정책 변화에 따른 검열방침의 변화에 대응하여 검열관을 위한 '키로그', '검열요강'이 작성되었다[11]. 점차적으로 사후 검열로 이행되었고, 신문·통신에 대해서는 1948년 7월에 완전히 사후 검열로 이행되었다. 마지막 단계까지 사전 검열 대상이었던 재일조선인 미디어는 6개였다(『국제타임스』『조선신문』『조선공화통신』『해방신문』『민청시보』『Korean Information Press』)[12]. 도서관 이행시 조사에 따르면 당국에 '좌익계지'로 간주되어 있었던 미디어 중에서 『해방신문』과 『민청시보』가 '출판법 위반'으로 일부 삭제·공표 금지 처분을 자주 당한 것을 알 수 있다[13].

본권 수록 자료의 수집과 번역에 대해서

위와 같이 본 연구사업의 목적은 프란게문고 소장의 재일조선인 미디어에 게재된 '제주 관련기사'를 수집하는 것이다. 제주학연구센터의 임승희 연구원이 연구사업 기획부터 최종 출간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실무 책임을 맡아 주었다. 연구사업 2년째인 금년(2020년)은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인해 한일 간 왕래가 불가능하여 강경희와 김순임 연구원이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을 방문해 자료를 열람하고 수집할 수가 없었다. 또 일본 내에서도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외출 자숙 및 이동 자제를 요청하는 상황이 단속적으로 이어졌고 국회도서관도 출입이 제한되었다. 따라서 본권에는 지난해 수집한 자료 및 올해 일본에 거주하는 무라카미 자문위원이 여러 차례 국회도서관을 방문하여 수집·인쇄한 자료를 수록했다. 올해 조사가 이처럼 제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주 관련기사를 전부 조사하는 것이 어려웠다.

따라서 지난해와 같지만, 이번 조사도 무라카미 자문위원이 이전에 작성한 목록(2003~2004년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프란게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재일조선인 간행 미디어 중에서 제주 4·3을 언급한 기사를 찾아 작성한 목록)을 바탕으로 실시되었다. 본권에 수록된 기사 대부

10) 점령 하에서의 재일조선인 간행물에 대한 검열을 검증한 논문으로는 小林知子(1992)가 있다.
11) 山本(2003), 3~4쪽.
12) 山本(1996), 315~316쪽.
13) 山本(1996), 412쪽.

분 4·3 관련기사가 차지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해 수집된 자료 중에는 강경희와 김순임 연구원이 이 목록에 없는 기사를 발굴해 보충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향후 4·3 관련기사 이외의 제주 관련기사를 조사·수집하여 다음 자료집에 추가 수록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 싶다.

재일조선인 간행 미디어는 우리말 또는 일본어로 쓰여 있다. 본 자료집에 게재되어 있는 기사 내용 중에서 우리말 기사는 박찬식 연구원이 옮겨 정리했고, 일본어 기사는 강경희와 김순임 연구원이 번역했다.

본권에 수록된 각 미디어의 개요

(1) 통신

①『조선정보(朝鮮情報)』(구주)

후쿠오카에 소재한 조선정보 규슈지사가 발행하고 있던『조선특신』을 No.272(1948.7.27.)부터『조선정보』라고 명칭을 바꾸고 호수를 계승했다. No.554(1949.9.30.)까지 프란게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일간. [사용언어] 일본어

②『조선정보(朝鮮情報)』(관서)

오사카에 소재한 조선정보 관서지사가 일간으로 발행했다. 프란게문고에는 495호(1949.1.10.)부터 602호(1949.8.4.)까지 소장되어 있다. [사용언어] 일본어

③『신아통신(新亞通信)』

도쿄에 소재한 동아통신사의 통신『동아통신』을『신아통신』으로 명칭을 바꾸고 호수를 계승해 292호(1948.7.27.)부터 일간으로 발행됐다. 프란게문고는 646호(1949.9.30.)까지 소장하고 있다. [사용언어] 일본어

④『공화통신(共和通信)』

도쿄에 소재한 공화통신사가 1947년 12월 17일 1호를 발행했으며 188호(1948.8.5.)까지 프란게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20호까지의 출판사는 '조선공화통신 동경 본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용언어] 일본어

⑤『동아통신(東亞通信)』

도쿄에 소재한 동아통신사의 일간통신으로 1호(1947.8.1.)부터 291호(1948.7.26.)까지 발행

되었다. 프란게문고에는 전 기간의 통신이 수록되어 있다(결호 있음). 292호(1948.7.27.)부터 『신아통신』으로 명칭을 바꿨다. [사용언어] 일본어

⑥『조선특신(朝鮮特新)』

조선정보 규슈지사가 No.1(1947.9.1.)부터 No.271(1948.7.26.)까지 일간으로 발행했다. 그 후『조선정보』라고 개제하고 호수를 계승하였다. 프란게문고는 동경에 소재한 조선정보사가 발행한 일간『조선특신』도 No.263(1947.1.5.)부터 No.544(1947.11.27.)까지 소장하고 있다. [사용언어] 일본어

(2) 기관지

①『민주신문(民主新聞)』

재일본조선거류민단중앙총본부(동경) 기관지. 1947년 2월 21일 창간된『민단신문』이 21호(1947.11.1.)부터 『민주신문』으로 명칭을 바꿨다. 주간. 프란게문고는 91호(1949.9.24.)까지 소장하고 있다. [사용언어] 일본어

②『민청시보(民靑時報)』

재일본조선민주청년동맹중앙 기관지로서 동경에 소재한 조선민주청년동맹 총본부가 1947년 7월 5일에 1호를 창간. 1호부터 36호까지는 순간(旬刊)이며, 37호부터 54호까지는 주간. 일본 점령당국에 '좌익계지'로 간주되어 최장 기간인 1948년 7월까지 사전검열 대상이 되었다. 22호(1948.5.5.)부터 23호(1948.8.25.) 사이 약 3개월간 발행이 중단됐다. 6호(1947.8.15.) 기사 '전국 기관지 발행 현황'에 따르면『민청시보』발행 부수는 2만 부이다. 사후검열 이행 후 지면상에도 검열 마크가 많이 보인다. [사용언어] 일본어

③『민청대판(民靑大阪)』

재일조선민주청년동맹 대판본부의 기관지. 1949년 1월 25일에 제1호가 발행되어 5호(1949.4.20.)까지 프란게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당국의「신문보고」에 의하면 발행부수는 500~1,000부 정도이며, 대판부내의 재일조선민주청년동맹(민청) 지부를 통해 맹원에게 배포되었다. 점령당국에서 출판물 검열을 담당했던 PPB는 이 기관지의 경향을 '극좌'라고 보고하고 있다. 교정쇄 지면상에 검열 마크가 보인다. [사용언어] 일본어

④『대판민단시보(大阪民團時報)』

재일본조선거류민단 대판본부 기관지로 1948년 5월 1일 창간되어 8호(1948.10.25.)부터 발행인의 이름이 '재일대한민국거류민단 대판본부'로 바뀌었다. 프란게문고에는 8호까지 소

장되어 있다. 「신문보고」에 따르면 발행부수는 3,000부로 전국의 거류민단 각 본부 지부 및 각 기관 등에 우편으로 배포됐다. PPB의 검사원은 「반공지 Anti-communist paper」라고 보고하고 있다. [사용언어] 일본어

⑤『여명시보(女盟時報)』

재일본조선민주여성동맹총본부(동경)에서 발행한 기관지로. 프란게문고에는 1호(1947.12.29.)부터 16호(1949.9.30.)까지 소장되어 있다. [사용언어] 한국어

⑥『학동뉴스(學同ニュース)』

재일본조선학생동맹 관동본부 기관지. 1호(1948.6.25.)부터 5호(1949.3.5.)가 소장되어있다. 그 후『학동관동시보』로 제목을 바꿨다. [사용언어] 일본어·한국어

⑦『학동관동시보(學同關東時報)』

재일본조선학생동맹 관동본부 기관지로『학동뉴스』를 개제하여 호수를 계승했다. 프란게문고에는 No.7(1949.6.1.)과 No.8.9(1949.8.3.)가 소장되어 있다. [사용언어] 일본어

⑧『조련가나가와(朝聯神奈川)』

재일본조선인연맹(조련) 가나가와현 본부의 기관지. 1947년 7월에 창간되어 23호(1949.6.21.)까지 프란게문고에 소장되어 있다(3호와 10호 결호). [사용언어] 일본어

⑨『문련시보(文連時報)』

동경의 조선문화 제(諸)단체의 상호부조·연락·협의기관이었던 '재일본조선문화단체연합회'의 기관지로 발행되었다. 이 연합회의 가맹단체는 한때 80단체에 이르렀다고 한다. 프란게문고에는 3호(1947.9.20.)부터 9호(1948.8.5.)가 소장되어 있다. [사용언어] 일본어

⑩『문교신문(文教新聞)』

동경에 소재한 조선문화교육회본부 기관지. 1947년 9월 15일 창간되어 57호(1949.4.11.)까지 프란게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주간.『재일조선인 관계자료집성: 전후편 제8권』의 설명에 따르면 발행부수는 5만부. [사용언어] 일본어

⑪『동경조련뉴스(東京朝聯ニュース)』

재일본조선인연맹 동경본부 서기국이 1947년 12월 8일에 1호를 발간했다. 20호(1948.9.10.)까지 프란게문고에 소장되어 있다(2호는 결호). [사용언어] 일본어

⑫『과학기술시보(科學技術時報)』

도쿄의 재일본조선과학기술협회가 발행. 1호(1948.9.20.)부터 15호(1949.3.1.)가 소장되어 있다(7호와 8호는 결호). [사용언어] 일본어

(3) 신문

①『해방신문(解放新聞)』

1945년 10월 창간된『조선민중신문』(후에『민중신문』으로 변경)과 관서에서 발행되고 있던『대중신문』이 합병되어 1946년 8월 15일부터『우리신문』으로 2호까지 발행되었다. 3호(1946.9.1.)부터『해방신문』으로 바뀌어 해방신문사가 5일간으로 발행하였다. 1948년 8월 말부터는 3일간으로, 1949년 5월부터는 격일간으로 발행 빈도가 늘었으나, 1950년 8월 2일에 QHQ의 지령에 따라 발행 금지되었다. 그 후 1952년 5월에 복간됐다[14]. 프란게문고에는『우리신문』1호와『해방신문』4호(1946.9.10.)와 5호(1946.9.20.), 그리고 116호(1948.2.5.)~303호(1949.10.9.)가 소장되어 있다(결호 있음). 가장 오랜 기간 점령당국의 사전검열 대상으로 지정된 미디어 중 하나로 종종 '출판법 위반'으로 일부 삭제·공표 금지 처분을 받았다. [사용언어] 한국어

②『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조선신보』를『신세계신문』으로 신문명을 바꿔 호수를 계승하여 385호(1948.7.18.)부터 신세계신문사가 발행하였다. 격일간. 프란게문고에는 606호(1949.10.9.)까지 소장되어 있다. [사용언어] 한국어

③『조선신보(朝鮮新報)』

조선신보사가 1946년 5월, 공화신문(대표 천환), 조선민보(대표 이종택), 조선건국신보(김진근), 오사카조선신문 4사 합동으로 오사카에 설립되어『조선신보』를 격일간으로 발간하였다[15]. 프란게문고에는 127호(1947.2.16.)~384호(1948.7.16.)가 소장되어 있다. 385호부터『신세계신문』으로 바꿔서 호수를 계승했다. [사용언어] 한국어

④『대중신문(大衆新聞)』

오사카에 소재한 대중신문사가 발행했다. 프란게문고는 9호(1946.4.12.)~17호(1946.8.7.)와 1호(1949.2.5.)~22호(1949.7.11.)를 소장하고 있다. [사용언어] 한국어

---

14) 朴慶植編『朝鮮問題資料叢書 補巻(解放後の朝鮮人運動３)』(アジア問題研究所、1984年)解説より

15)『新朝鮮新報』384号(1949.5.11.)掲載の「声明書」より

⑤『국제타임스(國際タイムス)』

동경에 있는 국제타임스사가 일간으로 발행했다. 프란게문고는 361호(1947.8.29.)~816호(1948.11.30.)를 소장하고 있다. [사용언어] 일본어

⑥『신조선신보(新朝鮮新報)』

『조선신보』의 후계지 『신세계신문』을 발간하고 있던 신세계신문사에서 분리하는 형태로 조선신보 본사가 설립됐고, 『신조선신보』를 주간으로 발행했다. 384호(1949.5.11.)~398호(1949.8.17.)가 프란게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사용언어] 일본어

⑦『조선일보동경(朝鮮日報東京)』

동경 조선일보사가 일간으로 발행했다. 구독료는 '일반 1개월 100엔'이었다. 1호(1947.1.27.)~350호(1948.8.11.)를 소장하고 있다. [사용언어] 일본어

⑧『국제일일신문(國際日日新聞)』

도쿄에 소재한 국제일일신문사가 일간으로 발행했다. 프란게문고는 257호(1947.10.1.)~658호(1949.10.5.)를 소장하고 있다. [사용언어] 일본어

⑨『해방신문(解放新聞)』(大阪)

해방신문사 대판 지국이 발행했다. 프란게문고는 1호(1948.5.14.)~8호(1948.5.29.)를 소장하고 있다. [사용언어] 일본어

参考文献

「メリーランド大学所蔵プランゲ文庫～占領期出版物は宝の山～」『国立国会図書館月報』657号, 2016年 1月, pp.6～13: 日本.

小林聡明(고바야시 소메이)(2007),『在日朝鮮人のメディア空間: GHQ占領期における新聞発行とそのダイナミズム (ブックレット)』, 風響社.

_____(2010),「GHQ占領期における在日朝鮮人雑誌の書誌的研究」『人文学研究所報』 No.43, 神奈川大学人文学研究所, pp.38～50: 日本.

_____(2012),「GHQ占領期における在日朝鮮人団体機関紙の書誌的研究」『Intelligence』12, pp.38～50: 日本.

小林知子(고바야시 도모코)(1992),「GHQによる在日朝鮮人刊行雑誌の検閲」『在日朝鮮人史研究』22号, pp.84～98: 日本.

_____(1994),「GHQの在日朝鮮人認識に関する一考察-GII民間諜報局定期報告書を中心に」『朝鮮史研究会論文集』32号, pp.165～192: 日本.

宮本正明(미야모토 마사아키)(2000),「解放後在日朝鮮人史研究とプランゲ文庫·覚書」プランゲ文庫展記録集編集委員会編集『占領期の言論·出版と文化:「プランゲ文庫』展·シンポジウムの記録」早稲田大学·立命館大学: 日本.

무라카미 나오코(2005),「프란게 문고내 재일조선인 발행신문에 나타난 제주4·3 인식」제주4·3연구소『4·3과 역사』5호, pp.291～321.

朴慶植編(1984),『朝鮮問題資料叢書補巻(解放後の朝鮮人運動 3)』, アジア問題研究所.

朴慶植編(2001),『在日朝鮮人関係資料集成: 戦後編 第8巻』, 不二出版.

山本武利(야마모토 다케토시)(1996),『占領期メディア分析』, 法制大学出版局: 日本.

_____(2003),「占領下のメディア検閲とプランゲ文庫(特集被占領下の言語空間)」『文学』4(5)[10], pp.2～10, 岩波書店: 日本.

(村上尚子)

(강경희 역)

資料解題

プランゲ文庫 済州記事 資料集 – 在日朝鮮人メディア(II)

本資料集は、解放後から1949年頃までに日本で発刊された新聞·機関紙·通信などに掲載された済州関連記事を収集·翻訳し公開する済州学研究センターのプロジェクト第二弾の成果物である。同プロジェクトは、解放直後の済州に関する記事を収集し、研究者だけでなく、広く市民がこれらの資料に身近に触れ、容易にアクセスできることを目的としており、そのために記事を翻訳して収録した。今後これらの記事が活用され、解放直後の済州社会や在日済州人に関する理解や議論が深まることを願っている。

プロジェクト第二弾の本巻には、当時、日本で在日朝鮮人が発行していた新聞·機関紙·通信のなかから、通信6タイトル、団体機関紙12タイトル、新聞9タイトルを選定し(各タイトルの詳細は後述する)、それらに掲載されている済州関連記事を抜粋して収録した。

日本が敗戦した時、200万人以上の朝鮮人が様々な要因で日本に在留していたが、朝鮮半島が植民地支配から解放されると多くの人びとは故郷を目指して帰って行った。しかし、日本にしか生活基盤がなかったり、帰郷の時期を延期せざるをえない等、様々な事情から約60万人と言われる人びとが、将来の帰国を準備しつつ、日本で引き続き生活した。(その中には多くの済州島出身者も含まれている。)彼らは、敗戦直後の混沌とした日本において、同胞同士、支え合って生活しながら、祖国の情勢に高い関心を持っていた。そのことは日本各地で朝鮮人の団体や機関、または個人が発行していた多数の新聞、通信、機関紙、雑誌の内容から明らかであり、本巻に収録された記事からも読み取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

本資料集に収録された記事は、日本の国立国会図書館がプランゲ文庫で収集しマイクロフィルム化したものを印刷した。

プランゲ文庫とは

プランゲ文庫(The Gordon W. Prange Collection)は、日本の敗戦後、日本を占 領統治した連合国最高司令官総司令部(GHQ/SCAP)が検閲目的で収集した出版物等のコレクションである。GHQ/SCAPは1945年9月[1]から1949年10月末まで、「連合軍の占領目的遂行に有害な情報が一般に伝播するのを防止するため」、日本全域で出版物や郵便、脚本、映画、放送、電話、電信といった民間の通信報道活動すべてに対して検閲を実施していた。出版物に関しては、事前検閲の場合は出版前のゲラを、事後検閲の場合は出版物2部を提出することが義務付けられていた(ゲラと出版物１部は検閲後に返却された)。したがって、コレクションの規模は膨大である。当時、検閲業務を担当したのは、GHQ/SCAPのG-2(参謀第二部)として、またアメリカ太平洋陸軍(後に極東軍)のG-2として機能したCIS(民間諜報局Civil Intelligence Section)[2]傘下のCCD(民間検閲支隊Civil Censorship Detachment)[3]である。出版物はCCD内のPPB(プレス･映画･放送部門 Press, Pictorial, and Broadcast Division) が検閲した。

1949年10月に検閲制度が終了し、CCDが廃止されるに際して、CCDに保管されていた資料のうち図書、雑誌、新聞等が米国メリーランド大学に移管されることになった。その経緯は国会図書館ホームページに明記されている通りであるが[4]、同資料群の歴史的価値を重視しメリーランド大学への移管に尽力した歴史学者ゴードン･W･プランゲ博士(Dr. Gordon William Prange)の名をとって、「プランゲ文庫」と命名された。プランゲ文庫は、図書･パンフレット約71,000タイトル、雑誌約13,800タイトル、新聞･通信約18,000タイトル、その他、報道写真や地図やビラ類など多種多様な資料を所蔵している[5]。

本資料集の作成にあたって調査員が閲覧･印刷した資料は、日本の国会図書館が保有するプランゲ文庫内資料のマイクロフィルムである。同国会図書館は1992年からメリーランド大学と共同して、プランゲ文庫所蔵資料の目録作業とマイクロ化を実施した。1997年には国会図書館ですべての雑誌の公開が完成した。また、新聞･通信については、メリーランド大学によってマイクロフィルム化された資料を、国会図書館が購入し2003年にはすべて公開した。これらのマイ

1) 1945年9月10日SCAPIN18

2) 小林知子(1994)、168-169頁。同論文によれば、民間諜報局が収集した情報はワシントンの国務長官にまで 送付されていたという。

3) CCDは東京、大阪、福岡、札幌に地区本部をもつ巨大な組織だった。「その人員数はピーク時の1947年に日本人検閲者8,100人を筆頭に、米軍属、将兵など総数8,700人にもなった。」(山本(2001)6頁。)

4) https://rnavi.ndl.go.jp/kensei/entry/Prange.php(2019年10月31日参照)
ゴードン･W･プランゲ(1910-1980)は、当時、米国メリーランド大学を休職し、GHQ/SCAPのG-2で戦史の編纂作業に携わっていた。メリーランド大学では、移管された資料を整理し、1978年に「プランゲ文庫：1945-1952年日本における連合国の占領」と命名した。

5) 国立国会図書館月報(2016.1)、7頁。

クロフィルムは、国会図書館の利用者登録をし、東京本館の憲政資料室で利用申請をすれば、その場で閲覧·プリントアウトすることができる。2004年10月から国立国会図書館オンライン(https://ndlonline.ndl.go.jp/#!/)でプランゲ文庫に所蔵されているメディアのタイトルを検索できるようになった。また、プランゲ文庫所蔵メディアのうち雑誌記事および新聞記事については、NPO法人インテリジェンス研究所が「20世紀メディア情報データベース」(http://20thdb.jp/)を会員を対象に公表しており、各雑誌·新聞にどのような記事が掲載されているのか検索することが可能である(新聞については一部のみで在日朝鮮人刊行新聞は含まれていない)。ただし、どちらのデータベースにおいても、記事本文を見ることはできず、記事本文を閲覧するためには国会図書館東京本館の憲政資料室まで足を運ばなくてはいけない。

プランゲ文庫内の在日朝鮮人刊行メディア

プランゲ文庫は、敗戦直後から約5年間の日本の状況を知るうえで大変重要な資料群であると同時に、なかには在日朝鮮人が発行した多数のメディアが含まれているため、当時の在日朝鮮人の生活や活動について知ることのできる貴重な財産と言える。というのも、在日朝鮮人が当時発行していた新聞や雑誌、機関紙などのほとんどが散逸しているからである。一部の機関や団体が保管しているものを除いては、個人が保有しているものに限られ、その数は極めて限られている[6)]。したがって、GHQ/SCAPが収集したプランゲ文庫内の在日朝鮮人の新聞·機関紙は、地方で発行されたものも含め、他では探すことが困難なものが大半である。
プランゲ文庫に在日朝鮮人刊行の新聞や雑誌が多数所蔵されていることから、日本の敗戦後(すなわち朝鮮の解放後)、GHQ占領統治下の日本において、在日朝鮮人の出版活動が各方面で盛んに展開されていたことが分かる。小林聡明氏の研究によれば、新聞·ニューズレターは100タイトル以上あり[7)]、雑誌については、38タイトル発行され、そのうち32タイトルがプランゲ文庫に所蔵されている[8)]。また、機関紙についてはプランゲ文庫に所蔵されている29タイトルのリストが紹介されている[9)]。新聞·通信をはじめ、在日朝鮮人メディアが当時、全体としてどれほど存在し、そのうちどれくらいプランゲ文庫内外に保管されているのか、またそれぞれのメディアが果たした役割など、いまだ全貌が把握されていないのが現状である。

---

6) これまでに発刊された資料集としては、以下のものがある。朴慶植『朝鮮問題資料叢書　補巻　解放後の在日朝鮮人運動　III』(1984)、『在日朝鮮人関係資料集成〈戦後編〉』第4巻(2000)、第8巻(2001)、第9巻(2001)。これらの資料集が、この分野の研究に果たした役割は大きい。ただ欠号も多く、各資料集の主旨に応じて新聞の一部分のみを掲載しているものもある。
7) 小林聡明(2007)4頁。
8) 小林聡明(2010)
9) 小林聡明(2012)、50頁。

検閲について

記事を参照する際には、検閲制度の下で書かれた記事であるということを認識しておかなくてはならない[10]。先述のように、収集目的は検閲であり、GHQ/SCAPが1945年9月中旬に発令した10カ条の「プレスコード(日本出版法)」に基づいて検閲が実施された。社会的影響力が大きかったり、問題視された出版物は、発行前にCCDのチェックを受ける事前検閲が義務付けられていた。プレスコード違反とみなされた場合は、削除や訂正、出版禁止などの処分を受けた。占領期を通してプレスコードは不変だったが、GHQの政策変化に伴う検閲方針の変化に対応して、検閲官のための「キーログ」、「検閲要綱」が作成されていた[11]。漸次的に事後検閲へと移行し、新聞·通信については1948年7月に完全に事後検閲へと移行した。最後の段階まで事前検閲の対象だった在日朝鮮人メディアは6タイトルあった(『国際タイムス』『朝鮮新聞』『朝鮮共和通信』『解放新聞』『民青時報』『Korean Information Press』)[12]。図書館移行時の調査によれば、当局に「左翼系紙」と見なされていたメディアのなかで、『解放新聞』と『民青時報』が「出版法違反」として一部削除·公表禁止の処分をしばしば受けていたことが分かる[13]。

本巻収録資料の収集と翻訳について

上述のように、本プロジェクトの目的は、プランゲ文庫所蔵の在日朝鮮人メディアに掲載された「済州関連記事」を収集するものである。済州学研究センターの任承姫研究員がプロジェクトの企画から出版に至るまでの煩雑な実務責任を担っている。プロジェクト2年目の今年(2020年度)は、コロナ感染拡大に伴い韓日間の往来が不可能になり、姜京希研究員と金順任研究員が日本の国会図書館に赴いて資料を閲覧·収集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また、日本国内でも感染拡大を防ぐために外出自粛·移動自粛が要請される状況が断続的に続き、国会図書館も入館制限が行なわれた。そのため、本巻には、昨年度に収集した資料および、今年度日本に居住する村上諮問委員が数回、国会図書館に通い収集·印刷した資料を収録した。今年度は調査がこのように制限された状況だったため、済州に関する記事を全件調査することは困難であった。
したがって、昨年度と同様ではあるが、今回の調査も、村上諮問委員が以前に作成したリスト(2003—2004年にかけて日本国会図書館のプランゲ文庫に所蔵されている在日朝鮮人刊行メディアのなかから済州4·3に言及した記事を探し作成したリスト)に基づいて実施された。本巻に

10) 占領下での在日朝鮮人刊行物に対する検閲を検証した論文として、小林知子(1992)がある。
11) 山本(2003)3～4頁。
12) 山本(1996)315-316頁。
13) 山本(1996)412頁。

収録されている記事の大半を4·3関連記事が占めるのは、そのためであることを、あらかじめ断わっておく。なお、昨年度収集された資料のなかには、姜京希研究員、金順任研究員が同リストに無い記事を発掘し補充したものが含まれている。今後さらに、4·3関連記事以外の済州関連記事を調査·収集し、次巻以降の資料集に追加収録することでご容赦いただきたい。

在日朝鮮人刊行メディアは우리말または日本語で書かれている。本巻に掲載されている記事の内容は、우리말で書かれている記事を朴贊殖研究員が書き起こし、日本語で書かれている記事を姜京希研究員と金順任研究員が翻訳した。

本巻に収録した各メディアの概要

(1) 通信

①『朝鮮情報』(九州)

福岡に所在する朝鮮情報九州支社が発行していた『朝鮮特新』をNo.272(1948.7.27.)から『朝鮮情報』と改題し、号数を継承した。No.554(1949.9.30.)までプランゲ文庫に所蔵されている。日刊。[使用言語] 日本語

②『朝鮮情報』(関西)

大阪に所在する朝鮮情報関西支社が日刊で発行した。プランゲ文庫には495号(1949.1.10.)から602号(1949.8.4.)まで所蔵されている。[使用言語] 日本語

③『新亞通信』

東京に所在する東亜通信社の通信『東亜通信』を『新亞通信』と改題し、号数を継承して292号(1948.7.27.)から日刊で発行された。プランゲ文庫は646号(1949.9.30.)まで所蔵している。[使用言語] 日本語

④『共和通信』

東京に所在する共和通信社が1947年12月17日に1号を発行し、188号(1948.8.5.)までプランゲ文庫に所蔵されている。20号までの出版社は「朝鮮共和通信東京本社」と記載されている。[使用言語] 日本語

⑤『東亞通信』

東京に所在する東亜通信社の日刊通信として1号(1947.8.1.)から291号(1948.7.26.)まで発行された。プランゲ文庫には全期間の通信が収録されている(欠号あり)。292号(1948.7.27.)から『新亜通信』と改題した。[使用言語] 日本語

⑥『朝鮮特新』

朝鮮情報九州支社がNo.1(1947.9.1.)からNo.271(1948.7.26.)まで日刊で発行した。その後、『朝鮮情報』と改題し号数を引き継いだ。なお、プランゲ文庫は、東京に所在する朝鮮情報社が発行した日刊の『朝鮮特新』もNo.263(1947.1.5.)からNo.544(1947.11.27.)まで所蔵している。[使用言語] 日本語

(2) 機關紙

①『民主新聞』

在日本朝鮮居留民団中央総本部(東京)の機関紙。1947年2月21日に創刊された『民団新聞』が21号(1947.11.1)から『民主新聞』と改題された。週刊。プランゲ文庫は91号(1949.9.24.)まで所蔵している。[使用言語] 日本語

②『民青時報』

在日本朝鮮民主青年同盟中央の機関紙として、東京に所在する朝鮮民主青年同盟総本部が1947年7月5日に１号を創刊。1号から36号までは旬刊で、37号から54号までは週刊。日本占領当局に「左翼系紙」とみなされ、最長の48年7月まで事前検閲の対象とされていた。22号(1948.5.5.)から23号(1948.8.25.)のあいだ約３ヶ月間、発行が中断されている。6号(1947.8.15.)の記事「全国機関紙発行状況」によれば『民青時報』の発行部数は2万部である。事後検閲移行後の紙面上にも検閲のマークが多く見られる。[使用言語] 日本語

③『民青大阪』

在日朝鮮民主青年同盟大阪本部の機関紙。1949年1月25日に第１号が発行され、5号(1949.4.20.)までプランゲ文庫に所蔵されている。当局への「新聞報告」によると、発行部数は500～1,000部程度であり、大阪府内の在日朝鮮民主青年同盟(民青)の支部を通じて盟員に配布された。占領当局で出版物の検閲を担当したPPBは同機関紙の傾向を「極左」と報告している。ゲラの紙面上に検閲のマーク見られる。[使用言語] 日本語

④『大阪民団時報』

在日本朝鮮居留民団大阪本部の機関紙として1948年5月1日に創刊され、8号(1948.10.25.)から発行人の名前が「在日大韓民国居留民団大阪本部」と改められた。プランゲ文庫には８号まで所蔵されている。「新聞報告」によると発行部数は3,000部で、全国の居留民団各本部·支部および各機関などに郵便で配布された。PPBの検査員は「反共紙Anti-communist paper」と報告している。[使用言語] 日本語

⑤『女盟時報』

在日本朝鮮民主女性同盟総本部(東京)が発行した機関紙。プランゲ文庫には1号(1947.12.29.)から16号(1949.9.30.)まで所蔵されている。[使用言語] 朝鮮語

⑥『学同ニュース』

在日本朝鮮学生同盟関東本部の機関紙。1号(1948.6.25.)から5号(1949.3.5.)が所蔵されている。その後、『学同関東時報』に改題した。[使用言語] 日本語·朝鮮語

⑦『学同関東時報』

在日本朝鮮学生同盟関東本部の機関紙として、『学同ニュース』を改題して号数を継承した。プランゲ文庫にはNo.7(1949.6.1.)と、No.8·9(1949.8.3.)が所蔵されている。[使用言語] 日本語

⑧『朝聯神奈川』

在日本朝鮮人連盟(조련)神奈川県本部の機関紙。1947年7月に創刊され、23号(1949.6.21.)までプランゲ文庫に所蔵されている(3号と10号が欠号)。[使用言語] 日本語

⑨『文連時報』

東京の朝鮮文化諸団体の相互扶助·連絡·協議機関であった「在日本朝鮮文化団体連合会」の機関紙として発行された。同連合会の加盟団体は一時、80団体にものぼったという。プランゲ文庫には3号(1947.9.20.)から9号(1948.8.5.)が所蔵されている。[使用言語] 日本語

⑩『文教新聞』

東京に所在する朝鮮文化教育会本部の機関紙。1947年9月15日に創刊され、57号(1949.4.11.)までプランゲ文庫に所蔵されている。週刊。『在日朝鮮人関係資料集成:戦後編 第8巻』の説明 によれば、発行部数は5万部。[使用言語] 日本語

⑪『東京朝聯ニュース』

在日本朝鮮人連盟東京本部書記局が1947年12月8日に1号を発刊した。20号(1948.9.10.)までプランゲ文庫に所蔵されている(2号は欠号)。[使用言語] 日本語

⑫『科學技術時報』

東京の在日本朝鮮科学技術協会が発行。1号(1948.9.20.)から15号(1949.3.1.)が所蔵されている(7号と8号は欠号) [使用言語] 日本語

(3) 新聞

①『解放新聞』

1945年10月に創刊された『朝鮮民衆新聞』(後に『民衆新聞』と改題)と、関西で発行されていた『大衆新聞』が合併し、1946年8月15日から『우리신문』として2号まで発行された。3号(1946.9.1.)から『解放新聞』と改題され、解放新聞社が5日刊で発行した。1948年8月末からは3日刊に、1949年5月からは隔日刊になり、刊行頻度が増えたが、1950年8月2日にQHQの指令により発行禁止となった。その後、1952年5月に復刊した[14]。プランゲ文庫には『우리신문』1号と『解放新聞』4号(1946.9.10.)と5号(1946.9.20.)、そして116号(1948.2.5.)～303号(1949.10.9.)が所蔵されている(欠号あり)。最も長い期間、占領当局の事前検閲対象に指定されたメディアの一つであり、しばしば「出版法違反」として一部削除·公表禁止の処分を受けた。[使用言語] 朝鮮語

②『新世界新聞』

『朝鮮新報』を『新世界新聞』と改題し号数を継承して385号(1948.7.18.)から新世界新聞社が発行した。隔日刊。プランゲ文庫文庫には606号(1949.10.9.)まで所蔵されている。[使用言語] 朝鮮語

③『朝鮮新報』

朝鮮新報社が1946年5月、共和新聞(代表：千桓)、朝鮮民報(代表：李鍾沢)、朝鮮建国新報(金晋根)、大阪朝鮮新聞4社の合同により大阪に設立され、『조선신보』を隔日刊で発刊した[15]。プランゲ文庫には127号(1947.2.16.)～384号(1948.7.16.)が所蔵されている。385号から『新世界新聞』と改題し、号数を引き継いだ。[使用言語] 朝鮮語

14) 朴慶植編『朝鮮問題資料叢書 補巻(解放後の朝鮮人運動3)』(アジア問題研究所、1984年)解説より。
15) 『新朝鮮新報』384号(1949.5.11.)掲載の「声明書」より。

④『大衆新聞』

大阪に所在する大衆新聞社が発行した。プランゲ文庫は9号(1946.4.12.)～17号(1946.8.7.)と、1号(1949.2.5.)～22号(1949.7.11.)を所蔵している。[使用言語] 朝鮮語

⑤『国際タイムス』

東京にある国際タイムス社が日刊で発行した。プランゲ文庫は361号(1947.8.29.)～816号(1948.11.30.)を所蔵している。[使用言語] 日本語

⑥『新朝鮮新報』

『朝鮮新報』の後継紙『新世界新聞』を発刊していた新世界新聞社から分離するかたちで朝鮮新報本社が設立され、『新朝鮮新報』を週刊で発行した。384号(1949.5.11.)～398号(1949.8.17.)がプランゲ文庫に所蔵されている。[使用言語] 日本語

⑦『朝鮮日報 東京』

東京朝鮮日報社が日刊で発行した。購読料は「一般1ヶ月100円」だった。1号(1947.1.27.)～350号(1948.8.11.)を所蔵している。[使用言語] 日本語

⑧『國際日日新聞』

東京に所在する国際日日新聞社が日刊で発行した。プランゲ文庫は257号(1947.10.1.)～658号(1949.10.5.)を所蔵している。[使用言語] 日本語

⑨『解放新聞』(大阪)

解放新聞社の大阪支局が発行した。プランゲ文庫は1号(1948.5.14.)～8号(1948.5.29.)を所蔵している。[使用言語] 日本語

参考文献

- 「メリーランド大学所蔵プランゲ文庫～占領期出版物は宝の山～」『国立国会図書館月報』657号、2016年1月、pp.6-13：日本。
- 小林(2007)『在日朝鮮人のメディア空間 ： GHQ占領期における新聞発行とそのダイナミズム（ブックレット)』風響社。
- 小林(2010)「GHQ占領期における在日朝鮮人雑誌の書誌的研究」『人文学研究所報』No.43、神奈川大学人文学研究所、pp.38-50：日本。
- 小林聡明(2012)「GHQ占領期における在日朝鮮人団体機関紙の書誌的研究」『Intelligence』12, pp.38-50：日本。
- 小林知子(1992)「GHQによる在日朝鮮人刊行雑誌の検閲」『在日朝鮮人史研究』22号、pp.84-98：日本。
- 小林知子(1994) 「GHQの在日朝鮮人認識に関する一考察-GII民間諜報局定期報告書を中心に」『朝鮮史研究会論文集』32号、pp.165-192：日本。
- 宮本正明(2000) 「解放後在日朝鮮人史研究とプランゲ文庫·覚書」 プランゲ文庫展記録集編集委員会編集『占領期の言論·出版と文化 ：「プランゲ文庫」展·シンポジウムの記録』早稲田大学·立命館大学：日本。
- 무라카미 나오코(2005)「프란게 문고내 재일조선인 발행 신문에 나타난 제주4·3인식」제주4·3연구소『4·3과 역사』5호, pp. 291-321。
- 朴慶植編(1984)『朝鮮問題資料叢書 補巻(解放後の朝鮮人運動３)』アジア問題研究所。
- 朴慶植編(2001)『在日朝鮮人関係資料集成 ： 戦後編 第8巻』不二出版。
- 山本武利(1996)「占領期メディア分析」法制大学出版局：日本。
- 山本武利(2003)『占領下のメディア検閲とプランゲ文庫(特集被占領下の言語空間)』『文学』4(5) [10]、pp.2～10、岩波書店：日本。

(村上尚子)

- 차 례 -

일러두기 ····· 2
발간사 ····· 4
자료해제 ····· 6

■ 통신(通信)

【조선정보(구주)(朝鮮情報)(九州)】

1. 제주도의 폭동단 귀순을 권고(1948.09.01.) ····· 43
2. 공산당 게릴라 부대 3천여 명 귀순(1948.09.18.) ····· 44
3. 전남 사건의 상세 보고 강연회 개최(1948.11.16.) ····· 45
4. 제주도 인민무장혁명군 계엄령 하에 경찰대와 교전(1948.12.18.) ····· 46
5. 국군의 사기 더욱더 왕성-제주도의 계엄령 해제(1949.010.01.) ····· 47
6. 제주도 인민항쟁 여전히 계속(1949.01.14.) ····· 48
7. 제주도 인민무장 유격대 각 방면에서 활약(1949.02.02.) ····· 49
8. 응원경찰대를 격려(1949.02.26.) ····· 50
9. 공산주의 폭동 상당히 결의 제주도 30만 도민 총궐기(1949.03.05.) ····· 51
10. 제주도민 구제미는 6만석이 필요(1949.03.16.) ····· 52
11. 제주도민을 구하자(1949.03.16.) ····· 53
12. 제주 앞바다에 소련 잠수함 출몰(1949.03.17.) ····· 54
13. 5천 톤급의 소련선 출현 공산폭동에 무기 공급인가?(1949.03.17.) ····· 55
14. 제주도 폭동 궤멸 목전(1949.03.22.) ····· 57
15. 국군에게 위문 두 화차- 한 화차는 이재민에게 돌리다(1949.03.22.) ····· 58
16. 제주도 북제주군 국회의원 선거 시행(1949.03.23.) ····· 59
17. 이 대통령 지방시찰 출발(1949.04.23.) ····· 60
18. 북한의 공산군 남공 실력 없음(1949.04.28.) ····· 61
19. 미소 접근 이래 38선 철폐는 불가능(1949.05.02.) ····· 63
20. UN 한국위원단 제주도 시찰행(1949.05.09.) ····· 64
21. 제주도 지사로 김영화 씨(1949.05.09.) ····· 65
22. 제주도 갑을 양구 국회의원 선거(1949.05.14.) ····· 66

23. UN 한위 제주도 시찰 보고-공보 16호에 발표(1949.05.18.) ····· 67
24. 제주도 재선거 유권자에게 감사 노(盧) 선거위원장 담화 발표(1949.05.18.) ····· 68
25. 제주도 치안 확립되다 공산반도 토벌 응원경찰대 귀경(1949.05.20.) ····· 69
26. 제주도의 적구 일소되다 다시 평화 건설에 착수(1949.05.20.) ····· 70
27. 제주도 폭동 완전 진압- 11일까지 귀순자 3,589명(1949.06.13.) ····· 71
28. 이재민 구제의 후생국책 발행(1949.08.06.) ····· 73
29. 목포형무소 죄수 폭동을 일으키다 3백여 명 ○산악지대로 도망치다(1949.09.16.) ····· 74

【조선정보(관서)(朝鮮情報)(關西)】

30. 5월 10일에 제주도 국회의원 선거 (1949.03.24.) ····· 77
31. 과거를 잊고 선량한 대한국민이 되어라 제주도 시찰의 이(李) 대통령 담(談)(1949.04.11.) ··· 78
32. 한위(韓委) 김 내무장관과 요담(1949.04.14.) ····· 79
33. 사상(死傷) 9만 가옥, 가축 등 15원 제주도 폭도에 의한 피해 막대(1949.04.15.) ····· 80
34. 평온 속에서 가옥 건조 신(申) 국방장관, 제주도 시찰 이야기(1949.04.15.) ····· 81
35. 한위(韓委), 제주도 시찰을 연기(1949.04.20.) ····· 82
36. 한위(韓委), 25일부터 전남지구 시찰행(1949.04.22.) ····· 83

【신아통신(新亜通信)】

37. 제주도 동란 사건의 전모(1949.07.30.) ····· 87
38. 제주도 현지답사기(1) (대구법조기자단)(1948.08.09.) ····· 94
39. 제주도 현지답사기(2)(1948.08.10.) ····· 96
40. 제주도 현지답사기(3)(1948.08.11.) ····· 97
41. 제주도 현지답사기(4)(1948.08.12.) ····· 98
42. 남조선인민대표자회의(제2일)(1948.08.24.) ····· 100
43. 피고에 대한 총살형은 부당 인권옹호연맹 박 대령 사건에 성명(1948.08.30.) ····· 101
44.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공개 제주도사건조사단 언명(1948.09.01.) ····· 103
45. 제주도조사단 목적 수행하지 않고 귀경(1948.09.06.) ····· 104
46. 남조선의 치안은 양호 이 공관장 기자회견(1948.09.09.) ····· 105
47. 제주도 사건의 재검토(1948.09.21.) ····· 107
48. 제주도사건 문 중위 등에 총살형 판결(1948.09.25.) ····· 109
49. 문 중위 등의 총살 집행(1948.09.25.) ····· 110
50. 제주도 교전 격화 경관 5백5십2명 사망(1948.10.02.) ····· 111
51. 제주도 4·3사건 피고 2명에 사형 구형(1948.10.07.) ····· 112

52. 제주 4·3사건 관계자에 대한 구형 이어짐(1948.10.12.) ····· 114
53. 제주도인민군 경찰부대를 격파(1948.10.23.) ····· 115
54. 제주사건의 판결언도 무기 연기(1948.10.27.) ····· 116
55. 제89차 국회 본회의 열리다 반란사건 진상 질문에서 소연(騷然)(1948.10.28.) ····· 117
56. 반란사건, 국방부 발표 제5호(1948.10.29.) ····· 119
57. 제주도는 대체로 평온 내무부 차관보 보고(1948.10.29.) ····· 121
58. 반란사건 국방부 발표 제7호(1948.11.02.) ····· 122
59. 제주도의 인민항쟁 점점 치열(1949.02.09.) ····· 123
60. 5,6백의 반도 실력 훈련병 6만에 필적(1949.03.22.) ····· 124
61. 인민유격대 3시(市) 78군(郡) 활동 인민위원회 부활지구 증가(1949.03.24.) ····· 126
62. 이 대통령 제주도 시찰(1949.04.11.) ····· 128
63. 북한 전역의 공산주의자 섬멸의 향연 ○ 참모총장 기자회견(1949.04.11.) ····· 129
64. 제주도는 평온, 치안 확보에 재정적 원조 요망 이 대통령 라디오 방송(1949.04.12.) ····· 131
65. 제주도 시찰에 한위(韓委) 제2분과 위원 18일 출발(1949.04.15.) ····· 133
66. 한위 악천후로 제주도 시찰 중지(1949.04.20.) ····· 134
67. 5월 10일에 제주도 선거 유권자의 90% 등록(1949.04.29.) ····· 135
68. 제주도지사 경질(1949.05.09.) ····· 136
69. 북제주 선거에 양씨 당선(1949.05.17.) ····· 137
70. 남조선 무장항쟁의 전모 노력자지(勞力者紙) 보도(1949.09.01.) ····· 138
71. 목포형무소에 폭동 발생 수인(囚人) 1천3백명 군경과 교전 중(1949.09.16.) ····· 140
72. 남조선 각 형무소에 비상경계(1949.09.20.) ····· 141

【공화통신(共和通信)】

73. 지난 3일 제주도 사건의 상보(1948.04.16.) ····· 145
74. 제주도 사건의 피해 정보(1948.04.18.) ····· 146
75. 남선(南鮮) 각지의 폭동 격화 일로(1948.04.25.) ····· 147
76. 경무부 이(李) 공보국장 제주도에서 서울로 귀환(1948.05.07.) ····· 148
77. 제주도의 단선 반대 항쟁 선거일을 앞두고 격화하다(1948.05.11.) ····· 149
78. 남조선 선거의 총투표율은 90%에 달할까?(1948.05.13.) ····· 150
79. 400여명의 무장군 증파를 제주도 비상경비사령관이 중앙부에 요청(1948.05.15.) ····· 151
80. 제주도 입후보자(1948.05.15.) ····· 152
81. 남제주는 오용국(현 입법의원) 씨가 당선 북제주 양선거구는 투표 결과 무효(1948.05.21.) ····· 153
82. 북제주 갑을 양선거구의 재선거를 선언(1948.05.28.) ····· 154
83. 제주도 각지에서 아직 계획적으로 단선을 반대하는 군중 경찰을 습격,
경찰대 사령관에게 SOS(1948.05.28.) ····· 155

84. 제주도 인민투쟁 진압 현지 파견 명령을 받은 네 경관의 사직에 군사재판인가?(1948.05.29.) ·· 156
85. 애국학생은 구국투쟁에 총진격 단정 반대 전국학생투위 성명(1948.06.01.) ····· 157
86. 서울시 제주도 이재민에게 구제 물자를 보내다(1948.06.10.) ····· 158
87. 제주도 재선거인가 딘 군정장관 행정명령 122호 발표(1948.06.13.) ····· 159
88. 아아-민족 비극의 발상지「제주」동족상잔의 참혈전을 결국 야기하다(1948.06.13.) ···· 160
89. 제주도 사건의 검거 계속 한다(1948.06.19.) ····· 161
90. 제주도 사건에 대한 각 당의 견해(1948.06.19.) ····· 162
91. 제주도 인민항쟁의 해결은 부패 관리 숙청으로부터(1948.06.20.) ····· 164
92. 제주도 사건 현지보고 귀순 권고에 혈서 반항, 경비대원이 이야기 하다(1948.06.21.) ···· 165
93. 제주 사건에 대한 조(趙) 경무부장 담(談)(1948.06.25.) ····· 167
94. 남조선의 신사태에 처해서 남북 제(諸)정당, 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 개최,
평양에서(1948.07.09.) ····· 168
95. 박헌영 씨 보고(2)(1948.07.24.) ····· 172

【동아통신(東亞通信)】

96. 제주도에 인민항쟁(1948.04.07.) ····· 175
97. 등록의 그늘에 희생자 2십수명 제주도비상경비사령부 발표(1948.04.14.) ····· 176
98. 제주도에 민전(民戰)조사단 파견(1948.04.24.) ····· 178
99. 남조선 각지 선거 방해 사건(1948.05.12.) ····· 179
100. 경비대 경찰지서를 습격 제주도의 인민항쟁 격화(1948.05.19.) ····· 181
101. 제주도 정예경찰부대 파견(1949.05.19.) ····· 182
102. 제주도의 선거 무효화 건의(1948.05.21.) ····· 183
103. 북제주 재선 6월 23일 딘 장관 양구 무효선포(1948.05.27.) ····· 184
104. 제주행 회피한 철도경찰관 군재판(1948.05.27.) ····· 185
105. 제주 저지리 전소(1948.06.03.) ····· 186
106. 제주 소요 23일까지 진압(1948.06.5.) ····· 187
107. 제주도 선거 불능 상태 선위 기일 연기 요청(1948.06.10.) ····· 188
108. 자료「총선거와 경찰」조경무부장 발표(2)(1948.06.23.) ····· 189
109. 제주 소요 수습책은 불변 조 경무부장 담화 발표(1948.06.24.) ····· 191
110. 제주도 재선, 무기연기(1948.06.29.) ····· 193
111. 정치적 환경 개혁만이 해결의 열쇠 제주도 사건에 제우회 요로(要路)에
청원서 제출(1948.07.03.) ····· 194
112. 도내 사태 수습에 민의 존중 임 도지사 소신 피력(1948.07.21.) ····· 196
113. 태풍으로 벼농사 전멸 제주의 식량사정 우려(1948.07.24.) ····· 197
114. 전남 이재민에 주택자금(1948.07.26.) ····· 198

【조선특신(朝鮮特新)】

115. 제주도에 대폭동 발생 무장경관 다수 현지로 파견(1948.04.07.) ····· 201
116. 경무부에서 제주도에 선무반을 파견(1948.04.13.) ····· 203
117. 서귀포어업조합 분할 독립(1948.04.19.) ····· 204
118. 제주도의 어업계 일대 비약(1948.04.19.) ····· 205
119. 제주도의 경비상황 조부장의 발표(1948.05.10.) ····· 206
120. 이승만 박사는 무투표 제주도는 입후보 없음(1948.05.10.) ····· 207
121. 제주도의 선거 보고 없음(1948.05.18.) ····· 208
122. 제주도에 경찰기동대 폭동은 여전히 계속(1948.05.19.) ····· 209
123. 제주도의 게릴라대 3천 동굴에서 물고기 잡으러도 나온다(1948.05.22.) ····· 210
124. 북제주도 재선거 갑, 을 양구 6월 23일(1948.05.27.) ····· 211
125. 제주도 증원 경관대 출동 거부(1948.05.29.) ····· 212
126. 제주도 사태 점점 더 악화 심판관 · 검찰관 현지 파견(1948.06.01.) ····· 213
127. 남선 각지의 단정 반대(1948.06.05.) ····· 214
128. 제주도의 재선거는 무기 연기(1948.06.12.) ····· 215
129. 제주도 경찰대장 취침 중에 사살되다(1948.06.19.) ····· 216
130. 제주도의 폭동 늘상 치열(1948.07.05.) ····· 217

■ 기관지(機關紙)

【민주신문(民主新聞)】

131. 전력 위기에 직면하다 제주도 폭동 격화(1948.05.15.) ····· 221
132. 제주도 폭동 북선(北鮮)에서 공작대(1948.05.22.) ····· 222
133. 날이 갈수록 악화(1948.05.22.) ····· 223
134. 북제주 선거 무효 국회선거위 군정장관에게 요청(1948.05.29.) ····· 224
135. 원시생활로 돌아간 폭도 김 공안국장 담(談)(1948.05.29.) ····· 225
136. 수산의 보고 제주도 해녀 춤추는 꿈의 나라(1948.06.05.) ····· 226
137. 제주도의 소요 여전히 확대(1948.06.12.) ····· 228
138. 제주도의 재선거 무기 연기(1948.06.19.) ····· 229
139. 일본 재무장 명확히 기괴한 독도의 참사 한독당 담(談)(1948.07.03.) ····· 230
140. 한(恨)의 38도선 해결의 길은 남북통일뿐(1948.11.06.) ····· 232
141. 폭동의 진상 박연대장 이야기(1948.11.20.) ····· 233
142. 제주도의 조사 보고 이 국무총리, 기자단에 이야기하다(1949.03.26.) ····· 234
143. 내무장관의 보고, 적당한 선전·계몽이 필요 폭도는 무의식적인 주의자(1949.03.26.) ····· 235

144. 5월 10일에 선거(1949.03.26.) ····· 236
145. 제주도의 치안 목전 이 참모총장 담(談)(1949.03.26.) ····· 237
146. [영화 소개] 민족의 절규(1949.04.02.) ····· 238
147. 제1분과 위원회 제주도를 시찰(1949.04.23.) ····· 239
148. 집 없는 민중 30만 구호에 일치협력을 요망 이 대통령 부부 제주도를 시찰(1949.04.23.) ···· 240
149. 이승만 대통령 지방 민정을 시찰(1949.05.07.) ····· 241
150. 이재민 구제에 관심 이 국무총리 담화(1949.05.07.) ····· 242
151. 포학무도한 판결 해주애국청년에게(1949.05.07.) ····· 243
152. 제주도의 선거 개표(1949.05.21.) ····· 244
153. 제주도의 치안 이루어지다 장 내무차관 기자단과 회견(1949.05.21.) ····· 245
154. 제주도의 귀순자를 석방(1949.06.18.) ····· 247
155. 혼미기의 사회, 빨간 사상에의 반성(1949.07.16.) ····· 248

【민청시보(民靑時報)】

156. 인민항쟁 계속 등록소 등을 습격(1948.04.25.) ····· 253
157. 인민항쟁 격화일로 사망 60명의 대충돌(1948.05.05.) ····· 254
158. 8 · 25선거 준비 추진 남선 각지에서 활발히 전개(1948.08.25.) ····· 255
159. 박 대령 암살사건 “민족애” 때문에 저지른 행동 인권옹호연맹이 감형 요망(1948.09.15.) ····· 257
160. 사망자 50명 제주도 재차 험악화(1948.10.10.) ····· 259
161. 비행기도 출동(1948.10.10.) ····· 260
162. 반동, 섬에서 도망가다 제주도 군대도 인민편(1948.10.23.) ····· 261
163. 폭도 4명 사망 발이악에서 교전(1948.10.30.) ····· 262
164. 제주도에 폭동 재발(1948.11.03.) ····· 263
165. 소학생, 여학생까지 반란군에 가담하다 정부군이 발표한 ‘진압 전황’(1948.11.03.) ····· 265
166. 경찰을 습격(1948.11.03.) ····· 267
167. “남선 반란”의 원인과 전개 정확히 파악해라 인민투쟁의 현실
허 전(前)위원장과 1문 1답(1948.11.03.) ····· 268
168. [주장] 남조선의 인민은 봉기했다(1948.11.03.) ····· 272
169. “우리는 조선 인민의 자식” 반란군, 여수에서 인민에의 성명(1948.11.03.) ····· 273
170. 제주도 총사령 사살(1948.11.09.) ····· 275
171. 제주도에 계엄령(1948.11.23.) ····· 276
172. 경찰이 방화 제주도 항쟁(1949.01.01.) ····· 277
173. 계엄령 연장의 구실 소련 잠수함 문제 모스크바 일소(一笑)(1949.01.22.) ····· 278
174. 초토의 제주도(1949.04.06.) ····· 279
175. 8중(八中) 일반 보고 (전호부터 계속) 4, 이승만당의 매국적 음모와 인민학살(1949.07.06.) ···· 280

【민청대판(民靑大阪)】

176. 제주도의 무장항쟁에 백색테러 동원(1949.01.25.) ····· 285
177. 모스크바 남한정부의 허위를 통격(1949.01.25.) ····· 286
178. 전국적으로 전개하라 엄숙한 추도회 제주도 대정면이 시작하다(1949.02.05.) ····· 287
179. 이승만 살인정책에 실천적으로 동지 윤상철의 부군을 살해(1949.04.20.) ····· 288

【대판민단시보(大阪民團時報)】

180. 극좌의 필사 방해도 민중의 여론을 굴하지 못하고(1948.05.28.) ····· 293

【여맹시보(女盟時報)】

181. 남조선 일대는 동포 도살장(1948.12.25.) ····· 297
182. 제주도 소식(1949.02.25.) ····· 299
183. 고대하던 조국통일의 날은 왔다 전여성(全女性)들은이러스자 선언(1949.07.25.) ····· 300

【학동뉴스(學同ニュース)】

184. 이승만 정부의 초토전술(1948.01.20.) ····· 305
185. 전 지역에 확대 남선군사투쟁에 남녀학생 봉기(1948.12.10.) ····· 306

【학동관동시보(學同關東時報)】

186. [해설] 국토완정체제 완수 “조국전선” 강령 선언서를 해부한다(1949.08.03.) ····· 311
187. 공화국 남반부 정세(올해 2월 현재)(1949.08.03.) ····· 315
188. 9월 통일선거로! 국토완정체제 완수 실력으로 이 정권 타도
전조선민주전선이 되다(1949.08.10.) ····· 316

【조련가나가와(朝聯神奈川)】

189.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공개 제주도 사건 조사단 언명(1948.09.05.) ····· 321

【문련시보(文連時報)】

190. 완전통일 정부를 수립하고 내란을 방지해라(1948.07.05.) ····· 325
191. [해설] 서로 지배권 노리는 하나의 조선에 두 개의 정부(1948.08.05.) ····· 327

【문교신문(文教新聞)】

192. 제주도 폭동에 의한 피해자 37명 조부장 치안유지에 관해 성명(1948.05.10.,17.) ····· 331
193. 제주도 동란의 전모 탐관오리와 싸우는 민중(1948.08.15.) ····· 332

【동경조련뉴스(東京朝聯ニュース)】

194. 제주도 재선거 무기 연기(1948.07.10.) ····· 337

【과학기술시보(科學技術時報)】

195. 남선 반란의 의의 중국지「대공보」사설(1948.11.01.) ····· 341

■ 신문(新聞)

【해방신문(解放新聞)】

196. 단선 단정을 반대코 제주도에서 항쟁(1948.04.15.) ····· 347
197. 제주도 사건에 사직 경관을 투옥(1948.05.01.) ····· 348
198. 경기·제주에 폭동(1948.05.01.) ····· 349
199. 소요 중의 제주도 근황(1948.05.25.) ····· 350
200. 투표 부족으로 제주도 선거 무효(1948.05.25.) ····· 352

201. 디-인 군정장관 제주선거 무효 선언(1948.06.01.) ····· 353
202. 제주행을 회피한 경관 군사재판으로 처단(1948.06.01.) ····· 354
203. 북제주「국의(國議)」재선은 여전히 시행 불능 상태(1948.06.15.) ····· 355
204. 태백산맥에도 유격대(1948.06.15.) ····· 356
205. 10여명 체포를 발표 제주도(1948.06.20.) ····· 357
206. 위정자의 책임 양 김씨 제주도 문제에 언급(1948.06.20.) ····· 358
207. 제주도 사건 중대 문제화(1948.06.25.) ····· 359
208. 외국 기자가 본 남조선 단선 반대운동(1948.06.25.) ····· 361
209. 비도(比島) 후크바라합단(團) 항복의 진상(1948.07.20.) ····· 362
210. 호적에 없는 자식을 내란다고 통분하는 제주 노부들(1948.07.25.) ····· 365
211. 태풍으로 도작(稻作) 전멸 제주의 식량사정 우려(1948.08.01.) ····· 367
212. 사설 8월 15일을 맞이하야(1948.08.15.) ····· 368
213. 남조선 인민대표자 회의는 20일부터 해주에서 개최(1948.09.01.) ····· 369
214. 밀항자 101명 체포 복정(福井) 군(軍)정부 발표(1948.09.18.) ····· 372
215. 문 중위 등을 총살 제주도 박대령 사건 판결(1948.09.30.) ····· 373
216. 남조선 국방군 4천 반란 여수, 순천을 점령(1948.10.24.) ····· 374
217. 반란, 제주도에 파급(1948.10.27.) ····· 375
218. 여수 수(遂) 함락 반란 상보(詳報) 학생, 아동도 반항(1948.10.30.) ····· 376
219. 탄환 2백만 발(1948.10.30.) ····· 378
220. 반란은 영속(永續) 해방군으로 확대 김천해 씨 담(談)(1948.10.30.) ····· 379
221. 인민항쟁으로 조직화 이승만 정권에 대한 권력투쟁(1948.10.30.) ····· 380
222. 교전 부절(不絶) 제주도(1948.11.03.) ····· 382
223. 여수반란 현지보고(1948.11.03.) ····· 383
224. 양곡매입법 반대(1948.11.15.) ····· 385
225. 제주도 총무국장 피살(1948.11.15.) ····· 386
226. 800명을 사살, 제주(1948.11.30.) ····· 387
227. 시평 : 반란재판의 판결을 득고(1948.11.30.) ····· 388
228. 매국적 무차별 대량 학살 민족의 행복과 생존을 말살
조련(朝連)·반란사건 처단에 성명(1948.12.03.) ····· 390
229. 제주4·3사건 공판 재개(1948.12.15.) ····· 392
230. 정부 방화작전 제주항쟁(1948.12.18.,21.) ····· 393
231. 김일성 수상 신년사(1949.01.09.) ····· 394
232. 남조선의 장래와 재류동포의 갈 길(상)(1949.01.15.) ····· 396
233. 참(慘)! 경찰의 초토작전(1949.01.21.) ····· 398
234. 신출귀몰하는 무장항쟁대(1949.01.21.) ····· 400
235. 소탕전 또 전개(1949.01.21.) ····· 401
236. 남조선의 장래와 재류동포의 갈 길 (중)(1949.01.21.) ····· 402

237. 계엄령 지속, 제주(1949.01.27.) ····· 405
238. 사설 : 이(李)정권의 데마 본질(1949.02.15.) ····· 406
239. 부락 반분(半分)이 소실(燒失)(1949.03.06.) ····· 408
240. 삼일기념 일본국 재류조선인민대회에서 김일성 수상에 올리는 멧세-지(1949.03.06.) ····· 409
241. 조련 17회 중앙위원회 구호 해설(1949.03.06.) ····· 411
242. 폭동군의 교묘한 전술(1949.03.18.) ····· 413
243. 우리쪽 손해는 경미 한국 대본영의 전과 발표(1949.03.18.) ····· 414
244. 105부락은 한국에서 3백 부락은 인민군에서 제주도의 치안 현상(1949.03.21.) ····· 415
245. 선무공작 등 적국 점령과 같은 한국 군관(1949.03.21.) ····· 416
246. 한라산에 동굴 1만2천(1949.03.24.) ····· 417
247. 제주도 시찰 : 한위(韓委)(1949.04.21.) ····· 419
248. 제주도 항쟁 희생자 아라카와(荒川)에서 추도회(1949.06.05.) ····· 420
249. 제주도 인민 학살의 참상(1949.06.09.) ····· 421
250. 현하 국내외 정치정세 보고(1949.07.05.) ····· 423
251. 목포형무소 및 무기고를 파괴 1천3백이 탈옥(1949.09.19.) ····· 425
252. 목포 탈옥 항쟁대 유격대에 합류(1949.09.23.) ····· 427
253. 남선(南鮮) 전 형무소에 비상경계령 이(李) 정부의 당황상(唐慌相)(1949.09.23.) ····· 428

【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254. 제주사건대책위원회 결성(1948.07.27.) ····· 431
255. 조국의 위기를 천명(1948.07.29.) ····· 432
256. 제주 경계 다시 강화(1948.08.27.) ····· 434
257. 박대령 암살범 총살형은 가혹(1948.09.04.) ····· 435
258. 경찰이 도도(渡道)를 제지(1948.09.14.) ····· 436
259. 제주도에 폭동 재발(1948.10.03.) ····· 437
260. 제주도 평정 상태로 회복(1948.10.05.) ····· 438
261. 사설 : 동족상살(相殺)은 망족(亡族)행위다(1948.10.07.) ····· 439
262. 국군과 폭도 접전(1948.10.15.) ····· 442
263. 험악 일로(一路)의 제주도 근황(1948.10.17.) ····· 443
264. 제주도 소요사건 제3회 공판(1948.10.17.) ····· 444
265. 제주에서도 전투 계속(1948.10.23.) ····· 445
266. 제주사건 언도 연기(1948.10.29.) ····· 446
267. 치안회복에 노력 중 이(李)장관 현지시찰 상황 발표(1948.10.31.) ····· 447
268. 제주에서도 전투(1948.10.31.) ····· 449
269. 폭도, 빠스를 습격(1948.10.31.) ····· 450

270. 소란 계속의 제주도 소식(1948.11.02.) ····· 451
271. 제주 폭도대장 살해(1948.11.08.) ····· 452
272. 치안상태 착착 회복(1948.11.12.) ····· 453
273. 제주도에 계엄령(1948.11.20.) ····· 454
274. 8백여 명을 사살(1948.11.30.) ····· 455
275. 이총리 격려(1948.11.30.) ····· 456
276. 폭도 주력은 전멸(1948.12.04.) ····· 457
277. 4·3사건 공판(1948.12.14.) ····· 458
278. 반정부 게리라 기지 제주도 지리산 오대산(1948.12.22.) ····· 459
279. 폭도, 경관 10여명을 살해(1948.12.22.) ····· 460
280. 제주도청사 전소(全燒)(1949.01.08.) ····· 461
281. 제주 해안에 쏘 잠수함(1949.01.10.) ····· 462
282. 제주 폭도 소탕전 계속(1949.01.14.) ····· 463
283. 반란 지구의 실정 보고(1949.01.28.) ····· 464
284. 처참한 제주도 사태(1949.03.13.) ····· 465
285. 민심 수습에 관대하라(1949.03.17.) ····· 466
286. 전쟁화한 동란 제주(1949.03.19.) ····· 467
287. 국회에 보고(1949.03.19.) ····· 469
288. 월내로 완전 소탕(1949.03.19.) ····· 470
289. 제주작전 제3단계(1949.03.21.) ····· 471
290. 구호물자 송출(1949.03.21.) ····· 472
291. 천인공노할 제주의 참상(1949.03.28.) ····· 473
292. 반도 82명이 귀순 제주 국군 제2연대에(1949.04.03.) ····· 475
293. 동족상살의 참극 미종식(1949.04.09.) ····· 476
294. 동족간의 유혈 불망(不望) 이 참모장 한위(韓委) 협의 내용(1949.04.15.) ····· 477
295. 반도의 관대한 포접(抱接) 요청 이 대통령 귀경(1949.04.15.) ····· 479
296. 사자(死者) 1천백93 제주도의 반란 상황 발표(1949.04.17.) ····· 480
297. 제주도 선거 실시(1949.05.13.) ····· 481

【조선신보(朝鮮新報)】

298. 제주도 미곡 공출 급속도로 증가(1947.03.05.) ····· 485
299. 제주도 파업 문제 차차 현상 복귀(1947.03.27.) ····· 486
300. 제주방송국 신설 명년부터 방송 실시(1947.12.06.) ····· 487
301. 한라산 등산대 조난 제주도청 구호대 급파(1948.01.22.) ····· 488
302. 전투상태화한 제주 국방경비대장 도민군 귀순 권고(1948.05.01.) ····· 489

303. 제주도는 전투상태 선거관리 반수 사직(1948.05.11.) ····· 490
304. 제주는 일부 투표소 개설 불능(1948.05.13.) ····· 491
305. 각 지방의 습격 피해경관은2, 민중7(1948.05.17.) ····· 492
306. 제주선거 무효 재선거 30일 이내(1948.05.21.) ····· 493
307. 소요 진압 응원대, 제주로 출발(1948.05.21.) ····· 494
308. 점점 악화일로의 제주소요사건 검찰관 현지조사보고(1948.05.23.) ····· 495
309. 북제주 재선거 6월 22일(1948.05.27.) ····· 496
310. 제주행 회피 경관에게 집행유예 언도(1948.05.29.) ····· 497
311. 제주 치안 여전히 험악 조(趙) 경무부장 현지에 출발(1948.05.31.) ····· 498
312. 4·3 사건 공판 시작 검사구형에 사형도 1명(1948.06.04.) ····· 499
313. 경비대 출동 이후의 제주(1948.06.04.) ····· 500
314. 제주법원장으로 양원일씨 취임(1948.06.04.) ····· 501
315. 제주 전투상태 계속(1948.06.08.) ····· 502
316. 제주사건 공판 경과(1948.06.14.) ····· 503
317. 만행 계속되는 제주 통위부 폭도진압에 노력(1948.06.16.) ····· 504
318. 제주해안경비대 활약(1948.06.18.) ····· 505
319. 군정장관 급거 제주행 경비대장 암살사건 조사차(1948.06.20.) ····· 506
320. 폭도진압을 가장해서 경찰지서를 습격 제주국방경비대의 반역사건(1948.06.20.) ····· 507
321. 제주동지회 요로에 탄원(1948.06.22.) ····· 509
322. 제주 치안문란의 근본원인 공산당의 신정부반대 조병옥 경무부장 담화 발표(1948.06.26.) ···· 510
323. 제주에 경찰응원대 파견(1948.07.10.) ····· 512
324. 남로당 전라도지구에 제2 제주화 기도 조(趙) 경무부장 담화 발표(1948.07.16.) ····· 513

【대중신문(大衆新聞)】

325. 조국의 소식 이(李) 박사 남선지방 유세(1946.06.09.) ····· 517
326. 재류동포에게 드리는 인사말(1946.06.09.) ····· 518
327. 재일본 제주도 인사 제군에게 고함(1946.06.20.) ····· 519
328. 남조선 인민학살 반대 인민대회(1949.02.05.) ····· 520
329. 국제 반동 모략 분쇄 일대 민족운동으로(1949.02.05.) ····· 522
330. 제주도 인민항쟁부대 각 경찰지서를 습격(1949.02.05.) ····· 524
331. 민보단을 선두에 세워 자기의 피해를 방지하는 이(李) 정부 제주도 경찰(1949.02.10.) ·· 525
332. 추도 인민대회(대판)(1949.02.10.) ····· 526
333. 제주도 인민항쟁 날로 치열(1949.03.06.) ····· 528
334. 반민(反民) 제주지부 개설(1949.03.06.) ····· 530
335. 사설: 재일조선민청 결성 2주년 기념(1949.03.06.) ····· 531

336. 사설: 상업신문의 허위보도에 경각심을 높이라(1949.03.20.) ····· 534
337. 인민군 대책에 피로 곤비(困憊)하는 이(李) 정부 국군(1949.03.20.) ····· 536
338. 4·3투쟁 이후 (제주도)(1949.03.27.) ····· 537
339. 한위(韓委) 제주도 시찰(1949.05.08.) ····· 539
349. 사설: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 결성에 대하야(1949.05.22.) ····· 540
341. 제주도인민군 이덕구 사령관 전사설(1949.06.12.) ····· 543
342. 이덕구 씨의 전사설에 대한 의견(1949.06.27.) ····· 544

【국제타임스(國際タイムス)】

343. 제주도 폭동 수습(1948.04.26.) ····· 549
344. 제주도 보고(1948.07.25.) ····· 550
345. 한국에 반란 발발 공산분자 지도 제5사단의 제14여단(1948.10.22.) ····· 551
346. 한국 정부의 일대 시련 반란 오래 끌면 전국에 파급 우려(1948.10.23.) ····· 552
347. [사설] 한국군 반란의 교훈(1948.10.24.) ····· 553
348. 우주선(1948.10.24.) ····· 555
349. 여수에서 시가전 제주도에서도 반란 계속(1948.10.29.) ····· 556
350. 제주도 인민군 총사령 쓰러지다(1948.11.07.) ····· 557
351. 제주도 계엄령(1948.11.20.) ····· 558

【신조선신보(新朝鮮新報)】

352. 한위(韓委)의 지방시찰연기(1949.05.11.) ····· 561
353. 사상 9만 손해 15억 제주도 사건의 피해 판명 [4월의 족적](1949.05.11.) ····· 562
354. 고향재건을 위해 이호친목회 결성(1949.05.11.) ····· 565
355. 제주도의 이재민을 구하라 본사의 외침(1949.05.18.) ····· 566
356. [사설] 제주도의 참상에 통곡하다(1949.05.18.) ····· 567
357. '두 개의 조선' 현지보고(3) 피에르 프랑스 통신특파원의 기록(1949.05.25.) ····· 570
358. 당선자 판명 제주 국회의원선거(1949.05.25.) ····· 573
359. 귀순 6천, 사살 5백 제주도의 전화(戰火) 일단 숨돌리다(1949.06.01.) ····· 574
360. 주간 움직임: 남 5월 19일: 제주도파견 경찰부대 귀환 환영식
중앙청○당에서 거행한다(1949.06.08.) ····· 575

【조선일보동경(朝鮮日報東京)】

361. 제주도에서 폭동! 남선 선거 방해인가?(1948.04.27.) ····· 579
362. 제주도에서 미군기에 발포(1948.04.28.) ····· 580
363. 제주도의 소동 악화(1948.05.04.) ····· 581
364. 제주도에서 폭동 재발(1948.05.17.) ····· 582
365. [조국단신] 제주도에서 재선거(1948.05.27.) ····· 583

【국제일일신문(國際日日新聞)】

366. [사설] 통일방해자 단호 청소(1948.10.07.) ····· 587
367. 여수 치안 회복 중 반란군 상황 공표(1948.10.30.) ····· 589
368. 제주도에 계엄령 반란군 진정을 위해 발령하다(1948.11.20.) ····· 590
369. 제주도의 국회의원 선거 5월 10일 실시하기로 결정(1949.05.07.) ····· 591
370. 제주도의 선거 중시 유엔한국위원회가 감시(1949.05.07.) ····· 592

【해방신문(대판)(解放新聞)(大阪)】

371. 남선 미군정 장관 제주도에(1948.05.14.) ····· 595
372. 한라산에 게릴라대-제주도의 인민항쟁(1948.05.27.) ····· 596

■ 통신(通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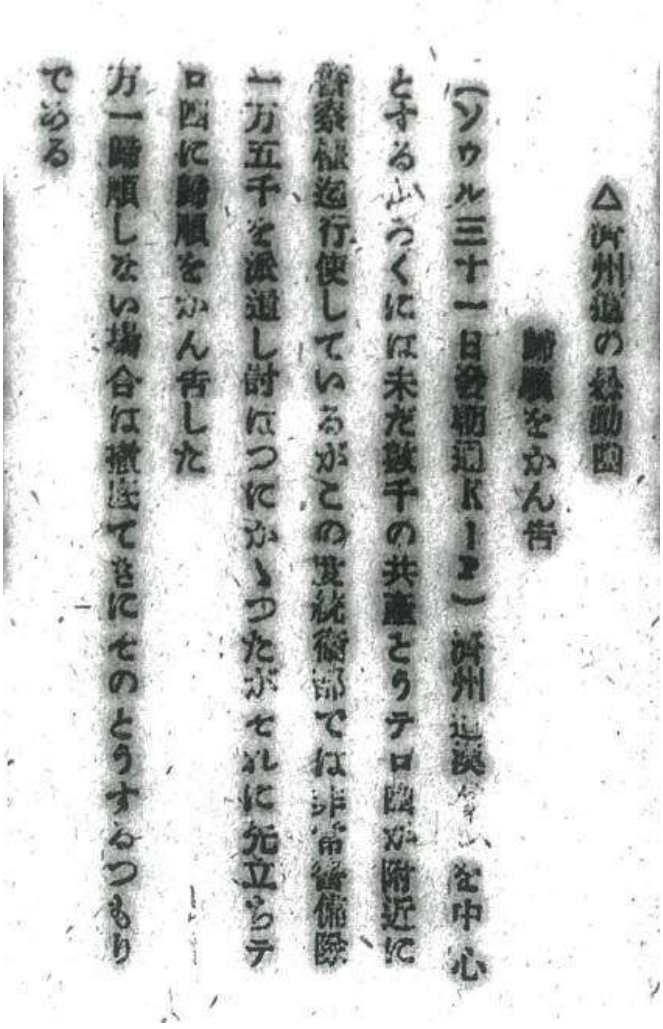
조선정보(구주)
(朝鮮情報)(九州)

조선정보(구주)(朝鮮情報)(九州) 1948년 9월 1일 / 3면

제주도의 폭동단 귀순을 권고

제주도의 폭동단 귀순을 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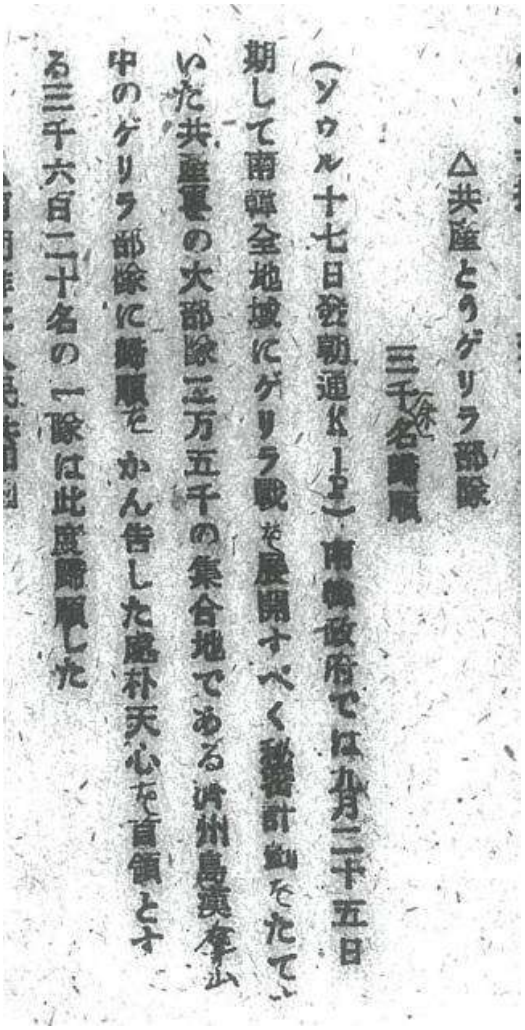
(서울 31일발 조통=KIP) 제주도 한라산 중심으로 산기슭에는 아직도 수천의 공산당 테러단이 부근에서 관찰권마저 행사하고 있다. 이번 통위부에서는 비상경비대 1만5천을 파견하여 토벌을 했지만, 그 보다 먼저 테러단에게 귀순을 권고했다.
만일 귀순하지 않을 경우는 철저하게 그렇게 할 작정이다.


△濟州道の暴動團
歸順をかん告
(ソウル三十一日發朝通KIP) 濟州道漢[illegible]を中心とするふろくには未だ數千の共產とうテロ團が附近に警察權迄行使しているがこの度統衛部では非常警備隊一万五千を派遣し討はつにかゝつたがそれに先立ちテロ團に歸順をかん告した
万一歸順しない場合は徹底できにそのとうするつもりである

공산당 게릴라 부대 3천여 명 귀순

공산당 게릴라 부대 3천여 명 귀순

(서울 17일발 조통=KIP) 남한 정부에서는 9월 25일을 기해 남한 전지역에 게릴라전을 전개할 비밀계획을 세워 있었다. 공산군의 대부대 2만5천 집합지인 제주도 한라산 안의 게릴라 부대에게 귀순을 권고한 바 박천심을 수령으로 한 3천6백20명의 일대는 이번 귀순했다.


△共産とうゲリラ部隊
三千名歸順
(ソウル十七日發聯通KIP)南鮮政府では九月二十五日
期して南鮮全地域にゲリラ戰を展開すべく秘密計劃をたて
いた共産軍の大部隊二万五千の集合地である濟州島漢拏山
中のゲリラ部隊に歸順をかん告した朴天心を首領とす
る三千六百二十名の一隊は此度歸順した

조선정보(구주)(朝鮮情報)(九州) 1948년 11월 16일 / 3-4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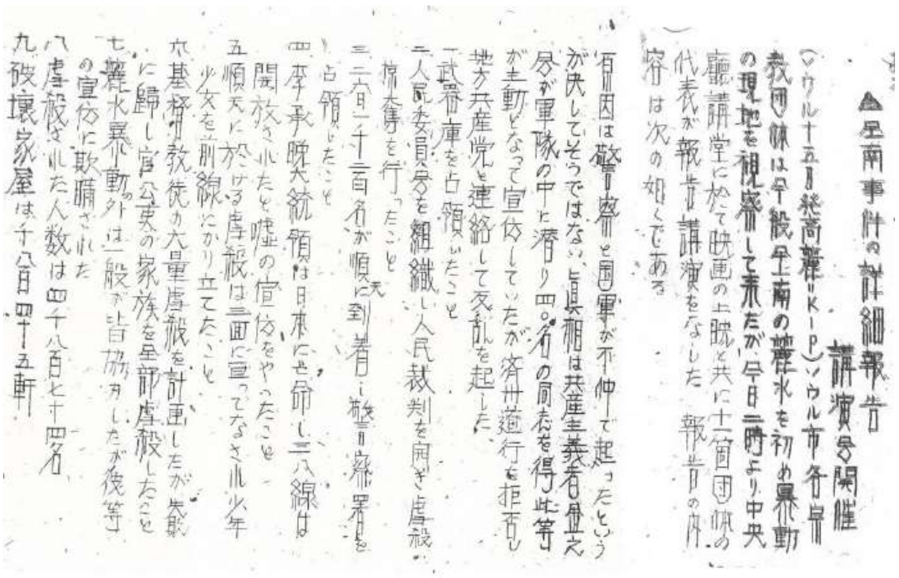
전남 사건의 상세 보고
강연회 개최

전남 사건의 상세 보고
강연회 개최

(서울 15일발 고려=KIP) 서울시 각 종교단체는 이번 전남 여수를 비롯하여 폭동의 현지를 시찰해서 왔다. 금일 2시부터 중앙청 강당에서 영화 상영과 함께 11개 단체 대표가 보고 강연을 했다.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인은 경찰과 국군이 사이가 나빠서 일어났다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진상은 공산주의자 김지회가 군대 안으로 잠입하여 40명의 동지를 얻고 그들이 주동이 되어 선전하고 있었다. 제주도행을 거부하고 지방 공산당과 연락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1. 무기고를 점령한 것
2. 인민위원회를 조직하고 인민재판을 개최해 학살 약탈을 행한 것
3. 26일 1천2백 명이 순천에 도착하고 경찰서를 점령한 것
4.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에 망명하고 38선은 개방되었다는 거짓 선전을 한 것
5. 순천에서 학살은 3면에 걸쳐 이루어지고 소년소녀를 전선(前線)으로 몰아낸 것
6. 기독교도의 대량학살을 계획했으나 실패하고 관공리의 가족을 전부 학살한 것
7. 여수 폭동 외에 일반이 모두 협력했으나 그들의 선전에 기만당했다.
8. 학살된 사람 수는 4천8백74명
9. 파괴 가옥은 천8백45채



全南事件の詳細報告
講演会開催

(ソウル十五日発高麗=KIP)ソウル市各宗教団体は今般全南の麗水を初め暴動の現地を視察して来たが、今日二時より中央庁講堂に於て映画の上映と共に十一箇団体の代表が報告講演をなした。報告の内容は次の如くで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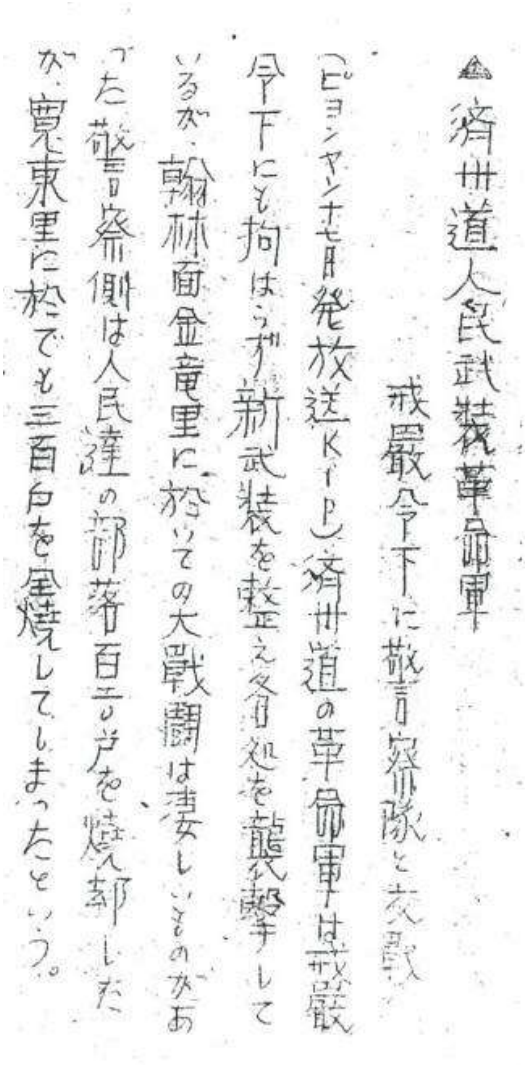
原因は警察と国軍が不仲で起ったというが決してそうではない、真相は共産主義者金之会が軍隊の中に潜り四〇名の同志を得此等が主動となって宣伝していたが済州道行を拒否し地方共産党と連絡して叛乱を起した

一、武器庫を占領いたこと
二、人民委員会を組織し人民裁判を開き虐殺掠奪を行ったこと
三、二十六日千二百名が順天に到着し警察署を占領したこと
四、李承晩大統領は日本に亡命し三八線は開放されたと嘘の宣伝をやったこと
五、順天に於ける虐殺は三面に亘ってなされ少年少女を前線にかり立てたこと
六、基督教徒の大量虐殺を計画したが失敗に帰し官公吏の家族を全部虐殺したこと
七、麗水暴動の外は一般が皆協力したが彼等の宣伝に欺瞞された
八、虐殺された人数は四千八百七十四名
九、破壊家屋は千八百四十五軒

제주도 인민무장혁명군 계엄령 하에 경찰대와 교전

제주도 인민무장혁명군
계엄령 하에 경찰대와 교전

(평양 17일발 방송=KIP) 제주도의 혁명군은 계엄령 하에도 불구하고 신무장을 하고 각처를 습격하고 있다. 한림면 금용리에서의 대전투는 지독했다. 경찰 측은 인민들의 부락 120호를 소각했다. 관동리에서도 3백호를 전부 태우고 말았다고 한다.


濟州道人民武裝革命軍
戒嚴令下に敬言察隊と交戰
(ピョンヤン十七日發放送KIP)濟州道の革命軍は戒嚴令下にも拘はらず新武裝を整え各所を襲撃しているが翰林面金竜里に於ての大戰闘は凄まじいものがあった敬言察側は人民達の部落百三戸を焼却したが寛東里に於ても三百戸を焼してしまったという。

국군의 사기 더욱더 왕성-제주도의 계엄령 해제

국군의 사기 더욱더 왕성-제주도의 계엄령 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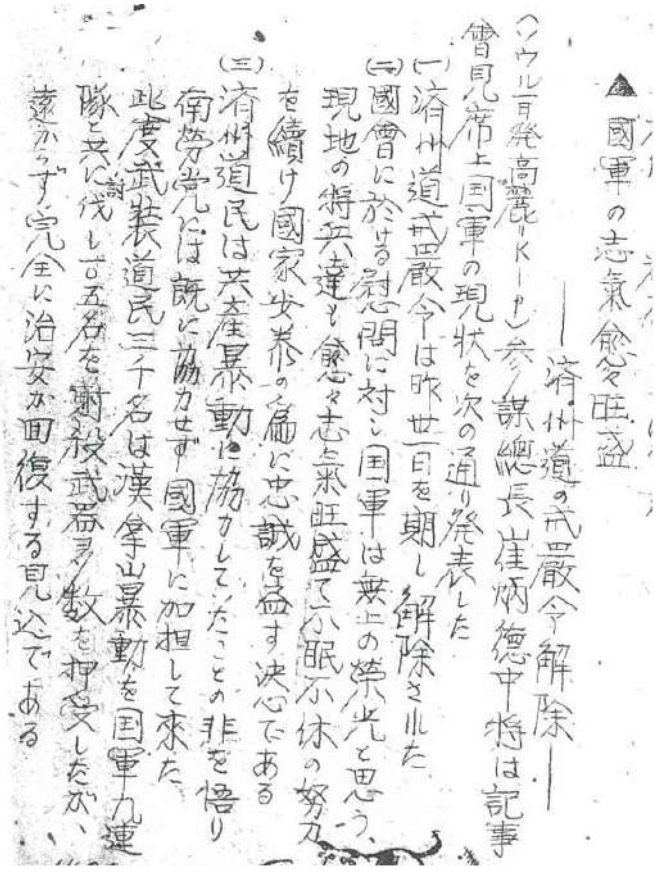
(서울 1일발 고려=KIP) 참모총장 최병덕 중위는 기사회견석상 국군의 현상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1) 제주도 계엄령은 지난 31일을 기해 해제되었다.

(2) 국회에서의 위문에 대해서 국군은 무상의 영광으로 생각한다. 현지의 장병들도 점점 더 의기왕성으로 불면불체의 노력을 계속하여 국가안태를 위해 충성을 더욱 결심했다.

(3) 제주도민은 공산 폭동에 협력했던 것의 잘못을 깨닫고 남로당에는 이미 협력하지 않고 국군에 가담해 왔다.

이번 무장 도민 3천명은 한라산 폭동을 국군 9연대와 함께 토벌하여 105명을 사살 무기 다수를 압수했는데, 곧 완전히 치안이 회복될 전망이다.



▲國軍の志氣愈々旺盛

—濟州道の戒嚴令解除—

(ソウル一日発高麗=KIP)参謀總長崔炳德中將は記事會見席上国軍の現状を次の通り発表した

(一)濟州道戒嚴令は昨世一日を期し解除された

(二)國會に於ける慰問に対し国軍は無上の榮光と思う、現地の將兵達も愈々志氣旺盛て不眠不休の努力を續け國家安泰の爲に忠誠を益す決心で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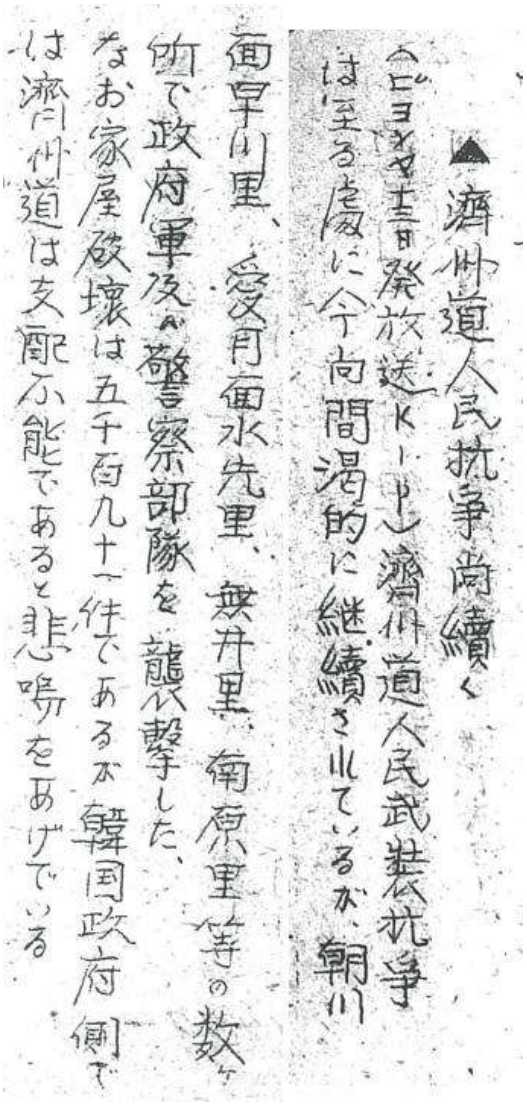
(三)濟州道民は共産暴動に協力していたことの非を悟り南勞党には既に協力せず國軍に加担して來た

此度武装道民三千名は漢拿山暴動を国軍九連隊と共に討伐し十五名を射殺武器多数を押受したが、遠からず完全に治安が回復する見込である

제주도 인민항쟁 여전히 계속

제주도 인민항쟁 여전히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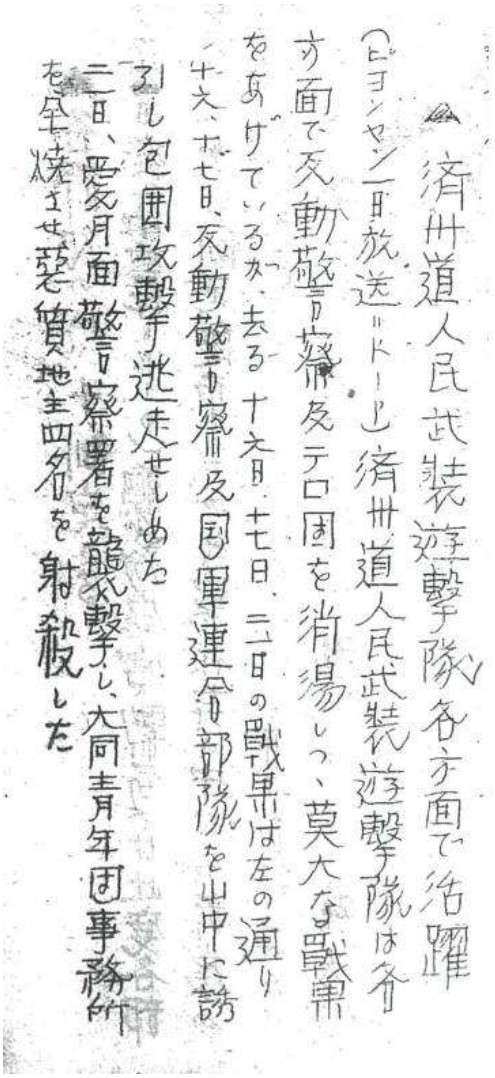
(평양 13일발 방송=KIP) 제주도 인민무장 항쟁은 곳곳에 여전히 간갈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조천면조천리, 애월면수산리, 무정리, 남원리 등 여러 곳에서 정부군 및 경찰부대를 습격했다. 또한 가옥 파괴와 5천1백91건이다. 한국 정부 측에서는 제주도는 지배 불능이라고 비탄하고 있다.


▲濟州道人民抗爭尚續く
(ピョンヤン十三日發放送KIP)濟州道人民武裝抗爭は至る處に今尚間斷的に繼續されているが、朝川面早川里、愛月面水先里、無井里、南原里等の數ヶ所で政府軍及び警察部隊を襲撃した、なお家屋破壞は五千百九十一件であるが韓國政府側では濟州道は支配不能であると悲鳴をあげている

제주도 인민무장 유격대 각 방면에서 활약

제주도 인민무장 유격대 각 방면에서 활약

(평양 1일 방송=KIP) 제주도 인민무장 유격대는 각 방면에서 교동경찰 및 테러단을 소탕하고 막대한 전과(戰果)를 이루고 있다. 지난 16일 17일 21일의 전과는 다음과 같이,
16, 17일 교동경찰 및 국군연합부대를 산중으로 유인하여 포위 공격 도주시켰다.
21일 애월면 경찰서를 습격하고, 대동청년단 사무소를 전멸시켜 악질 지주 4명을 사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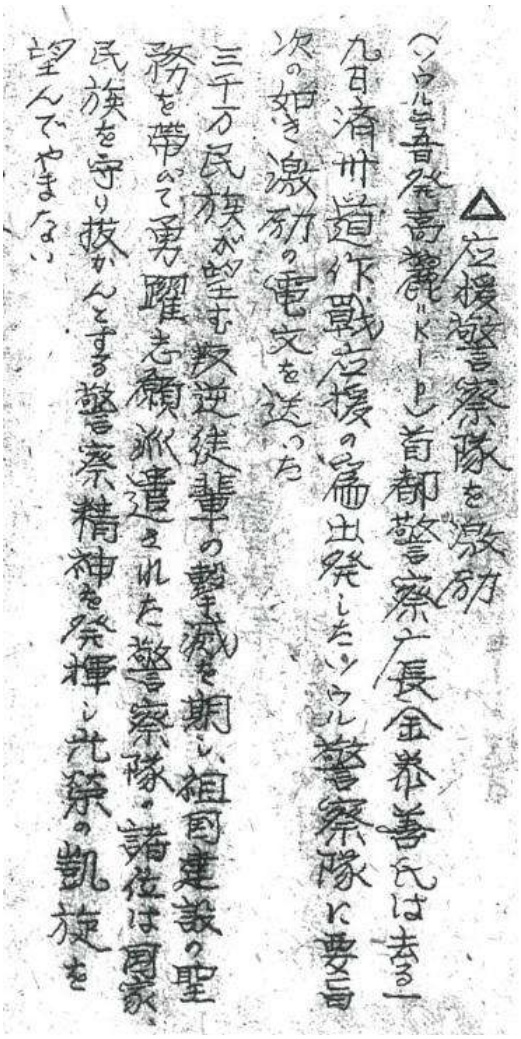


조선정보(구주)(朝鮮情報)(九州) 1949년 2월 26일 / 2면

응원경찰대를 격려

응원경찰대를 격려

(서울 25일발 고려=KIP) 수도 경찰서장 김태선 씨는 지난 19일 제주도 작전 응원을 위해 출발했다. 서울 경찰대에게 요지 다음과 같이 격려의 전문을 보냈다.
3천만 민족이 바라는 반역자배의 전멸을 기해, 조국건설의 성무(聖務)를 가지고 용약 지원 파견된 경찰대 제위는 국가 민족을 지키고 수호하는 경찰 정신을 발휘하고 광영의 개선을 바라 마지않는다.


△応援警察隊を激励
(ソウル二音発高麗ドーロ)首都警察庁長金恭善氏は去る一
九日済州道作戰応援の扁出発したソウル警察隊に要旨
次の如き激励の電文を送った
三千万民族が望む反逆徒輩の撃滅を期し、祖国建設の聖
務を帯びて勇躍志願派遣された警察隊の諸位は国家
民族を守り抜かんとする警察精神を発揮し光榮の凱旋を
望んでやまな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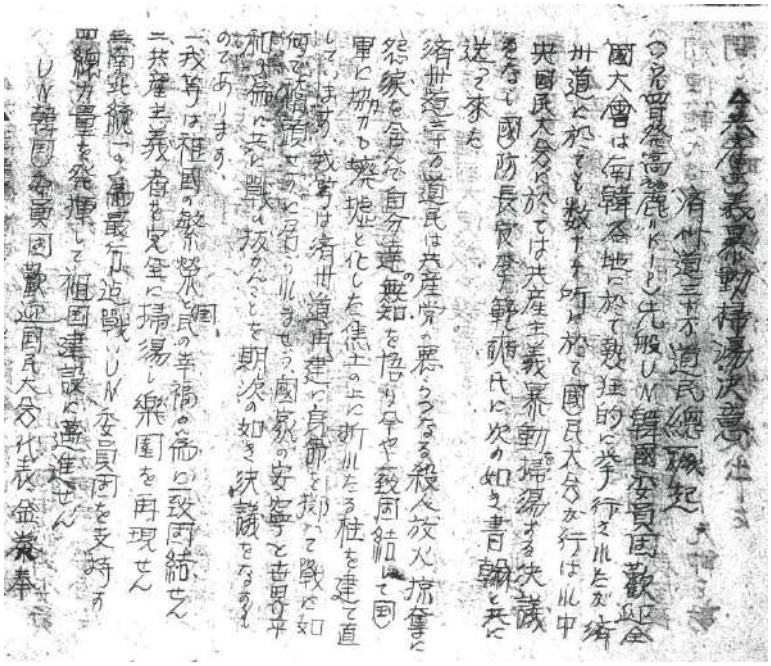
공산주의 폭동 상당히 결의
제주도 30만 도민 총궐기

공산주의 폭동 상당히 결의
제주도 30만 도민 총궐기

(서울 4일발 고려=KIP) 지난번 UN한국위원단 환영 전국 대회는 남한 각지에서 열광적으로 거행되었다. 제주도에서도 수십 곳에서 국민대회가 행해져 중앙국전대회에서는 공산주의 폭동 소탕하는 결의를 하고 국방장관 이범석 씨는 다음과 같이 서한과 함께 보내왔다. 제주도 30만 도민은 공산당의 나쁜 살인 방화 약탈에 원한 눈물을 품고 자신들의 무지를 깨닫고 이제 일치단결로 국군에 협력하고 황폐화한 초토 위에 부러진 기둥을 세워 고치고 있다. 우리들은 제주도 재건에 신명을 받쳐 싸움에 어떻게 머리를 굴리지 않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국가의 안전과 세계평화를 위해 함께 싸울 것을 기해 다음과 같이 결의를 하는 것입니다.

1. 우리들은 조국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일치단결 한다.
2. 공산주의자를 완전히 소탕하고 낙원을 재건 한다.
3. 남북통일을 위해 최후까지 싸우고 UN위원단을 지지한다.
4. 총역량을 발휘하여 조국건설에 매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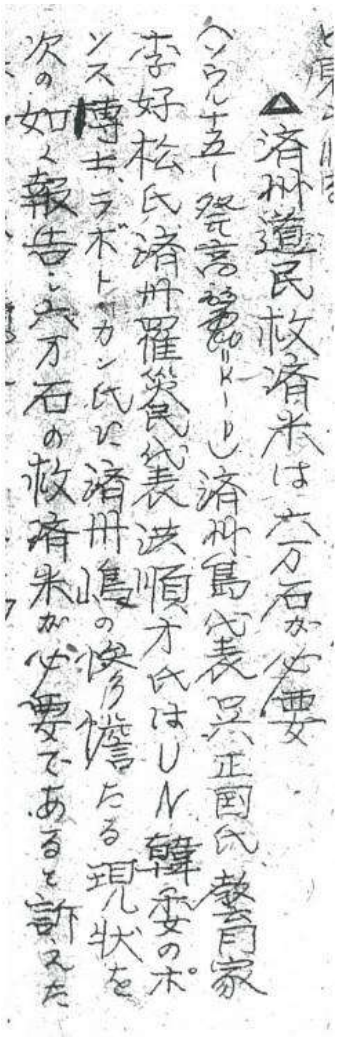
UN한국위원단 환영국민대회 대표 김태봉



제주도민 구제미는 6만석이 필요

제주도민 구제미는 6만석이 필요

(서울 15일발 고려=KIP) 제주도 대표 오정국 씨 교육가 이호송 씨 제주 이재민 대표 홍순재 씨는 UN한위의 폰스 박사 라보토칸 씨에게 제주도의 참담한 현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6만석의 구제미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済州道民救済米は六万石が必要
(ソウル十五ー発高麗=KIP)済州島代表呉正国氏 教育家
李好松氏 済州罹災民代表洪順才氏はUN韓委のポ
ンス博士ラボトカン氏に済州島の惨憺たる現状を
次の如く報告し六万石の救済米が必要であると訴えた

제주도민을 구하자

제주도민을 구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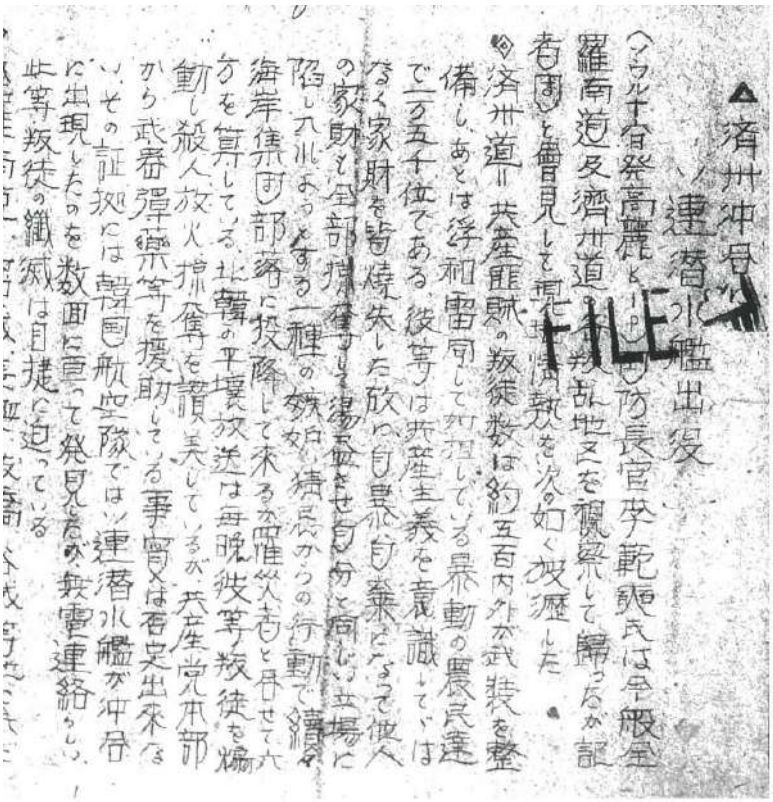
(서울 15일발 고려=KIP) 천주교 선교사 오스톤스쿠니 씨는 미 본국에 제주도민을 빨리 구제하라고 다음과 같이 서한을 보냈다.
우리들은 제주도민을 구할 의무가 있다. 2만호의 민가가 불에 타고 720호의 교도들의 집이 파괴되었고, 식량은 약탈당해 주식의 고구마는 전혀 수확을 하지 못했다. 이재민은 해안에 성을 쌓아서 생활하고 군대는 5대 이상의 차량에 만재해서 대편대를 조직 못하면 행동이 불가능하다. 최근까지 살해된 인민은 130명으로 백 명은 부상당해 있다. 폭동으로 2백기의 기관총을 빼앗기고 기타 MN총 터빈총 등도 잃어버렸다. 한 부인은 13발 총탄을 요소에 맞고 또 소년은 3발 총탄이 가슴을 관통했는데 아주 잘 도움 받아 미국인들을 존경하고 있다. 천주교도는 2명이 살해되었다.

제주 앞바다에 소련 잠수함 출몰

제주 앞바다에 소련 잠수함 출몰

(서울 16일발 고려=KIP) 국방장관 이범석 씨는 지난번 전라남도 및 제주도의 각 반란 지구를 시찰하고 돌아왔는데, 기자단과 회견하고 현지 정세를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 제주도= 공산비적의 반도(叛徒) 수는 약 5백 내외가 무장을 정비하고 나중에는 부화뇌동하여 가담하고 있는 폭동 농민들로 2만5천 정도이다. 그들은 공산주의를 의식하고 있는게 아니고 가재(家財)를 전부 소실해서 자폭자기로 타인의 가재도 전부 약탈하여 소탕시켜 자신과 같은 입장에 빠지도록 하고 있는 일종의 질투 시기의 행동에서 속속 해안 집단부락에 투항해 왔다. 이재민과 합쳐서 6만을 헤아리고 있다. 북한의 평양방송은 매일 밤 그들 반도(叛徒)를 선동하고 살인 방화 약탈을 찬미하고 있다. 공산당 본부에서 무기 탄약 등을 원조하고 있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 증거로는 한국항공대에서 소련 잠수함이 앞바다에 출몰한 것을 수회에 걸쳐 발견했지만 무전연락인 것 같다. 그들 반도의 섬멸은 목첩에 임박해 있다.



5천 톤급의 소련선 출현 공산폭동에 무기 공급인가?

5천 톤급의 소련선 출현
공산폭동에 무기 공급인가?

(서울 16일발 고려=KIP) 공보처에서는 내무장관 신성모 씨의 제주도 시찰 보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1) 3월 10일 밤 12시 반경 제주도 비행장에 도착했다. 미국인 10명이 마중하러 왔다. 국군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전부부서(部署)에 대해서 싸우고 있음을 알고 감격해 마지않았다. 국군 ○○○명으로 된 전투부대는 각처에서 추격전을 행하고 있다. 현재 상태로 간다면 3월 말일까지는 반도(叛徒)는 완전히 소탕된다.

(2) 곤란한 것은 이재민과 귀순자의 구제문제이다. 귀순자에게 식량배급이 나쁘면 다시 산중으로 도망가서 약탈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3) 경찰은 해안선 일대에 방위망을 치고 그 이재민들의 보호를 담당하고 있다.

(5) 5천 톤급의 연락선이 가끔 수마일 바다에 나타나는데, 순양함인가 구축함인가 명확하지 않다. 통신 연락을 하고 있는 것은 확정적이고 동시에 최근 압수하고 싶은 연식의 무기를 생각하면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잠수함도 빈번히 출몰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명백해졌다.

(5 이 이재민의 구제에는 6만석의 주식 및 10만장의 의류용 무명이 필요하고 수용할 수 있는 가건물이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반도의 완전 소탕에는 군인과 무기 공급에 있는데 충무호급 해군함정 4척, 해군전투함 5척, 트럭 50대, 지프 50대, 선박 x호는 긴요하다.

△五千噸級のソ連船現る
共産暴動に武器供給か？

(ソウル十六日発高麗(KIP)) 公報処では内務長官申性模氏の済州道視察報告第二號を次の如く発表した

(一) 十日夜十時半南済州道飛行場に到着したが来介名が出迎えに来たが國軍は一名も見えなかった
本部々署について戦っていると知り感激に堪えなかった
國軍〇〇〇名からなる戦斗部隊は各處で追撃戦を行っているが現在の調子で行けば青末日迄には叛徒は完全に掃蕩される

(二) 困難なのは罹災民と歸順者の救済問題であるが歸順者に食糧配給が不足すれば再び山中に逃げ込み掠奪を始めるからである

(三) 警察は海岸線一帯に防衛網を布き此等罹災民の保護に当ってい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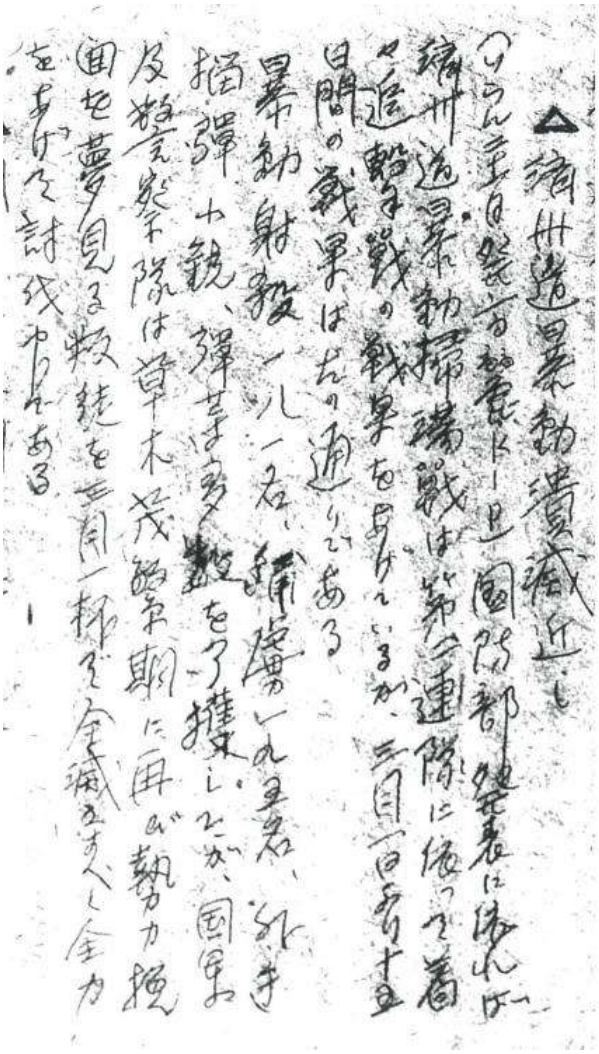
(五) 五千噸級のソ連船舶が時たま数隻ずつ沖に現はれるが巡洋艦か又は駆逐艦か明白ではない、通信連絡をしていることは確定的であると同時に最近押収した叛徒の武器を裏付る様な武器を供給しているものと思はれる、潜水艦も頻繁に出没している事も最近明白となった

(五) この罹災民の救済には六万石の主食及十万反の衣類布天が必要であり、收容する丈のバラックが建てられねばならぬ、なお叛徒の完全掃蕩には軍人と武器の供給にあるが、忠武号級海軍艦艇四隻、海軍戦闘艦五隻、トラック五〇台、チープ五〇台、船舶又〇号は緊要である

제주도 폭동 궤멸 목전

제주도 폭동 궤멸 목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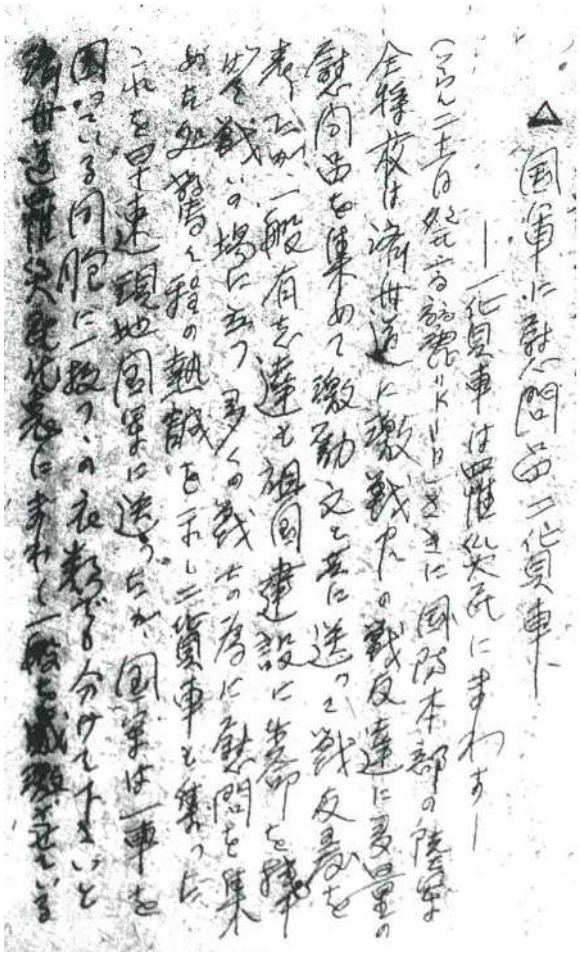
(서울 21일발 고려=KIP)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제주도 폭동 소탕전은 제2연대에 의해 착착 추격전의 전과(戰果)를 올리고 있다. 3월 1일부터 15일간의 전과는 다음과 같다. 폭동 사살 181명, 포로 195명, 수류탄 10총, 탄약 다수를 요획하고 있다. 국군과 경찰대는 초목 무번기에 다시 세력 만회를 꿈꾸는 반도를 3월 일괄 전멸하려고 전력을 다해 토벌하고 있다.



국군에게 위문 두 화차
- 한 화차는 이재민에게 돌리다

국군에게 위문 두 화차
- 한 화차는 이재민에게 돌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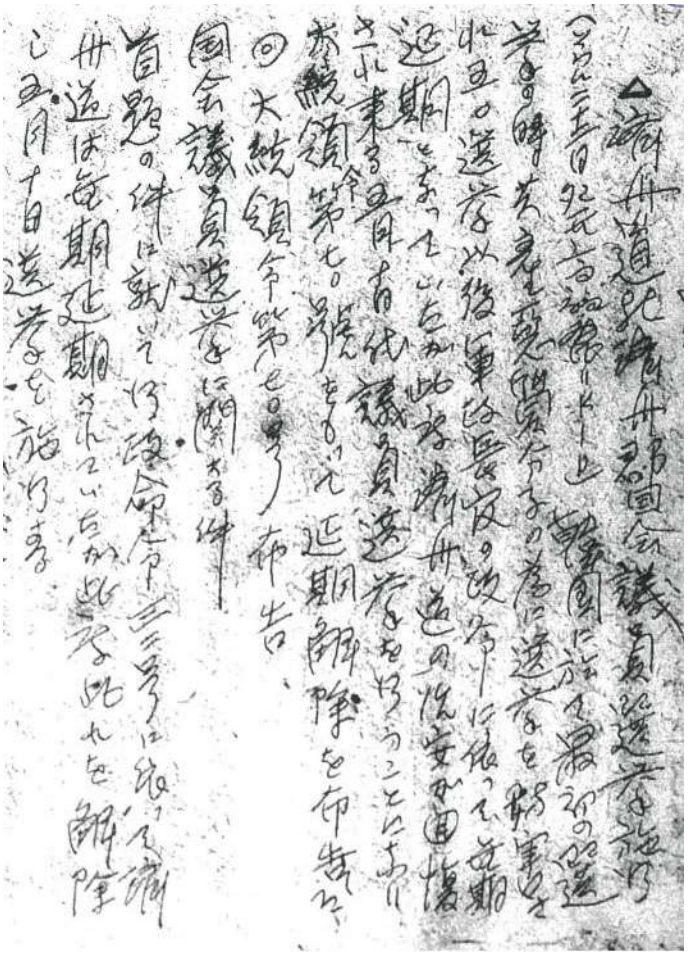
(서울 21일발 고려=KIP) 먼저 국방본부의 육군 전특교는 제주도에 격전지의 전우들에게 다량의 위문품을 모아서 격려문과 함께 보내고 전우들을 위로했다. 일반 유지들과 조국 건설에 생명을 받쳐 전쟁터에 있는 많은 전사를 위해 위문을 모은 바 놀랄 정도로 열성을 보이고 두 화차(貨車)를 모았다. 이것을 즉시 현지 국군에게 보냈다. 국군은 한 차를 어려운 동포에게 한 장씩 의류라도 나눠 주세요라고 제주도 이재민 대표에게 돌려 일반을 감격시키고 있다.



제주도 북제주군 국회의원 선거 시행

제주도 북제주군 국회의원 선거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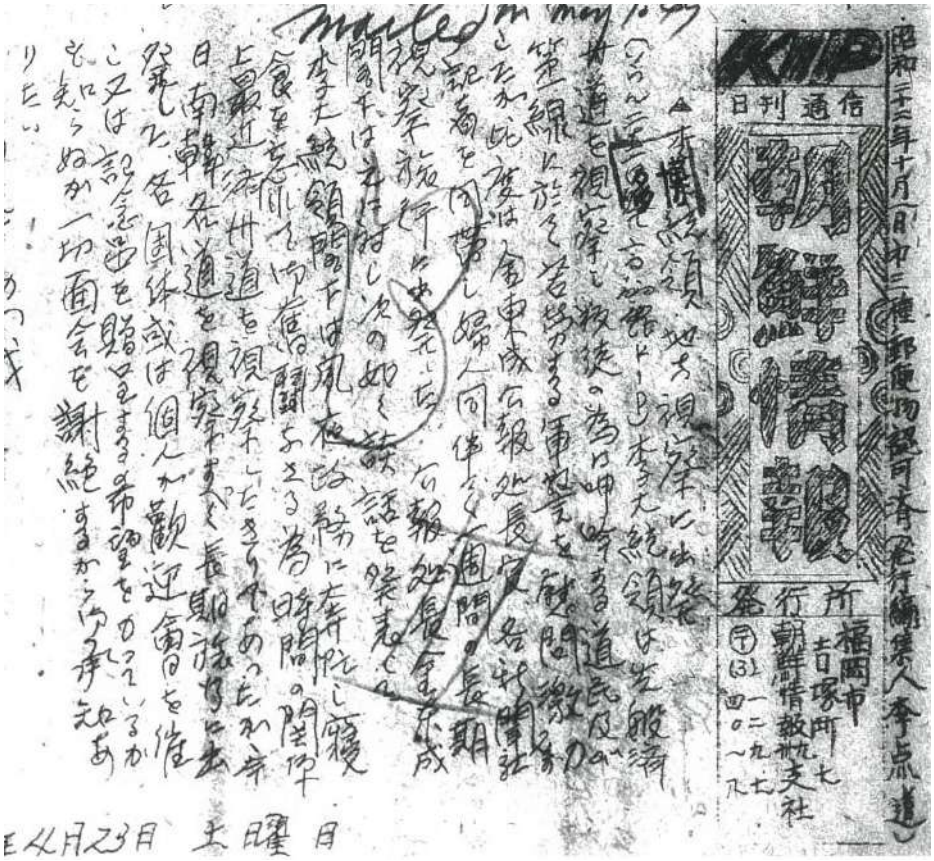
(서울 22일발 고려=KIP) 한국에서 최초 선거 때 공산당 악질분자 때문에 선거를 방해 당해 50선거 이후 군정 장관의 정부에 의해 매기 연기되었다. 이후 제주도의 치안이 회복되어 오는 5월 10일 대의원 선거를 행하기로 했다. 대통령령 제70호로 연기해제를 포고했다.
◉ 대통령령 제70호 포고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건
수제(首題)의 건에 행정 명령 32호에 의해 제주도는 매기 연기되었다. 이후 이것을 해제하고 5월 10일 선거를 시행한다.



이 대통령 지방시찰 출발

이 대통령 지방시찰 출발

(서울 22일발 고려=KIP) 이 대통령은 지난번 제주도를 시찰하고 반도(叛徒) 때문에 신음하는 도민 및 제일선에서 고생하는 군경을 위문 격려했다. 이번은 김동성 공보처장 및 각 신문사 기자를 동석하고 부인동반으로 일주간의 장기 시찰 여행으로 출발했다. 공보처장 김동성 각하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담화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 각하는 숙야(夙夜) 임무에 매우 바빠서 잠과 식사를 잊은 채 분투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최근 제주도를 시찰했다. 금일 남한 각도를 시찰할 장기여행으로 출발했다. 각 단체 혹은 개인이 환영회를 개최하거나 기념품을 증정할 희망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일절 면담을 사절하기 때문에 알아주길 바란다.



북한의 공산군 남공 실력 없음

북한의 공산군 남공 실력 없음

(서울 27일발 고려=KIP) 장○락 차관은 38선의 근황 및 제주도 폭동 소탕전에 관한 전과를 대요 다음과 같이 기자단회견 석상 발표했다.

1. 제주도 국회의원 선거에 관해서

제주도 국회의원 선거는 오는 5월 10일 실시하는데 유권자의 등록은 성적 양호하다. 갑구는 벌써 95%, 을구는 96.9%이다. 입후보자는 1구 1명 선출에 대해 5명씩 출전 맹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갑구는 홍순녕, 문대연, 함상훈, 고학수, 안기향 5씨, 을구는 김도연, 장택상, 이영효, 안제백, 홍문수 5씨이다.

현재까지 치안상태는 양호하고 폭동은 2,3주간 이내에 모두 귀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3월 26일 이래의 전과는 다음과 같다.

◉ 폭동 사자(死者) 수 15명, 부상 97명, 포로 530명, 귀순자 수 270명 외 무기 다수

◉ 우리측 사자 수 4명, 양민 사자 7명, 부상 2명, 38선 부근의 현상은 이북 인민재판군이 국부적 월경은 있지만, 전국적으로 남한을 공격할 실력은 없다.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침입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경기도 방면

월남건수 37건, 연인원 1,130명

◉ 강원도 방면

월남건수 47건, 연인원 1,410명

◉ 인민군 사자 105명, 부상 26명, 포로 7명 외 무기 다수

미소 접근 이래 38선 철폐는 불가능

미소 접근 이래 38선 철폐는 불가능

(서울 1일발 고려=KIP) UN 한국위원단은 제27차 회의에서 5월 8일 제주도 시찰하러 출발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지난 4월 2일 날씨가 나빠서 도중에 돌아온 이래 무기 연기해 있었던 것이다.

한국 외무장관 임병직은 5월 10일 제주도 선거를 감시하는 것과 환영하는 취지를 전해왔다. 우리 일행은 선거 투표장을 관찰하기만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제2분과 위원회에서는 지난 30일 오전 12시 설의식 씨를 초청해서 남북통일에 대한 협의를 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남북통일에 대한 귀하 견해는

답=(1) 미소가 근접하기 좋다면 남북통일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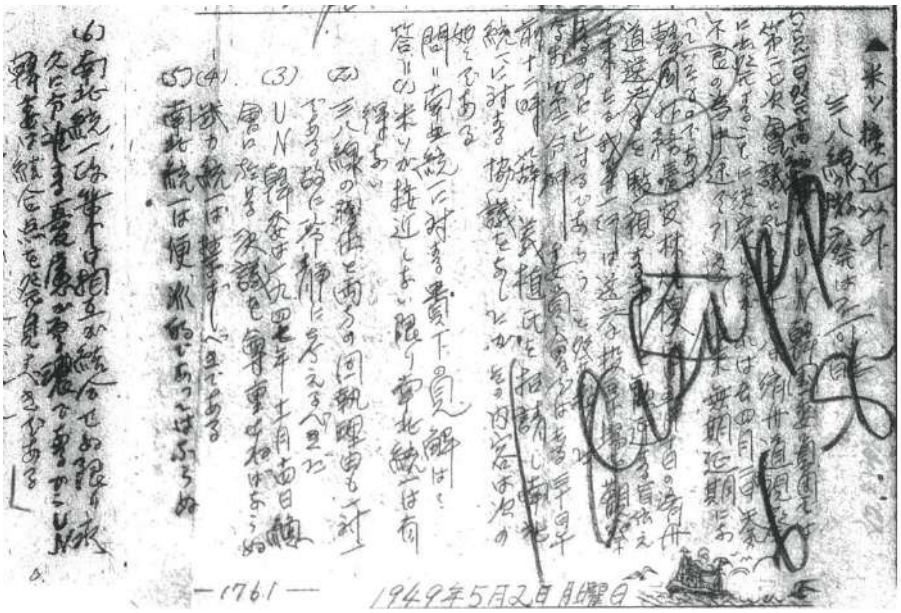
(2) 38선의 존재와 양분의 고집 이유도 일대일이기 때문에 냉정히 생각해 왔다.

(3) UN 한위는 1947년 11월 14일 총회에서 결의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우리 통일은 금해야 한다.

(5) 남북통일은 편파적이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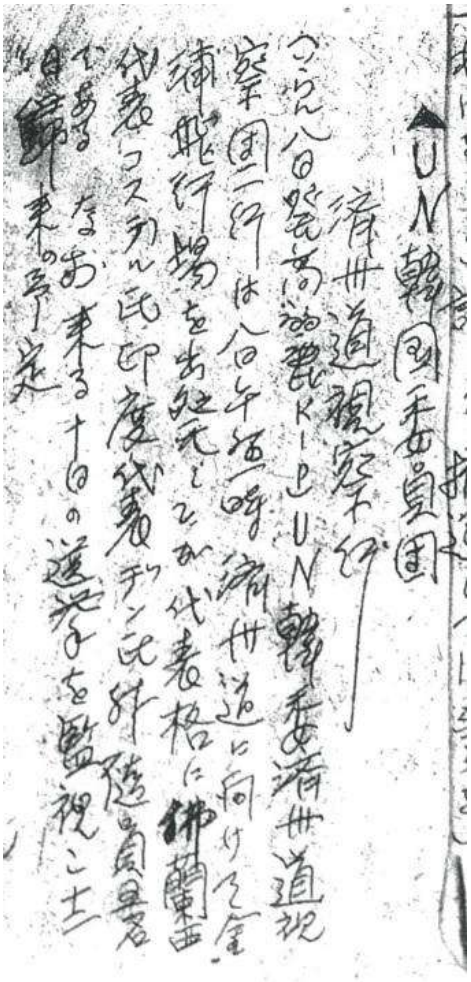
(6) 남북통일 정책은 상호가 통합하지 않는 한 영구히 분단할 우려가 농후하기 때문에 UN 한위는 통합점을 발견해야 한다.



UN 한국위원단 제주도 시찰행

UN 한국위원단 제주도 시찰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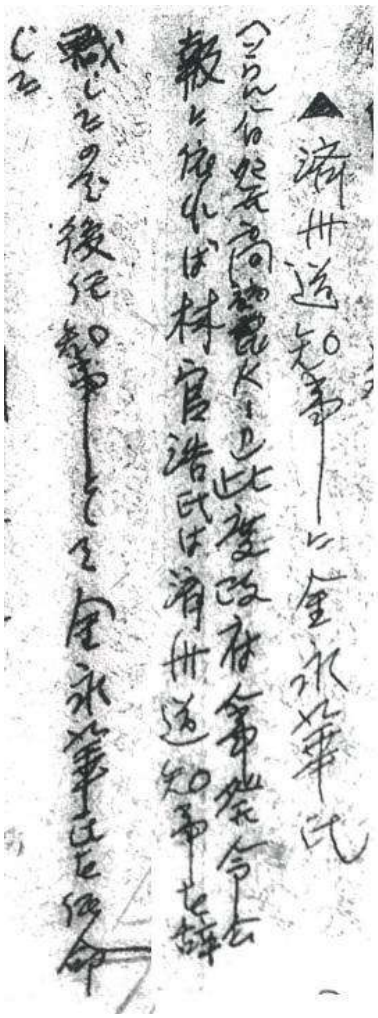
(서울 8일발 고려=KIP) UN한위 제주도 시찰단 일행은 8일 오후 1시 제주도를 향해 김포 비행장을 출발했다. 대표격에 불란서 대표 코스틴 씨 인도 대표 친 씨 부수원 5명이다. 또한 오는 10일 선거를 감시하고 12일 귀래 예정



제주도 지사로 김영화 씨

제주도 지사로 김영화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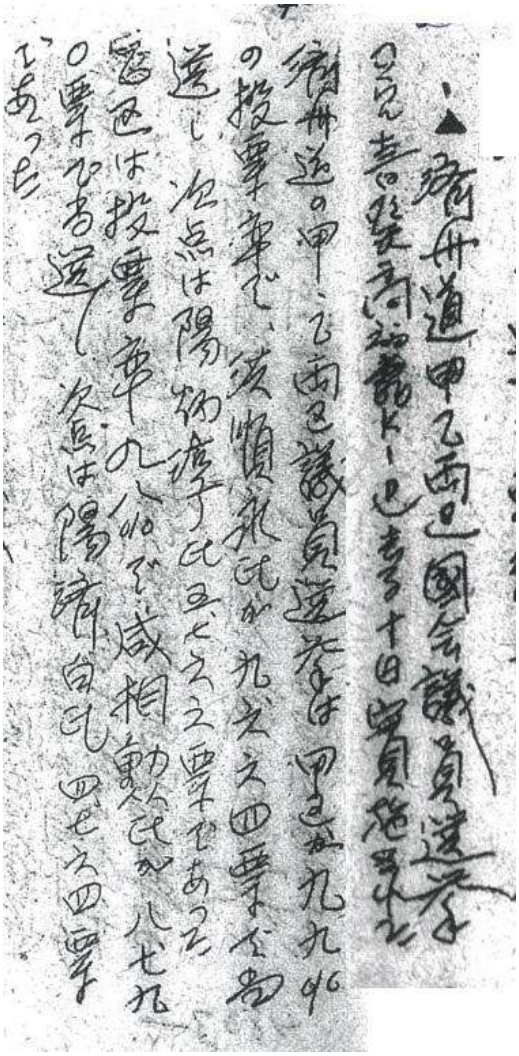
(서울 8일발 고려=KIP) 이번 정부 인사 발령 공보에 의하면 임관호 씨는 제주도 지사를 사직해서 후임 지사로서 김영화 씨를 임명했다.



제주도 갑을 양구 국회의원 선거

제주도 갑을 양구 국회의원 선거

(서울 13일발 고려=KIP) 지난 10일 실시된 제주도 갑을 양구 의원 선거는 갑구가 99%의 투표율로 홍순영씨가 9,664표를 얻어 선출되고, 차점은 양병순 씨 5,766표였다. 을구는 투표율 98%로 함상훈 씨가 8,790표로 선출되고, 차점은 양제백 씨 4,764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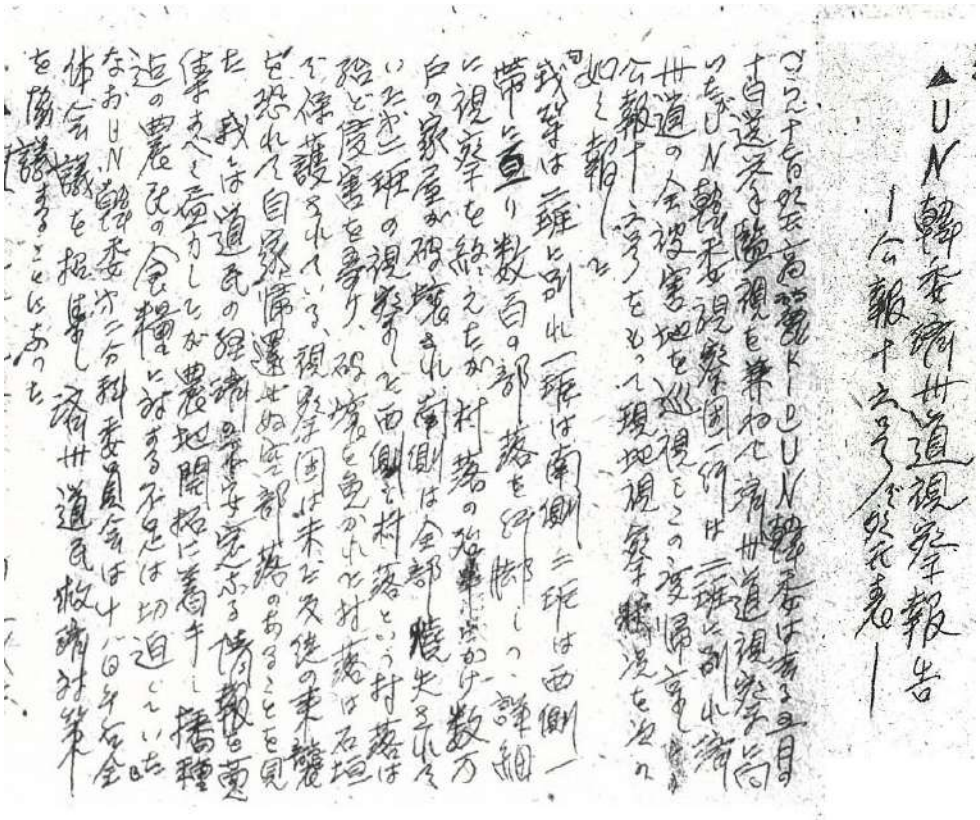


UN 한위 제주도 시찰 보고-공보 16호에 발표

UN 한위 제주도 시찰 보고-공보 16호에 발표

(서울 17일발 고려=KIP) UN 한위는 지난 5월 10일 선거 감시를 겸해 제주도 시찰을 행했다. UN 한위 시찰단 일행은 2반으로 나눠서 제주도의 전 피해지를 순시하고 이번 귀경하여 공보 16호에 현지시찰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우리는 2반으로 나눠 1반은 남측 2반은 서측 일대에 걸쳐 수백 부락을 행각하면서 상세히 시찰을 끝냈다. 촌락 대부분 수만호의 가옥이 파괴되어 남측은 전부 소실되어 있었다. 2반이 시찰한 서측 촌락이라는 촌락은 대부분 침해를 받았고, 파괴를 면한 촌락은 돌담으로 보호되고 있었다. 시찰단은 아직 반도(反徒)의 내습이 무서워 자기 집으로 귀환하지 않아 빈 부락이 있는 것을 보았다. 또 도민 경제의 불안정한 정보를 수습하려고 전력을 다했다. 농지개척을 착수하고 파종까지 농민의 식량에 대한 부족은 절박했다. 또 UN한위와 2분과위원회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제주도민 구제 대책을 협의하려고 한다.



제주도 재선거 유권자에게 감사
노 선거위원장 담화 발표

제주도 재선거 유권자에게 감사
노(盧) 선거위원장 담화 발표

(서울 17일발 고려=KIP) 중앙선거위원장 노승두 씨는 제주도 재선거 때 백열적으로 투표 성적을 보인 제주도 유권자에게 감사하여 담화를 발표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5월 10일 제주도 선거를 재실시 했다. 작년은 공산도배의 폭동에 의해 선거 성적이 매우 좋지 않았다. 금년은 갑구 96% 을구 97%의 놀라운 정도의 성적을 나타내고, 작년은 5%에 지나지 않았던 투표율이 금년은 갑구가 97%, 을구가 99%이다. 백열적으로 행해졌다. UN감시단이 선거장에 도착하자 한층 박력을 가해 훌륭한 자유민주주의의 선거 풍경에 UN감시위원들을 만족시켰다.
갑구에서의 당선자는 홍순영 씨 을구에서는 양병직 씨(함상훈 씨는 틀림)이다. 유권자 각위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제2차 북한선거에도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 치안 확립되다
공산반도 토벌 응원경찰대 귀경

제주도 치안 확립되다
공산반도 토벌 응원경찰대 귀경

(서울 19일발 고려=KIP) 제주도 폭동 소탕 때 지난 2월 9일 파견된 경찰대는 3개월간 동도에서 국군과 합동 작전으로 폭동소탕을 응원. 이번 치안이 확보되어 일단 임무를 완수했다. 동(同)응원대는 많은 희생자의 유골과 함께 대장 김태인 경무관 일솔 하 18일 오후 서울로 돌아왔다.
제주도민은 동대(同隊)에게 이 대통령 각하께 감사장을 전했는데 요지는 다음과 같다.
본도 사태 발생 이래 우리 도민들은 들개처럼 집을 잃고 경지가 황폐되고 공산적구들에게 쫓겨 갈피를 못잡아 방황했는데, 국군 및 경찰대가 매일 밤에 부락의 호위와 폭동소탕을 위해 심산유곡까지 추격전에 의한 공로로 지금 다시 낙원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본도의 전도민은 대통령 각하 및 국군, 경찰대 전원에게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 済州道治安確立さる
共産反徒討伐応援警官隊歸京
(ソウル十九日発高麗KIP)済州道の暴動掃場

조선정보(구주)(朝鮮情報)(九州) 1949년 5월 20일 / 2-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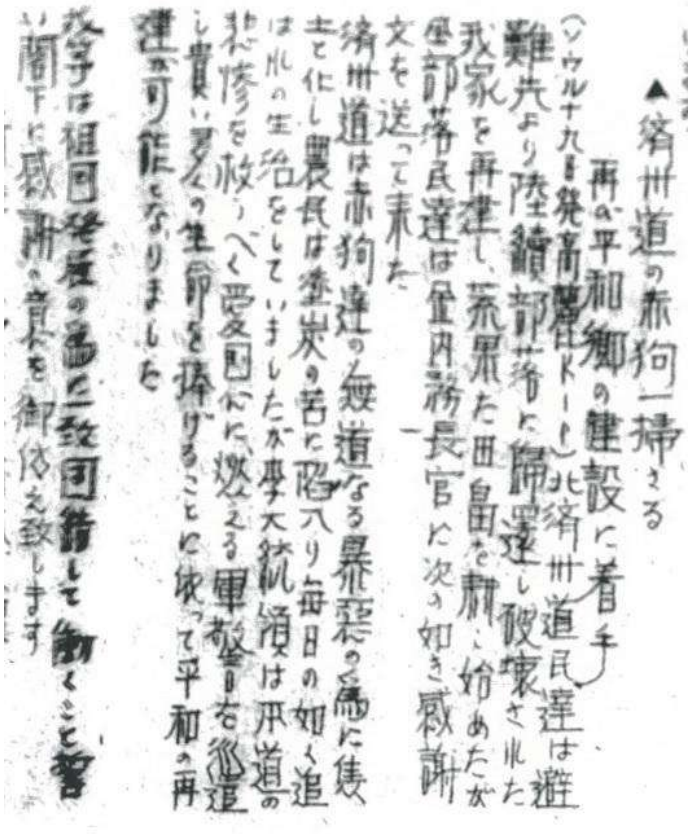
제주도의 적구 일소되다
다시 평화 건설에 착수

제주도의 적구 일소되다
다시 평화 건설에 착수

(서울 19일발 고려=KIP) 북제주도민들은 피난처로부터 육속 부락으로 귀환하여 파괴된 집들을 재건하고 황폐한 전답을 경작하기 시작했다. 전 부락민들은 김 내무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감사문을 보냈다.

제주도는 적구들의 무지한 폭악 때문에 초토화되고 농민은 도탄의 괴로움에 빠져들어 매일 쫓기는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대통령은 본도의 비참을 구하기 위해 애국심에 불탄 군경을 파견하여 많은 생명을 구함에 의해 평화 재건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조국 발전을 위해 일치단결하여 일할 것을 맹서하며 각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済州道の赤狗一掃さる
再び平和郷の建設に着手
(ソウル十九日発高麗ドーム)北済州道民達は避難先より陸續部落に歸還し破壊された我家を再建し、荒果た田畠を耕し始めたが国部落民達は国内務長官に次の如き感謝文を送って来た
済州道は赤狗達の無道なる暴惡の為に焦土と化し農民は塗炭の苦に陷入り毎日の如く追はれの生活をしていましたが李大統領は平道の悲惨を救うべく愛国心に燃える軍警を巡遣し貴い多くの生命を捧げることに依って平和の再建が可能となりました
我等は祖国発展の為に一致団結して働くこと誓い閣下に感謝の意を御伝え致します

제주도 폭동 완전 진압- 11일까지 귀순자 3,589명

제주도 폭동 완전 진압- 11일까지 귀순자 3,589명

(서울 12일발 고려=KIP) 폭동 때문에 일시 많은 선량한 국민이 학살되어 촌락은 불태워져 생지옥화가 되었다. 제주도는 국군과 경찰의 피나는 분전에 의해 공산반도 도배는 완전히 소동되어 전도의 치안 확립이 되고 있다.

지난 11일까지 귀순자 폭동은 전부 3,589명으로 수용소에서 물자 배급을 받아 고향으로 돌아왔다. 지난 5월 23일 석방자 제주읍 거주의 주기현 군은 다음과 같이 참회의 말을 했다.

내가 폭동 가담한 동기는 공산당들이 가재를 불태우고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적구와 행동을 함께 하면 마을을 습격할 때에 약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고한 많은 동포를 잔인 극한 방법으로 이유도 알 수 없는 채 죽여 왔던 것을 정말로 미안하다고 생각한다. 나도 그렇지만 폭동에 참가한 사람은 대부분 공산당의 달콤한 말에 속아서 죄업을 행한 자들로 대한민족과의 동족애를 가진 인간이라면 악한 공산적구 무리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들은 공산주의를 신봉하지 않는 자라면 부모라도 죽이라고 가르쳐 전부를 파괴하고 국민 전부가 아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쳤다.

나는 무력혁명을 기획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인류에 죄악을 일으키고 도덕을 무시하고 자기들 당의 세력 질충에 굶주린 이리떼처럼 절규하는 꼴을 이 눈으로 명백하게 목격하고 또한 강요당하고 있었다.

그래서 노예의 공포의 채찍을 몇 번 받는 사이 정말로 조국 대한민국의 자유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동포를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기 위해 나는 생각했다. 걸식해도 좋으니 자유의 세계에서 살고 싶다고……

▲済州島暴動兇徒帰順感

―十一月迄の帰順者三五八九名―

【ソウル十二日発高岡聯合】暴動の為に時には多くの善良なる国民が虐殺され村落は焼かれ生地獄と化していた済州島は国軍と警察の血のにじみ出る奮戦に依り共産叛逆徒輩は完全に掃蕩され、全道の治安は確立されつゝある。去る十一日迄帰順した土民暴動は全部三五八九名で収容所で物資の配給を受け悉く故里に帰りたが去る五日帰順の釈放者済州邑居住朴基賢君は次の様に懺悔の言葉を述べた

私が暴動に加担した動機は共産党達に家財を焼かれ喰う事が出来なかったからである。赤狗と行動を共にせずば村を襲撃する毎に掠奪が出来るからだ。然し無辜なる多くの同胞を残忍極まる方法をもって訳も知らずに殺し廻ったことは実に済まないと思う。私もそうであったけれども、暴動に参加した者はその殆んどが共産党の甘口にだまされて罪業を働いた者のみだ。大韓民族としての同族愛をもつ人間であれば忌むべき共産赤狗の群には入られないと思った。

彼等は共産主義を信奉しない者なら父母でも殺せと教え総てを破壊して国民の全部が餓死す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教えた。

私は武力革命を企てる共産主義者達が如何に人類に罪悪を働き道徳を無視し自分達の党の勢力拡充に飢えた猿群の如く牛耕めぐく様をこの目で明白に目撃し且つ強いられていた そして奴隷的恐怖の鞭を何度も受ける内に真の祖国大韓民国の自由の世界に再び帰ることを願っていたのである。同胞を愛し国を愛する為に私は思った『乞食になっても良いから自由の世界で生き度い』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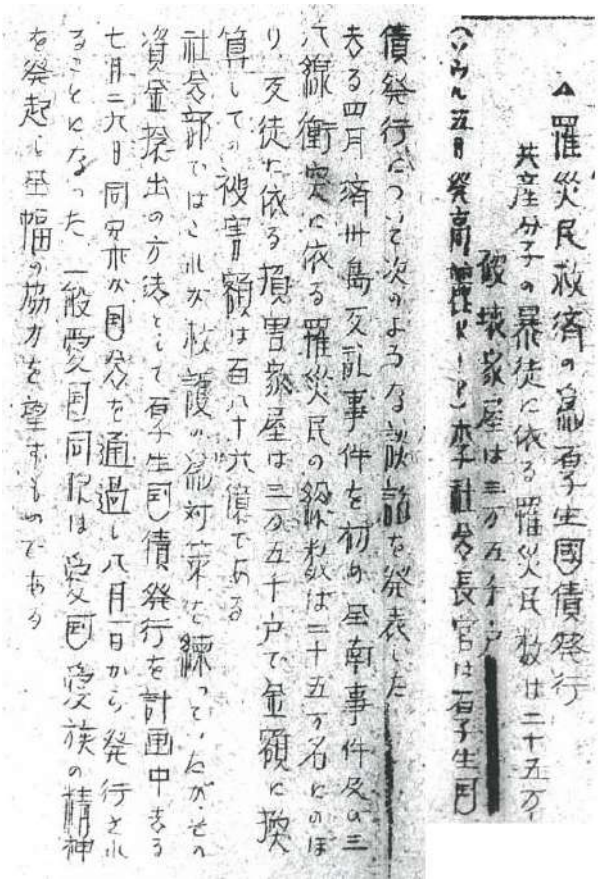
이재민 구제의 후생국책 발행

이재민 구제의 후생국책 발행
공산분자의 폭도에 의한 이재민 수는 25만, 파괴 가옥은 3만5천호

(서울 5일발 고려=KIP) 이사회 장관은 후생국책 발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했다.

지난 4월 제주도 교란사건을 비롯해 전남 사건 및 38선 충돌에 의한 이재민의 총수는 25만에 이르고, 반도에 의한 손해가옥은 3만5천호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피해액은 백86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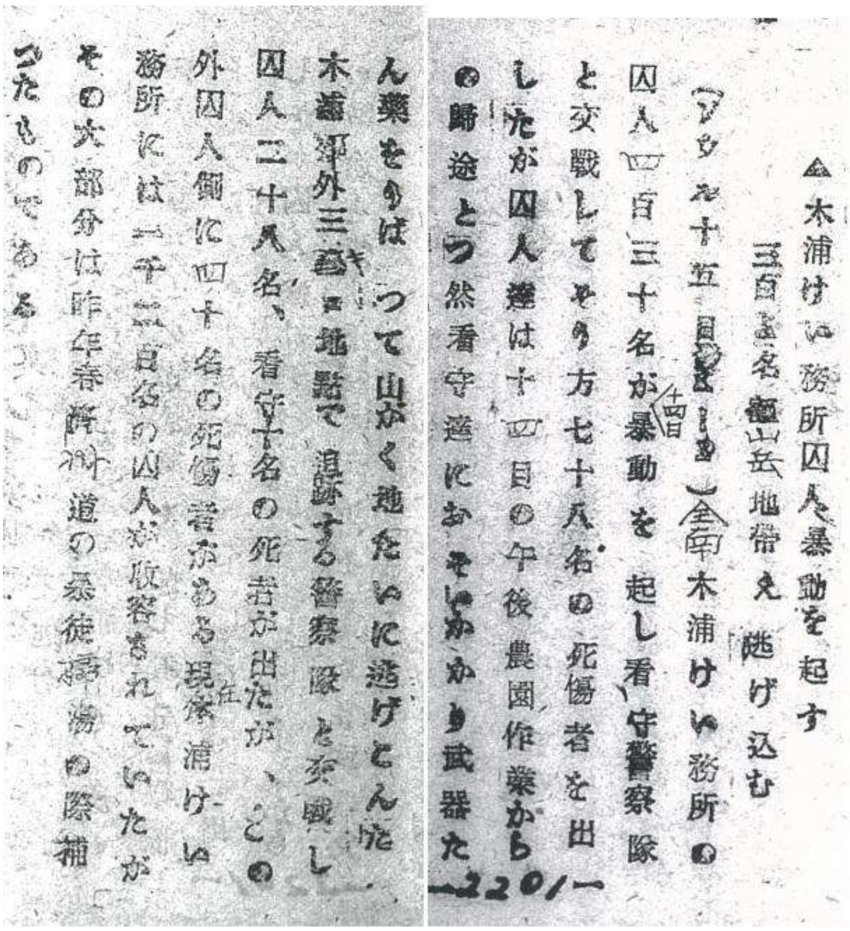
사회부에서는 구호 대책을 마련했는데 그 자금 염출의 방법으로서 후생국책 발행을 계획중 지난 7월 29일 동안(同案)이 국회를 통과하여 8월 1일부터 발행하게 되었다. 일반 애국동포는 애국애족의 정신을 발기하여 전폭의 협력을 바라는 것이다.



목포형무소 죄수 폭동을 일으키다
3백여 명 ○산악지대로 도망치다

목포형무소 죄수 폭동을 일으키다
3백여 명 ○산악지대로 도망치다

(서울 15일발 KIP) 전남 목포형무소의 죄수 4백30여명 14일 폭동을 일으키고 간수경찰대와 교전하여 78명의 사상자를 냈다. 죄수들은 14일 오후 농원작업에서 돌아오다가 돌연 간수들에게 덤벼들어 무기 탄약을 탈취하여 산악지역으로 도망갔다. 목포 교외 3킬로 지점에서 추적하는 경찰대와 교전하여 죄수 28명, 간수 10명의 사고가 났다. 그 외 죄수 측에서 40명의 사상자가 있다. 현재 목포형무소에는 1천2백 명의 죄수가 수용되어 있는데, 그 대부분은 작년 봄 제주도 폭도 소탕 때 잡힌 사람들이다.



△木浦けい務所囚人暴動を起す
三百余名 山岳地帯え逃げ込む

（ソウル十五日発ＫＩＰ）全南木浦けい務所の囚人四百三十名が暴動を起し看守警察隊と交戦してその方七十八名の死傷者を出したが囚人達は十四日の午後農園作業からの帰途とつ然看守達におそいかかり武器だん薬をうばつて山がく地たいに逃げとんだ。木浦郊外三キロ地點で追跡する警察隊と交戦し囚人二十八名、看守十名の死者が出たが、この外囚人側に四十名の死傷者がある。現在木浦けい務所には一千二百名の囚人が收容されていたがその大部分は昨年春濟州道の暴徒掃蕩の際捕つたものである。

■ 통신(通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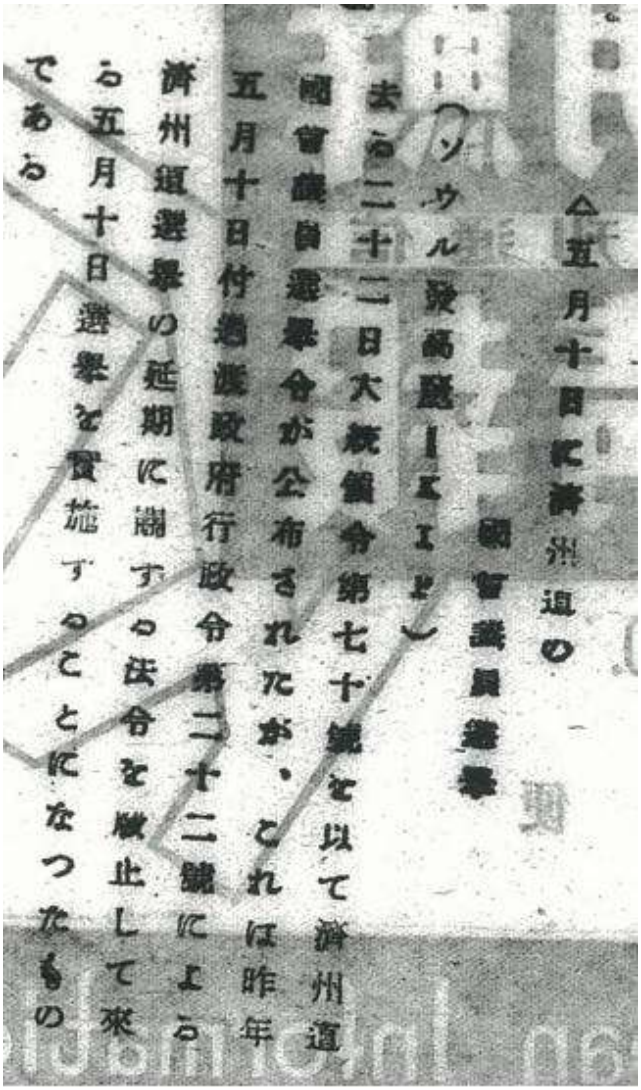
조선정보(관서)
(朝鮮情報)(關西)

조선정보(관서)(朝鮮情報)(關西) 1949년 3월 24일 / 2면

5월 10일에 제주도 국회의원 선거

5월 10일에 제주도 국회의원 선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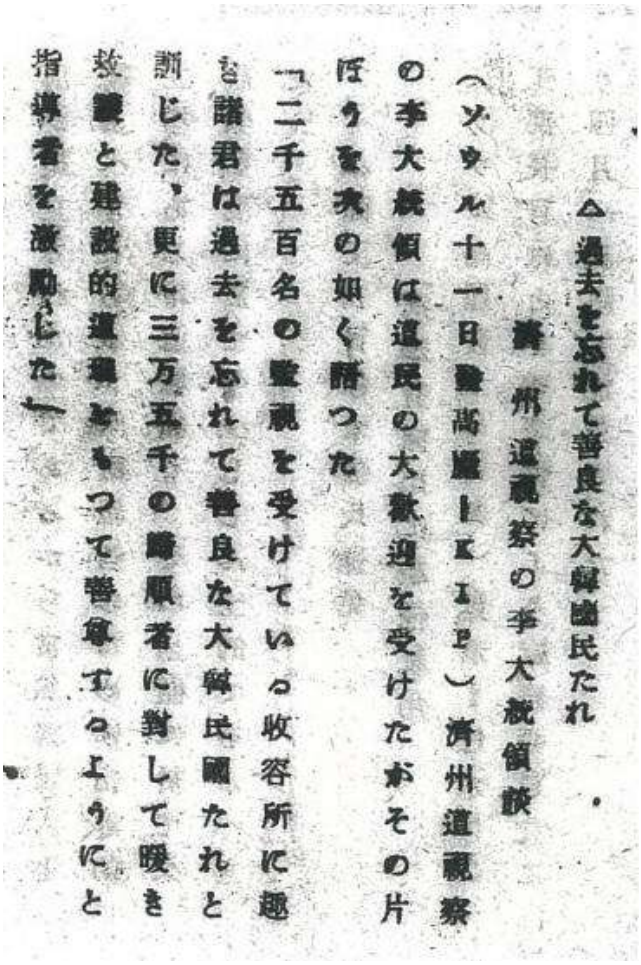
(서울발 고려=KIP) 지난 22일 대통령령 제71호로서 제주도 국회의원 선거령이 공포되었다. 이것은 작년 5월 10일부 지난 정부 행정령 제22호에 의한 제주도 선거 연기에 관한 법령을 폐지하고 오는 5월 10일 선거를 실시하는 것으로 된 것이다.


△五月十日に濟州道の
國會議員選擧
(ソウル發高麗ーKIP)
去る二十二日大統領令第七十號を以て濟州道
國會議員選擧令が公布されたが、これは昨年
五月十日付過渡政府行政令第二十二號による
濟州道選擧の延期に關する法令を廢止して來
る五月十日選擧を實施することになつたもの
である

과거를 잊고 선량한 대한국민이 되어라
제주도 시찰의 이(李) 대통령 담(談)

과거를 잊고 선량한 대한국민이 되어라
제주도 시찰의 이(李) 대통령 담(談)

(서울발 11일발 고려=KIP) 제주도 시찰의 이 대통령은 도민의 대환영을 받고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2천5백 명의 감시를 받고 있는 수용소로 향하는 제군은 과거를 잊고 선량한 대한국민이 되라고 가르쳤다. 더욱이 3만5천의 귀순자에 대해서 따뜻한 구호와 건설적 도리를 가지고 올바르게 대하도록 지도자를 격려했다.」


△過去を忘れて善良な大韓國民たれ
濟州道視察の李大統領談
(ソウル十一日發高麗KIP)濟州道視察の李大統領は道民の大歡迎を受けたおその片ほうを次の如く語つた
「二千五百名の監視を受けている收容所に趣き諸君は過去を忘れて善良な大韓民國たれと訓じた、更に三万五千の歸順者に對して暖き救護と建設的道理をもつて善導するようにと指導者を激勵した」

조선정보(관서)(朝鮮情報)(關西) 1949년 4월 14일 / 3-4면

한위(韓委) 김 내무장관과 요담

한위(韓委) 김 내무장관과 요담

(서울발 14일발 고려=KIP) 국련(國連)신한국위원단 제1분과 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1시간에 걸쳐 김우석 내무장관과 회견했다. 또 공보관 쟈밧토(역주: 샤바스, 스위스 출신)씨는 11시 30분부터 덕수궁에서 기자단과 회견하고 다음과 같이 일문일답을 했다.

문- 이번 제1분과 위원회가 제주도를 시찰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답- 제주도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이다.

문- 제주도 및 전남 반란지구의 시찰은 한국 정부의 요청에 의한 것인가

답- 제1분과 위원회 자체 의사에 의한 것이다.

문- 5월 10일 실시할 제주도 국회의원 보결 선거를 감시할 예정인가

답- 이 문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韓委 金內務長官と要談

(ソウル十四日發高麗ーKIP)

國連新韓國委員團第一分科委員會は十四日午前十時三十分より約一時間に亘つて金考錫內務長官と會見した、又公報官ジヤバット氏は十一時三十分より德壽宮に於て記者團と會見し次のような一問一答をした

問ーこの度第一分科委員會が濟州道を視察する目的は何か

答ー濟州道の事情を具さに知るためである

問ー濟州道及び濟南反亂地區の視察は韓國政府の要請に依るものか

答ー第一分科委員會自体の意思によるものである

問ー五月十日實施される濟州道の國會議員補缺選擧を監視するつもりか

答ーこの問題は未だ決定しない

조선정보(관서)(朝鮮情報)(關西) 1949년 4월 15일 / 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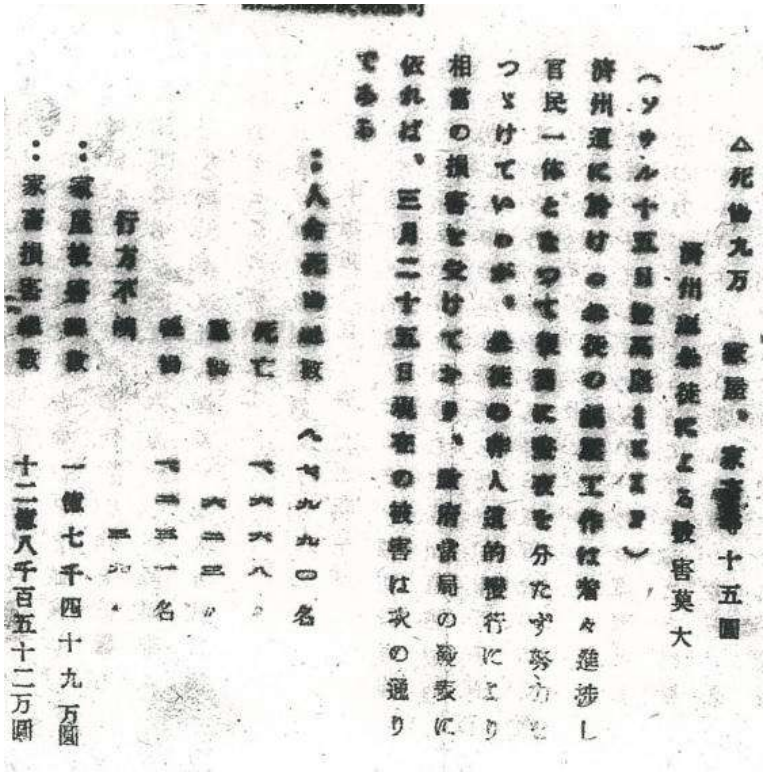
사상(死傷) 9만 가옥, 가축 등 15원
제주도 폭도에 의한 피해 막대

사상(死傷) 9만 가옥, 가축 등 15원
제주도 폭도에 의한 피해 막대

(서울 15일발 고려=KIP) 제주도에서의 폭도 진압 공작은 착착 진척하고 관민일체가 합심하여 부흥에 주야를 가리지 않고 노력을 하고 있다. 폭도의 비인도적 만행에 의해 상당한 손해를 입고 있다. 정부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3월 25일 현재 피해는 다음과 같다.

- 인명사상자 총수 87,990명
  사망 1,668명, 중상 623명, 경상 1,231명, 행방불명 39명
- 가옥 피해 총수 1억7천49만원
- 가축 손해 총수 12억8천152만원

※역주: 15원은 15억원의 오기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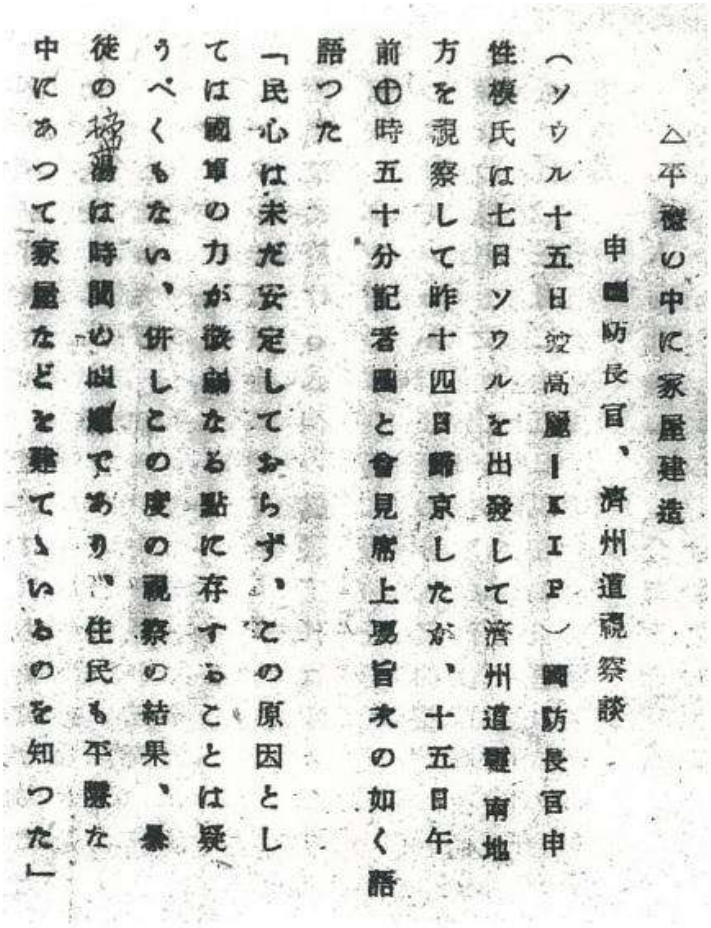
△死傷九万 家屋、家畜等十五圓
濟州道暴徒による被害莫大
(ソウル十五日發高麗ミヨミ)
濟州道に於ける暴徒の鎮壓工作は着々進捗し官民一体となつて復興に昼夜を分たず努力をつゞけているが、暴徒の非人道的蠻行により相當の損害を受けており、政府當局の發表に依れば、三月二十五日現在の被害は次の通りである
：人命死傷總數 八七九九〇名
死亡 一六六八〃
重傷 六二三〃
輕傷 一二三一名
行方不明 三九〃
：家屋被害總數 一億七千四十九万圓
：家畜損害總數 十二億八千百五十二万圓

평온 속에서 가옥 건조
신(申) 국방장관, 제주도 시찰 이야기

평온 속에서 가옥 건조
신(申) 국방장관, 제주도 시찰 이야기

(서울 15일발 고려=KIP) 국방장관 신성모 씨는 7일 서울을 출발하여 제주도청 남지방을 시찰하고 지난 14일 귀경했다. 15일 오전 0시 50분 기자단과 회견석상 요지는 다음과 같다.

「민심은 아직 안정되어 있지 않다. 이 원인으로서는 국군의 힘이 미약한 점에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한 이번 시찰 결과, 폭도의 소탕은 시간의 문제이고, 주민도 평온 속에서 가옥 등을 짓고 있음을 알았다.」



△平穩の中に家屋建造
申國防長官、濟州道視察談
（ソウル十五日發高麗ＩＫＩＰ）國防長官申性模氏は七日ソウルを出發して濟州道雜南地方を視察して昨十四日歸京したが、十五日午前⑪時五十分記者團と會見席上要旨次の如く語語つた
「民心は未だ安定しておらず、その原因としては國軍の力が微弱なる點に存することは疑うべくもない、併しこの度の視察の結果、暴徒の檢擧は時間の問題であり、住民も平靜な中にあつて家屋などを建てゝいるのを知つた」

조선정보(관서)(朝鮮情報)(關西) 1949년 4월 20일 / 4면

한위(韓委), 제주도 시찰을 연기

한위(韓委), 제주도 시찰을 연기

(서울 20일발 고려=KIP) 국련한국위원단 제1분과 위원회는 19일 김포비행장을 출발하여 제주도 시찰행에 향했는데, 도중 기후 이상으로 김포비행장으로 돌아왔다. 아직 다음 시찰행 일시는 불명이다.

△韓委、濟州道視察を延期

（ソウル二十日發高麗－K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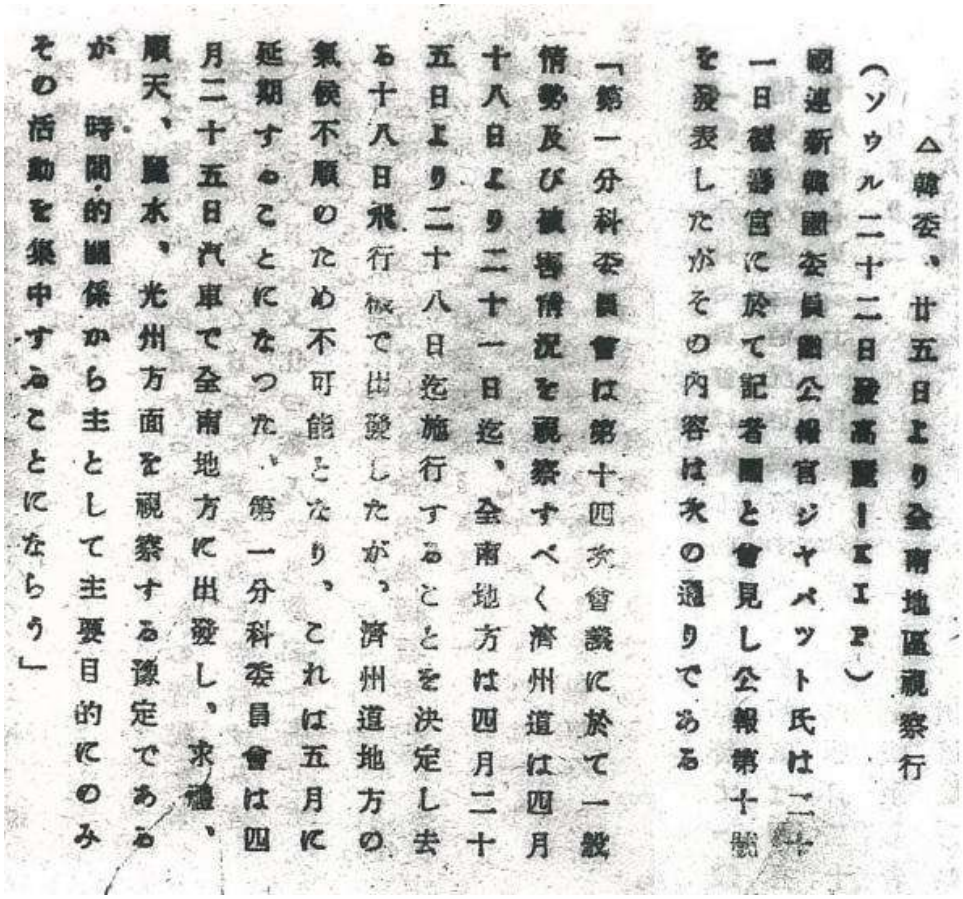
國連韓國委員團第一分科委員會は十九日金浦飛行場を出發して濟州道視察行に向つたが、途中氣候の關係により金浦飛行場に引返してきた、尚次の視察行時日は不明である

한위(韓委), 25일부터 전남지구 시찰행

한위(韓委), 25일부터 전남지구 시찰행

(서울 22일발 고려=KIP) 국련신한국위원단 공보관 쟈밧토 씨는 21일 덕수궁에서 기자단과 회견하고 공보 제10호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분과위원회는 14차 회의에서 일반 정세 및 피해 정황을 시찰해야 한다. 제주도는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전남지방은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시행할 것을 결정하여 지난 18일 비행기로 출발했는데, 제주도 지방의 기후 불순으로 불가능하여 이것을 5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제1분과 위원회는 4월 25일 기차로 전남지방으로 출발했고, 구례, 순천, 여수, 광주 방면을 시찰할 예정이나 시간적 관계로 주로 주요 목적에만 그 활동을 집중하기로 했다.



△韓委、廿五日より全南地區視察行

（ソウル二十二日發高麗－KIP）

國連新韓國委員團公報官ジャパット氏は二十一日德壽宮に於て記者團と會見し公報第十號を發表したがその內容は次の通りである

「第一分科委員會は第十四次會議に於て一般情勢及び被害情況を視察すべく濟州道は四月十八日より二十一日迄、全南地方は四月二十五日より二十八日迄施行することを決定し去る十八日飛行機で出發したが、濟州道地方の氣候不順のため不可能となり、これは五月に延期することになつた、第一分科委員會は四月二十五日汽車で全南地方に出發し、求禮、順天、麗水、光州方面を視察する豫定であるが時間的關係から主として主要目的にのみその活動を集中することになら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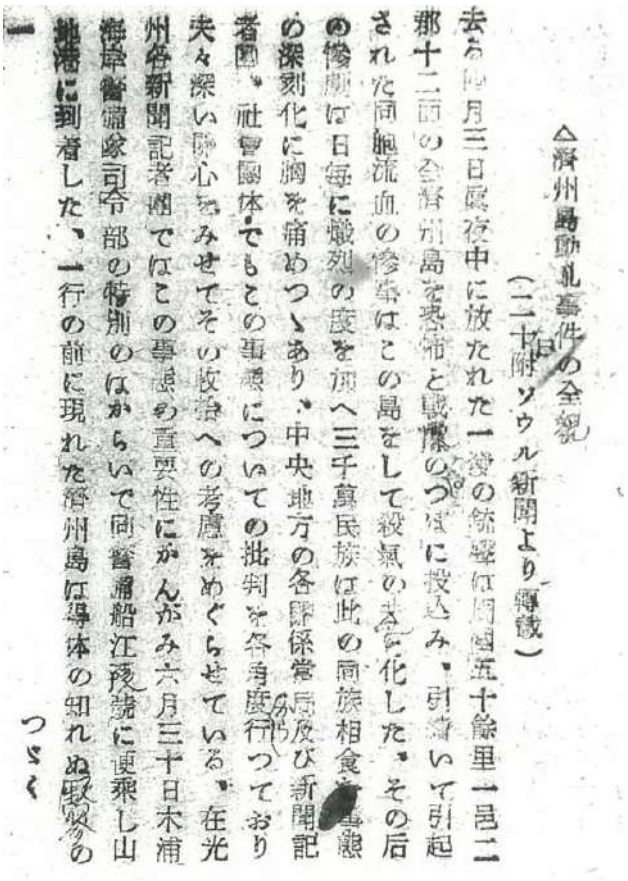
■ 통신(通信)

신아통신(新亜通信)

제주도 동란 사건의 전모

제주도 동란 사건의 전모

지난 4월 3일 한밤중에 울려퍼진 한 발의 총성은 주위 5십여리 1읍 2군 1십2면의 전 제주도를 공포와 전율의 구덩이로 던져넣고, 이어서 일어난 동포 유혈의 참상은 이 섬을 살기의 거리로 만들었다. 그 후의 참극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3천만 민족은 이 동족상잔의 사태의 심각화에 통탄하고 있고, 중앙 지방의 각 관계당국 및 신문기자단 사회단체도 이 사태에 대해 비판을 각 각도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매우 깊은 관심을 보이고 그 수습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다. 재광주 각 신문기자단에서는 이 사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6월 30일 목포 해안경비대 사령부의 특별한 배려로 경비선 강릉호에 편승하여 산지항에 도착한 일행 앞에 나타난 제주도는 정체를 모르는 적막의(다음 페이지로 이어짐)



△濟州島動乱事件の全貌
（二十日附ソウル新聞より轉載）
去る四月三日夜中に放たれた一發の銃聲は同胞五十餘里一邑二
那十二面の全濟州島を恐怖と戰慄のつぼに投込み、引續いて引起
された同胞流血の慘事はこの島をして殺氣の巷と化した。その后
の慘劇は日毎に熾烈の度を加へ三千眞民族は此の同族相食む悲慘
の深刻化に胸を痛めつゝあり、中央地方の各關係當局及び新聞記
者團、社會團体でもこの事態についての批判を各角度行つており
夫々深い關心をみせてその收拾への考慮をめぐらせている。在光
州各新聞記者團ではこの事態の重要性にがんがみ六月三十日木浦
海岸警備隊司令部の特別のはからいで同警備船江陵號に便乘し山
地港に到着した、一行の前に現れた濟州島は導体の知れぬ恐怖の
つゞく

신아통신(新亜通信) 1948년 7월 30일 / 2면

제주도 동란 사건의 전모

제주도 동란 사건의 전모

기운에 싸여 쥐죽은 듯 조용한 항내에는 강릉호 1척의 경비선과 어선이 드문 드문 정박해 있을 뿐, 예전에는 어부의 만보(漫步)로 활기찼던 해안의 주점도 주지가 없는 산사(山寺)처럼 한산했다. 간혹 미국식 복장에 피스톨로 무장한 국방경비대원과 작업복 아래에 미군 와이셔츠를 입은 미군장교용 모자를 비스듬히 쓰고 미국식 총을 어깨에 맨 모던(?)한 경관이 한가로이 여기저기를 거닐고 있었다. 이미 중앙에서 현지를 시찰한 판사, 검사, 변호사들은 이번 4·3 사건의 한 원인으로 관공리의 부패를 들고 있지만, 이 문제는 예상 이상으로 심각하고 광범위하게 걸쳐 있는 것으로 보이며, 김 청장과 임 도지사도 이를 솔직히 인정하고 있고, 행정경찰 각 부분의 부정 관공리는 이 섬의 독특한 생활환경에서 양성된 도민의 생할감정을 권력에 의해 유린하고 또한 사설단체의 월권행위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그들의 생존을 불안한 것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들 간부 탐관오리들은 사복을 채우는데 급급하여 그 뜻에 반하는 동배(同輩), 부하는 모두 중상모략으로 축출해왔다. 그들은 일본에서 귀환하는 다수의 도민의 재산을 밀수품으로 인정하여 몰수하고 수십년간 피와 탐의 결정인 재산을 세관, 경찰서, 항무청, 그 외 무수한 관공청을 이용하여 몰수하고 또한 사설단체원은 가택수사에 편승하여 귀중품을 몰수하고 금품을 강탈하고, 불법 구타, 폭행을 해왔다. 2,7 이후에 실시된 통행증은 3십원에서 1백원까지의 과금으로 배부하여 그들의 이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는 모두 '빨갱이'라고 지목되어 온갖 박해를 받아 왔다. 11연대장 박대령의 피살사건은 항에 일대충격을 일으켰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그 진상은 발표하지 않았다. 기자가 각 방면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해(다음 페이지로 이어짐)

低に包まれ、靜まりかへつた港内には数隻の警備船と漁船が點々と碇泊しているだけで、かつては漁夫の漫歩で賑つていた海邊の酒屋もちようど住職の居ない山寺のように閑散としている。たゞ僅かに米式服装に身を堅めピストルを下げた警防警備隊員と作業服の下に米軍のワイシャツを着込み米軍將校用の帽子をたゝめにかぶつて米式銃を肩にしたモダーン（？）な警官がノンビリとあちこちを遊歩している、既に中央から現地を視察した判事、檢事辯護士四諸氏はこんどの四・三事件の一原因として官公吏の腐敗をあげているがこの問題は豫想以上に深刻且つ廣範圍に亙つている如くみられ、金驥旻と任道知事もこれを率直に認めており、行政警察各部門の不正官公吏は此の島の獨特な生活環境から醸成された島民の生活感情を權力によつてじゆうりんしまた私設團体の越權行爲も島民の生命と財産を脅威し彼等の生存を不安なものにしたと言つている、彼等幹部貪官汚吏達は私服を肥すのに汲々としその意に背く同胞、部下はすべて謀略中傷によつて逐出して來た。彼等は日本から歸還する多數の島民の財産を密輸品と認定し没收し數十年間血と汗の結晶である財産を税關、警察署、港湾[illegible]其の他無數の官公廳を利用して没收しまた私設團体員は家宅搜査に便乘して貴重品を没收し、金品を強奪し、不法毆打暴行を行つてきた、二、七以後檢擧された通行證は三十圓から百圓までの料金で配付し彼らのいう命令にしたがわないものはすべて「赤」と指目されてあらゆる迫害を受けて來たのだ、十一連隊長朴大領の被殺事件は巷に一大衝撃を與えたが色々な都合から未だにその眞相は發表されていない。記者が各方面から入手した資料によつて

つゞく

신아통신(新亜通信) 1948년 7월 30일 / 3면

제주도 동란 사건의 전모

제주도 동란 사건의 전모

판단하면 그 경위는 다음과 같다. 박대령을 살해한 일당은 제주출신의 강중위 이하 8명으로, 강중위는 박대령의 도내사태 수습책에 불만을 갖고 있었고, 자신의 진급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불평하며 결국 박대령의 살해를 결의하여, 이전부터 살해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살해 당일 밤 박대령이 오전 1시 경에 외출에서 돌아와서 잠든 3시 15분경 하사관 1명을 그의 침실에 잠입시켜 소총 1발로 그를 즉사시킨 것으로, 경호원 등은 이를 외부의 총성으로 오인하고 부근을 수색하여 4시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박대령의 피살이 발견되었다. 당국에서는 3십만원 2계급 승진의 현상으로 이 범인 체포에 주야를 불문하고 노력한 결과 모 방면에 도피하고 있던 병졸 1명을 체포했다.
그를 체포한 공로자인 군기대장은 강중위와 항상 침식을 함께 하고 있던 친구라고 한다.
지난 7월 1일의 읍면장 회의에서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4월 3일 이래 15일 간의 피해는 소실가옥은 4백2십1호, 양민 사망 2백9십명, 동 부상 9십8명, ○○ 3십5명으로 특히 피해가 심한 곳은 저지, 금출, 오라리, 함덕, 도두리 등으로 이를 면 단위로 보면 한림, 조천, 구좌, 대정, 제주읍 등이다. 이 중 한림면, 저지 부락에서는 1백8십여가 전소하고 2십명의 사망자와 2명의 중상자를 냈다. 이 참사의 발단은 저지 지서를 습격한 주범으로 지명된 현모 일족의 1십8호가 4월 8일 전소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목하 8백여명의 이재민이 길거리에 떠돌고 있다. 기자가 방문한 곳에서 많은 행방불명자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난 6월 중순부터 북촌이라는 부락에서 행방불명이 된 자의 시체가 7월 6일 오라리 부근에서 발견되었다. 동족상잔의 참극(다음 페이지로 이어짐)

判斷するとその經緯は次のようである、朴大領を殺害した一党は濟州出身の姜中尉以下八名で、前記姜は、朴大領の島内事態收拾策に不滿を持つており自己の進級が遲々としているのに不平を鬱き遂に朴大領の殺害を決意して、かねてから殺害の機會をねらつていたものである、殺害當日の夜は朴大領が午前一時頃外出から歸つて寢ついた三時十五分頃下士官一名を彼の寢室に潜入させ小銃一發で彼を即死させたもので當護員等はこれを外部の銃聲と誤認し附近を捜索し、四時ごろになつてはじめて朴大領の被殺が發見された、當局では三十萬圓二階級昇進の懸賞でこの犯人逮捕に晝夜の別なく努力をそゝいだ結果某方面に逃避していた一味中の兵卒一名を逮捕した、

彼等を逮捕した功勞者である軍紀家長は前記姜中尉と常に寢食を共にしていた友人であるという

去る七月一日の彭面長會議で報告されたところによると四月三日以來十五日までの被害は燒失家屋は四百二十一戸、良民死亡二百九十名、同負傷九十八名、投獄三十五名で、特に被害が甚しいところは楮旨、今出、吾羅里、咸德、道頭里などで、これを面別に見ると翰林、[illegible]、楮左、大[illegible]、濟州邑などであるこの中翰林面、楮旨部落では一八〇餘が全燒し二十名の死者と二名の重傷者を出したが、この慘事の發端は、楮旨支署を襲撃した主犯として指名された、玄某一族の十八戸が四月八日全燒したところにはじまつたもので目下八百餘名の罹災民が路頭に彷徨している、記者が訪問した各所で多くの行方不明者の話をきいたが去る六月中旬から北村という部落で行方不明になつていた者の死体が七月六日吾羅里附近で發見された、同族相食む慘劇

신아통신(新亜通信) 1948년 7월 30일 / 4면

제주도 동란 사건의 전모

제주도 동란 사건의 전모

을 연출하고 있는 제주도의 사태는 지금 제2단계에 돌입한 듯하다. 일단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던 전투는 5월 20일을 기점으로 거의 안정된 듯하다. 7월 1일에는 도내 교통이 개통되고 5일에는 육지와의 교통도 해제되기에 이르러 극도로 긴장하고 있던 공기는 현저히 완화된 듯하다. 제주읍 주변 해안에는 1,2개의 어선과 해녀도 가끔 보이고 상점도 열어서 손님을 부르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도민의 얼굴은 활기가 없고 삼엄한 경계망은 여전히 둘러처져 있다. 통행금지 구역이 된 거리에는 일정 거리를 두고 무장경관이 배치되어 관공청 주변에는 바리케이트까지 보인다. 이리하여 이 섬의 침울한 공기는 보는 자의 가슴을 초조하게 한다. 거리를 달리는 자동차는 경찰이 경비대의 트럭으로 제한되고 일반 자동차는 모두 징발되어 도내의 교통은 마비상태에 빠졌다. 거리에는 조석으로 새로운 목적지로 향하는 부대와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무장대 시위 군가가 들린다.
또한 기자가 수집한 자료를 통해 소요 측의 동정을 보면 아직 여전히 1천명 가까운 주력부대가 여러 곳에 전개하고 있고 그들은 김달삼(28)이라는 총사령의 지휘를 받고 있고
1, 도민생활의 안전을 복구시킬 당국의 적절한 시책
2,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한 경찰의 무장해제
3, 경찰관의 권력 남용의 엄금 및 모모 사설단체의 숙청 등의 요구와 조건을 내걸고 이 현실 문제의 해결이 실현되지 않는 한 최후까지 도내 전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해 재궐기한다고 하고, 그 태세를 갖추고 여전히 경계하고 있어 여기에 대한 책임당국의 대응책은 주목할만 할 것이다.

一

を演出している濟州島の事態はここに第二段階に入つたようである一時熾烈に展開されていた戰斗は五月二十日を峠として殆ど終つたようである、七月一日には島内の交通が開通され、五日には陸地との交通も解除されるに至つて緊張していた空氣は著しく緩和されたようである、濟州島周邊の海岸には一二の漁船や海女も時たま見られ、商店をひらき客を呼んでいるしかし全般的には島民の顔は活氣が無く、森嚴な警戒網は依前としてはりめぐらされ、通行禁止區域になつている街には一定の間をおいて武裝警官が配置され官公署周邊にはバリケードさへみられる、かくてこの島の沈鬱な空氣は見る者の胸をいらだたせる、街を走る自動車は警察か警備隊のトラックに限られ一般の自動車はすべて徴發されて島内の交通はマヒ狀態に陷いつている、街には朝夕新らたな目的地へ向う部落と任務を終つて歸る武裝隊示威軍歌が聞えている

なお記者が集めた資料によつて聯援側の動靜をみるとまだいぜん千名近い主力部隊が隨所に展開しており彼らは金達三（二八）という總司令の指揮を受けており

一 島民生活の安全を復舊させる當局の適切な施策

二 民心を安定させるための警察の武裝解除

三、警察官の權力の濫用の嚴禁及び某々私設團体の肅清等の要求條件をかゞげてこの現實問題の解決が實現されない限り最後まで道内全人民の生命財産の定全のために再けつ起すると言いその態勢を整え依然頑張つているものでこれに對しての責任當局の對應策は注目されるところであろう

了

제주도 현지답사기(1)
(대구법조기자단)

제주도 현지답사기(1)
(대구법조기자단)

동족상잔의 처참한 비극이 전개되고 있는 제주도를 현지답사하기 위해 대구의 법조기자단 일행은 7월 13일 오후 8시 부산항을 출발하여 15일 오전 9시경 제주도읍항에 도착했다. 상륙한 일행은 무장경관의 엄중한 신체검사를 받았다. 도로 요소요소에는 무장경관, 국방경비대 등이 삼엄하게 경계진을 치고 있다. 그곳은 제주도 수부(首府)이며 도내 모든 행정기관이 집중해 있는 곳이다. 일행은 중앙여관에 여장을 풀고 바로 국방경비대 제주도 방면사령부의 최○○사령관을 방문했다. 최씨는 기자단 일행에게 다음과 같은 소요 사태를 말했다.

1. 4월 3일의 사건발생으로부터 7월 15일 현재까지 사령부에서 취급한 부로(俘虜)는 약 1천8백명 내외이며 이 중 석방자 약 1천6백명, 수용소에 있는 자 약 1백5십명, 송청(送廳)자 4십6명이다. 송청자 중 4십명은 주모자로 인정된 자들이며 그 중 여성 약간명이 있지만 대부분은 가정부인이며 지식 정도는 고녀(高女) 출신이다.
2. 현재까지 한라산을 중심을 하여 토벌을 4회 실시했는데 산사람들은 체포할 수 없었다.
3. 한라산에는 약 4개연대(1개 연대는 약1백2십명)이며 약 6백명이 존재한다.
4. 국방경비대원으로 현지 재판을 받은 자가 4십3명인데 그 중 사형은 5명, 10년 징역이 1십명이다.
5. 국방경비대가 산에 들어가면 산사람들은 발포하지 않지만 오히려 경관이 그들에게 발포하는 일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6. 산사람들의 연령층은 12세부터 60세까지로 청년층이 가장 많다. 또한 사령관은 제주도 사태의 수습은 무력으로는 절대 바랄 수 없다고 역설했다(이하 다음호).

一

△濟州島現地踏査記（其の一）

（大如法曹記者團）

同族相食む悲慘な悲劇が展開されている濟州島を現地踏査すべく大如法曹記者團一行は七月十三日午后八時釜山港を出發し、十五日午前九時頃濟州島邑港に到着した、上陸した一行は武裝警官の嚴重な身体檢査を受けた、道路の要所要所には武裝警官、國防警備員らがものものしく警戒陣をしている、そこは濟州島首府であり島内のすべての行政機關が集中しているところである、一行は中央旅館に旅裝をほどき直に國防警備隊濟州島方面司令部の崔襲鉄司令官を訪れた、氏は記者團一行につぎのような騷擾事態を語つてくれた

一、四月三日の事件發生から七月十五日現在までに司令部で取扱つた浮浪は約千八百名内外でうち釋放者約千六百名、收容所にいるもの約百五〇名、送廳者四十六名となつている、送廳者の四十名は主謀者と認められる者達でそのうち女性若干名があるが大部分は家庭婦人で、知識程度は高女出身程度である

二、現在までに漢拏山を中心として討伐を四回行つたが山人らは逮捕することはできなかつた

三、漢拏山には約四個連隊（一個連隊は約百二十名）で約六百名が存している

四、國防警備隊員で現地裁判を受けたものが四十三名あるがその中死刑は五名、十年懲役が十名で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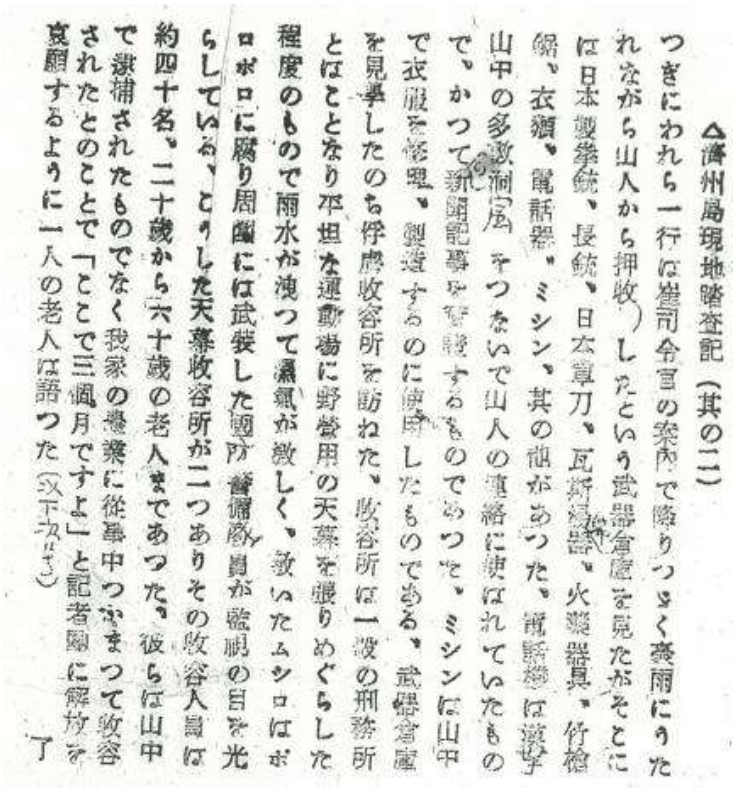
五、國防警備隊が山に入れば山人らは發砲せないがかへつて警官が彼等に發砲することがあるというのは事實である

六、山人らの年齢層は十二才から六十才までで青年層が一番多い、なお司令官は濟州島事態の收拾は武力[illegible]は絶体のぞめないと力說した（以下次號）

제주도 현지답사기(2)

제주도 현지답사기(2)

다음으로 우리 일행은 최 사령관의 안내로 쏟아지는 큰 비를 맞으며 산사람들로부터 압수했다는 무기창고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일제 권총, 장총, 일본도, 와시○기, 화약기구, 죽창○, 의류, 전화기, 재봉틀 등이 있었다. 전화기는 한라산의 다수 동굴을 연결하고 산사람의 연락에 사용되고 있던 것으로 전에 신문기사를 실증하던 것이었다. 재봉틀은 산중에서 의복을 수리, 제조하는데 사용한 것이다. 무기창고를 견학한 후에 부로(俘虜)수용소를 방문했다. 수용소는 일반 형무소와는 다르며 평탄한 운동장에 야영용 천막을 둘러친 정도의 것으로 빗물이 새어 습기가 엄청나며 깔아놓은 망석은 너덜더덜해져서 썩었고 주위에는 무장한 국방경비대원이 감시의 눈을 번뜩이고 있다. 이러한 천막수용소가 두 군데 있고 그 수용인원은 약 4십명, 20세부터 60세 노인까지 있었다. 그들은 산중에서 체포된 것이 아니라 집 농업에 종사중 붙잡혀 수용되었다고 하며, “여기서 3개월 되었습니다”라며 기자단에게 해방을 애원하는 듯 한 노인이 말했다(이하 다음호).



△濟州島現地踏査記（其の二）

つぎにわれら一行は崔司令官の案内で降りつゞく豪雨にうたれながら山人から押收したという武器倉庫を見たがそこには日本製拳銃、長銃、日本軍刀、瓦斯湯器、火藥器具、竹槍鋸、衣類、電話器、ミシン、其の他があつた、電話機は漢字山中の多數洞窟をつないで山人の連絡に使はれていたもので、かつて新聞記事を寄送するものであつた、ミシンは山中で衣服を修理、製造するのに使用したものである、武器倉庫を見學したのち俘虜收容所を訪ねた、收容所は一般の刑務所とはことなり平坦な運動場に野營用の天幕を張りめぐらした程度のもので雨水が洩つて濕氣が激しく、敷いたムシロはボロボロに腐り周圍には武裝した國防警備隊員が監視の目を光らしている、こうした天幕收容所が二つありその收容人員は約四十名、二十歳から六十歳の老人まであつた、彼らは山中で逮捕されたものでなく我家の農業に從事中つかまつて收容されたとのことで「ここで三個月ですよ」と記者團に解放を哀願するように一人の老人は語つた（以下次號）

了

제주도 현지답사기(3)

제주도 현지답사기(3)

일행은 다시 제주도경찰청장관 김봉호씨를 찾아 본 섬 동란에 관해 다음과 같은 1문1답을 진행했다.

문-이번 사건 발생원인은 무엇인가?

답-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원인이 있다. (1)과거에 경관의 도민에 대한 비행 (2)관공리의 악질배 도량(跳梁) (3)모당모량에 주민이 선동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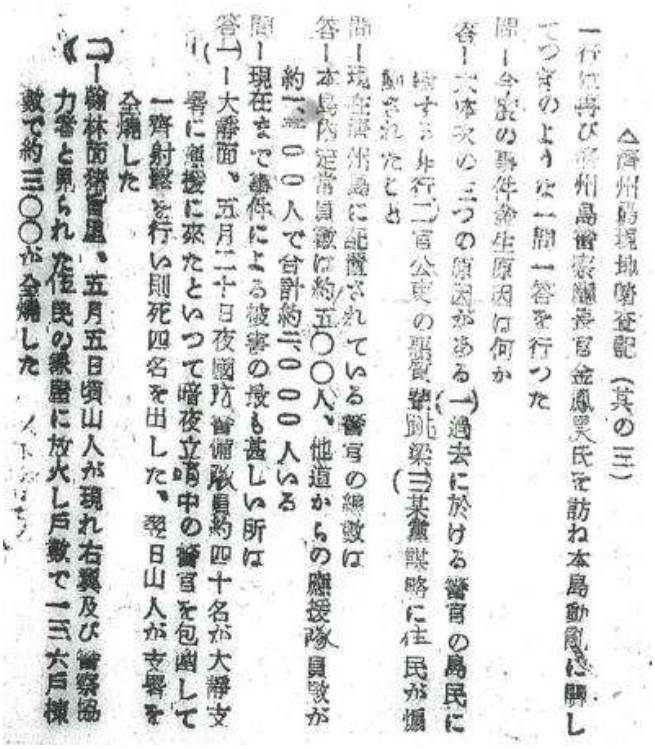
문-현재 제주도에 배치된 경관의 총수는?

답-약 1천3백명으로 합계 약 2천명 있다.

문-현재까지 사건에 의한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은?

답(1)-대정면, 5월 20일 밤 국방경비대원 약 4십명이 대정지서에 응원하러 왔다며 암야입○중인 경관을 포위하여 일제 사격을 하고 즉사 4명이 나왔다. 다음날 산사람이 지서를 전소했다.

(2)-한림면 저지리, 5월 5일경 산사람이 나타나 우익 및 경찰협력자로 보인 주민의 가옥에 방화하고 호수로 1백3십6호 동수로 약 3백이 전소했다(이하 다음호).



제주도 현지답사기(4)

제주도 현지답사기(4)

문-산사람의 요구조건은 무엇인가?
답-그들은 산에서 '혈서'라는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보면 그 요구조건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1)경관의 무장해제 (2)단정반대의 자유 허여(許與) (3)일절의 사설단체 즉시 ○○ (4)행정관리에게는 풍속습관을 이해하는 본 도민을 등용한다
문-산사람의 활동은 현재 어느 정도인가?
답-각지에 출몰하고 있던 소위 유격대는 현재 자위대로 바뀌어 각자의 부락에 숨어 경찰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 듯 하다. 한라산에는 약 6백명이 잔류하고 있는 것 같다.
문-사건 수습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답-(1)비행경관 내부숙청을 실행하고 있다 (2)최소수의 폭도를 체포하는데 최대다수의 양민을 희생시키는 우책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3)모당의 ○전술에 주민이 다시 선동되지 않도록 민주경찰의 본○를 주민에게 선무하여 경관이 주민으로부터 쌀 한 톨, 달걀 한 개라도 이유없이 받지 않도록 교도한다
문-4·3사건 이래 피해상황은?
답-△피습경찰서25, 경관사택8, 관공서4, 선거사무소18 △납치경관4 △경관가족16, 관공리2, 양민293 △○○5, 관공리2, 양민2 △방화경찰서2, 동사택4, 동가족주택4, 관공서3, 주민가옥233 △파괴경찰관서2, 동사택2, ○○3, 교량5 △사망자수 경관25, 동가족25, 주민82, 관공리3, 폭도171 △부상경관35, 동가족35, 주민69, 관공리7, 폭도14 △무기피탈 총기23, 탄환489 △무기회수 총기14, 탄환489 △행방불명 경관6 △검거인원 282

△済州島現地踏査記（其の四）

問－山人の要求條件はなにか

答－彼等は山で「血書」という新聞を發行しているがそれを通じて見ればその要求條件は大体次のようである

（一）警官の武装解除（二）民政府の自由許與（三）一切の私設團体即時解散（四）行政官吏には風俗習慣を理解する本島民を登用する

問－山人の活動は現在どの程度か

答－各地に出没していた所謂遊撃隊は現在自衛隊に變り各自の部落に於つて警察の動向をうかがつているらしい。現在漢拏山には約六百名が蟠踞しているようである

問－事件收拾にどんな對策を講じているか

答－（一）非行警官の内部肅清を斷行している（二）最小數の暴徒を掃滅するのに甚大多数の良民を犠牲にする愚策を用いないこと（三）暴徒の宣傳術に住民が再び煽動されないように民主警察の方針を住民に宣撫して警官が住民から米一粒、卵一個でも理由なしに受取らないように指導する

問－四・三事件以來の被害状況は

答－△被襲警察署二五、警官舍宅八、官公署四、選擧事務所一八△殺害一△拉致警官四、警官家族一六、官公吏二、良民二九三△テ[illegible]官公吏二、良民二△放火警察署二、同舍宅四、同家族住宅四、官公署三、住民家屋二三三△破壊警察署二、同舍宅二、道路三、橋梁五、△死亡者数警官二五、同家族二五、住民八二官公吏三、暴徒一七一△負傷警官三五、同家族三五、住民六九、官公吏七、暴徒一四△武器被奪銃器二三、弾丸四八九△武器回收銃器一四、弾丸四[illegible]八九△行方不明警官六△檢擧人員二八二

了

남조선인민대표자회의(제2일)

남조선인민대표자회의(제2일)

(평양23일발 북통특보=신아)
20일 해주시에서 열린 남조선인민대표자회의는 21일도 속개되었다. 제2일째인 21일은 오전 11시 먼저 박○수(朴○水)씨가 속회를 선언하고, 이어서 전남, 경북, 강원, 서울의 각 대표로부터 각각 8·25 총선거와 중앙정부수립은 우리의 일대구국투쟁이다. 남조선대표가 북조선에 와서 이러한 열렬하고 중대한 회의를 가질 수 있음은 북조선의 민주발전의 진가를 실증하는 것이다. 이번의 회의에 대해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신 북조선인민위원회, 김일성씨에게 경의를 표하는 취지의 연설이 이뤄졌다.
12시, 북조선 각지의 건설노동자의 흥남○○공장, 평양기계공업, 방직공장, 청진제철, 강원의 제철소 등 각 직장대표가 동 대회를 축하하여 입장, 대회장의 대표는 일동 기립하여 박수로 이를 환영, 오후 1시 휴식, 오후 2시부터 속개된 북조선 각 직장 노동자대표의 축사가 있었고 토론이 계속되었다. 이어서 각지에서 대회를 축하하는 축전 1백6십4통의 소개가 있었고, 제주도 김대표가 등단하여 장시간에 걸쳐 제주도 인민항쟁의 전모를 밝히는 연설을 하고 만당(滿堂)에 감명을 주었다. 이어서 전남 화순 지방의 농민, 노동자대표 5천5백8십여명으로부터 격려문 소개가 있었고 오후 7시에 제2일째가 끝났다.

△南朝鮮人民代表者大會（第二日）

（ペンヤン二十三日發北通特報＝新亜）二十日海州市で開かれた南朝鮮人民代表者大會は二十一日も續開された。即ち第二日の二十一日午前十一時先ず朴○水氏續會を宣し、つゞいて全南、慶北、江原、ソウルの各代表からそれぞれ八・二五總選擧と中央政府樹立はわれわれの一大救國鬪爭でああ、南朝鮮代表が北朝鮮に來てこのような熱烈、且つ重大な會議を持ちうることは北朝鮮の民主發展の眞價を實證するものである、今度の會議に對して各種の便宜を與えて下れた北朝鮮人民委員會、金日成氏へ敬意を表する旨の演説が行われた

十二時、北朝鮮各地の建設勞働者の興南○○工場、ペンヤン機械工場、紡績工場、清津製鐵江原の製鐵所等各職場代表が同大會を祝して入場、同場の代表は一同起立し拍手をもつてこれを歡迎、午后一時休憩、午后二時から續開され北朝鮮各職場勞働者代表の祝辭があり、討論が繼續された。つゞいて各地からの大會を祝う祝電百六十四通の披露があつて濟州島金代表が登壇し長時間にわたつて濟州島人民抗爭の全ぼうを明にする演説を行い滿堂に感銘を與えた、つぎに全南和順地方の農民、勞働者代表五千五百八十餘名からの激勵文の紹介があり午后七時第二日目を終えた

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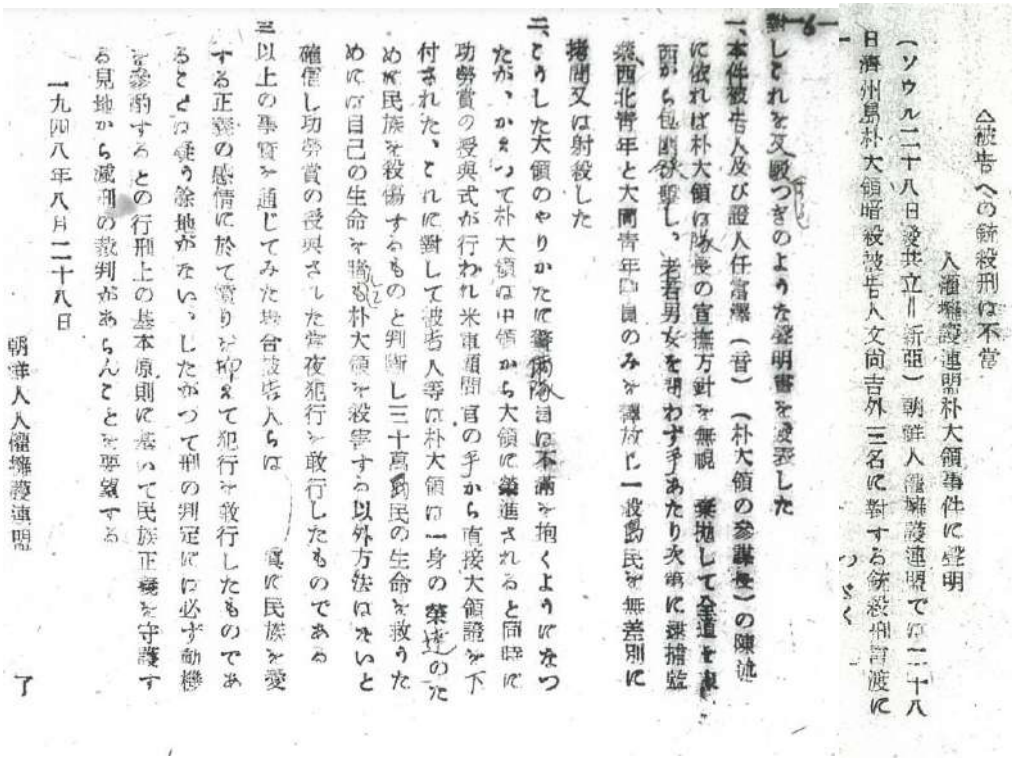
신아통신(新亜通信) 1948년 8월 30일 / 면

피고에 대한 총살형은 부당
인권옹호연맹 박 대령 사건에 성명

피고에 대한 총살형은 부당
인권옹호연맹 박 대령 사건에 성명

(서울 28일발 공립=신아)
조선인권옹호연맹에서는 28일 제주도 박 대령 암살 피고인 문상길 외 3명에 대한 총살형 언도에 대해 이를 ○○하는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1, 본건 피고인 및 증인 임○택(음)(박 대령의 참모진)의 진술에 의하면, 박 대령은 대장의 선무방침을 무시, 기포(抛棄)하여 전도를 ○서부터 포위○격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닥치는 대로 차례로 체포감금, 서북청년과 대한청년단원만을 석방하여 일반 도민을 무차별적으로 고문 또는 사살하였다.
2, 이러한 대령의 방식에 경비대원은 불만을 품게 되었는데, 오히려 박 대령은 중령에서 대령으로 영진(榮進)됨과 동시에 공로상 수여식이 열리고 미군 고문관의 손으로 직접 대령증을 수여받았다. 이에 대해 피고인 등은 박 대령은 일신의 영달을 위해 민족을 살상한 자로 판단하여 3십만 도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라도 박 대령을 살해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확신하여 공로상이 수여된 당일 밤 범행을 감행한 것이다.
3, 이상의 사실을 통해 본 경우 피고인들은 실로 민족을 사랑하는 정의의 감정에서 분노를 억누르고 범행을 수행한 것이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다. 따라서 형의 판정에는 반드시 동기를 참작한다는 행형(行刑)상의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민족정의를 수호하는 견지에서 감형의 재판이 있어야함을 요망한다.

1948년 8월 28일
조선인인권옹호연맹



△被告への銃殺刑は不當

人權擁護連盟朴大領事件に聲明

（ソウル二十八日發共立＝新亞）朝鮮人權擁護連盟では二十八日濟州島朴大領暗殺被告人文尚吉外三名に對する銃殺刑言渡に

つゞく

一

對しこれを又駁つぎのような聲明書を發表した

一、本件被告人及び證人任富澤（音）（朴大領の參謀長）の陳述に依れば朴大領は隊長の宣撫方針を無視　棄拋して全道を東西から包圍攻擊し、老若男女を問わず手あたり次第に逮捕監禁、西北青年と大同青年團員のみを釋放し一般島民を無差別に拷問又は射殺した

二、こうした大領のやりかたに警備隊員は不滿を抱くようになつたが、かゝつて朴大領は中領から大領に榮進されると同時に功勞賞の授與式が行われ米軍顧問官の手から直接大領證を下付された、これに對して被告人等は朴大領は一身の榮達のために民族を殺傷するものと判斷し三十萬島民の生命を救うためには自己の生命を賭も朴大領を殺害する以外方法はないと確信し功勞賞の授與された當夜犯行を敢行したものである

三、以上の事實を通じてみた場合被告人らは　眞に民族を愛する正義の感情に於て憤りを抑えて犯行を敢行したものであることは疑う餘地がない、したがつて刑の判定には必ず動機を參酌するとの行刑上の基本原則に基いて民族正義を守護する見地から減刑の裁判があらんことを要望する

一九四八年八月二十八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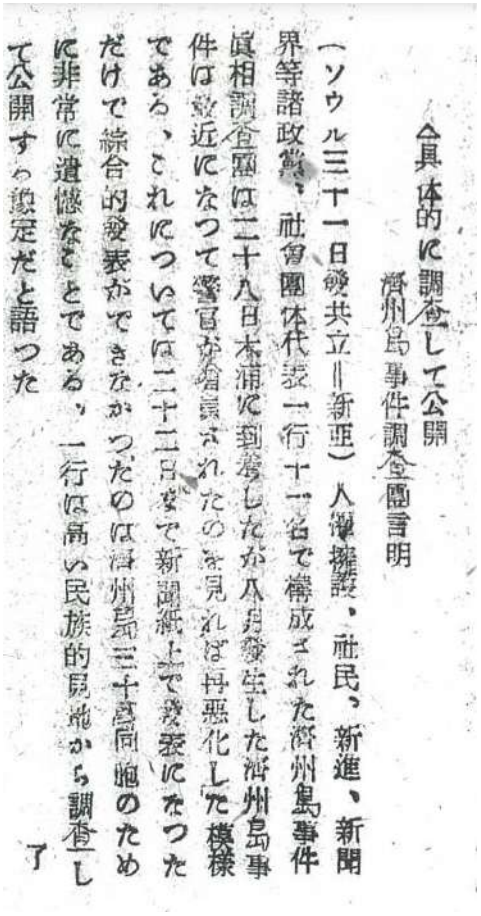
朝鮮人人權擁護連盟

了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공개
제주도사건조사단 언명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공개
제주도사건조사단 언명

(서울 31일발 공립=신아)
인권옹호, 사민, 신진, 신문계 등 제정당, 사회단체대표 일행 1십1명으로 구성된 제주도사건진상조사단은 28일 목포에 도착했는데, 8월 발생한 제주도사건은 최근에 와서 경관이 증원된 것을 보면 다시 악화한 모양이다. 이에 대해서는 22일까지 신문지상에서 발표되었을뿐 종합적 발표가 되지 않았던 것은 제주도 3십만 동포를 위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일행은 높은 민족적 견지에서 조사하여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具体的に調査して公開
濟州島事件調査團言明

(ソウル三十一日發共立＝新亜) 人權擁護、社民、新進、新聞界等諸政黨、社會團体代表一行十一名で構成された濟州島事件眞相調査團は二十八日木浦に到着したが八月發生した濟州島事件は最近になつて警官が增員されたのを見れば再惡化した模樣であり、これについては二十二日まで新聞紙上で發表になつただけで綜合的發表ができなかつたのは濟州島三十萬同胞のために非常に遺憾なことである、一行は高い民族的見地から調査して公開すべき決定だと語つ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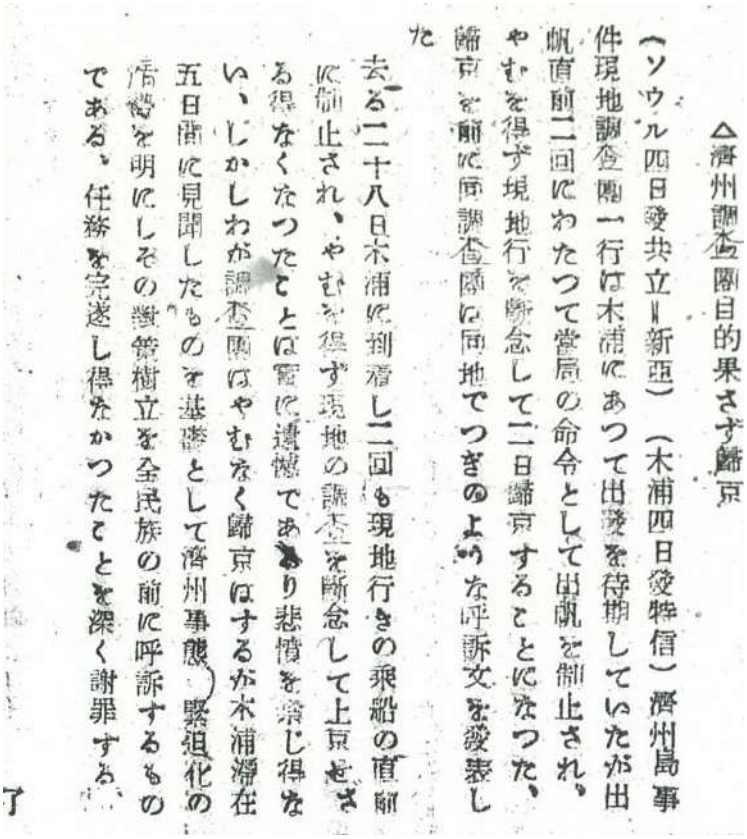
了

제주도조사단 목적 수행하지 않고 귀경

제주도조사단 목적 수행하지 않고 귀경

(서울 4일발 공립=신아)(목표 4일발 특신)
제주도 사건 현지조사단 일행은 목포에서 만나 출발을 대기하고 있었는데, 출범 직전 2회에 걸쳐 당국의 명령으로 출범을 제지당하고, 어쩔수 없이 현지행을 단념하고 2일 귀경하게 되었다. 귀경을 앞두고 동 조사단은 목포에서 다음과 같은 호소문을 발표했다.

지난 28일 목포에 도착하여 2회나 현지로 가는 승선 직전에 제지당하여 어쩔 수 없이 현지 조사를 단념하여 상경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점은 실로 유감이며 비분을 금할 길 없다. 그러나 우리 조사단은 어쩔수 없이 귀경은 하지만, 목포 체재 5일 동안에 보고 들은 것을 기초로 하여 제주 사태의 긴박화 정세를 밝히고 그 대책수립을 전 민족 앞에 호소하는 바이다. 임무를 완수할 수 없었던 것을 깊이 사죄한다.


△濟州調査團目的果さず歸京
(ソウル四日發共立=新亜) (木浦四日發特信) 濟州島事件現地調査團一行は木浦にあつて出發を待期していたが出帆直前二回にわたつて當局の命令として出帆を制止され、やむを得ず現地行を斷念して二日歸京することになつた、歸京を前に同調査團は同地でつぎのような呼訴文を發表した
去る二十八日木浦に到着し二回も現地行きの乘船の直前に制止され、やむを得ず現地の調査を斷念して上京をさる得なくなつたことは實に遺憾であり悲憤を禁じ得ない、しかしわが調査團はやむなく歸京はするが木浦滯在五日間に見聞したものを基礎として濟州事態(緊迫化の情勢を明にしその對策樹立を全民族の前に呼訴するものである、任務を完遂し得なかつたことを深く謝罪する

신아통신(新亜通信) 1948년 9월 9일 / 면

남조선의 치안은 양호
이 공관장 기자회견

남조선의 치안은 양호
이 공관장 기자회견

조선미군정○주일 총공관장 이능변씨는 지난 일본○으로부터의 요청으로 귀국하여 ○○○○요로(要路)와 협의하여 7일 저녁 용무를 마치고 항공편으로 ○○했다. 8일 오후 2시반부터 왕방(往訪)한 재동경 조선 각 통신, 신문기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8월 15일 밤을 기해 일절의 정권은 군정에서 신정부로 이양되었다. 그러나 실제는 아직 이양절차가 완료되지 않고 목하 쌍방이 그 절차에 바빠서 근일중에 완전히 이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대 국회의 대립도 완화되어 서로 협력을 하게 된 듯하다. 남조선의 치안은 양호하다. 제주도의 치안도 거의 안정되어 있다. 현재 동 섬의 치안대장으로 임명되어 성과를 올리고 있다. 금년의 벼농사는 수해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지만 피해를 입지 않은 지방의 작황은 좋은 편이다.

이어서 다음과 같은 문답을 실시했다.

문-해외 동포, 특히 재일동포에 대한 신정부의 정책에 대해

답-목하 장택상 외무부장관의 지휘 아래 '해외동포에'라는 메시지를 초안중이었기 때문에 조만간 구체적인 지시가 있을 것이다.

문-현 공관의 기구는 어떻게 되나?

답-아직 국제적으로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법적인 수속이 끝나면 새로운 대표가 올 것이다.

문-이승만대통령의 방일은?

답-목하 방일 예정은 전혀 없다. 국제적으로 아직 정식으로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으로는 올 수 없고, 또한 국내의 제 문제도 산적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동경에 돌아와서 들었는데 주일대표○로서 모모씨가 조만간 동경에 올 것이라는데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다. 또한 현재 대외대내적으로 그럴 예정도 없다.

문-유엔에서의 승인과 그 시기는?

답-11월의 유엔총회결정에 지지를 받는 나라들은 반드시 승인할 것으로 본다. 더욱이 유엔의 회기는 약 8주간에 걸쳐 실시되는 것으로 이 승인은 11월 경이 될 것으로 본다.

문-남조선의 전력 사정과 생산상황?

답-현재, 수력, 화력 양쪽에서 약 5천5백 정도로 주간은 전혀 사용할 수 없고, 야간도 3시간 정도는 정전 소동이고, 전력에 의존한 생산은 해방전의 약 10% 내지 15% 정도로 보인다.

더욱이 이 공관장은 동계올림픽 대표단으로부터 '재일동포로부터 성대한 환영을 받은 것을 감사하고 동시에 대회에서 기대한 성적을 올리지 못한 것을 사죄한다'는 전언을 각 통신, 신문을 통해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南朝鮮の治安は良好

李公館長記者會見

朝鮮米軍政廳駐日總公館長李能燮氏は通日本[illegible]からの[illegible]で[illegible]協し新政府要路と協議し七日夕刻用務を終えて空路歸任した…八日午后二時半から往訪の在東京朝鮮各通信、新聞記者に對し大要つぎのように語つた

九月十五日夜半を期し一切の政權は軍政から新政府へ移轉されたがしかし實際はまだ移讓手續が完了されておらず目下双方その手續に忙しく、近日中に完全に移讓されるものと見られる、政府對國會の對立も緩和されお互に協力をするようになつたようである、南朝鮮の治安は良好である、濟州島の治安も殆んど安定している、現在同島の治安[illegible]長として[illegible]任命されて成果を擧げている、今年の稲作は水害に依り大打撃を受けているが被害を蒙らない地方の作柄は上々である

引つづいてつぎのような問答を行つた

問－海外同胞、特に在日同胞に對する新政府の政策について

答－目下張澤相外務部長官の手もとで「海外同胞へ」というメツセージを草案中であつたので近い中に具体的な指示があると思う

問－現公館の機構はどうなるか

つづく

答－未だ國際的に正式に認められていないため具体的な内容はわからないが法的な手續が終れば新しい代表が來ることになる

問－李承晩大統領の訪日は

答－目下訪日の豫定は全然ない、國際的に未だ正式に承認されていないし又國内の諸問題も山積しているので當分來られないと思う、私が東京に歸つてから聞いたが駐日代表團として某々氏が近日中に東京に來るということだがこれらは全く根據のない話である、又現在のところ對外關係的にその豫定もない

問－國連での承認とその時期は

答－十一月の國連總會決定に支持を與えた國々は必ず承認するものと思う、なお國連の[illegible]期は約八週間に亘つて行われるのでこの承認は十一月頃になると思う

問－南朝鮮の電力事情と生產状況

答－現在、水力、火力兩方で約五千五百[illegible]位ので[illegible]は全然[illegible]えず、夜間も三時間位は停電のさわぎであり、電力に依る生產は解放前の約一割乃至一割五分位と見られる

なお李公館長は世界オリンピツク代表團から「在日同胞から盛大な歡迎をうけたことを感謝し同時に大會で期待の成績を上げ得なかつたことをお詫びする」との傳言を各通信、新聞を通じて傳えたいと語つた

了

제주도 사건의 재검토

제주도 사건의 재검토

(9일 조선일보 사설)
제주도사건은 4월 초순 발생 이래 이미 반년 가까이 되어 일시 소강상태가 된 듯 보였지만, 최근 다시 경찰이 토벌대를 증파한다는 ○○에 비춰보면 사태는 악화해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사건은 거의 전 도민의 관에 대한 불평불만의 증오감을 직접 폭발시킨 점에서 일종의 ○란적 성질을 가진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무력에 의한 토벌만으로는 해결을 기할 수 없는 것은 현지의 국방경비대와 경찰의 책임자가 종종 지적한 대로이지만, 우리도 일찌감치 정치적 비상수단을 시행하도록 군정당국에 경고한 것이었다. 군정당국도 아직 도민의 불평이 ○○ 이유 있음을 인정하고 지사와 경찰 책임자 이하에게 점차 제주도 출신자를 등용하여 위무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늘까지 별다른 효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최근 사태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사건은 재작년의 대구사건과 함께 군정하의 최대 불상사이며 해결을 볼 수 없는 것은 무책무능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정부야말로 제주도민으로 하여금 안거낙업(安居樂業)하도록 기민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일찍부터 경찰에만 의지해서 토벌하려고 했지만 결국 국방경비대를 출동시키게 된 것이며 당시 통○장(統○長)은 건국의 초두에서 건군의 초기에 '동족상살의 애사'를 남기는 것을 바라지 않는 의도를 국민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현지 작전에서는 '불법무모'한 반항 폭거는 단호 제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물론 군을 동원하기까지의 최후수단에는 반드시 성공한다는 비상시책이 병행되어야만 하며, 군 행동은 어디까지 동원된 기본정신과 애족애국의 군 본래의 사명에 바탕하여 사건 수습의 주동적 권능을 발휘하도록 해야만 했다. 그러나 경비대의 작전중에 연대장을 암살하고 군법회의에서 총살형 언도를 받은 한 병사는 그 연대장이 무고한 양민을 다수 학살했다고 진술했다. 이는 과연 사실일까, 그러나 우리는 이 진술을 그대로 시인하는 것은 아니다. 신국가의 국군발전과 그 명예를 위해 군법회의 진상을 밝힐 것을 바란다. 또한 정부당국은 군 행동에 관한 점과 제주도 사건 전모의 수습에 관해 신속하게 국민에게 소신을 밝히고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바라는 바이다.

〈濟州島事件の再檢討〉

（九日朝鮮日報社說）

濟州島事件は四月初旬發生以來すでに半年近くになり、一時小康狀態になつたように見えたが最近再び警察が討伐隊を增派するという事實にてらし事態は良惡化していくことが解るがこの事件は殆んど全島民の官に對する不平不滿の惡感を直接爆發させた點で一種の紛亂的性質をもつものである、從つて單なる武力による討伐だけでは解決を期することができないのは現地の國防警備隊や警察の責任者が屢々指摘した通りであるがわれわれも早くから政治的非常手段を施すよう軍政當局に警告したのであつた、軍政當局もまた島民の不平が事際理由あることを認めて知事や警察責任者以下に漸次濟州島出身者を登用して尉撫につとめて

つゞ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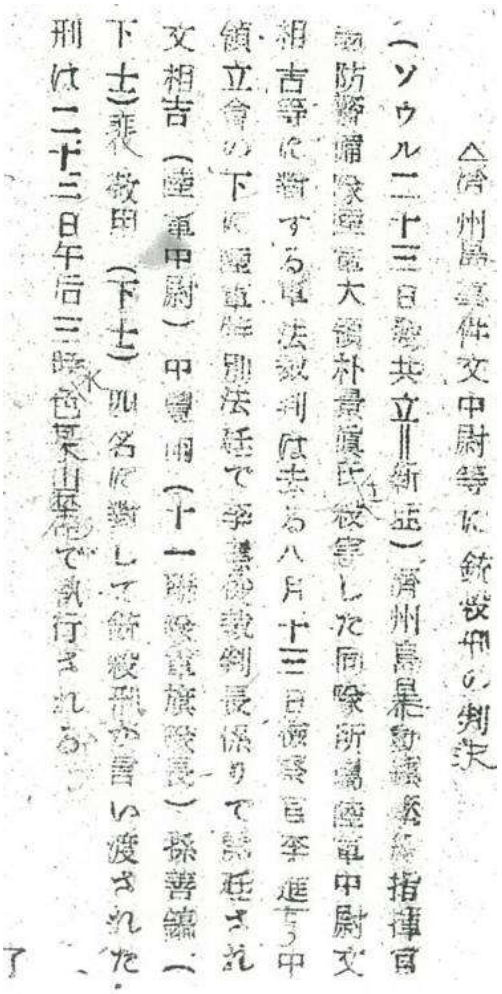
いるように見えたが今日まで大した効果が上らなかつたことは最近の事態をみればわかる、この事件は一昨年の大邱事件と併せて軍政下の最大不祥事で解決をみることができないのは無策無能であつたといわざるを得ないが今政府こそは濟州島民をして安居樂業させる機敏な解決策を講ずべきである、早くから警察だけによつて討伐しようとしていたが結局國防警備隊を出動させることになつたもので當時統衛長は建國の初頭で建軍の初期に「同族相殺の哀史」を殘すことを望まない意圖を國民に說明したものであつた、然し現地作戰では「不法無謀」な反抗累擧は斷乎制壓せざるを得ないことを發表した、勿論軍を動員するまでの最后手段には必ず成功する非常施策が併行されねばならず軍行動はあくまで動員された基本精神と愛族愛國の軍本來の使命に基いて事件收拾の主動的權能を發揮す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かつた、然し警備隊の作戰中に聯隊長を暗殺し軍法會議で銃殺刑の言渡しをうけた一兵士はその聯隊長が無辜の良民を多數虐殺したと陳述した、それは果して事實だろうか、しかしわれわれはこの陳述をそのまゝ是認するものではない、新國家の國軍發展とその名譽のために軍法會議眞相を明にされることを望む、又政府當局は軍行動に關する點と濟州島事件全般の收拾策に關し速やかに國民に所信を明らかにしその解決に最善をつくすことを望むものである

了

제주도사건 문 중위 등에 총살형 판결

제주도사건 문 중위 등에 총살형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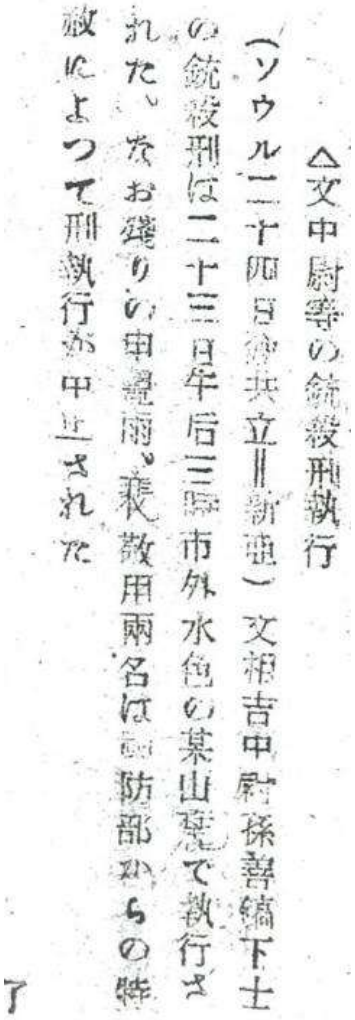
(서울 23일발 공립=신아)
제주도폭동○○지휘관 국방경비대 육군 대령 박경진씨를 살해한 동대 소속 육군 중위 문상길 등에 대한 군법재판은 지난 8월 13일 검찰관 이진○ 중령 입회하에 육군○별법정에서 이○○재판장담당으로 개정되어 문상길(육군 중위), 중○○(110○군기대장), 손선호(하사), 배경용(하사) 4명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형은 23일 오후 3시 옅은 푸른색의 모 산자락에서 집행된다.



문 중위 등의 총살 집행

문 중위 등의 총살 집행

(서울 24일 발 공립=신아)
문상길 중위, 손선호 하사의 총살형은 23일 오후 3시 시외 옅은 푸른색의 모 산자락에서 집행되었다. 또한 나머지 신○우, 배경용 두 명은 국방부의 특별사면으로 형집행이 중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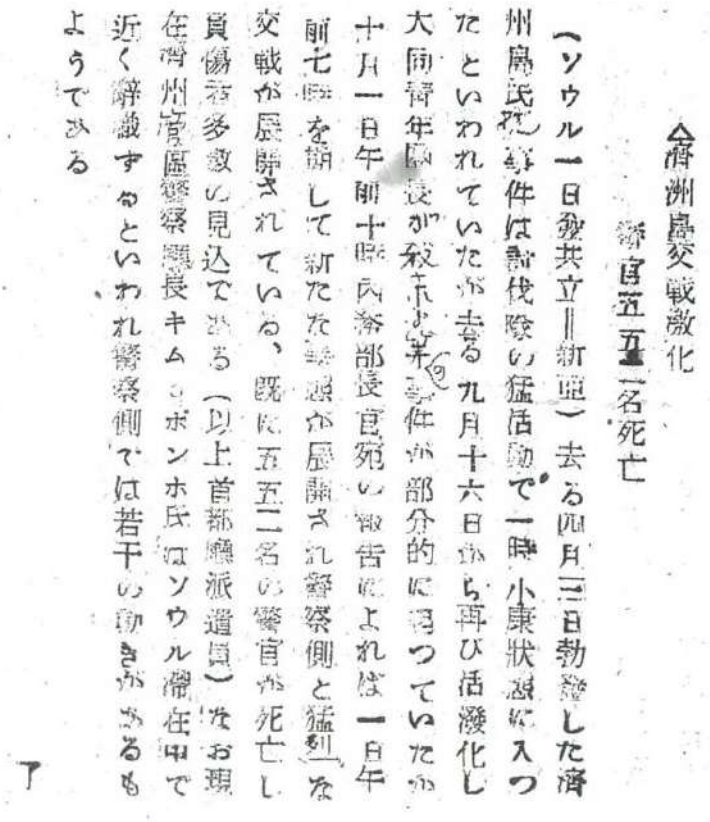

△文中尉等の銃殺刑執行
(ソウル二十四日發共立=新亜) 文相吉中尉孫善鎬下士の銃殺刑は二十三日午后三時市外水色の某山麓で執行された、なお殘りの申鏡雨、裵敬用兩名は國防部からの特赦によつて刑執行が中止された
了

신아통신(新亜通信) 1948년 10월 2일 / 면

제주도 교전 격화
경관 5백5십2명 사망

제주도 교전 격화
경관 5백5십2명 사망

(서울 1일발 공립=신아)
지난 4월 3일 발발한 제주도민○ 사건은 토벌대의 맹활동으로 일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고 전해지는데, 지난 9월 16일부터 재차 활발해져 대동청년단장이 살해되는 등의 사건이 부분적으로 발생했지만, 10월 1일 오전 10시 내무부장관 앞의 보고에 의하면 1일 오전 7시를 기해서 새로운 사태가 전개되어 경찰측과 맹렬한 교전이 전개되고 있다. 이미 5백5십2명의 경관이 사망하여 부상자가 다수 예상된다(이상 수도청 파견원). 또한 현재 제주관구 경찰청장 김봉호씨는 서울 체재중으로 조만간 사직할 것으로 전해져, 경찰측에서는 약간의 움직임이 있는 듯 하다.



△濟洲島交戰激化
警官五五二名死亡

(ソウル一日發共立＝新亜) 去る四月三日勃發した濟州島民[illegible]事件は討伐隊の猛活動で一時小康狀態に入つたといわれていたが去る九月十六日から再び活潑化し大同青年團長が殺[illegible]事件が部分的に起つていたが十月一日午前十時内務部長官宛の報告によれば一日午前七時を期して新たな[illegible]が展開され警察側と猛烈な交戰が展開されている、既に五五二名の警官が死亡し負傷者多數の見込である(以上首都廳派遣員)なお現在濟州管區警察廳長キムヨボンホ氏はソウル滯在中で近く辭職するといわれ警察側では若干の動きがあるもようである

了

제주도 4·3사건 피고 2명에 사형 구형

제주도 4·3사건 피고 2명에 사형 구형

(서울 6일발 공립=신아)
제주4·3사건 피고에 대한 제1회 공판은 지난 1일 9시부터 광주지방법원 제1호법정에서 열려 송화식(宋花植) 부장판사 주심 김영천(金永千) 검사 입회하에 ○○심문 및 검사구형이 있었다. 판결언도는 8일 이뤄질 예정
검사구형은 다음과 같다.
김치옥(金致玉) 32세 6개월 징역
김영필(金英弼) 20세 단기 1년 장기 2년
한진섭(韓辰燮) 20세 1년
박성선(朴性善) 57세 사형
박남호(朴南昊) 30세 사형
이정박(李貞博) 20세 1년
임정길(任貞吉) 31세 2년
고태진(高太珍) 20세 단기 5년 장기 7년
김상호(金尙好) 31세 5년
김대원(金代元) 34세 4년
강한진(康漢辰) 26세 6년
임수혁(任守赫) 28세 3년
현군명(玄君命) 20세 단기 2년반 장기 4년

△濟州島四・三事件被告二名に死刑求刑

（ソウル六日發共立＝新世）濟州四・三事件被告に對する第一回公判は去る一日九時から光州地方法院第一號法廷で開かれソン・フアシク（宋花植）部長判事主審キム・ヨンチヨン（金永千）検事立會で事實審問及び検事求刑があつた。判決言渡しは八日行われる筈

検事求刑は次の通り

キム・チーオク	（金致玉）	三二歳	六ケ月懲役
キム・ヨンピル	（金英弼）	二〇〃	短期一年長期二年
ハン・チンソブ	（韓辰燮）	二〇〃	一ケ年
パク・ソンソン	（朴性善）	五七〃	死刑
パク・ナムホ	（朴南昊）	三〇〃	〃
イー・チヨンパク	（李貞博）	二〇〃	一ケ年
イム・チヨンキル	（任貞吉）	三一〃	二ケ年
コ・テチン	（高太珍）	二〇〃	短五ケ年長期七ケ年
キム・サンホ	（金向好）	三一〃	五ケ年
キム・テーウオン	（金代元）	三四〃	四ケ年
カン・ハンチン	（康漢辰）	二六〃	六ケ年
イム・スヒヨク	（任守林）	二八〃	三ケ年
ヒヨン・クンミヨン	（玄君命）	二〇〃	短三ケ年半長四ケ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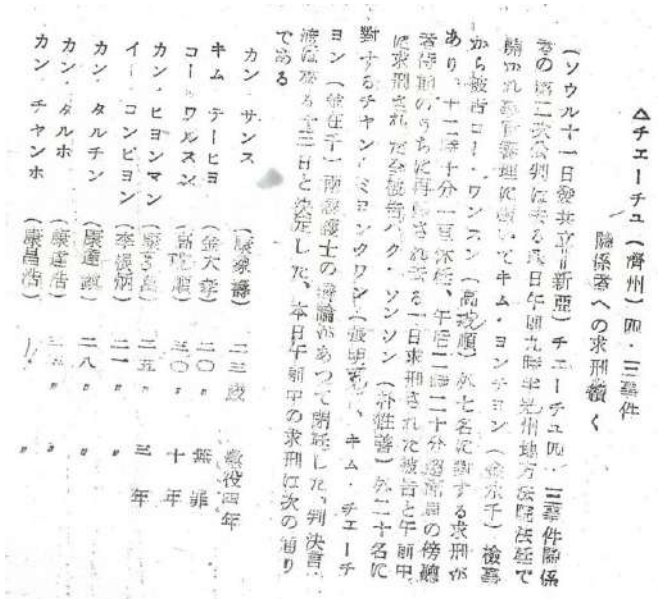
了

신아통신(新亜通信) 1948년 10월 12일 / 면

제주 4·3사건
관계자에 대한 구형 이어짐

제주 4·3사건
관계자에 대한 구형 이어짐

(서울 11일발 공립=신아)
제주 4·3사건 관계자의 제2차 공판은 지난 8일 오전 9시반 광주지방법원 법정에서 열려 사실심리에서 김영천 검사로부터 피고 고완순 외 7명에 대한 구형이 있었으며, 12시 10분 일단 휴정, 오후 2시 20분 초만원의 방청자 대기 중에 재개되어 지난 1일 구형받은 피고와 오전중에 구형받은 피고 박성선 외 2십명에 대한 장명완, 김재천 두 변호사의 변론이 있어 개정했다. 판결언도는 오는 13일로 결정했다. 금일 오전중의 구형은 다음과 같다.
강상수(康象壽) 23세 징역 4년
김대효(金大孝) 20세 무죄
고완순(高玩順) 30세 10년
강형만(康亨萬) 25세 3년
이근병(李根炳) 25세 3년
강달진(康達鎭) 28세 3년
강달호(康達浩) 35세 3년
강창호(康昌浩) ○○세 3년



△チエーチユ（濟州）四・三事件
關係者への求刑續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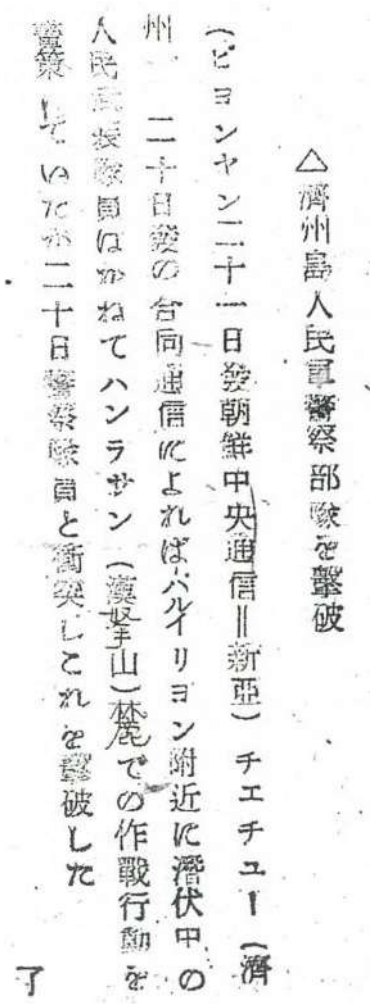
（ソウル十一日發共立＝新亜）チエーチユ四・三事件關係者の第二次公判は去る八日午前九時半光州地方法院法廷で開かれ事實審理に續いてキム・ヨンチヨン（金永千）檢事から被告コー・ワンスン（高玩順）外七名に對する求刑があり、十二時十分一旦休廷、午後二時二十分還常員の傍聽者侍前のうちに再開され去る一日求刑された被告と午前中に求刑された全被告パク・ソンソン（朴性善）外二十名に對するチヤン・ミヨンクワン（張明勳）、キム・チエーチヨン（金在千）兩辯護士の辯論があつて閉廷した、判決言渡は來る十三日と決定した、本日午前中の求刑は次の通りである

カン・サンス	（康象壽）	二三歲	懲役四年
キム・テーヒヨ	（金大孝）	二〇〃	無罪
コー・ワルスン	（高玩順）	三〇〃	十年
カン・ヒヨンマン	（康亨萬）	二五〃	三年
イー・コンビヨン	（李根炳）	二一〃	〃
カン・タルチン	（康達鎭）	二八〃	〃
カン・タルホ	（康達浩）	二五〃	〃
カン・チヤンホ	（康昌浩）	〃	〃

제주도인민군 경찰부대를 격파

제주도인민군 경찰부대를 격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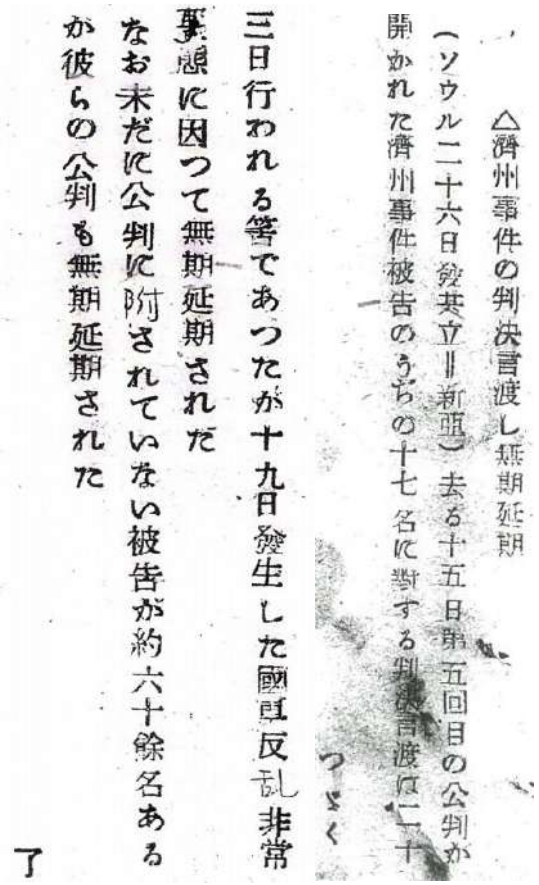
(평양 21일발 조선중앙통신=신아)
제주 10월 20일발 합동통신에 따르면 발이련 부근에 잠복중인 인민무장대원은 이미 한라산 자락에서의 작전행동을 ○책하고 있었는데, 20일 경찰대원과 충돌하여 이를 격파했다.


△濟州島人民軍警察部隊を擊破
(ピョンヤン二十一日發朝鮮中央通信‖新亜) チエチュー(濟州) 二十日發の合同通信によれば、バルイリョン附近に潜伏中の人民武裝隊員はかねてハンラサン(漢拏山)麓での作戰行動を準備していたが二十日警察隊員と衝突しこれを擊破した
了

제주사건의 판결언도 무기 연기

제주사건의 판결언도 무기 연기

(서울 26일발 공립=신아) 지난 15일 제5회차 공판이 열린 제주사건 피고 중의 1십7명에 대한 판결언도는 23일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19일 발생한 국군 반란 비상사태로 인해 무기연기되었다.
또한 지금까지 공판에 부치지 않은 피고가 약 6십여명 있는데 그들의 공판도 무기연기되었다.



△濟州事件の判決言渡し無期延期
(ソウル二十六日發共立＝新亜) 去る十五日第五回目の公判が開かれた濟州事件被告のうちの十七名に對する判決言渡は二十三日行われる筈であつたが十九日發生した國軍反乱非常事態に因つて無期延期された
なお未だに公判に附されていない被告が約六十餘名あるが彼らの公判も無期延期された
了

제89차 국회 본회의 열리다
반란사건 진상 질문에서 소연(騷然)

제89차 국회 본회의 열리다
반란사건 진상 질문에서 소연(騷然)

(서울 27일발 공립=신아)
지난 16일 지방행정○○에 대한 계몽연설 순회에서 휴회를 선언하고 나서 10일을 경과하여 제89차 본회의는 27일, 9십8명의 의원이 참석하여 신(申)의장 사회로 개회하였다. 본회의는 정각부터 15분 지연되어 개회하여 순서에 따라 제88차 회의록을 보고에 이어 백관수(白寬洙) 법제사법위원장의 지방행정초안에 관한 수정보고가 끝나고 본회의 중요토의 사항에 들어가 청중의 이목을 끄는 반란사건에 관한 건이 토의되자마자 국방위원 최충동(崔充東)씨는 그간 신문과 그 밖에 전해지는 범위내에서 국방부 및 내무부가 발표한 것만으로도 내용의 차이가 있어 통일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보도의 부정확함을 지적함과 동시에 여수에서 반란군에 약탈당한 무기고의 탄약은 제주도 작전을 위해 다량 집적한 것으로 탄환 약 2백1십만발, 그 외 무기 다수가 있다고 중간보고를 했다.
이어서 조영규(曹泳珪)의원의 긴급동의로 전사 및 희생자의 ○에 대해 1분간 묵념을 올린 후 이(李)의원의 중대문제이므로 국방, 내무 두 책임자의 상세한 책임있는 보고를 요구한다는 제의에 대해, 신 의장은 비공식으로 청취하려고 하자, 이에 대해 정(鄭), 서(徐) 등 수명의 의원으로부터 비공식으로 하면 의혹에 휩싸인 일반민중을 더욱 의심하게 만들게 되어 공개, 비공개는 둘째치고 여수방면에 대해 국방부가 23일 완전 점령했다는 발표는 내무부의 발표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어 이는 군의 전략상 이유에 따른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 발표가 사실이 아닌 점은 자인할 것이다. 민심을 소란시키는 부정확한 발표는 필요하지 않다. 공개, 비공개를 운운하면 아무리 정확한 보도라 하더라도 신뢰하기 힘들기 때문에 진상을 공개하여 공표하라는 열광적인 토의가 가결되어, 국방부 차관 최용덕(崔用德)이 등단, 의원과 방청객 모두 정숙히 그 보고를 기대했다. 그런데 차관은 장관이 상세한 보고를 할 것이므로 자신은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다고 말해 전원을 아연케 했다.
이어서 신성균(申性均) 내무치안위원이 장문의 보고서를 낭독하고 오후 2시 속개를 선언하여 정오, 오전 회의를 폐회했다.

△第八十九次國會本會議騒かる

反乱事件眞相質問で騒然

（ソウル二十七日發共立＝新亜）去る十六日地方行政懐柱に關する國會議員派遣で休會を宣してから十日を經て第八十九次本會議は二十七日、九十八議員出席し、シン（申）議長司會で開會された。本會議は定刻より十五分遅れて開會され開會した かつて第八十八次會議録を報告つゞいてペク・クワンス（白[illegible]決）法制司法委員長の地方行政法律案に關する修正報告を終り本

つゞく

會議事案討議の事項に入り議案の題目を聞く反乱事件に關する件が討議されるや國防委員チエ・ユントン（崔允東）氏はその間、新聞その他に報ぜられた國内で國防部及内務部の發表したものだけでも内容の差異があつて統一されていないことは事實であると報道の不正確を指摘すると同時にヨース（麗水）において反乱に參加された武器軍の麗樂は濟州島作戰の爲に多量支援したもので彈丸約二百十萬發その他武器多數があると中間報告をした

次いでチョー・ヨンキュ（曺泳珪）議員の緊急動議で戰死及犠牲者の遺族に對し一分間の默祷を捧げた後イー（李）議員の重大問題であるから、國防、内務兩責任者の詳細な責任ある報告を要求するとの提議に對しシン（申）議長は非公式に聴取しようと答え、これに對しチョン（鄭）、ソ（徐）等數名の議員から非公式にすれば疑惑に包まれている一般民衆はますます疑わせることになり、公開、非公開はさておき、ヨース方面について國防部が二十三日完全占領したとの發表は、内務部の發表と比較すると大きな開きがありこれはは政略上の理由によるかは知らないがその發表が事實でないことは自明するであろう、氏心を混乱せしむる不正確な發表は必要としない、公開、非公開を云々すれば如何に正確な報道であつても信ずるに足りないから國務を公開で公表せよとの熱狂的な討論が可決され、國防部次官チエ・ヨンドク（崔用徳）氏が登壇、議員傍聽者とも着席にその報告を期待したところが次官は長官が詳細な報告をするとの事であるから自分としてはなにもいう事がないとのべ全員を憤然とせしめた

つゞく

次いでシン・ソンキュン（申性均）内務治安委員が長文の報告を朗讀し午后二時頃休會を宣して正午、午前の會議を閉會した

了

반란사건, 국방부 발표 제5호

반란사건, 국방부 발표 제5호

(서울 28일 발표 공립=신아)
28일 국방부에서는 전라남도 현지 사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28일 오전 11시 국방부발표 제5호
1, 지난 26일 국방장관은 제(薺) 참모총장 외 5명을 수반, 여수반란사건 진압상황을 순시 지도할 목적으로 현지로 출발했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27일 귀경했다. 특히 장관은 직접 백운산 전투를 지휘 시찰하고 야전병원을 방문하여 거액의 위문금을 하사했다. 또 경찰서, 도청 등을 순시하고 포고문, 라디오를 통해 도민을 격려했다.
2, 지난 27일 오후 1시, 여수 진격부대는 상륙 국군과 합류하여 반란군의 강고한 저항을 물리치고 동시를 점령, 목하 치안 회복에 노력중이다.
3, 여수 폭동 발생상태는 병영내에서 총성이 일어나자마자 5,6명의 반도가 거리로 뛰쳐나와 인민공화국 지지연설을 하였다. 여수 14연대 반란 병사의 수는 2,3백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반시민 다수가 이에 가담하고 특히 여학생, 소학생까지 합류하여 지형, 도시 상태와 맞물려 공격에 큰 어려움이 있었고, 전투에서 막대한 저항을 받았다. 여수 전투에서 국군의 피해는 전사 2십, 부상 8십이다.
4, 현재 반도 주력은 백운산 부근에 3,4영(營)이 있다. 국군은 반도의 지리산 진로를 차단하여 이를 압박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5, 여수에서의 반도의 폭행은 목하 조사중이지만, 순천에서 자행된 폭행은 실로 아비규혼, 천인공노할 노릇이었다. 금번의 사건은 계획적이었던만큼 반도(叛徒)측은 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일부 경찰관과 민족진영의 인물로 구성되어 가혹한 인민재판을 하였지만, 이 재판에서는 만(万) 모 검사가 재판장이었다.
6, 금번 사건에서 국군은 정예 훈련의 필요를 통감했다. 하루라도 빨리 국군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대통령이 국방부장관령으로 국군의 조직을 명확히 하고 대하민국의 노선을 사해에 구현화할 필요가 있다.
7, 현지 장병은 사령관 이하 사기왕성, 반도를 마지막까지 포촉(捕促)전멸할 기개를 갖고 있다.
8, 제주도는 부대장을 중심으로 군경이 밀접히 협력하여 순조롭게 임무를 수행중이다. 그러나 섬 자체의 환경에 의해 반도를 전멸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

△反乱事件、国防部発表第五號

（ソウル二十八日発共立＝新亜）二十八日国防部では全羅南道現地事態を次のように発表した

二十八日午前十一時国防部発表第五號

一、去る二十六日国防長官はチェ（蔡）参謀総長外五名を随伴ヨース反乱事件鎮圧状況を巡視指導する目的で現地に出張したが所期の目的を達し二十七日帰京した、特に長官は[illegible]

つゞく

らベクウン山（白雲山）戦闘を指導視察して陸軍病院を訪問し多数の傷病兵を慰問し、又警察署、放送局を巡視し布告文、ラジオを通じて道民を激励した

二、昨二十七日午後一時、ヨース進駐部隊は上陸部隊と合流して反乱軍の強固な抵抗をしりぞけ同市を占領、目下治安恢復に努力中である

三、ヨース暴動発生状況は兵営内で銃声が起るや五、六名の反徒が街頭に飛び出し、人民共和国万歳演説を行つた、ヨース十四連隊反乱兵士の数は二、三百名にすぎないと見られるが一般市民多数がこれに加担し特に女学生、小学生までが合流し、地形、都市状態と合せて攻撃に多大の困難があり進駐に際し莫大な抵抗を受けた、ヨース地区における国軍の被害は戦死二十、負傷八十である

四、現在反徒主力はベクウン山（白雲山）附近に三、[illegible]ある[illegible]は反徒のチーリ山（智異山）への連絡を遮断してこれを撃退する方法をとつている

五、ヨースでの反徒の暴行は目下調査中であるがスンチョン（順天）で行われた暴行は実に阿鼻叫喚、天人共に許さぬ有様であつた、今度の事件は計画的であつたそれだけに反徒側は組織されていた一[illegible]と[illegible]の人物で構成され凄惨な人民裁判を為したがこの裁判ではパン（万）某[illegible]が裁判長であつた

六、今度の事件から吾々は徹底的な[illegible]の必要を痛感した、一日も早く国軍組織法が国会を通過し大統領が国防部長官令で国軍の組織を明確にし、大韓民国の路線を画一に具現化する必要がある

七、現地の将兵は司令官以下士気旺盛、反徒は最後まで掃討せん滅する気慨をもつてい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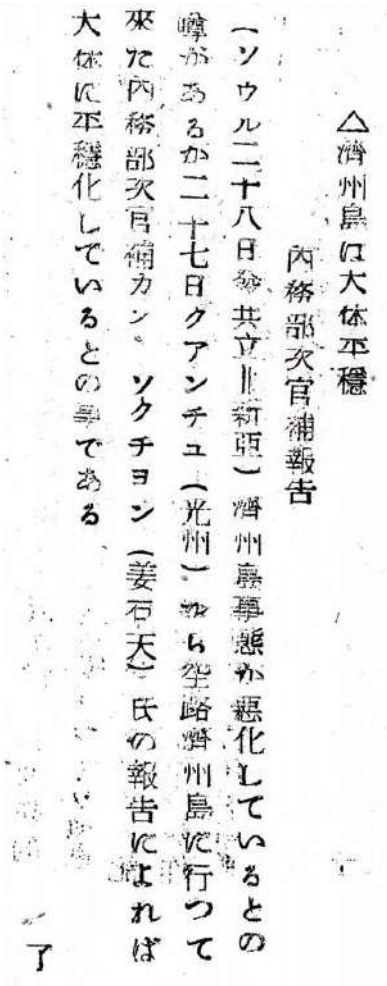
八、チェチュ島（済州島）は司令部隊長を中心に軍警が緊密に協調して目下作戦を遂行中である、しかし島自体の地形上よりして反徒をせん滅するには相当な時日が必要である

了

제주도는 대체로 평온 내무부 차관보 보고

제주도는 대체로 평온 내무부 차관보 보고

(서울 28일발=신아) 제주도사태가 악화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27일 광주에서 비행기로 제주도에 다녀온 내무부 차관보 강석천의 보고에 의하면 대체로 평온해지고 있다고 한다.


△濟州島は大体平穩
內務部次官補報告
（ソウル二十八日發共立=新亞）濟州島事態が惡化しているとの噂があるが二十七日クアンチュ（光州）から空路濟州島に行つて來た內務部次官補カン・ソクチョン（姜石天）氏の報告によれば大体に平穩化しているとの事である
了

반란사건 국방부 발표 제7호

반란사건 국방부 발표 제7호

(서울 30일발 공립=신아)

국방부에서는 30일 반란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10월 30일 오전 10시 현재

1, 여수, 순천, 광양, 보성, 벌교 등의 반란 각 지구의 치안은 완전히 회복하였고, 29일 순천, 여수 간 열차는 국군의 불면불휴의 노력으로 복구하여 시운전에 성공했다.

2, 우리 항공기의 정찰에 따르면 하동, 광양 방면의 패잔 반도는 거창 방면으로 도주하고 구례 방면의 반도는 화암 평야 동방으로 이동중이다. 우리 국군은 거창, 함양 등으로 우선 진출하여 도망로를 차단하여 포위 섬멸작전을 전개중이다.

4, 28일부터 29일 야반에 걸쳐 이뤄진 구례군 도지면 문수리 작전에서 제15연대장 최남근(崔楠根) 중령은 구사일생으로 구출받았다. 동 군에서의 국군의 전과는 M1소총탄 6만발, MG○○○○무전기 2대, 트럭 13대, 〈판독불가〉 다수이다(주식량은 1개 연대가 4,5일 간 사용 가능한 양)

5, 28일 현재, 순천지구의 포로는 3백1십6명(여자 1십6명)

6, 26일 오후 2시경 현재 재 제주도 제9연대로부터 현지보고에 의하면 조천면 일대에서 거둔 전과는 포로 2백6십1명(이 중 주모자 6명), 기타 무기, 식량 다수이다.

△反乱事件國防部發表第七號

（ソウル三十日發共立＝新亜）國防部では三十日反乱事件に際して次のように發表した。十月三十日午前十時現在

一、ヨース（麗水）、スンチョン（順天）、コアンヤン（光陽）、ポーソン（寶城）、ポルキョ（筏橋）等の反乱各地區の治安は完全に回復し二十九日スンチョン、ヨース間の列車は國軍の不眠不休の努力で復舊し、試運轉に成功した

二、わが航空隊の偵察によればハトン（河東）コアンヤン方面の敗殘反徒はコチャン（居昌）方面に逃走しクレ（求禮）方面の反徒はホアアム平野東方へと移動中である、わが國軍はコチャン、ハムヤン（咸陽）等へ優先進出して逃亡路を遮斷して包圍せん滅作戰を展開中である

三、スーンチョン、ヨース方面反徒總指揮者は國軍に逮捕され目下嚴重な取調べを受けている

四、二十八日から二十九日夜半にわたり行われたクレ（求禮）郡トチ（土旨）面ムンス（文遂）里作戰で第十五連隊長チヨエナムコン（崔楠根）中領は九死に一生の救出を受けた、同面での國軍の戰果はM一小銃彈六萬發、MG[illegible]無電機二台、トラック十三台、[illegible]多數である（主食糧は一ケ連隊が四・五日間使用しうる量）

つゞく

五、二十八日現在スーンチョン地區の捕虜は三百十六名（中女子十六名）

六、二十六日午後二時現在チエーヂユ（濟州）島第九連隊から現地報告によればチョチョン（朝天）面一帶及びテーチョン（大靜）面一帶であげた戰果は捕虜二百六十一名（中主謀者六名）其他武器、食糧多數で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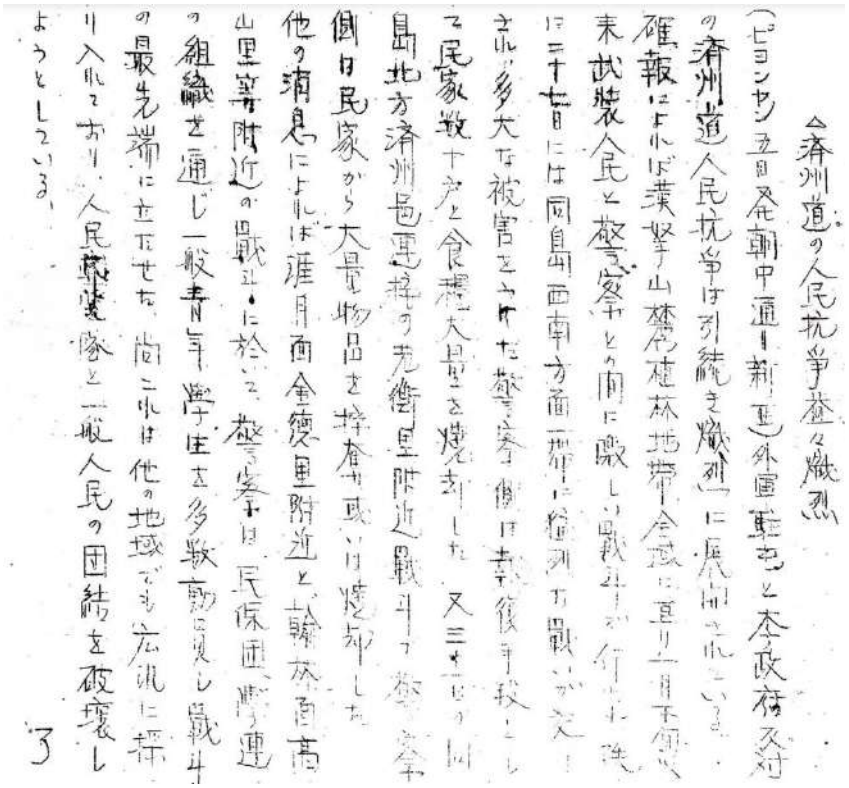
了

신아통신(新亞通信) 1949년 2월 9일 / 면

제주도의 인민항쟁 점점 치열

제주도의 인민항쟁 점점 치열

(평양 5일발 조중통=신아)
외군 주둔과 이 정부 반대의 제주도인민항쟁은 계속해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확보(確報)에 따르면 한라산자락 식림지대 전역에 걸쳐 1월 하순이래 무장인민과 경찰과의 사이에 새로운 전투가 벌어진 후에 27일에는 동 섬 서남방면 일대에 치열한 전투가 치러져 다대한 피해를 낳은 경찰측은 보복수단으로 민가 수십호와 식량 대량을 소각했다. 또한 31일에는 동 섬 북방제주읍 연○의 노형리 부근 전투에서 경찰측은 민가에서 대량 물품을 약탈 혹은 소각했다.
다른 소식에 의하면 애월면 금덕리 부근과 한림면 고산리 부근의 전투에서 경찰은 민보단 학련의 조직을 통해 일반 청년학생 다수 동원하여 전투의 최선단에 세웠다. 이는 다른 지역에서도 확산되어 인민무장대와 일반인민의 단결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다.


△濟州道の人民抗爭益々熾烈
(ピヨンヤン五日発朝中通り新亞)外軍駐屯と李政府反対の濟州道人民抗爭は引続き熾烈に展開されている。確報によれば漢拏山麓植林地帯全域に亘り一月下旬以来武裝人民と警察との間に激しい戰斗が行はれ殊に二十七日には同島西南方面一帯に猛烈な戰いが交はされ多大な被害をうけた警察側は報復手段として民家數十戸と食糧大量を燒却した又三十日の同島北方濟州邑連接の先衡里附近戰斗で警察側は民家から大量物品を掠奪或いは燒却した他の消息によれば涯月面金德里附近と翰林面高山里等附近の戰斗に於いて警察は民保団學連の組織を通じ一般青年學生を多數動員し戰斗の最先端に立たせた尚これは他の地域でも広汎に採り入れており人民軍隊と一般人民の団結を破壞しようとしている。

5,6백의 반도 실력, 훈련병 6만에 필적

5,6백의 반도 실력, 훈련병 6만에 필적

(서울 21일발 공립=신아)
제59차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 신 내무장관은 출장 시찰한 제주도 사태에 관한 총회보고를 하고 이에 관련하여 반란사태수습의 문제 극복에 대해 눈물과 함께 그 소감을 피력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내가 제주도에 관한 뉴스를 들은 것은 지중해였다. 이는 마침 그리스에 발생한 사건과 비슷한데 이 크레타섬의 사태는 해군이 출동하여 24시간에 진압했다. 여수, 순천 사건은 귀국 도중 싱가포르에서 신문에서 보고 알았다.
당시 이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한 적이 있는데, 내무장관에 취임하여 생각한 것은 제주도의 반도가 만약 주변 섬들과 본토에 상륙하는 일이 있다면 대한민국은 동요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번 대통령의 특명으로 11일부터 20일까지 제주도를 시찰하게 되어 귀경해 있었다.
무장 반도는 1백5십명이라고 하며 많게 얘기하는 사람은 5백 내지 6백이라고도 한다. 이 5,6백명은 조직적이고 신출귀몰하며, 그 작전은 훈련을 받은 군대 6만을 충분히 상대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며, 반도에 추종하는 주민은 1만5천에 달하며, 그들의 연락으로 반도는 주야를 불문하고 산에서 내려와서 살인방화를 저지르고 있었다. 이달 4일까지 거의 이 연락은 단절되었다고는 말하지만 물론 완전히 절단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날씨가 회복하면 이는 완전히 소탕하는 방안도 나왔다.”

△五、六百の反徒實力訓練兵六萬に匹敵

申內務長官濟州島視察談

（ソウル二十一日發共立＝新報）第五十九次閣會本會議に出席した申內務部長官は出張視察した濟州島事態に關するそう合報告を行い、これに關連して反亂事態收拾の經過と共にその所感を披瀝したが、要旨は次の通りである

「私が濟州島に關するニュースを聞いたのは地中海でおつかこれは丁度ギリシヤで起つたことと似ているがそのクレーテ島での事態は英海軍が出動して二十四時間で鎭壓したが、麗水、順天事件は國軍全中シンガポールで新聞を見て知つたが、當時これに對して何がなされるべきかを考えたことがあるが內務長官に就任して思つたことは濟州島の反徒が若し周邊の島々か本土に上陸することがあれば大韓民國は動搖するであらうということである、今回友納領の特命で十一日から二十日までの間同島を視察することになり雖京していた武裝反徒は一五〇名といわれ多く言う人は五百乃至六百であらうともいう、この五、六百名は組織的で神出鬼沒でその作戰は訓練を受けた軍隊六萬を優に相手にしうる實力を持つているというのは事實である、反徒に追從する住民は一萬五千に達し彼等の連絡で反徒は晝夜を問はず山から下りてきて殺人放火をしていたが、今月四日までに殆んどこの連絡は斷ち切られたとは言うものゝ勿論完全に絕斷されたわけではないしかし天候が回復すればこれは完全に掃蕩することも出

してきたのである

了

신아통신(新亞通信) 1949년 3월 24일 / 2-3면

인민유격대 3시(市) 78군(郡) 활동
인민위원회 부활지구 증가

인민유격대 3시(市) 78군(郡) 활동
인민위원회 부활지구 증가

(평양 19일발 조중통=신아)
남반부 인민들의 무장구국투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 광대해지고 있고 이미 작년말 구례, 함양, 산청을 비롯한 각 해방구에서는 인민위원회를 복구하여 인민공화국의 정강을 받들어, 토지개혁과 인민행정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소식에 의해 판명한 바에 따르면, 남조선 인민항쟁을 전개하고 있는 지역은 이달 10일 현재 남조선 8도 12시 131군 중 8도 3시 78군 1도에 달하며, 이는 사실상 미군점령하의 38도 이남 지역의 전부가 된다. 이들 유격지구의 도, 시, 군은 다음과 같다.
경기 백천(百川), ○진(○津)
강원 강릉, 삼척, 영월, 정선, 울진, 횡성, 원주, 평창
경북 문경, 경주, 의성, 영천, 영일, 봉화, 영주, 예천, 안동, 영덕, 영양, 의성, 김천, 칠곡, 경산, 함양(면) 청도, 군위
경남 함양, 산청, 하동, 통영, 동래, 밀양, 창원, 울산, 함안, 거제, 문성, 남해, 거창
전남 여수, 순천, 무안, 고흥, 화순, 영암, 나주, 구례, 담양, 보성, 벌교(면) 강진, 장성, 곡성, 함평, 해남, 완도, 영광, 광양, 장흥
전북 순창, 정읍, 무주, 금산, 장수, 무주, 고창, 임실
충북 제천, 청주, 괴산, 보은, 영동, 진천, 단양, 옥천, 청안(면)
충남 논산, 당진
제주도, 대구시, 부산시, 마산시
더욱이 현재는 이 외에 서울을 비롯한 중앙도회지, 그 외의 남반부 전 지역에 확대되고 있다.

3月24日(木)

△人民遊撃隊三市七十八郡活動

人民委員会復活地区参加

(ピョンヤン十九日発朝中通＝共同) 南半部人民達の武装闘争は日毎に激しく烈、拡大化をたどっており既に昨年末求礼、咸陽、山清をはじめ各解放区では人民委員会を復旧し、人民共和国の政綱を奉じ、土地改革と人民行政を実施していると伝えられているが現在までの消息によって判明したところに依れば南朝鮮人民達が全面的人民抗争を展開している地域は本月十日現在で、南朝鮮八道十二市百三十一郡中の八道三市七十八郡一島に達し、これは事実上米軍占領下の三十八度線以南地域の全部ということになる

これら遊撃地区の道、市、郡別は次の通りである

京畿＝白川、甕津

江原＝江陵、三陟、寧越、旌善、蔚珍、横城、原州、平昌

慶北＝聞慶、尚州、義城、永川、迎日、奉化、栄州、醴泉、安東、盈徳、英陽、星州、金泉、漆谷、慶山、河陽(面)、清道、軍威

慶南＝咸陽、山清、河東、統営、東莱、密陽、昌原、蔚山、咸安、巨済、固城、南海、居昌

全南＝麗水、順天、務安、高興、和順、霊岩、羅州、求礼、潭陽、宝城、筏橋(面)、康津、長城、谷城、咸平、海南、莞島、霊光、光陽、長興

全北＝淳昌、井邑、茂朱、錦山、長水、全州、南原、高敞、任実

忠北＝堤川、清州、槐山、報恩、永同、鎮川、丹陽、沃川、清安(面)

忠南＝論山、唐津

済州島、大邱市、光州市、馬山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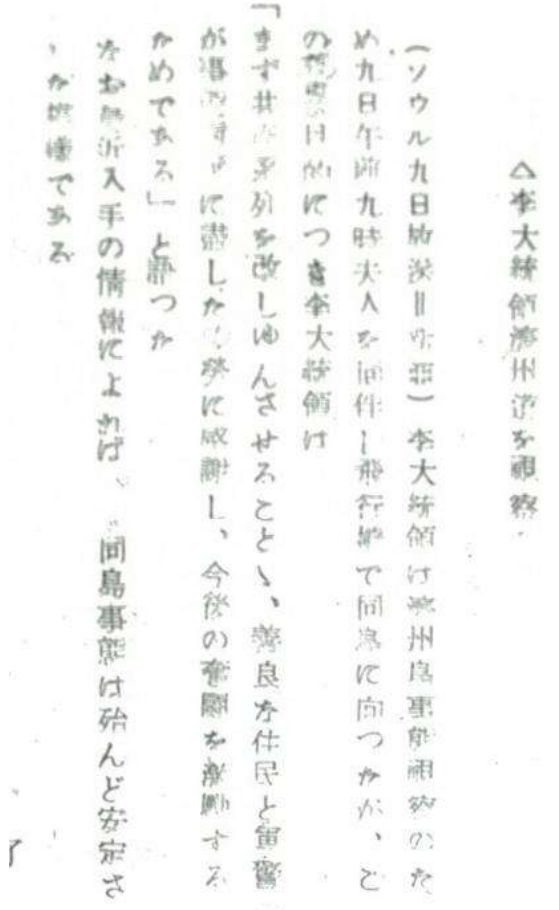
などで現在ではこの外ソウルをはじめとする中央都会地、その他の南半部全地域に拡大されている

了

이 대통령 제주도 시찰

이 대통령 제주도 시찰

(서울 9일 방송=신아)
이 대통령은 제주도 사건 시찰을 위해 9일 오전 9시 부인을 동반하여 비행기로 동 섬으로 향했는데, 이 시찰 목적에 대해 이 대통령은
“우선 공산계열을 뉘우치게 할 것, 선량한 주민과 군경이 사태수습에 노력한 공로에 감사하고, 금후의 분투를 격려하기 위해서이다”고 말했다.
더욱이 측근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동 섬의 사태는 거의 안정된 모양이다.



신아통신(新亞通信) 1949년 4월 11일 / 3-4면

북한 전역의 공산주의자 섬멸의 향연
○ 참모총장 기자회견

북한 전역의 공산주의자 섬멸의 향연
○ 참모총장 기자회견

(서울 9일 방송=신아)
○참모총장은 9일 오전 10시 40분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다음의 1문1답을 실시하였다.
문, 남북교역이 중단되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답, 과거에 남북교역을 보면 북한에서 들어오는 물품은 우리가 주문한대로가 아니라 대부분은 불필요한 것이었고, 또한 이 중 일부는 악질 상인의 사욕을 채우는데만 도움이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이 점을 시정해야 하다고 생각한다.
문, 최근 북벌론, 남벌론이 활발히 유포되고 있는데?
답, 우리 한국은 유엔의 승인을 얻은 합법적인 독립국가이다. 우리는 압록강, 두만강까지의 공산주의자를 전부 정복해야만 한다.
문, 공산당의 숙청문제에 대해서?
답, 그 시작으로
1, 남로당의 악질선동자는 다량 검거했다.
2, 북한에서 들어온 공산계 선동자는 일망타진에 힘쓴다.
문, 현재 각지의 반란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답, 지금까지 제주도, 경남, 전남 일대가 가장 격렬했는데, 그 후 반란 게릴라 분자의 숙청에 일대 성과를 올렸기 때문에 평양에 돌아갈 날도 멀지 않았다고 본다.

△北韓全域の共産主義者（せん滅の要

蔡參謀總長記者會見

（ソウル九日放送＝新亜）蔡參謀總長は九日午前十時四十十分國防部で記者會見を行い次の一問一答を行つた

問、南北交易が中斷されたが、これに對する貴見如何

答、過去に於ける南北交易をみると北韓からの移入物資はわれらの註文通りでなく多くは不必要なものであつたし又この一部は悪質商人の私慾を満たすためにしか役立たない狀態であつたからこうした機會にこれ等の點を是正すべきだと思う

問、最近さに北ばつ、南ばつ論が盛んに流布されているが

答、わが韓國は國連の承認を得た合法的な獨立國家であるわれらはおうりよく江、豆滿江までの共産主義者を全部征服しなければならない

問、共産党の非法問題について

答、そ　の手始めとして

1. 南勞党の悪質せん動者は多量檢擧した

2. 北韓からの共産系せん動者は一網打盡に檢擧した

問、現在各地の反亂狀況はどうなつているか

答、今まで濟州島、慶南、全南の一帶が一番激しかつたがその後反亂ゲリラ分子の肅清に一大成果を擧げたので、平穏に戻る日も遠くないものと思う、

了

신아통신(新亞通信) 1949년 4월 12일 / 3-4면

제주도는 평온, 치안 확보에 재정적 원조 요망 이 대통령 라디오 방송

제주도는 평온, 치안 확보에 재정적 원조 요망
이 대통령 라디오 방송

(서울 11일 방송=신아) 이승만 대통령은 11일밤 제주도 시찰 결과, 반란 지대의 이재민 구제부흥 문제, 국민회의, 대한청년단, 대한부인단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송을 실시했다.

△이재민 구제 문제

남한에서 3십만 이상의 이재민, 실업자 구제는 중대문제이다. 이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일반 국민의 사회부 시책에 대한 적극 협력을 희망한다.

△제주도 문제

나는 지난 9일 제주도를 시찰(旣報)하고, 동일 오전 오후 4시에 귀경하였는데 현재 제주도는 거의 평온해졌다.

나는 산에서 귀순한 도민들과 좋게 만났는데,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 도민은 사태수습에 군경과 협력하여 유 대령의 지휘하에 잘 싸워줬다. 동 섬에서 지금 가장 힘든 것은 의료와 의복, 특히 주택 문제는 심각하다. 산에 재목은 있지만 이것으로 집을 지을 자금과 부자재가 전혀 없다. 현재 해상경비를 완벽하게 하여 반동분자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회, 청년단, 부녀단은 긴밀히 연계하여 방비하고 있다. 외래자가 숙박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경찰당국에 보고하여 스파이, 선동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済州島は平穏、治安確保に財的援助を要望

李大統領ラヂオ放送

（ソウル十一日放送＝新亜）李承晩大統領は十一日夜済州島視察結果、はん亂地帯の罹災者救濟問題、國民會議、大韓青年團、大韓婦人會問題につき次の様な放送を行つた

△罹災者救濟問題

濟州島に於ける三十萬余の罹災者、失業者救濟は重大問題である、これは政府の力だけでは不可能で、一般國民の社會部施策に對する積極協力を希望する

△濟州島問題

私は去る九日濟州島を視察（既報）し同日午后四時歸京したが現在濟州島はほとんど平穏に歸し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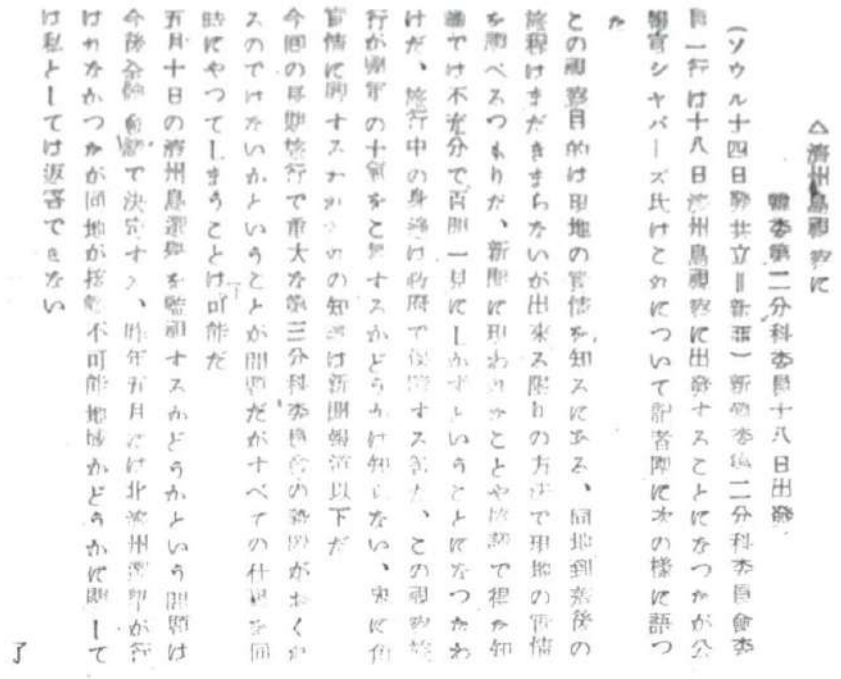
私は山から歸順した島民達と親しく會つたが、彼らは共産主義者らの宣傳がどんなものかを知るに至つた、島民は事態收拾に軍警と協力し、柳大領の指揮下によく闘つてくれた、同島で今一番困つているのは醫療と衣服、特に住宅の問題は深刻である、山に材木はあるがこれで家を建る資金と副資材が全くないのだ、現在海上警備を完璧にし、反動分子の入るのを防ぐため國民會、青年團、婦女團は緊密に連けいして防備している、外來者が宿泊した場合には二十四時間以内に警察當局に報告し、スパイ、せん動行爲を未然に防止するようにしている

신아통신(新亞通信) 1949년 4월 15일 / 5면

제주도 시찰에 한위(韓委) 제2분과 위원 18일 출발

제주도 시찰에 한위 제2분과 위원 18일 출발

(서울 14일발 공립=신아)
신 한위 제2분과 위원회 위원 일행은 18일 제주도 시찰을 위해 출발하게 되었는데, 공보관 샤버즈씨는 이에 대해 기자단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시찰 목적은 현지의 실정을 아는 것에 있다. 동 섬 도착후의 여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가능한 방법으로 현지 실정을 조사할 예정이다. 신문에 나온 것이나 협의에서 얻은 지식으론 불충분하며 백문이불여일견이 되었다. 여행중의 신변은 정부에서 보장할 것이다. 이 시찰 시행이 국군의 사기를 고무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에 각 실정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신문보도 이하이다.
이번 장기여행으로 중대한 제3분과위원회의 설치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 문제이지만 모든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일은 가능하다.
5월 10일의 제주도 선거를 감시할지 어떨지 문제는 금후 전체 회의에서 결정한다. 작년 5월에는 북제주 선거가 실시되지 않았지만 동 지역이 접촉 불가능 지역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나로서는 대답할 수 없다.



△濟州島視察に
韓委第二分科委員十八日出發

(ソウル十四日發共立＝新亞) 新韓委第二分科委員會委員一行は十八日濟州島視察に出發することになつたが公報官シヤバーズ氏はこれについて記者團に次の樣に語つた

この視察目的は現地の實情を知るにある、同地到着後の旅程はまだきまらないが出來る限りの方法で現地の實情を調べるつもりだ、新聞に現われたことや旅程で得た知識では不充分で百聞一見にしかずということになつたわけだ、旅行中の身邊は政府で保障する筈だ、この視察旅行が國軍の士氣をこ[illegible]するかどうかは知らない、実に有實情に關するわれ[illegible]の知識は新聞報道以下だ

今回の長期旅行で重大な第三分科委員會の發展がおくれ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が問題だがすべての仕事を同時にやつてしまうことは可能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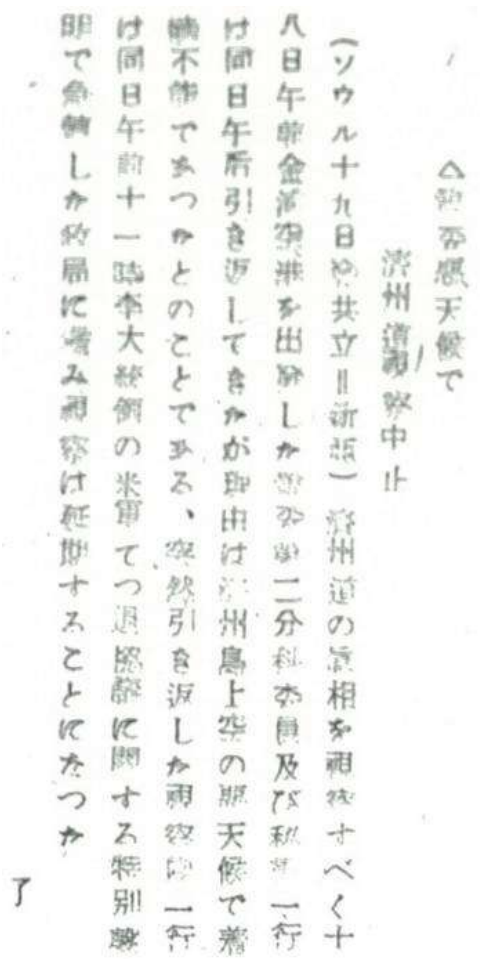
五月十日の濟州島選擧を監視するかどうかという問題は今後全體會議で決定する、昨年五月には北濟州選擧が行はれなかつたが同地が接觸不可能地域かどうかに關しては私としては返答できない

了

한위 악천후로 제주도 시찰 중지

한위 악천후로 제주도 시찰 중지

(서울 19일발 공립=신아)
제주도의 진상을 시찰하기 위해 18일 오전 김포 공항을 출발한 한위 제2분과위원 및 ○○○ 일행은 동일 오후 회항해 왔는데, 이유는 제주도 상공의 악천후로 착륙 불능이었던 때문이다. 돌연 회항한 시찰단 일행은 동일 오전 11시 이 대통령의 미군철퇴협의에 관한 특별설명으로 급전환했다. 정국에 감안하여 시찰은 연기하게 되었다.



5월 10일에 제주도 선거
유권자의 90% 등록

5월 10일에 제주도 선거
유권자의 90%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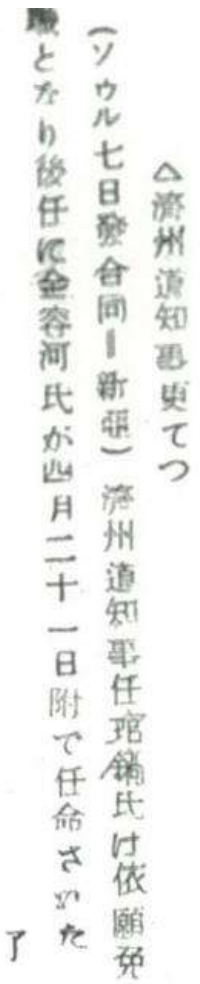
(서울 27일발 합동=신아)
작년 5월 10일 선거가 소요사건 빈발로 무기연기되어 온 제주도에서는 만 1년째인 5월 10일을 기해서 갑, 을 양구 일제히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기로 되었다. 작년 26일 공○○에 들어간 보고에 의하면, 유권자 등록도 순조롭게 완료하였고, 현재 1십7명 이상이 입후보하여 활발한 선거전을 전개하고 있다. 갑, 을 지구의 유권자 등록과 입후보자의 성명은 다음과 같다.
갑구
총유권자수 3만8천2백3십
등록자수 3만6천3백8십7
등록비율 95%
장상준, 오길상, 공 준 씨 외 6명
을구
총유권자수 2만6천6백4십9
등록자수 2만5천8백4십7
등록비율 96.9%
장택상, 문봉제, 양제곤 외 7명

신아통신(新亞通信) 1949년 5월 9일 / 6면

제주도지사 경질

제주도지사 경질

(서울 7일발 합동=신아)
제주도지사 임관호씨는 의원(依願) 면직되어 후임에 김용하씨가 4월 21일자로 임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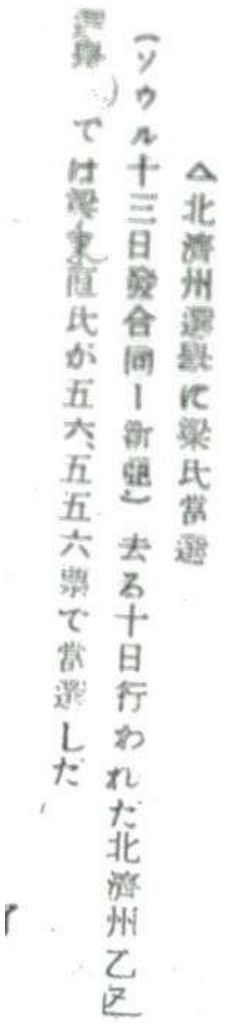
△濟州道知事更てつ
(ソウル七日發合同―新亞) 濟州道知事任琯鎬氏は依願免職となり後任に金容河氏が四月二十一日附で任命された
了

신아통신(新亞通信) 1949년 5월 17일 / 6면

북제주 선거에 양씨 당선

북제주 선거에 양씨 당선

(서울 13일발 합동=신아)
지난 10일 치러진 북제주 을구 선거에서는 양병직씨가 5만6천5백5십6표로 당선했다.



△北濟州選擧に梁氏當選
(ソウル十三日發合同ー新亞) 去る十日行われた北濟州乙区
選擧では梁東直氏が五六、五五六票で當選し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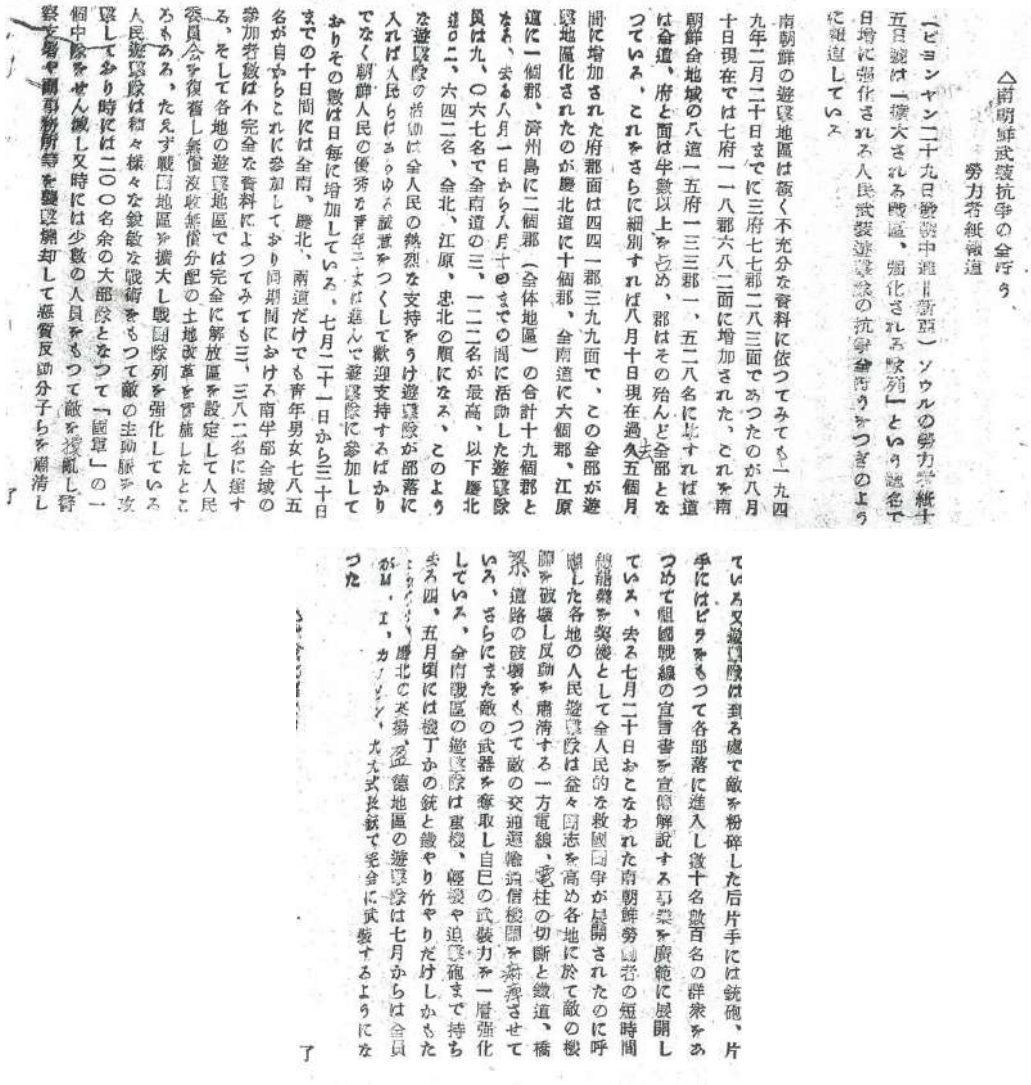
신아통신(新亞通信) 1949년 9월 1일 / 2-4면

남조선 무장항쟁의 전모
노력자지(勞力者紙) 보도

남조선 무장항쟁의 전모
노력자지(勞力者紙) 보도

(평양 29일발 조중통=신아)
서울 노력자지 '15일호는 확대되는 전구, 강화되는 대열'이라는 제목으로 날이 갈수록 강화되는 인민무장유격대의 항쟁 전모를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남조선의 유격지구는 매우 불충분한 자료에 의거해 보더라도 1949년 2월 20일까지 3부 77군 283면이었던 것이 8월 10일 현재는 7부 118군 682면으로 증가했다. 이를 남조선 전지역의 8도 15부 133군 1천5백2십8명에 비하면 도는 전도, 부와 면은 절반 이상을 점하며, 군은 그 대부분이 전부이다. 이를 더욱 상세히 보면 8월 10일 현재, 과거 5개월 동안에 증가한 부군면은 441군 399면으로 이 전부가 유격지구화된 것이 경북도에 10개군, 전남도에 6개군, 강원도에 1개군, 제주도에 2개군(전체지구) 합계 19개군이 된다. 지난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활동한 유격대원은 9천6십7명으로 전남도의 3천1백2십2명이 최고, 이하 경북도의 2천6백4십2명, 전북, 강원, 충북 순이 된다. 이러한 유격대의 활동은 전 인민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 유격대가 부락에 들어오면 인민들은 모든 성의를 다해 환영 지지할뿐만 아니라 조선인민의 우수한 청년 남녀는 적극적으로 유격대에 참가하고 있으며, 그 수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7월 21일부터 30일까지의 10일 간에는 전남, 경북, 두 도에서만도 청년 남녀 7백8십5명이 자발적으로 이에 참가하고 있으며 동 기간에 남반부 전역의 참가자 수는 불완전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3천3백8십2명에 달한다. 그리고 각지의 유격지구에서는 완전히 해방구를 설정하여 인민위원회를 복구하여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을 실시한 곳도 있다. 끊임없이 전투지구를 확대하고 전투대열을 강화하고 있는 인민유격대는 다양하고 예민한 전술을 갖고 적의 주동맥을 공격하고 있고, 때로는 2백여명의 대부대가 되어 '국군'의 1개 중대를 섬멸하고 또한 때로는 소수의 인원을 갖고 적을 교란하고 경찰지서와 ○사무소 등을 습격 소각해서 악질 반동분자들을 숙청하고 있다. 또한 유격대는 사방에서 적을 분쇄했다. 한손에는 총포, 한 손에는 전단을 들고 각 부락에 진입하여 수십명 수백명의 군중을 모아 조직 전선의 선언서를 선전 해설하는 사업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있다. 지난 7월 20일 실시된 남조선 노동자의 단시간 총파업을 계기로 전인민적인 구국투쟁이 전개된 것에 호응한 각지의 인민유격대는 갈수록 의지를 높이고 각지에서 적의 기관을 파괴하고 반동을 숙청하는 한편, 전선, 전주의 절단과 철도, 교량, 도로의 파괴를 통해 적의 교통운수통신기관을 마비시키고 있다. 나아가 적의 무기를 탈취하고 자기의 무장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전남 지구의 유격대는

중기, 경기와 박격포까지 갖고 간다. 4,5월 경에는 몇 자루의 총과 쇠죽창밖에 없었는데, 경북의 ○○, 영덕 지구 유격대는 7월부터 전원이 M1, 카빈, 99식 장총으로 완전무장하게 되었다.



△南朝鮮武裝抗爭の全行う、
勞力者紙報道

（ピョンヤン二十九日發朝中通＝新華）ソウルの勞力者紙十五日號は「擴大される戰區、強化される隊列」という題名で日增に強化される人民武裝遊擊隊の抗爭全行うをつぎのように報道している

南朝鮮の遊擊地區は極く不充分な資料に依つてみても一九四九年二月二十日までに三府七七郡二八三面であつたのが八月十日現在では七府一一八郡六八二面に增加された、これを南朝鮮全地域の八道一五府一三三郡一、五二八名に比すれば道は全道、府と面は半數以上をしめ、郡はその殆んど全部となつている、これをさらに細別すれば八月十日現在過去五個月間に增加された府郡面は四四一郡三九九面で、この全部が遊擊地區化されたのが慶北道に十個郡、全南道に六個郡、江原道に一個郡、濟州島に二個郡（全体地區）の合計十九個郡となる、去る八月一日から八月十日までの間に活動した遊擊隊員は九、〇六七名で全南道の三、一二二名が最高、以下慶北道の二、六四二名、全北、江原、忠北の順になる、このような遊擊隊の活動は全人民の熱烈な支持をうけ遊擊隊が部落に入れば人民らはあらゆる誠意をつくして歡迎支持するばかりでなく朝鮮人民の優秀な青年二丈は進んで遊擊隊に參加しておりその數は日毎に增加している、七月二十一日から三十日までの十日間には全南、慶北、兩道だけでも青年男女七八五名が自からこれに參加しており同期間における南半部全域の參加者數は不完全な資料によつてみても三、三八二名に達する、そして各地の遊擊地區では完全に解放區を設定して人民委員会を復舊し無償沒收無償分配の土地改革を實施したところもある、たえず戰鬪地區を擴大し戰鬪隊列を強化している人民遊擊隊は種々様々な鋭敏な戰術をもつて敵の主動脈を攻擊しており時には二〇〇名余の大部隊となつて「國軍」の一個中隊をせん滅し又時には少數の人員をもつて敵を攪亂し警察支署や副事務所等を襲擊燒却して惡質反動分子らを肅清している又遊擊隊は到る處で敵を粉碎した后片手には銃砲、片手にはビラをもつて各部落に進入し數十名數百名の群衆をあつめて祖國戰線の宣言書を宣傳解說する事業を廣範に展開している、去る七月二十日おこなわれた南朝鮮勞働者の短時間總罷業を契機として全人民的な救國鬪爭が展開されたのに呼應した各地の人民遊擊隊は益々鬪志を高め各地に於て敵の機關を破壞し反動を肅清する一方電線、電柱の切斷と鐵道、橋梁、道路の破壞をもつて敵の交通運輸通信機關を麻痺させている、さらにまた敵の武器を奪取し自己の武裝力を一層強化している、全南戰區の遊擊隊は重機、輕機や迫擊砲まで持ち去る四、五月頃には機丁かの銃と鐵やり竹やりだけしかもたこれらが、慶北の英陽、盈德地區の遊擊隊は七月からは全員がM、エ、カノソン、九九式長銃で完全に武裝するようになつ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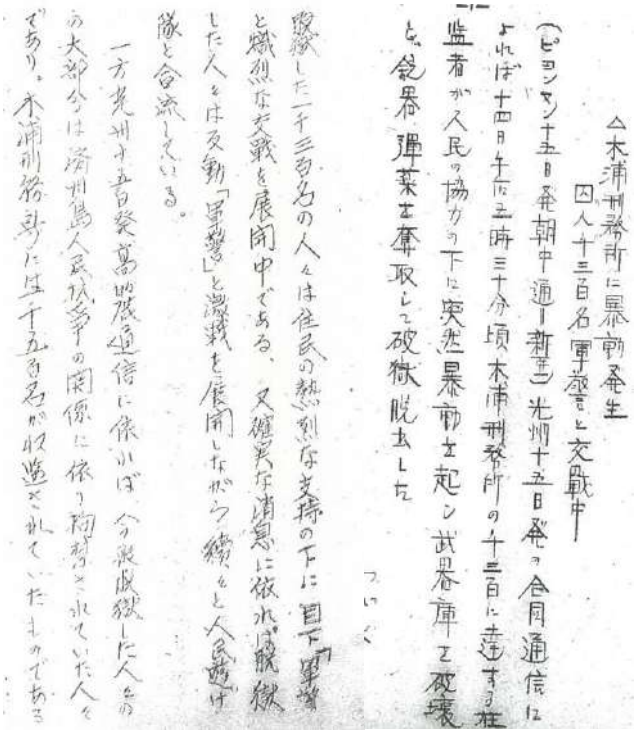
了

신아통신(新亞通信) 1949년 9월 16일 / 1-2면

목포형무소에 폭동 발생
수인(囚人) 1천3백명 군경과 교전 중

목포형무소에 폭동 발생
수인(囚人) 1천3백명 군경과 교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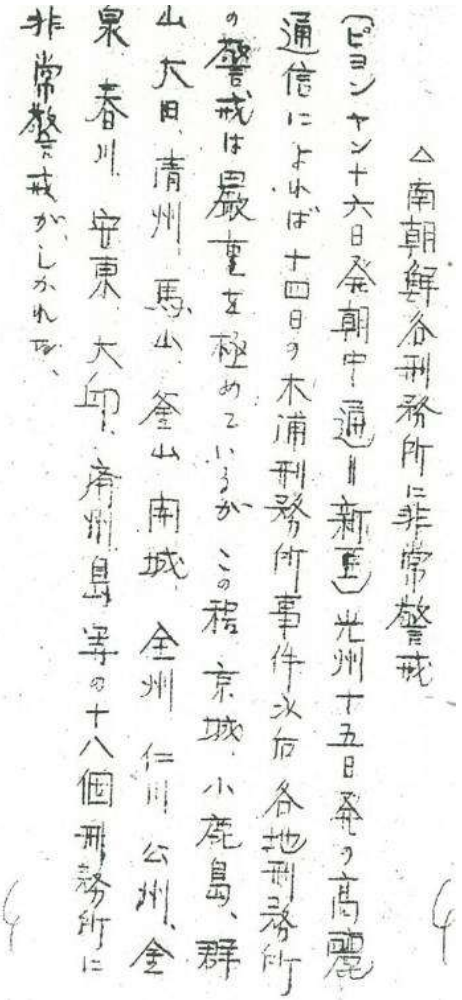
(평양15일 발 조중통=신아)
광주 15일발의 합동통신에 따르면 14일 오후 5시30분경, 목포형무소의 1천3백명에 달하는 수감자가 인민의 협력 하에 돌연 폭동을 일으켜 무기고를 파괴하고 총기, 탄약을 탈취하여 파옥 탈출하였다.
탈옥한 1천3백명은 주민의 열렬한 지지 하에 목하 군경과 치열한 교전을 전개 중이다. 또한 확실한 소식에 의하면 탈옥한 사람들은 '군경'과 격전을 전개하면서 계속해서 인민유격대와 합류하고 있다.
한편 광주 15일발 고○통신에 의하면 금번 탈옥한 사람들 대부분은 제주도 인민항쟁의 관계로 인해 구속되어 있던 사람들이며, 목포형무소에는 1천5백명이 수감되어 있었다.


△木浦刑務所に暴動発生
囚人千三百名軍警と交戰中
(ピヨンヤン十五日発朝中通―新華) 光州十五日発の合同通信によれば十四日午后五時三十分頃木浦刑務所の千三百に達する在監者が人民の協力の下に突然暴動を起し武器庫を破壊し銃器弾薬を奪取して破獄脱出した
つい〻
脱獄した一千三百名の人々は住民の熱烈な支持の下に目下「軍警」と熾烈な交戰を展開中である。又確実な消息に依れば脱獄した人々は反動「軍警」と激戰を展開しながら續々と人民遊げ隊と合流している。
一方光州十五日発高麗通信に依れば今般脱獄した人々の大部分は済州島人民抗爭の関係に依り拘禁されていた人々であり、木浦刑務所に生千五百名が収造されていたものである

남조선 각 형무소에 비상경계

남조선 각 형무소에 비상경계

(평양 16일발 조중통=신아)
광주 15일발 고려통신에 의하면, 14일의 목포형무소사건 이후 각지 형무소의 경계는 매우 엄중해졌는데, 얼마전 경성, 소록도, 군산, 대전, 청주, 마산, 부산, 개성, 전주, 인천, 공주, 김천, 춘천, 안동, 대구, 제주도의 1십8개 형무소에 비상경계가 내려졌다.


△南朝鮮各刑務所に非常警戒
(ピョンヤン十六日發朝中通=新華) 光州十五日發の高麗通信によれば十四日の木浦刑務所事件以後各地刑務所の警戒は最重を極めているが この程京城、小鹿島、群山、大田、清州、馬山、釜山、南城、全州、仁川、公州、全泉、春川、安東、大邱、濟州島等の十八個刑務所に非常警戒が加えられた。

■ 통신(通信)

공화통신(共和通信)

지난 3일 제주도 사건의 상보

지난 3일 제주도 사건의 상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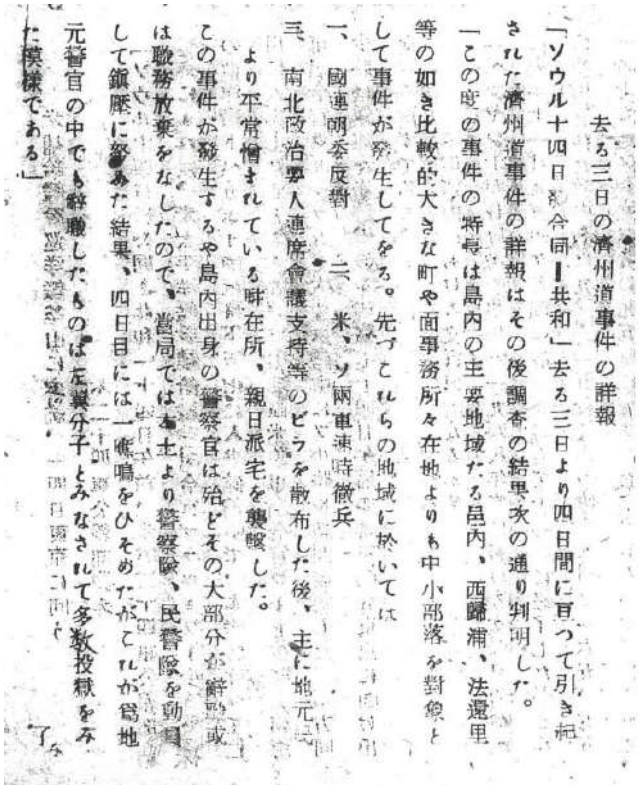
[서울 14일발 합동=공화] 지난 3일부터 4일간에 걸쳐 일어난 제주도 사건의 상보는 그 후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이 판명되었다.

「이번 사건의 특징은 도내 주요 지역인 읍내, 서귀포, 법환리 등과 같이 비교적 큰 도시와 면사무소 소재지보다도 중소부락을 대상으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먼저 이러한 지역에서

1. 국련조위(國連朝委) 반대 2. 미, 소 양군속(兩軍涑) 시 징병

3. 남북정치요인 연석회의 지지 등의 삐라를 산포한 후, 주로 지역민으로부터 평상 미움 받고 있는 주재소, 친일파 자택을 습격했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도내 출신의 경찰관은 거의 대부분 사직 혹은 직무방기를 했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본토에서 경찰대, 민경대를 동원하여 진압에 노력한 결과, 4일째에는 일단 조용해졌지만 이 때문에 지역경찰 중에서도 사직한 사람은 좌익분자로 간주되어 다수 투옥된 것 같다.」



去る三日の濟州道事件の詳報

「ソウル十四日發合同=共和」去る三日より四日間に亘つて引き起された濟州道事件の詳報はその後調査の結果、次の通り判明した。

一、この度の事件の特長は島内の主要地域たる邑内、西歸浦、法還里等の如き比較的大きな町や面事務所々在地よりも中小部落を對象として事件が發生してゐる。先づこれらの地域に於いては

一、國連朝委反對 二、米、ソ兩軍速時徹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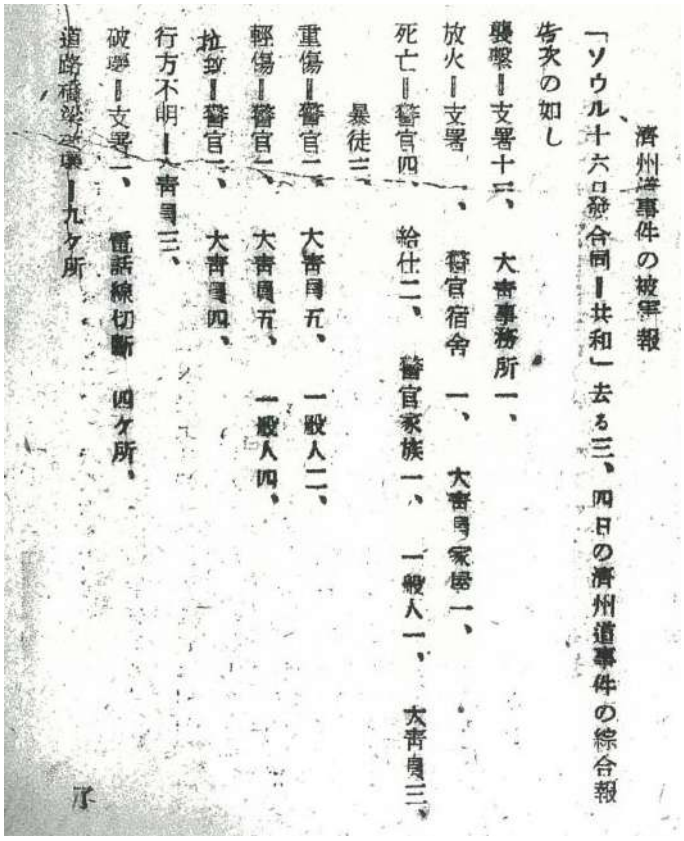
三、南北政治要人連席會議支持等のビラを散布した後、主に地元より平常憎まれている時在所、親日派宅を襲撃した。

この事件が發生するや島内出身の警察官は殆どその大部分が辭職或は職務放棄をなしたので、當局では本土より警察隊、民警隊を動員して鎭壓に努めた結果、四日目には一應鳴をひそめたがこれが爲地元警官の中でも辭職したものは左翼分子とみなされて多數投獄をみた模様である」

제주도 사건의 피해 정보

제주도 사건의 피해 정보

[서울 16일발 합동=공화] 지난 3, 4일 제주도 사건의 종합보고는 다음과 같다.
습격=지서 12, 대청사무소 1
방화=지서 1, 경관숙사 1, 대청원 가옥 1
사망=경관 4, 급사 2, 경관가족 1, 일반인 1, 대청원 3, 폭도 3
중상=경관 2, 대청원 5, 일반인 2
경상=경관2, 대청원 5, 일반인 4
납치=경관 2, 대청원 4
행방불명=대청원 3
파괴=지서 1, 전화선 절단 4개소
도로 도량 파괴=9개소


濟州道事件の被害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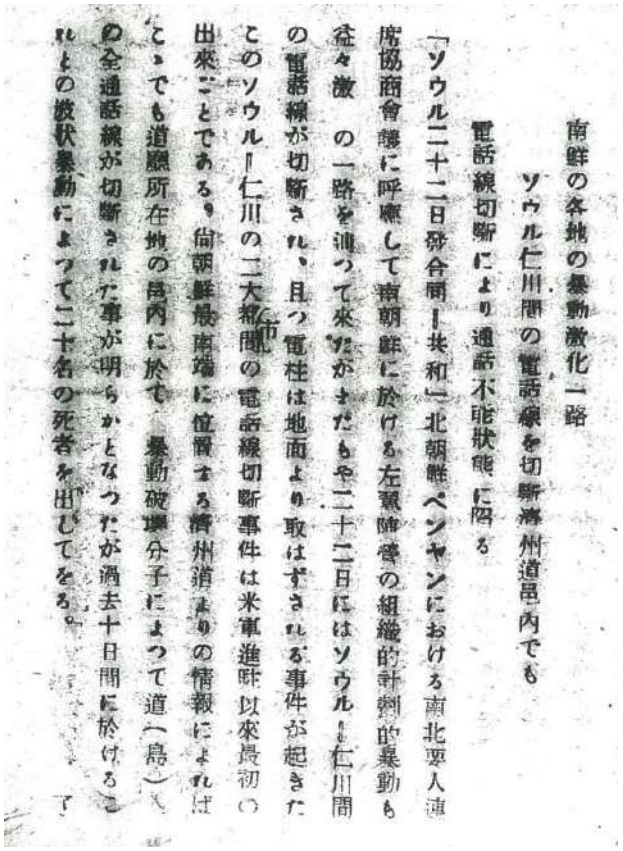
「ソウル十六日發合同=共和」去る三、四日の濟州道事件の綜合報告次の如し

襲撃=支署十三、大青事務所一、
放火=支署一、警官宿舎一、大青員家族一、
死亡=警官四、給仕二、警官家族一、一般人一、大青員三、
暴徒三、
重傷=警官二、大青員五、一般人二、
輕傷=警官二、大青員五、一般人四、
拉致=警官一、大青員四、
行方不明=大青員三、
破壞=支署一、電話線切斷 四ケ所、
道路橋梁破壞=九ケ所、

남선(南鮮) 각지의 폭동 격화 일로

남선(南鮮) 각지의 폭동 격화 일로
서울-인천 간의 전화선을 절단
제주도 읍내에서도 전화선 절단에 의해 통화 불능 상태에 빠지다

[서울 22일발 합동-공화] 북조선 평양에서 남북요인 연석 협상회의에 호응하여 남조선에서 좌익 진영의 조직적 계획적 폭동도 점점 격화의 일로를 가고 있는데, 게다가 22일에는 서울-인천 간의 전화선이 절단되고, 동시에 전주(電柱)는 지면에서 뽑아버린 사건이 일어났다. 이 서울-인천의 2대 도시 간의 전화선 절단 사건은 미군 진주(進駐) 이래 최초의 일이다. 또한 조선 최남단에 위치한 제주도로부터의 정보에 의하면, 여기서도 도청 소재지 읍내에서 폭동 파괴 분자에 의해서 도(섬)의 모든 통화선이 절단된 것이 분명했지만, 과거 10일간의 이 파상폭동에 의해서 20명의 사자(死者)를 내고 있다.



南鮮の各地の暴動激化一路

ソウル仁川間の電話線を切斷濟州道島内で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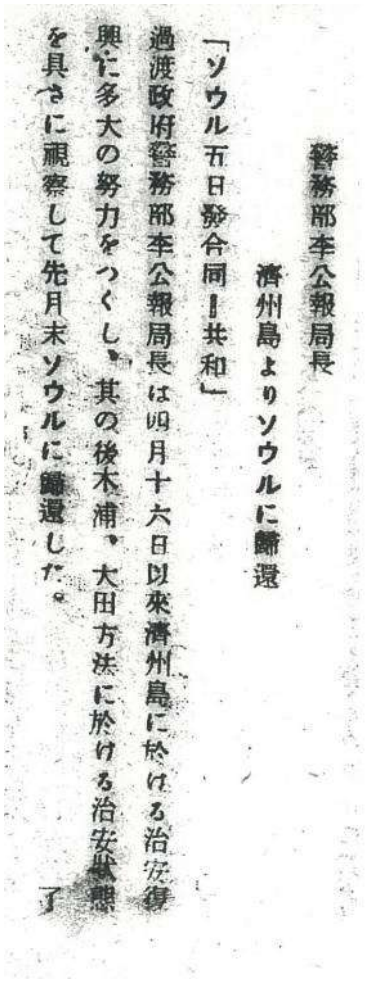
電話線切斷により通話不能狀態に陷る

「ソウル二十二日發合同=共和」北朝鮮ペンヤンにおける南北要人連席協商會議に呼應して南朝鮮に於ける左翼陣營の組織的計劃的暴動も益々激 の一路を辿って來たがまたもや二十二日にはソウル=仁川間の電話線が切斷され、且つ電柱は地面より取はずされる事件が起きたこのソウル=仁川の二大都市間の電話線切斷事件は米軍進駐以來最初の出來ごとである。尙朝鮮最南端に位置する濟州道よりの情報によれば「こゝでも道廳所在地の邑内に於て暴動破壞分子によって道(島)への全通話線が切斷された事が明らかとなったが過去十日間に於けるこれらの波狀暴動によって二十名の死者を出してをる。

경무부 이(李) 공보국장 제주도에서 서울로 귀환

경무부 이(李) 공보국장 제주도에서 서울로 귀환

[서울 5일발 합동=공화]
과도(過渡) 정부 경찰부 이(李) 공보국장은 4월 16일 이래 제주도에서 치안 부흥에 다대한 노력을 들였고, 그 후 목포, 대전 방면에서 치안 상태를 세밀히 시찰하고 지난달 말 서울로 귀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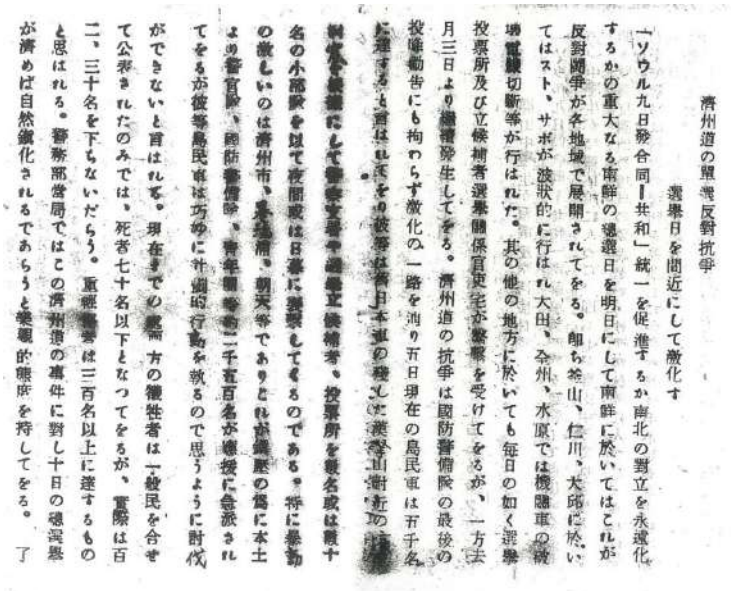

警務部李公報局長
濟州島よりソウルに歸還
「ソウル五日發合同!共和」
過渡政府警務部李公報局長は四月十六日以來濟州島に於ける治安復興に多大の努力をつくし、其の後木浦、大田方面に於ける治安狀態を具さに視察して先月末ソウルに歸還した。
了

공화통신(共和通信) 1948년 5월 11일 / 3-4면

제주도의 단선 반대 항쟁
선거일을 앞두고 격화하다

제주도의 단선 반대 항쟁
선거일을 앞두고 격화하다

[서울 9일발 합동=공화] 통일을 촉진할 것인지, 남북 대립을 영속화 할 것인지에 대한 중대한 남선(南鮮)의 선거일이 명일이라서 남선에서는 반대투쟁이 각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다. 즉 부산, 인천, 대구에서는 동맹파업, 태업이 파상적으로 일어나고, 대전, 전주, 수원에서는 기관차 파괴, 전선 절단 등이 일어났다. 그 외 자방에서도 매일 선거 투표소 및 입후보 선거 관계 관리 자택이 폭격을 받고 있는 반면 지난달 3일부터 계속 발생하고 있다. 제주도의 투쟁은 국방경비대의 최후 투항 권고에도 불구하고 격화의 일로에 이르러 5일 현재 도민군은 5천명에 달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구일본군이 남긴 한라산 부근의 호(壕)○○를 근거로 해서 경찰지서와 선거 입후보자, 투표소를 수명 혹은 수십 명의 소부대로 야간 혹은 일몰에 습격하고 있다. 특히 폭동이 심한 곳은 제주시, 모슬포, 조천 등으로 이것의 진압을 위해 본토에서 경관대, 국방경비대, 청년단 등 약 2천5백이 응원하러 급파되었다. 그들 도민군은 교묘하게 계획적인 행동을 취하므로 뜻대로 토벌을 할 수 없다고 한다. 현재까지 ○양방의 희생자는 일반인을 합쳐 공표된 것은 사자(死者) 70명 이하로 보고 있다. 실제로는 백이, 삼십 명 이하는 아닐 것이다. 중경상자는 3백 명 이상일 것으로 생각된다. 경찰부 당국에서는 이 제주도 사건에 대해 10일 총선거가 끝나면 자연 진화될 것으로 낙관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


濟州道の單選反對抗爭

選擧日を間近にして激化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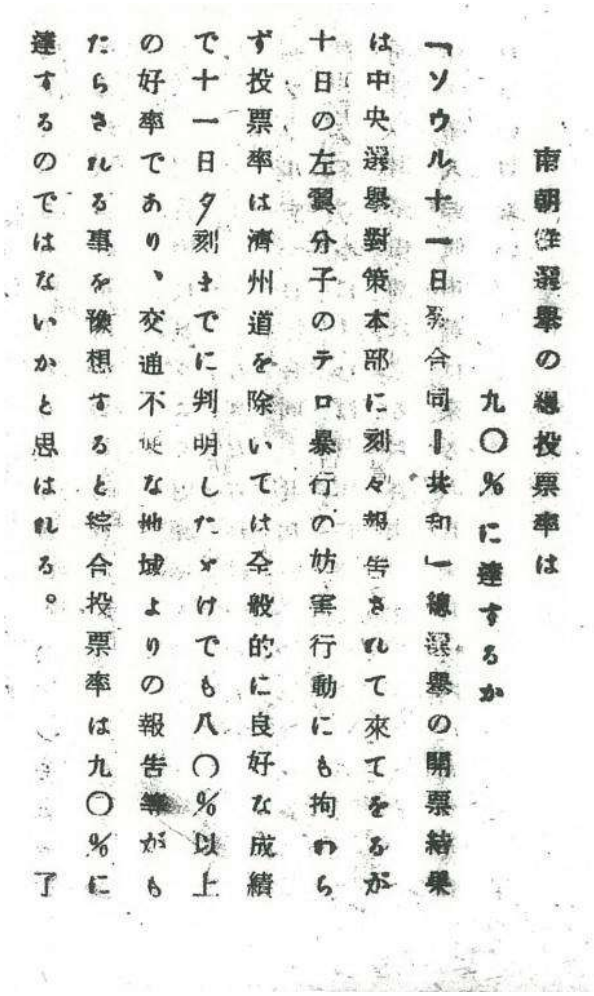
「ソウル九日發合同―共和」統一を促進するか南北の對立を永遠化するかの重大なる南鮮の總選日を明日にして南鮮に於いてはこれが反對鬪爭が各地域で展開されてをる。即ち釜山、仁川、大邱に於いてはスト、サボが波狀的に行はれ大田、全州、水原では機關車の破壞電線切斷等が行はれた。其の他の地方に於いても毎日の如く選擧投票所及び立候補者選擧關係官吏宅が襲撃を受けてをるが、一方去月三日より繼續發生してをる。濟州道の抗爭は國防警備隊の最後の投降勸告にも拘わらず激化の一路を辿り五日現在の島民軍は五千名に達すると言はれてをり彼等は舊日本軍の殘した漢拏山附近の[illegible]

[illegible]にして警察支署や選擧立候補者、投票所を數名或は數十名の小部隊を以て夜間或は日暮に襲撃してくるのである。特に暴動の激しいのは濟州市、[illegible]、朝天等でありこれが鎭壓の爲に本土より警官隊、國防警備隊、青年團等約二千五百名が應援に急派されてをるが彼等島民軍は巧妙に計劃的行動を執るので思うように討伐ができないと言はれる。現在までの處兩方の犧牲者は一般民を合せて公表されたのみでは、死者七十名以下となつてをるが、實際は百二、三十名を下らないだらう。重輕傷者は三百名以上に達するものと思はれる。警務部當局ではこの濟州道の事件に對し十日の總選擧が濟めば自然鎭化されるであらうと樂觀的態度を持してをる。了

남조선 선거의 총투표율은 90%에 달할까?

남조선 선거의 총투표율은 90%에 달할까?

[서울 11일발 합동=공화] 총선거의 개표 결과는 중앙선거대책본부에 시시각각 보고되고 있다. 10일 좌익분자의 테러 폭행의 방해 행동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은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적으로 11일 저녁 무렵에 판명된다 할지라도 80% 이상의 호율(好率)이고, 교통이 나쁜 지역에서의 보고 등이 있을 것을 예상하면 종합 투표율은 90%에 달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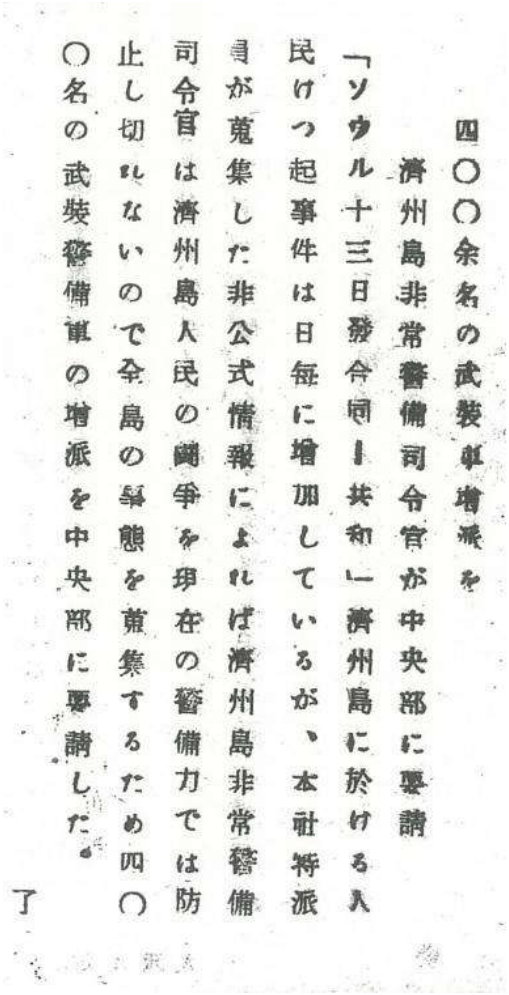
南朝鮮選擧の總投票率は
九〇%に達するか
「ソウル十一日發合同」共和」總選擧の開票結果は中央選擧對策本部に刻々報告されて來てをるが十日の左翼分子のテロ暴行の妨害行動にも拘らず投票率は濟州道を除いては全般的に良好な成績で十一日夕刻までに判明したかけでも八〇%以上の好率であり、交通不便な地域よりの報告等がもたらされる事を豫想すると綜合投票率は九〇%に達するのではないかと思はれる。
了

공화통신(共和通信) 1948년 5월 15일 / 4면

400여명의 무장군 증파를 제주도 비상경비사령관이 중앙부에 요청

400여명의 무장군 증파를 제주도 비상경비사령관이 중앙부에 요청

[서울 13일발 합동=공화] 제주도에서의 인민궐기 사건은 매일 증가하고 있다. 본사 특파원이 귀집(鬼集)한 비공식 정보에 의하면 제주도 비상경비사령관은 제주도 인민 투쟁을 현재의 경비력으로는 방지하지 못하므로 전도의 사태를 귀집하기 위해 400명의 무장 경비군의 증파를 중앙에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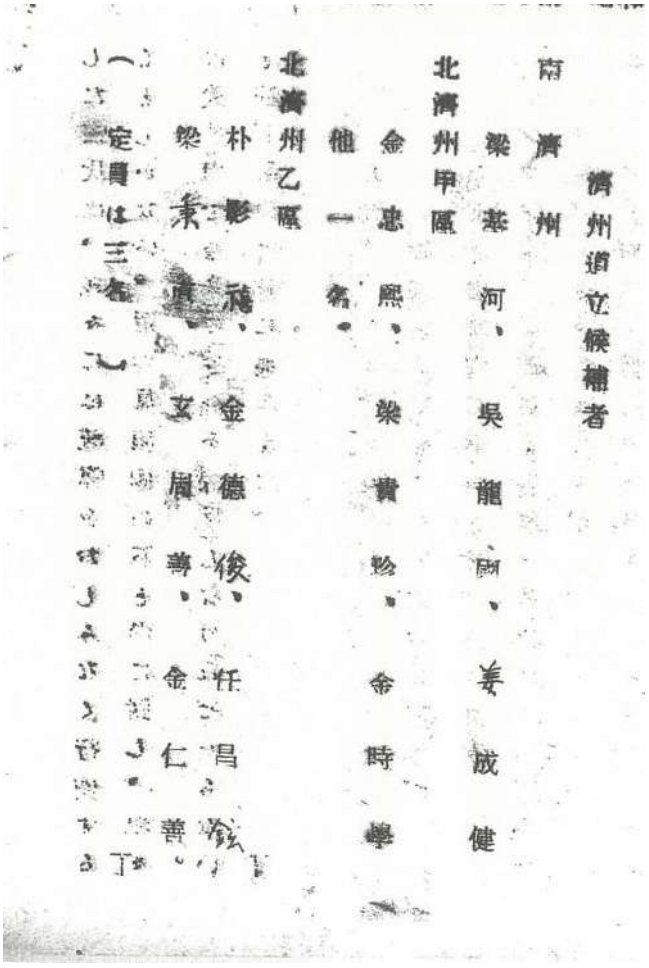


四〇〇余名の武裝單增派を
濟州島非常警備司令官が中央部に要請
「ソウル十三日發合同=共和=濟州島に於ける人民けつ起事件は日毎に增加しているが、本社特派員が蒐集した非公式情報によれば濟州島非常警備司令官は濟州島人民の鬪爭を現在の警備力では防止し切れないので全島の騷態を蒐集するため四〇〇名の武裝警備單の增派を中央部に要請した。
了

제주도 입후보자

제주도 입후보자

남제주
양기하, 오용국, 강성건
북제주 갑구
김충희, 양귀진, 김시학, 외 1명
북제주 을구
박창희, 김덕준, 임창현, 양병직, 현주선, 김인선
(정원은 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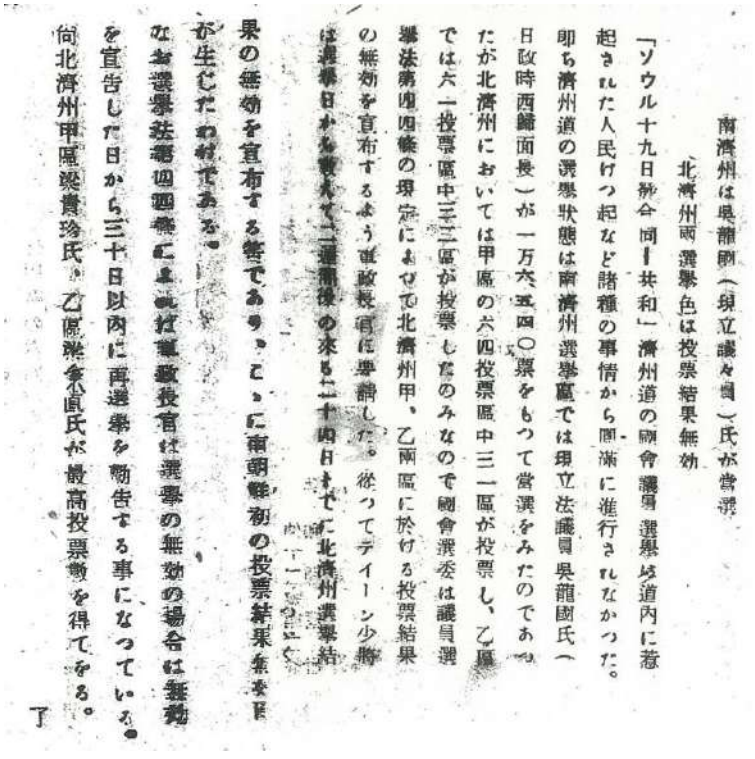

濟州道立候補者
南濟州
梁基河、吳龍圖、姜成健
北濟州甲區
金忠熙、梁貴珍、金時學
他一名
北濟州乙區
朴影飛、金德俊、任昌鉉
梁秉東、玄鳳善、金仁善

공화통신(共和通信) 1948년 5월 21일 / 1-2면

남제주는 오용국(현 입법의원) 씨가 당선
북제주 양선거구는 투표 결과 무효

남제주는 오용국(현 입법의원) 씨가 당선
북제주 양선거구는 투표 결과 무효

[서울 19일발 합동=공화] 제주도의 국회의원 선거는 도내에 야기된 인민궐기 등 여러 사정으로 원만히 진행되지 않았다. 즉 제주도의 선거 상태는 남제주 선거구에서는 현재 입법의원 오용국 씨(일정 때 서귀면장)가 1만6540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북제주에서는 갑구의 64투표구 중 31구가 투표했고, 을구에서는 61투표구 중 32구가 투표했다. 국회선위는 의원선거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해 북제주 갑, 을 양구에서의 투표결과 무효를 선포하도록 군정장관에 요청했다. 따라서 딘 소장은 선거일을 세어 2주간 후인 24일까지 북제주 선거 결과 무효를 선포할 것이다. 여기서 남조선 첫 투표 결과 무효표가 생긴 것이다.
또한 선거법 제44조에 의하면 군정장관은 선거가 무효일 경우 무효를 선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권고하게 된다. 또 북제주 갑구 양귀진 씨, 을구 양병직 씨가 최고 투표수를 얻고 있다.



南濟州は吳龍國（現立議々員）氏が當選
北濟州兩選擧色は投票結果無効
「ソウル十九日發合同―共和」濟州道の國會議員選擧は道内に惹起された人民けつ起など諸種の事情から圓滿に進行されなかつた。即ち濟州道の選擧狀態は南濟州選擧區では現立法議員吳龍國氏（日政時西歸面長）が一万六五四〇票をもつて當選をみたのであつたが北濟州においては甲區の六四投票區中三一區が投票し、乙區では六一投票區中三二區が投票したのみなので國會選委は議員選擧法第四四條の規定によつて北濟州甲、乙兩區に於ける投票結果の無効を宣布するよう軍政長官に要請した。從つてテイーン少將は選擧日から數えて二週間後の來る二十四日までに北濟州選擧結果の無効を宣布する筈であり、こゝに南朝鮮初の投票結果無効區が生じたわけである。
なお選擧法第四四條によれば軍政長官は選擧の無効の場合は無効を宣告した日から三十日以内に再選擧を勸告する事になつている。
尚北濟州甲區梁貴珍氏、乙區梁秉直氏が最高投票數を得てをる。
了

공화통신(共和通信) 1948년 5월 28일 / 2면

북제주 갑을 양선거구의 재선거를 선언

북제주 갑을 양선거구의 재선거를 선언

[서울 26일발 합동=공화] 남선 주미군정 장관 딘 소장은 26일 기자단 회견에서「5월 10일 시행의 북제주 갑, 을 양구의 선거 결과 무효를 인정해 선거법 제44조 규정에 의해 위 양구의 재선거를 선언한다」○○○○○○

北濟州甲、乙兩區の再選擧を宣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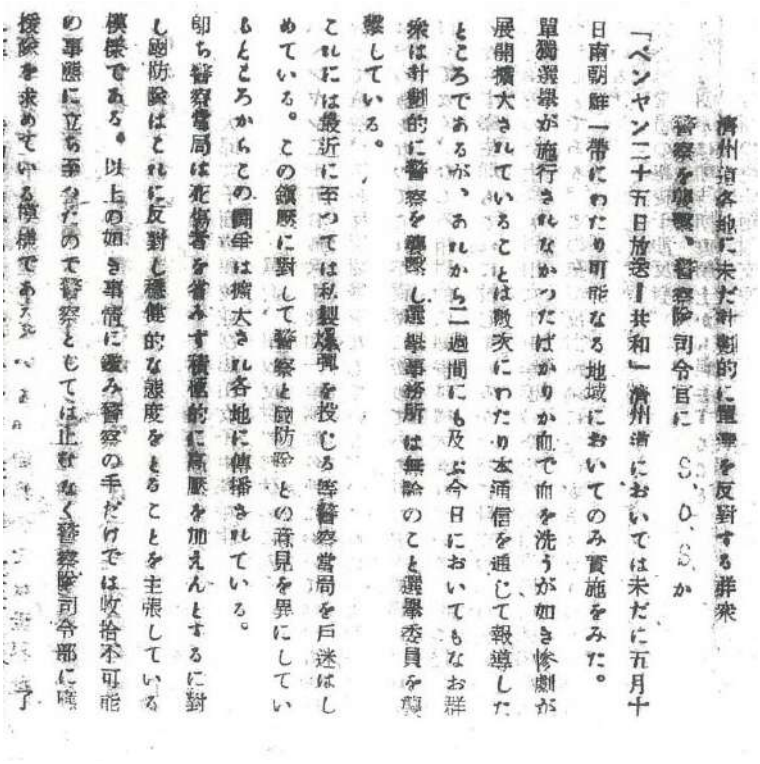
「ソウル二十六日發合同―共和」南朝鮮米軍政長官ディーン少將は二十六日記者團會見に於いて「五月十日施行の北濟州甲、乙兩區の選擧結果の無効を認め同法第四四條の規定によつて右兩區の再選擧を宣言する」[illegible]

了

제주도 각지에서 아직 계획적으로 단선을 반대하는 군중 경찰을 습격, 경찰대 사령관에게 SOS

제주도 각지에서 아직 계획적으로 단선을 반대하는 군중 경찰을 습격, 경찰대 사령관에게 S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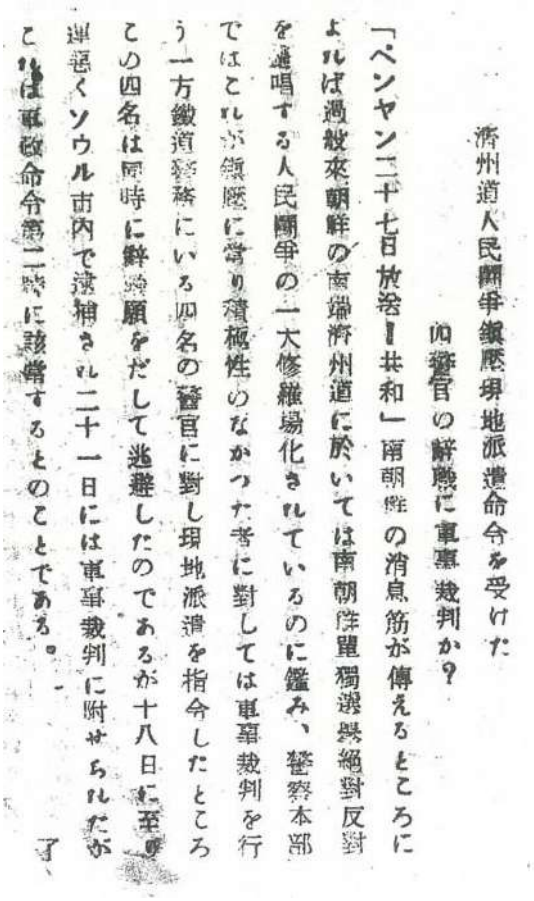
[평양 25일 방송=공화] 제주도에서는 아직껏 5월 10일 남조선 일대에 걸쳐 가능한 지역에서만 실시를 했다. 단독선거가 시행하지 못한 채 피로 피를 씻는 것처럼 참극이 전개 확대되고 있는 것은 수차에 걸쳐 본 통신을 통해 보도했지만, 그 후 2주간에 걸쳐 오늘도 또 군중은 계획적으로 경찰을 습격하고 선거사무소는 물론 선거위원을 습격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 이르러 사제폭탄을 던지는 등 경찰당국을 몹시 난처하게 하고 있다. 이 진압에 대해서 경찰과 국방대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서 이 투쟁은 확대되어 각지에 전파되고 있다.
즉 경찰당국은 사상자를 살피지 않고 적극적으로 고압을 가하고 있는데 반해 국방대는 이와 반대로 온건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상과 같이 정보를 감안하고 경찰만으로는 수습 불가능 상태에 이르렀기에 경찰로서는 어쩔 수 없이 경찰대 사령부에 응원대를 부탁하고 있는 모양이다.



제주도 인민투쟁 진압 현지 파견 명령을 받은 네 경관의 사직에 군사재판인가?

제주도 인민투쟁 진압 현지 파견 명령을 받은
네 경관의 사직에 군사재판인가?

[평양 27일 방송=공화] 남조선의 소식통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지난번 이래 조선의 남단 제주도에서는 남조선 단선 선거 절대 반대를 열창하는 인민투쟁이 일대 수라장화 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경찰본부에서는 이를 진압하는데 적극성이 없었던 자에 대해서는 군사재판을 행하는 한편 철도경무에 있는 4명의 경관에 대해 현지 파견을 지령한 참에 이 4명은 동시에 사직원을 제출해 도피했는데, 18일에 이르러 운 나쁘게 서울 시내에서 체포되어 21일에는 군사재판을 받았다. 이것은 군정명령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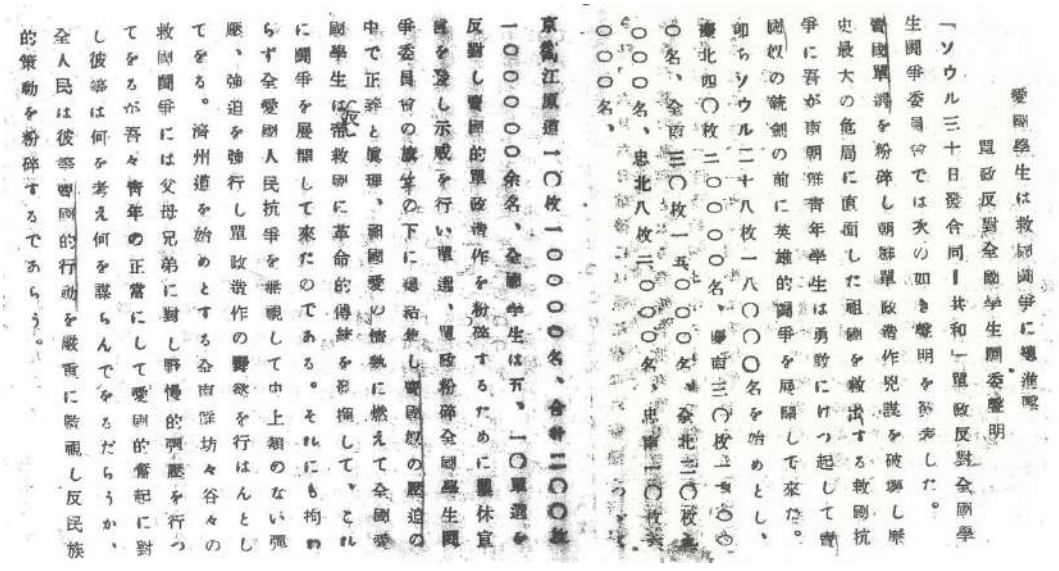

濟州道人民鬪爭鎭壓爲地派遣命令を受けた
四警官の辭職に軍事裁判か？
「ペンヤン二十七日放送＝共和」南朝鮮の消息筋が傳えるところによれば過般來朝鮮の南端濟州道に於いては南朝鮮單獨選擧絶對反對を通唱する人民鬪爭の一大修羅場化されているのに鑑み、警察本部ではこれが鎭壓に當り積極性のなかつた者に對しては軍事裁判を行う一方鐵道警務にいる四名の警官に對し現地派遣を指令したところこの四名は同時に辭職願をだして逃避したのであるが十八日に至り遲ればせくソウル市内で逮捕され二十一日には軍事裁判に附せられたがこれは軍政命令第二號に該當するとのことである。了

공화통신(共和通信) 1948년 6월 1일 / 3-4면

애국학생은 구국투쟁에 총진격
단정 반대 전국학생투위 성명

애국학생은 구국투쟁에 총진격
단정 반대 전국학생투위 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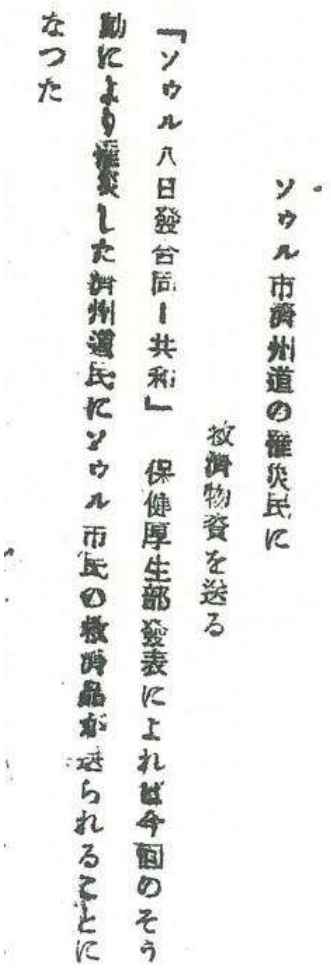
[서울 30일발 합동=공화] 단정 반대 전국학생투쟁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했다. 매국단선을 분쇄하고 조선 단정 조작 흉모를 파괴하고 역사 최대의 위국(危局)에 직면한 조국을 구출한 구국항쟁에 우리 남조선 청년학생은 용감히 궐기하여 매국노의 총검 앞에 영웅적 투쟁을 전개해 왔다. 즉 서울 28장 18,000명을 비롯하여, 경북 40장 20,000명, 경남 30장 17,000명, 전남 30장 15,000명, 전북 20장 9,000명, 충북 8장 2,000명, 충남 10장 6,000명, 경기 강원도 10장 10,000명, 합계 200장 100,000여명, 전국학생은 5·10 단선을 반대하고 매국적 단정 조작을 분쇄하기 위해 맹휴 선언을 하고 시위를 행하여 단선, 단정 분쇄 전국학생투쟁위원회의 깃대 아래 총결집하여 매국노의 압박 속에 정의와 진리, 조국애의 정열에 불타고, 전국애국학생은 반제구국에 혁명적 전통을 발휘하고, 이에 투쟁을 전개해 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애국인민투쟁을 무시하여 중상류 없는 탄압, 강박을 강행하여 단정 조작의 야욕을 행하고 있다. 제주도를 비롯하여 전남선(全南鮮) 방방곡곡의 구국투쟁에는 부모형제에 대해 야만적 탄압을 행하고 있지만, 우리 청년의 정당한 애국적 분기에 대해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꾀하고 있는 것일까. 전인민은 그들 매국적 행동을 엄중히 감시하여 반민족적 책동을 분쇄할 것이다.


愛國學生は救國鬪爭に總進擊
單政反對全國學生鬪委聲明
「ソウル三十日發合同―共和」單政反對全國學生鬪爭委員會では次の如き聲明を發表した。
賣國單選を粉碎し朝鮮單政造作兇謀を破壞し歷史最大の危局に直面した祖國を救出する救國抗爭に吾が南朝鮮青年學生は勇敢にけつ起して賣國奴の統劍の前に英雄的鬪爭を展開して來た。
即ちソウル二十八枚一八〇〇〇名を始めとし、慶北四〇枚二〇〇〇〇名、慶南三〇枚一五〇〇〇名、全南三〇枚一五〇〇〇名、全北二〇枚一〇〇〇名、忠北八枚二〇〇〇名、忠南一〇枚六〇〇〇名、
京畿江原道一〇枚一〇〇〇〇名、合計二〇〇枚一〇〇〇〇〇余名、全國學生は五、一〇單選を反對し賣國的單政造作を粉碎するために罷休宣言を發し示威を行い單選、單政粉碎全國學生鬪爭委員會の旗幟の下に總結集し賣國奴の壓迫の中で正義と眞理、祖國愛の情熱に燃えて全國愛國學生は帝救國に革命的傳統を發揮して、これに鬪爭を展開して來たのである。それにも拘わらず全愛國人民抗爭を無視して中上類のない彈壓、強迫を強行し單政造作の鬪欲を行はんとしてをる。濟州道を始めとする全南鮮坊々谷々の救國鬪爭には父母兄弟に對し野慢的彈壓を行つてをるが吾々青年の正當にして愛國的奮起に對し彼等は何を考え何を謀らんでをるだらうか、全人民は彼等賣國的行動を嚴重に監視し反民族的策動を粉碎するであらう。

서울시 제주도 이재민에게 구제 물자를 보내다

서울시 제주도 이재민에게 구제 물자를 보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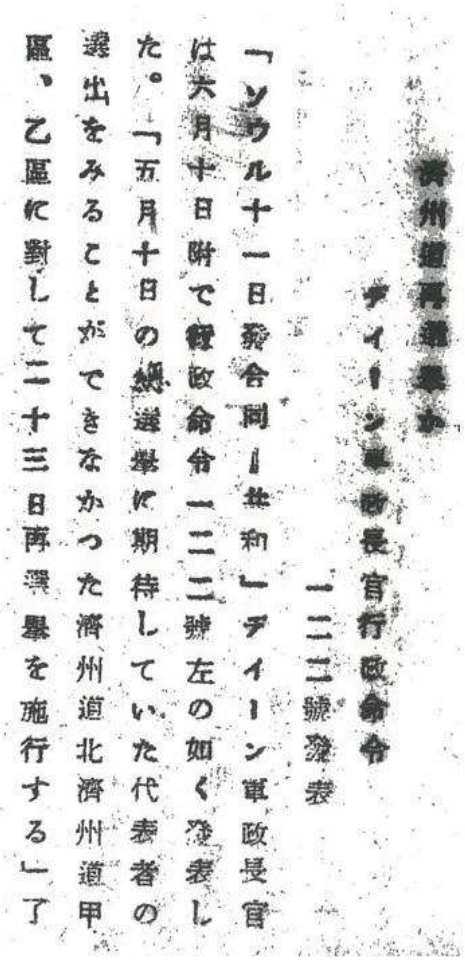
[서울 8일발 합동=공화] 보건후생부 발표에 의하면 이번 소동으로 참담한 제주도민에게 서울 시민의 구제품이 보내지게 되었다.


ソウル市濟州道の罹災民に
救濟物資を送る
「ソウル八日發合同一共和」保健厚生部發表によれば今回のそう動により罹災した濟州道民にソウル市民の救濟品が送られることになつた

제주도 재선거인가
딘 군정장관 행정명령 122호 발표

제주도 재선거인가
딘 군정장관 행정명령 122호 발표

[서울 11일발 합동=공화] 딘 군정장관은 6월 10일부 행정명령 122호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5월 10일 총선거에 기대하고 있었던 대표자 선출하는 것을 할 수 없었던 제주도 북제주도 갑구, 양구에 대해 23일 재선거를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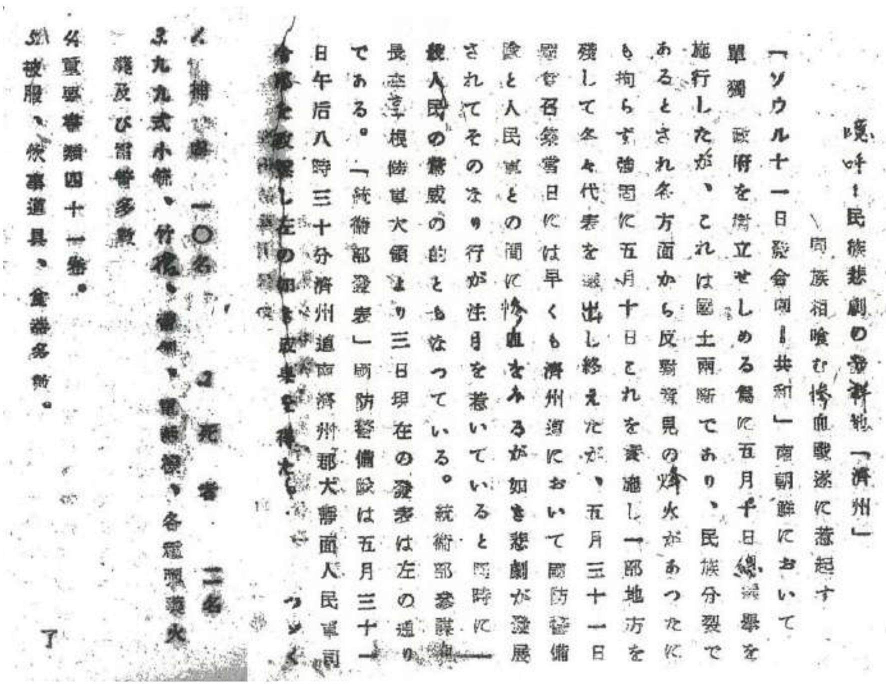

濟州道再選擧か
デイーン軍政長官行政命令
一二二號發表
「ソウル十一日發合同=共和」デイーン軍政長官は六月十日附で行政命令一二二號左の如く發表した。「五月十日の總選擧に期待していた代表者の選出をみることができなかつた濟州道北濟州道甲區、乙區に對して二十三日再選擧を施行する」了

아아-민족 비극의 발상지「제주」 동족상잔의 참혈전을 결국 야기하다

아아-민족 비극의 발상지「제주」
동족상잔의 참혈전을 결국 야기하다

[서울 11일발 합동=공화] 남조선에서 단독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5월 10일 총선거를 시행했다. 이것은 국토 양단이며, 민족분열이라고 하여 각 방면에서 반대 의견의 봉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고하게 5월 10일에 이것을 실시하여 일부 지방을 남기고 각각 대표를 선출하고 끝냈는데, 5월 31일 국회 소집 당일에는 이미 제주도에서 국방경비대와 인민군 사이에 참혈과 같은 비극이 발전하여 그 나름의 행동이 주목을 이끌고 동시에 일반 인민의 경위(驚威)의 과녁이 되고 있다. 통위부 참모총장 이형근 육군 대령으로부터 3일 현재 발표는 다음과 같다.「통위부 발표」국방경비대는 5월 31일 오후 8시 30분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면 인민군사령부를 공격하여 다음과 같이 성과를 얻었다.

1. 포위 10명, 2. 사자 2명,
3. 99식 소총, 죽창, 대검, 전화기, 각종 탄약 화약 및 뇌관 다수
4. 중요 서류 41권
5. 피복, 취사도구, 식기 다수



嗚呼！民族悲劇の發祥地「濟州」
＼同族相喰む慘血戰遂に惹起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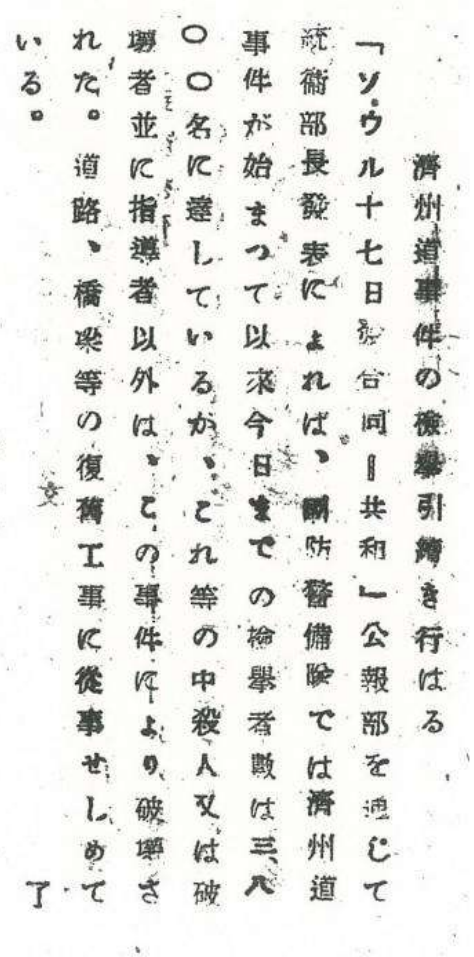
「ソウル十一日發合同＝共和」南朝鮮において單獨政府を樹立せしめる爲に五月十日總選擧を施行したが、これは國土兩斷であり、民族分裂であるとされ各方面から反對意見の烽火があつたにも拘らず強固に五月十日これを實施し一部地方を殘して各代表を選出し終えたが、五月三十一日國會召集當日には早くも濟州道において國防警備隊と人民軍との間に慘血をみるが如き悲劇が發展されてそのなり行が注目を惹いていると同時に一般人民の驚威の的ともなつている。統衞部參謀總長李亨根大領より三日現在の發表は左の通りである。「統衞部發表」國防警備隊は五月三十一日午后八時三十分濟州道南濟州郡大靜面人民軍司令部を攻撃し左の如き成果を獲た。つゞく

1.捕虜一〇名 2.死者二名
3.九九式小銃、竹槍、帶劍、電話機、各種彈藥火藥及び雷管多數
4.重要書類四十一卷。
5.被服、炊事道具、食器多數。
了

제주도 사건의 검거 계속 한다

제주도 사건의 검거 계속 한다

[서울 17일발 합동=공화] 공보부를 통해서 통위부장 발표에 의하면, 국방경비대에서는 제주도 사건이 시작된 이래 오늘까지 검거자 수는 3,800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 중 살인 혹은 파괴자 및 지도자 이외는 이 사건에 의해 파괴되었다. 도로, 교량 등의 복구공사에 종사시키고 있다.


濟州道事件の檢擧引續き行はる

「ソ・ウル十七日發合同『共和』」公報部を通じて統衛部長發表によれば、國防警備隊では濟州道事件が始まつて以來今日までの檢擧者數は三、八〇〇名に達しているが、これ等の中殺人又は破壞者並に指導者以外は、この事件により破壞された。道路、橋梁等の復舊工事に從事せしめている。

了

공화통신(共和通信) 1948년 6월 19일 / 1-3면

제주도 사건에 대한 각 당의 견해

제주도 사건에 대한 각 당의 견해

[서울 17일발 합동=공화] 제주도 사건에 관해서는 지난 5월 31일 국회개원식을 기해 국방경비대의 전면적 진압 행동에 의해 슬픈 민족상살전이 발전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국방경비대 제주도사령부 발표, 다음 3일에는 통위부 발표로서 그 성과가 공표되었다. 이 발표로서 그 전과(戰果)가 공표되었지만, 그 발표가 지나치게 민족애를 경시한 반민족적 태도여서, 전애국인민의 반감을 사고 있다. 각 당에서는 그 사건에 관해 다음과 같이 담화를 발표하여 그 견해를 명확히 했다.

근민당= 우리 민족의 생명 재산보호 및 그 성업을 자인한 국방경비대가 제주도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일은 그 이유 여부에 상관없이 동족상살의 민족적 비통을 문자 그대로 표현하는 것으로, 특히 출동 이래 전과(戰果) 운운의 발표는 같은 민족을 불구대천의 민족반역자를 토벌하는 것과 같이 취급하는 실감을 준다. 민족의 영예와 애족정신을 가지고 중지하기를 요구한다.

신진당= 제주도 사건에 관해서 동족상살의 비극을 즉시 중지해야 함은 전민족의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이어 지난 5월 31일 국방경비대의 출동을 보게 된 것은 유감이며, 민족간의 분열을 깊게 하는 것이다. 민족통일을 위해서 한층 진중한 행동을 요망한다.

사민당=이번 야기 시킨 제주도민의 봉기는 해방 이래 국내 최대의 사건으로 우리 3천만 전민족의 관심은 이것에 집중하고 있다. 마침 국방경비대 지난 발표는 우리들로 하여금 깊게 생각하게끔 한다. 그들의 제1출동은 동족간의 분쟁에 있고,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 원인을 확인하고, 동족애에 바탕을 두지 않은 이상 해결은 할 수 없다.

済州道事件に関する各党の見解

「ソウル十七日發合同」共和一済州道事件については去る五月三十一日の[illegible]開講式を期して國防警備隊の全面的鎮壓行動により鎮しむべき民族相殺[illegible]ているが、去る二日には國防警備隊済州道司令部が、翌三日には統衛部[illegible]を以ってその[illegible]の[illegible]

表を以って、その[illegible]との談話が[illegible]民族[illegible]した[illegible]的態度であるので、全[illegible]民の反感をかっているが各黨に於いてはこの事件に關し次の如き談話を發表してその見解を明らかにした。

勤民黨—吾が民族の生命財産保護及び其の國警を自認する國防警備隊が済州島民衆を鎮壓せんが爲に出動した事は、其の理由の如何に拘らず同族相殺の民族的悲劇を文字通り表現するものであって、特に出動以来の戰果云々の發表は、同じ民族を不倶戴天の民族反逆者を討伐するのと同じく取扱われる實感を與えるものであり、民族の栄誉と愛族精神を持って中止するよう要求するものである。

新進黨—済州島事件に關して同族相殺の惨劇を即時中止すべきは全民族の要求であるにも拘らず、ついに去る五月三十一日國防警備隊の出動を見るに至った事は遺憾に堪えざるところであり、民族間の分裂を深からしめるものである。民族統一の爲に一層愼重なる行動を要望するものである。

つゞく

社民黨—今数萬絶する済州島民の蜂起は[illegible]來朝内最大の事件にして、吾が三千万全民族の關心はこれに集中している。此の時國防警備隊過敏の發表は吾等をして深く考えさせるものがある。彼等の第一出動は同族間の紛爭にあり、吾等の心を痛ませしめた。その原因を確め、同族愛に基づかない以上解決は出來ない。

了

공화통신(共和通信) 1948년 6월 20일 / 1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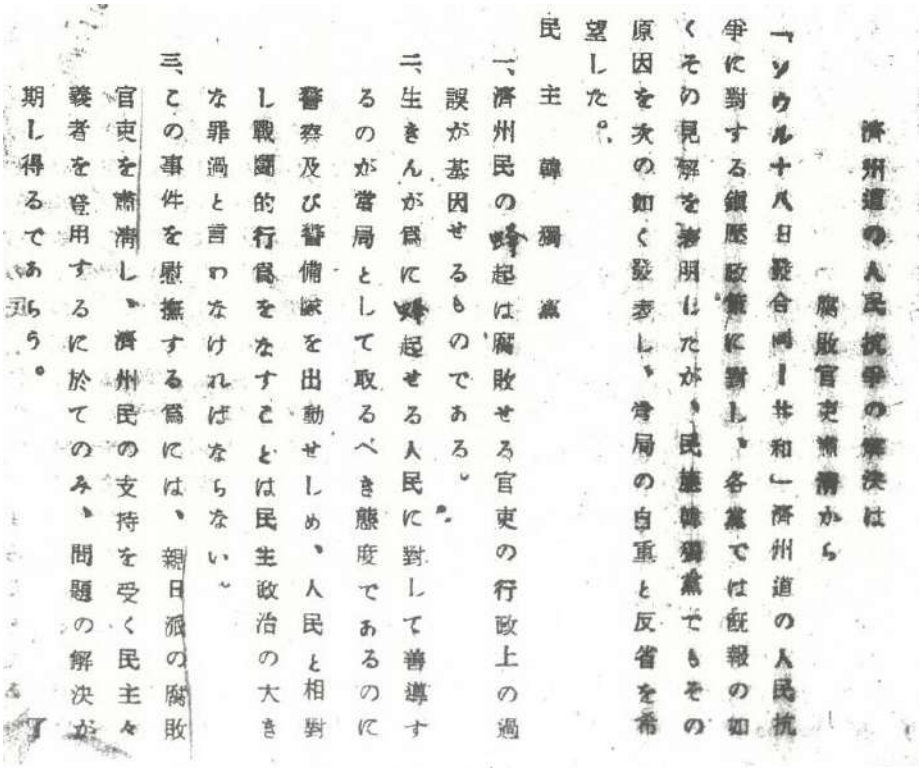
제주도 인민항쟁의 해결은 부패 관리 숙청으로 부터

제주도 인민항쟁의 해결은 부패 관리 숙청으로 부터

[서울 18일발 합동=공화] 제주도의 인민항쟁에 대한 진압 정책에 대해 각 당에서는 기보(旣報)와 같이 그 견해를 표명했지만, 민족한독당에서도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고 당국의 자중과 반성을 희망했다.

민주한독당

1. 제주민의 봉기는 부패한 관리의 행정상의 과오가 기인한 것이다.
2. 살기 위해서 봉기를 일으킨 인민에 대해서 선도하는 것이 당국으로서 취할 태도인데 경찰 및 경비대를 출동시켜, 인민과 상대하여 전투적 행위를 취한 것은 민주정치의 큰 과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3. 이 사건을 위무하기 위해서는 친일파의 부패 관리를 숙청하고, 제주민의 지지를 받은 민주주의자를 등용하는 것만이 문제의 해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濟州道の人民抗爭の解決は
腐敗官吏肅清から

「ソウル十八日發合同―共和」濟州道の人民抗爭に對する鎭壓政策に對し、各黨では旣報の如くその見解を表明したが、民族韓獨黨でもその原因を次の如く發表し、當局の自重と反省を希望した。

民主韓獨黨

一、濟州民の蜂起は腐敗せる官吏の行政上の過誤が基因せるものである。

二、生きんが爲に蜂起せる人民に對して善導するのが當局として取るべき態度であるのに警察及び警備隊を出動せしめ、人民と相對し戰鬪的行爲をなすことは民主政治の大きな罪過と言わなければならない。

三、この事件を慰撫する爲には、親日派の腐敗官吏を肅清し、濟州民の支持を受く民主々義者を登用するに於てのみ、問題の解決が期し得るであらう。

공화통신(共和通信) 1948년 6월 21일 / 1-2면

제주도 사건 현지보고 귀순 권고에 혈서 반항, 경비대원이 이야기 하다

제주도 사건 현지보고 귀순 권고에 혈서 반항, 경비대원이 이야기 하다

[서울 20일발 합동=공화] 우리 기자단 일행은 국방경비대에 종군하여 제주도의 최전선에 진출했다. 선진부대에 잡힌 폭도측 포로들이 자동차로 곧 호송된다. 60세 노인도 있고, 12, 3세 소년도 섞여 있다.

때로는 부인 모습도 그들 중에 보인다. 경비대원들은 지금 남쪽의 외로운 섬에 소위 인민해방군을 진정시키기 위해 동족상살의 피를 흘리고 있다. 젊은 장교 한 명이 호령 간간이 일행에게 말한다.「경찰에 대해서는 결사적으로 반항하는 인민군이 경비대가 출동하면 대개 도망간다. 매우 곤란한 것은 양민과 폭도측과의 구별이 되지 않는 것이다. 거미집과 같이 무섭게 파 있는 한라산의 동굴 속에 인민해방군의 총사령부가 있다고 한다」 혹은 부락을 더듬어 찾아가 보면「여기가 인민해방군의 부락사령부이고, 인민재판소이며, 인민보안처도 있었던 곳이다」라고 말한다.

부락은 몹시 황폐한 고도(古都)와 같이 조용히 가로 서 있다. 경비의 귀순 권고에 대해서 그들의 회답은 전후 3회에 걸쳐「경비대의 양심적인 민족행위를 요망한다」라는 회답이 있고,

一. 무장경비관 해방 一. 테러단 즉시 해방 一. 단선 반대

一. 조위(朝委) 철퇴 一. 통일정부 수립 만세

등의 요구 조건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리고「만일 친애하는 장병이 왜 우리들이 총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그 원인을 규명한다면, 우리 인민군은 정의의 이름으로 말하자면 백만 군이 공격해 온다 해도 투쟁할 것이다」라고 혈서로 선언했다고 한다. 그래서 경비대는 적극적으로 위세를 부려 바라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말했다.

済州島事件現地報告座談會に
血書反抗、警備隊員は語る
『ソ參加二十日警備司令』參謀』

吾々記者團一行は、警防警備隊に從軍して済州道の最前線に進出した。先陣部隊に續かれた暴徒側捕虜達が自動車で間断なく護送される。六十才の老人も居れば、十二、三才の少年も混っている。

時には婦人のすがたさえ彼等の中に見える。

警備隊員等は今南の孤島に所謂人民解放軍を認定せんが爲、同族相殺の血を流しているのである。若い將校の一人が時々の合間々々に一行に語る「警察に對しては決死的に反抗する人民軍が、警備隊が出動したら大ていは逃亡するのである。最も困難となるのは良民と暴徒側との區別がつかぬ事である。

くもの巣の如く恐しくほってある漢拏山のほら穴の中に人民解放軍の總司令部があると言はれる」或る部落を通りかゝる際「こゝが人民解放軍の部落司令部であり、人民裁判所であり、人民保安處まであったところだ」と言う。

つゞく

部落はあれ果てた古都の如く、静かに横たわっている。警備の歸順勸告に對して彼等の回答は前後三回に亘り、「警備隊の良心的な民族行爲を要望する」という回答であり、

一、武裝警察官解放
一、單選反對
一、統一政府樹立万歳
一、テロ團即時解散
一、朝委撤退

等の要求條件を提示したという事である。

そして「万一親愛なる將兵が何故吾々が銃を取ら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か、その原因を究明するならば、吾が人民軍は正義の名の下にたとえ百万軍が攻めよせて來ても闘ふであらう」と血書で宣言したというのである。

かくして警備隊は積極的にい勢を以って望まねばならなくなったと語った。

了

제주 사건에 대한 조(趙) 경무부장 담(談)

제주 사건에 대한 조(趙) 경무부장 담(談)

[서울 24일발 합동=공화] 조 경무부장은 제주도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격렬한 어조로 그 소신을 말했다. 요지

「제주사건에 대해서 일부 보도기관은 그 진상을 의식적으로 거론하며 보도하고 있는데, 유감으로 참을 수 없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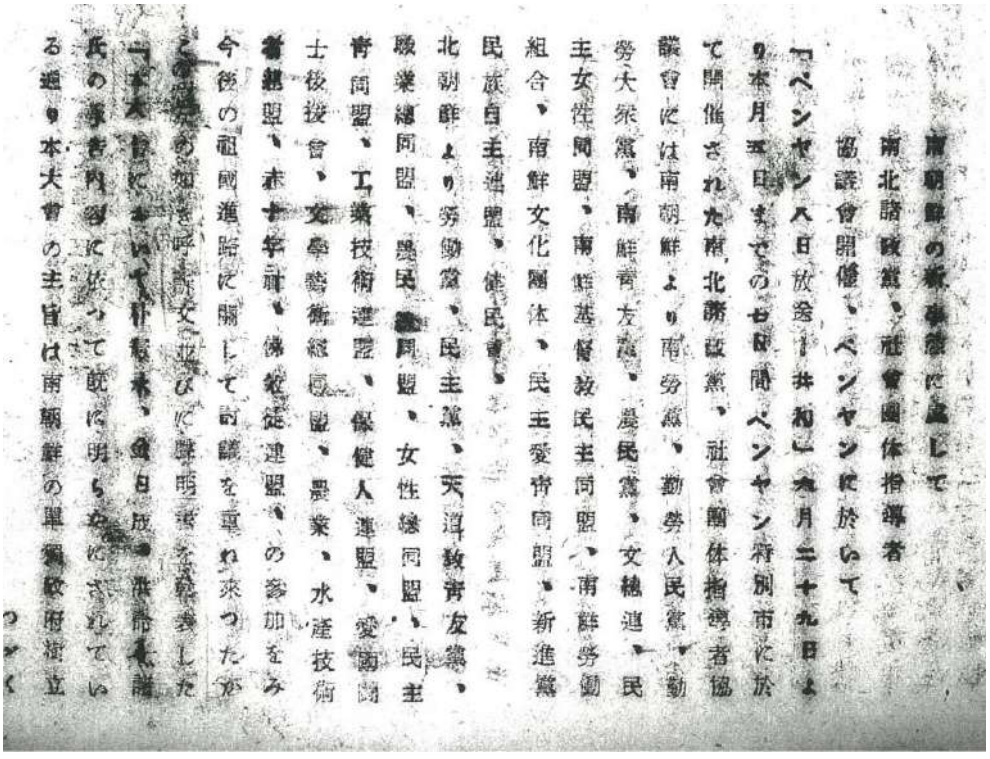
물론 이번 사건에 대해 제주도민의 특이성과 일부 경관의 반민주주의 행위도 있다. 그 큰 원인은 북조선 및 소련의 파괴적 행동에서 비롯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경무당국으로서는 양민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악질적인 폭민, 파괴적인 좌익분자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할 것을 언명한다. 따라서 앞으로 제주도의 경비대의 강화와 인사이동 쇄신을 기하지만, 종래의 방침을 바꾸지 않고 최후까지 진압해 보여 줄 것이다.

남조선의 신사태에 처해서 남북 제(諸)정당, 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 개최, 평양에서

남조선의 신사태에 처해서 남북 제(諸)정당,
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 개최, 평양에서

[평양 8일 방송=공화] 6월 29일부터 본월 5일까지 7일간 평양특별시에서 개최된 남북제정당, 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에는 남조선에서 남로당, 근로인민당, 근로대중당, 남선청우당, 농민당, 문총련, 민주여성동맹, 남선기독교민주동맹, 남선노동조합, 남선문화단체, 민주애청동맹, 신진당, 민족자주연맹, 건민당
북조선에서 노동당, 민주당, 천도교청우당, 직업총동맹, 농민총동맹, 여성총동맹, 민주청동맹, 공업기술연맹, 보건인연맹, 애국투사후원회, 문학예술총동맹, 농업, 수산기술제연맹, 적십자사, 불교도연맹의 참가를 보고, 앞으로 조국 진로에 관해서 토의를 거듭해 왔다. 다음과 같이 호소문 및 성명서를 발표했다.
「본 대회에서 박헌영, 김일성, 홍명보 씨의 보고 내용에 의해 이미 명확히 된 것과 같이 본 대회의 취지는 남조선의 단독정부 수립을 (계속)



남조선의 신사태에 처해서 남북 (諸)정당, 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 개최, 평양에서

남조선의 신사태에 처해서 남북 제(諸)정당, 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 개최, 평양에서

반대하고 조선 3천만 동포가 열망하고 있는 통일정부 수립 대책을 심의하는데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현재 정치 상태의 급한 것을 감안하여 단기간이지만, 이 성과는 꼭 기간의 장단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평상에 비해서 큰 성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본 대회에서 다음의 결의를 이루고 전인민에게 호소하는 바이다.

1. 인민의 의지에 반해 탄압 하에서 시행했다. 이번 남조선에서의 총선거를 전면적으로 보이콧, 4월에 평양특별시에서 개최된 남북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의 결의를 재승인 할 것

즉 그들이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을 뒷받침할 것과 단독 선거 실시를 계기로 해서 남조선 각지에서 일어난 폭동 및 인민대회에서 짐작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가장 큰 것이 제주도에서의 피로 피를 씻는 것과 같은 비극이 그것이다. 또 선거 당일에 선거장 파괴 등도 그것이다. 4월 남북회상의 (계속)

남조선의 신사태에 처해서 남북 제(諸)정당, 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 개최, 평양에서

**남조선의 신사태에 처해서 남북 제(諸)정당,
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 개최, 평양에서**

결의에 기초하여 미·소 양정부에 대해서 양군 즉시 철퇴를 결의했다. 이에 대해서 승낙의 대답을 준 것은 소련 정부뿐이고, 미국 정보는 철퇴할 의사의 유무는 어쨌든 이에 대한 대답이 아직도 없다. 이것은 조선에서 철퇴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의 정책을 불리하게 하는 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이것을 조선에 못 박는데 이승만, 김성수 등의 민족 반역 행위가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즉 이승만, 김성수는 이미 이것을 알고 테러단을 조직하는 등 힘 닿는 한 선거에 인민을 끌어들였다.

만약 이승만, 김성수가 정말로 조국을 사랑하는 인사라면 미국과 국련(國連)에 말함과 동시에 현재와 같이 노골적으로는 하지 못했을 것이다.

2. 4월에 평양특별시에서 열린 남북회상의 결의에 기초하여 조선은 이미 통일국가라는 것이 약속됐음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에서는 단선을 실시하고 단독정부를 조직하려고 했다. 이것은 당연 조선민족으로서는 용인할 수 없는 이승만, 김성수 등의 반역 행위이다. (계속)

공화통신(共和通信) 1948년 7월 9일 / 4-5면

남조선의 신사태에 처해서 남북 제(諸)정당, 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 개최, 평양에서

남조선의 신사태에 처해서 남북 제(諸)정당,
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 개최, 평양에서

현재 개최 중인 국회도 진정한 조선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에 의해 구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

3. 남북회상에 참가한 제(諸)단체 대표들의 면면은 주지하는 바이다. 현재 남조선의 국회의원에는 농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의 의원도 없다는 것만으로 봐도 대다수 인구가 농민인 현재, 이것이 진정한 인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지 않음을 입증하고 있다. 헌법 초안 또한 그렇다. 조금도 인민에게 상의하지 않고 천방지축으로 전문위원에 의해 작성되어, 그들의 좋은 쪽으로 기록되어 있음은 물론이지만 조금도 사회문제를 해결할 근본책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상 지적한 것과 같이 우리는 올바른 것을 추구하기 위해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부정한 것을 소식(消拭)하는 것이다.

결의문

「본 대회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를 한다.

1. 민주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남조선의 국회 및 단독정부를 수립하려는 야망을 폭로함과 동시에 반민족자를 철저히 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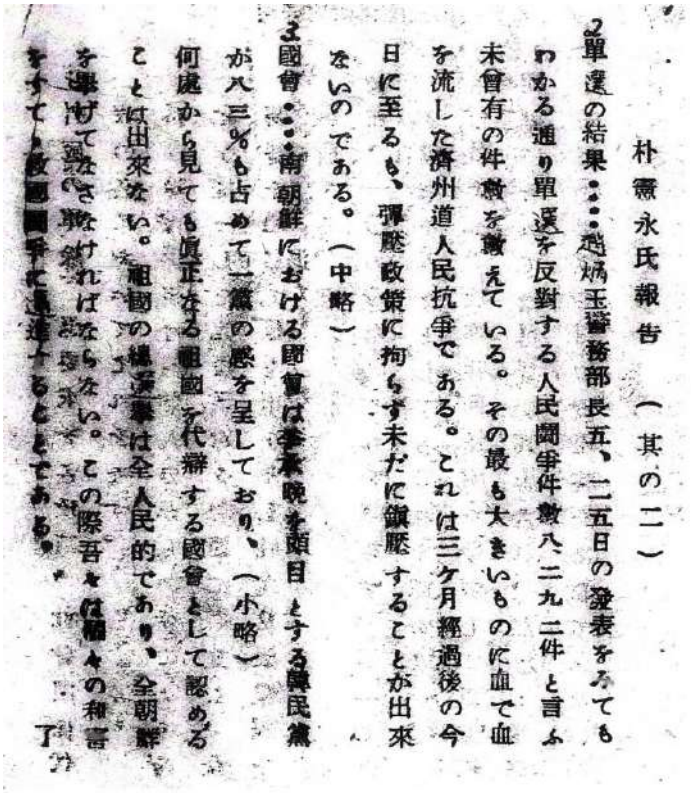
2. 조선통일 선거 실시에 의해 빨리 최고인민회를 구성하고, 미소 양군의 즉시 철퇴를 요구한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전민족이 모두 전력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할 것이다.

공화통신(共和通信) 1948년 7월 24일 / 7면

박헌영 씨 보고(2)

박헌영 씨 보고(2)

2. 단선(單選)의 결과 … 조병옥 경무부장 5, 25일의 발표를 보고 알 수 있듯이 단선을 반대하는 인민투쟁 건수 8,292건이라고 말한다. 미증유의 건수를 세고 있다. 그 가장 큰 것에 피로 피를 흘린 제주도 인민투쟁이다. 이는 3개월 경과 후 지금에 이르러서도 탄압 정책에 상관없이 아직도 진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중략)
3. 국회 …남조선에서의 국회는 이승만을 두목으로 한 한민당이 83%를 차지하여 일당의 느낌을 나타내고 있고(소략)
어떻게 보든지 진정한 조국을 대변하는 국회로서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조국의 총선거는 전인민적이고, 전조선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때 우리들은 개개의 사언을 버리고 구국투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朴憲永氏報告（其の二）

2 單選の結果……趙炳玉警務部長五、二五日の發表をみてもわかる通り單選を反對する人民鬪爭件數八、二九二件と言ふ未曾有の件數を數えている。その最も大きいものに血で血を流した濟州道人民抗爭である。これは三ケ月經過後の今日に至るも、彈壓政策に拘らず未だに鎭壓することが出來ないのである。（中略）

3 國會……南朝鮮における國會は李承晩を頭目とする韓民黨が八三%も占めて一黨の感を呈しており、（小略）何處から見ても眞正なる祖國を代辯する國會として認めることは出來ない。祖國の總選擧は全人民的であり、全朝鮮を擧げてなさ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際吾々は種々の和言をすてゝ救國鬪爭に邁進することである。

了

■ 통신(通信)

동아통신(東亞通信)

제주도에 인민항쟁

제주도에 인민항쟁

(서울 6일발 공립=동아)
3일 이래 제주도내 1십5개 지서 중 1십1개소의 지서내에서 인민과 경찰○과의 충돌이 발생하여 불온한 〈판독불가〉 경무부에서는 이를 〈판독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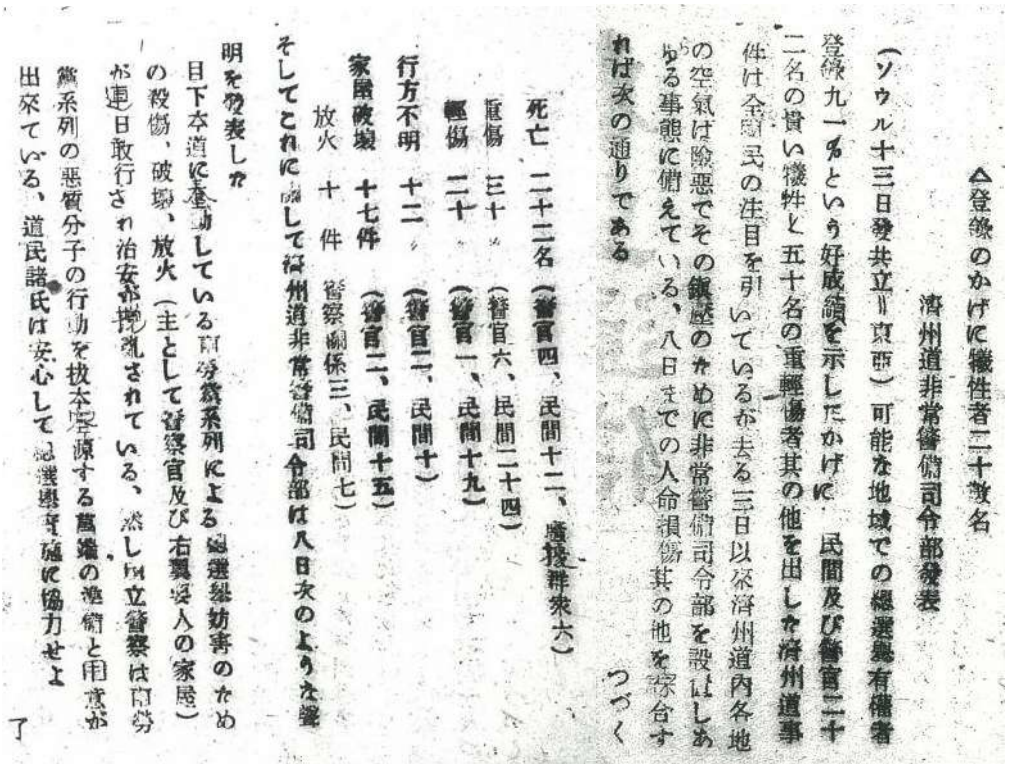
등록의 그늘에 희생자 2십수명 제주도비상경비사령부 발표

등록의 그늘에 희생자 2십수명
제주도비상경비사령부 발표

(서울 13일발 공립=동아)
가능한 지역에서의 총선거 유권자 등록 91%라는 좋은 성적을 제시한 그늘에 민간 및 경관 2십2명의 귀중한 희생과 5십명의 중경상자 등을 낸 제주도 사건은 전 국민의 주목을 끌고 있는데, 지난 3일 이래 제주도내 각지의 공기는 험악하고 그 진압을 위해 비상경비사령부를 설치하여 모든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8일까지의 인명 손상 그 외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사망 2십2명(경관 4, 민간 1십2, 소요군중 6)
부상 3십명(경관 6, 민간 2십4)
경상 2십명(경관1, 민간 1십9)
행방불명 1십2명(경관 2, 민간 1십)
가옥 파괴 1십7건(경관 2, 민간 1십5)
방화 1십건(경찰 관계 3, 민간 7)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제주도비상경비사령부는 8일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목하 본 도에 ○동하고 있는 남로당 계열에 의한 총선거 방해를 위한 살상, 파괴, 방화(주로 경찰관 및 우익 요인의 가옥)가 연일 감행되고 치안이 교란되고 있다, 그러나 국립경찰은 남로당 계열의 악질분자의 행동을 발본색원하는 만반의 준비와 용의가 되어 있다. 도민들은 안심하고 총선거 실시에 협력해라.



△登錄のかげに犧牲者二十數名

濟州道非常警備司令部發表

（ソウル十三日發共立Ⅱ東亜）可能な地域での總選擧有權者登錄九一%という好成績を示したかげに、民間及び警官二十二名の貴い犧牲と五十名の重輕傷者其の他を出した濟州道事件は全國民の注目を引いているが去る三日以來濟州道内各地の空氣は險悪でその鎭壓のために非常警備司令部を設置しあらゆる事態に備えている、八日までの人命損傷其の他を綜合すれば次の通りである

つづく

死亡　二十二名（警官四、民間十二、應援隊衆六）
重傷　三十〃（警官六、民間二十四）
輕傷　二十〃（警官一、民間十九）
行方不明　十二〃（警官二、民間十）
家屋破壞　十七件（警官二、民間十五）
放火　十件　警察關係三、民間七）

そしてこれに關して濟州道非常警備司令部は八日次のような聲明を發表した

目下本道に暴動している南勞黨系列による總選擧妨害のため の殺傷、破壞、放火（主として警察官及び右翼要人の家屋）が連日敢行され治安が攪亂されている、然し國立警察は南勞黨系列の悪質分子の行動を根本的に源する萬端の準備と用意が出來ている、道民諸氏は安心して總選擧實施に協力せよ

了

제주도에 민전(民戰)조사단 파견

제주도에 민전(民戰)조사단 파견

(서울 23일발 공립=동아)
민전○은 20일 정오 대표자 회의를 소집하여 제주도의 인민항쟁으로 인해 중단된 총선거의 대책을 강구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조사단을 조직해서 파견할 것을 결정했다.

남조선 각지 선거 방해 사건

남조선 각지 선거 방해 사건

(서울〈경성〉11일발 공립=동아)
5·10선거에 대한 방해사건이 남조선 전역에 걸쳐 발생했지만, 10일까지 들어온 서울, 경기도 이외로부터의 정보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강원도
9일 오전 10시 ○○ 강릉서 관내 을구 후보자 최병용(29)씨는 맥주병 ○○폭주,3개가 투척 폭발, 동 시각 주문진읍 병구 선거사무담당자 최철규씨 주택에도 투척되었다. 더욱이 동일 춘천, 충○면 간의 교량이 1곳 파괴되었다.
충북
영동군 양강면의 전 면장은 군중에게 맞아죽고 다수의 선거위원도 습격당했다.
충남
대전발 대구행 1113호 열차를 점검중에 전철○○사용으로 화차 2량이 탈선, 대전-천안 간 전선이 8일 오전 2시경 절단되었다. 대전-홍성 간 전화도 절단되고 대전-이리 간 철도 전화○○ 절단되었다. 대전-조치원 간 전주가 파괴되고 강경-부여 간 전선이 절단되어 모두 불통.
전북
이리 중학의 전 생도 4백여명은 금일부터 맹휴(盟休), 군산 중학은 7일부터 맹휴에 들어갔다.
전남
여수수산학교, 동 공업학교 그 외의 학교가 맹휴중, 광주시에서는 중학, 사범학교 등 12교가 맹휴에 들어갔다. 순천 철도기관○에 방화, 순천-여수 간 전주 8개가 절단되어 전화불통, 철도 선로가 10미터 정도 잘려나갔다. ○○○에서는 지서 ○○○, 순사 1명 즉사, 2명 중상, 보성역에서는 기관차, 탱크, 거차장○이 파괴되어, 철도전화선이 절단되었다. 피습받은 발전소의 복구 전망은 불명.
광주-목포-서울 간 열차 운전 불능, 광주역 중심 각 역 간의 전화는 불통, 광주-화순 간 송전선도 절단되었다. 철교에서는 경비전화가 전부 불통, 후보자의 가옥 전소, 중요시설 파괴, 장성에서는 경비용, ○사용 전화 모두 전부 절단, 독촉국민회원 피습, 그 가옥 전소, 송전선 절단.
광주 시내 우편국은 4국을 남기고 전부 전화 불통, 화순 경비전화 절단, 함평에서는 소위 반동분자와 관청의 앞잡이가 습격당하고, 독촉국민회원이 습격받고 가옥 전소, 난주 민족청년단장이 사살되었다.

경북

대구에서는 초등학교 아동이 맹휴중. 경주에서는 각지의 경찰지서가 피습, 포항에서는 악질 형사 송만택 집에 9일 이른 아침 민중이 방화 전소. 동서 순경 정제극 집에도 방화가 있었다. 포항서 관내의 7구 3개소, 6구 2십3구 각 1개소의 경비전화 절단이 있었으며 관내 전부 불통.

경남

금일 이후 각 ○에 봉기가 엄청나며, 함양에서는 10일 봉화사건이 발생하였고, 유○에서는 군중의 면사무소 습격과 봉화사건이 있었다. 김해읍 ○○동구장과 경찰서장에 협박문이 날라왔다. 밀양군에서는 대규모 3개의 봉화사건, 진주에서는 후보자 피습, 우편국의 전화교환실이 군중의 투석으로 파괴, 다수의 단선 반대 전단이 뿌려졌다.

개성에서는 후보자의 입간판에 '암살'이라는 낙서가 있었다. 동 군 마암경찰지서 피습, 창녕 일대에는 단선 단정 반대의 전단이 살포, 부산에서는 2명의 봉화사건, 선거위원장 피습, 순경 1명 피살 사건이 있었다.

제주도

경찰대, 국방경비대와 게릴라대 간에 격렬한 전투가 있었으며, 북제주에서는 경찰, 경비대의 공동작전으로 6개 소대편성으로 금일부터 싸우고 있다. 전투개시 1시간 후에는 경찰○○○○직원 1명, 그 외 2명의 즉사와 3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동아통신(東亞通信) 1948년 5월 19일 / 3-4면

경비대 경찰지서를 습격
제주도의 인민항쟁 격화

경비대 경찰지서를 습격
제주도의 인민항쟁 격화

(평양 18일 방송=동아)

제주도의 인민항쟁은 5월 10일 이후 점점 더 격렬해지고 있다. 최근 상황은 다음과 같다. 무장한 인민부대는 계속적으로 경찰서를 습격하고 있다. 15일에는 제주도 김녕경찰지서가 습격받았고, 함덕리 부락이 습격받았다. 덕천리 습격에서는 부락에 거주하는 대동청년단장 송계진이 사살되었고, 인민부대는 촌장 강희전의 안내로 선거 진행중인 투표소와 선거서류를 방화소각하고 향보단에 가입하고 있던 부락청년 9명을 납치했다. 또한 경찰과 국방경비대와의 사이에도 매우 험악한 공기가 감돌고 민중은 후자를 편들고 있지만, 14일에는 이 양자 간에 충돌이 있었다. 그 이유는 인민항쟁부대에 대해 경찰은 무조건 발포했는데 국방경비대는 구국항쟁을 수행하려는 동포에 대해 발포를 거부한 것에 있으며, 경찰은 국방경비대가 민중을 사살하지 않은 것을 비난하고, 경비대는 경찰의 잔학한 부분을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14일은 제주도에 집결해 있던 국방경비대가 애월 ○○○ 경찰지서의 앞을 통행 도중 트럭 위에서 지서를 향해 수십명의 대원이 집중사격하여 청사를 파괴하고 순경을 부상시켰다. 이러한 사건에 당황한 제주경비사령관은 부하의 혼란을 진압하기 위해 서울에 경찰대의 급파를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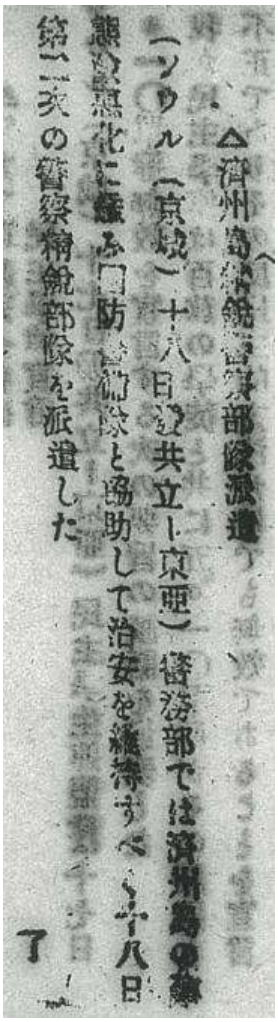
△警備隊警察支署を射撃
濟州島の人民抗爭激化
(ペンヤン(平壤)十八日入送ー東亞)濟州島の人民抗爭は五月十日以後益々激しくなつて來ている、最近の狀況はつぎの通りである、武裝した人民部隊は繼續的に警察署を襲撃している十五日には濟州道金寧警察支署が襲撃され、德川里部落が襲撃された、德川里の襲撃では部落に居住する大同青年團長
つゞく
衆爭進が射殺され人民部隊は村長千喜全の案内で襲撃進行中の投票箱と選擧書類を放火燒却し鄕保團に加入していた部落青年九名を拉致した、また警察と國防警備隊との間にも甚だ險惡な空氣が動めき民衆は後者に味方しているが十四日には、この兩者間に衝突があつた、その理由は人民抗爭部隊に対して警察は無條件で發砲したが、國防警備隊は救國抗爭を遂行しようとする同胞に対して發砲を拒否したことにあり、警察は國防警備隊が民衆を射殺しないのを非難し、警備隊は警察の殘ぎやくであることを攻撃している、このようにして十四日は濟州島に集結している國防警備隊が第二月面信當警察支署の前を通行途中トラックの上から支署に向ひ數十名の隊員が集中射撃をなし行舍を破かいさせ巡警を負傷させた、こうした事件にろうばいした濟州警備司令官は部下の混亂を鎮壓するためにソウルに警察隊の急派を要請している

동아통신(東亞通信) 1949년 5월 19일 / 4면

제주도 정예경찰부대 파견

제주도 정예경찰부대 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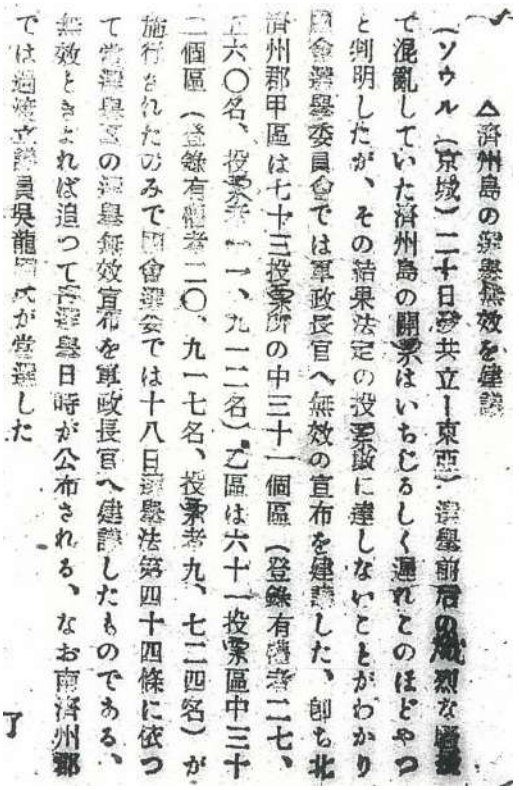
(서울〈경성〉18일발 공립=동아)
경무부에서는 제주도의 사태 험악화에 ○○국방경비대와 협조하여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18일 제2차 경찰정예부대를 파견했다.


△濟州島精銳警察部隊派遣
(ソウル(京城)十八日發共立(東亞)警務部では濟州島の警
態發惡化に鑑み國防警備隊と協助して治安を維持すべく十八日
第二次の警察精銳部隊を派遣した
了

제주도의 선거 무효화 건의

제주도의 선거 무효화 건의

(서울〈경성〉 20일발 공립=동아)
선거 전후의 치열한 소요로 혼란에 빠진 제주도의 개표는 현저히 늦어져 얼마전 겨우 판명되었지만, 그 결과 법정의 투표수에 도달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져, 국회선거위원회에서는 군정 장관에게 무효 선포를 건의했다. 즉각 북제주군 갑구는 7십3 투표소 중 3십1개구(등록유권자 2만7천5백6십명, 투표자 1만1천9백1십2명), 을구는 6십1개 투표구중 3십2개구(등록유권자 2만9백1십7명, 투표자 9천7백2십4명)가 시행되었을 뿐으로, 국회선위에서는 18일 선거법 제44조에 의거하여 당 선거구의 선거무효선포를 단정장관에게 건의한 것이다. 무효로 결정되면 이어서 다음 선거일시가 공포된다. 또한 남제주군에서는 ○○의원 오용국이 당선됐다.


△濟州島の選擧無效を建議
(ソウル(京城)二十日發共立=東亞)選擧前後の熾烈な暴擧で混亂していた濟州島の開票はいちじるしく遲れたのほどやつと判明したが、その結果法定の投票數に達しないことがわかり國會選擧委員會では軍政長官へ無效の宣布を建議した、卽ち北濟州郡甲區は七十三投票所の中三十一個區(登錄有權者二七、五六〇名、投票者一一、九一二名)乙區は六十一投票區中三十二個區(登錄有權者二〇、九一七名、投票者九、七二四名)が施行されたのみで國會選擧法第四十四條に依つて當選證書の交付無效宣布を軍政長官へ建議したものである、無效ときまれば追つて再選擧日時が公布される、なお南濟州郡では過般文議員吳龍圭氏が當選した
了

동아통신(東亞通信) 1948년 5월 27일 / 2면

북제주 재선 6월 23일 딘 장관 양 구 무효선포

북제주 재선 6월 23일
딘 장관 양구 무효선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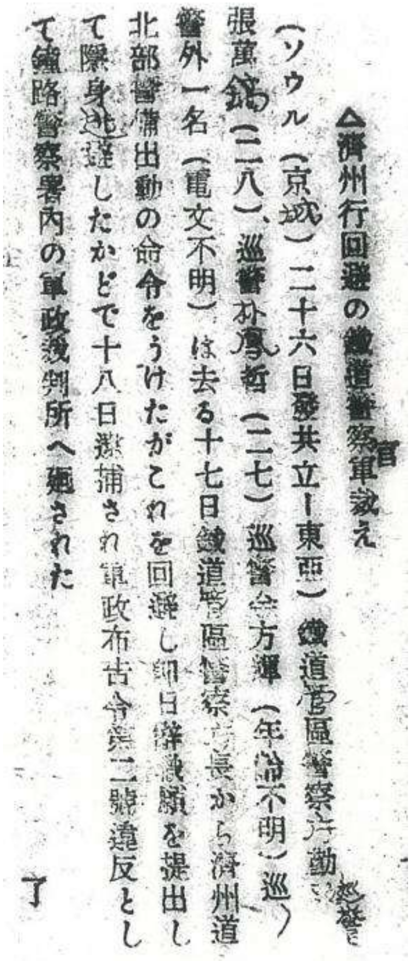
(서울〈경성〉 26일발 공립=동아)
군정장관 딘 소장은 26일 제주도 북제주군 갑,을 양 구의 선거무효 및 재선거일에 관한 다음의 결정을 발표했다.
1, 1948년 5월 10일 시행 선거법에 근거하여 5·10제주도 북제주군 갑, 을 양 구의 선거는 선거법 제44조에 의거하여 무효로 한다.
2, 양 구의 재선거는 1948년 6월 23일에 시행한다.

△北濟州再選六月二十三日
デイン長官選擧無效宣布
(ソウル(京城)二十六日發共立=東亞)軍政長官デイン少將は二十六日濟州道北濟州郡甲、乙兩區の選擧無效及び再選擧日に關するつぎの決定を發表した
つづく

제주행 회피한 철도경찰관 군재판

제주행 회피한 철도경찰관 군재판

(서울〈경성〉 26일발 공립=동아)
철도관구 경찰청 근무 순경 장만호(28), 순경 박봉철(27), 순경 김만휘(연령 불명) 외 1명(전문 불명)은 지난 17일 철도관구 경찰청장으로부터 제주도 북부경비 출동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회피하고 즉일 사직서를 제출하여 은신도피한 직후 18일 체포되어 군정포고령 제2호 위반으로 종로경찰서내 군정재판소로 이송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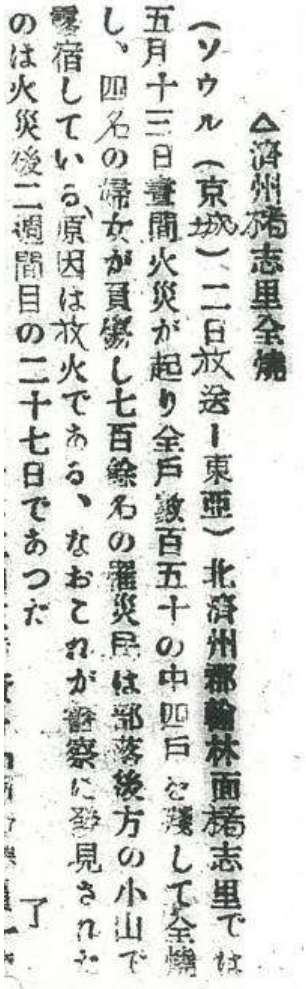


△濟州行回避の鐵道警察官軍裁へ
(ソウル(京城)二十六日發共立ー東亞)鐵道管區警察庁勤務巡警張萬鎬(二八)、巡警朴鳳哲(二七)巡警金方輝(年齢不明)巡警外一名(電文不明)は去る十七日鐵道管區警察庁長から濟州道北部警備出動の命令をうけたがこれを回避し即日辞職願を提出して隠身逃避したかどで十八日逮捕され軍政布告令第二號違反として鐘路警察署内の軍政裁判所へ廻された
丁

제주 저지리 전소

제주 저지리 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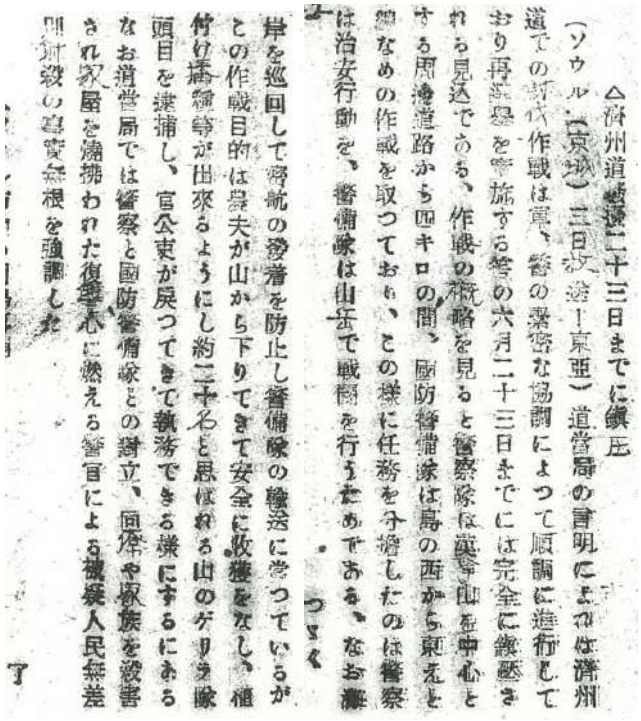
(서울(경성) 2일 방송=동아)
북제주군 한림면 저지리에서는 5월 13일 주간 화재가 발생하여 전호수 1백5십 중 4호를 남기고 전소하여, 4명의 부녀가 부상당하고 7백여명의 이재민은 부락 후방의 오름에서 노숙하고 있다. 원인은 방화이다. 한편 이것이 경찰에 발견된 것은 화재후 2주째인 27일이었다.


△濟州楮志里全燒
(ソウル(京城)二日放送=東亞) 北濟州郡翰林面楮志里では五月十三日晝間火災が起り全戶數百五十の中四戶を殘して全燒し、四名の婦女が負傷し七百餘名の罹災民は部落後方の小山で露宿している、原因は放火である、なおこれが警察に發見されたのは火災後二週間目の二十七日であつた 了

제주도 소요 23일까지 진압

제주도 소요 23일까지 진압

(서울(경성) 3일방송=동아)
도당국의 언명에 의하면, 제주도에서의 토벌작전은 군, 경의 긴밀한 협조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고, 재선거를 실시할 예정인 23일까지는 완전히 진압될 것으로 전망했다. 작전의 개략을 보면, 경찰대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도로에서 4킬로미터 간, 국방경비대는 섬의 서에서 동으로 모조리 훑어내는 작전을 취하고 있어 이처럼 임무를 분담한 것은 경찰은 치안행동을, 경비대는 산악에서 전투를 실시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해안을 순회하여 밀항의 출발과 도착을 방지하고 경비대의 수송을 맡고 있는데, 이 작전목적은 농부가 산에서 내려와서 안전하게 수확을 하고 파종 등이 가능하도록 하며, 약 2십명으로 보이는 산 게릴라대 두목을 체포하고, 관공리가 돌아와서 집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도당국에서는 경찰과 국방경비대와의 대립, 동료와 가족을 살해당하고 가옥이 불탄 것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는 경관에 의한 피의(被疑) 인민 무차별 사살의 사실무근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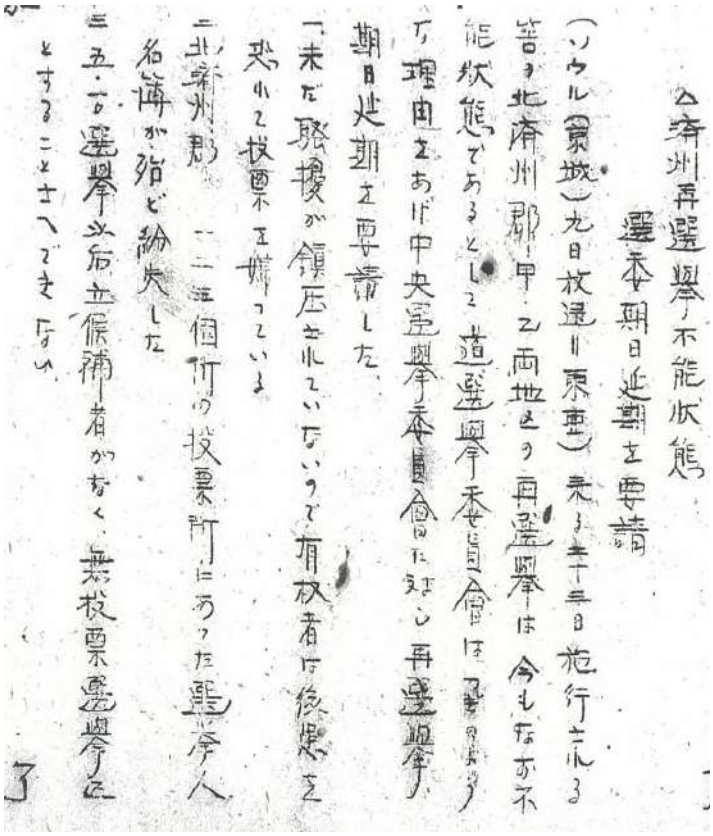

△濟州道警備二十三日までに鎭壓
(ソウル(京城)三日放送=東亞)道當局の言明によれば濟州道での討伐作戰は實に警の緊密な協調によつて順調に進行しており再選擧を實施する等の六月二十三日までには完全に鎭壓される見込である、作戰の概略を見ると警察隊は漢拏山を中心とする周邊道路から四キロの間、國防警備隊は島の西から東へと殲滅の作戰を取つており、この樣に任務を分擔したのは警察は治安行動を、警備隊は山岳で戰闘を行うためである、なお濟
岸を巡回して密航の發着を防止し警備隊の輸送に當つているがとの作戰目的は島夫が山から下りてきて安全に收穫をなし、植付け播種等が出來るようにし約二千名と思はれる山のゲリラ隊項目を逮捕し、官公吏が戻つてきて執務できる樣にするにあるなお道當局では警察と國防警備隊との對立、同胞や家族を殺害され家屋を燒拂われた復讐心に燃える警官による嫌疑人民無差別射殺の事實無根を強調した
了

동아통신(東亞通信) 1948년 6월 10일 / 2면

제주 선거 불능 상태
선위 기일 연기 요청

제주 선거 불능 상태
선위 기일 연기 요청

(서울 9일방송=동아)
오늘 23일 시행할 예정인 북제주군 갑, 을 양 지구의 재선거는 지금도 여전히 불능상태라고 했다. 도선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중앙선거위원회에 대해 재선거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1, 아직 소요가 진압되지 않은 듯하고 유권자는 후환을 두려워하여 투표를 꺼리고 있다.
2, 북제주군 123개소의 투표소에 있던 선거인명부가 거의 분실되었다.
3, 5.10선거 이후 입후보자가 없고 무투표 선거구가 될 수도 있다.



자료「총선거와 경찰」조 경무부장 발표(2)

자료「총선거와 경찰」조 경무부장 발표(2)

4, 선동꾼, 5인내지 10인의 조를 편성, 시가지전은 미조직 부락에서 '○' '징'을 울리며 군중을 집합 선동연설한다.

5, 산업기관의 파괴, 기계의 일부 파괴 또는 중요부속품의 절취로 조업을 불능케 한다.

二, 농촌투쟁

1, 부락인민위원회를 열어 '유엔배격' '양군철퇴' '정권 인민에게'라며 부녀자를 동원하여 행정기관에 쇄도, 식량을 요구, 경찰과 대동청년단원이 인민대회를 방해할 때는 이를 철저히 분쇄할 것

2, 인민의 기세가 관공서 습격에까지 미칠 때는 책임자는 현장에서 피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지휘도 습격 중지도 하지 말 것

3, 투쟁은 유격적으로 계속하고 치안을 마비시킬 것

4, 식량을 강탈하여 무상분배할 것

三, 가두세포조직에 대한 지령

가두는 3인, 농촌은 5인을 1조로 한다.

四, 대중단체확대 주간 설치에 대한 지령

대중의 집결연락강화, 기타

五, 노조활동에 대한 지령

노조기구위원회, 분회, 보조조직, 노조신문배포망 강화

六, 일반지령

학생투쟁의 고도평가, 정보활동의 기민화, 벽신문 등을 통한 반동경찰의 폭압선전, 인민○선전, 식량투쟁

七, ○○정세에 대한 신전술지령

반동정책이 격화된 경우는 폭력투쟁을 피하고 군중의 단결을 도모하고 내외의 여론을 환기시켜 인민항쟁을 추진할 것

八, 단정반대 구국투쟁위원회 조직에 관한 지령

농촌공동반, 농촌자위대조직, 농민위원회재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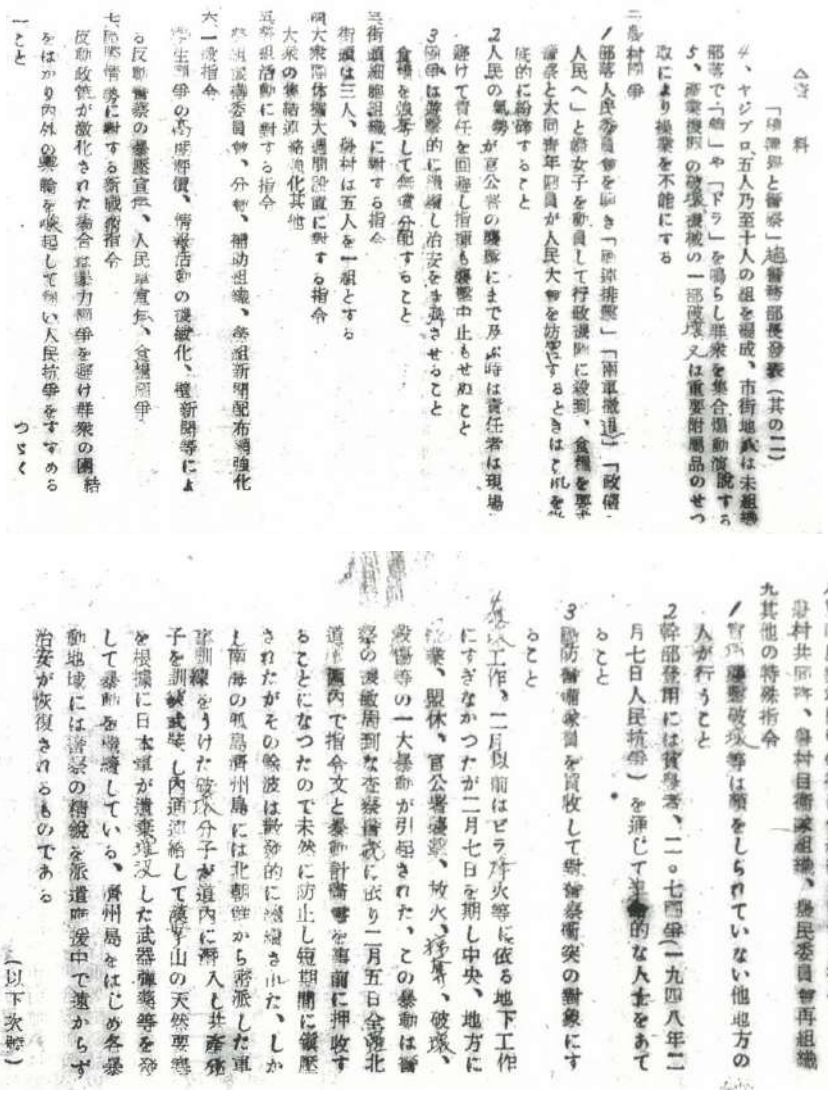
九, 기타 특수지령

1, 선전습격파괴 등은 얼굴이 알려지지 않는 타 지방 사람이 할 것

2, 간부 등용에는 빈○자, 207투쟁(1948년 2월 7일 인민항쟁)을 통해 혁명적인 사람을 앉힐 것

3, 국방경비대원을 매수해서 대 경찰충돌의 대상으로 할 것

4, ○○공작, 2월 이전은 전단, 봉화 등에 의한 지하공작에 불과했지만, 2월 7일을 기해 중앙, 지방에 파업, 맹휴, 관공서 습격, 방화, 약탈, 파괴, 살상 등의 일대 폭동이 일어났다. 이러한 폭동은 경찰의 기민주도한 사찰경계로 인해 2월 5일 전라북도권내에서 지령문과 폭동계획서를 사전에 압수하게 되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여 단기간에 진압되었는데, 그 여파는 산발적으로 계속되었다. 그러나 남해의 고도 제주도에는 북조선에서 밀파한 군사훈련을 받은 파괴분자가 도내에 잠입하여 공산분자를 훈련무장시키고 내통연락하여 한라산의 천연요새를 근거로 일본군이 유기매몰한 무기탄약 등을 발견하여 폭동을 계속하고 있다. 제주도를 비롯하여 각 폭동지역에는 경찰의 정예를 파견 응원중이며 머지않아 치안이 회복될 것이다.



동아통신(東亞通信) 1948년 6월 24일 / 1면

제주 소요 수습책은 불변
조 경무부장 담화 발표

제주 소요 수습책은 불변
조 경무부장 담화 발표

(서울 23일발 공립=동아)
경무부장 조병옥씨는 23일 제주도의 소요사건 수습에 관해 다음과 같이 담화를 발표했다.

제주도의 치안에 관해 정부기관의 책임자 혹은 정치, 사회단체, 언론기관 등에서는 폭동이 빈발화하여 치안이 교란되는 원인을 행정사법기관의 인사행정의 편파행정이라는 비민주적 운영에 대한 불평불만 및 경찰관리의 비민주주의적인 과오 등의 탓이라는 추상적인 관측을 갖고 더욱이 동포를 돕는 인정(認定)론을 횡횡시키고 있는데, 이 토론은 사실판단의 착오 및 피상적 관찰에 의한 본말전도의 오견이라고 본다. 물론 이를 포함한 모든 논의도 간접적, 혹은 보완적 원인을 지적하기에는 충분하다. 즉 제주도민의 역사적 특질인 배타심과 경찰말단의 민주주의 원리를 침범한 과오도 그 원인의 하나로 간주되어야겠지만, 그 근본원인은 조선을 소련방화(邦化) 내지 그 위성국가화를 기도하는 공산당의 남조선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총선거' 방해공작에 있는 것이다. 그들이 북조선을 그 세력하에 두고 나아가 남조선을 그 세력하에 두려고 하는 정책을 버리지 않는 한 이러한 소요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남조선 일대에 전파 만연할 것이며, 당분간 남조선에서는 정상적인 치안의 복구를 기대하기는 곤란한 사정에 있다. 따라서 치안의 수습책으로서는 법을 무시하고 살인방화 등의 파괴에 의해 정부를 전복하고 수립을 방해하려는 자는 이를 엄중히 처단하고 무지추종자는 선무선도하는 이외에 방법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법을 침범한 자와 누구나가 그 후에 과거를 뉘우치고 치안에 협력할 것을 맹세한 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관대하게 취급할 것이다. 국립경찰은 이 원칙에 따라 제주도경찰○을 강화하고 인사의 공정과 경찰행정의 민주화를 도모하고 인권의 유린을 방지하여 도민의 친화를 두텁게 하여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제주소요 만연 수습의 근본 방침은 종래와 조금도 변함없음을 거듭 성명하는 바이다.

△濟州騷擾收拾策は不變

趙警務部長談話發表

（ソウル二十三日發共立ー東亞）警務部長越炳玉氏は二十三日濟州道の騷擾事件收拾に關してつぎのような談話を發表し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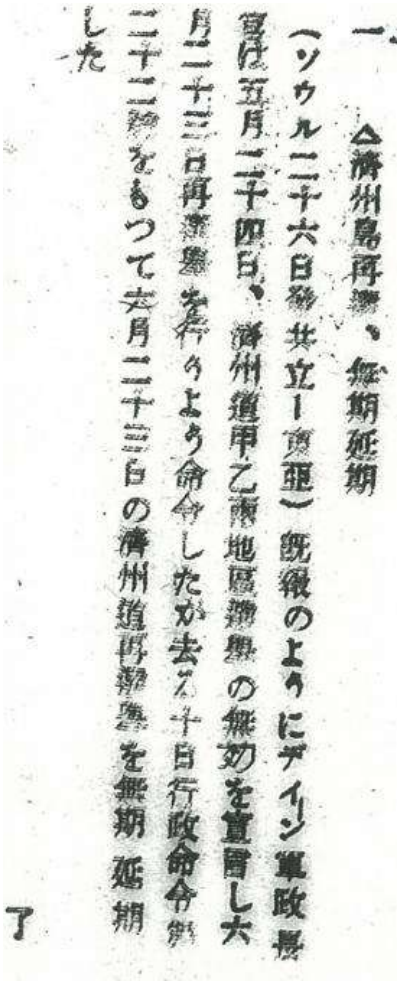
濟州道の治安に關して政府機關の責任者或は政治、社會團体、言論機關等では暴動が頻發化し治安が攪亂される原因を行政司法機關の人事行政の偏頗行政の非民主的運營に對する不平不滿、及び警察官吏の非民主々義的な過誤等のせいであるとの抽象的な觀測をもつてなほ同胞を助けるような認定論を横行させているがこの議論は事實判斷の錯誤及び皮相的觀察に因る本末てんとうの誤見と思う、勿論それ等諸論も間接的、又は補充的原因を指摘するには足りる、即ち濟州道の歴史的特質である排他心と、警察末端の民主々義原理を犯した過誤もその原因の一つと見做さゞるを得ないがその根本原因は朝鮮をソ連邦化乃至その衛星國家化を企圖する共產党の南朝鮮の破壞を目的とする「總選擧」妨害工作にあるのである、彼等が北朝鮮をその勢力下に置き更に南朝鮮をもその勢力下に入れようとする政策を捨てない限りこのような騷擾は濟州道ばかりでなく南朝鮮一帶に伝播蔓延するもので當分の間南朝鮮では正常な治安の復舊を期待することは困難な事情にあるしたがつて治安の收拾策としては法を無視し殺人放火等の破壞に依り政府を轉覆し獨立を妨害しようとするものはこれを嚴重に處斷し無智自從者は宣撫善導する以外に方法はないと思はれるしかし意識的に法を犯した者と雖もその后に至つて過去を悔い治安に協力することを誓うものはその情狀を參酌して寛大に取扱うものである國立警察はこの原則にのつとつて濟州道警察學を強化し人事の公正と警察行政の民主化を圖り人權のじゅうりんを防止し警民の親和を厚くし平和な社會をつくるために努力するもので濟州騷擾蔓延收拾の根本方針は從前と少しも變りないことを重ねて聲明するものである

つゞく

제주도 재선, 무기연기

제주도 재선, 무기연기

(서울 26일발 공립=동아)
앞서 보도한 것처럼 딘 군정장관은 5월 24일, 제주도 갑을 두 지구 선거무효를 선언하고 6월 23일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명령했지만, 지난 10일 행정명령 제22호에 의거하여 6월 23일 제주도 재선거를 무기연기했다.


一、△濟州島再選、無期延期
（ソウル二十六日發共立＝東亞）既報のようにデイン軍政長官は五月二十四日、濟州道甲乙兩地區總選の無効を宣言し六月二十三日再選擧を行うよう命令したが去る十日行政命令第二十二號をもつて六月二十三日の濟州道再選擧を無期延期した
了

동아통신(東亞通信) 1948년 7월 3일 / 4면

정치적 환경 개혁만이 해결의 열쇠
제주도 사건에 제우회 요로(要路)에 청원서 제출

정치적 환경 개혁만이 해결의 열쇠
제주도 사건에 제우회 요로(要路)에 청원서 제출

재서울 제주도인의 친목단체인 제우회에서는 제주도에서 진행중인 불행한 사태에 대해 그 해결방법으로 건전하고 평화적인 방법을 채용할 것을 요청하는 요지를 다음과 같은 청원서를 6월 하순 하지 중장을 비롯 군정 관계 각 당국과 유엔 조선위원단에 제출했다.
현재의 제주도 사건은 결코 소수분자의 정치적 충돌에 의한 파괴적 음모만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 외에 중대한 원인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작년 3·1절 기념행사 때, 경찰측의 경솔한 발포 살상사건이 원인으로 폭발한 소위 관공리 파업사건을 군정당국이 공정하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해결했다면 오늘의 사태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군정당국은 이 지방의 특수성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관민 전체가 위험한 파괴분자인양 대처하고 섬 외부로부터 당 지방의 주민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과 청년단원을 다수 투입하여 각 부락에 배치하고 그들로 하여금 평화로운 도민생활에 간섭과 폭행을 감행시킨 것이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좌익분자 소탕의 의도에서 추진한 것이겠지만, 결과는 그 정반대로 경찰과 청년단체의 박해를 피하려는 다수의 현지 청년과 주민으로 하여금 산중 동굴로 피난시키게 된 점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토벌작전은 여전히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토벌 측은 일반 주민에게 협력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주민을 폭도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산중에 있는 폭도는 그들의 혈연이고 친한 친구인 이상 그 토벌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상과 같은 무력 방법에 내재해 있는 결함과 이 사건에 부재해 있는 특수한 원인을 고려하여 본 회에서는 제주도의 정치적 환경을 민주적으로 개혁하는 것만이 오늘의 가열한 사태를 수습하는 현명하고 유력한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함과 동시에 문제해결의 중점을 평화적 방법으로 변경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력공격을 즉시 중지할 것에 각별한 유의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政治的環境改革のみが解決の鍵

濟州島事件に濟友會要路に請願書提出

在ソウル濟州道人の親睦團体である濟友會では濟州島で進行中の不幸な事態に對しその解決方法として健全にして平和的な方法を採用することを要請する要旨つぎのような請願書を六月下旬ホッジ中將をはじめ軍政關係各當局と國連朝鮮委員團に提出した

現在の濟州島事件は決して少数分子の政治的衝突に依る破壞的陰謀とばかり言えない、他に重大な原因をもつていることが明らかである、昨年三・一節記念行事の際警察側の輕率な發砲殺傷事件が因で爆發した謂ゆる官公吏總罷業事件を軍政當局が苦し公正で建設的な方法で解決していたら今日の事態に決して起らなかつた等である、しかし不幸にも軍政當局はこの地方の特殊性を理解しようとはせず官民全体が危險な破壞分子であるかのように對處し島外から當地方の住民と何等關連のない人々と青年團員を多数搬入し各部落に配置し彼等をして平和な島民生活に干渉と暴行を敢行させたのである勿論このような措置は左翼分子掃蕩の意圖から推進したものであろうが結果はその正反對に警察と青年團体の迫害を免れようとする多数の地元青年と住民をして山中の洞窟に避難せしめることになつたことを知らねばならぬそれ故、現在進行している討伐工作は依然として問題解決のたしにはならない、討伐側は一般住民に協力を要求しこれに應じない住民を暴徒と同一視する傾向があるが山中にいる暴徒は彼等の血縁であり親しき友である以上その討伐に積極的に參加し得ないのは當然である、以上のような武力攻撃の方法に内在している缺陷とこの事件に伏在している特殊な原因を考慮して本會としては濟州道の政治的環境を民主的に改革することのみが今日の苛烈な事態を收拾する賢明で有力な方法であることを強調すると同時に問題解決の重點を平和的方法に變更し現在行われている武力攻撃を即時中止することに格別な留意のあらんことを要請するもので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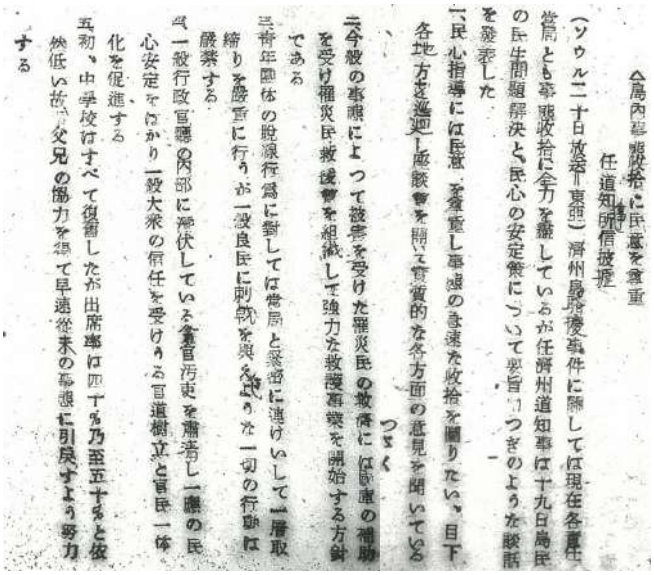
つゞく

동아통신(東亞通信) 1948년 7월 21일 / 3면

도내 사태 수습에 민의 존중
임 도지사 소신 피력

도내 사태 수습에 민의 존중
임 도지사 소신 피력

(서울 20일방송=동아)
제주도 소요사건에 관해서는 현재 각 책임당국과도 사태수습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임 제주도지사는 19일 도민의 민생문제해결과 민심의 안정책에 대해 요지○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했다.
1, 민심지도에는 민의를 존중하고 사태의 급속한 수습을 도모하겠다. 목하 각 지방을 순회하고 좌담회를 열어 실질적인 각 방면의 의견을 듣고 있다.
2, 이번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구제에는 국고 보조를 받아 이재민 구제회를 조직하여 강력한 구호사업을 개시할 방침이다.
3, 청년단체의 탈선행위에 대해서는 당국과 긴밀히 연계하여 한층 단속을 엄중히 할 것이며, 일반 양민에 자극을 주는듯한 일체의 행동은 엄금한다.
4, 일반행정관청의 내부에 잠복해 있는 탐관오리를 숙청하고 일단 민심안정을 도모하여 일반대중의 신임을 받을 수 있는 관도(官道) 수립과 관민일체화를 촉진한다.
5, 초중학교는 모두 복구했지만, 출석률은 40% 내지 50%로 여전히 낮기 때문에 학부형의 노력을 얻어 조속히 종래의 사태로 돌아가도록 노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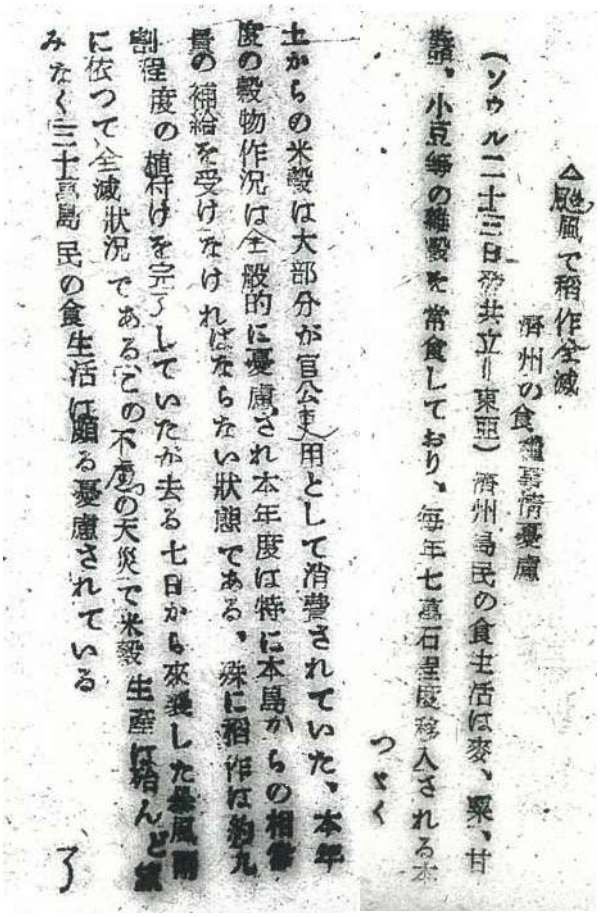


동아통신(東亞通信) 1948년 7월 24일 / 1-2면

태풍으로 벼농사 전멸
제주의 식량사정 우려

태풍으로 벼농사 전멸
제주의 식량사정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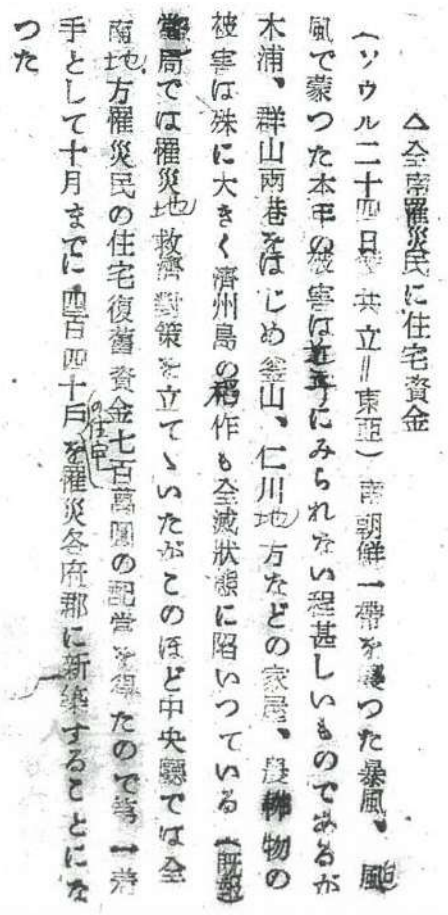
(서울 23일발 공립=동아)
제주도민의 식생활은 보리, 유채, 고구마, 콩 등의 잡곡이 주식이며, 매년 7만석 정도 이입되는 본토로부터의 미곡은 대부분이 관공리용으로 소비되고 있었다. 금년도의 곡물 작황은 전반적으로 우려되며 금년도는 특히 본토로부터의 상당량의 보급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이다. 특히 벼농사는 약 90% 정도를 심었지만 지난 7일부터 내습한 폭풍우로 인해 전멸 상황이다. 이 예기치 못한 천재로 미곡생산은 거의 바랄 수 없고, 3십만 도민의 식생활은 우려되고 있다.


△颱風で稻作全滅
濟州の食糧事情憂慮
(ソウル二十三日發共立=東亞) 濟州島民の食生活は麥、粟、甘藷、小豆等の雜穀を常食しており、毎年七萬石程度移入される本土からの米穀は大部分が官公吏用として消費されていた、本年度の穀物作況は全般的に憂慮され本年度は特に本島からの相當量の補給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狀態である、殊に稻作は約九割程度の植付けを完了していたが去る七日から來襲した暴風雨に依つて全滅狀況である、この不慮の天災で米穀生産は殆んど皆無みなく三十萬島民の食生活は頗る憂慮されている
つゞく
了

전남 이재민에 주택자금

전남 이재민에 주택자금

(서울 24일발 공립=동아)
남조선 일대를 덮친 폭풍우와 태풍으로 입은 올해 피해는 전전(戰前)에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것이지만, 목포, 군산 두 항을 비롯해서 부산, 인천지방 등의 가옥, 농산물의 피해는 특히 크며, 제주도의 벼농사도 전멸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당국에서는 피해지 구제대책을 수립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중앙청에서는 전남지방 이재민의 주택복구 자금 7백만원의 배상을 얻었기 때문에 첫번째로 10월까지 4백4십호의 주택을 재해 각 부군에 신축하게 되었다.



△全南罹災民に住宅資金
（ソウル二十四日發 共立＝東亞）南朝鮮一帶を襲つた暴風、風風で蒙つた本年の被害は甚だにみられない程甚しいものであるが木浦、群山兩巷をはじめ釜山、仁川地方などの家屋、農耕物の被害は殊に大きく濟州島の稻作も全滅狀態に陷いつている（既報）當局では罹災地救濟對策を立てていたがこのほど中央廳では全南地方罹災民の住宅復舊資金七百萬圓の配當を得たので等一齊手として十月までに四百四十戶（住宅）を罹災各府郡に新築することになつた

■ 통신(通信)

조선특신(朝鮮特新)

조선특신(朝鮮特信) 1948년 4월 7일 / 3면

제주도에 대폭동 발생
무장경관 다수 현지로 파견

제주도에 대폭동 발생
무장경관 다수 현지로 파견

(서울 7일발 조통KIP)
3일에 제주도 전도에 걸쳐 발생한 폭동사건에 관해서는 1947년 4월에 발생한 폭동보다도 더 대규모의 것이었는데, 당국에서는 6일 그 상황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3일부터 발생한 제주도의 남선 단선 반대의 폭동은 1947년에 발생한 것보다도 극히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그 피해도 엄청난 것이다.
거의 제주도 전역에 걸쳐 일제히 봉기한 폭도는 각지의 관공청을 장악하고 각 관공원 경찰관에 대해 살육, 폭행, 방화, 약탈, 파괴 등의 행위를 마음 내키는 대로 하였으며, 특히 선거사무소를 습격하여 여러 종류의 선거관계서류 및 등록명부를 소각하는 등 그 비인도 행위는 실로 말로 다할 수 없다. 현재까지 그 상세한 수자는 판명되지 않았지만, 개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망자 다수
관공서 파괴 11건
테러 11건
전화선 절단 4건
경찰 방화 4건
교량 및 도로 파괴 9곳
그 외에 선거사무소 습격, 파괴, 방화 거의 전도에 걸쳐 있다.

△濟州道に大暴動發生

武裝警官多數現地に派遣

（ソウル七日發朝通（ＩＰＩ）三日に濟州道全島にわたり發生した暴動事件に關しては一九四七年三月に起つた暴動よりも更に大規模なものであつたが當局では六日その狀況を左の如く發表した

三日より發生した濟州道の南鮮單選反對の暴動は一九四七年に蜂起せるものよりも極めて廣はん圍に行なわれその被害もじん大なものである

殆んど濟州道全域にわたつて一齊に蜂起した暴徒は各地の官公署を襲撃し各官公員警察官に對して殺りやく暴行、放火、れう奪、破壞などの行爲をほしいままにし特に選擧事務所を襲撃して諸種の選擧關係書類及登錄名簿を燒却するなどその非人道行爲は目に余るものがある現在までにその詳細な數字は判明していないが概略を示せば次の通りで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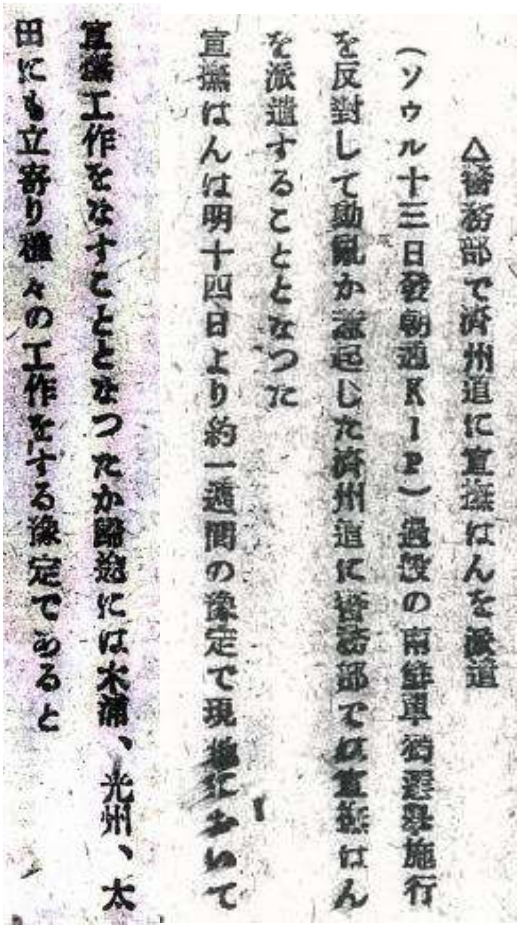
死せり者	多數	官公署襲撃	十一件
テロ	十一件	電話線切斷	四件
警察放火	四件	人橋及道路破壞	九所

其の他選擧事務所襲撃、破壞、放火殆んど全道に及ぶ

경무부에서 제주도에 선무반을 파견

경무부에서 제주도에 선무반을 파견

(서울 13일발 조통 KIP)
과반의 남선 단독선거 시행을 반대하여 동란이 발생한 제주도에 경무부에서 선무반을 파견하기로 하였다.
선무반은 다음 14일부터 약 1주간의 예정으로 현지에서 선무공작을 하기로 되었지만 귀도(歸途)에는 목포, 광주, 대전도 들러서 다양한 공작을 할 예정이다.


△警務部で濟州道に宣撫はんを派遣
（ソウル十三日發朝通KIP）過般の南鮮單獨選擧施行
を反對して動亂が惹起した濟州道に警務部で宣撫はん
を派遣することとなつた
宣撫はんは明十四日より約一週間の豫定で現地に赴いて
宣撫工作をなすこととなつたが歸途には木浦、光州、大
田にも立寄り種々の工作をする豫定であると

서귀포어업조합 분할 독립

서귀포어업조합 분할 독립

(제주 19일발 합동 KIP)
어업연맹의 산하에 있는 서귀어업조합(전 제주도어업조합 서귀포 출장소)은 오랫동안 현안중이었던 분할독립의 숙원이 2월 25일자로 도지사의 인가를 얻어 성취했다.
조합장 선거, 감사 총대 경질, 선임의 건 등 그 외의 현안을 토의하여 조합장에 양치순씨가 당선되고 감사에는 강성익씨 외 2명이 임명되었다.
또한 총대 선정에서는 인원을 일약 3십명으로 증가시켜 2십명의 남자 외에 여자 1십명 총대를 선임하기로 하여, 남선 어촌에서는 실로 가장 앞선 여 총대가 출현하여 향후의 조합 운영에 큰 기대를 걸게 하고 있다.

△西歸浦漁業組合分割獨立

(濟州十九日發合同KIP) 漁業連盟のされ下にある西歸浦漁業組合(元濟州島漁業組合西歸浦出張所)は永らく懸案中であつた分割獨立の宿願か二月二十五日附道知事の認可によつて成就し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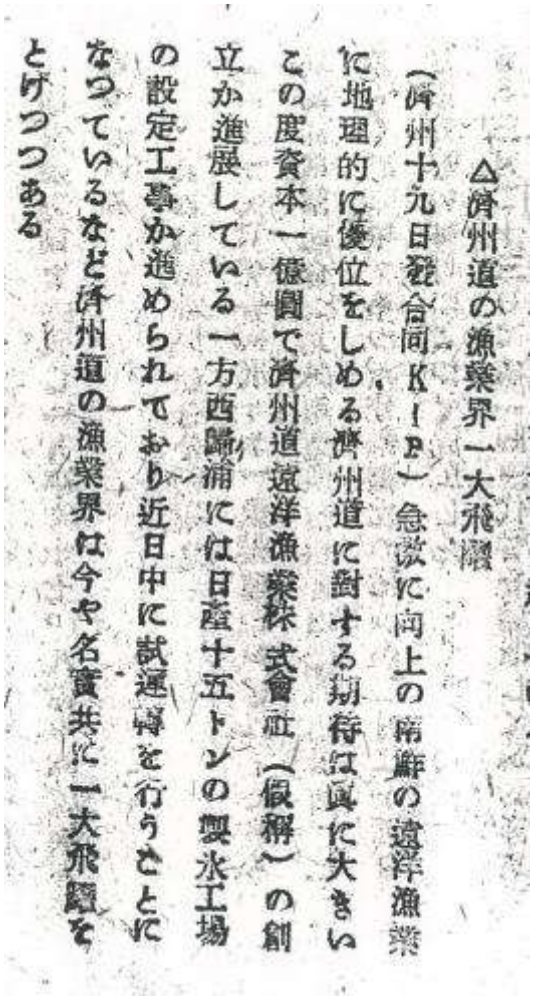
さる三月二十三日に第一回總代會を開催して規約修正組合長選擧、監事總代更迭、選任の件などその他の懸案を討議され組合長に致順氏か被選され監事には康性益氏外二名か任命された

なお總代選定では人員を一躍三十名に增加せしめ二十名の男の他に女十名總代を選任することになり朝鮮漁村においては正にせんたんを切つての女總代か現われ今後の組合の運營に大きな期待かかけられている

제주도의 어업계 일대 비약

제주도의 어업계 일대 비약

(제주 19일발 합동 KIP)
급격하게 향상한 남선의 원양어업에 지리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제주도에 대한 기대는 실로 크다. 이번 자본 1억원으로 제주도원양어업주식회사(가칭)의 창립이 진전된 한편, 서귀포에는 일생산량 15톤의 제빙공장 설정공사가 추진되고 있어 조만간 시운전을 하기로 하는 등 제주도의 어업계는 지금 명실상부 일대 비약을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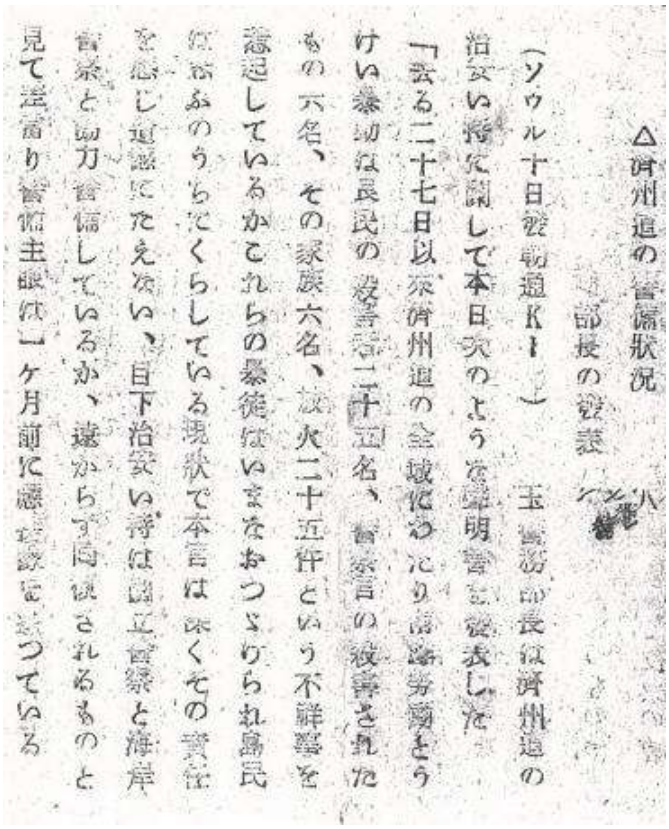

△濟州道の漁業界一大飛躍
(濟州十九日發合同KIP)急激に向上の南鮮の遠洋漁業に地理的に優位をしめる濟州道に對する期待は眞に大きいこの度資本一億圓で濟州道遠洋漁業株式會社(假稱)の創立が進展している一方西歸浦には日産十五トンの製氷工場の設定工事が進められており近日中に試運轉を行うことになつているなど濟州道の漁業界は今や名實共に一大飛躍をとげつつある

조선특신(朝鮮特信) 1948년 5월 10일 / 1면

제주도의 경비상황
조부장의 발표

제주도의 경비상황
조부장의 발표

(서울 10일발 조통 KIP)
조병옥 경무부장은 제주도의 치안유지에 관해 금일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27일 이래 제주도의 전역에 걸쳐 남○○○○○ 폭동은 양민의 살해 약 2십5명, 경찰관 살해 6명, 그 가족 6명, 방화 2십5건이라는 불상사를 야기하고 있는데, 이들 폭도들은 여전히 계속되고 우리 도민은 공포 속에 살고 있다. 현 상황에서 본관은 깊이 그 책임을 느끼고 유감을 금할 길 없다. 목하 치안 유지는 국립경찰과 해안경찰이 협력하여 경비하고 있는데, 머지않아 회복될 것으로 보아 당분간은 경비 주안은 1개월 전에 ○○대를 파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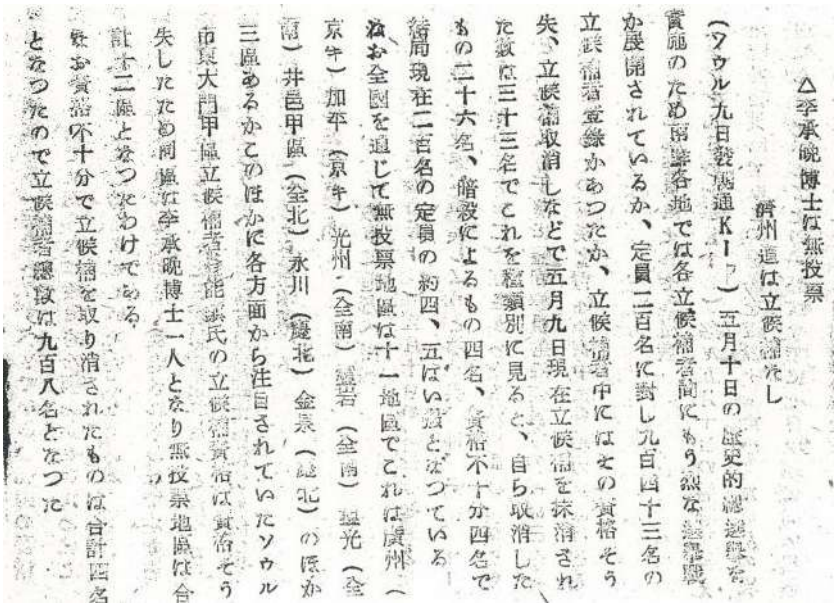


조선특신(朝鮮特信) 1948년 5월 10일 / 4면

이승만 박사는 무투표
제주도는 입후보 없음

이승만 박사는 무투표
제주도는 입후보 없음

(서울 9일발 조통 KIP)
5월 10일의 역사적 총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남선 각지에서는 각 입후보 간에 맹렬한 선거전이 전개되고 있는데, 정원 2백명에 대해 9백4십3명의 입후보자 등록이 있었는데, 입후보자 중에는 자격 상실, 입후보자 취소 등으로 5월 9일 현재 후보직을 말소당한 수는 3십3명으로 이를 종류별로 보면 스스로 취소한 자는 2십6명, 암살에 의한 자는 4명, 자격 불충분이 4명으로 결국 현재 2백명의 정원 약 4,5배 이상이 되고 있다.
더욱이 전국을 통틀어 무투표 지구는 11지구로 이는 광주(경기), 가평(경기), 광주(전남), 영암(전남), ○광(전남), 정읍 갑구(전북), 영천(경북), 김천(경북) 외에 3구 있는데, 이 외에 각 방면에서 주목받고 있던 서울 남동대문 갑구 입후보자 최능○씨의 입후보 자격은 자격 상실했기 때문에 동 구는 이승만 박사 1인이 되어 무투표 지구는 합계 12구가 된 것이다.
더욱이 자격 불충분으로 입후보를 취소당한 자는 합계 4명이 되었기 때문에 입후보자 총수는 9백8명이 되었다.


△李承晩博士は無投票
濟州道は立候補なし
(ソウル九日發國通KIP) 五月十日の歴史的總選擧を實施のため南鮮各地では各立候補者間にもう烈な選擧戰が展開されているが、定員二百名に對し九百四十三名の立候補者登錄があつたが、立候補者中にはその資格そう失、立候補取消しなどで五月九日現在立候補を抹消された數は三十三名でこれを種類別に見ると、自ら取消したもの二十六名、暗殺によるもの四名、資格不十分四名で結局現在二百名の定員の約四、五ばい數となつている
なお全國を通じて無投票地區は十一地區でこれは廣州(京牛)加平(京牛)光州(全南)靈岩(全南)靈光(全南)井邑甲區(全北)永川(慶北)金泉(慶北)のほか三區あるがこのほかに各方面から注目されていたソウル市東大門甲區立候補者兼能鎭氏の立候補資格は資格そう失したため同區は李承晩博士一人となり無投票地區は合計十二區となつたわけである
なお資格不十分で立候補を取り消されたものは合計四名となつたので立候補者總數は九百八名となつた

제주도의 선거 보고 없음

제주도의 선거 보고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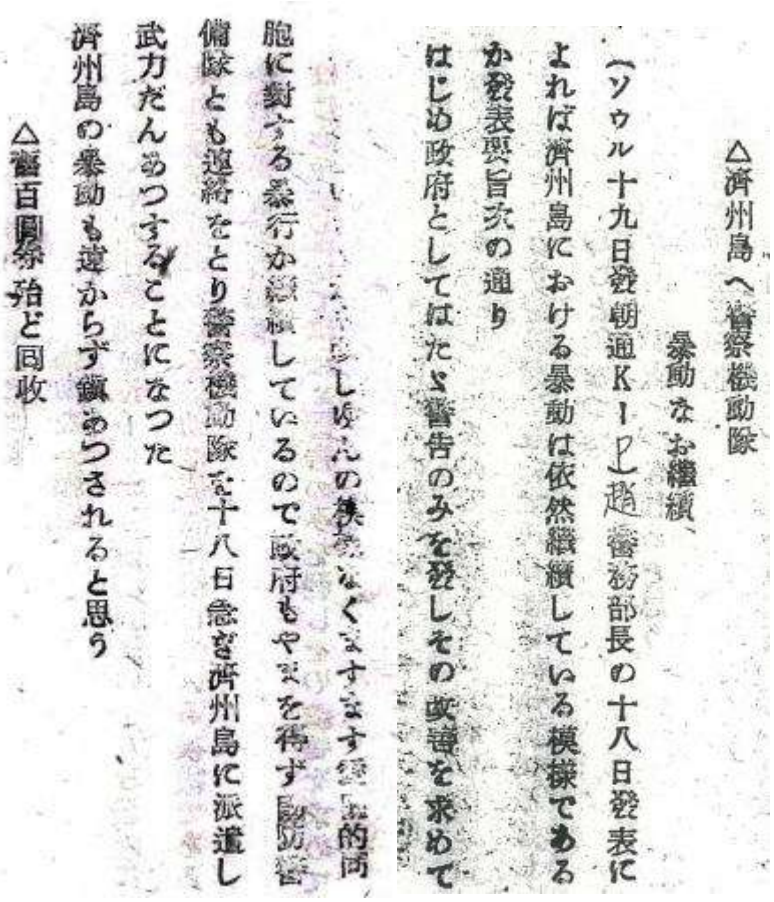
(서울 16일발 조통 KIP)
체신부장의 발표에 따르면 조선이 해방 후 첫 올림픽 참가를 기념하여 체신부에서는 기념 우표를 6월 1일부터 발매하기로 했다.
5원과 10원 두 종류이며, 5원짜리에는 조선의 국기에 올림픽 마크를 넣은 것으로, 10원짜리는 월계관을 박은 남선 선거와 경기장 모양이 들어 있다.

조선특신(朝鮮特信) 1948년 5월 19일 / 3-4면

제주도에 경찰기동대 폭동은 여전히 계속

제주도에 경찰기동대
폭동은 여전히 계속

(서울 19일발 조통 KIP)
조 경무부장의 18일 발표에 따르면 제주도의 폭동은 여전히 계속되는 모양이며, 발표요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로서는 단지 경고만을 발하고 그 개선을 요구하여. 〈판독불가〉 점점 더 애국적 동포에 대한 폭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어쩔 수 없이 국방경비대와도 연락을 취해 경찰기동대를 18일 제주도에 파견하여 무력 탄압하기로 했다.
제주도의 폭동도 머지않아 진정될 것으로 생각한다.


△濟州島へ警察機動隊
暴動なお繼續
(ソウル十九日發朝通KIP)趙警務部長の十八日發表によれば濟州島における暴動は依然繼續している模樣であるか發表要旨次の通り
はじめ政府としてはたゞ警告のみを發しその改善を求めて
[illegible]し[illegible]んの模樣なくますます[illegible]的同胞に對する暴行が繼續しているので政府もやまを得ず國防警備隊とも連絡をとり警察機動隊を十八日急ぎ濟州島に派遣し武力だんあつすることになつた
濟州島の暴動も遠からず鎭あつされると思う
△舊百圓券殆ど回收

조선특신(朝鮮特信) 1948년 5월 22일 / 1-2면

제주도의 게릴라대 3천
동굴에서 물고기 잡으러도 나온다

제주도의 게릴라대 3천
동굴에서 물고기 잡으러도 나온다

(서울 22일발 조통 KIP)
제주도 사건 진압을 맡고 있던 김정호 공안국장은 동 섬의 정황에 관해 최근의 양상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주도의 폭도는 주로 한라산의 동굴을 중심으로 약 3천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최근 양민이 섞여 있기 때문에 직접 공격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처음에 5백명 정도였는데 그들은 양민을 징발해서 각 지방에 파괴, 방화 등의 폭동을 일으키고 있고, 상당의 무기도 갖고 있는 것 등은 사실이며, 지리적으로 이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활약하는 그들에게는 좋은 기회였다. 식량도 3개월분 정도 준비되어 있고, 때로는 바다에 나가 어부의 물고기를 약탈해서 식량을 보급하면서 게릴라전을 계속하고 있다.
경찰단은 양민에게 손해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濟州島のゲリラ隊三千
洞くつから魚取りにも出る
（ソウル二十二日發朝通KIP）濟州島事件續くうちに當つていた金政務公安局長は同島の情況に關し最近のもようを次のように語つた
「濟州島の暴徒は主に漢拏山の洞くつを中心として約三千名が活動しているか、最近良民が混つているため
に直接攻撃をすることが出來なかつた、最初は五百名程度であつたが、彼らは良民を徴發して各地方に破壞、放火などの暴動を起してをり、相當な武器をもつている事などは事實であるが地理的にこの地方を中心として活躍する彼らにとつては好都合であつた、食糧も三ケ月分位の準備があり、時には海に出て漁夫の魚をりやく奪して食糧を補給しながらそのゲリラ戰をつゞけている
警察團は良民に損害のないような方法で活躍をつゞけている

북제주도 재선거
갑, 을 양구 6월 2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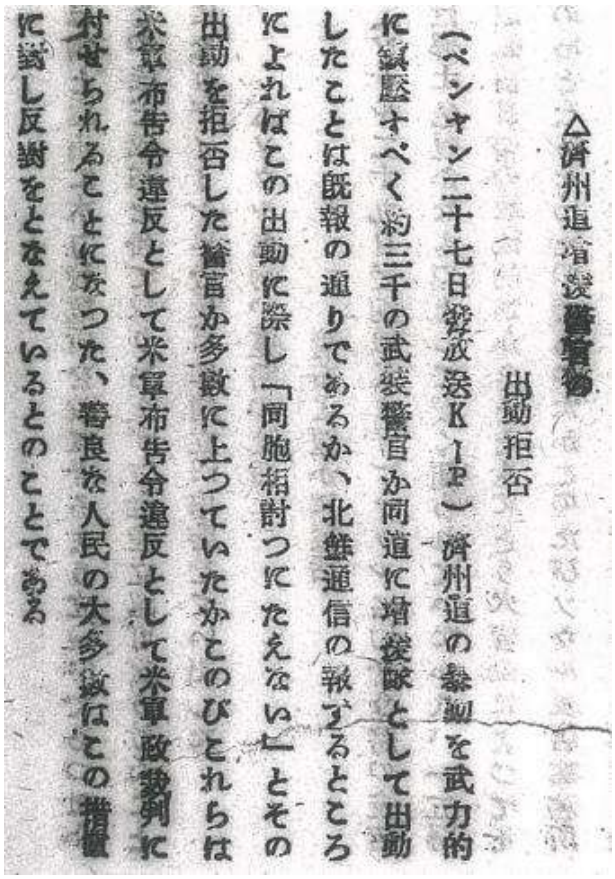
북제주도 재선거
갑, 을 양구 6월 23일

(서울 26일발 조통 KIP)
좌익계의 선거 반대폭동으로 인해 아직 제주도의 선거결과는 발표되지 않아, 일반의 주목을 끌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 딘 장관은 5월 10일의 선거는 이를 무효로 하고 6월 23일 재선거 시행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이번 제주도의 선거는 1948년 3월 17일 공포, 즉일 실시된 국회의원선거법에 따라 이에 무효로 선언하는 바이다.
또한 동 법 제44조에 의거하여 북제주 갑구 및 을구는 선거위원회의 지도, 감독 하에 6월 23일 재선거가 실시된다. 무효선언의 이유는 북제주 갑구, 을구 도 지구에서 반동분자의 폭동○○하여 완전한 민의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주도 증원 경관대 출동 거부

제주도 증원 경관대 출동 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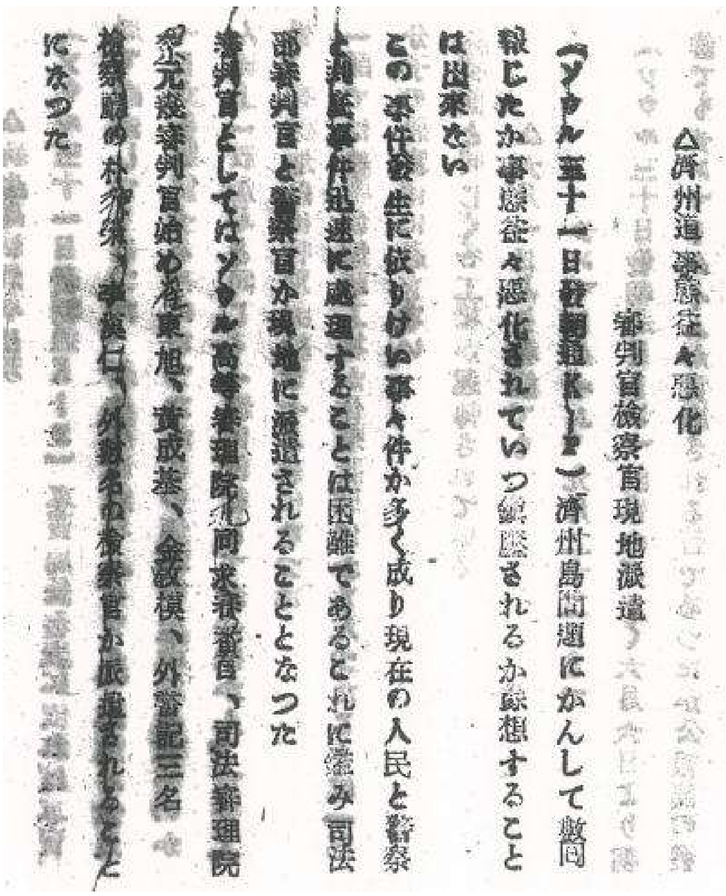
(평양 27일발 방송 KIP)
제주도의 폭동을 무력적으로 진압하기 위해 약 3천의 무장경관이 동 섬에 증원대로 출동한 사실은 이미 보도한 바와 같으며, 북선특신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 이 출동에 대해 '동포가 서로 싸우는 것을 견딜 수 없다'라며 그 출동을 거부한 경관이 다수 나오고 있는데, 이날 이들은 미군 포고령 위반으로 미군정 재판에 회부되게 되었다. 선량한 인민의 대다수는 이 조치에 대해 반대를 외치고 있다고 한다.


△濟州道增派警察官
出動拒否
(ベンヤン二十七日發放送KIP)濟州道の暴動を武力的に鎭壓すべく約三千の武裝警官が同道に增派隊として出動したことは既報の通りであるが、北鮮通信の報ずるところによればこの出動に際し「同胞相討つにたえない」とその出動を拒否した警官が多數に上つていたかとのびとれらは米軍布告令違反として米軍布告令違反として米軍政裁判に附せられることになつた、善良な人民の大多數はこの措置に對し反對をとなえているとのことである

제주도 사태 점점 더 악화
심판관 · 검찰관 현지 파견

제주도 사태 점점 더 악화
심판관 · 검찰관 현지 파견

(서울 31일발 조통 KIP)
제주도 문제에 관해 여러 차례 보도했지만 사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고 언제 진압될지 예상할 수 없다.
이 사건 발생으로 인해 형사 건수가 많아지고 현재의 인민과 경찰과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에 따라 사법부 심판관과 검찰관이 현지에 파견되게 되었다.
심판관으로는 서울 고등심리원○○○○○, 사법심리원 ○원기 심판관을 비롯해서 최동욱, 황성기, 김○모, 외 서기 3명, 검찰관 박○○, 이○인, 외 수명의 검찰관이 파견하기로 되었다.


△濟州道事態益々悪化
審判官檢察官現地派遣
〔ソウル三十一日發朝通KIP〕濟州島問題にかんして數回報じたが事態益々悪化されていつ鎭壓されるか豫想することは出來ない
この事件發生に依りけい事々件が多く成り現在の人民と警察と○○事件迅速に處理することは困難であるこれに鑑み司法部審判官と檢察官が現地に派遣されることとなつた
審判官としてはソウル高等審理院○○○○○、司法審理院○元祺審判官始め崔東旭、黄成基、金○模、外書記三名檢察官の朴○○、李○仁、外數名の檢察官が派遣されることになつた

조선특신(朝鮮特信) 1948년 6월 5일 / 3면

남선 각지의 단정 반대

남선 각지의 단정 반대

(평양 4일방송 KIP)
경남도 안산 지방의 농민들은 지난 1일 하곡수매에 반대하여 전 농민은 시위 행동을 하고 단정반대 하곡매수반대, 남북협상, 제주도인민 탄압 반대 등의 슬로건을 내건 전단을 살포했다.

△南鮮各地の單政反對
(ペンヤン四日放送K-2) 慶南道安山地方の農民達は去る一日夏穀集收に反對して全農民は示威行動をし單政反對夏穀集收反對、南北協商、濟州島人民だん壓反對などのスローガンを掲げたビラを散布した

제주도의 재선거는 무기 연기

제주도의 재선거는 무기 연기

(서울 12일발 조통 KIP)
딘 군정 장관은 10일자로 제주도의 재선거를 무기연기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령했다.
북제주도 갑, 을 두 지구는 5월 10일 총선거에서 50%의 투표만 이뤄졌을 뿐이었기 때문에 1948년 6월 23일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악질분자의 방해가 있어서 이들의 불온분자를 완전히 일소한 후에 자유로운 인민의 의사를 갖고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무기연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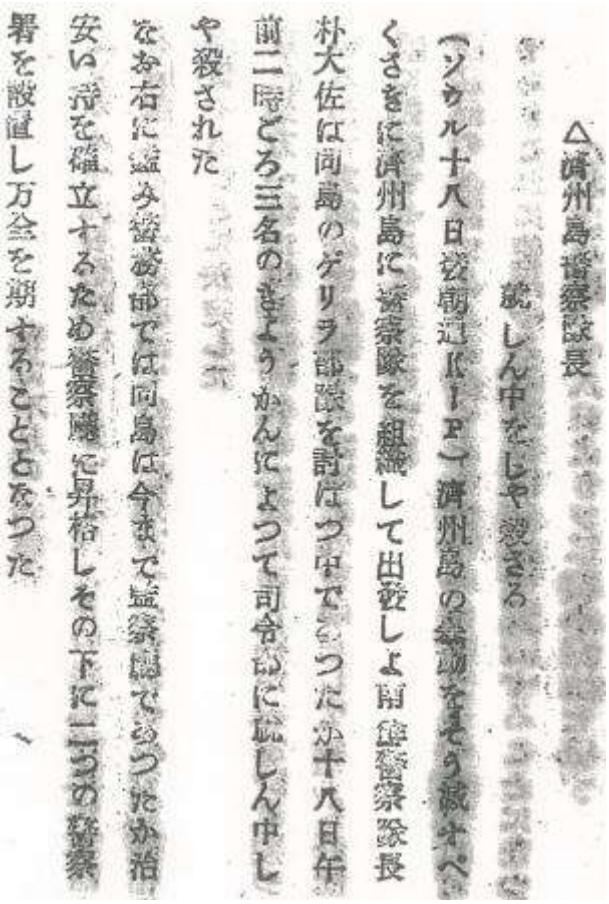
△濟州島の再選擧は
無期延期
(ソウル十二日發朝通KIP)デイーン軍政長官は十日附をもつて濟州島の再選擧を無期延期する旨大要左の如く發令した
北濟州島甲、乙兩區は五月十日の總選擧に際して五割の投票か行われたのみであつたため一九四八年六月二十三日再選擧を實施することになつていたが、惡質分子のぼう害があるためこれらの不穩分子を完全に一そうして後自由なる人民の意思をもつて選擧を實施するため無期延期とする

조선특신(朝鮮特信) 1948년 6월 19일 / 3면

제주도 경찰대장 취침 중에 사살되다

제주도 경찰대장 취침 중에 사살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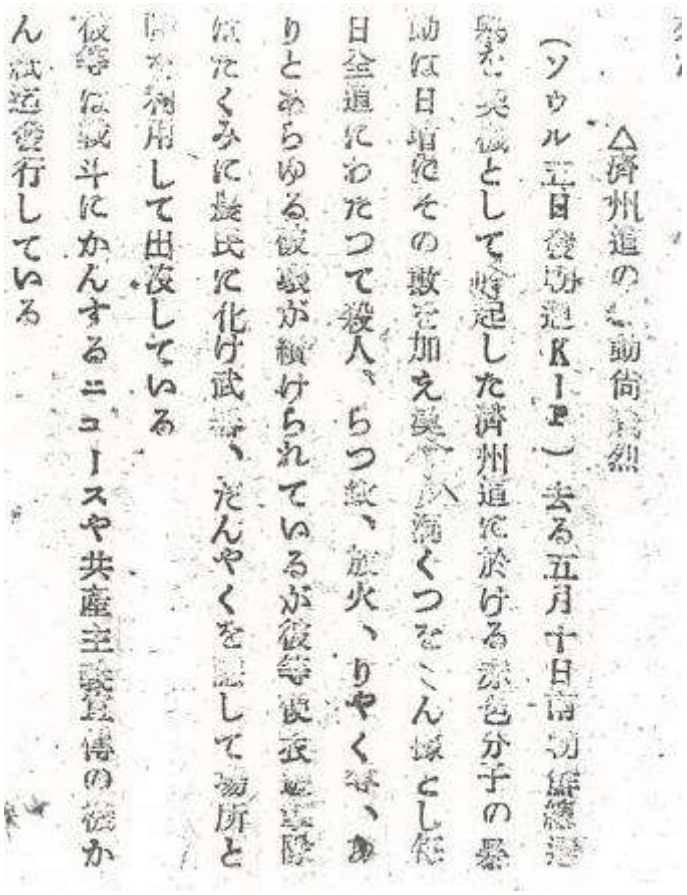
(서울 18일발 조통 KIP)
제주도의 폭동을 소멸하기 위해 나아가 제주도에 경찰대를 조직하여 출발하여 남선경찰대장 박대령은 동 섬의 게릴라 부대를 토벌하는 중에 있었는데, 18일 오전 2시경 3명의 흉한(凶漢)에 의해 사령부에 들어와 사살되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경무부에서는 동 섬은 지금까지 감찰청이었는데, 치안유지를 확립하기 위해 경찰청으로 승격하고 그 아래에 2개의 경찰서를 설치하여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濟州島警察隊長
就しん中をじや殺さる
(ソウル十八日發朝通KIP)濟州島の暴動をそう減すべくさきに濟州島に警察隊を組織して出發しよ南鮮警察隊長朴大佐は同島のゲリラ部隊を討ばつ中であつたが十八日午前二時ごろ三名のきようかんによつて司令部に就しん中しや殺された
なお右に鑑み警務部では同島は今まで監察廳であつたが治安い持を確立するため警察廳に昇格しその下に二つの警察署を設置し万全を期することとなつた

제주도의 폭동 늘상 치열

제주도의 폭동 늘상 치열

(서울 3일발 조통KIP)
지난 5월 10일 남조선총선거를 계기로 봉기한 제주도에서 적색분자의 폭동은 날이 갈수록 그 수가 늘어 ○○○ 동굴을 근거로 삼아 매일 전 도에 걸쳐 살인, 납치, 방화, 약탈 등 온갖 파괴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들 편의(便衣)유격대는 교묘하게 농민으로 둔갑하여 무기, 탄약을 숨기고 장소와 때를 이용하여 출몰하고 있다.
그들은 전투에 관한 뉴스와 공산주의 선전의 기관지를 발행하고 있다.


△濟州道の[illegible]動尙[illegible]烈
(ソウル五日發聯通KIP) 去る五月十日南朝鮮總選擧を契機として峰起した濟州道に於ける赤色分子の暴動は日增にその數を加え奥[illegible]洞くつをこん據とし每日全道にわたつて殺人、らつ奪、放火、りやく等、ありとあらゆる破壞が續けられているが彼等便衣遊擊隊はたくみに農民に化け武器、だんやくを隱して場所と時を利用して出沒している
彼等は戰斗にかんするニュースや共產主義宣傳の機かん紙迄發行している

■ 기관지(機關紙)

민주신문(民主新聞)

민주신문(民主新聞) 1948년 5월 15일 / 2면

전력 위기에 직면하다
제주도 폭동 격화

전력 위기에 직면하다
제주도 폭동 격화

▷9일 서울 ○○○에 의하면, 지난 4월 3일부터 격화하고 있는 제주도의 게릴라 폭동은 본토에서 응원대 ○○○2천5백 명이 ○○위해 급파되었다. ○○○○○○
○○○○ 파손, 사자(死者) 230명, ○○○○는 4백 명 이상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하 판독불가〉

電力危機に瀕す
濟州道の暴動激化

민주신문(民主新聞) 1948년 5월 22일 / 3면

제주도 폭동 북선(北鮮)에서 공작대

제주도 폭동 북선(北鮮)에서 공작대

〈판독불가〉

민주신문(民主新聞) 1948년 5월 22일 / 3면

날이 갈수록 악화

날이 갈수록 악화

〈판독불가〉

日を追つて
惡化

민주신문(民主新聞) 1948년 5월 29일 / 2면

북제주 선거 무효
국회선거위 군정장관에게 요청

북제주 선거 무효
국회선거위 군정장관에게 요청

〈판독불가〉

北濟州の選擧無效
國會選擧 軍政長官に要請

민주신문(民主新聞) 1948년 5월 29일 / 2면

원시생활로 돌아간 폭도
김 공안국장 담(談)

원시생활로 돌아간 폭도
김 공안국장 담(談)

(서울발 조통=KIP) 제주도 소요사건 진압을 맡고 있던 김정호 공안국장은 동도의 정세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주도의 폭도는 주로 한라산의 동굴을 중심으로 약 2천명이 활동하고 있다. 여기에는 양민도 섞여 있어서 직접 공격은 하지 않았다. 처음은 5백 명 정도였는데, 그들은 양민을 징발해서 각지에 파괴 방화 등의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 그들은 사실 상당한 무기를 갖고 있고, 지리적으로도 이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이 좋은 기회였다. 식량도 3개월분은 비축하여 있고, 때로는 바다로 나가 어부가 잡은 고기들을 약탈하면서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다. 경찰단은 매우 양민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지도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다.

原始生活にかえつた暴徒
金公安局長談

민주신문(民主新聞) 1948년 6월 5일 / 3면

수산의 보고 제주도
해녀 춤추는 꿈의 나라

수산의 보고 제주도
해녀 춤추는 꿈의 나라

공산주의자의 지도에 의한 폭동 사건으로 클로즈업 되어 온 제주도. 여기는 연산어획고 1억수천만 원에 달하는 수산보고이다. 1947년 12월말 현재 조사에 의한 어로 인구는 전업자 3,790인, 겸업자 26,526인, ○○○ 그 외 업자 4,413인, 계 34,729인(해녀어업자 9,994인 포함)이고, 해안지대의 주민은 대개 반농반어의 작업형태를 취하고 있다. 어선○수는
범선 1030, 기선 181, 계 1211척으로 그 중 기선건착망 2, 동○예망 8, 잠수기 10 등 있고, 어획고는 ○잠어업(해녀 포함) 21,068,643원, ○○○ 18,384,287원, 잠수기어업 3,139,446원, ○예망어업 2,709,522원, ○예망어업 2,418,461원, 건착망어업 3,897,649원 합 59,602,485원
이고 연산액 약 6천억 원에 이르고 있지만, 이것은 어조(漁組)를 통해서 위탁판매 된 통계 숫자일 뿐이고, ○어획고의 약 5○로 보이므로 ○○에는 1억수천억 원으로 오른다. 본도 앞바다 근해에서 행해지고 있는 어업은 ○○○○, 트롤, ○○○○, 잠수기, ○○○○, 기선건착망, ○○○○가 대표적인 것으로 ○○○○○○○○○○○○○○○○ 한편 본도 특유의 해녀어업의 ○○는 고유의 ○○이다. 나체(간단한 작업○○용)에 수○면을 걸쳐 머리에 하얀 수건을 두른 해녀들은 해초, 패류 등을 구하러 수중으로 들어가서 채취 작업을 행하고 잠수하는 수심은 대개 4,5심 혹은 10심 정도이며, 작업은 보통 10시에 시작해서 ○○시에 끝난다. 1일 어업 횟수는 2,3회로 1회 어업 시간은 대개 1시간 내외이다. 어업 시간 중 잠수 횟수는 19회 또는 20회 정도이고 잠수 시간은 보통 2,3분 혹은 4,5분 정도로 숙련자는 1회 10분 이상도 매우 잘 잠수한다고 말한다. 해녀어업은 상당히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대개 12,3세부터 해변에서 연습을 시작하고 16,7세쯤에는 1인으로서 숙련자가 된다고 말한다.

水産の寶庫濟州島

海女おどる夢の國

共産主義者の指導による暴動事件でクローズアップされてきた濟州島とはさこいは年產數億圓一億數千萬圓にも達する水產資源である、一九四七年十二月末現在の調查による漁業人口は [illegible]

[illegible]

민주신문(民主新聞) 1948년 6월 12일 / 2면

제주도의 소요 여전히 확대

제주도의 소요 여전히 확대

(서울발=KIP) 제주도의 소요 사건은 날이 갈수록 확대의 일로를 걷고 있다. 경찰사령부에서는 지난 1개월간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습격=경찰서 113건, ○○관 8건, 관공서 3건, 선거사무소 18건
△ 납치=경찰관 4, 동(同)가족 4, 관공리 11, 양민 289
△ 행방불명= 경찰관 3
△ 테러=관공리 2, 양민 2
△ 사망=경찰관 23, 동가족 13, 양민 2, 관공리 2, 폭도 119
△ 부상=경찰관 119, 동가족 2, 양민 65, 관공리 6, 폭도 8
△ 무기 피해= 총 20, 탄환 231
△ 무기 회수=총기 8, 탄환 249
△ 방화=경찰서 4, 부락 4, 양민가옥 213, 관공리 가옥 6
△ 파괴=경찰관사 2, ○○ 4
△ 검거인원=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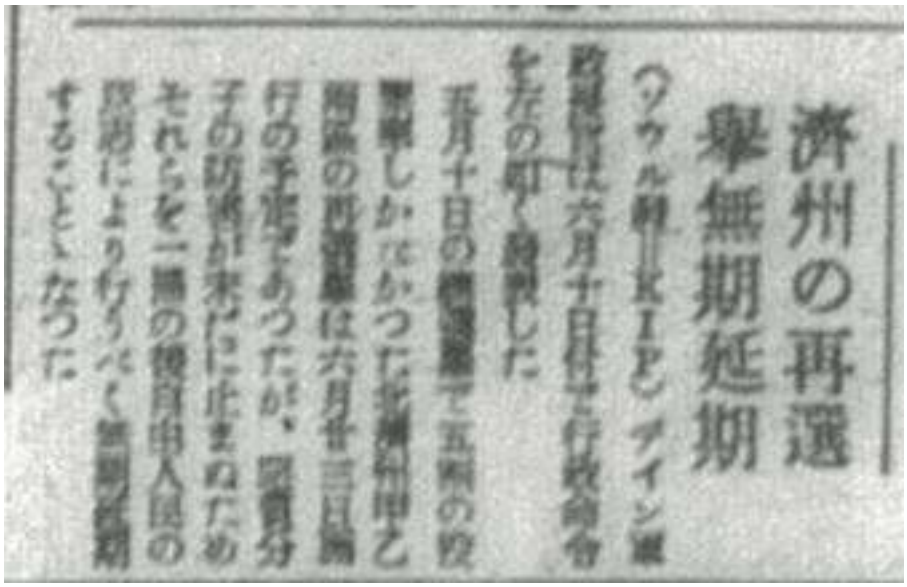
濟州道の騷擾
なお擴大

민주신문(民主新聞) 1948년 6월 19일 / 3면

제주도의 재선거 무기 연기

제주도의 재선거 무기 연기

(서울발=KIP) 딘 군정 장관은 6월 10일자로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5월 10일의 총선거에서 5할 투표율밖에 없었던 북제주 갑을 양구의 재선거는 6월 23일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공산분자의 방해가 아직 멈추지 않아 그것을 일소한 후 자유인민의 의지로 행해져야 하므로 무기 연기하기로 했다.


濟州の再選
擧無期延期

(ソウル縣=KIP) ディン軍政長官は六月十日付で行政命令を左の如く發表した

五月十日の總選擧で五割の投票率しかなかつた北濟州甲乙兩區の再選擧は六月廿三日施行の予定であつたが、罷賣分子の防害が未だに止まぬためそれらを一掃の後自由人民の意思により行うべく無期延期することゝなつた

민주신문(民主新聞) 1948년 7월 3일 / 2면

일본 재무장 명확히 기괴한 독도의 참사 한독당 담(談)

일본 재무장 명확히 기괴한 독도의 참사 한독당 담(談)

(서울발=공화) ○○○선전부에서는 작금의 주요한 사건○○○ 다음과 같이 담화를 발표했다.
1. 미국 최근의 대일정책○○방향을 통해서 재무장을 하려는 것이 명확하다. ○○제2차 대전의 위대한 ○○○○○○단하는 것이고, 또한 ○○○을 ○○부활시키려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세계의 어떤 국가도 상관없이 이것에 찬동하는 국가는 없을 것이다. 만약 있다면 일본만이 환영하고 있을 것이다. 40년간 왜구약자와 결사 항전해 온 조선민족으로서는 소요○○일으켜 이 야○분쇄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2. ○도○사는 실로 괴이한 것이다. 우방 미국이 특히 과학의 고도로 진보하고 ○○한 미공군의 손으로는 도저히 걸리는 것을 하는 현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라도 우리 국토, ○○○로서 ○○○이유가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 특별히 미국이 일본을 재무장 시켜 ○○○○○○ 것이다. ○○○○○○에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
3. ○○○○에 대해서 금년도 ○○작은 한발로 인해 5할도 감수할 것이라고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수집할○을 감소하지 않은 것은 빈곤한 농민대중의 생활을 한층 ○○ 중에 내려 혼란시키는 국○을 조장하는 것이다.
4. 전력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현상이 계속된다면, 전도는 ○○한 세태를 현출할 것이다. 미 당국에는 빨리 민간대표를 파견하여 해결하도록 요망한다.
5. 제주도 사건의 책임자를 구명함과 동시에 현명한 실력자를 ○○○○ 정책으로 위로하는 것이 무력 해결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日本再武装明らか

奇怪な獨島の慘事

韓獨黨談

ソウル発[illegible]部では昨今の[illegible]事件[illegible]左のごとく談話を発表し[illegible]

一、米国最近の對日政策[illegible]対[illegible]して再武装をなさんと[illegible]するのが明らかである[illegible]第二次大戦の偉大な[illegible]脅するものであり[illegible]を[illegible]せしめる[illegible]と思われる、よつて世界[illegible]かなる國家を問わずこれに警戒する國家はないであろう、もしあるなら日本だけが[illegible]していることであろう、四十年間侵略者[illegible]と[illegible]してきた朝鮮民族としては[illegible]けつ起してこれが野望の[illegible]を封ずるであろう

二、獨島慘事は實に怪異とするものである、友邦米國がごとくに[illegible]の高度に[illegible]せる米空軍の手ではとうていかかることをする理[illegible]ないのみなら[illegible]でもわが領土、わ[illegible]物として[illegible]る[illegible]ないものと思う、別に[illegible]日本の[illegible]しめて[illegible]せているとのこと[illegible]の所爲ではなかろうかと[illegible]ある

三、[illegible]政策にたいして今年度[illegible]はかんばつにより五割も減收するものと予想されるにもかゝわらず[illegible]を減少しないのは、[illegible]の中に陥らしめ[illegible]せる[illegible]ものである

四、[illegible]にたいして今までの[illegible]されるならば前途は[illegible]を採用するであろう、米軍側には[illegible]表を[illegible]して解決するよう[illegible]する

五、[illegible]事件の責任者を究明すると同時に[illegible]實力者を[illegible]政策で[illegible]するのが武力解決より効果的であろう

민주신문(民主新聞) 1948년 11월 6일 / 1면

한(恨)의 38도선
해결의 길은 남북통일뿐

한(恨)의 38도선
해결의 길은 남북통일뿐

〈판독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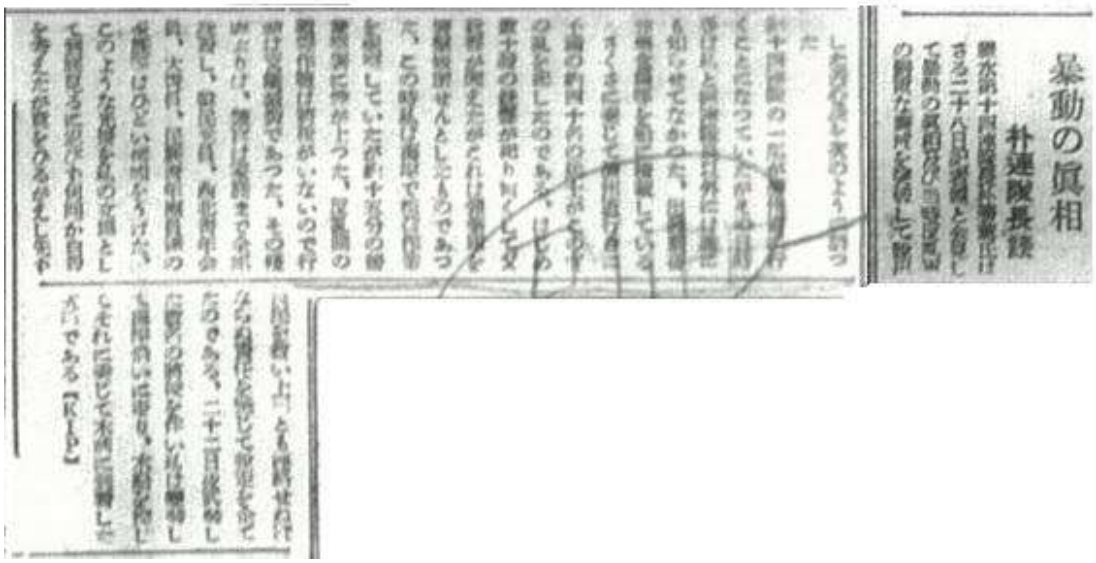
うらみの卅八度線
解決の道は南北統一のみ

민주신문(民主新聞) 1948년 11월 20일 / 2면

폭동의 진상 박연대장 이야기

폭동의 진상 박연대장 이야기

여수 제24연대장 박○○ 씨는 지난 28일 기자단과 회견하고 폭동의 진상 및 당시 반란 〈이하 판독불가〉


暴動の眞相

민주신문(民主新聞) 1949년 3월 26일 / 1면

제주도의 조사 보고
이 국무총리, 기자단에 이야기하다

제주도의 조사 보고
이 국무총리, 기자단에 이야기하다

평온으로 돌아가는 것도 곧 가까움

〈판독불가〉

済州道の調査報告

李国務総理、記者団に語る

もに平間戻お近るん

민주신문(民主新聞) 1949년 3월 26일 / 1면

내무장관의 보고, 적당한 선전·계몽이 필요
폭도는 무의식적인 주의자

내무장관의 보고, 적당한 선전·계몽이 필요
폭도는 무의식적인 주의자

(서울발=KIP) 제주도의 사○○○에 대해서는 그 후 한라산을 중심으로 산악지대에 아직 소수의 ○○가 남아서 치안을 혼란시키고 있다. 한편 공산분자는
〈판독불가〉

内務長官の報告

適当な宣伝啓蒙が必要

暴徒は無意識的な主義者

5월 10일에 선거

5월 10일에 선거

○○처장 김○○는 제주도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담화를 발표했다.
작년 5월 10일 총선거 때에는 제주도 갑을 지구 반란 때문에 ○○ 선거 실시하는 것을 못했다. 그 후 오늘까지 2월 10일자의 행정명령 22호를 공포해서 임시적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최근 ○○○○의 현지시찰로 군관단의 협력에 의해 곧 완전 진압이 예상되므로, 오는 5월 10일 갑구 지구의 선거를 감행하기로 했다. 곧 대통령으로부터 이에 대한 행정령이 공포될 것으로 생각한다. 제주도는 이것을 기회로 한층 국가를 위해 ○○○○할 것을 요망한다.

민주신문(民主新聞) 1949년 3월 26일 / 1면

제주도의 치안 목전
이 참모총장 담(談)

제주도의 치안 목전
이 참모총장 담(談)

(서울=KIP) 육군 참모총장 이○○ 소장은 호남지방 및 제주도의 치안에 대해서 ○○ 다음과 같이 담화를 발표했다.

제주도 및 호남지방은 아직 폭도가 출몰하여 폭행을 행하고 있으므로, 이 지방의 ○○는 문자 그대로 ○○의 고통을 외치고 있다. 이것은 이 대통령의 ○○하는 바이며 또한 당국으로서도 ○○을 참을 수 없는 상태이다. 이 때문에 ○방면의 ○을 악화하여 일대○○○을 전개하고 있다.

제주도는 작년 4월 7일 사건 이래 아직 진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일반 국민은 이외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나, 폭도는 게릴라 폭동을 행하고 있어서 그○○은 곤란하고, 그 완전한 진압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한층 국가 협력이 필요하다. 만일 폭동을 발견한다면 즉시 군에 보고하고, 또한 군의 행동을 폭도에게 들키지 않게 군관민 일체가 되어 하루라도 빨리 제주도 및 호남지구가 평화○로서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

濟州道の治安近し

[영화 소개] 민족의 절규

[영화 소개] 민족의 절규

공산주의자들은 조국에 무엇을 남겼는가!
제주도의 현상을 봐요!! 공산주의자들의 전형적인 악행을!!
주일대한민국대표단 제공·한국독립기록영화제작단 작품
민족의 절규 제3편 제7권
건설의 발소리 높은 우리 조국의 전모
인민공화국에 매달린 조련의 선량한 동포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봐요. 그리고 조국을 알고, 조국을 팔려는 매국적 모략도 알라!!
감수 대한민국 대통령 변공실
대한민국 육해군 정보과

민주신문(民主新聞) 1949년 4월 23일 / 1면

제1분과 위원회 제주도를 시찰

제1분과 위원회 제주도를 시찰

(서울발=KIP) 국련신한국위원단 제1분과 위원회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반부터 약 1시간에 걸쳐 김우석 내무장관과 회견했다. 또 공보관 쟈밧토 씨는 11시 30분부터 덕수궁에서 기자단과 회견하여 다음과 같이 일문일답 했다.

문- 이번 제1분과 위원회가 제주도를 시찰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답- 제주도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이다.

문- 제주도 및 전남 반란지구의 시찰은 한국 정부의 요청에 의한 것인가

답- 제1분과 위원회 자체 의사에 의한 것이다.

문- 5월 10일 실시할 제주도 국회의원 보결 선거를 감시할 예정인가

답- 이 문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第一分科委員会
済州道を視察

민주신문(民主新聞) 1949년 4월 23일 / 1면

집 없는 민중 30만 구호에 일치협력을 요망
이 대통령 부부 제주도를 시찰

집 없는 민중 30만 구호에 일치협력을 요망
이 대통령 부부 제주도를 시찰

(서울발=KIP)

〈판독불가〉

家なき民衆三十万
救護に一致協力を要望
妻夫領統大李
察視を道州済

이승만 대통령 지방 민정을 시찰

이승만 대통령 지방 민정을 시찰

(서울발=KIP) 적색분자 게릴라에 의해
〈판독불가〉

李承晩
大統領
地方民政を視察

민주신문(民主新聞) 1949년 5월 7일 / 3면

이재민 구제에 관심
이 국무총리 담화

이재민 구제에 관심
이 국무총리 담화

이 대통령의 남한 지방 민정시찰에 대해서 이범석 국무총리는 대요 다음과 같이 담화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남한 각 지방의 행정 상태를 시찰하기 위해 22일 ○ 열차로 출발했다. 대통령의 지방 시찰은 ○○○ 〈이하 판독불가〉

罹災民の救済に關心

민주신문(民主新聞) 1949년 5월 7일 / 3면

포학 무도한 판결
해주애국청년에게

포학무도한 판결
해주애국청년에게

〈판독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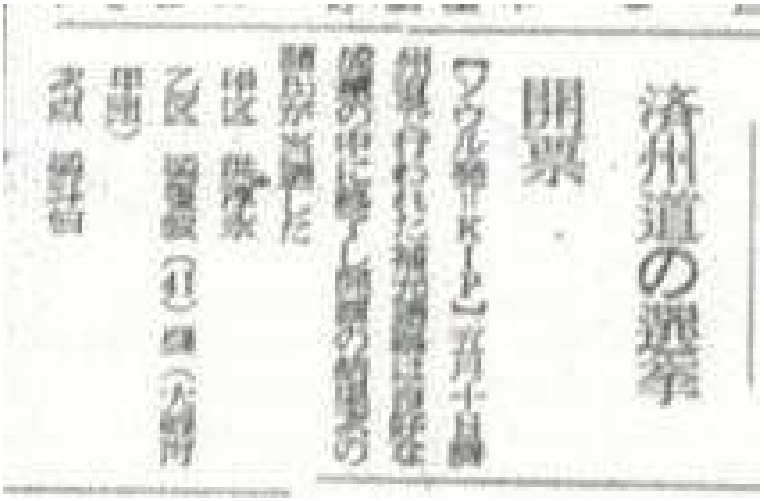
暴虐無道な判決
海州愛國青年に斷

민주신문(民主新聞) 1949년 5월 21일 / 1면

제주도의 선거 개표

제주도의 선거 개표

(서울발=KIP) 5월 10일 제주도에서 행해진 총선거는 양호한 성적으로 완료하고 개표 결과 다음의 제씨(諸氏)가 당선되었다.
갑구 홍순영
을구 양병직(41) ○ (대한○○단)
차점 양두백



민주신문(民主新聞) 1949년 5월 21일 / 3면

제주도의 치안 이루어지다
장 내무차관 기자단과 회견

제주도의 치안 이루어지다
장 내무차관 기자단과 회견

(서울=KIP) 장경근 내무부 차관은 지난 27일 중앙○기자단과 회견하고 당시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문일답을 했다.

[문] 제주도 국회의원 총선거 준비 상황은 어떻게

[답] 5월 10일 제주도 갑을지구 국회위원 선거를 앞에 두고 양 선거구에서의 ○○○○는 매우 활발하고, 국민의 선거○○도 25일 현재 갑구 95% 을구 96.9%의 호성적으로 입후보자도 갑구 7명 을구 10명이 있어 ○○○○ 있다.

[문] 제주도에서의 최근 치안 상태는 어떻게

[답] 국군과 경찰의 헌신적인 진력에 의해 매우 평온하고, 이 2,3주간 이내에는 안전한 치안이 회복될 것으로 확신한다.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의 경과는 양민 사망 2명, 부상 5명으로 인민군○의 ○○, 사상 백20명, ○○ 3백40명, 기타 무기를 다수 압수했다.

[문] 38선 경계에서의 경비 상황은 어떻게

[답] 북한 무장군의 국부적인 ○○은 있지만, 남한의 국방○○군의 활약에 의해 전면적인 침입의 공포는 없을 것으로 믿는다.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의 북한 무장군의 월경 건수는 경기도 30건 2,130명, 강원도 40건 2,410명이고, 이로 인한 ○○군○○ 사망 10명, 납치 2명, ○○○○ 사망 백5명, 부상 25명, 기타 무기 다수를 압수했다.

済州道の治安成る

張内務次官記者団と会見

【ソウル＝KIP】張警務部次官は去る二十七日中央記者団と会見し当面の問題に関して次の如き一問一答を行つた

【問】済州道の国会議員選挙状況は如何

【答】五月十日の済州道甲乙地区の国会議員選挙を前にして同選挙区における警備事情は極めて良好であり、島民の選挙登録も二十五日現在甲区九五％乙区九六、九％の好成績で立候補者も甲区七名乙区十名が出てその手腕を競つている

【問】済州道における暴徒の治安状況は如何

【答】国警並に陸警の献身的な努力により極めて平静であり この二、三週間内には完全な治安が回復されるものと確信する、三月二十日より四月二十日迄の総撃は島民の死亡二名負傷五名で人民軍側の損害、死亡百二十名、捕虜三百四十名その他武器多数を押収した

【問】三八境界線における警備状況は如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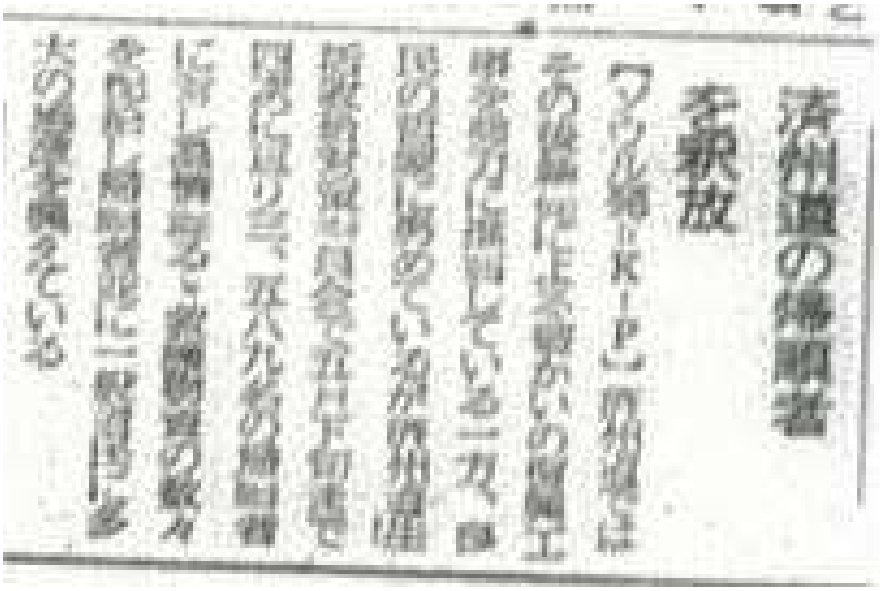
【答】北韓武装軍の局部的な越境はあるが、国軍の国防警備隊の活躍により急な局部的な侵入の恐れはないと確信する、三月二十日より四月二十日迄の北韓武装軍の越境件数は、京畿道三十件二二三〇名、江原道四十件二、四一〇名でありこれによる警備隊の損害死亡十名、拉致二名、南韓側の損害死亡百五十名、負傷二五名その他武器多数を押収した

민주신문(民主新聞) 1949년 6월 18일 / 1면

제주도의 귀순자를 석방

제주도의 귀순자를 석방

(서울발=KIP) 제주도에서는 그 후 ○○에 의한 ○○부흥공사를 노력해서 추진하고 있는 한편, 양민의 석방에 노력하고 있다. 제주도 생활개선대책의 국회에서 5월 하순까지 4차에 걸쳐 3,589명의 귀순자에 대해 ○○. 구호물질의 많은 것을 배급하고 귀순자 및 일반 도민에게 다대한 격려를 펼치고 있다.



민주신문(民主新聞) 1949년 7월 16일 / 2면

혼미기의 사회, 빨간 사상에 대한 반성

혼미기의 사회, 빨간 사상에의 반성

공산당이라고 자칭하는 자의 행동이 최근 급격히 불합법화하고 있다. ○○는 남선(南鮮)에서의 여수 폭동을 비롯해 제주도 폭동, 일본에서 ○○○, 이미 보고 있다. ○○○○○○의 폭력에 의한 ○○점○, ○○○가 보이는 이상한 태도 등 인심에 심각한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 그것에 또 하산(下山)○○○○의 괴사 사건의 ○생을 봤다. 하산 사건의 진상은 따로 해서 여론에서는 공산주의자의 정치적 테러로 보고 있는 ○○이 대중의 마음을 교배시키고 있다. 공산주의와 정치적 테러는 차의 양바퀴와 같은 관계로 역사적 사실이 이것을 ○○하고 있다. ○○러시아 시대의 테러 그 외 각 국에 무수한 사례를 남기고 있다. 일본 공산당에 의한 폭력 행사는 동(同)당의 내면에 국가 질서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볼셰비키류의 ○○○가 있는 것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

공산주의자가 기도하는 혁명적 전술의 제일보는 먼저 ○○을 통해 인심에 공포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공산당의 ○○○ 서장이 「공산당은 전술의 대가이다」라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산주의자가 장 씨에 대한 자폭자기적 실망에서 폭력전술이 나온다면, 그들은 이미 일종의 실패주의자가 되어 있어서 시작과 끝이 좋지만, 그들이 이것을 예정의 전술로서 하고 있다면, 불합법은 알고 있는 채 행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것을 대처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평시○○○○사건은 그들의 계획 실행의 사전연습으로 최근 제반 정세에서 보고 이런 종류의 ○○, 테러 행위가 앞으로 발발할 것을 예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양에서의 공산주의 유행은 차가운 전쟁이라고 명명된 사상기에서 이미 ○○○에 들어가 있다. 그런데 이것이 사회 불안의 작위적 ○○ 혹은 폭력에 의해 나타나기에 이른 이상, 이 대책으로는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들의 전선의 제일선으로 ○○ 인형과 같이 춤추고 있지만, ○○을 주체로 하는○○단체라는 것은 ○○○사실이다. 냉정한 객관적 ○○가 불가능한 일부 단원이 「혁명의 ○○○」 등이라고 말하는 선전에 춤춰 ○○의 정치○○○ ○○○ ○○○○○○○○○ 공산주의를 한 때○발판으로 조국 완전독립을 외친 사람이 이제는 미라를 파내러 간 사람이 미라가 되었기에 ○지의 사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때 우리가 호소할 것은 건전한 판단력이 예리하게 되는 것이다. 공산주의자가 합법적으로 존재를 인정받는 것은 원칙론으로서는 납득되지만, 그것은 ○○건으로 ○절체적인 것은 아니다. 그들의 행동이 폭력적이 되고 테러화하고 사회 질서와 조화하고 ○○○적 성격을 갖는다면 그들에 대한 ○의 보호의 ○는 당연함과 동시에 ○○한 반동사상과 정책을 ○○○○○○○○○○○○○○○해야 한다.

무솔리니는 북이탈리아에 퍼져 가는 적색 일소를 목표로 해서 ○○○○○○

극좌도 없었지만, 이에 대한 국민의 냉정한 판단력의 결여는 극우에 구실을 만들고 말았다. 스페인의 투우사는 먼저 빨간 헝겊조각을 보이거나 쿡쿡 지르면서 맹우를 놀라게 하면서 일을 한다. 말할 것도 없이 사물은 모양보다 실상이다. 빨간 깃발을 본 것만으로 필요 이상 놀라게 되는 것은 투우사 및 투○주를 오르게 할 뿐이다. 모든 것은 건전한 대중의 판단력이 국가를 구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조국에서의 김구 사건, 일본의 하산 사건은 이런 의미에서 공산주의자에게도 일반 대중에게도 깊은 자성의 ○○을 주고 있다.

混迷期の社会

—赤い思想への反省—

■ 기관지(機關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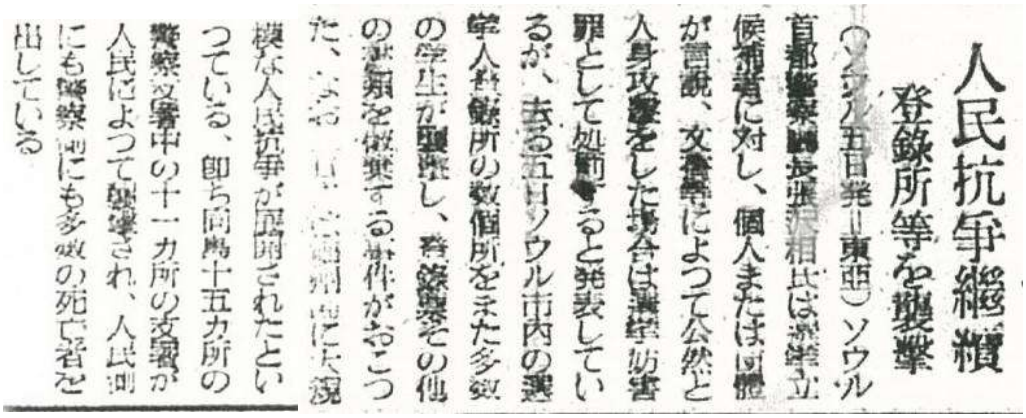
민청시보(民靑時報)

민청시보(民靑時報) 1948년 4월 25일 / 1면

인민항쟁 계속
등록소 등을 습격

인민항쟁 계속
등록소 등을 습격

(서울 5일발=동아)
서울 수도경찰국장 장택상씨는 선거입후보자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가 언설, 문○ 등을 통해 공공연히 인신공격을 한 경우는 선거방해죄로 처벌한다고 발표했는데, 지난 5일 서울 시내의 선거인등록소의 수개소를 또다시 다수의 학생들이 습격하여, 등록표와 기타 서류를 파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에 대규모 인민항쟁이 전개되었다고 한다. 즉 동 섬의 1십5개소의 경찰 또는 서내의 1십1개소의 지서가 인민에 의해 습격받고 인민측에도 경찰 측에도 다수의 사망자를 냈다.


人民抗爭繼續
登錄所等を襲撃
(ソウル五日発=東亞) ソウル
首都警察廳長張澤相氏は選挙立
候補者に対し、個人または団體
が言説、文書等によつて公然と
人身攻撃をした場合は選挙妨害
罪として処罰すると発表してい
るが、去る五日ソウル市内の選
挙人登錄所の数個所をまた多数
の学生が襲撃し、登錄票その他
の書類を破棄する事件がおこつ
た、なお[illegible]に大規
模な人民抗爭が展開されたとい
つている、即ち同島十五カ所の
警察支署中の十一カ所の支署が
人民によつて襲撃され、人民側
にも警察側にも多数の死亡者を
出している

인민항쟁 격화일로
사망 60명의 대충돌

*이후 8월 25일까지 민청시보는 검열 때문에 중단

인민항쟁 격화일로
사망 60명의 대충돌

(경성특신 2일발=AP특○)
미군당국은 1일, 메이데이에 제주도에서 인민항쟁이 발생하여 6인이 살해당했다며 다음과 같이 언명했다.
항쟁은 5월 10일 남선에서 발생한 총선거에 반대하는 인민에 의해 이뤄졌으며, 약 5십명의 게릴라대가 제주 근처의 1개 부대를 습격하여 경찰대와 3시간에 걸쳐 교전하여 쫓아냈다. 제주도에서는 4월 2일 항쟁이 일어난 이래 게릴라대원, 촌민, 경찰의 사망자는 합계 6십명에 달했다. 현재 조선경비대 2천2백명이 경관대를 원조하여 약 3천명으로 알려진 게릴라대와 싸우고 있다. 이 게릴라대는 제주도당국에 대해 경관대의 무장해제와 미국이 주도하는 5월 10일의 총선거 중지를 요구하는 ○○통지를 수교(手交)했다.
또한 지난 4월 28일 오후 8시경에는 대정 관내 5개소에 방화 궐기 사건이 발생하여 이와 때를 같이하는 〈판독불가〉 단정반대, 인민공화국 만세를 ○창하며 시내를 데모행진했다.

人民抗爭激化の一路
死亡六十名の大衝突

민청시보(民靑時報) 1948년 8월 25일 / 1면

8·25선거 준비 추진
남선 각지에서 활발히 전개

8·25선거 준비 추진
남선 각지에서 활발히 전개

오는 8월 25일의 최고인민회의대의원 선거는 남북을 통틀어 치러지는데, 이승만 매족정권이 테러와 무력으로 지배하고 있는 남선에서 실제로 선거가 치러질지 여부는 큰 의문이었다. 그러나 통일과 자주독립을 위해서 더욱 용감하게 싸우고 있는 남로당으로서 민전(民戰)에 절대적인 지지와 함께 싸울 결의를 가진 남선의 전 인민은 남북 지도자협의회의 결의와 제5차 북선인민회의의 결의가 조국의 위기를 구하는 단 하나의 길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남선의 인민은 모든 것을 바쳐서 이 선거의 완전한 실시에 모든 노력을 바치고 있는 것이다. 그 준비 상황을 불충분하면서도 손에 넣은 통신에 의해 정리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먼저, 제주도의 산간해방부락을 비롯해서 전남·경남·경북의 해방지구 및 그 영향하에 있는 근처 도시, 부락에서는 그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적인 선거가 인민의 손으로 치러지는 일은 충분히 예상되는 바이다.

경성

한편 반동테러가 일상인 서울과 부산 등의 대도시에서도 7월 30일 합동통신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선거인명부를 만들고 있던 1십여명이 ○○서에 검거되었으며, 29일에도 마포관내에서 같은 사건으로 3명을 체포했다. 또한 30일 아침에는 시내 모처에서 등록인명부가 압수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7월 27일 서울 자유신문의 보도를 보더라도 종로경찰서가 압수한 서류에 서울 각구의 입후보로

영등포구 박○목 외 7명
용산구 허○ 외 7명
종로구 유○○ 외 1십2명
○○구 허○○ 외 1십명
서대문구 박○준 외 7명
동대문구 이단하 외 9명
중구 김대준 외 7명
성동구 김기도 외 6명

등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

인천

또한 인천내에서도 투표용지가 압수당하고 많은 관계자들이 검거당했는데, 이러한 당국과 수사검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발히 진행되어 10일에는 부내 각처에 입후보자의 성명이 붙여지고 정당별로도 표기되어 부민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들 몇 개의 통신만을 보더라도 많은 희생과 휘험을 무릅쓰면서도 선거 준비는 착착 추진되고 있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
광주에서도 8·25선거 운동은 활발히 진행되어 광주의원 1십수명, 광주지방검찰○, 사업원 등의 관리를 비롯 저축은행, 식산은행 등의 민관기간에서도 다수의 선거운동자를 검거하고 있지만 여전히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八、二五選擧準備進む
南鮮各地で活發に展開

第23號
1948年8月25日
朝鮮民主青年同盟総本部
発行所 東京都中央区(旧木戸ビル)1ノ3
発行人 朴在魯
定價1圓

来る八月廿五日の最高人民会議代議員選擧は南北を通じて行われるのであるが、李承晩傀儡政権がテロと武力で支配している南鮮で果して選擧がやれるかどうかは大きな疑問であつた。しかし統一と自主独立のためにもつとも断固に斗つている南労党を始として南鮮に絶対的な支持と共に斗う決意をもつている南鮮の全人民は、南北朝鮮諸政党社会団体連席会議と第五次北鮮人民会議の決議、祖国愛の情熱を救うたゞ一つの道であることをよく知つている。だから南鮮の人民は全力をさげてこの選擧の成功をなすためにあらゆる努力をはらつているのだ。その準備のもようを不充分ながらもこゝに入れた通信によつてまとめてみるとだいたいつぎのとうりである

京城 一方反動テロが日増のおそろしさを加えているソールや釜山などの大都市でも七月三十日合同通信が伝えるところによると、選擧人名簿を作つていたもの十餘名が銃殺に処せられたり、二十九日にも麻浦警察内で同じような事件で三名を逮捕している。また三十日の朝には市内某所で投票人名簿が押收された事件がおこつている

また七月二十七日ソール自由新聞の報道をみても、鎮路警察署が押收した選擧ボイコット人民の立候補者として

永登浦区 朴憲永外七名
龍山区 許憲外七名
鍾路区 裵成奎外十二名
麻浦区 許成民外七名
西大門区 杜聖東外七名

東大門区 李祖淵外九名
中区 金昌奎外七名
城東区 金基遠外六名
等が既に決定されている

仁川 また仁川市内でも投票用紙が押收され多くの関係者が検挙されているが、このような当局やつきの捜査検挙にもかかわらず、いぜん活発に進行され十日には府内各所に立候補者の氏名がはり出され政党別までも表記されて府民を驚かせている

これらいくつかの通信だけをみても、多くの犠牲と危険をおかしながらも選擧の準備は着々と進められていることがはつきりわかる

光州でも八・二五選擧運動は活発に行われ光州鎮員十数名、光州地方検察廳、同法院等の官廳をはじめ財務銀行、電業銀行等の民営機関からも多数の選擧運動者を検挙しているが、依然活発に展開せられている

민청시보(民靑時報) 1948년 9월 15일 / 4면

박 대령 암살사건
“민족애” 때문에 저지른 행동
인권옹호연맹이 감형 요망

박 대령 암살사건
“민족애” 때문에 저지른 행동
인권옹호연맹이 감형 요망

(서울 28일발=신아)
조선인권옹호연맹에서는 28일 제주도 박 대령 피고인 문상길 외 3명에 대한 총살형 언도에 대해 이를 반박하는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1, 본건 피고인 및 증인 임부택(음)(박 대령의 참모장)의 진술에 따르면 박 대령은 대장의 지켜야할 방침을 무시, 방기하여 전 도를 서쪽부터 포위하여 습격하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체포감금, 서북청년과 대동청년단원만을 석방하고 일반도민을 무차별적으로 고문 또는 사살했다.
2, 이러한 대령의 방식에 경비대원은 불만을 품게 되었는데, 오히려 박 대령은 중령에서 대령으로 영진(榮進)됨과 동시에 공로상 수여식이 치러지고 미군 고문관의 손에서 직접 대령증을 하사받았다. 이에 대해 피고인 등은 박 대령은 일신의 영달을 위해 민족을 살상한 자로 판단하여 3십만 도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갖고 박 대령을 살해하는 이외 방법은 없다고 확신하여 공로상 수여받은 당일 밤 범행을 감행한 것이다.
3, 이상의 사실을 통해 본 경우 피고인들은 실로 민족을 사랑하는 정의의 감정에서 분노를 억누르고 범행을 감행한 것이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형의 판정에는 반드시 동기를 ○○한다는 행형상의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민족정의를 수호하는 견지에서 감형 재판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요망한다”
1948년 8월 28일
조선인인권옹호연맹
또한 제주도사건 현지조사의 목적을 갖고 구성된 민간조사단은 목포에서 제주도로 향하려 할 때 2회에 걸쳐 당국에서 출항 중지를 명령받고 9월 2일 어쩔수 없이 경성에 돌아왔는데, 일행은 목포 체류중 입수한 자료를 통해 조만간 그 진상을 발표한다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民族愛"故の行動

人権擁護連盟が減刑を要望

朴大領暗殺事件

【ソウル廿八日発＝新亞】朝鮮人権擁護連盟では廿八日済州島朴大領殺害人文昌官外三名に対する銃殺刑宣告に対し、これを反ばくするつぎのような声明書を発表した

一、本件被告人及び証人任官民（朴大領の陰謀者）の陳述に依れば朴大領は隊長の就任方針を無視、ほう棄して大道を西から包囲よう撃し、老若男女を問わず手あたり次第に逮捕監禁、西北青年と大同青年団員のみを釈放し一般島民を無差別に拷問又は射殺した

二、こうした大領のやり方に警備隊員は不満を抱くようになったが、かえって朴大領は中領から大領に昇進されると同時に功労賞の授与式が行われ米軍顧問官の手から直接大領階級を下付された、これに対して被告人等は朴大領は一身の栄達のため民族を殺傷するものと判断し三十万島民の生命を救うためには自己の生命をとしても朴大領を殺害する以外方法はないと確信し功労賞の授与された当夜犯行を敢行したものである

三、以上の事実を通じてみた場合被告人らは真に民族を愛する正義の義憤において憤りを抑えて犯行を敢行したものであることは疑う余地がない、したがって刑の判定には必ず勘議を要しやくするとの行刑上の新本府に基いて「民族正義」を守護する見地から減刑の裁判があらんことを要望する

一九四八年八月二十八日

朝鮮人人権擁護連盟

なお済州島事件真相調査の目的をもって編成された民間調査団は木浦から済州島に向わんとするとき三回にわたって当局から出発中止を命ぜられ、やむなく京城にかえってきたが一行は木浦滞在中入手した資料によって近くその真相を発表するとの声明文を発表している

민청시보(民靑時報) 1948년 10월 10일 / 2면

사망자 50명
제주도 재차 험악화

사망자 50명
제주도 재차 험악화

(서울 1일발 합동)
지난 4월 3일을 기해 폭발한 제주도 사건은 토벌대의 맹렬한 활동에 기인하여 한때는 ○○되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었는데, 지난 9월 26일부터 다시 활발해져 대동청년단장 살해 등의 사건이 부분적으로 약기(躍起)하여 10월 1일 오후 10시 내무부 당국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10월 1일 오후 7시를 기해 새로운 사태가 발생하여 경찰관과 폭도 간에 격렬한 교전이 전개되고 있다고 전해졌으며 이미 5십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死者五十名
濟州島再び險惡化

민청시보(民靑時報) 1948년 10월 10일 / 2면

비행기도 출동

비행기도 출동

(서울 2일발=KIP)
오전 10시 소위 남조선국회에서 오 내무부장관은 남조선 치안상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서울 시내 목동에서 경관 3명이 습격을 받아 1명이 살해당했다. 제주도에서는 민중의 조직적인 공격이 행해져 이 때문에 경찰 및 국방군은 비행기를 갖고 출동했다. 또한 돈암동(제주도)에서도 무기 6십개를 압수했다.
인천에서도 경관 살해사건이 있었으며 남조선 일대의 치안상태는 긴박해지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만전의 준비를 대책중이다.

飛行機も出動

(ソウル二日発=KIP)午前十時いわゆる南朝鮮國会において吳内務部長官は南朝鮮治安狀態につきつぎの如く語つたソウル市桂洞において警官三名が襲撃を受け一名が殺害された済州島では民衆の組織的な攻撃が行われ、このため警察および國防軍は飛行機をもつて鎭圧に出動している、また敦岩洞(済州島)においても武器六十個を押收した
仁川においても警官殺害事件があり、南朝鮮一帶の治安狀態は緊迫しているが政府は、これに萬全の準備を対策中である

반동, 섬에서 도망가다
제주도 군대도 인민편

반동, 섬에서 도망가다
제주도 군대도 인민편

(평양 16일 방송)
제주도 15일발 합동통신에 따르면 9일 오후 1시경에는 한라산 및 가시오름(산의 명칭) 부근에서 무장인민대와 소위 국군 간에 치열한 산악전이 전개되었다고 한다. 또한 서울 10일발 합동통신에 의하면 반동테러단체독촉국민회 고문위원장 명제세는 신문기자에게 독촉제주도지부장 김충○으로부터 온 서간을 공개했는데, 서간에 의하면 제주도의 사태는 날로 험악해지고 반동분자는 매일같이 습격당하고 국방군은 잇달아 탈출하고 인민○○에 가담하여 총부리를 반동분자들에게 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반동○○○○○는 제주도에서 앞다퉈 본토로 도망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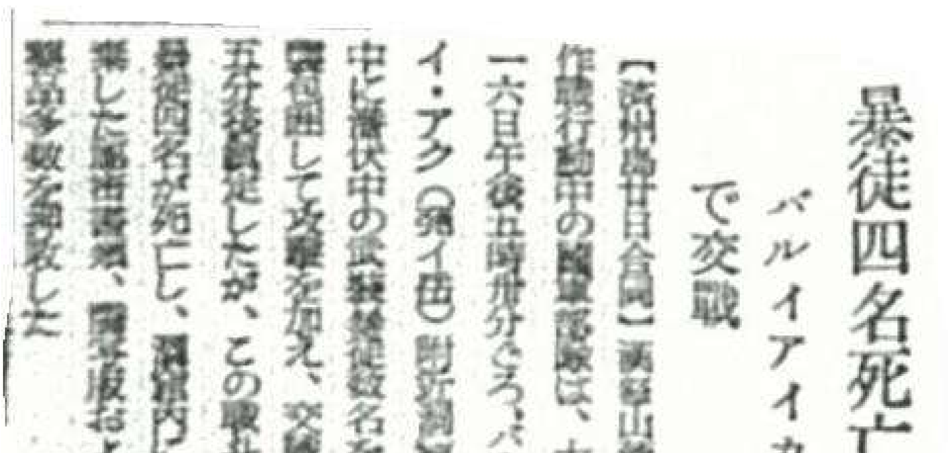
反動、島を逃出す
済州島 軍隊も人民へ味方

【ピョンヤン十六日放送】済州島十五日発合同通信に依れば、九日午後一時頃には、漢拏山およびカシオルム(山の名称)附近で武装人民軍と、所謂国軍の間に、猛烈な山岳戦が展開されたという。またソウル十日発合同通信に依れば反動テロ団体独促国民会顧問委員長明済世は、新聞記者に独促済州島支部長金○○から来た書簡を公開したが、書簡によれば、済州島の事態は日に険悪化して反動分子は毎日の如く襲撃され、国防軍はつぎつぎと脱出し、人民部隊に加担して銃先を反動者達にむけている このために反動[illegible]は済州島より先を争って本土に逃げているという

폭도 4명 사망
발이악에서 교전

폭도 4명 사망
발이악에서 교전

(제주도 20일 합동)
한라산자락을 작전행동중인 국군부대는 10월 16일 오후 5시경 발이악(發이岳) 부근 동굴 속에 잠복중인 무장 폭도 수명을 기습 포위하여 공격을 가하고 교전 15분 후 진정되었는데, 이 전투에 폭도 4명이 사망하고 동굴 안에 방기한 기밀서류, ○○○ 및 ○품 다수를 압수했다.



暴徒四名死亡
バルイアイカで交戦

【済州島廿日合同】漢拏山麓を作戦行動中の国軍部隊は、十月一六日午後五時卅分ごろ、バル・イ・アク（発イ岳）附近洞窟の中に潜伏中の武装暴徒数名を奇襲包囲して攻撃を加え、交戦十五分後鎮定したが、この戦斗に暴徒四名が死亡し、洞窟内に放棄した機密書類、[illegible]被および[illegible]品多数を押収した

민청시보(民靑時報) 1948년 11월 3일 / 1면

제주도에 폭동 재발

제주도에 폭동 재발

(서울 27일발=건설)
남조선의 반란군에 호응하여 또한 24일부터는 제주도에서는 공산분자로 이뤄진 폭동이 재발하여 전 도에 통신이 절단되고, 해안가 일대는 완전히 봉쇄되고 말았기 때문에 도내에서 폭동분자의 활동상태는 전혀 지금까지 불명이다.

(제주도 28일발 합동)
지난 23일 오전 9시경 제주도의 남동방면에서 약간명의 무장민이 시가 외곽에 접근 내습하여 수비경비대가 발견하여 교전이 수분 이어졌는데 쌍방 모두 피해는 없었다. 또한 이날 오후 6시경 무장민 약 4십5명이 조천면 하○지서에 내습하여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었다고 한다.

(제주 29일발 합동)
지난 24일 절단된 경비전화 수리를 위해 동료 수명과 함께 북제주내 애월면 수산리 방면에 출장한 제1구 경찰서 김창태 순경은 전화수리중 무장민의 습격을 받고 용감하게 교전을 치렀지만 결국 순직했다. 나머지 동료는 2시간에 걸친 결사적인 격전 후에 이들 항민을 격퇴하고, 나무 위에서 연락을 취하고 있던 항민 2명을 체포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25일 오후 1시경 제주촌 오동리에서는 제주촌의 주민 1명이 항민에 의해 살해당하고 1명은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남조선의 긴박한 정세를 보면 인민들 모두가 정당성을 인민 자신이 결정하여 인민적 항쟁은 확대될 가능성이 다대하다.

済州島に暴動再發

【ソウル廿七日発＝建設】南朝鮮の反乱軍に呼應して、また廿四日からは済州島において共産分子からなる暴動が再発、全島に通信が切断され、同島は完全に封鎖されてしまったので、島内における暴動分子の活動状態は全然未だ不明である

【済州島廿八日発合同】去る廿三日午前九時ごろ、済州島の南[illegible]面より若干名の武装民が南[illegible]支署に襲撃来襲したが、守備警備隊の到着するところとなり交戦数分後撤退したが双方とも被害はなかった、また同日午後六時ごろ武装民約四十五名が朝天面下警察支署に襲撃してし烈な攻防戦を展開したといわれる

【済州廿九日発合同】去る廿四日射殺された警備隊員捜査のため同僚数名と共に北済州郡涯月面水山里方面に出動した第一区警察署金[illegible]巡警は、同地捜索中武装民の襲撃を受け果敢にも交戦を続けたが遂に殉職した、残りの同僚は二時間にわたる決死的な援護の後にこれら武装民を撃退し、木の上で連絡を取っていた武装民二名は逮捕した事件が発生し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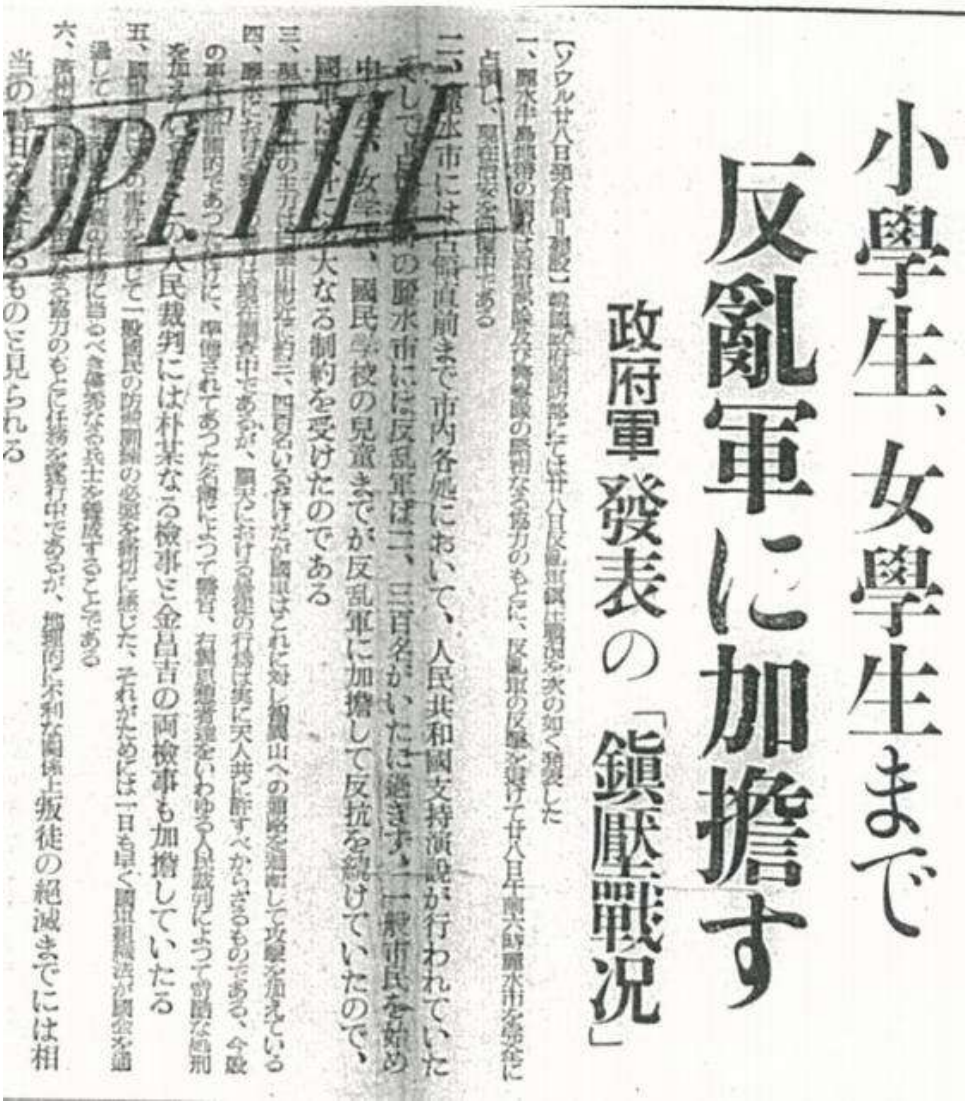
また廿五日午後二時ごろ済州村[illegible]里では、済州村の住民一名が武装民によって殺害され一名は重傷を負った事件が発生した、南朝鮮の急迫した情勢を見れば、人民たちがいずれが正当性を人民自身が判決して人民的抗争は拡大される可能性が多大である

민청시보(民靑時報) 1948년 11월 3일 / 1면

소학생, 여학생까지 반란군에 가담하다
정부군이 발표한 '진압 전황'

소학생, 여학생까지 반란군에 가담하다
정부군이 발표한 '진압 전황'

(서울 28일발 합동=건설)
한국정부 국방부에서는 28일 반란군 진압 전황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1, 여수반도지대의 국군은 해군부대 및 경찰대의 긴밀한 협력 하에 반란군의 반격을 물리치고 28일 오전 6시 여수시를 완전히 점령하여 현재 치안을 회복중이다.
2, 여수시에서는 점령 직전까지 시내 각처에서 인민공화국 지지 연설이 이뤄지고 있었다. 그리고 점령전의 여수시에는 반란군은 2,3백명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일반시민을 비롯해 중학생, 여학생, 초등학교 아동까지가 반란군에 가담하여 반항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군은 전투에 큰 제약을 받았던 것이다.
3, 현재 국군 주력은 백운산 부근에 약 3,4백명 있을 뿐이지만 국군은 이에 대해 지리산으로 가는 통로를 차단하고 공격을 가하고 있다.
4, 여수에서 〈판독불가〉 현재 조사중인데 순천에 있는 폭도의 행위는 실로 천인공노할만한 것이다. 이번의 사건은 계획적이었던 만큼 준비되어 있던 명부를 통해 경관, 우익사상자들을 소위 인민재판으로 가혹한 처형을 가하고 있었다. 이 인민재판에는 박모 검사와 김창길 두 검사도 가담하고 있었다.
5, 국군당국은 이 사건을 통해 일반 국민의 방○훈련의 필요성을 통감했다. 이를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국군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판독불가〉 임무를 맡을 우수한 병사를 편성하는 것이다.
6. 제주도군대는 ○○의 밀접한 협력 하에 임무를 수행중이지만 지리적으로 불리한 관계상 반도의 절멸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小學生、女學生まで
反亂軍に加擔す

政府軍發表の「鎭壓戰況」

【ソウル廿八日発合同＝初設】韓國政府國防部にては廿八日反亂軍鎭壓戰況を次の如く発表した

一、麗水半島地帯の國軍は海軍隊及び警察隊の緊密なる協力のもとに、反亂軍の反撃を退けて廿八日午前六時麗水市を完全に占領し、現在治安を回復中である

二、麗水市には占領直前まで市内各処において、人民共和國支持演説が行われていたそして[illegible]の麗水市には反乱軍は二、三百名がいたに過ぎず、一般市民を始め中[illegible]、女学生、國民学校の兒童までが反乱軍に加擔して反抗を続けていたので、國軍は[illegible]大なる制約を受けたのである

三、[illegible]の主力は[illegible]山附近に約二、四百名いるだけだが國軍はこれに対し智異山への道路を遮断して攻撃を加えている

四、[illegible]における[illegible]は現在調査中であるが、順天における暴徒の行為は実に天人共に許すべからざるものである、今般の事件は[illegible]的であつただけに、準備されてあつた名簿によつて警官、右翼思想者達をいわゆる人民裁判によつて[illegible]を加え[illegible]人民裁判には朴某なる檢事と金昌吉の両檢事も加擔していたる

五、國軍[illegible]の事件を[illegible]して一般國民の防衛訓練の必要を痛切に感じた、それがためには一日も早く國軍組織法が國会を通過して[illegible]の任務に当るべき優秀なる兵士を養成することである

六、[illegible]なる協力のもとに任務を遂行中であるが、地理的に不利な関係上叛徒の絶滅までには相当の時日を[illegible]するものと見られる

DPI FILE

경찰을 습격

경찰을 습격

(광주 5일발 합동)
지난 1일 새벽을 기해 사태가 격화한 제주도에서 경관 2명과 시민 1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믿을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소위 인민해방군은 남제주군 남회지서, 중문지서를 습격했다.

警察を襲撃

민청시보(民靑時報) 1948년 11월 3일 / 1면

“남선 반란”의 원인과 전개
정확히 파악해라 인민투쟁의 현실
허 전(前)위원장과 1문 1답

“남선 반란”의 원인과 전개
정확히 파악해라 인민투쟁의 현실
허 전(前)위원장과 1문 1답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를 비롯해 세계의 민주주의 ○○는 잇달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승인함과 동시에 외교관계를 설립했다. 이 국제적 발전과 함께 1948년도 인민경제계획의 각 부문에서 예정 숫자의 돌파와 문화면에서 비약 등 국내적으로도 그 발전은 눈부시다. 반면 소위 대한민국은 인민공화국의 깃발 아래 불타오르는 인민항쟁과 ○명의 ○○○ 국군의 반란군에 의해 그들의 운명은 바람 앞의 촛불이 되어 왔다. 이 반란사건을 이용하여 군대의 증가 구실로 삼는 한편, 마치 정부의 ○○확대 소문을 퍼트리고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이 반란으로 인해 몰락의 템포를 가속하고 있다며 허 ○씨는 기자와 다음과 같이 1문1답을 실시했다(사진은 허 ○씨)

(문) 10월 20일, 여수시에서 발생한 반란사건과 이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답) 먼저 〈판독불가〉 당장에 국회를 해산하고 양 군 철수를 통해 남북을 통일한 총선거를 시행하고 민심을 수습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 필사적으로 인민을 속이고 허풍을 떨고 있는데 실제는 이러한 상황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아시아혁명의 〈판독불가〉 라고 일컬어지는 조선인민의 권리를 더욱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문) 이번 사건의 발단,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매국정책에의 분노 폭발

(답) 완전히 부패타락한 매판 파쇼 정부에 대한 인민의 분노의 폭발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목숨줄을 의지한 국군이 일어섰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이 인민의 분노의 폭발이 돌발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승만 정권의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많은 매국매족적 행위와 역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승만이 한미협정에 폭로되어 있는 것처럼, 덤까지 얹어서 국토와 자원 및 민족의 권익을 사욕을 위해 팔아치우고 혹은 인민이 먹을 쌀이 없는데 양곡매입법이라는 것을 날조해서 농민의 쌀을 군국주의를 배불리하기 위해 강권저가로 거둬들이고 인민을 아사시키고 있다. 국가의 생산과 문화를 파괴하여 브로커, 무역업자를 도와 비지와 가루를 구입하고 탐관오직과 암시장에서 그들은 돼지처럼 배부르

면서 노동자, 농민, 시민, 학생 등 전 인민의 생활을 〈판독불가〉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와 이러한 방법의 독립에 인민은 결국 떨쳐 일어선 것이다.
최근 특히 인민의 항쟁은 날로 격화하고 대○○ 및 외상 관저 ○○사건, ○○, ○○, 광주, ○○, 제주도에서 매족노반동세력○○ 및 반동○○에도 인민의 〈판독불가〉.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미 세계민주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 발전을 추진하고 국내적으로도 일하는 대중의 물질적 생활을 점차 향상시켜 간다고 한다. 눈 앞에 걸린 〈판독불가〉 하고 있는 제주도 인민항쟁에 그들의 가장 우수한 부대를 파견하려고 하는 ○○에 실로 그 부대에서 폭발한 것이다. 발단은 그들의 미친듯한 행위의 최고조의 한 점에 도달했을 때이다.

반란군에 인민의 압도적 지지

(문) 사건의 구체적인 진전내용에 대해
(답) 여수지방을 중심으로 게다가 남조선 전역의 조직 노동자 모두 무관련으로 발발했다는 사실은 종종 반동이 자신의 기만에 사용하는, 북의 게다가 공산주의자에게 조종당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완전히 내부에서 불타오른 전 인민의 억누를수 없는 분노의 폭발이다. 따라서 여수 등은 반란군 2백명○○와 함께 놀랍게도 시민, 중학생, 여학생, 소학생 등에 의해 10일 간이나 점령당하고 ○○공격군을 격퇴하여, 우수한 병력 1만2천명으로 추정했을 정도이다. 순천에서도 그렇다. 교장도 검사도 참가한 이 인민군은 〈판독불가〉 당장에 분쇄하여 이를 감행하고 민족반도자를 당당히 인민재판에 부쳐 처단한 것이다. 사건을 ○주, 남원, 부산 방면으로 확대하려고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고, 가능한 한 적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힌 후에 서서히 후퇴하여 지리산을 본거로 그 주변에서 유격전을 전개하고 있다. 10일을 경과해도 계엄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경찰은 두려움을 느껴 아직 움직일 수 없다. 이제 장기전에 돌입한 느낌이다. 이 지역 투쟁이 이 사건을 계기로 충분히 한 단계 높아지는 기초를 준비했다. 지방권력은 타도되고 있다. 이 문제는 또한 국제적으로 발전했다. 혁명을 1보 진전하는 방향으로.

이 정권의 위기 발밑에서부터

(문) 반란사건의 금후의 전망은?
(답) 여수, ○○에 들어온 반동들은 무차별적으로 인민군, 애국주의자, 중(中)여학생을 학살했다. 그리고 반란군은 양민을 죽였다는 소문을 퍼트린다. 혹은 경찰 및 외국군대를 ○강하고, 인민○○와 탄압과 매국매족 행위를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실패를 은폐하려고 한다. 반란군 사건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과소평가하려고 한다. 그러나 중대한 사실은 이 사건이 부패매판 세력과 혁명적 민주진영과의 첨예한 대립의 결과로서 폭발했다는 것을 명기하고 인민에게 유리하게 발전하고 승리에 한발 더 나아가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수 사건은 인민투쟁의 새로운 일면을 개척했다. 앞으로는 더욱 정치적으로 높게 발전할 것이다. 이 정부로서 이미 직접적으로 ○○강제매입이 불가능해져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고, 간접적으로는 이를 계기로 해서 급속히 경제적 파멸을 심화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는 서울 주재 외교통의 설명처럼 이 정권의 위기는 북에서라기보다도 남에서 즉, 그들의 발밑에서, 안쪽에서, 모든 곳에서 증대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게다가 가까운 장래에 그들이 타도될 입장에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러한 것들을 아무리 부정하고 대중을 기만하고, 매판권력을 합법화하더라도 이는 안되는 것이다. 고름은 점점 더 흘러나와 완전히 썩어서 문드러지고 있다. 남조선의 형제들은 그들의 추격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돌격에 느긋하게 나아가고 있다. 서두르고 있는 것은 그들이며, 우리는 머리를 굴릴 필요가 있다. 기분으로 상식으로 투쟁은 승리할 수 없다. 그리고 자신이 제3자적 방관자의 지위에 안주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반동적 음모 및 그 노력을 완전히 분쇄하는 것이다. 사태는 그렇게 되고 있다.

인민공화국 발전을 위해

(문) 마지막으로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지에 대해

(답) 아직도 어질어질 타락한 ○○에 자신을 잃고 있는 청년이 많다. 북조선의 형제들이 남조선의 형제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발전을 위해 희생적으로 싸우고 있는 숭고한 삶의 방식을 자신의 생활태도로 삼는 것이다. 조직에 자신을 완전히 버릴 수 없는 자신의 집착을 비판하고 싶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조직이라는 거울에 비춰서 좀 더 어른이 되는 것이다. 자신을 위해서, 먹는 것을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이유를 늘어놓는 사람일수록 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 모두를 더욱더 불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이러한 사람이 저 ○○한 반란사건을 입에 담으려고, 그것은 그저 수다쟁이이거나 아니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말했을 뿐이다. 한층 더 승리에의 확신을 강하게 당면의 활동에 전력을 다하기 위해 새로운 ○○의 발전과 함께 이러한 점을 강조하고 싶다.

"南鮮叛亂"の原因と展開

正しくつかめ人民斗争の現實

許前委員長と一問一答

賣國政策えの怒り爆發

人民の勝利へ巨歩

賣國政權への怒りついに爆發

叛亂軍に人民の壓倒支持

李政權の危機足元から

人民共和國發展のために

[주장] 남조선의 인민은 봉기했다

[주장] 남조선의 인민은 봉기했다

〈판독불가〉

主張

南朝鮮の人民は蜂起した

민청시보(民靑時報) 1948년 11월 3일 / 1면

“우리는 조선 인민의 자식” 반란군, 여수에서 인민에의 성명

“우리는 조선 인민의 자식” 반란군, 여수에서 인민에의 성명

(여수에서 특파원 27일발 시급보 합동=건설)
반군 점령 후, 바로 조직된 인민위원회의 인민공화국 지지정책 하에서 1주일을 경과한 여수는 현재는 국군의 완전탈환으로 행정제도가 대한민국행정에 연결되었는데, 이는 그 만큼의 지리적 면적이 탈환된 것을 의미하며 그 이상의 아무 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27일 발생한 화염은 서북풍의 영향을 받아 여수항과 구여수시를 완전히 뒤덮어 지금은 시 전체가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다. 순천에서 여수에 이르는 도로에 보이는 피투성이 트럭, 지프, 비참한 시체, 또한 타고 남은 자리에 남은 재봉틀과 아직까지 연기 나고 있는 가구류, 이처럼 비참한 동족상잔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이 이토록 많은 피와 재화(災禍)를 요구하는가? 이번 사건의 진상은 그 직접적인 동기보다 오히려 반군에 자진해서 가담한 인민들의 마음 깊이 쌓여 있는 그 무언가에 대한 정부의 충분한 설명으로 비로소 진상이 밝혀질 것이며, 우리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군이 협력을 얻기 위해 군, 읍, 학교 등의 책임자들을 국군사령부로 불러 환담회를 가졌지만 그들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20일에 봉기한 반란군은 수 명의 공산당 지하 지도자와 연락하여 먼저 경관을 죽이고 모든 경찰기관을 점령했다. 그리고 악질경관 적발과 우익정객 및 정부지지 청년단체 적발에는 인민위원회의 간부가 앞장서 있었다. 그들이 한국정부에 얼마나 많은 원한을 품고 있었는지는 그들에 의해 인민 제재를 가했던 사망자의 참혹한 시체를 보더라도 복수심의 일부를 엿볼 수 있다. 물론 그들은 경찰에 구치, 혹은 구치 중의 사람을 전부 석방해주었다. 이처럼 여수시를 완전히 장악한 인민위원회는 시내 여수일보사를 접수하여 23일에는 24부의 여수인민보를 창간했는데, 여기에는 그들이 행하려 했던 치부와 그들의 신조를 대변하는 몇 가지 기사를 싣고 있다. 즉 동 신문 제1면의 머리기사의 주제목인 ‘애국인민에 고함’ 부제목 ‘친애하는 동포여’의 4단을 할애해서, 반란을 일으킨 병사들의 제주도 인민군 토벌 거부의 전말과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것이 말하는 바는 ‘우리는 조선 인민의 자식이며 노동자 농민의 자식이다. 우리는 국토의 방위와 인민의 권리와 복리보호를 위해서는 목숨을 내던지고 싸울 사명을 갖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제주도의 애국적 인민을 무찰별적으로 학살하기 위해 우리를 제주도에 출동시킨 명령에 복종하기 전에 먼저 조선 인민의 자식으로서의 사명 하에 이 출동명령을 거부하고 사랑하는 동포를 위해 궐기한 것이다. 1, 동족상살 절대 반대 2, ‘미군즉시철수’와 같은 것이다. 또한 동 신문은 21일에 개최한 여수인민대회를 보도했는데 당일의 의장단은 이용기(李容起).박채영(朴採

泳).김귀영(金貴榮).문성휘(文成輝) 5명이며, 동 대회의 결의문은 1, 인민위원회의 여수 행정기구완전수립을 인정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의 지지와 충성을 맹세한다 3, 한국괴뢰정부의 철저한 분쇄를 맹세한다 4,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을 비롯하여 제반 민주개혁을 실시한다 5, 남조선의 모든 비민주적 법령을 무효로 한다 6, 친일파민족반역자 악질경관을 철저히 소탕한다 등이 그 내용이다. 반란군의 여수시 점령 전에 있었던 경관 중 현재 생존자수는 3십1명인데 그 외의 경관은 거의 살해된 모양이지만, 그 수는 아직 분명치 않다. 전남 경찰청 부청장 최천(崔天)씨는 순천과 여수 두 시의 전사경관 총수는 약 3백 명이며, 그 외의 살해 인민을 합치면 약 천 명에 가깝다고 발표했다.

"われらは朝鮮人民の子"

はん乱軍、麗水で人民への聲明

麗水にて 特派員 二十七日発

【麗水にて 特派員 二十七日発 聯合軍合同＝連設】反撃占領して二十三日には二十四日附の麗水人民戦を創刊したが、これには彼等が行わんとするところの指針と彼等の信條を物語る幾つかの記事をのせている、即ち同新聞第一面のトップ記事の主題目「警察人民に告ぐ」副題目「最後なる訓告よ」の四段抜きで、反乱を起した兵士たちの声明

うたものであり、同新聞は二十一日に創刊された麗水人民大会を報道しているが、当日の議長は次の如く述べ、共産党、文後麗の五人であり、同大会の決議文は、一、人民委員会の麗水行政機関を樹立を図む、二、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への支持と同盟を誓う三、駐留カイライ政府軍民的野郎を誓う四、経営、及び施設の民主改革を始め諸般の民主改革を断行する五、南朝鮮のあらゆる民主的活動を無知とする六、祖国統一民主反動分子撲滅闘争を人民的に展開する、などがその内容である、反乱軍の麗水市占領当時にいた警官中現在生存者数は加一名であるが、その他の消息はまだ

国連は最初、米次勝利と見ていたが、前線指揮に換えて三回目「引き揚げて来た、それにも拘らず今日には、吉報の絶えすてた形になつた、その実例は、今次反乱に各地方にある有利な海軍部隊が動員せずに傍観していたということでもわかると観察した

お願い 【昌原特報】の個人貯金証書を紛失したから、各銀本部又は支部を通じて発行するようお願い致します

제주도 총사령 사살

제주도 총사령 사살

(서울 5일발=건설)
제주도에서 국군과 경찰대의 ○○활동으로 폭도○의 피해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소위 인민군 총사령 이덕구가 총에 사살되었다고 국방부에서는 5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지난 10월 28일 제주도 고성리 작전에서 소위 인민군 총사령 이덕구 외 간부 다수가 사살되었다.

濟州島総司令射殺

【ソウル五日発=建設】濟州島では国軍と警察隊の討伐活動により、暴徒側の被害は日に日に増加しつつあるが、いわゆる人民軍総司令李徳九が遂に射殺されたと國防部では次の如き発表をした 去る十月廿八日濟州島古城里作戦においていわゆる人民軍総司令李徳九外幹部多数が射殺された

민청시보(民靑時報) 1948년 11월 23일 / 1면

제주도에 계엄령

제주도에 계엄령

(경성 18일발=공동)
이승만 한국대통령은 제주도 전역에 대해 가능한 신속하게 반란을 진정하기 위해 18일 계엄령을 포고하고 동 섬에 있는 국부(國府)군 제7연대장을 계엄령 사령관으로 임명했다.

濟州島に戒嚴令
【京城十八日発＝共同】李承晩
韓國大統領は濟州島全域にたい
してきるかぎり速かに反乱を鎮
定するため、十八日戒嚴令を布
き同島にある國府軍第七連隊長
を戒嚴令司令官に任命した

민청시보(民靑時報) 1949년 1월 1일 / 1면

경찰이 방화
제주도 항쟁

경찰이 방화
제주도 항쟁

(평양 17일발 조선중앙=건설)
제주도 인민의 무장항쟁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유혈초토작전에 임하는 이승만정부 경찰의 발광적인 망동에도 아랑곳하지않고 치열하게 계속하고 있다. 제주 11일발 합동통신은 제주도 인민에 대한 정부의 소위 소탕전의 성과를 보도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제주도 전역에 걸쳐 연일 인민들의 무장항쟁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진압하려는 경찰대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 즉 지난달 하순 인민들은 남제주의 서귀포를 급습하여 맹렬한 시가전을 전개하고 있다.

警察が放火
濟州島抗爭
【ペンキン十七日発朝鮮中央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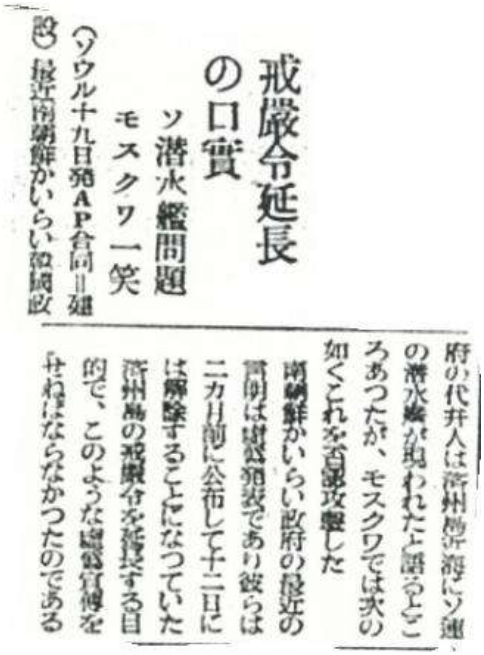
建設】濟州島人民の武裝抗爭は戒嚴令を宣布し虐殺焦土作戰で臨む李承晩政府警察の発狂的妄動をものともせずシ烈に継続している、濟州十一日発合同通信は濟州島人民に対する政府の所談を掃とう戰の戰水を報じているが、これに依ると濟州島全域にわたり連日人民達の武裝抗爭が継続されており、これを鎭圧せんとする警察隊に發展を與えている、即ち先月下旬人民達は南濟州の西亀浦を急襲して猛烈な市街戰を展開している

민청시보(民靑時報) 1949년 1월 22일 / 1면

계엄령 연장의 구실
소련 잠수함 문제
모스크바 일소(一笑)

계엄령 연장의 구실
소련 잠수함 문제
모스크바 일소(一笑)

(서울 19일발 AP 합동=건설)
최근 남조선 괴뢰한국정부의 대변인은 제주도 근해에 소련 잠수함이 나타났다고 말했는데, 모스크바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를 부인 공격했다.
남조선 괴뢰정부의 최근의 언명은 허위 발표이며, 그들은 2개월 전에 공포하여 12일에는 해제하기로 되어 있던 제주도의 계엄령을 연장할 목적으로 이러한 허위선전을 해야만 했던 것이다.



戒嚴令延長の口實
ソ潜水艦問題
モスクワ一笑

(ソウル十九日発AP合同=建設) 最近南朝鮮かいらい韓國政府の代弁人は濟州島近海にソ連の潜水艦が現われたと語るところあつたが、モスクワでは次の如くこれを否認攻撃し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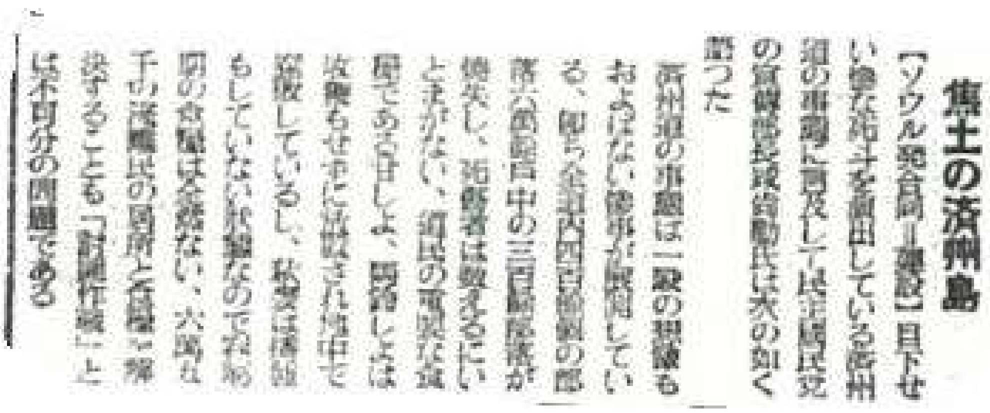
南朝鮮かいらい政府の最近の言明は虚偽発表であり彼らは二カ月前に公布して十二日には解除することになつていた濟州島の戒嚴令を延長する目的で、このような虚偽宣傳をせねばならなかつたのである

민청시보(民靑時報)	1949년 4월 6일 / 1면

초토의 제주도

초토의 제주도

(서울발 합동=건설)
눈앞에서 처참한 사투를 연출하고 있는 제주도의 사태에 언급하고 있는 민주국민당의 선전부장 함상훈(咸尙勳)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주도의 사태는 일반은 상상할 수도 없는 참사가 전개되고 있다. 즉 전 도내 4백여 개의 부락 6만여 호 중 3백여 부락이 소실되고 말았고, 사상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도민의 중요한 식량인 감자, 고구마는 수확도 못하고 방치되어 땅 속에서 부패하고 있고, 가을 보리는 파종도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춘궁기 식량은 전혀 없다.
군경이 일치 협력하여 하루라도 빨리 반도를 숙청하는 것도 급선무이나 6만 5천의 유리민(流離民)의 거처와 식량을 해결하는 것도 '토비(討匪)작전'과는 불가분의 문제이다.



焦土の済州島

【ソウル発合同＝建設】目下せい惨な光景を演出している済州道の事態に言及して民主国民党の宣伝部長咸尚勲氏は次の如く語った

済州道の事態は一般の想像もおよばない惨事が展開している、即ち全道内四百余個の部落六万戸中の三百餘部落が焼失し、死傷者は数えるにいとまがない、道民の重要な食糧である甘しよ、馬鈴しよは収穫もせずに放置され地中で腐敗しているし、秋麦は播種もしていない状態なので春窮期の食糧は全然ない、六万五千の流離民の居所と食糧を解決することも「討匪作戦」とは不可分の問題である

민청시보(民靑時報) 1949년 7월 6일 / 2면

8중(八中) 일반 보고 (전호부터 계속)
4, 이승만당의 매국적 음모와 인민학살

8중(八中) 일반 보고 (전호부터 계속)
4, 이승만당의 매국적 음모와 인민학살

서울 중심가에 소위 '킹' 탐·에오리오(왕국지역)라는 지대가 생겼다고 한다. 그것은 요즘 반도호텔과 그 부근 대지를 말하는 것으로 실은 지난 4월 20일 반도호텔에서 '반도호텔 증여식'이 거행되어 이 지역은 미국의 소유가 되었다고 통신은 전했다.
우리는 이미 작년 12월 10일 체결된 한미경제원조협정에 의거하여 남조선의 주요한 건물과 토지와 광산을 미국에 제공한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지만, 이것은 즉각 동 협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군과 남조선의 중요산업시설과 광산 및 건물은 그의 손에 의해 외국독점자본가들의 손에 제공되어 문자 그대로 식민지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작년 8월 24일에 체결된 소위 '한미군사협정'에 의해 해안경비대, 육군의 통괄권은 미국이 점하게 되어 미군이 요구하는 남반부의 지역과 기구는 미군에 제공하기로 되어 있다고 하며, 또한 작년 9월 11일에 체결한 소위 '재정 및 재산세○에 관한 한미협정'과 함께 모든 것이 매국적 협약이며, 소위 대한민국은 여지없이 독점자본주의국에게 예속되고 있는 것이다.
1947년 8월부터 48년 9월까지 부산항을 통해 수입된 설탕의 수입액은 40여억원에 달하고 있고, 수입물자의 대부분이 그 밖의 밀가루, 화장품 등이며 민족경제에 기여하는 것은 없다.
이러한 협약 하에 각종 음모가 한층 교묘해지고 은폐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우리는 더욱 큰 압력을 갖고 한 명의 병사도 남기지 않고 미군의 즉시철수를 강력히 요구해야만 한다.
전 조선인민은 이승만 도당의 매국적 매판정책과 그를 조종하는 일체의 제국주의자에 대해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민족의 독립과 국토의 통일, 즉 인민공화국의 ○○에 결집하여 소위 '대한민국'이 유엔의 불합리한 승인을 받고 유엔조선위원단은 즉각 그 뒤를 따라 입국했지만, 조선에 들어온 후 아무런 구체적인 사안을 이룬 것도 없고 이승만 정부와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이는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는 인민항쟁에 압도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이승만 정부는 미국에 특편을 파견하여 인민학살을 위한 무기원조를 애원하고 있는데, 미국의 타산과 국내 평화를 애호하는 인민의 여론은 결코 그들의 예상대로 하게는 못할 것이다. 무원고립의 입장에 있는 이승만 정부는 대륙의 중요지대에서 그 ○점을 빼앗기고 몰락의 여정을 걷고 있는 제국주의 세력의 ○○와 함께 ○○할 것이라는 사실은 불

을 보듯 명확하다. 때문에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승만 괴뢰정부는 '한일무역협정'으로 우리 민족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본 반동정부와 결탁함으로써 최후의 일책(一策)으로 삼으려는 듯하다.
최근에 금후 괴뢰정부의 ○○○○가 일본 반동정부와의 야합으로 이뤄져 제국주의세력의 주구로서의 철저한 실행화를 걷게 될 것은 뻔하다.
그들이 작년과 올해 두 해에 걸쳐 실행한 모든 반동법규, 정책과 행동이 인민을 수탈하고 인민을 탄압하는 것에 일관되고 있고, 그 ○○성과 잔인성은 과거 일제가 행한 그것보다도 훨씬 광폭한 것이다.
금일 그들은 강제공출로 인민을 아사선상으로 내몰고 세계독점자본과 일본 반동정부에 매달림으로써 경제, 정치, 문화를 식민지적인 것으로 전락시켜 반민주, 파괴, 인민○○, ○○선동정책을 일관하여 징병제도를 실시하고 학교 군사훈련을 강제하고 있음은 모두 청년과 학생으로 하여금 파쇼 전쟁으로의 길을 걷게 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빼앗은 쌀로 무기를 구입하고 이들 청년으로 하여금 그들의 부모형제를 학살하는 선두에 서게 하여 이승만 괴뢰정부와 제국주의자들을 위해 인민의 ○○를 통해 결집된 민족의 통일체인 인민공화국 정부 및 전 인민에 총을 겨누게 하는 망국의 ○○케하려고 엉터리 술수를 부리고 있다. 이에 대한 애국인민의 영웅적 투쟁은 도처에서 적의 음모와 책동을 분쇄하고 조국의 통일발전이라는 위대한 역사적 과업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이에 대해 탄압, 검거, 투옥, 학살 등을 통해 유일한 수단인 이승만 도당의 야만성은 이미 우리가 해방 이후 남반부의 현황에서 파악하고 있는 바이지만, 작년 10월 여수, 순천 반란사건 이후의 남반부의 현실은 우리에게 최후의 발악에 허덕이는 야수들의 본체가 어떠한 것인지를 남김없이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7중 기간 내에서 이승만 정부의 ○○사는 완전히 피로 얼룩져 있다. 3·1절의 민족적 기념제전 날에 그들은 남조선민○○간부를 대량 검거하여 조국애에 불타는 청년 및 학생 대중을 투옥, 검거하여 인민에 대한 학살은 일일이 헤아릴 수 없다. 5·1절에는 전평위원장을 검거하고 ○○적인 노동자 및 인민에 대한 탄압은 무너지고 있는 그들의 광폭함을 백일하에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4월 17일 평온하게 개최된 '남조선민주애국청년과 그 간부에 대한 이승만괴뢰정부의 비법적 탄압반대 청년○○대회'에서 지적 규탄받은 바에 의하면 여수 순천 등지의 반란폭동 당시는 2천5백3십명의 무고한 인민을 학살, 소위 혐의자라는 구실 하에 3월 17일부터 26일까지의 10일 간 학살당한 수만도 2백1명에 달하며, 제주도에서는 9천5백명의 인민이 이승만군과 경찰의 손에 의해 학살당했으며, 현재 3만2천5백여명이 투옥되어 있다고 한다. 즉 이것이야말로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매국적, 야만적, 반역자 이승만 도당의 피에 굶주린 몸부림의 양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탄압이 가혹해질수록 인민들로 하여금 복수와 증오에 불타서 혁명으로의 길을 걷게 하며 인민유격대를 선두로 전 인민의 격렬한 애국적 투쟁은 남반부 각지에서 그들의 군경을 분쇄하고, 강철처럼 단결하여 인민들의 투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남반부 지역의 방방곡곡에 인민공화국의 사수와 괴뢰정부 타도, 미군의 즉시철수, 신한위원단 반대 등의 피의 항쟁이 일어나 이승만정부 중앙청, 학교, 관청, 농촌, 공장을 불문하고 인민공

화국기가 게양된 사실을 볼 때, 이 인민투쟁이 얼마나 격렬하며 광범위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남반부 각지역에서는 지역적으로 인민위원회가 부활하여 토지개혁도 단행되어 해방지구가 확대되고 있다.

八中一般報告

■ 기관지(機關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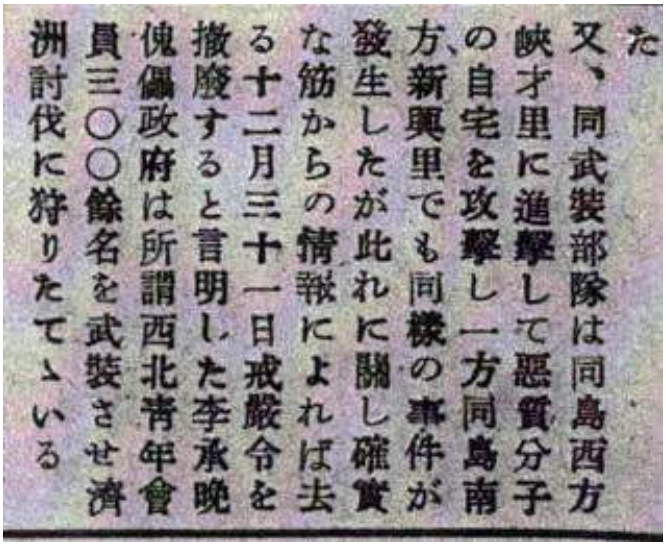
민청대판(民青大阪)

민청대판(民青大阪) 1949년 1월 25일 / 1면

제주도의 무장항쟁에 백색테러 동원

제주도의 무장항쟁에
백색테러 동원

(평양 15일 방송=해통)
이승만 괴뢰정부를 반대하는 제주도 인민의 무장항쟁은 괴뢰정부의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치열해지고 있다. 서울 5일발 공립통신에 따르면 지난 2일 제주읍내 경찰이 원인불명의 방화로 인해 전소했는데, 그 후 입수한 소식에 의하면 그날 우세한 무장항쟁부대는 ○○ 두 경찰반서를 습격 악질분자를 다수 숙청했다.
또한 동 무장부대는 동 섬 서방 협재리에 진격하여 악질분자의 자택을 공격하고, 한편 동 섬 남방 신흥리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확실한 소식통의 정보에 따르면, 지난 12월 31일 계엄령을 철폐한다고 언명한 이승만 괴뢰정부는 소위 서북청년회원 3백여명을 무장시켜 제주 토벌에 나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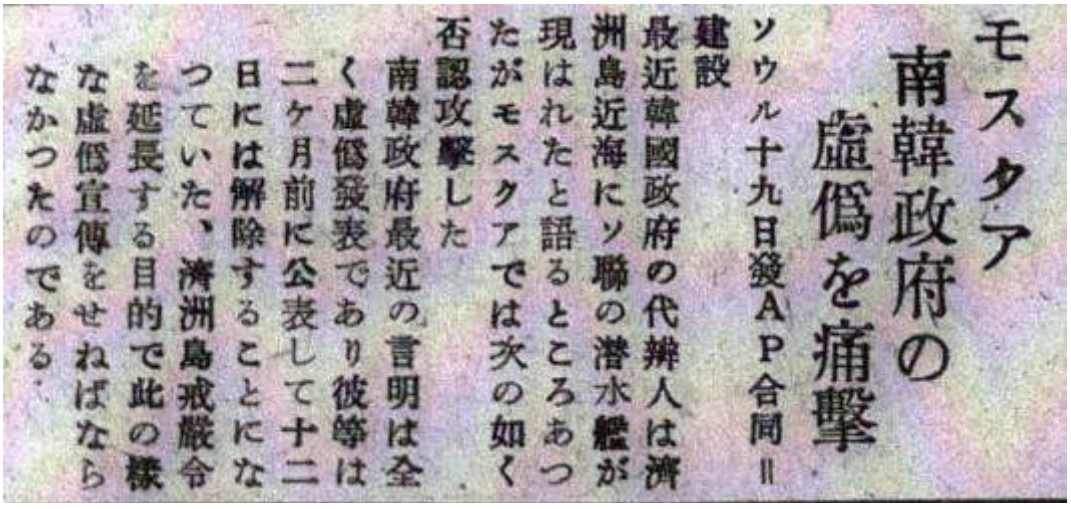

た
又、同武裝部隊は同島西方
峽才里に進擊して惡質分子
の自宅を攻擊し一方同島南
方、新興里でも同樣の事件が
發生したが此れに關し確實
な筋からの情報によれば去
る十二月三十一日戒嚴令を
撤廢すると言明した李承晩
傀儡政府は所謂西北青年會
員三〇〇餘名を武裝させ濟
洲討伐に狩りたてゝいる

濟州島の武裝抗爭に
白色テロ動員
〔平壤十五日放送=解通〕
李承晩傀儡政府を反對する濟洲島人民の武裝抗爭は傀儡政府のあらゆる彈壓にも屈せず熾烈化しているソウル五日發共立通信に依れば
去る二日濟洲邑内の警察が原因不明の放火に依り全燒したが其の後入手した消息によると同日優勢な武裝抗爭部隊は○○兩警察反署を襲擊惡質分子を多數處消し

모스크바
남한정부의 허위를 통격

모스크바
남한정부의 허위를 통격

(서울 19일발 AP합동=건설)
최근 한국정부의 대변인은 제주도 근해에 소련 잠수함이 나타났다고 말한 적 있는데, 모스크바에서는 다음과 같이 부인 공격했다.
남한정부의 최근의 언명은 명백한 허위 발표이며, 그들은 2개월 전에 공표하여 12일에는 해제하기로 했던 제주도 계엄령을 연장할 목적으로 그런 허위 선전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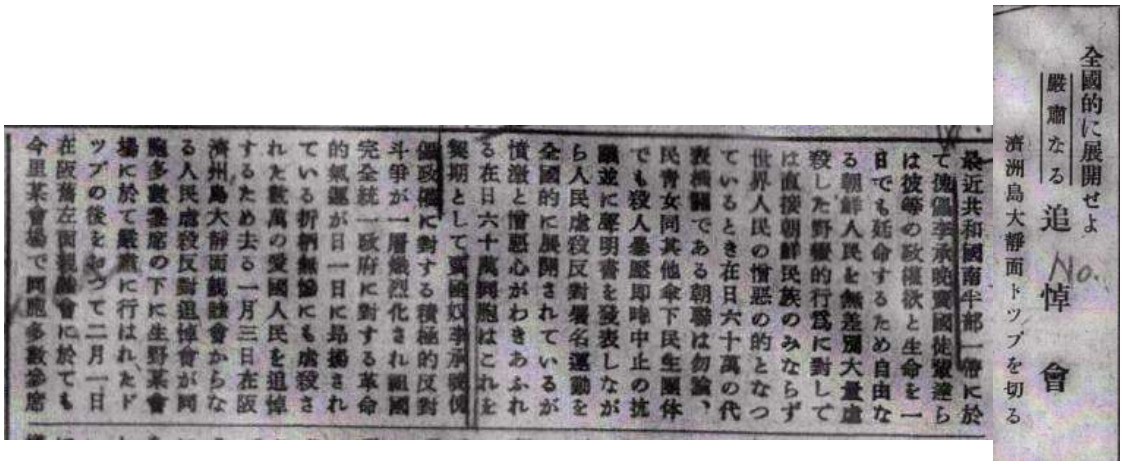

モスクア
南韓政府の
虚偽を痛撃
ソウル十九日發ＡＰ合同＝
建設
最近韓國政府の代辨人は濟洲島近海にソ聯の潜水艦が現はれたと語るところあつたがモスクアでは次の如く否認攻撃した
南韓政府最近の言明は全く虚偽發表であり彼等は二ケ月前に公表して十二日には解除することになつていた、濟洲島戒嚴令を延長する目的で此の様な虚偽宣傳をせねばならなかつたのである

민청대판(民靑大阪) 1949년 2월 5일 / 면

전국적으로 전개하라
엄숙한 추도회
제주도 대정면이 시작하다

전국적으로 전개하라
엄숙한 추도회
제주도 대정면이 시작하다

최근 공화국 남반부 일대에 괴뢰 이승만 매국도배들은 그들의 정권욕과 생명을 하루라도 연명하기 위해 자유로운 조선인민을 무차별 대량학살했다. 야만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조선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인민의 증오의 표적이 되고 있을 때, 재일 6십만의 대표기관인 조련은 물론 민청여동 기타 산하 민생단체에서도 살인폭압즉시중지의 항의 및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인민 학살 반대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분격과 증오심이 끓어오르는 재일 6십만 동포는 이를 계기로 매국노 이승만괴뢰정권에 대한 적극적 반대투쟁이 가일층 치열해지고 조국완전통일정부에 대한 혁명적 기운이 갈수록 격앙되고 있는 때에 무참히도 학살된 수만의 애국인민을 추도하기 위해 지난 1월 3일 재 오사카 제주도 대정면 친목회로 구성된 인민학살반대 추도회가 동포가 다수 참석 하에 이쿠노(生野) 모 행사장에서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이어서 2월 1일 재 오사카 구좌면 친목회에서도 모 행사장에서 동포 다수가 참석하여 비슷한 추도회가 엄숙하게 거행되었는데, 삼양리, 한림면 기타 부락단위에서도 잇달아 이러한 엄숙한 추도회가 거행되었다. 일반동포들은 전국적인 추도인민대회를 거행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全國的に展開せよ
嚴肅なる 追悼會
濟洲島大靜面トップを切る

最近共和國南半部一帶に於て傀儡李承晩賣國徒輩達らは彼等の政權欲と生命を一日でも延命するため自由なる朝鮮人民を無差別大量虐殺した野蠻的行爲に對しては直接朝鮮民族のみならず世界人民の憎惡の的となつているとき在日六十萬の代表機關である朝聯は勿論、民青女同其他傘下民生團体でも殺人暴壓即時中止の抗議並に聲明書を發表しながら人民虐殺反對署名運動を全國的に展開されているが憤激と憎惡心がわきあふれる在日六十萬同胞はこれを契期として賣國奴李承晩傀儡政權に對する積極的反對斗爭が一層熾烈化され祖國完全統一政府に對する革命的氣運が日一日に昂揚されている折柄無慘にも虐殺された數萬の愛國人民を追悼するため去る一月三日在阪濟州島大靜面親睦會からなる人民虐殺反對追悼會が同胞多數參席の下に生野某會場に於て嚴肅に行はれたドップの後をおつて二月一日在阪舊左面親睦會に於ても今里某會場で同胞多數參席

민청대판(民青大阪) 1949년 4월 20일 / 2면

이승만 살인정책에 실천적으로 동지 윤상철의 부군을 살해

이승만 살인정책에 실천적으로
동지 윤상철의 부군을 살해

오사카 민청 1만의 맹원을 대표하고 쉬는 날 없이 맹무에 분주하는 민청대판 본부 위원장 윤상철 동지의 부군(父君)이 저 악랄하기 그지없는 이승만 정권의 손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정보가 얼마 전 당 오사카 본부에도 전해졌다.
윤 동지의 고향은 제주도 중문면으로 평화로운 농촌이며 부군은 향년 62세 노인이었던 점을 보아도 이 이승만 괴뢰정권의 광폭성이 최후의 발악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윤 동지는 이 비보를 접하고 기자에게 다음과 같은 소감을 말하면서 일반 맹원의 분기를 촉구하고 특히 자신과 같은 입장에 있는 동지들이 즉각 분투에 나설 것을 요망하고 있다.

윤상철 발언

"나는 16세부터 지금까지 부모와 함께 있었던 적이 극히 단기간이었기 때문에 부모를 흠모하는 마음이 늘 절실하였는데, 얼마전 의외로 아버지가 학살되었다는 비보를 접하고 완전히 감개무량(感慨無量)했습니다. 아버지는 올해 62세의 노인입니다만, 이러한 무의식의 노인을 살해하다니 도저히 저같은 이성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전해 들은 얘기에 따르면 무조건 농민청년을 다량 검속해서 밭으로 끌어내서 중학생에게 죽창으로 살인 실험에 사용하도록 했다하니 그 잔인하고 비인간적 행위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할 여지가 없습니다.
인간 한 사람 죽이는 것을 여름날 모기 한 마리 죽이는 것보다 태연하다고 하니 근본적인 인권 따위는 하늘에 올라가서 별을 잡는 것과 다름없는 일입니다. 또한 여성 등은 보통의 복장을 하고서 마음편히 걸을 수 없다니 대체 놈들은 인간인지 도깨비인지 분별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인민 살해의 나라가 과거에 있었습니까. 이 박사의 박래(舶來)정책이라고는 하나 오랫동안 계속될 리 없겠지요. 필시 살인 정부가 오래 이어진 역사는 성립하지 않겠지요.
이런 혁명기에 국가를 위해 생명을 희생한 일은 인간으로서의 본망입니다. 나에게는 광영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버지의 유지를 계승하여 끝까지 보복할 것입니다. 저 대한살인정부를 타도해서 제국주의 세력을 철저히 구축(驅逐)한 새벽에는 숙망을 달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나와 같은 운명을 조우한 동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 동지들은 혁명을 위해서는 가일층 헌신적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맹무에 충실하여 반드시 놈

들을 우리의 손으로 그 죄상을 파헤쳐 이로써 원수를 갚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도록 활동하는 결의입니다. 그저 이렇게 생각할 따름입니다.

李承晩殺人政策に實踐をもつて

同志尹相哲の父君を殺害

大阪民青一萬の盟員を代表し、寧日なき盟務に奔走する、民青大阪本部委員長尹相哲同志の父君が、例の惡らつ限りない、李承晩政權の手に依り、殺害されたという情報が、この程當大阪本部にもたらされた

尹同志の故鄕は齊州道中文面で平和な農村であり、而も父君は享年六十二の老人であつたことを見ても、これら李承晩カイライ政權の狂暴性が愈々最後の發惡を發揮していることが伺へる

尙尹同志はこの悲報に接して記者に次ぎの樣な感想を語りながら、一般盟員の奮起をうながし特に自分と同じような立場に立つている同志諸君の卽刻奮鬪に起たれることを要望している

尹相哲談

「私は十六才から今迄親の許に一緒におつたのがごく短期間であつたから親を慕う心が常に切實なもんですが先日意外にもお父樣が虐殺されたという悲報に接して全く感慨無量でした。お父樣は今年六二才の老人ですが、この樣な無意識の老人を殺すなんて到底私等の理性では判斷の出來ないことです、話に依りますと無條件に農民青年を多量檢束して田に引つぱり出して中學生に竹槍を持たせて殺人實驗に使うというからそのむごたらしい、非人間的行爲に對してはもう表現の餘地がありません

人間一人殺すのを夏の蠅一匹殺すよりも平氣というから基本的人權なんて天に上つて星をつかむと同樣なことです、又女性等は普通の服裝でもしてうつかり歩かれんというから、大体奴等は人間か化け物かの分別さえも疑はざるを得ないのです、こんな人民殺しの國が過去あつたでしよか、李博士の舶來政策とはいえ永く續く筈がないでしよ、恐らく人殺しの政府が永く續いたという歷史は成立しないでしよう

まあこの樣な革命期に國家のために生命を犧牲にしたことは人間としての本望です、私にとつては光榮かも知りません、私は父の遺志を繼承してあく迄も報復するつもりです、あの大韓殺人政府を打倒し帝國主義勢力を徹底的に驅逐した曉には宿望を達することでしよう、日本に於ても私と同じ運命に逢つた同志が隨分居ります、この同志達は革命のためには尙一層獻身的で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ひます、私も盟務に充實して必ず奴等を我等の手でその罪狀を裁き、以て仇討ちする日が一日も早くくる樣活動する決意です、唯この樣に思うだけで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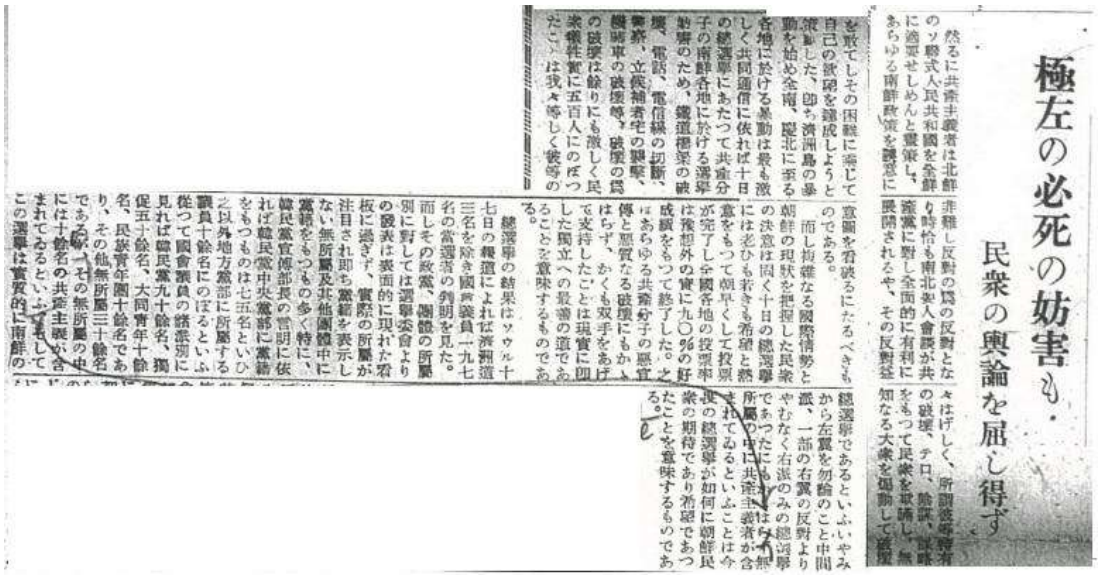
■ 기관지(機關紙)

대판민단시보
(大阪民團時報)

극좌의 필사 방해도 민중의 여론을 굴하지 못하고

극좌의 필사 방해도 민중의 여론을 굴하지 못하고

그런데 공산주의자는 북선의 소련식 인민공화국을 전조선에 적요하려고 진책하고, 모든 남선 정책을 틀린 뜻으로 비난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어 때마침 남북요인회담이 공산당에 대해 전면적으로 유리하게 전개되었고, 그 반대로 점점 격렬하게, 소위 그들 특유의 파괴, 테러, 음모, 모략으로 군중을 기만하고 무지한 대중을 선동하여 파괴를 감행하여 그 곤란을 타서 자기의 욕망을 달성하려고 대동했다. 즉 제주도의 폭동을 비롯해 전남, 경북에 이르는 각지에서의 폭동은 더욱 격렬하고 공동통신에 의하면 10일의 총선거에서 공산분자가 남선 각지에서의 선거방해를 위해 철도교량의 파괴, 전화, 전신선 절단, 경찰, 입후보자 자택 습격, 기관차 파괴 등 파괴를 위한 파괴는 매우 격렬하게 민중희생 실로 5백인에 이른 것은 우리들처럼 그들의 의도를 간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복잡한 국제정세와 조선의 현상을 파악한 민중의 결의는 굳게 10일의 총선거에는 늙거나 젊어도 희망과 열의를 갖고 아침 일찍 투표는 예상외 실로 90%의 호성적으로 완료했다. 이는 모든 공산분자의 악선전과 악질적인 파괴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쌍수를 들어 지지했던 것은 현실에 직면한 독립에의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총선거의 결과는 서울 17일 보도에 의하면 제주도 3명을 제외하고 국회의원 197명 당선자가 판명되었다. 그리고 그 정당, 단체 소속별에 대해서는 선거위회에서의 발표는 표면적으로 나타난 간판에 지나지 않았다. 실제 소속이 주목받아 즉 당적을 표시하지 않은 무소속 및 기타 단체 중에 당적을 가진 자가 많고 특히 한민당 선전부장의 언명에 의하면 한민당 중앙당부에 당적을 가진 자는 75명이라고 한다. 이외 지방당부에 소속된 의원 1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제(諸)당별로 보면 한민당 90여명, 독촉 50여명, 대동청년 10여명, 민족청년단 10여명 이고, 기타 무소속 30여명이다. 그 무소속 중에는 10여명의 공산주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선거는 실질적으로 남선의 총선거라고 말하는 싫은 소리로 좌익은 물론 중간파, 일부 우익 반대로부터 어쩔 수 없이 우익만의 총선거이었는데도 무소속 중에 공산주의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이번 총선거가 얼마나 조선민중의 기대이고 희망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極左の必死の妨害も

民衆の輿論を屈し得ず

然るに共産主義者は北鮮のソ聯式人民共和國を全鮮に適要せしめんと畫策し、あらゆる南鮮政策を誤意に非難し反對の爲の反對となり時恰も南北要人會談が共産黨に對し全面的に有利に展開されるや、その反對益々はげしく、所謂彼等特有の破壞、テロ、陰謀、詐略をもつて民衆を欺瞞し、無知なる大衆を煽動して破壞を敢てしその困難に乘じて自己の欲望を達成しようと策動した、即ち濟洲島の暴動を始め全南、慶北に至る各地に於ける暴動は最も激しく共同通信に依れば十日の總選擧にあたつて共産分子の南鮮各地に於ける選擧妨害のため、鐵道標識の破壞、電話、電信線の切斷、警察、立候補者宅の襲擊、機關車の破壞等、破壞の爲の破壞は餘りにも激しく民衆犠牲實に五百人にのぼつたことは我々等しく彼等の意圖を看破るにたるべきものである。

而し複雜なる國際情勢と朝鮮の現狀を把握した民衆の決意は固く十日の總選擧には老ひも若きも希望と熱意をもつて朝早くして投票が完了し全國各地の投票率は豫想外の實に九〇%の好成績をもつて終了した。之はあらゆる共産分子の惡宣傳と惡質なる破壞にもかゝはらず、かくも双手をあげて支持したことは現實に即した獨立への最善の道であることを意味するものである。

總選擧の結果はソウル十七日の報道によれば濟洲道三名を除き國會議員一九七名の當選者の判明を見た。而しその政黨、團體の所屬別に對しては選擧委會よりの發表は表面的に現れた看板に過ぎず、實際の所屬が注目され即ち黨籍を表示しない無所屬及其他團體中に黨籍をもつもの多く特に、韓民黨宣傳部長の言明に依れば韓民黨中央黨部に黨籍をもつものは七五名といひ之以外地方黨部に所屬する議員十餘名にのぼるといふ從つて國會議員の諸派別に見れば韓民黨九十餘名、獨促五十餘名、大同青年十餘名、民族青年團十餘名であり、その他無所屬三十餘名であるが、その無所屬の中には十餘名の共産主義が含まれてゐるといふ。もしてこの選擧は實質的に南鮮の總選擧であるといふいやみから左翼を勿論のこと中間派、一部の右翼の反對よりやむなく右派のみの總選擧であつたにもかゝはらず無所屬の中に共産主義者が含まれてゐるといふことは今度の總選擧が如何に朝鮮民衆の期待であり希望であつたことを意味するものである。

■ 기관지(機關紙)

여맹시보(女盟時報)

여맹시보 1948년 12월 25일 / 1면

남조선 일대는 동포 도살장

남조선 일대는 동포 도살장

한미협정(韓美協定)으로 명실공히 남조선은 제국주의 식민지로 변하고 이를 반대하는 진실한 애국자가 매일같이 대량적으로 고수대에 올라가고있는 현상이다. 이에대하야 재일조선민주녀성동맹 총본부상임의원회에서는 다음과같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명원의 힘을 다-내여서 구국투쟁에 매진하라고 강조했다

성명서요지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남조선을 완전히 제국주의 식민지로 예속시킨 매국노 李承晩괴뢰정부와 군대는 체후적발악으로 모-든 흉악성을 다- 발휘하야 진정한 조선인민을 남녀노소 차별없이 대량적으로 검거 투옥 학살등으로 지금 남조선 일대에는 동포도살장(同胞屠殺場)으로 변화하고있다 신문보도에 나타난것만 하여도 여수에 九六명 제주에 八九〇여명, 순천에 七〇여명, 광주에 四〇여명, 대전에 二〇〇여명을 총살하고 智異山, 五臺山에 무장대와 인민을학살했다한다 사랑하는 우리동포의 앗가운생명 두번 돌아 올수없는 귀중한 생명을 초개같이 뭇질려 없세는것은 우리조국을 다시 또우리조선 민족을 말살시킬랴는것이며 이것은 단지 우리조선사람뿐만 아니라 전세게인류가 도저히 용서할수없는 범죄(犯罪)이다 또 아래의같이 대량적으로 조세사람의 손으로 우리동포가 학살된 것은 조선역사의 처음보는 일이며 더러운 汚點이다

재일 二十만 조선녀성들도 조극인민의 영웅적 투쟁에 호응하야 애국자 대량학살에 반대하고 미군 주둔을 요청한 李承晩정부의 음모를 철저히 분쇠하고 그네들의 즉시 철회를 실현시킬 때까지 싸울것을 이에 성명한다

一, 애국인민의 학살을 즉시 중지하라

一, 미군주돈 요청에 반대하고 즉시 철병을 요구한다

一, 매국노 李承晩괴뢰정부를 분쇠하자

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一九四八年十二月六日

在日本朝鮮民主

女性同盟總本部

常任委員會

南朝鮮一帶는 同胞屠殺場

한미협정(韓米協定)으로 명실공히 남조선은 제국주의 식민지로 변하고 이를 반대하는 진실한 애국자가 매일같이 대량적으로 고수대에 올라가고있는 현상이다 이에대하야 재일조선민주녀성동맹 중본부상임위원회에서는 다음과같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명원의 힘을 다ㅣ 내여서 구국투쟁에 매진하라고 강조했다

성명서요지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남조선을 완전히 제국주의 식민지로 예속시킨 매국노李承晩괴뢰정부와 군대는 체후적발악으로 모ㅣ든 공의성을 다ㅣ 발휘하야 진정한 조선인민을 남녀노소 차별없이 대량적으로 검거투옥 학살등으로 지금 남조선 임대에는 동포도살장(同胞屠殺場)으로 변화하고있다 신문보도에 나타난것만 하여도 麗水에九六명 濟州에八九〇여명 順天에七〇여명 光州에四〇여명 太田에二〇〇여명을 총살하고 智異山、五臺山에 무장대와 인민을 학살했다한다 사랑하는 우리동포의 앗가운생명 두번 돌아 올수없는 귀중한 생명을 초개같이 못질터 없세는것은 우리조국을 다시 또 우리조선민족을 말살시킬마는것이며 이것은 단지 우리조선사람뿐만아니라 전세계인류가 도저히 용서할수없는 범죄(犯罪)이다 또 아래와같이 대량적으로 조세사람의 손으로 우리동포가 학살된것은 조선역사의 처음보는 일이며 더러운汚點이다 재일二十만 조선녀성들도 조국인민의 영웅적 투쟁에 호응하야 애국자 대량학살에 반대하고 미군주돈을 요청한 李承晩정부의 음모를 철저히 분쇄하고 그네들의 즉시 철퇴를 실현시킬까때지 싸울것을 이에 성명한다

一、애국인민의 학살을 즉시 중지하라

一、미군주돈 요청에 반대하고 즉시 철병을 요구한다

一、매국노 李承晩 괴뢰정부를 분쇄하자

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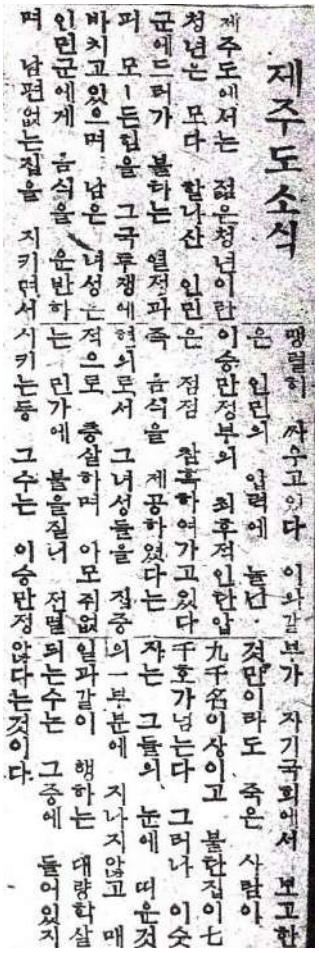
一九四八年十二月六日

在日本朝鮮民主女性同盟總本部常任委員會

제주도소식

제주도소식

제주도에서는 젊은청년이란 청년은 모다 할나산 인민군에 드러가 불타는 열정과 피 모-든 힘을 그국투쟁에 바치고있으며 남은 녀성은 인민군에게 음식을 운반하며 남편없는 집을 지키면서 맹렬히 싸우고있다. 이와 같은 인민의 압력에 놀난 이승만정부의 최우적인 탄압은 점점 참혹하여가고 있다. 즉 음식을 제공하였다는 혐의로서 그녀성들을 집중적으로 총살하며 아모쥐없는 민가에 불을질너 전멸시키는등 그수는 이승만정부가 자기국회에서 보고한것만이라도 죽은 사람이 九千名이상이고 불탄집이七千호가넘는다 그러나 이숫자는 그들의 눈에 띠운것의一부분에 지나지않고 매일과같이 행하는 대량학살되는수는 그중에 들어있지않다는것이다.


제주도소식

맹렬히 싸우고있다 이와같은 인민의 압력에 놀난 이승만정부의 최우적인탄압 젊은청년이란 청년은 모다 할나산 인민군에드러가 불타는 열정과 피모-든힘을 그국투쟁에 바치고있으며 남은 녀성은적으로 총살하며 아모쥐없는 민가에 불을질너 전멸시키는등 그수는 이승만정부가 자기국회에서 보고한것만이라도 죽은 사람이 九千名이상이고 불탄집이七千호가넘는다 그러나 이숫자는 그들의 눈에 띠운것의一부분에 지나지않고 매일과같이 행하는 대량학살되는수는 그중에 들어있지 남편없는집을 지키면서 싸우고있다. 이와 같은 인민의 압력에 놀난 이승만정부의 최우적인탄압은 점점 참혹하여가고 있다. 즉 음식을 제공하였다는 혐의로서 그녀성들을 집중적으로 총살하며 아모쥐없는 민가에 불을질너 전멸시키는등 그수는 이승만정부가 자기국회에서 보고한것만이라도 죽은 사람이 九千名이상이고 불탄집이七千호가넘는다 그러나 이숫자는 그들의 눈에 띠운것의一부분에 지나지않다는것이다.

여맹시보 1949년 7월 25일 / 1면

고대하던 조국통일의 날은 왔다 전여성(全女性)들은이러스자 선언

고대하던 조국통일의 날은 왔다
전여성(全女性)들은이러스자
선언

二五일 평양모란봉극장에서 열린 남북조선 七十一 애국정당사회단체대표 七百四名의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결성대회에서 실력으로서 이정권을 타도하며 九月에는 전조선의 립법기관의 선거를 실시하여 평화적으로 조국완전독립과 국토완전을 기할 단계에 이르렀다는 북조선 노동당 장순명씨의 제안을 만장一치로가결하여 大會선언과 강령을 채택하였다. 조국 통일 민주주의전선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천할것을 남북조선의 전체 민주정당 및 사회단체에 호소하였다.

선언

一, 조국의 평화적 통일사업은 조선인 자신이 인식하여 우리를 인민의 손으로 반듯이 실천한다.

二, 우리들은 조국의 평화적통일에 방해되는 미군이 우리조선에서 즉시 철퇴할 것을 요구한다.

三, 우리들은 비합법적 기관인 소위「국련조선위원단」을 우리국토로 즉시 철퇴할것을요구한다.

四, 우리들은 남북 조선을 통한 립법기관의 선거를 남북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제의한다.

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희망하는 민주주의 제정당 사회단체의 대표로서 구성하는위원회의 지도하에 이선거를 실시한다.

六, 조국의 평화적 통일 계획을 토의하기 위하여 남북조선 제정당 사회단체는 대표자 협의회를 열어서선거지도위원회를 구성한다.

七, 립법 기관의 선거는 一九四九年에 실시한다. 이선거는 일반적 평등적 비밀투표의 원측에 의하여 실시한다(일본 통치시대에 일제에열성적으로 협력한자는 선거권을박탈한다)

八,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같은 대책을 실시한다.

(가)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와 그 활동가에 대한 탄압을 금지한다.

(나)전체 민주주의 제정당 사회단체를 합법화하며 그이들의 자유스러운 활동권을 보장한다.

(다)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의 출판기관등에 대한 폐간 지령을 취소하며 모-든 민주주의 제정당 사회단체에 대한 출판기관을 소유할권리를 보장한다.

(라)언론 출판 집회 군중대회시회등의 자유를 보장한다.
(마)검속당한 모-든 정치법인을 즉시 석방한다.
10, 선거지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가)남북조선에 있는 정부와 그기관에 대하여 선거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한다.
(나)자기의 결정지시 실행을 검열한다.
(다)선거지도위원회가 구성하는위원회를 통하여 조선에서 외국군대의 철퇴를 감시한다.
九, 총선거지도위원회를 구성함과 동시에 남북조선에 있는 경찰 보안 기관등은 선거지도위원회의 직접 관할 아래 옮긴다.
선거지도위원회는 경찰대부터 친일파 일본경찰과 헌병대에 복무하든자는 제외하며 제주도 인민항쟁부대 남조선 유격운동의 탄압대에 참가한 경찰대를 해산시킨다.
一一, 총선거의 결과 수립된 최고립법기관은 조선공화국의 헌법을 채택하여 그 헌법에 따라서 정부를 구성하여 정부부터 정권을 전부접수하여 그 정부를 해산시킨다.
一二, 남북조선에있는 군대는 민주주의의 기초에 의하여 조선공화국정부로서 해제한다. 제주도 기타의 지대에서 인민항쟁과 파르치산운동탄압을 한 남조선(국방군부대)를 해산시킨다.
인민항쟁과 파르치산운동 진압에 참가한 자는 군대에 복무할것을 금지하며 그 탄압을 선동한 자 조직한 자들은 처형한다.
민주주의의 제정당 사회단체 전체인민에 제의한다.
우리들의 평화적 조국통일 계획은 以上과 같다.
우리들은 전체 인민이 우리들의 제의를 열광적으로 지지할것을 확신하는바이다. 만일 반동이 평화적 통일사업을 방해할때는 조선인민으로부터의 처단을 면하지 못할것이다.
조선인민은 조국의 통일과 민주화와 독립을 위하여 전진하는 것이다.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자는 그 도상에서 처단당할것이다.

통일민주주의독립 만세
영원히 통일된 조선인민 만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대회 만세

고대하던 조국통일의 날은 왔다

선언

全女性들은이러스자

■ 기관지(機關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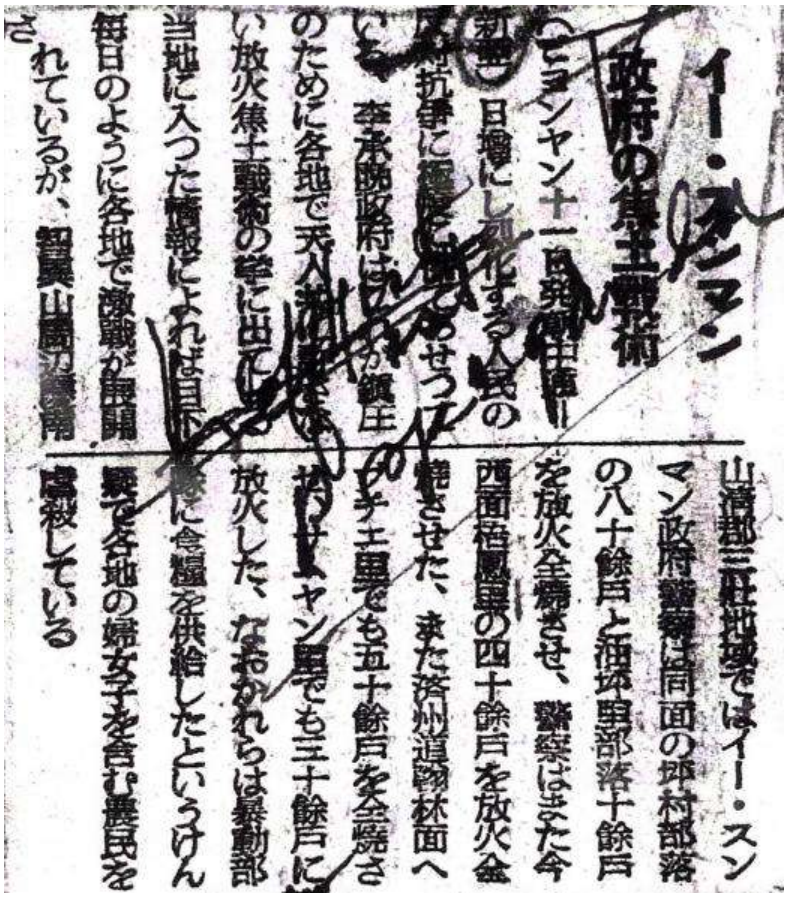
학동뉴스
(學同ニュース)

학동뉴스(學同ニュース) 1948년 1월 20일 / 1면

이승만 정부의 초토전술

이승만 정부의 초토전술

(평양 11일발 조중통=신아) 점점 더 치열해지는 인민의 반대 항쟁에 극도로 초조해하고 있다. 이승만정부는 이것이 진압을 위해 각지에서 천인공노할 방화초토전술로 나오고 있다. 당지에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목하 매일같이 각지에서 격전이 전개되고 있는데, 지리산 주변 경남 산청군 삼○ 지역에서는 이승만 정부 경찰은 동면의 평촌 부락의 1십8여호와 유평동 부락 1십여호를 방화 전소시키고, 경찰은 또한 금서면 오○리의 4십여호를 방화 전소시켰다. 또한 제주도 한림면 협재리에서도 5십여 호를 전소시켰다. 삼양리에서도 3십여 호에 방화했다. 또한 그들은 폭동부대에 식량을 공급했다는 혐의로 각지의 부녀자를 포함한 농민을 학살했다.


イー・スンマン
政府の焦土戰術
ヒヨンヤン十一日発朝中通
日増にし烈化する人民の
反対抗爭に極度に[illegible]せつ
いる、李承晩政府は[illegible]が鎭圧
のために各地で天人[illegible]
い放火焦土戰術の挙に出て[illegible]
当地に入つた情報によれば目下
毎日のように各地で激戰が展開
されているが、智異山周辺[illegible]南
山清郡三壯地域ではイー・スン
マン政府警察は同面の坪村部落
の八十餘戸と油坪里部落十餘戸
を放火全燒させ、警察はまた今
西面梧鳳里の四十餘戸を放火全
燒させた、また済州道翰林面へ
ウチエ里でも五十餘戸を全燒さ
せ、サムヤン里でも三十餘戸に
放火した、なおかれらは暴動部
隊に食糧を供給したというけん
疑で各地の婦女子を含む農民を
虐殺している

학동뉴스(學同ニュース) 1948년 12월 10일 / 1면

전 지역에 확대
남선군사투쟁에 남녀학생 봉기

전 지역에 확대
남선군사투쟁에 남녀학생 봉기

조선인민의 정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중앙정부수립을 내외에 선언한 후, 특히 남선인민의 동향을 중시하고 있는바 10월 19일, 여수에서 14연대 국군이 반란을 이르켜 이승만괴뢰정부 타도에 이러서서 본질적 해방군의 성격을 발휘한 금반, 반란사건은 조선통일운동에 있어 중대한 사건일 것이고 국제 팟소의 식민지 정책에 대하야 치열한 민족해방투쟁인 것은 재언할 필요도 없다. 사건이 여수에서 돌발된 직후 원인은 제주도해갑군 토벌에 출동하기 위하야 이대통령의 명령으로 충신이고 우수한 국군을 도발하야 여수에서 대기하고 잇든 군대인데 최근에 와서 한미협정 등, 매국적 정책의 본질을 여지없이 폭로한 반 민족적 거동에 대항한 애국적 분기이며 비로서 이 군대는 조선인민적 자각을 다시하야 제주도에서 영웅적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인민해방군에 진실한 애국적 정신을 다시곰 살이기되고 인민상살로 매국군대이냐 구국의 인민해방군대이냐라는 기로에서 반란군은 당연히 후자를 절대 지지하야 인민의 무장봉기와 합류하야 매국노 민족반역자 처단에 필사적○기한 것이다. 농민 · 노동자 · 일반시민은 물론이고 중학생 · 여학생 소학생까지 매국정부 타도에 가담하야 무장반항한 사실은 우리 조선학생뿐만 않이라 전세계 학생에게도 다대한 충격을 주지 않을 수는 없섰든 것이다 반란사건에 가담한 이유로서 중학생 · 여학생 · 소학생은 여수에서 7십6명, 순천에서 1십3명이 야만적 이 국군의 손으로 참혹한 총살을 받어 순진한 매국자로서 희생된 것이다 그랜대 이번 반란사건을 구명하야 보면 다음과 같은 근본적 원인을 열거할 수가 있을 것이다

1, 미한협정의 내용이 조선인민으로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식민지화, 매국적 협정이며 최후발악적 이승만정책이 노골히 표면화함에 인민의 애국열정이 돌발하였다는 것

2, 조선에서 양군철병을 주장하고온 조선인민은 쏘군철거성명과 약속되로 철병을 개시한 대 반면, 미군은 주둔을 술책하고 당분간 철병할 기색이 보이지 않을뿐만안이라 내정간섭이 점점 심하여가는데 대하야 불만이 충만한 것

3, 이승만경찰정책이 과거, 일제에 최대 협력자인 친일파, 민족반역자 일등급을 경찰간부에 망라하야 일제 강점기와 다름이 없이 야만적 인민탄압을 하고 있음으로 인민의 격분을 받고 있다는 사실

4, 현 국방군사령관 김석원(일제육군대좌공5급금○훈장수령자)을 선두로 한 일제 시대 조선인장교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 일파와 중경(重慶)에서 ○국한 유동열(미군정의 위촉으로 국장군을 창설한 자)을 중심으로 한 일파와의 양 우익세력의 알력

5, 쏘군은 철병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쏘·파·○등, 세계민주주의국가의 승인과 외교관계수립의 집쁜 소식이에 비교하야 남선의 암흑정책의 대한 실증

6, 추수 시기의 와서 강제공출로 농민에 대한 탄압이 가중하야 1946년 1월 인민항쟁시와 같이 격분의 절정에 왔다는 것

이러한 근본적 원인은 필연적 반란요소가 될 것이고 반란은 대구, 울산, 광주 등 남선 일대에서 파상적으로 봉기되여 지리산, 태백산 등 산악지대를 이용하야 농민 일반시민의 절대적지지, 협력 밑해 치열과감한 유격전을 건개하고 있다

全地域에擴大

南鮮軍事鬪爭에

男女學生蜂起

■ 기관지(機關紙)

학동관동시보
(學同關東時報)

학동관동시보(學同關東時報) 1949년 8월 3일 / 2면

[해설] 국토완정체제 완수 “조국전선” 강령 선언서를 해부한다

[해설] 국토완정체제 완수
“조국전선” 강령 선언서를 해부한다

(1) ‘조국전선’ 결성의 의의

지난 6월 25일 공화국 남반부의 애국적 제 정당사회단체의 제창으로 민주적 7십1정당, 사회단체 대표 7백4명이 평양에 모여 결성된 ‘조국통일민주전선’ 결성대회는 새로운 혁명 단계에 선 일대혁신과 양보를 통한 평화적 국토완정에의 획기적인 선언강령이 발표되었다. 한편 남반부의 괴뢰 이 정권은 국회가 사분오열하고 국방군의 대량○○, 미군철수로 인해 지금은 자멸의 운명에 직면해 있다.

이 대회의 의의야말로 세계사적 의의에서 또한 전 조선민족의 혁명과 장래를 결정하는 점에서 획기적 위업의 달성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회선언의 제1조에 ‘조국의 평화적통일 사안은 조선인 자신이 장악하고 우리 인민의 손으로 반드시 실천한다’ 제2조에 ‘우리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방해가 되는 미군이 우리 조선에서 즉시 철수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하고, 마지막에 ‘만일 반동이 이를 고집하고 평화적 통일사업을 방해할 경우는 조선인민에 의한 처단을 피할 수 없다. 조선인민은 조국의 통일과 민주화와 독립을 위해 전진하며, 그 길 위에 이를 방해하는 모든 것은 그 길 위에서 처단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양보’란 이승만 살인○○○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해방 4년간 수십만의 인민을 학살하고 완전 독립을 지연시킨 죄는 결코 용서해서는 안되며, 모든 인민의 처단을 피할 수 없다.

이 성문에 의한 대회의 정신이야말로 실로 ○권력에 대해 결단을 내리고 통일총선거를 통해 평화적으로 국토완정의 위업이 가능하다. 역량과 정치력을 과시함과 동시에 평화통일 투쟁으로의 구체적 당면 방침이 제의된 것이다.

(2)경이적 민주개혁발표의 성과

이러한 것은 우연적으로 도래한 현상이 아니라 해방직후부터 민주 제 과업 달성으로의 중단없이 투쟁한 성과이며, 남반부에서 국토를 선혈로 물들인 고귀한 희생의 족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 점은 해방후 4년간 북한 3·8선을 경계로 해서 북반부에서는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조선인 자신의 손으로 일제의 역○한 노예정책의 잔재와 파괴와 혼란 속에서 복구를 향한 제조건을 잘 극복하고, 일관된 조국통일에의 ○○하에 그 유명한 토지개혁을 시작하여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기타 모든 분야에 걸친 민주적 제 개혁의 경이적 발전과 남반

부에서는 테러, 투옥, 학살을 본직으로 삼는 국제독점자본주의에 ○○한 이 정권에 대한 애국동포의 영웅적 투쟁의 성과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한다면, 국제독점주의금권자본○에 사로잡힌 이승만 도배는, 수십만의 인민을 학살한 후에 공화국 남반부에 단선을 강행, 산업과 문화는 파괴되고 전 인민의 생활은 기아선상을 방황하고, 모든 자유는 약탈되어 국토는 제국주의의 아성이 되려하고 있다. 그러나 애국적 정당 및 인민은 가혹한 박해속에서도 모스크바협정의 조인을 어디까지나 지지하여 민주적 통일독립을 위해 ○를 넘어 싸웠다. 1946년 가을의 10월 인민항쟁, 1947년 3월 22일의 총파업, 1948년 2월 7일의 총파업, 나아가 5월 단선반대투쟁 등, 이들은 모두 외국군대의 철수, ○○이 정권 타도로 일관되어 있고, 치열한 투쟁이 인민공화국을 탄생시키고 나아가 이번의 '조국전선' 결성과 9월 평화적 총선거를 통한 국토완정 사업달성의 초석이 된 것이다.

(3) 평화적 통일사업

그렇다면, 그 평화적 통일사업이란 무엇인가.
첫째, 조국에서 외군을 즉시 철수시키는 것, 소위 '유엔조선위원단'을 철거시키고 매국노 이승만도배의 괴뢰정권을 타도분쇄함으로써 국토를 완정하는 일이다.
포츠담선언과 모스크바협정을 통해 당연 민주적으로 통일되어야 하는 상잔 조선이 아직 38도를 경계로 하는 남반부에는 암흑정치, 살인적 수라장이 되어 있다. 당연히 조선인민의 앞에서 처단되어야 할 일제의 종복들,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집단, 이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외래세력의 분쇄야말로 화급한 문제이다.

(4)전 인민의 자유의지로

둘째, 남북조선민주 제 정당, 사회단체 대표를 소집하여 그 협의회가 ○위하는 ○○○○ 위원회의 지도에 근거하여 오는 9월 중에 남북 총선거를 실시하여 새로운 최고입법기관과 정부를 수립하여 현존하는 남북의 정부를 접수하고 조국을 통일하는 일이다.
통일은 어디까지나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그리고 전 인민의 자유의지에 따라야만 한다. 첫째로 말한 조건이 얼마나 자주적 통일을 위해 필요하고 중대한지를 더욱 명심해야만 한다. 경찰의 탄압과 일방적 외부 간섭의 충격이 얼마나 불행한 결말을 초래하는지는 5.10 단선과 그 후 남반부의 상황이 잘 가리키고 있다.
이런 이유로 통일 방법은 국토를 완정하여 일반적 평등적인 직접선거를 통한 전 인민의 통일선거여야만 한다. 이러한 선거위원회는 (1)남북조선에 현존하는 정부와 그 기관에 대해 선거의 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지시를 내리고 (2)결정과 지시의 실행이 ○○하고 (3) 외군의 철수를 감시하는 권한이 있다.

(5)선거는 일절의 자유 하에

그리고 또한 선거위원회는 남북에 현존하는 경찰과 보안기관을 직접○○하여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으로 1, 민주적 제 정당, 사회단체 및 그 활동에 대한 탄압 폐지

2, 민주적 제 정당, 사회단체의 합법화와 자유로운 활동권 보증 3, 민주적 제 기관의 출판물의 폐간지령 최소와 자유로운 활동 보증 4, 언론, 출판, 집회 시위, 신앙의 자유 보증 5, 일절의 정치범의 석방 등이다
이상의 기본방침의 하나하나가 평화적 통일 실현을 위해 우리는 반드시 투쟁해야만 하는 절실한 과제이다.
셋째, 이미 남반부의 각지에 해방지구가 생긴 것을 보도된 것과 같이 이미 해방지구에는 강압되고 있었다. 인민위원회가 부활하고 있다.
이상의 제 투쟁으로 인해 이 정권을 타도하고, 전적으로 인민위원회를 부활 합법화시키고 신 선거위원회 하에 일반적 평등적 비밀선거가 실시되는 것이다. 여기에 3천만 인민이 남과 북을 통틀어 문자 그대로 통일선거가 실시되면 새로운 입법기관은 인민공화국의 헌법을 채택하여 남북의 현존 정부를 접수하여 남북에 현존하는 군대도 그 정부하에 연합시킨다. 단 친일파, 일본관료와 헌병대에 복무한 자를 제거하고 제주도 일대의 인민항쟁과 빨치산 운동을 진압한 자, 그 조직자, 주모자는 처형한다.
넷째, 국토의 완정과 통일을 위한 제 투쟁은 모두 민주적 개혁사업을 동반하고 조국의 통일적 민주적 발전과 세계평화에 대한 투쟁이다.
나아가 대회의 강령은 앞서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을 지지하고, 탄압으로 인해 해방된 남반부의 인민위원회를 부활 공법화하여, 일본국, 일본인, 동 법인 및 반역자의 소유였던 토지를 몰수하여 무상분배의 원칙으로 토지개혁을 실시하고, 마찬가지로 사업 및 기업소의 국유화를 실시함과 동시에 한층의 고도화를 위해 소동맹을 비롯해 신 중국은 물론 평화민주국가와 친선을 강화하고 새로운 전쟁발발과 제국주의 국가의 외압으로부터 보증한다.

(6)통일총선거와 우리의 임무
상술한 바와 같이 조국전선의 ○○강령은 전체 조선인민의 숙망이며, 의지의 반영이며 당연한 귀결이다. 선언의 결어에서 이미 전 인민의 절대 지지와 실현에 대한 확신을 단언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확신을 갖고 적에게 대단히 대중에게 겸허하게 모두 ○지(○紙)투쟁으로 조직하여 결집해야만 한다.

결어
첫째, 우리 재일조선학생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사업의 의지를 충분히 파악하고 승리에의 흔들림없는 확신을 갖고 전력을 다해 학생을 학동조통하에 굳게 결집시켜 중앙집권제를 확립하고 계급의식과 조국방어를 위해 열정과 역량을 증진시킨다.
둘째, 재일 전 동포는 물론, 광범한 일본의 대중과 한층 긴밀히 제휴하여 극악질의 반동학생과 민단처청 및 정부대표단을 고립, 소멸하는 운동을 전개한다.
셋째, 어디까지나 하부조직을 강화하고 거주지에서 실질적으로 민청과 결합하여 청년운동의 일환으로 선전활동을 다각도에서 당장에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넷째, 이렇게 하여 결집시킨 전체적 민주적 총역량을 유효하고 구체적으로 조직하여 당면한 적 요시다 반동내각 타도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결정적 파괴의 단계에 선 이 정권의

유일한 말로, 도일 항로를 차단하는 것, 즉 우리의 생활권을 지키는 것이며, 조국방위에 귀일하는 길이다.
다섯째, 육중위(六中委)의 결정을 충실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 앞장서서 우리는 문맹퇴치의 선봉대가 되는 일이다.

1949년 7월 15일
박대봉

說解
國土完整體制完し
祖國戰線綱領宣言書を解剖する
(一)「祖國戰線」結成の意義
(二)驚異的民主改革發展の成果
(三)平和的統一事業
(四)全人民の[illegible]
(五)選擧は一切の自由のもとで
(六)統一總選擧とわれらの任務
結語

공화국 남반부 정세(올해 2월 현재)

공화국 남반부 정세(올해 2월 현재)

공화국남반부 9도 중 전 부군(府郡)의 75%지구에서는 면장은 군 소재지로 군수는 도 소재지로 반동관료와 ○○○○○도들은 거의 전부가 경성으로 도피 집중해 있기 때문에 '부재 면장, 군수 직원, 간부 지주'가 되어 소위 '중앙'은 '○○정치'라고 일컬어지고, 반동거두들은 해방 4년 간 인민으로부터 약탈한 재산을 매각하여 도망준비에 분주하다. 해방신문이 보도하는 바에 의하면 올 2월 20일부터 6월 13일까지 남반부 전역에서 인민유격대의 활동지구는 8도 3부 81군에 걸쳐 있으며, 이미 전 부군별로 보면 그 75%지역이 인민유격대의 활동지구가 되어 있다. 이 지역 중에는 이미 인민위원회가 회복되어 '민주지구'를 건설해서 이를 확대하는 한편, 토지개혁은 물론 민주신문이 발간되었다. 현지 지역에서는 인민유격단원 조직이 생겨나 전체 인민의 결정적인 승리로의 돌격전이 전개되고 있다. 더 이상 괴뢰정부는 '점과 선상'을 방황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도 그들이 사멸하는 한 발 앞이며, 시간의 문제가 되었다. 다음으로 올 2월 25일까지의 인민유격대의 활동지구는 ☆제주도(1읍11면) ☆전라북도(7군14면) ☆경상남도(2부14군38면) ☆경상북도(1부18군56면) ☆충청북도(7군15면) ☆충청남도(3군3면) ☆강원도(8군9면) ☆황해도(2군4면)이다.

共和國南半部情勢(今年二月現在)

학동관동시보(學同關東時報) 1949년 8월 10일 / 1면

9월 통일선거로!
국토완정체제 완수
실력으로 이 정권 타도
전조선민주전선이 되다

9월 통일선거로!
국토완정체제 완수
실력으로 이 정권 타도
전조선민주전선이 되다

(평양 28일발 조중통=신아)
25일 래평양목단봉극장에서 열린 남북조선 7십1애국정당 사회단체 대표 7백4명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대회는 27일의 첫날에 열린 '내외 정치정세와 우리의 임무'라는 제목의 허헌의 보고를 중심으로 토론을 실시하여 실력으로 이 정권을 타도하여 9월에 전 조선에 걸친 입법기관의 선거를 실시하여 평화적으로 조국완전독립과 국토완정을 시행해야 한다는 단계에 있다는 북조선노동당 장순명의 제안을 만장일치로 가결, 내외로부터 동 대회에 올라온 축전축문이 소개되었다. 대회 선언의 전선강령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천할 것을 남북조선의 전체민주정당 및 사회단체와 전체조선인민에 호소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방침을 제의한다.
선언
1, 조국의 평화적통일사업은 조선인 자신이 장악하고 인민의 손으로 반드시 실천한다.
2, 우리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방해가 되는 미군이 우리 조선에서 즉각 철수할 것을 요구한다.
3, 우리는 비합법적 기관인 소위 '유엔조선위원단'이 우리 국토에서 즉각 철수할 것을 요구한다.
4, 우리는 남북조선을 통하는 입법기관의 선거를 남북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제의한다
5,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바라는 민주주의 제 정당, 사회단체 대표로 구성하는 위원회의 지도하에 이 선거를 실시한다.
6, 조국의 평화적 통일계획을 토의하기 위해 남북조선 제 정당, 사회단체는 대표자협의회를 열어 선거지도위원회를 구성한다.
7, 입법기관의 선거는 1949년 9월에 실시한다. 이 선거는 일반적, 평등적, 비밀투표 원칙으로 실시하는 일본통치시대에 일제와 열성적으로 협력한 자의 선거권을 박탈한다.
8,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반드시 실시한다.

(가)민주주의 제 정당, 사회단체와 그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을 금지한다.
(나)전체 민주주의 제 정당, 사회단체를 합법화하여 그들의 자유로운 활동권을 보장한다.
(다)민주주의 제 정당, 사회단체의 출판기관 등에 대한 발간지령을 최소하고, 모든 민주주의 제 정당, 사회단체에 대해 출판기관을 소유하는 권리를 보장한다.
(라)언론, 출판, 집회, 군중대회, 시위 등의 자유를 보장한다.
(마)전부의 정치범을 즉시 석방한다.
9, 선거지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가)남북조선에 현존하는 정부와 그 기관에 대해 선거 준비와 실시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부여한다.
(나)자기 결정, 지시, 실행을 검열한다.
(다)선거지도위원회가 구성하는 위원회를 통해 조선에서 외국군대의 철수를 감시한다.
10, 총선거지도위원회를 구성함과 동시에 남북조선에 현존하는 경찰보안기관 등은 선거지도위원회의 직접관할하로 옮긴다.
선거지도위원회는 경찰대로부터 친일파일본경찰과 ○○대에 ○○한 자를 제거하고, 제주도인민항쟁부대, 남조선유격운동의 탄압에 참가한 경찰대를 해산시킨다.
11, 총선거 결과 수립된 최고입법기관은 조선공화국의 헌법을 채택하고, 그 헌법에 기초하여 정부를 구성하고 정부로부터 정권을 전부 접수하여 그 정부를 해산시킨다.
12, 남북조선에 현존하는 군대는 민주주의의 기초에 의거하여 조선공화국정부에 의해 해제한다. 제주도, 기타 지대에서 인민항쟁과 빨치산운동 탄압을 실시하고 있던 남조선 '국방군부대'를 해산시킨다.
인민항쟁과 빨치산운동 진압에 참가했던 자는 군대에 복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 탄압을 선동한 자와 조직한 자는 처벌한다.
민주주의의 제 정당, 사회단체, 전체인민에 제의한다, 우리의 평화적 조국통일계획은 이상과 같다. 우리는 전체 조선인민이 우리의 제의를 열광적으로 지지할 것을 확신하는 바이다. 만일 반동이 평화적 통일사업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조선인민에 의한 처단을 피할 수 없다.
조선인민은 조국의 통일과 민주화와 독립을 위해 전진하는 자이다. 이를 방해하는 모든 이는 그 과정에서 처단된다.
통일적 민주주의 독립조선 만세
영원히 통일된 조선인민 만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 대회 만세

學同関東時報

號外

發行所 東京都新宿区角筈二丁目九四 在日朝鮮学生同盟関東本部

九月統一選擧へ！

國土完整體制完し 實力で李政權打倒

全朝鮮民主戰線なる

（平壌廿八日発朝中通）廿五日来平壌牡丹峰劇場で開かれた南北朝鮮七十一愛国政党社会團体代表七百四名の祖国統一民主主義戦線結成大会は廿七日の第一日におこなわれた「内外政治情勢とわれわれの任務」と題する許憲氏の報告を中心に討論をおこない実力をもつて李政権を打倒し、九月に全朝鮮にわたる立法機関の選挙をおこなつて平和的に祖国完全独立と国土完整をおこなうべき段階にあるとの北朝鮮労働党張順明氏の提案を満場一致可決、内外から同大会によせられた祝電祝文が披露された大会宣言戦綱領の骨子は次の通りである。

祖国統一民主主義戦線は祖国の平和的統一を実践することを南北朝鮮の全体民主政党および社会團体と、全体朝鮮人民へ呼訴し、祖国の平和的統一方針を提議する

宣言

一、祖国の平和的統一事業は朝鮮人自身が掌握しわれら人民の手で必ず実践する

二、われらは祖国の平和的統一に妨害となる米軍がわが朝鮮から即時撤退することを要求する

三、われらは非合法的機関であるいわゆる「国連朝鮮委員團」がわが国土から即時引揚げることを要求する

四、われらは南北朝鮮を通じる立法機関の選挙を南北同時に実施することを提議する

五、祖国の平和的統一を願う民主主義諸政党、社会團体の代表によつて構成する委員会の指導下にこの選挙を実施する

六、祖国の平和的統一計画を討議するため南北朝鮮諸政党、社会團体は代表者協議会を開いて選挙指導委員会を構成する

七、立法機関の選挙は一九四九年九月に実施する、この選挙は一般的、平等的、秘密投票の原則によつて行う日本統治時代に日帝と積極的協力した者の選挙権をはくだつする

八、選挙の自由を保障するためつぎのような対策を必ず実施する

（イ）民主主義政党、社会團体とその指導者らに対するだん圧を禁止する

（ロ）全朝鮮の民主主義政党、社会團体を合法化し、彼らの自由な活動を保障する

（ハ）民主主義政党、社会團体の出版機関などに対する[illegible]を撤廃し、すべての民主主義政党、社会團体に対し出版機関を所有する権利を保障する

（ニ）言論、出版、集会、[illegible]、示威等の自由を保障する

（ホ）全ての政治犯を釈放する

九、選挙指導委員会はつぎのような権限をもつ

（イ）南北朝鮮に現存する政府とその機関に対し選挙の準備と実施に関する必要な措置を要求する

（ロ）自己の決定、指示、実行を監督する

（ハ）選挙指導委員会が構成する委員会を通じて[illegible]の選挙の実施を監督する

一〇、総選挙指導委員会を構成すると同時に南北朝鮮に現存する警察保安機関等は選挙指導委員会の直接管轄下に移す

選挙指導委員会は警察保安機関から親日派、日本警察と軍隊に服務した者を除去し、済州島人民抗争部隊、南朝鮮遊撃運動のだん圧隊に参加した警察隊を解散させる

一一、総選挙の結果じゅ立された最高立法機関は朝鮮共和国の憲法を採択し、その憲法に基いて政府を構成し政府から政権を[illegible]しその政府を解散させる

一二、南北朝鮮に現存する軍隊は民主主義の基礎にのつとり朝鮮共和国政府によつて解除する、済州島、その他の地帯で人民抗争とパルチザン運動だん圧を行つていた南朝鮮「国防軍部隊」を解散させる

一三、人民抗争とパルチザン運動鎮圧に参加していた者は軍隊に服務することを禁止し、このだん圧をせん動した者組織した者等は処罰される

統一戦線の諸政党、社会團体、全員へ訴える、われらの平和的統一方案は[illegible]であるが、われらは朝鮮人民がわれらの提案を積極的に支持することを確信するものである、万一反動が平和的統一事業を妨害する場合は朝鮮人民による処断を免れないものである朝鮮人民は祖国の統一と民主化と独立に向つて前進するものである、これを妨害するすべての者はその途上において処断されるものである

統一的民主主義独立朝鮮万歳

永遠に統一された朝鮮人民万歳

祖国統一民主主義戦線結成大会万歳

■ 기관지(機關紙)

조련가나가와
(朝聯神奈川)

조련가나가와(朝聯神奈川) 1948년 9월 5일 / 2면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공개
제주도 사건 조사단 언명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공개
제주도 사건 조사단 언명

(서울 31일발 공립=신아) 인권옹호, 사민, 신진, 신문계 등 제 정당 사회단체 대표 일행 11명으로 구성된 제주도 사건 진상조사단은 28일 목포에 도착했다. 8월 발생한 제주도 사건은 최근에 경관이 증원된 것을 보면 구체화한 모양이다. 이에 대해 22일까지 신문지상에서 발표한 것뿐이고 종합적인 발표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제주도 30만 동포를 위해 매우 유감이다. 일행은 높은 민족적 견지에서 조사하고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具體的に調査して公開
濟州島事件調査團言明

(ソウル三十一日發共立=新亞) 人權擁護、壯民、新進、新聞界等諸政黨社會團體代表一行十一名で構成された濟州島事件實相調査團は二十八日木浦に到着したが八月發生した濟州島事件は最近になつて警官が增員されたのを見れば再燃化した模様である。これについては二十二日まで新聞紙上で發表になつただけで綜合的發表ができなかつたのは濟州島三十万同胞のために非常に遺憾なことである。一行は高い民族的見地から調査して公開する豫定だと語つた。

■ 기관지(機關紙)

문련시보(文連時報)

문련시보(文連時報) 1948년 7월 5일 / 1면

완전통일 정부를 수립하고 내란을 방지해라

완전통일 정부를 수립하고 내란을 방지해라

남선에서 일부 정객이 3천만 민중의 총선을 무시해서 민족 간에 화근을 생길 수 있도록 단독정부를 수립하려고 움직이고, 전적으로 외력을 배경으로 무법으로도 군함, 비행기를 날게 하고, 총검을 차서 평화로운 인민을 위협하고, 이로써 선거를 감행했다는 것은 천인공로 용서할 수 없는 것이며, 과거 반세기 이래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며 진경이기도 하다. 그런데 단독정부 수립을 강요하는 분자는 대부분이 자본가, 대지주 및 특별계급이다. 그들은 무산계급의 희생에 의해서만 정권을 획득하려는 인민의 총의를 무시한 야망가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이 정말로 조국민족을 사랑하고, 위대한 이상과 자유평등,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에 불타고 자주완전 독립 국가를 수립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바보 같은 폭력은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의 행위는 반역자이면서 인민의 적이다. 부자연스런 38도선으로 고향에 국경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남은 남, 북은 북으로 영원히 이분화하는 계획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물론 그들이 말하자면 남선에 단정(單政)을 수립하는 것은 결코 분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기에 있어서 한 수단이라고 말할 것이다. 인민이 바라든 바라지 않든가에 우선 일부 계급의 형편 좋은 정부를 만들어 인민의 희생과 외력으로 군비를 충실히 하고 일거에 북선에 침입하여 북선 인민군을 경감하고 그 진(秦)의 시황제와 같이 무력에 의해 통일정권을 수립하려는 야망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남선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말로 혁명 전야의 감이 있다. 제주도 등에 이미 인민해방군이 조직되어 있다. 노약남녀 일환으로 돌격대를 조성하여 반년 가까이 죽음으로서 수만 관군과 맹렬히 싸우고 있다. 고립무원의 고도에서 승자 없는 싸움을 왜 하는 것인가. 무관심한 사람들은 불가사의로 생각할 것이다. 제주도의 정서는 섬사람 이외에는 알 수 없다. 제주도는 옛날부터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섬이다. 매년 폭풍으로 농작물이 황폐한 섬이고, 폭력 관료의 횡행과 독재의 섬이다. 해방 후는 해외와의 왕래는 차단되고 돈 벌러 나가는 것은 중단되어 아무런 생산도 없어서 도민의 생활은 아사에 쫓기고 있었다. 문자 그대로 매년 봄이 되면 식료는 전혀 없어 풀뿌리를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서 비참했던 섬이다. 게다가 현(懸) 관료가 횡행하여 과중한 세금과 공품을 강제하기 때문에 살아서 괴롭기 보다는 죽을 각오로 싸울 수밖에 없다고 도민의 의견이 합치했다. 단선 반대나 공산주의의 책동이라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도민 자신들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라는 상상 이상의 심각한 문제이다. 이것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조선이 이와 같은 환경에 놓였던 것은 아닐까.

이승만 박사가 남선에 60만 대군의 편성을 완료하기까지는 미군의 주둔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만약 60만의 군대가 남선에서 편성되어도 그 군대의 각 병사는 빈농의 자식이고,

조선인민이다. 게다가 어쩌면 이승만 박사의 뜻과 같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전면적으로 내란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백의민족으로 하여금 ○살의 대비극을 연출하게 할 공포가 있다. 그 모든 책임은 그 자신 및 하나의 일파가 맡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조선민족은 단호하게 단정을 배격하고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모든 문화기관을 동원해서 맹렬하게 투쟁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1948年7月5日 第8號

主張

完全統一政府を樹立し 内亂を防止せよ

문련시보(文連時報) 1948년 8월 5일 / 3면

[해설] 서로 지배권 노리는 하나의 조선에 두 개의 정부

[해설] 서로 지배권 노리는 하나의 조선에 두 개의 정부

6월 1일 개회 이래 신정부 수립의 준비 공작을 추진해 온 남선국회는 12일 대한민국헌법을 가결하고 나서 16일에는 정부 조직법 성립 19일에는 신한국의 원수를 결정할 대통령 선거를 행하여 이승만 국회의장이 절대 수로 당선했다. 이것으로 남선 신정부 수립 준비는 정리되어 조선 독립은 40년 만에 다시 회복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독립이 반드시 조선민중의 환호를 받으면 맞이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는 38도선에 한해서 남선만이 독립이며, 한편으로는 조선 30만 민중이 열망하는 통일독립의 희망이 채워지지 않았다. 이미 북선에서는 7월 3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을 북선에서만 실시하였고, 8월 25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의원 선거를 하기로 되어 있다. 총선에 이어 신인민정부가 수립되면 남북 양정부는 각각 정통정부가 되는 것을 주안으로 전선(全鮮)에 대한 지배권을 요구해 그 대립은 격화일로를 걷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선의 통일독립 문제에 대해서는 조선을 2할 점령하고 있는 미소 양국 간에서도 재작년 2월 열린 미소공동위원회 이후 몇 차례의 교섭이 거듭되었지만, 양국의 견해는 완전히 대립하여 작년 9월 미국의 국련총회의 결의에 기초하여 5월 10일 남선 총선거가 국련조선위원회의 감시 하에 행해져 조선국회의 성립을 본 것이다. 국련위원회도 총선거의 결과를 승인할 의향을 나타내고 있어서 남선 신정부는 올 가을 국련총회에서 승인될 것이다. 이는 남선 정부의 큰 강점이다. 그러나 남선 신정부의 수립에 대해서는 이미 5월 총선거 때부터 유력한 반대가 있었다.

남선 노동당을 중심으로 좌파가 북선과 기맥을 통해 맹렬한 반대를 행하고, 게다가 또 전 한국임시정부 수석 김구, 동 부수석 김규식 등 우익의 유력 지도자 중에도 통일독립을 반대하는 건전(建前)에서 반대자가 나타났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한국임시정부의 전호(前号)로 1919년 상해에서 창설된 임시정부가 사용한 국호이다. 그런데 그 전통을 자랑하며 독립운동을 이어온 김구 씨들이 이번 신정(新政)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신정부의 큰 약점이며, 이들 유력한 반대자를 내부에 품고 북선인민정부와 대항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신정부의 전도는 쉽지 않을 것이다. 신정부의 전도를 위협하는 최대의 불안은 내전의 발발이다. 북선에는 이미 15만에서 20만이라고 전해지는 정예한 북한인민군이 조직되어 있는데, 남선의 국방경비대는 이에 대항할 만큼의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의문이다. 게다가 5월 총선거 전에 제주도와 태백산맥의 산지에서 발생한, 말하자면 인민항쟁은 지금도 여전히 게릴라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본격적 내전에 대한 계획적인 투쟁이라기 보다는 지방행정 경비 관계에 대

한 자연 발생적인 반항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정세 변화로 본격적 내전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보증할 수 없다. 남북선은 경제적으로는 밀접 불가분으로 남선만의 경제적 자립은 절망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이래 북선의 송전 정지로 남북선 간의 교류는 끊어져 남선의 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고, 각 공업의 생산은 정지하여 민중의 생활은 극도의 불편을 주고 있다. 미군 당국은 북선인민위원회를 교섭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여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남선 정부는 정권이 부흥하게 되면 먼저 이 문제가 당면 과제가 된다.

더욱이 북선의 인민공화국 헌법은 토지개혁, 중요산업 국유화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이미 그 철저한 실행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도 토지 재분배, 중요자원산업의 국유를 원칙으로 해서 인정하면서 그 구체적 규정은 향후 맡기고 있다. 이 두 문제는 향후 사회경제의 바람직한 방향을 결정하는 근본문제인 만큼 그 해결에는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고, 과연 남선 정부가 북선 정부에 적잖은 정치력으로 이를 실행할 수 있을지는 종전 이후 국내 재건에 항상 북선에 한 발 앞서 있는 남선이 앞으로 북선과 대항해 나갈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열쇠가 될 것이다.

解說

互に支配權狙う

一つの朝鮮に二つの政府

- 328 -

■ 기관지(機關紙)

문교신문(文教新聞)

문교신문(文敎新聞) 1948년 5월 10, 17일 / 3면

제주도 폭동에 의한 피해자 37명 조부장 치안유지에 관해 성명

제주도 폭동에 의한 피해자 37명
조부장 치안유지에 관해 성명

서울 8일발 =KIP
조병옥 내무부장은 제주도의 치안유지에 관해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2월 10일 이래 제주도의 전역에 걸쳐 남로당계열 폭동은 양민 피살자 25명, 피살 경관 6명, 그 가족 6명, 방화 25건이라는 불상사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 폭동들은 지금 또 계속되어 도민은 공포 속에 생활하고 있는 현상으로 본관은 깊게 그 책임을 느껴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 현재 치안유지는 국립경찰과 해안경비대들이 공동 경비로 담당하고 있다. 머지않아 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생각한다.
당분간 경비 주안점은 1개월 전에 응원대를 보내고 있지만, 또한 경계진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전문학교 학생을 증파하여 폭도의 선행운동을 철저히 소탕하고 있다. 이후 폭동 미연 방지 대책으로서는 지방행정관리 및 경관 인사의 적정 경질을 단행함과 동시에 현재의 경찰학교를 강화하고 경관의 재교육을 실시하여 경찰의 선전을 행하고 기초를 굳건히 할 예정이다.

濟州島の暴動による被害者三七名、趙部長治安維持に關し聲明

ソウル八日發ＨＫＩＰ

趙炳玉警務部長は濟州島の治安維持に關して次のような聲明書を發表した。

去る二月十日以來濟州島の全域に亘る南勞黨系列暴動は良民被殺者二五名、被殺警官六名、その家族六名放火二五件という不祥事を惹起せしめているがこれらの暴動は今なお續けられ島民は恐怖の中に暮している現狀で本官は深くその責任を感じ遺憾にたえない、目下治安維持は國立警察と海岸警備隊とが共同警備に當つているが遠からず全的に回復されるものと思う。

差當り警備主眼點は一ケ月前に應援隊を送つているがなお警戒陣を强化するため警察專門學校學生を增派して暴徒のせん行運動を撤底的に掃とうしている、今後の暴動來然防止對策としては地方行政官吏及び警官人事の適正更迭を斷行すると共に現在の警察學校を强化して警官の再教育を實施して警察の宣傳を行い基礎を固める豫定である。

문교신문(文敎新聞) 1948년 8월 15일 / 4면

제주도 동란의 전모
탐관오리와 싸우는 민중

제주도 동란의 전모
탐관오리와 싸우는 민중
(20일 서울신문에서)

조국의 최남단에 위치한 면적 약 백20만리 조선 제일의 큰 섬인 제주도는 「삼신인」이라는 아름다운 신화를 가지고 있다. 유명한 이 섬의 해녀들은 8심(尋) 정도의 수심에서 물질하고 전복이나 소라 등의 패류뿐만 아니라, 미역과 천초 등의 해초를 채취한다. 테왁을 부표로 해서 망태를 파도 위에 띄워 발로 파도를 쳐서 바다로 들어가 물질하는 해녀들. 그 수는 1만이라고 말하는 말의 방목, 이 꿈의 섬에 비길 만한 제주도에 동란이 발발한 후 벌써 4개월쯤 되고 있다. 조국을 멀리 떠나 온 우리들은 오직 여전히 보도 이외에 「위대한 혁명」이든가 「단순한 폭동」이라는 소문 이외에 알 수가 없었다. 근착의 서울신문은 사건의 전모를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4번째의 해방기념일을 기해서 과도기에 발생한 제주도 동란은 앞으로 우리들에게 많은 침○을 줄 것이다. 이하 그 전문(조)
지난 4월 3일경 한밤중에 울려 퍼진 한 발의 총성은 주위 50여리 1읍2군12면의 전 제주도를 공포와 전율의 구덩이로 처넣었고, 계속 일어난 동포 유혈의 참사는 이 섬을 살기의 거리로 만들었다.
그 후 참극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3천만 민족은 이 동족상잔의 사태의 심각화를 통탄하고 있고, 중앙 지방의 각 관계당국 및 신문기자단, 사회단체에서도 이 사태에 대한 비판을 각 각도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매우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그 수습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다. 재광주 각 신문기자단에서는 이 사태의 중요성을 생각해 6월 30일 목포해안경비대 사령부의 특별 배려로 경비선 강릉호에 편승해 산지항에 도착한 일행 앞에 보인 제주도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적막감에 휩싸여, 조용한 항내에는 수 쌍의 경비선과 어선이 드문드문 정박해 있을 뿐이며, 예전에는 어부들의 만보로 흥청거리던 바닷가의 술집도 마침 주지가 없는 산사처럼 한산했다. 간혹 미식 복장으로 몸을 바르게 하고 비스톨로 무장한 국방경비대원과 작업복 속에 미군 와이셔츠를 입은 미군장교용 모자를 비스듬히 쓰고 미식총을 어깨에 맨 모던(?)한 경관이 여유롭게 여기저기를 거닐고 있다. 이미 중앙에서 현지를 시찰한 판사, 검사 변호사들은 이번 4·3사건의 하나의 원인으로서 관공리의 부패를 들고 있다. 이 문제는 예상 이외에 심각하고 광범위하게 걸쳐 있는 것으로 보이며, 김 청장과 임 도지사도 이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고, 행정경찰 각 부분의 부정관공리는 이 섬의 독특한 생활환경에서 조성된 도민의 생활감정을 권력에 의해 유린되고, 또 사설단체의 월권행위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여 그들의 생존을 불안한 것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들 간부 탐관오리들은 사복을 채우는데 급급하여 그 뜻을 어기는 동배, 부하들은 모략중상으로 모두 축출해 왔다. 그들은 일본에서 귀환하는 많은 도민의 재산을 밀수품으로 인정해 몰수하고 수십 년간 피와 땀의 결정인 재산을 세관, 경찰서, 항무청 기타 무수의 관공서를 이용해 몰수했다. 사설단체원은 가택수사에 편승해서 귀중품을 몰수하고, 금품을 강탈하고, 불법 구타 폭행을 해왔다. 2·7이후에 실시된 통행증은 30원에서 백원까지의 요금으로 배부하고 그들이 낸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는 모두 「빨갱이」라고 지목되어 온갖 박해를 받아 왔다. 11연대장 박 대령의 피살사건은 거리에 일대 충격을 주었는데, 여러 형편으로 아직 그 진상은 발표되지 않았다. 기자가 각 방면에서 입수한 자료로 판단하면 그 경위는 다음과 같다. 박 대령을 살해한 일당은 제주 출신의 강 중위 이하 8명으로, 강 중위는 박 대령의 도내 사태 수습책에 불만을 갖고 있었고, 자기의 진급이 늦어지고 있어 불평을 품고, 결국 박 대령의 살해를 결의하고서 전부터 살해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살해 당일 밤은 박 대령이 오전 1시경 외출에서 돌아와서 잠든 3시 15분경 하사관 1명을 그 침실에 잠입시켜 소총 한발로 그를 즉사 시킨 것으로 경호원 등은 이를 외부의 총소리로 오인하여 부근을 수색했고, 4시경이 돼서 비로소 박 대령의 피살을 발견했다. 당국에서는 30만원 2계급 승진의 현상을 걸고 이 범인 강포에 밤낮 없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결과 모 방면에 도피해 있던 한패의 병졸 1명을 강포했다. 그를 강포한 공로자인 군기 대장은 강 중위와 함께 침식을 같이 하고 있던 친구라고 한다.

지난 7월 2일 읍면장 회의에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4월 3일 이래 15일까지의 피해는 소실가옥은 421호, 양민사망 290명, 동(同)부상 98명이고, 특히 피해가 심한 곳은 저지, 금출, 오라리, 함덕, 도두리 등으로 이를 면별로 보면 한림, 구좌, 대정 제주읍 등이다. 이 가운데 한림면, 저지 부락에서는 180여가 전소되고 20명의 사망자와 2명의 부상자를 냈다. 이 참사의 발단은 저지지서를 습격한 주범으로서 지명된 현모 일족의 18호가 4월 8일 전소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현재 8백여명의 이재민이 노상에서 방황하고 있다. 기자가 방문한 곳곳에서 많은 행방불명자의 이야기를 들었다. 지난 6월 중순부터 북촌이라는 부락에서 행방불명된 사람의 시체가 7월 6일 오라리 부근에서 발견되었다. 동족상잔의 참극을 연출하고 있는 제주도의 사태는 여기에서 제2단계로 돌입한 듯하다. 한때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던 전투는 5월 20일을 고비로 해서 거의 안정된 듯하다. 7월 1일에는 도내의 교통이 개통되고, 5일에는 육지와의 교통도 해제되기에 이르러 극도로 긴장하고 있던 공기는 현저하게 완화된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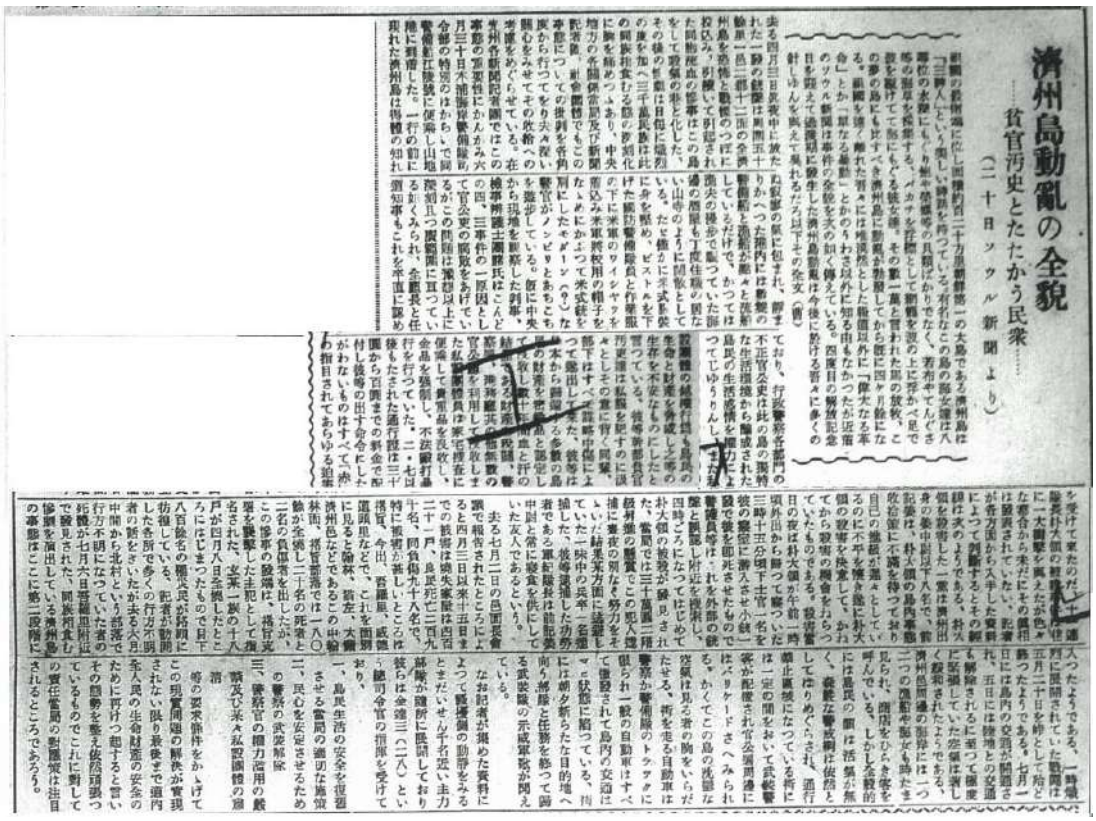
제주읍 주위의 해안에는 하나 둘 어선과 해녀도 가끔씩 보이고, 상점을 열고 손님을 부르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도민의 얼굴은 활기가 없고, 삼엄한 경계망은 여전히 둘러쳐져 있고, 통행금지가 되어 있는 거리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무장 경관이 배치되고, 관공서 주변에는 바리케이드까지 보인다. 그래서 이 섬의 침울한 공기는 보는 사람의 가슴을 애타게 한다. 거리를 달리는 자동차는 경찰이나 경비대의 트럭으로 제한되고 일반 자동차는 모두 징발되어 도내의 교통은 마비 상태에 빠져 있다. 거리에는 조석으로 새로운 목적지로 향하는 부대와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무장대의 시위 군가가 들린다.

또 기자가 수집한 자료로 소요 측의 동정을 보면, 아직 천명 가까이 주력 부대가 곳곳에

전개되고 있고, 그들은 김달삼(28) 총사령관의 지휘를 받고 있다.

1. 도민 생활의 안전을 복구시킬 당국의 적절한 시책
2.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한 경찰의 무장 해제
3. 경찰관의 권력남용의 엄금 및 모모 사설단체의 숙청

등의 요구 조건을 걸어서 그 현실 문제의 해결이 실현되지 않으면 최후까지 도내 전인민의 생명 재산의 안전을 위해서 재궐기한다고 말하며, 그 태도를 갖추고 여전히 노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책임 당국의 대응책은 주목해야 할 것이다.



濟州島動亂の全貌

貧官汚吏とたたかう民衆……

（二十日ソウル新聞より）

■ 기관지(機關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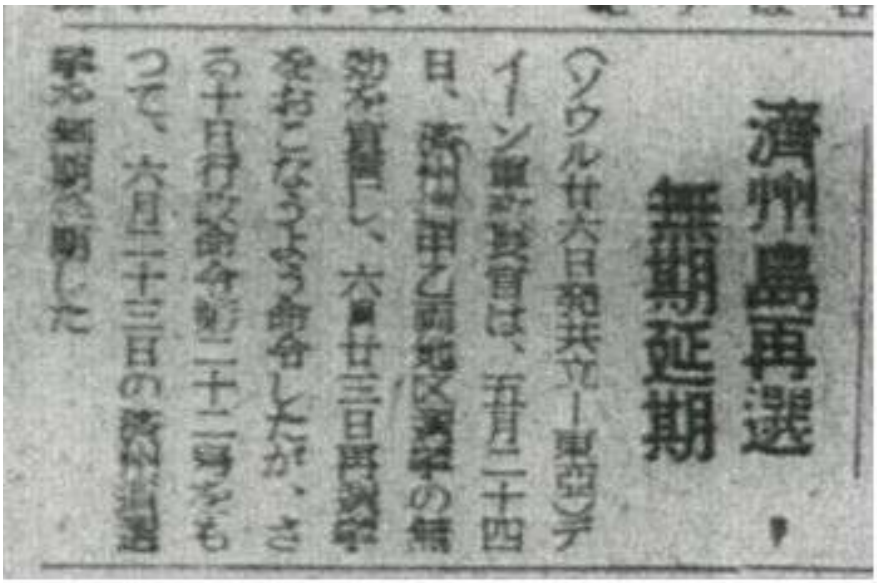
동경조련뉴스
(東京朝聯ニュース)

동경조련뉴스(東京朝聯ニュース) 1948년 7월 10일 / 1면

제주도 재선거 무기 연기

제주도 재선거 무기 연기

(서울 26일발 공립=동아) 딘 군정 장관은 5월 24일, 제주 갑을 양지구 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6월 23일 재선거를 행하도록 명령했다. 더욱이 10일 행정명령 제22호로 6월 23일 제주도 선거를 무기 연기했다.


濟州島再選
無期延期
(ソウル廿六日発共立—東亞)デイーン軍政長官は、五月二十四日、濟州島甲乙両地区選挙の無効を宣言し、六月廿三日再選挙をおこなうよう命令したが、さる十日行政命令第二十二号をもつて、六月二十三日の濟州道選挙を無期延期した

■ 기관지(機關紙)

과학기술시보
(科學技術時報)

과학기술시보(科學技術時報) 1948년 11월 1일 / 2면

남선 반란의 의의 중국지「대공보」사설

남선 반란의 의의 중국지「대공보」사설

지난 27일자 중국의 유력지「대공보」는 그 사설에서 남조선의 반란을 내걸어「남조선의 반란은 결코 간단한 작은 사건이 아니다. ○○ 듣고서 다음과 같이 남조선의 반란의 의의를 논한다.」

남조선의 반란은 결코 간단한 작은 사건이 아니다.「별빛은 들판을 환히 비춘다 」우리들은 이 사건에서 많은 복잡 심각한 문제를 읽을 수가 있다. 이것은 정치교육이 살아있는 자료이다. 이 사건이 지닌 의의는 특히 거론되어 바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연일 각 ○○문 보도에 의하면 반란은 그 활동 지역을 확대하는 것 같다. 남(南)은 여수를 점령하고서(西)는 광주에 이르고, 동은 진주에 달하고, 북은 구례에서 지리산구에 도착해 있으면서 유격전의 한 근거지를 확립하고 있는 것 같다. 여수, 순천, 보성, 광양은 잇따라 함락한 중에서도 반란 발생지 여수는 철도의 종점이기도 하며 해항으로서 상당히 큰 도회여서 소수의 반란에 의해서 점령 가능한 곳이 아니다.

그 점령의 의의는 매우 영향도 심대하다. 발생 이후 그 ○○ 방향은 3개 있다. 하나는 ○○하여 산구(山區)를 진압하고, 두 번째 해안을 따라 동쪽으로 뻗고, 일설에 의하면 이것은 공산당의 세력 하에 있는 거제도와의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라고 말해진다. 세 번째는 서를 향해서 공격, 장흥을 걸쳐 제주도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군사상으로 보면 반란은 계획을 지님과 동시에 전략을 가지고 있다. 참가인 수는 천여명에 그치지 않는다. ○○○는 ○○○라고도 말하고, ○○○라고도 말해진다.〈판독불가〉

정식 부락이다. 이 부락의 소위 반란은 보도에 의하면 제주도에「공산당이 지도하는 반도」를 진압하기 위해 파견되어 있던 것이 명령을 배반하고, 기선을 절어하고 만 것이라고 전해진다.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반란은 정치적 의의를 지닌다는 것이다. 기분 때문이 아니고 관장에 대한 불만, 그 외 여러 가지 이유에서 완전히 이승만 정부에 반항하기 위해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또 정치 목표를 가지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북조선 국기를 높이 게양하여」「공산당 세력 하의 거제도」와 연락하려고 제주도로 후퇴했다고 전해진다. 이것으로도 그 정치 의의는 북조선 정부를 옹호하려는 것임을 간파된다. 당연 그들은 조직을 가짐과 동시에 그 세력은 고립되어 있지 않다. 거제, 제주도 섬에는 강대한 세력을 가진 그들 하나의 당이 있는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반군은 공산분자라고 말하고, 또 김구도 관계되어 반란은 이 73세 노인의 선동에 의한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현재 수중자료에 의해 판단하면 조선공산당이 반란을 전도한 것은 거의 확실하다. 이승만에 반대해서 평양회의에 출석한 김구, 김게이○○가 이 반란에 사실 참여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알아보지도 안했지만, 정신적으로는 이에 반드시 일치하고 있다고 보인다.

즉 반란의 정치 기초는 반이승만 통일전선이라고도 보인다. 또 남조선에서 무력으로 이 전선을 형성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를 전후해서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났다. 그 하나는 북조선의 소련군이 10월 12일에 철퇴를 개시한 것이다. 조선은 원래 일본의 식민지여서 그 혁명은 민족혁명이었고, 민족의 독립해방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패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여전히 타민족에게 통치되어 미소 양국은 일본과 바꿔서 남북 조선을 분할 점령하고 군사관제를 행했다. 카이로 선언의 소위 「적당한 시기」의 독립이라는 것은 본래 조선에서 인민이 선출한 정부가 수립될 때 말할 수 있다. 현실에서는 남조선 대통령이 이미 7월 20일 선출되어 8월 15일에는 신정부가 수립되었다. 북조선도 이미 조선인민 민주주의공화국이 건립되고, 10월 13일 소련의 승인 획득했다. 따라서 국제간의 예절과 신뢰에 의해 미소 양국은 자동적으로 철병하고 조선인민 스스로 자기의 국가를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민족 정서와 민족 자존심에서 외국 주둔군이 철퇴하지 않은 것은 더욱이 바라지 않는 바이다. 미소 양국의 처리방법이 다르듯이 남북 조선의 지도자와 단체의 성격에도 차이가 있다.

남조선의 미군은 철퇴하지 않는다고 성명하고, 이승만도 마음에서 그 주둔을 바라고 있다. 남조선 정부의 ○정당의 정책은 조선민족의 자존심을 매우 상하게 했다. 남조선 정부는 타국의 꼭두각시 정부화 했다. 소련 철병의 자유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실제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때는 매우 아름답고, 틀림없이 조선인민이 환영할 것이다. 우리들은 소련의 철병이 반군에 직접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자극의 ○○격동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그 두 번째는 이 시기에 이승만이 일본을 방문한 것이다. 보도는 「○○자유는 이승만이 조선을 떠나, 일본으로 향한 수일간에 정부의 ○○을 이루었다」라고 전하고 있다. 이승만의 도일이 어떤 임무를 갖고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마 원수와 아시아 방공 문제, 남조선 및 일본에서의 조선공산주의자 문제를 합친 것은 이미 발표한 대로 이다. 이승만은 마 원수가 「캘리포니아주와 같이 전력을 다해 조선을 보호 한다」라고 보증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담화는 더욱이 남조선 정부의 독립성을 낮게 하는 것이다. 만약 남조선이 캘리포니아주라고 라면, 우리들은 물을 것이다. 조선 독립과 이승만 대통령은 어느 곳에 있느냐고.

이승만의 방일은 첫 번째 미국에 커피를 받쳐 완전히 외력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며, 두 번째 친일의 ○○가 있으면 우리는 말할 수 있다. 남조선 정부는 양파로 나눠져 있고, 한 파는 친미의 이승만, 또 한 파는 친일의 김성수이다. 일본 통치시대에 많은 민족반역자는 지금도 여전히 증거를 갖고 있고, 많은 권력 기관은 그들로부터 조종되고 있다. 이것은 남조선 정부가 민심을 상신한 최대 원인이며, 이승만의 최대 약점의 하나이기도 하다. 예전부터 이승만은 일본군을 남조선에 주둔시켜 방공을 협조, 미군 철퇴 후 일본군을 미국으로 대체해 이 조선군으로 대항시키려고 했다고 전해진다. 조선인민이 보면, 이승만의 방일은 바로 우울한 민족감정을 격노케 한 것이다. 이와 같이 많은 복잡한 원인이 얽혀 있으므로, 어쩌면 남조선의 반란은 간단히 정리될 것은 아니다. 반란군이 전멸되

거나 또는 섬으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사건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승만은 정치적 기반의 고약(孤弱)으로부터 자기가 처리한 민족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서 누군가 반란이 영도하더라도 애국의 불은 타올라서 남조선을 태워 버리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김구와 같이 ○석의 영수(領袖)는 그 출신, 경력, 사상 어느 것을 봐도 반소, 반공의 전형적 인물이다. 김규식은 철두철미, 자유주의자로 과격한 측면도 없다. 반면 보수적인 경향이 많다. 어쨌든 양 김 모두가 이승만과 서로 맞지 않아 평양회의에 참가했었기에 합작 못한 것인가. 단지 겨우 양 김은 민족의 정기, 국가 이상을 가져 매판이 되지 못했고, 친일파, 민족반역자의 백귀야행을 참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보면 남조선 정부의 정치적 기초의 독립, 위험은 극점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다.

또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것은 영도국의 정책이 편파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 파시스트의 잔여 역량의 화용과 조선민족의 애국심을 말살하려는 정책으로 어찌 남조선이 어지럽지 않겠는가. 우리는 외국의 간섭을 배척하고 조선인민이 자유롭게 그 정부의 형식을 선택해서 통일 독립과 진정한 해방을 외치는 조선인민의 일치된 요구를 들어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맡기는 것을 주장한다. 이런 방법에 의하지 않고 형태를 바꾼 식민지 통치를 기도한다면, 그것은 반란의 근거가 되고 그 정부는 끊임없이 소요하고 실패할 것이다(신아).

1948年11月1日 科學技術時報 (旬刊) 月曜日 第5号 (2)

南鮮反乱の意義

中國紙「大公報」社說

■ 신문(新聞)

해방신문(解放新聞)

해방신문(解放新聞) 1948년 4월 15일 / 1면

단선 단정을 반대코 제주도에서 항쟁

단선 단정을 반대코 제주도에서 항쟁
1947년도보다 대규모

서울방송에 의하면 지난 3일부터 제주도 일대에 남조선 단선을 반대하는 대규모의 항쟁이 이러낫는데 이는 1947년 3월의 항쟁보다도 크다고 한다.
동지(同地)는 8·15 이후 가장 진보성을 가진 인민 세력이 심한 곳인데 최근에는 서북청년단 등 테로단의 준동이 심한다 한다.
6일 조 경무부장의 피해상태 보고에 의하면 관공서를 습격하고 관공리 경찰관 다수를 살해 방화하고 선거등록소 등을 습격하야 서류를 소각했다 한다.
△ 관청 습격 11건 △ 관리 가옥 습격 2건 △ 관공리 부상 7명 △ 관공리 사망 4명 △ 관공리 가족 사망 1명 △ 기타 사망 8명 △ 부상 30명 △ 선거사무소 습격 4건, 방화 3건 △ 가옥 파괴 8건, 도로·교량 파괴 9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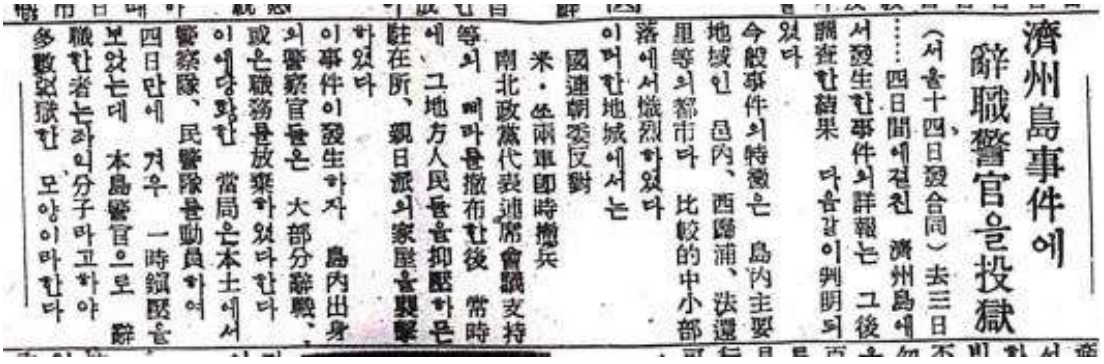
單選、單政을反對코
濟州島에서抗爭
一九四七年度보다大規模

서울放送에依하면 지난三日부터 濟州島一帶에 南조선 單選을反對하는 大規模의抗爭이 이러낫는데 이는 一九四七年三月의抗爭보다도 크다고한다
同地는 八·一五以後 가장 進步性을가진 人民勢力이 甚한곳인데 最近에는 西北青年團등 테로團의蠢動이甚하다한다
六日趙警務部長의被害狀態報告에依하면 官公署를襲격하고 官公吏警察官多數를殺害放火하고 選擧登錄所등을襲격하야 書類를燒却했다한다
△官廳襲擊十一件 △官吏家屋襲擊二件 △官公吏負傷七名 △官公吏死亡四名 △官公吏家族死亡一名 △其他死亡八名 △負傷三〇名 △選擧事務所襲擊四件、放火三件 △家屋破壞八件、道路·橋梁破壞九件

제주도 사건에 사직 경관을 투옥

제주도 사건에 사직 경관을 투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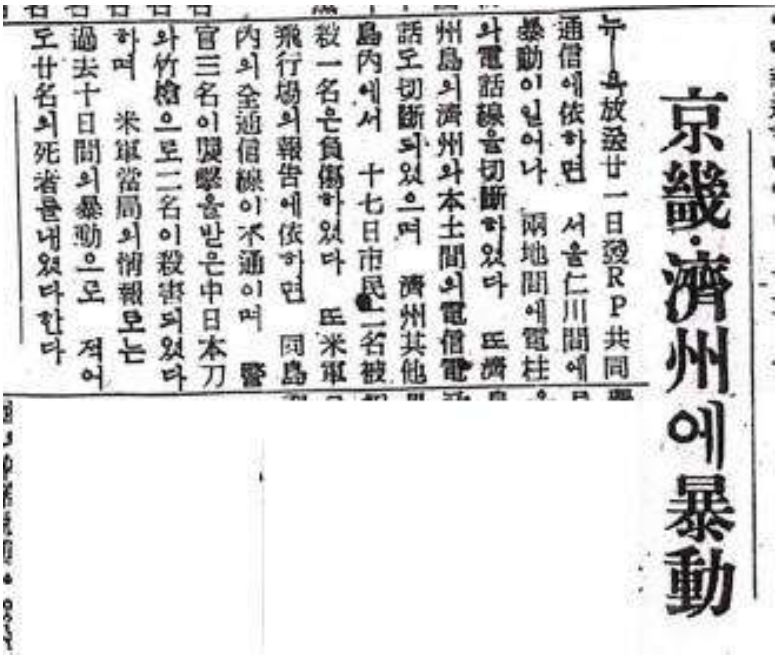
(서울 14일 발 합동) 거(去) 3일……4일 간에 걸친 제주도에서 발생한 사건의 상보는 그 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명되었다.
금반 사건의 특징은 도내 주요 지역인 읍내, 서귀포, 법환리 등의 도시(보)다 비교적 중소 부락에서 치열하였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국련(國連) 조위(朝委) 반대" "미·쏘 양군 즉시 철병" "남북정당대표 연석회의 지지" 등의 삐라를 살포한 후 당시에 그 지방 인민들을 억압하든 주재소, 친일파의 가옥을 습격하였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도내 출신의 경찰관들은 대부분 사직 혹은 직무를 방기하였다 한다. 이에 당황한 당국은 본토에서 경찰대, 민경대를 동원하여 4일 만에 겨우 일시 진압을 보았는데 본도 경관으로 사직한 자는 좌익분자라고 하야 다수 투옥한 모양이라 한다.


濟州島事件에
辭職警官을投獄
(서울十四日發合同) 去三日
……四日間에걸친 濟州島에
서發生한事件의詳報는 그後
調査한結果 다음과이判明되
었다
今般事件의特徵은 島內主要
地域인 邑內、西歸浦、法還
里等의都市다 比較的中小部
落에서熾烈하였다
이러한地域에서는
國連朝委反對
米·蘇兩軍卽時撤兵
南北政黨代表連席會議支持
等의 삐라를撒布한後 常時
에、그地方人民을抑壓하는
駐在所、親日派의家屋을襲擊
하였다
이事件이發生하자 島內出身
의警察官들은 大部分辭職、
或은職務를放棄하였다한다
이에당황한 當局은本土에서
警察隊、民警隊를動員하여
四日만에 겨우 一時鎭壓을
보았는데 本島警官으로 辭
職한者는과이分子라고하야
多數檢擧한 모양이라한다

경기·제주에 폭동

경기·제주에 폭동

뉴-욕방송 21일 발 RP 공동통신에 의하면 서울 인천 간에 폭동이 일어나 양지(兩地) 간에 전주와 전화선을 절단하였다. 또 제주도의 제주와 본토 간의 전신전화도 절단되였으며 제주 기타 도내에서 17일 시민 2명 피살, 1명은 부상하였다. 또 미군 비행장의 보고에 의하면 동도(同島) 내의 전 통신선이 불통이며 경관 3명이 습격을 받은 중 일본도와 죽창으로 2명이 살해되였다 하며 미군 당국의 정보로는 과거 10일간의 폭동으로 적어도 20명의 사자(死者)를 내였다 한다.


京畿·濟州에暴動

해방신문(解放新聞) **1948년 5월 25일 / 1면**

소요 중의 제주도 근황

소요 중의 제주도 근황
한라산을 근거로 유격대 3천

3월(※ 4월의 오기) 3일부터 발생한 제주도 인민항쟁은 이미 2개월 반이 경과한 금일에 일으러도 점점 치열의 일로(一路)를 걷고 있어 수천명의 사상자를 내고 경찰서 습격, 통신망 파괴, 방화 등 헤알일 수 없는 손해를 내고 주민들은 물론 본토로부터 파견된 경관의 일부와 국방군까지 인민군에 가담하야 항쟁에 새로운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각종 정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 21일 발 조통】(KIP) 제주도 소요사건의 진압을 지휘하고 있든 김정호 공안국장은 제주도의 정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제주도의 「폭도」들은 주로 한라산 동굴을 중심으로 약 2천명이 활동하고 있다. 처음에는 5백명쯤 되든 것이 도민을 징발하여 각지에서 파괴, 방화 등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 그들이 상당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지리적으로도 가장 활동에 편리한 중심지대를 점거하고 있다. 식량도 약 3개월간의 준비가 있는 외에 가끔 해변에 나와 식량을 보급하면서 유격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경찰 측에서는 양민에 손해를 낏치지 않도록 활약하고 있다.

【평양방송】 무장한 인민부대는 계속적으로 경찰서를 습격하고 있으며 15일에는 제주도 김녕경찰지서가 습격되고 덕천리 부락도 습격되였다. 덕천리 습격에는 부락에 거주하는 대동청년단장 송계진이 사살되고 인민부대는 촌장 강희전 씨 안내로 선거 진행 중인 투표함과 선거서류를 방화 소각하고 향보단에 가입하고 있는 부락 청년 9명을 납치하였다. 또 경찰과 국방경비대 사이에도 심히 험악한 공기가 보이고 있는데 민중들은 후자에 가담하고 있으며 14일에는 이 양자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였다. 경찰은 국방경비대가 민중을 사살하지 않는 것을 비난하고 경비대는 경찰이 잔인하다고 공격하고 있다. 이리하야 14일에는 제주읍에 집결하고 있든 국방경비대가 애월면 신암(※ 신엄의 오기)경찰지서 앞을 통행 도중 트락 우에서 지서에 향하야 수십명 대원이 집중 사격을 하야 청사를 파괴하고 순경을 부상시키였다. 이러한 사건에 경악한 제주경비사령관은 부하의 혼란을 진압하기 위하야 서울에 경찰대의 급파를 요청하고 있다.

騷擾中의濟州島近況

漢拏山을根據로 遊擊隊二千

三月三日부터發生한 濟州島人民抗爭은 이미二箇月半이經過한今日에일으러도 漸々熾烈의一路를걸고있어 數千名의死傷者를내고 警察署襲擊、通信網破壞 放火等、헤알일수없는損害를내고 住民들은勿論、本土로부터派遣된警官의一部와國防軍까지、人民軍에加담하야 抗爭에새로운面을보여주고있는데 各種情報를綜合하면 다음과갈다

【서울廿一日發朝通】(KIP) 濟州島騷擾事件의鎭壓을指揮하고있든 金正浩公安局長은 濟州島의情勢에關하여 다음과갈이말하엿다

濟州島의「暴徒」들은 主로 漢라山洞굴을中心으로 約二千名이 活動하고있다 처음에는五百名쯤되든것이 島民을徵發하여各地에서 破壞、放火等、暴動을일으키고있다 그들이相當한武器를 가지고있는것도事實이며 地理的으로도 가장 活動에便利한中心地帶를占據하고있다 食糧도約三個月間의準備가있는外에 가끔 海邊에나와食糧을補給하면서 遊擊戰을繼續하고있는데 警察側에서는 良民에損害를 끼치지않도록 活躍하고있다

【平壤放送】 武裝한人民部隊는 組織的으로警察署를襲擊하고있으며 十五日에는 濟州島金寧警察支署가襲擊되고 德川里部落도襲擊되였다 德川里襲擊에는 部落에居住하는大同靑年團長宋季進이射殺되고 人民部隊는村長姜喜全氏案內로 選擧進行中인投票函과選擧書類를放火燒却하고

은國防警備隊가民衆을射殺하지않는것을非難하고 警備隊는警察이殘忍하다고 攻擊하고있다 이리하야十四日에는 濟州邑에集結하고있든國防警備隊가 涯月面信岩警察支署을通行途中、트락우에서支

鄕保團에加入하고있는部落靑年에向하야 數十名隊員이集年九名을拉致하였다 또警察中의射擊을하야 廳舍를破壞하과國防警備隊사이에도 甚히고、巡警을負傷시키였다 이隊惡한空氣가보이고있는데러한事件에激情한 濟州警備民衆들은 後者에加담하고있司令官은 部下의混亂을鎭壓으며 十四日에는 이兩者사하기爲하야 서울에警察隊의이에衝突이發生하였다 警察急派를要請하고있다

투표 부족으로 제주도 선거 무효

투표 부족으로 제주도 선거 무효

【서울 20일 발 공립】(동아) 5·10 단선을 전후하야 치열한 반대투쟁으로 혼란 상태에 빠지고 있는 제주도의 개표 결과는 그 보도가 제일 늦어서 겨우 판명되었는데 선거는 법정 투표수에 달하지 못하였다.

즉 북제주 갑구에서는 73 투표소 중 31개 구(등록유권자 27,560명, 투표자 11,912명) 을구에서는 61 투표구 중 32개 구(등록유권자 20,917명, 투표자 9,724명)가 투표하였을 따름이다.

投票不足으로
濟州島選擧無效
【서울二十日發共立】(東亞)
五·一〇單選을前後하야 熾
烈한反對鬪爭으로 混亂狀態
에빠지고있는濟州島의開票結
果는 그報道가第一늦어서
겨우判明되었는데 選擧는法
定投票數에達하지못하였다
卽北濟州甲區에서는 七十
三投票所中、三十一個區
(登錄有權者二七、五六〇
名、投票者一一、九二二名)
乙區에서는 六十一投票區
中、三十二個區 (登錄有權
者二〇、九一七名、投票者
九、七二四名) 가投票하였
을따름이다

디-인 군정장관 제주선거 무효 선언

디-인 군정장관 제주선거 무효 선언

【서울 26일 발 공립(동아)】 군정장관 디-인 소장은 26일 제주도 북제주 갑, 을 양구의 선거 무효 급 재선거 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발표하였다.

1. 제주도 북제주군 갑, 을 양구의 5·10선거를 선거법 제44조(총선거 투표 부족)에 의하야 무효로 한다.
2. 우 양구의 재선거는 1948년 6월 23일에 시행한다.

디-인軍政長官
濟州選擧無效
宣言
【서울二十六日發共立(東亞)】
軍政長官디-인少將은 二十
六日 濟州島北濟州郡甲、乙
兩區의選擧無效及、再選擧日
에關하야 다음과같은決定을
發表하였다
一、濟州島北濟州郡甲、乙兩
區의五·一〇選擧는、選擧
法第四十四條(總選擧投票
不足)에依하야 無效로한
다
二、右兩區의再選擧는 一九
四八年六月二十三日에 施
行한다

해방신문(解放新聞) 1948년 6월 1일 / 1면

제주행을 회피한 경관 군사재판으로 처단

제주행을 회피한 경관
군사재판으로 처단

【평양 27일 방송】 제주도의 인민항쟁을 진압하기 위하여 본도로부터 증원대를 다수 파견한다는 것은 누차에 걸쳐 보도한 바인데 출동 명령을 받은 경관들을 속속 사직서를 제출하고 도피하고 있다 한다. 지난 17일에는 철도관구 경찰청 순경 장만석(28), 박봉철(27), 김방휘(연령 불명) 외 1명은 철도관구 경찰청장으로부터 제주도 북부 경비 출동 명령을 받고 이를 회피하야 즉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은신 도피 중 18일 체포되여 군정포고령 제2호 위반으로 종로경찰서 내 군정재판에 회부되였다 한다.

濟州行을回避한警官

軍事裁判으로處斷

【平壤二十七日放送】 濟州島 提出하고 逃避하고있다한다
외人民抗爭을 鎭壓하기爲하 지난十七日에는 鐵道管區警
여 本島로부터 增援隊를多 察廳巡警張萬錫(二八)、朴鳳
數派遣한다는것은 累次에걸 哲(二七)、金方輝(年齡不明)
처報導한바인데 出動命令을 外一名은 鐵道管區警察廳長
받은警官들은 續々辭職書를 으로부터 濟州島北部警備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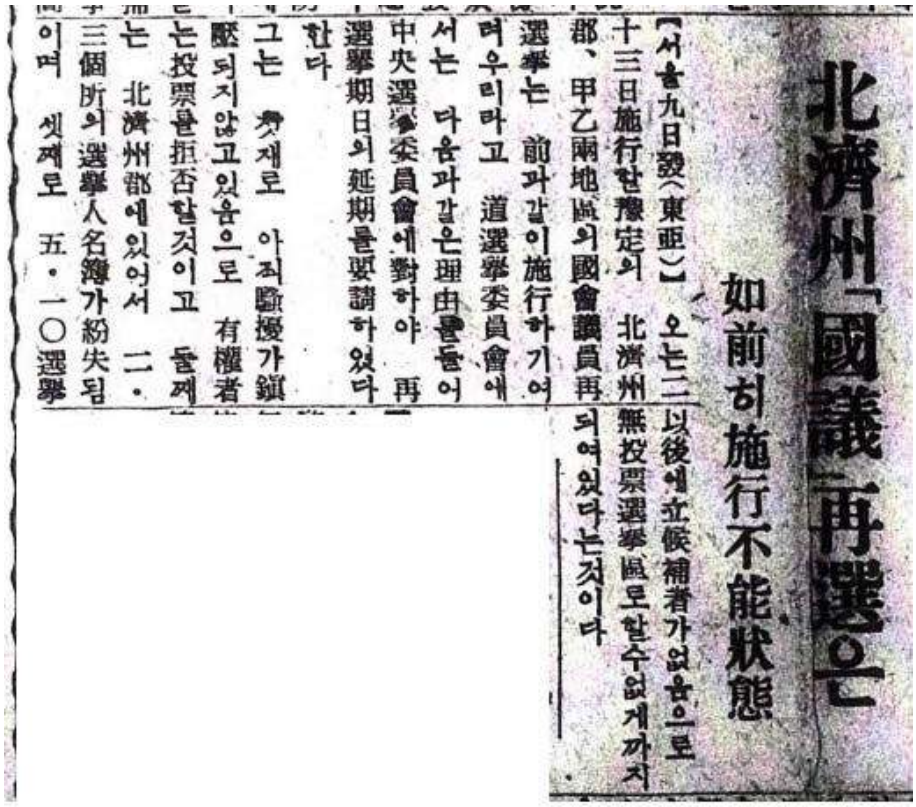
動命令을받고 이를回避하야
即日辭職書를提出하고 隱身
逃避中、十八日逮捕되여 軍
政布告令第二號違反으로 鐘
路警察署內、軍政裁判에廻附
되였다한다

해방신문(解放新聞) 1948년 6월 15일 / 1면

북제주「국의(國議)」재선은 여전히 시행 불능 상태

북제주「국의(國議)」재선은
여전히 시행 불능 상태

【서울 9일 발 (동아)】 오는 23일 시행할 예정의 북제주군 갑을 양 지구의 국회의원 재선거는 전과 같이 시행하기 어려우리라고 도 선거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중앙선거위원에 대하야 재건거 기일의 연기를 요청하였다 한다.
그는 첫째로 아직 소요가 진압되지 않고 있음으로 유권자는 투표를 거부할 것이고 둘째는 북제주군에 있어서 2, 3개소의 선거인 명부가 분실됨이며 셋째로 5·10선거 이후에 입후보자가 없음으로 무투표 선거구로 할 수 없게까지 되여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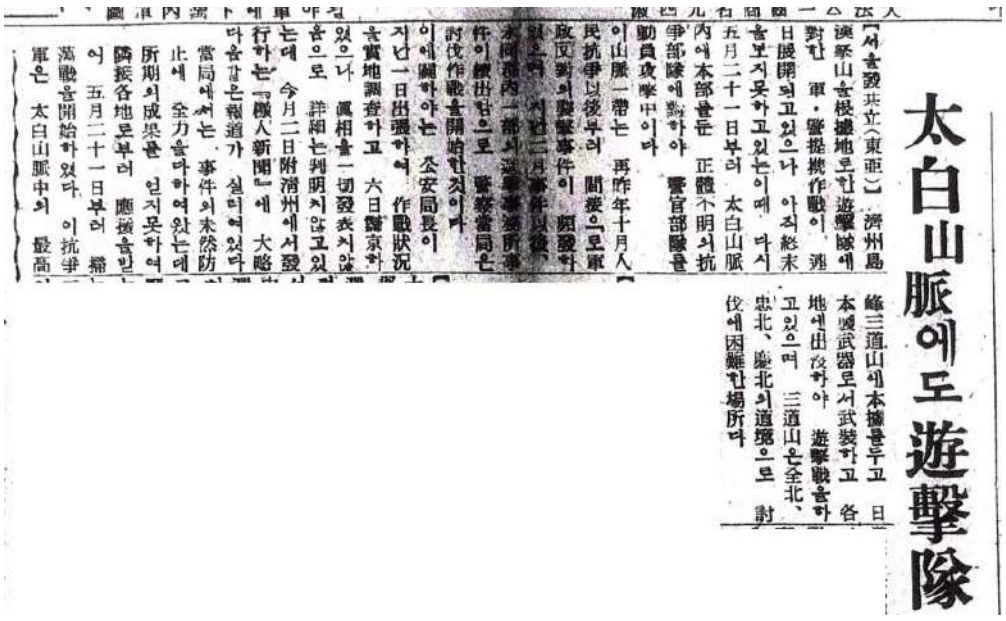

北濟州「國議」再選은
如前히施行不能狀態
【서울九日發(東亞)】 오는二十三日施行할豫定의 北濟州無投票選擧區로할수없게까지 以後에立候補者가없음으로 되여있다는것이다
選擧는 前과같이施行하기여려우리라고 道選擧委員會에서는 다음과같은理由를들어 中央選擧委員會에對하야 再選擧期日의延期를要請하였다 한다
그는 첫재로 아직騷擾가鎭壓되지않고있음으로 有權者는投票를拒否할것이고 둘째는 北濟州郡에있어서 二·三個所의選擧人名簿가紛失됨이며 셋째로 五·一〇選擧

태백산맥에도 유격대

태백산맥에도 유격대

【서울 발 공립(동아)】 제주도 한라산을 근거지로 한 유격대에 대한 군·경 제휴작전이 연일 전개되고 있으나 아직 종말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때 다시 5월 21일부터 태백산맥 내에 본부를 둔 정체불명의 항쟁부대에 대하야 경관부대를 동원 공격 중이다.
이 산맥 일대는 재작년 10월 인민항쟁 이후부터 간접으로 군정 반대의 습격사건이 빈발하였으며 지난 2월사건 이후 영동군내 일부의 선거사무소 사건이 속출함으로 경찰 당국은 토벌작전을 개시한 것이다.
이에 관하야는 공안국장이 지난 1일 출장하여 작전상황을 실지 조사하고 6일 귀경하였으나 진상을 일절 발표치 않음으로 상세는 판명치 않고 있는데 금월 2일 부 청주에서 발행하는 『격인신문(檄人新聞)』에 대략 다음 같은 보도가 실리여 있다.

당국에서는 사건의 미연 방지에 전력을 다하여 왔는데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여 인접 각지로부터 응원을 받어 5월 21일부터 소탕전을 개시하였다. 이 항쟁군은 태백산맥 중의 최고봉 삼도산에 본거를 두고 일본제 무기로서 무장하고 각지에 출몰하야 유격전을 하고 있으며 삼도산은 전북, 충북, 경북의 도경(道境)으로 토벌에 곤란한 장소다.


太白山脈에도 遊擊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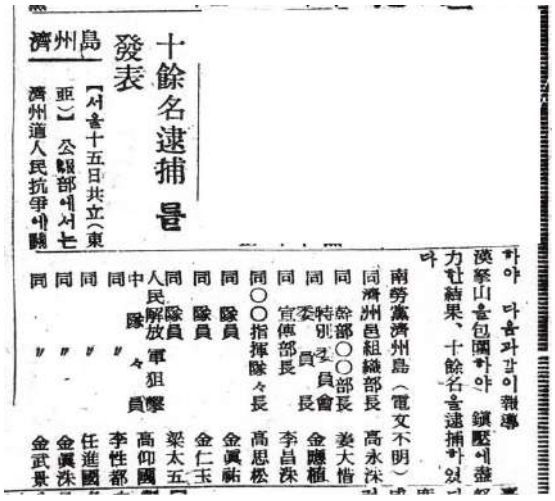
해방신문(解放新聞) 1948년 6월 20일 / 1면

10여명 체포를 발표
제주도

10여명 체포를 발표
제주도

【서울 15일 공립(동아)】 공보부에서는 제주도 인민항쟁에 관하야 다음과 같이 보도 한라산을 포위하야 진압에 진력한 결과, 10여명을 체포하였다.

남로당 제주도(전문 불명)
동 제주읍 조직부장 고영수
동 간부 ○○부장 강대석
동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응식
동 선전부장 이창수
동 ○○지휘대 대장 고사송
동 대원 김진우
동 대원 김인옥
동 대원 양태오
인민해방군 저격중대 대원 고앙국
동 대원 이성도
동 대원 임진국
동 대원 김진수
동 대원 김무경


十餘名逮捕를 發表
島州濟
【서울十五日共立(東亞)】 公報部에서는 濟州道人民抗爭에關
하야 다음과같이報導
漢拏山을包圍하야 鎭壓에盡
力한結果、十餘名을逮捕하였
다
南勞黨濟州島(電文不明)
同濟州邑組織部長 高永洙
同幹部○○部長 姜大惜
同特別委員會委員長 金應植
同宣傳部長 李昌洙
同○○指揮隊々長 高思松
同隊員 金眞祐
同隊員 金仁玉
同隊員 梁太五
人民解放軍狙擊中隊々員 高仰國
同 〃 李性都
同 〃 任進國
同 〃 金眞洙
同 〃 金武景

해방신문(解放新聞) 1948년 6월 20일 / 1면

위정자의 책임
양 김씨 제주도 문제에 언급

위정자의 책임
양 김씨 제주도 문제에 언급

【서울 16일 발 공립(동아)】 김구·김규식 양씨는 제주도 소요의 원인에 대하여 15일 다음과 같이 언명

1. 해방 직후 조직된 인민위원회는 정치력이 강대하여 일부천리(一浮千里)로 정권 행동을 하게 되여 도민들은 이를 인정하고 신뢰하여 왔다는 점
2. 경찰이 가혹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도민의 지지를 받이 못하였다는 점
3. 경찰에 협력하는 청년단원이 경찰 이상의 경찰권을 행사하고 가혹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도민의 원한을 받었다는 점
4. 위정자들이 중국·일본 등지와 밀무역에 몰두하야 정치를 등한시하고 모리(謀利)에 열중하게 됨으로 일반 도민의 공격의 적(的)이 되어왔다는 점 등

爲政者의責任
兩金氏濟州島問題에言及

【서울十六日發共立(東亞)】 騷擾의原因에對하여 十五日 金九·金奎植兩氏는 濟州道다음과같이言明

一、解放直後組織된人民委員會는 政治力이强大하여 一浮千里로政權行動을하게 되여 道民들은 이를認定하고信賴하여왔다는點
二、警察이苛酷한行動을 하게때문에 道民의支持를 받이못하였다는點
三、警察에協力하는青年團員이 警察以上의警察權을行使하고 苛酷한行動을 하기때문에 道民의怨恨을 받었다는點
四、爲政者들이中國·日本等地와密貿易에沒頭하야 政治를等閑視하고 謀利에熱中하게되으로 一般道民의攻擊의的이되여왔다는點、等

해방신문(解放新聞) 1948년 6월 25일 / 1면

제주도 사건 중대 문제화

제주도 사건 중대 문제화
각 정당 견해 발표
살기 위하야 봉기한 인민에
경찰, 경비대 출동은 죄과(罪過)
부패 관리 숙청하라 - 한독당

제주도 사건은 지난 5월 31일 소위 국회 개원식이라는 날을 기하여 국방경비대의 전면적 진압행동으로 말미아마 비통한 민족상살(相殺)전이 전개되고 있는데 전과는 지난 2일 국방경비대 제주도 사령부로부터 발표, 3일에는 통위부에서 공표되었다. 이 발표가 너무나 민족애를 무시한 반인민적 태도임으로 전 애국 인민의 반감을 받고 있어 각 당에서는 이 사건에 관하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여 그 견해를 명백히 하였다.
【서울 18일 발 합동(공화)】 제주도의 인민항쟁에 대한 진압정책에 대하여 각 당에서는 벌서 그 견해를 표명하였는데 민주한독당에서는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고 당국의 자중과 반성을 희망하였다.

1. 제주도민의 봉기는 부패된 관리의 행정상의 과오에 기인하는 것이다.
2. 살기 위하야 봉기한 인민에 대하야 선도하는 것이 당국의 취할 태도인데 경찰 급 경비대를 출동시켜 인민과 상대하야 전투적 행위를 하는 것은 민주정치에 큰 죄과라고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3. 이 사건을 위무하기 위하여서는 친일파의 부패관리를 숙청하고 제주민의 지지를 받는 민주주의자를 등용함으로서만이 문제의 해결이 될 것이다.

전 인민의 요구이니 민족 상살(相殺) 중지하라!

신진당
제주도 사건에 관하야 동족 상살의 참극을 즉시 중지할 것은 전 민족의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31일 국방경비대의 출동을 보게 된 것은 대단히 유감이며 민족 간의 분열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민족 통일을 위하야 일층 신중한 행동을 요망하는 바이다.

사민당
금반 이러난 제주도 도민의 봉기는 해방 이후 국내 최대의 사건이며 우리 3천만 민족의 관심은 이에 집중하고 있다. 이때 국방경비대라는 발표는 우리들에게 깊이 생각되는 점이

있다. 그네들의 출동은 동족 간의 분쟁이며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그 원인을 잘 조사하야 동족애에 기(基)하지 않은 이상은 해결하지 못한다.

인민을 민족반역자 시(視)하는 행위
근민당

우리 민족의 생명 재산 보호 급 그 성업(聖業)을 자인하는 국방경비대가 제주도 도민을 진압하기 위하야 출동한 것은 그 이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동족 상살의 민족적 비통을 문자 그대로 표현한 것이며 특히 출동 이래의 전과 운운의 발표는 같은 민족을 불구대천(不俱戴天)의 민족반역자를 토벌하는 것과 같이 취급되는 실감을 주는 것이며 민족의 영예와 애족정신을 가지고 중지하도록 요구하는 바이다.

濟州島事件重大問題化

☆ 各政黨見解發表 ☆

살기爲하야蜂起한人民에 警察、警備隊出動은罪過

腐敗官吏肅淸하라 ── 韓獨黨

濟州道事件은 지난五月三十一日、所謂國會開院式이라는날을期하여 國防警備隊의全面的鎭壓行動으로말미아마 悲慘한民族相殘戰이展開되고있는데 戰果는 지난二日、國防警備隊濟州道司令部로부터發表、三日에는統衛部에서公表되었다 이發表가 너무나民族愛를無視한反人民的態度임으로 全愛國人民의反感을받고있어 各黨에서는 이事件에關하야 다음과같은談話를發表하여 그見解를明白히하였다

【서울十六日發合同】(共和)

二、살기爲하야蜂起한人民에 對하야 善導하는것이當局의 取할態度인데 警察及警備隊를出動시켜 人民과相對하야 殘酷的行爲를하는것은 民主政治에 큰罪過라고하지않으면 아니된다

濟州島의人民抗爭에對한鎭壓政策에對하여 各黨에서는 벌서 그見解를表明하였는데 民主韓獨黨에서는 그原因을다음과같이發表하고 當局의自重과反省을希望하였다

一、濟州島民의蜂起는 腐敗된官吏의行政上의過誤에基因하는것이다

三、이事件을慰撫하기爲하여서는 親日派의腐敗官吏를肅淸하고 濟州民의支持를받는民主主義者를登用함으로서만이 問題의解決이될것이다

全人民의要求이니 同族相殺中止하라!

新進黨

濟州道事件에關하야 同族相殺의慘劇을 即時中止할것은 全民族의要求임에도不拘하고 지난五月三十一日、國防警備隊의出動을 보게된것은 大端히遺憾이며 民族間의分裂을促進시키는것이다 民族統一을爲하야 一層愼重한行動을要望하는바이다

人民을民族叛逆者視하는行爲

勤民黨

勤民黨 ── 今般이러난濟州道民의蜂起는 解放以後國內最大의事件이며 우리三千萬民族의關心은 이에集中하고

우리民族의生命財産保護及、그聖業을自認하는 國防警備隊가 濟州道민을鎭壓하기爲하야出動한것은 그理由의 如何를不問하고 同族相殺의 民族的悲痛을文字、그대로表現한것이며 特히出動以來의 戰果云云의發表는 같은民族을不俱戴天의民族叛逆者를討伐하는것과같이取扱되는實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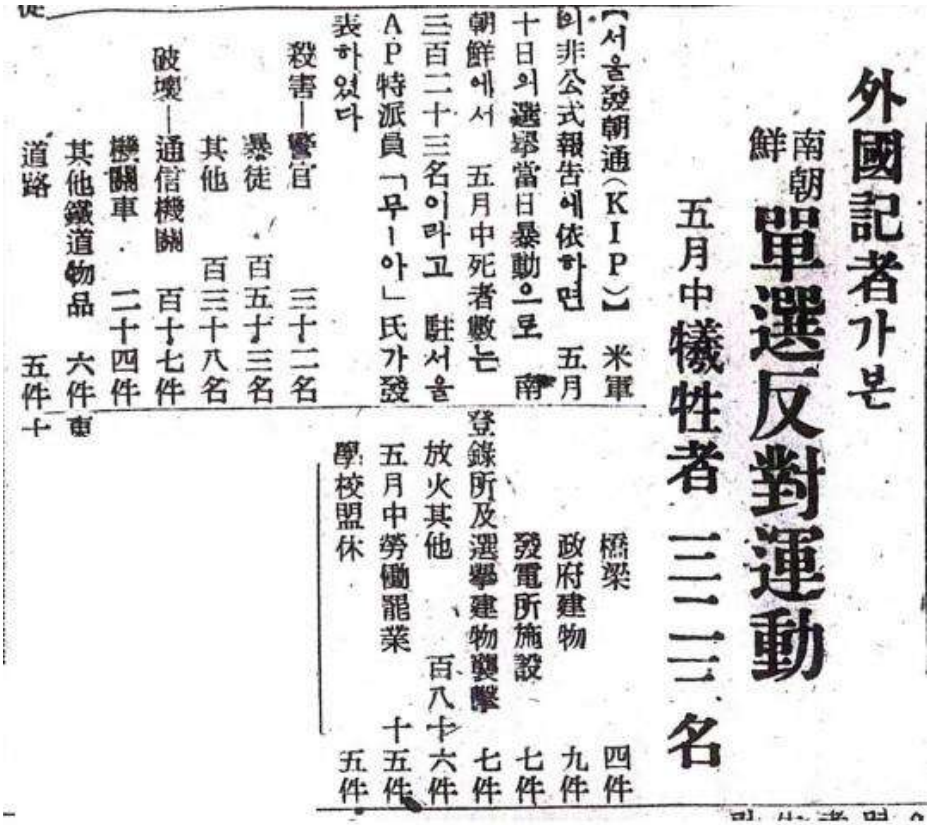
외국 기자가 본 남조선 단선 반대운동

외국 기자가 본 남조선 단선 반대운동
5월 중 희생자 323명

【서울 발 조통(KIP)】 미군의 비공식 보고에 의하면 5월 10일의 선거 당일 폭동으로 남조선에서 5월 중 사자(死者) 수는 323명이라고 주 서울 AP 특파원 「무-아」씨가 발표하였다.

살해 - 경관 32명, 폭도 153명, 기타 138명

파괴 - 통신기관 117건, 기관차 24건, 기타 철도물품 6건, 도로 5건, 교량 4건, 정부건물 9건, 발전소 시설 7건, 등록소 급 선거건물 습격 7건, 방화 기타 186건, 5월 중 노동파업 15건, 학교 맹휴 5건


外國記者가본
南朝鮮 單選反對運動
五月中犧牲者 三二三名
【서울發朝通(KIP)】 米軍의非公式報告에依하면 五月十日의選擧當日暴動으로 南朝鮮에서 五月中死者數는 三百二十三名이라고 駐서울 AP特派員「무-아」氏가發表하였다
殺害—警官 三十二名
暴徒 百五十三名
其他 百三十八名
破壞—通信機關 百十七件
機關車 二十四件
其他鐵道物品 六件
道路 五件
橋梁 四件
政府建物 九件
發電所施設 七件
登錄所及選擧建物襲擊 七件
放火其他 百八十六件
五月中勞働罷業 十五件
學校盟休 五件

해방신문(解放新聞) 1948년 7월 20일 / 1면

비도(比島) 후크바라합단(團) 항복의 진상

비도 후크바라합단 항복의 진상
누가 누구에게 대사령(大赦令)을 내렷는가? (해설)

(1)
조국의 제주도 항쟁을 멀리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보도는 되지 않고 있으나 대만 인민들의 피투성이의 싸움과 비도(比島)의 중부 루손에서 3년간이나 총·칼을 들고 정부군과 싸워온 「후크바라합프단」을 아울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으로 그 「후크바라합단」이 드듸어 정부군에 항복하야 비도에도 평화의 서광이 찾어왔다는 신문 보도 하에 접할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러면 일본 상업신문의 보도 그대로 과연 비도에는 「후크바라합단」의 항복으로 말미아마 평화가 찾아왔는가. 아니 그 단이 실지로 비도의 참된 평화를 교란하는 자이였든가? 그리고 또 한참으로 「후크바라합단」이 싸움에 못이겨서 키티노 대통령의 무력과 정책 앞에 무릅을 꿀고 대사(大赦)를 애걸하였는가? 아니 도대체 「후크바라합단」이란 무엇인가?

(2)
「후크바라합」라는 말은 「항일의용군」이라는 의미의 「다가로그」어다. 1942년 비도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을 그때 「파탄」 전장에 내여버린 무기를 부근의 농민들이 주어서 자위단을 만든 것이 단초가 되어 그것이 점점 커져서 자기들의 토지를 지키기 위하야 일본군과 싸워 지주들이 전화(戰火)를 피해 도시로 도망질친 뒤에 그 토지를 공평하게 나누어 인민이 스사로 정치를 하고 있었다. 이 중국 해방지구와 같은 정치를 한 곳이 바로 중부 「루손」의 「판판가」와 「뇌바·에샤」 2주의 - 즉 비도의 곡창지이였다. 미군이 비도에 재상륙하게 되자 그와 협력하야 일군을 격퇴하고 비도의 해방을 전취한 이 단의 그때 세력은 15만 내지 20만에 달하고 있었다.

(3)
비도가 일군의 침략에서 해방되자마자 비도의 항일민주 세력은 민주동맹에 결집되여 이 「후크바라합」은 물론 「청경(靑驚)」 등의 개리라 단체·전국농민조합·시민해방연맹·노동협의회·비도공산당 등이 모아 그 정강은
1. 대일 협력자의 추방
2. 비도의 정치경제적 독립
3. 비도의 민주적 공업화

4. 토지개혁

등인대 우리 조선 인민의 요구와 비교해 볼 때 너무나 공통된 점에 놀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야 1946년 4월의 총선거 시에 이 민주동맹은 상하원에서 10명의 의원을 내였으나 의회는 그 10명의 출석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인민의 세력을 무서워하야 군대로서 이「후크바라합」을 공격하기 시작하니 소위 1946년 7월 4일의 비도 독립축하식은 그 이면에 있어서 인민의 피로 물드리고 있었든 것이다.

그리하야 오늘날까지 3년 동안을 인민과 지배권과의 피는 끗일 사이 없이 흘러오고 있는 동안에「후크바라합」의 세력은 점점 확대 강화하야 처음 해방된 2주 외에 다시 2주를 해방하고 남부 루손에까지 진출하게 되어 병력과 장비도 배가하였다. 3년간에 비도의 정세도 크게 발전하야 중부 루손 이외에서도 인민의 해방운동은 앙양되고 이「후크바라합」에 토지를 점령당한 지주들도 전쟁을 실어하고 민족자본가들도 외국에 의존하야 비도를 부흥할려는 정부를 비난하게 되니 드듸어 정부 내에도 무력행동으로서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성질이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하게 되였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키티노 대통령은 교묘한 정치적 수단으로 이번「대사령 정책」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그럼으로 외력(外力)에 자(藉)한 체면상「후크바라합」단의 무장해제가 선결이 되어있으나 그 실에 있어서 누구가 누구를 대사한 것인가는 장차 알 때가 올 것이다.

(4)

「후크바라합」단의 지도자 루이쓰·탈크 씨는 김일성 장군을 연상시키는 37세의 젊은이다. 열에○「토비(土匪)의 수령」으로서 선전되여 있든 그 진실한 인민의 지도자는 마니라시에 나와 정부와의 화평협정에 조인하였다. 그리하야 하원에도 출석하야 (총선거 시에 하원에 당선된 의원이였다) 당당하게 요구하였다.

「농민에 토지와 농구를 주라! 저임금 노동자에 생활급을 주라! 민족공업을 번영시키라! 이것이 국내 평화의 기초이다」라고

또 그리고 인민대중에 호소하기를

「후크바라합단은 굴복하지 않았다. 소위 대사령의 공포로서 생겨난 조건부 평화 - 즉 인민의 자유가 보증되면 무기를 버린다는 조건부 평화가 언제까지 계속되는가는 우리 인민의 민주세력과 그 자유를 지키는대 얼마나 우리가 싸우는가에 달려있다」라고

누가·누구에게 大赦令을내렸는가?

(解說)

해방신문(解放新聞) 1948년 7월 25일 / 1면

호적에 없는 자식을 내란다고 통분하는 제주 노부(老婦)들

호적에 없는 자식을 내란다고
통분하는 제주 노부들
서울 신문기자 현지 보고

【21일 동아】 어부를 기다리는 해변의 노점이나 이 부락 저 부락에서 오르는 저녁연기에도 아무런 활기도 기합도 보이지 않고 작금의 제주도에는 경관, 경비대원이 거리거리를 두덕두덕 우물거리고 있을 뿐이다.
도민들은 그의 생활의 생명선이며 근원인 바다를 바라부면서 출어할 수도 없고 당국의 무능에 불평만을 가지고 있다. 또 60여리 주변의 부락에는 청년의 얼굴을 한 사람도 볼 수 없다. 청년들은 무모한 집단검거와 학살을 피하여 인민해방전선의 투사가 되고 있다.
또 이 산 저 곡(谷)의 농장에서는 노부(老婦)들이 무거운 노체를 안고 비통한 한숨만 내면서 「내 자식, 내 손자를 내여 노와라」는 원망스러운 얼골로 우리 일행에게 말을 걸친다. 한편 신임 경찰서장의 강연회에 들어오는 수백의 군중들이 우리 일행을 둘러쌓고 말하기를 「백성이 먹을 수 있도록 하여라」는 비탄한 소리를 웨치면서 덤벼든다. 「당신네의 지금 제일 큰 고통은 무엇이요?」라고 질문을 한 즉 군중은 「호적에도 없는 자식과 딸을 내여노라는 경비대와 경관의 무지막지한 요구에는 죽겠소」하는 열광적인 절규에는 눈이 휘들드라.
어떤 경관 나리가 군중들에게 말하기를 불원간에는 출어 허가도 나리고 타 부락과의 교통도 허가되며 각종의 납부금도 불입이 취소된다고 말해도 군중은 이에는 아무런 흥미도 갖이지 않고 증심(憎心)에 떨리는 입을 깍물고 분기하는 얼골에는 투심(鬪心)이 비약하고 있는 듯하다.

戶籍에 없는 子息을 내란다고

痛憤하는 濟州老婦들

서울新聞記者現地報告

【二十一日東亞】 漁夫를 기다리는 海邊의 露店이나 이 部落、저 部落에서 오르는 저녁煙氣에도 아무런 活氣도 氣合도 보이지 않고 昨今의 濟州島에는 警官、警備隊員이 거리거리를 두덕々々 우물거리고 있을 뿐이다 島民들은 그의 生活의 生命線이며 根元인 바다를 바라부면서 出漁할 수도 없고 當局의 無能에 不平만을 가지고 있다 또 六十餘里 周邊의 部落에는 靑年의 얼골을 한사람도 볼 수 없다 靑年들은 無謀한 集團檢擧와 虐殺을 避하야 人民解放戰線의 鬪士가 되고 있다

또 이山、저谷의 農場에서는 老婦들이 무거운 老體를 안고 悲痛한 한숨만 내면서 「내 子息、내 孫子를 내여 노와라」는 원망스러운 얼골로 우리一行에게 말을 걸친다 한편 新任警察署長의 講演會에 들어오는 數百의 群衆들이 우리一行을 둘러쌓고 말하기를 「百姓이 먹을 수 있도록 하여라」는 悲嘆한 소리를 웨치면서 덤벼든다 「당신네의 지금 第一 큰 苦痛은 무엇이요?」라고 質問을 한즉 群衆은 「戶籍에도 없는 子息과 딸을 내여노라는 警備隊와 警官의 무지막지한 要求에는 죽겠소」하는 熱狂的인 絶叫에는 눈이 휘둘드라

어떤 官吏나리가 群衆들에게 말하기를 不遠間에는 出漁許可도 나리고 他部落과의 交通도 許可되며 各種의 納付金도 拂込이 取消된다고 말해도 群衆은 이에는 아무런 興味도 갖이지 않고 憎心에 떨리는 입을 깍물고 憤起하는 얼골에는 鬪心이 飛躍하고 있는 듯하다

해방신문(解放新聞) 1948년 8월 1일 / 2면

태풍으로 도작(稻作) 전멸
제주의 식량사정 우려

태풍으로 도작 전멸
제주의 식량사정 우려

【서울 23일 발 동아】 제주도민의 식생활은 보리(麥), 조(粟), 고구마(甘藷), 팟(小豆) 등의 잡곡을 상식(常食)으로 하며, 매년 본토로부터 7만석 가량 미곡을 이입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의 전부는 특권계급, 관공리용으로 소비되여 일반 도민은 1홉(合)의 배급도 없다. 금년도의 곡물 상황은 전반적으로 우려되며 본토로부터 상당량의 배급을 받어야 할 상태에 있는데 농민은 전력을 다하야 도작을 약 9할 가량 식부(植付)를 맞이고 수확기를 기대하든 바 지난 7일의 폭풍우로 전멸 상태에 있다 한다. 이에 대하야 당국은 아무런 구제 대책도 없고 30만 도민의 식생활이 대단 우려되고 있다.

颱風으로稻作全滅
濟州의食糧事情憂慮
【서울二十三日發東亞】 濟州島民의食生活을 보이 (麥) 조 (粟) 고그마(甘藷) 팟(小豆) 等의雜穀을 常食으로하며 每年、本土로부터 七萬石가량 米穀을移入하고있는 狀態인데 그의全部는 特權階級、官公吏用으로 消費되여一般島民은 一合의配給도 없다 今年度의 穀物狀況은 全般的으로憂慮되며 本土로부터 相當量의 補給을받어야 할狀態에있는데 農民은 全力을다하야 稻作을約九割가량植付을맞이고 收穫期를 期待하든바 지난七日의暴風雨로 全滅狀態에있다한다 이에對하야 當局은 아무런 救濟對策도없고 三十萬島民의 食生活이 大端憂慮되고 있다

사설 : 8월 15일을 맞이하야

사설
8월 15일을 맞이하야

8월 15일!
우리는 오늘 감격도 새로운 8·15의 세 번째 돌을 또다시 이 땅에서 맞이한다.
친애하는 재일 60만 동포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골수에 사무쳐 사라지지 않는 망국 민족으로서의 쓰라린 원한을 잊이는 않었겠지! 3천만의 동포와 3천리의 강토를 갖인 우리 조선이 서구라파의 몇 개 국가를 합친 것보다도 더 큰 나라이면서 수치서럽게도 근 반세기 동안이나 악독한 왜놈들의 식민지 노예가 되어 사상에도 그 예를 보지 못한 착취와 압박 밑에 얼마나 분한 멸시와 천대를 받어왔든가!
(중간 생략)
조국에 있어서는 임이 민족심을 가진 전 조선 인민은 이 이상 앉아서 민족의 분열을 보고 있을 수 없어 드듸어 이러나지 않었는가!
제주도 사건 하나만을 보드라도 인민이 단결하고 결속하야 행동을 같이 하며 조직적으로 투쟁을 전개할 때 단선(單選)은 분쇄되고 흉악한 기도는 배격되고 있는 사실을 보라!
(이하 생략)

해방신문(解放新聞) 1948년 9월 1일 / 1면

남조선 인민대표자 회의는 20일부터 해주에서 개최

남조선 인민대표자 회의는
20일부터 해주에서 개최

【평양 발 북통(신아)】 20일부터 4일간에 걸쳐 남조선 인민대표 1,080명은 황해도 해주시 공회당에 모여 조선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관한 회의를 열었는데 회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인민공화국 국기 밑에
천80명 참집

[제1일] 오전 11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의 게양식을 한 후, 박헌영 씨의 본회의에 참가한 1,080명은 남조선 전 인민의 74.42%인 673만인을 대표한 것이며 이날 출석자는 997명이라는 보고와 홍명희 씨(민주독립당수)의 개회사가 있었다. 수석단에는 남조선 각 정당·단체 대표자와 내빈으로 김일성 김두봉 씨를 비롯하야 북조선 각 정당·단체 대표가 착석하고 북조선의 김두봉 씨로부터 축사가 있은 후, 중앙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의에 대한 토론이 오후 6시까지 열렬히 전개되고 밤에는 국립극장에서 『백두산』의 관극(觀劇)으로 제1일의 회의를 마쳤다.

제주도 항쟁 보고

[제2일] 오전 11시 박헌영 씨 속회를 선언하고 이어 전남, 경북, 강원, 서울 각 대표로부터 각각 8·25 총선거와 중앙정부 수립은 우리들의 일대 구국투쟁이다. 남조선 대표가 북조선에 와서 이러한 중대한 회의를 가지게 된 것은 북조선의 민주 발전의 진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금반 회의에 대하야 각종의 편의를 부여하여 준 북조선인민위원회 김일성 씨에 경의를 표한다는 등의 연설이 있었다. 이어서 북조선 각지의 건설노동자를 대표하야 흥남질소공장, 평양기계공장, 방적공장, 청진제철, 강원의 제련소 등 각 직장 대표가 동 대회를 축하야 입장, 회장의 대표는 일동 기립하야 박수로서 이를 환영 오후 1시 일단 휴게, 동 2시부터 속개되여 북조선 각 직장 노동자 대표의 축사가 있고 토론이 속개되었다. 다음 각지로부터 대회를 축하는 축전 164통의 피로(披露)가 있고 제주도 김 대표가 등단하야 장시간에 걸쳐 제주도 인민항쟁의 전모를 명백히 하는 보고를 하여 만당에 감명을 주었다.

다음에 전남 화순 지방의 농민 노동자 558여명 대표로부터의 격려문 소개가 있은 후 제2일을 끝마쳤다.

360명 입후보

[제3일]은 오전 9시 이극로 씨 사회로 개최, 북조선 각도 대표로부터 축하 화환 전달과 축하의 인사가 있은 후 이어서 동 대회의 결의안 기초자 백남운 씨로부터 결의 초안의 중간보고와 동 결의안의 심사위원장 이극로 씨(동 위원회는 농민, 노동자, 청년, 여성으로 구성)로부터의 의견 발표가 있었다.
이어서 북조선 여성 대표의 축사 서한의 대독과 북조선 문화인 대표의 축사, 김원봉 씨(인민당수)의 토론이 있은 후 오전부는 끝마치었다. 휴게 후 오후 1시 이극로 씨 사회로 속개되여 북조선 민청 대표로부터 격려의 인사가 있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입후보자 추천에 관한 장시간의 토론이 있어 이에 대한 박헌영 씨의 설명 급 토론을 마치고 동 입후보자를 추천할 전형위원 50명을 선출한 후 북조선 각 직장, 개인으로부터의 축전, 축문의 발표로 일정을 마쳤다.

[제4일]은 9시부터 이영 씨 사회로 열리어 의안에 들어가기 전에 평양혁명자유가족학원 학생 대표 최준길 군의 과거의 비참한 생활 소개와 현재의 생활을 찬양하는 축하에 이어 입후보자에 관한 총체적 토의가 시작되었는데 주석단 이승엽 씨로부터 서울 영등포에서 입후보한 박헌영 씨를 비롯하야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명을 불러 대의원 입후보자로서 투표 명판에 기입하는 데 대한 전체 대표의 총의를 물은 즉 만장은 박수로서 이에 응하였다. 이리하야 360명의 대의원 입후보는 전체 대표자의 환호지지 하에 정식 입후보 승인을 받었다. 이어 투표 계산을 하기 위하야 9명의 계산위원을 선출하고 북조선 공장, 광산, 농촌으로부터의 축전 낭독이 있었다.

[제5일]은 25일, 이날은 북조선 선거와 보조를 가치하여 오전 10시 30분 전 대표자가 선거장에 나아가서 각각 남조선 인민을 대표하야 투표하였다.

南朝鮮人民代表者會議는

廿日부터海州에서開催

(平壤發北通(新亞)) 廿日부러四日間에 걸처 南朝鮮人民代表、一〇八〇名은 黃海道海州市公會堂에 모여 朝鮮最高人民會議代議員選擧에 關한會議를 열었는데 會議狀況은 다음과같다

人民共和國 國旗밑에 千八〇名參集

(第一日) 午前十一時國體代表者와 에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國旗의 揭式을한後、朴憲永氏의本會議에參加한 一、〇八〇名은 南朝鮮全人民의七四·四二%인六七三萬人을代表한것이며 오날出席者는 九九七名이라는報告와 洪命熹氏(民主獨立黨首)의開會辭가 있었다 首席團에는 南朝鮮各政黨·

來賓으로金日成金科擧氏를 비롯하야 北揭揚朝鮮各政黨·國體代表가滿席하고 北朝鮮의金科擧氏로부어 祝辭가있은後、中央政府獨立의歷史的意義에對한 討論이 午後六時까지 熱烈히 展開되고 밤에는國立劇場에서『白頭山』의觀劇으로 第一日의會議를 마쳤다

濟州道抗爭報告

(第二日) 午前十一時 朴憲永氏續會를宣言하고 이어 全南、慶北、江原、서울各代表로부러 各々八·二五總選擧와中央政府樹立은 우리들의一大救國鬪爭이다 南朝鮮代表가 北朝鮮에와서 이며한重大한會議를 가지게 된것은 北朝鮮의民主發展의

選擧를實施하는것이다 今般會議에對하야 各種의便宜을附與하여준 北朝鮮人民委員會、金日成氏에敬意를 表한다는等의 演說이있었다 이어서 北朝鮮各地의建設勞働者를代表하야 興南窒素工場、平壤機械工場、紡績工場 濟津製鐵、江原의製鍊所等、各職場代表가同大會를祝하야

入場、會場의代表는 一同起立하야 拍手로서 이를歡迎 午後一時一旦休憩、同二時부러續開되어 北朝鮮各職場勞

다음에 全南和順地方의農民勞働者五五八餘名代表로부터의激勵文紹介가있은後、第二日을 끝마쳤다

働者代表의祝辭가있고 討論이繼續되었다 다음各地로부터 大會를祝하는 祝電百六十四通의披露가있고 濟州道金代表가登壇하야 長時間에 걸처 濟州島人民抗爭의全貌를 明白히하는報告를하여 滿堂에感銘을 주었다

三六〇名立候補

(第三日)은午前九時 李克魯氏司會로開催、北朝鮮各道代表로부터祝賀花環傳達과祝賀의人事가있은後、이어서同大會의決議案起草者、白南雲氏로부터決議草案의中間報告와同決議案의審査委員長李克魯氏、(同委員會는農民、勞働者、靑年、女性으로構成)로부터의 意見發表가있었다 이어서 北朝鮮女性代表의祝辭藝術의代表와 北朝鮮文化人代表의祝辭、金元鳳氏(人民黨首)의討論이있은後、午前部는 끝마치었다 休憩後 午後一時、李克魯氏司會로繼開되어 北朝鮮民靑代表로부터激勵의人事가있고 最高人民會議代議員立候補者推薦에 關한 長時間의討論이있어 이에對한朴憲永氏의說明及討論을 마치고 同立候補者를 推薦할銓衡委員五十名을選出한後、北朝鮮各職場、個人으로부터의祝電、祝文의發表로 日程을 마쳤다

(第四日)은九時부터 李英氏司會로 넘이어 議案에 들어가기前에 平壤革命者遺家族學院、學生代表崔俊吉君의過去의悲慘한 生活紹介와現在의生活을 찬양하는祝賀에 이어 立候補者에關한 總體的討議가始作되었는데 主席團李承燁氏로부터 서울永登浦에서立候補한 朴憲永氏를 비롯하야 한사람 한사람의姓名을 들며 代議員立候補者로서 投票名板에記入하는데對한 全體代表의總意를 물은즉 滿場은 拍手로서 이에應하였다 이리하야三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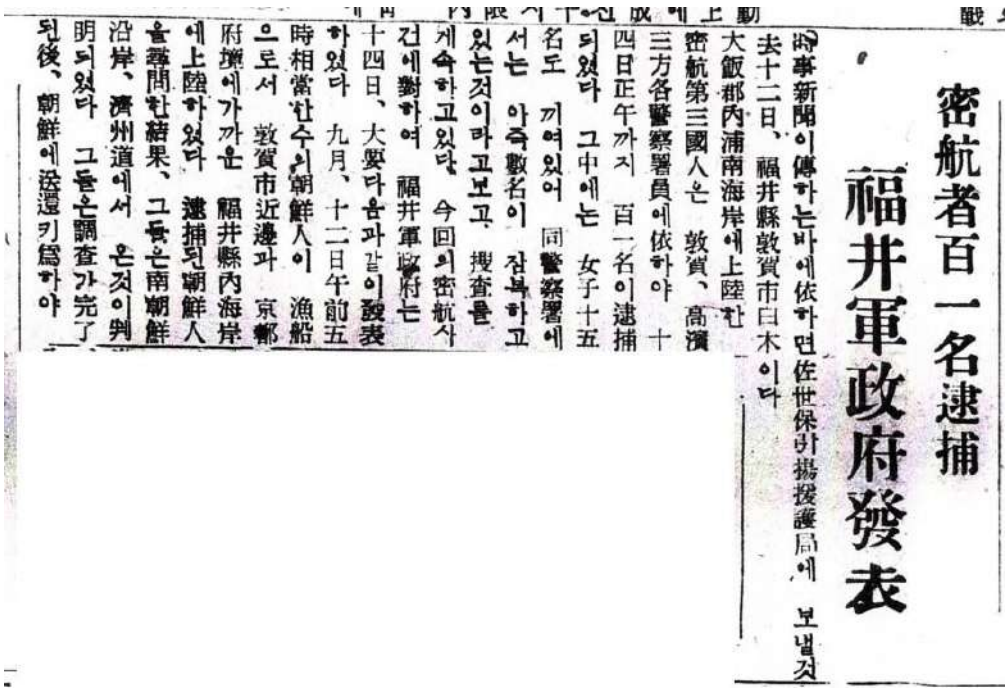
六十名의代議員立候補는 全補代表者의歡呼支持下에 正式立候補承認을 받었다 이어投票計算을하기爲하야 九名의計算委員을 選出하고 北朝鮮工場、鑛山、農村으로부터의祝電朗讀이있었다

(第五日)은 二十五日、이날은 北朝鮮選擧와步調를 가치하야 午前十時三十分、全代表者가 選擧場에 나아가서 各々南朝鮮人民을代表하야 投票하였다

밀항자 101명 체포 복정(福井) 군(軍)정부 발표

밀항자 101명 체포
복정(福井) 군정부 발표

시사신문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거(去) 12일 복정현(福井縣) 돈하시(敦賀市) 백목대반군(白木大飯郡) 내 포남(浦南) 해안에 상륙한 밀항 제3국인은 돈하(敦賀), 고빈(高濱), 삼방(三方) 각 경찰서원에 의하야 14일 정오까지 101명이 체포되였다. 그 중에는 여자 15명도 끼여있어 동 경찰서에서는 아즉 수명이 잠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금회의 밀항 사건에 대하여 복정(福井) 군정부는 14일 대요(大要)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9월 12일 오전 5시 상당한 수의 조선인이 어선으로서 돈하시(敦賀市) 근변(近邊)과 경도부(京都府) 경에 가까운 복정현(福井縣) 내 해안에 상륙하였다. 체포된 조선인을 심문한 결과 그들은 남조선 연안, 제주도에서 온 것이 판명되였다. 그들은 수사가 완료된 후 조선에 송환키 위하야 좌세보(佐世保) 인양원호국에 보낼 것이다.



密航者百一名逮捕

福井軍政府發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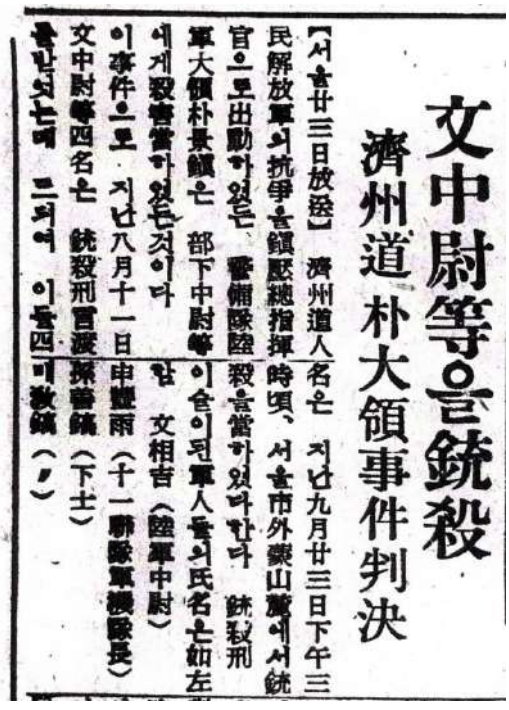
時事新聞이傳하는바에依하면佐世保引揚援護局에 보낼것
去十二日、福井縣敦賀市白木이다
大飯郡內浦南海岸에上陸한
密航第三國人은 敦賀、高濱
三方各警察署員에依하야 十
四日正午까지 百一名이逮捕
되였다 그中에는 女子十五
名도 끼여있어 同警察署에
서는 아즉數名이 잠복하고
있는것이라고보고, 捜査를
계속하고있다 今回의密航사
건에對하여 福井軍政府는
十四日、大要다음과같이發表
하였다 九月、十二日午前五
時相當한수의朝鮮人이 漁船
으로서 敦賀市近邊과 京都
府境에가까운 福井縣內海岸
에上陸하였다 逮捕된朝鮮人
을審問한結果、그들은南朝鮮
沿岸、濟州道에서 온것이判
明되였다 그들은調査가完了
된後、朝鮮에送還키爲하야

해방신문(解放新聞) 1948년 9월 30일 / 1면

문 중위 등을 총살
제주도 박대령 사건 판결

문 중위 등을 총살
제주도 박대령 사건 판결

【서울 23일 방송】 제주도 인민해방군의 항쟁을 진압 총지휘관으로 출동하였든 경비대 육군 대령 박경진(※ 박진경의 오기)은 부하 중위 등에게 총살당하였든 것이다.
이 사건으로 지난 8월 11일 문 중위 등 4명은 총살형 언도를 받엇는데 드듸여 이들 4명은 지난 9월 23일 하오 3시경 서울시외 모 산록에서 총살을 당하였다 한다. 총살형 이슬이 된 군인들의 씨명은 여좌함.
문상길(육군 중위)
신상우(11연대 군기대장)
손선호(하사)
배경용(〃)


文中尉等을銃殺
濟州道 朴大領事件判決
【서울廿三日放送】 濟州道人名은 지난九月廿三日下午三
民解放軍의抗爭을鎭壓總指揮時頃、서울市外蒙山麓에서銃
官으로出動하였든 警備隊陸殺을當하였다한다 銃殺刑
軍大領朴景鎭은 部下中尉等이슬이된軍人들의氏名은如左
에게殺害當하였든것이다 함 文相吉(陸軍中尉)
이事件으로 지난八月十一日申豐雨(十一聯隊軍機隊長)
文中尉等四名은 銃殺刑言渡孫善鎬(下士)
를받엇는데 드듸여 이들四 明敎鎬(〃)

남조선 국방군 4천 반란 여수, 순천을 점령

남조선 국방군 4천 반란
여수, 순천을 점령
군민 합류, 점차 확대화

【서울 20일 발 AP=시사】 20일 조조(早朝) 전남 여수를 위시하야 발생한 한국군 제14부대(약 4천명)의 반란사건에 관하야 윤 내무장관은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반란군은 제주도에 파견하려고 여수에 대기 중인 제14부대 약 4천명이라는대 20일 오전 2시 장교를 살해하고 무기고를 점령한 후 경찰, 관청 등을 습격 점령하고 철도로 순천에 진격하야 순시(瞬時)에 동시를 점령하였다. 반란군과 경찰대의 충돌로 경관 약 8백명이 살해되였다 한다. 이 사건은 본년 8·15 이후 최대의 폭동이다. 정부는 이 사태에 대응하야 동일 남선(南鮮) 일대에 계엄령을 발령하였는대 전남 지방의 기후(其後) 사태는 확대되는 모양이다. 한국 당국은 21일부터 긴급각의를 소집하야 대책을 협의 중이며 아마 이 폭동은 공산분자의 지도하에 발생된 것 같다.

南朝鮮國防軍四千反亂

麗水、順天을占領

軍民合流、漸次擴大化

【서울廿日發AP=時事】 廿日早朝全南麗水를爲始하야發生한 韓國軍第十四部隊(約四千名)의反亂事件에關하야 尹內務長官은 다음과같이發表하였다
反亂軍은濟州道에派遣하려고 麗水에待機中인第十四部隊約四千名이라는데 廿日午前二時、將校를殺害하고 武器庫를占領한後、警察、官廳等을襲擊占領하고 續道로順天에進擊하야 瞬時에同市를占領하였다 反亂軍과警察隊의衝突로警官約八百名이殺害되었다한다 이事件은 本年八·一五以後、最大의暴動이다 政府는이事態에對處하야 同日、南鮮一帶에戒嚴令을發令하였는데 全南地方의其後事態는擴大되는模樣이다 韓國當局은 廿一日早朝부터緊急閣議를召集하야對策을協議中이며 아마 이暴動은 共產分子의指導下에發生된것같다

해방신문(解放新聞) 1948년 10월 27일 / 1면

반란, 제주도에 파급

반란, 제주도에 파급

【서울 23일 발 합동=건설】 남선(南鮮) 주둔 미군 사령관 굴-다- 소장은 반란군 사건에 관한 성명서에서 제주도에서도 일부 경비대가 인민세력과 합류하야 폭동을 이르켰다고 언급한 요지,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금반 반란군 사건은 국방군과 경찰대의 협력으로써 더 확대되지 않고 진압되리라고 믿는다. 남원 지방에 출전한 연대장은 최후의 1인까지라도 분쇄하겠다고 말하였는대 대단히 믿을 만하다. 그 후 보도에 의하면 폭도는 적기를 휘날리면 적기가를 고창하고 있다 한다. 민국(民國) 관변 측의 언명에 자극되여 제주도에 출전 중인 남선 경비대의 일부가 민간에 가담하야 반항 중이라 하는대 근간에 진압될 것이다.

反亂、濟州道에波及

【서울廿三日發合同=建設】 明書에서 濟州道에서도 一部警備隊가 人民勢力과 合流하야 暴動을 이르켰다고 言及한 要旨、다음과 같은 聲明을 發表하였다

今般、叛亂軍事件은 國防軍과 警察隊의 協力으로써 더 擴大되지 않고 鎭壓되리라고 믿는다 南原地方에 出戰한 連隊長은 最後의 一人까지라도 粉粹하겠다고 말하였는대 大端히 믿을만하다 그後、報道에 依하면 暴徒는 赤旗를 휘날리며 赤旗歌를 高唱하고 있다 한다 民國官邊側의 言明에 刺戟되여 濟州道에 出戰中인 南鮮警備隊의 一部가 民間에 加擔하야 反抗中이라 하는대 近間에 鎭壓될 것이다

해방신문(解放新聞) 1948년 10월 30일 / 1면

여수 수(遂) 함락 반란 상보(詳報)
학생, 아동도 반항

여수 수(遂) 함락, 반란 상보(詳報)
학생, 아동도 반항
최후까지 공화국 지지 연설

【서울 28일 발 합동=건설】 한국 정부에서는 28일, 반란군 진압 전황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1. 여수반도 지대의 국군은 해군부대 및 경찰대의 연락 하에 28일 오전 6시, 여수시를 완전히 점령하야 현재 치안 회복 중이다.
1. 여수시에는 점령 직전까지 시내 각처에서 인민공화국 지지 연설을 하고 있었고 일반 시민을 비롯하야 중학생, 여학생, 국민학교의 아동까지 반란군에 가담하야 반항을 하고 있어 국군의 전투에 많은 제약을 받었다.
1. 현재 반란군 주력은 백운산 부근에 약 3·4백명 있는데 국군은 지리산의 통로를 차단하고 공격 중이다.
1. 여수의 반도의 폭행은 방금 조사 중인 바 그들은 전부터 준비하여 두었든 명부로서 경관, 우익사상가를 소위 인민재판으로 가혹한 처형을 하였으며, 이 중에는 박모와 김창길 양 검사도 반란군에 가담하고 있었다.
1. 국군 당국은 이번 사건으로 일반 국민의 방어훈련의 필요성을 느꼈다. 속히 투쟁조직법을 국회에 통과시켜 장래 우수한 병사를 양성하여야 할 것이다.
1. 제주도 부대는 군경의 밀접한 협력 하에 임무를 수행 중이나 지리적으로 불리한 관계상, 반도의 절멸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요하리라고 관측된다.

麗水遂陷落

反亂詳報

學生、兒童도 反抗

最後까지 共和國支持演說

【서울廿八日發合同=特電】 韓國政部에서는 廿八日、叛亂軍鎭壓戰況을 다음과같이 發表하였다

一、麗水半島地帶의國軍은 海軍部隊및警察隊의連絡下에 廿八日午前六時、麗水市를完全히占領하야 現在 治安回復中이다

一、麗水市에는 占領直前까지市內各處에서人民共和國支持演說을하고있었고 一般市民을 비롯하야 中學生、女學生、國民學校의兒童까지叛亂軍에加擔하야 反抗을하고있어 國軍의戰鬪에많은障碍을 받았다

一、現在叛亂軍主力은 白雲山附近에約三·四百名있는데 國軍은智異山의通路를 遮斷하고攻擊中이다

一、麗水의叛徒의暴行은 方今調査中인바 그들은前부터準備하여두었든名簿로서 警官、右翼思想家를 所謂人民裁判으로前記한國刑을 하였으며 이中에는朴某와 金昌吉兩檢事도叛亂軍에加擔하고있었다

一、國軍當局은 이번事件으로 一般國民의防禦訓練의 必要性을느꼈다 速히國軍組織法을國會에通過시켜 將來優秀한兵士를養成하여야할것이다

一、濟州道部隊는 軍警의密接한協力下에 任務를遂行中이나 地理的으로不利한關係上、叛徒의絶滅까지는 相當한時日이 要하리라고 觀測된다

탄환 2백만 발

탄한 2백만 발

【서울 27일 발 공립=신아】 국회는 반란사건으로 27일 긴급 재개하였는대 중간보고에서 반군이 제주도 작전용으로 여수에 집적한 210만발의 탄환을 비롯하야 무기 다수를 탈취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즉 국방위원 최윤동 씨는 보도 발표에 있어서 국방부와 내무부의 발표가 통일되지 못하고 부정확하다고 지적한 후 여수에서 반군에 탈취된 무기고에는 제주도 작전에 사용하기 위한 탄환 210만발을 위시하야 다수의 무기가 집적되여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彈丸二百萬發

【서울廿七日發共立＝新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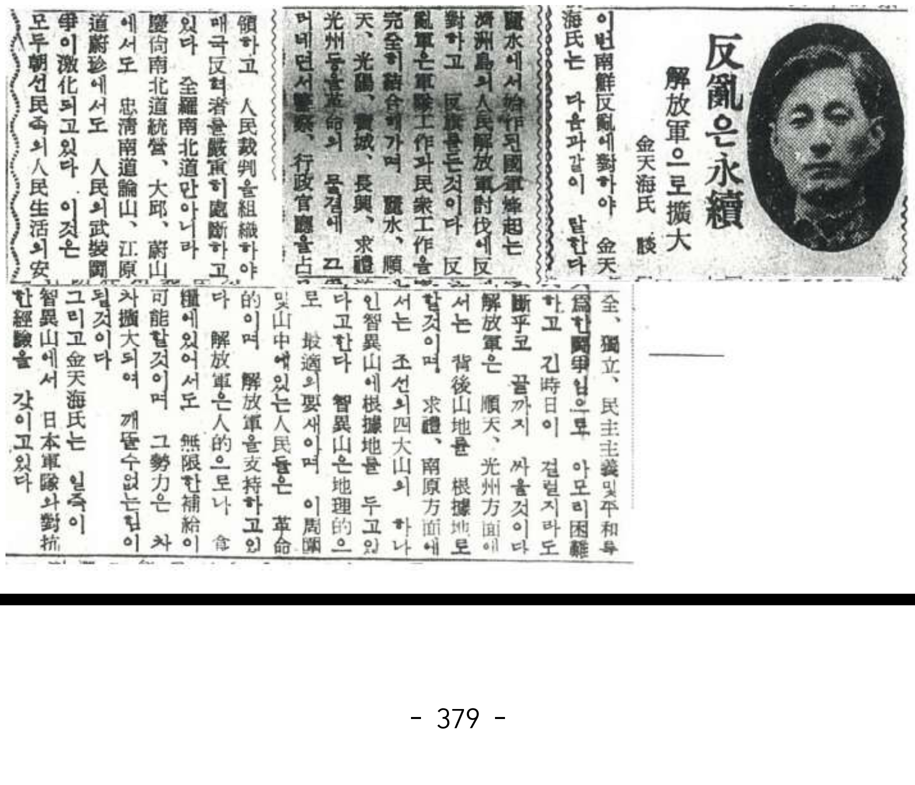
國會는 叛亂事件으로 廿七日、緊急再開하였는데 中間報告에서 叛軍이濟州島作戰

用으로 麗水에集積한二百十萬發의彈丸을 비롯하야 武器多數를奪取하였다고報告하였다 卽、國防委員崔允東氏는 報道發表에있어서 國防部와內務部의發表가 統一되지못하고 不正確하다고指摘한後、麗水에서叛軍에奪取된 武器庫에는 濟州島作戰에使用하기爲한 彈丸二百十萬發을爲始하야 多數의武器가集積되여있었다고 報告하였다

반란은 영속(永續) 해방군으로 확대 김천해 씨 담(談)

반란은 영속(永續)
해방군으로 확대
김천해 씨 담(談)

이번 남선 반란에 대하야 김천해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수에서 시작된 국군 봉기는 제주도의 인민해방군 토벌에 반대하고 반기를 든 것이다. 반란군은 군대공작과 민중공작을 완전히 결합해가며 여수, 순천, 광양, 보성, 장흥, 구례, 광주 등을 혁명의 물결에 끄러네면서 경찰, 행정 관청을 점령하고 인민재판을 조직하야 매국반혁(反革)자를 엄중히 처단하고 있다. 전라남북도만 아니라 경상남북도 통영, 대구, 울산에서도 충청남도 논산, 강원도 울진에서도 인민의 무장투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것은 모두 조선 민족의 인민생활의 안전, 독립, 민주주의 및 평화를 위한 투쟁임으로 아모리 곤란하고 긴 시일이 걸릴지라도 단호코 끝까지 싸울 것이다. 해방군은 순천, 광주 방면에서는 배후 산지를 근거지로 할 것이며, 구례, 남원 방면에서는 조선의 4대산의 하나인 지리산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고 한다. 지리산은 지리적으로 최적의 요새이며 이 주위 및 산중에 있는 인민들은 혁명적이며 해방군을 지지하고 있다. 해방군은 인적으로나 식량에 있어서도 무한한 보급이 가능할 것이며 그 세력은 차차 확대되여 깨뜰 수 없는 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김천해 씨는 일즉이 지리산에서 일본군대와 대항한 경험을 갖이고 있다.


反亂은 永續
解放軍으로 擴大
金天海氏 談

해방신문(解放新聞) 1948년 10월 30일 / 1면

인민항쟁으로 조직화
이승만 정권에 대한 권력투쟁

인민항쟁으로 조직화
이승만 정권에 대한 권력투쟁

【해설】 대한민국은 탄생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국방군에서 반란이 발발되여 새로운 시련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사태를 종합하면 제주도 진압을 위하야 파견으로 여수에 대기 중이든 제14연대 약 4천명(일설에는 2천5백명)이 20일 오전 2시를 기하야 궐기 민간세력과 합류하야 여수, 순천을 점령한 후 공화국기를 들고 형무소, 경찰서에서 좌익지도자를 석방하고 우익 간부, 행정관리, 경관 등에 대한 인민재판을 개설하고 이들을 처단한 모양이다.

그 후 국군 측의 행동으로 여수, 광양과 보성, 순천 주변에서 열렬한 전투가 전개되고 지리산을 중심으로 유격전이 전개되고 있는 때 진압 파견한 국군 제4연대의 일부가 오히려 반란군에 합류하는 등 정부는 군대에 전적 신뢰를 둘 수 없이 되어 토벌대 편성도 두통거리며 국회에서의 정부에 대한 공전(攻戰)이 매우 심하다.

더욱 23일 이 총리의 귀순 권고가 수포에 도라가고 여수 상륙작전이 실패당한 후 당국은 26일 아침까지에 여수 탈회(奪回)를 엄명하여 반군이 집결지인 광양 서부 산악지대에 전차, 화포 등 기동부대를 동원하여 일기가성(一氣可成)으로 격파하려는 기색이나 단기간에 수습하기에는 매우 힘들 것이며 정부는 차차 초조해가고 있는 모양이다.

금반 사건은 직접 국방군 내에서 발생하고 또 그 투쟁 형태가 인민항쟁인 점이 주목된다.

說解

人民抗爭으로 組織化

李承晩政權에 對한 權力鬪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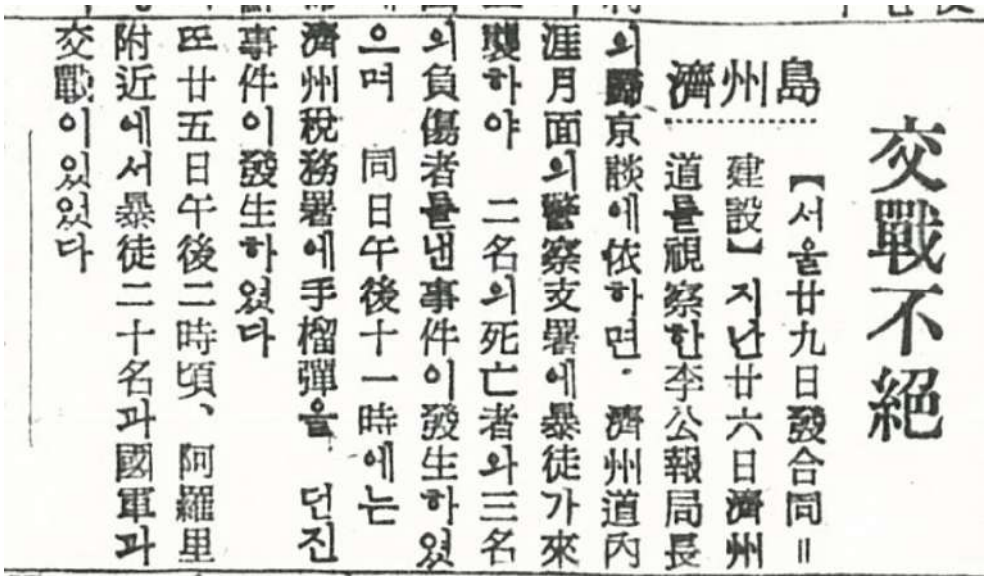
大韓民國은 誕生된지 不過三個月만에 國防軍에서 反亂이 勃發되여 새로운 試鍊에 直面하고있다 現在까지의 事態를 綜合하면 濟州道鎭壓을 爲하야 派遣으로 麗水에 待機中이든 第十四連隊約四千名(一說에는 二千五百名)이 廿日午前二時를 期하야 蹶起 民間勢力과 合流하야 麗水、順天을 占領한後、共和國旗를 들고 刑務所、警察署에서 左翼指導者를 釋放하고 右翼幹部、行政官吏、警官等에 對한 人民裁判을 開設하니 이들을 處斷한 모양이다 그後、國軍側의 行動으로 麗水、光陽과 寶城、順天周邊에서 激烈한 戰鬪가 展開되고 智異山을 中心으로 遊擊戰이 展開되고있는때 鎭壓派遣한 國軍第四連隊의 一部가 오히려 反亂軍에 合流하는等、政府는 軍際에 全的信賴를 둘수 없이되어 討伐隊編成도 頭痛 꺼리며 國會에서의 政府에 對한 攻戰이 매우 甚하다 더욱 廿三日、李總理의 歸順勸告가 水抱에도 라가고 麗水上陸作戰이 失敗當한後、當局은 廿六日아침까지에 麗水奪回를 嚴命하여 反軍의 集結地인 光陽西部山岳地帶에 戰車、火砲等、機動部隊를 動員하여 一氣可成으로 擊破하려는 氣色이나 短期間에 收拾하기에는 매우 힘들것이며 政府는 차차焦燥해가고있는 모양이다 今般事件은 直接國防軍內에서 發生하고 또 그 鬪爭形態가 人民抗爭인 點이 注目된다

해방신문(解放新聞) 1948년 11월 3일 / 1면

교전 부절(不絶) 제주도

교전 부절(不絶)
제주도

【서울 29일 발 합동=건설】 지난 26일 제주도를 시찰한 이 공보국장의 귀경 담에 의하면 제주도내 애월면의 경찰지서에 폭도가 내습하야 2명의 사망자와 3명의 부상자를 낸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동일 오후 11시에는 제주세무서에 수류탄을 던진 사건이 발생하였다.
또 25일 오후 2시경 아라리 부근에서 폭도 20명과 국군과 교전이 있었다.



交戰不絶

島州濟

【서울廿九日發合同=建設】 지난廿六日濟州道를視察한李公報局長의歸京談에依하면、濟州道內涯月面의警察支署에暴徒가來襲하야 二名의死亡者와三名의負傷者를낸事件이發生하였으며 同日午後十一時에는 濟州稅務署에手榴彈을 던진事件이發生하였다
또廿五日午後二時頃、阿羅里附近에서暴徒二十名과國軍과交戰이있었다

해방신문(解放新聞) 1948년 11월 3일 / 1면

여수반란 현지보고

여수반란 현지보고
합동통신 특파원 27일 발

【여수에서 설국환 특파원 27일 오후2시경 합동 연착보=건설】 27일 여수는 함락하였다. 국방군 장교의 말에 의하면 여수시 반란부대는 인민위원회 지휘하의 반란군 백여명과 일부 시민부대였다고 한다.
(중간 생략)

여수반란 현지보고
합동통신 특파원 27일 발

【여수에서 설 특파원 27일 발 연착 지급보 합동=건설】 반군 점령 후 곳 조직된 인민위원회의 인민공화국 지지 정책 하에서 한 주일을 지난 여수는 지금은 국군의 완전 탈환에 의하야 그 행정제도가 대한민국 행정에 연결되었으나 이것은 다만 고만한 지리적 면적이 탈환된 것을 의미하여 그 이상의 아무 것도 아니다. 27일부터 이러난 화재는 서북풍을 만나 여수항과 구 여수시를 완전히 덮어 씨우고 있다. 대체 이와 같은 비참한 민족 상극(相剋)의 근본 원인이 어데 있는가. 무엇이 이와 같은 많은 피와 재화(災禍)를 요구하는가? 이번 사건의 진상은 그 직접 동기보다도 오히려 반군에 자진해 참가한 인민들의 심중 깊이 싸이고 싸있는 그 무었에 대한 정부의 충분한 설명으로 비로서 진상이 명백해질 것이다. 국군이 협력을 얻기 위하야 군·읍·학교 등의 책임자들을 국군 사령부에 대려다 간담회를 갖었는대 그들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20일에 봉기한 반란군은 수명의 공산당 지하 지휘자와 연락하야 먼저 경관을 죽이고 전 경찰기관을 점령했다. 그날 아침부터 인민위원회의 활동이 개시되었는대 그들은 군·읍·금융기관·학교 등 중요기관의 접수를 시작하고 21일에는 전 기관을 완전히 접수하고 이날부터 실질적으로 인민위원회 행정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악질 경관 적발과 우익 정객 및 정부의 지지 청년단체 적발에는 인민위원회 간부가 선두에서 했다. 그들이 한국 정부에 얼마나 큰 원한을 품고 있는가는 인민재판에서 처단한 사자(死者)의 참혹한 시체를 보아도 그 복수감의 일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여수시를 완전히 장악한 인민위원히는 시내 여수일보사를 접수하고 23일에는 24일부의 여수인민보를 창간했는대 여기에는 그들이 할나고 한 포부와 그들의 신조를 말하는 몇 가지 기사가 실려 있다. 즉 동지 제1면 첫 기사의 주제목「애국인민에게 고함」부제목「친애하는 동포여」의 4단 기사로 반란을 이르킨 병사들의 제주도 인민군 토벌 거부의 전말과 성명서를 발표하

고 있는대 그 말하고저 하는 바는 「우리들은 조선 인민의 아들이며 노동자·농민의 아들이다. 우리들은 국토의 방위와 인민의 권리와 복리 보호를 위하야 목숨을 발이고 싸워야 할 사명을 잘 알고 있다. 우리들은 제주도의 애국적 인민을 무차별하게 학살하게 우리를 제주도에 출동시키는 명령에 복종하기 전에 먼저 조선 인민의 아들로서의 사명 밑에서 이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사랑하는 동포를 위하야 궐기한 것이다. 1. 동족 상살 절대 반대 2. 「미군 즉시 철퇴」와 같은 것이며 다시 동지는 21일에 개최된 여수인민대회를 보도하고 있는대

(이하 생략)

告報地現亂反水麗

發日七廿員派特信通同合

「우리는 朝鮮人民의 아들」

强力한 男女中學生의 抵抗

양곡매입법 반대

양곡매입법 반대
남조선 각지에서 봉기

【평양 11일 발 중앙=건설】 이승만 정부의 소위 「양곡매입」에 대한 남조선 농민의 반대투쟁은 광범히 전개되고 있는대 확실한 소식에 의하면 지난 4일 경남 창원군 진동면 일대에서는 추곡 매상을 강요한 대동청년단 지부장 김기종은 권총에 맞어 중상을 당하고 전남 고흥군 대서면에서는 수십명의 청년들이 각 촌 구장 집을 습격하여 추곡 생산고 조사표 등을 탈취하였다. 이러한 폭동은 7일 경북 청도군 대성면에서도 발생하였고 9일 동군 화양면에서는 이승만 정부 타도 삐라가 다수 살포되었다 한다. 한편 서울 9일 발 중앙통신에 의하면 7일에는 제주도에서 무장투쟁이 전개되여 경관 2명이 살해되고 7명이 부상, 반동분자 가옥 50여호가 소실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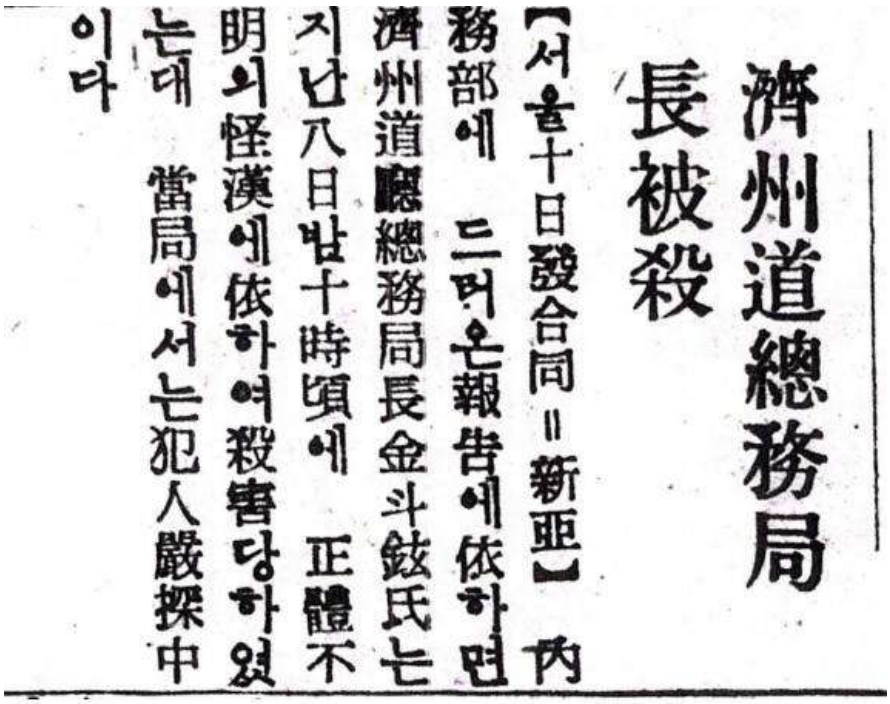
糧穀買入法反對
南朝鮮各地에서烽起

【平壤十一日發中央=建設】 李承晩政府의所謂「糧穀買入」에對한南朝鮮農民의反對鬪爭은 廣汎히展開되고있는대 確實한消息에依하면 지난四日、慶南昌原郡鎭東面一帶에서는 秋穀買上을强要한大同青年團支部長金基鍾은 拳銃에맞어重傷을當하고 全南高興郡大西面에서는 數十名의青年들이各村區長집을襲擊하여 秋穀生産高調査表等을奪取하였다 이러한暴動은 七日、慶北淸道郡大城面에서도發生하였고 九日、同郡華陽面에서는李承晩政府打倒삐라가多數撒布되였다한다 한편 서울九日發中央通信에依하면 七日에는濟州道에서武裝鬪爭이展開되여警官二名이殺害되고 七名이負傷、反動分子家屋五十餘戶가燒失했다고한다

제주도 총무국장 피살

제주도 총무국장 피살

【서울 10일 발 합동=신아】 내무부에 드러온 보고에 의하면 제주도청 총무국장 김두현 씨는 지난 8일 밤 10시경에 정체불명의 괴한에 의하여 살해당하였는대 당국에서는 범인 엄탐(嚴探) 중이다.


濟州道總務局
長被殺
【서울十日發合同=新亞】 內務部에 드러온報告에依하면 濟州道總務局長金斗鉉氏는 지난八日밤十時頃에 正體不明의怪漢에依하여殺害당하였는대 當局에서는犯人嚴探中이다

800명을 사살, 제주

800명을 사살, 제주

【제주 26일 발 합동=건설】 북제주군 산악지대에서 소탕전을 전개 중인 국군부대는 지난 14일 밤 노형리 월산동 부근에서 반도 집단을 발견하고 이것을 포위 공격하야 797명을 사살하고 27명을 체포했는대 사살한 중에는 중요간부 2명이 석겨있다고 하였다.

八百名을射殺 濟州

【濟州廿六日發合同＝建設】 北濟州郡山岳地帶에서 소탕戰을展開中인國軍部隊는 지난十四日밤 老衡里月山洞부근에서 反徒集團을 발견하고 이것을包圍공격하야 七九七名을射殺하고 二七名을逮捕했는대 射殺한中에는重要幹部二名이 석겨있다고하였다

해방신문(解放新聞) 1948년 11월 30일 / 1면

시평 : 반란재판의 판결을 듣고

시평 : 반란재판의 판결을 듣고

여수, 대전에서 진행 중이든 반란군사재판은 여수에서 805명, 대전에서 417명의 판결이 끝난 모양이다. 26일 합동통신에 의하면 여수, 대전을 합해 9백여명이 처단되는대 사형은 여수 280, 대전 224명이고 무기, 20년, 5년 징역 합계 800여명이다. 그와 동시에 제주에서 반란민 8백을 총살했다는 보도를 전하고 있다. 결국 이것을 합하면 실로 근 2천이 처단되는 모양이다.

해방 후 3년 동안 남조선에서는 끈임없는 동족상살로 많은 인명의 희생을 내었다. 현재 영어(囹圄)에서 욕보고 잇는 수많은 소위 정치범은 고사하고 10월 인민항쟁, 5·10단선에서 흘린 귀중한 피를 생각할 때 이 무명 투사들의 거룩한 희생은 우리의 가슴을 한없이 아프게 한다.

(이하 생략)

（昭和21年11月9日第3種郵便物認可）

時評

反亂裁判의 判決을 듣고

麗水、太田에서進行中이든反亂軍事裁判은 麗水에서八〇五名、太田에서四一七名의判決이 끝난모양이다 廿六日合同通信에依하면 麗水、太田을合해九百餘名이處斷되는대 死刑은麗水二八〇、太田二二四名이고 無期、廿年、五年懲役合計八百餘名이다 그와同時에 濟州에서反亂民八百을銃殺했다는報道을傳하고있다 結局、이것을合하면 實로近二千이處斷되는 모양이다 解放後三年동안 南조선에서는 끈임없는同族相殺로 많은人命의犧牲을 내었다 現在囹圄에서 욕보고있는數많은所謂政治犯은 고사하고 十月人民抗爭、五・一〇單選에서 흘린貴重한 피를生覺할때 이無名鬪士들의 거룩한犧牲은 우리의가슴을限없이 아프게한다 이번麗水의反亂亦是、形態는 비록反亂이더니와 그經緯을 삶일때 그들이銃、칼을들고 이러선動機는 틀림없는愛國心의發露에서다 만일南조선政治가實로人民을爲한眞正한民主的統治였다면 人民의不平을사고反抗을 이르킬理、어데있으랴? 現이動亂은始初國軍에서 이러나는것이 李承晩氏의專制特許일정 그염치는 實로天下一品이다 人民을 개만도 못하게 여기기에 그꼴이지만일 티끌만 치라도 사람으로認定한다면 설마 그러지는 못할것이다 이제麗水、太田의判決을 보고 그中에는 아직紅顔의美童子도 있을것이고 꽃같은 아가씨도 있을것이다 그純眞한 불타는 얼굴들이 斷頭臺에 오를것을 생각할때 우리의 가슴은 바늘을 찌르고 斷腸의 슬픔을 마지안는다 勿論、그들은 自己의信念을 다한滿足感으로 우슴을 띠우더니와 겨우解放을 만나 이제祖國建設의 支柱가될 그들의犧牲을 누가大聲痛笑치않으랴! 可惜하다! 그러나 이 아까운犧牲은 다시 물밀듯이 뒤를 따르는抗爭이 그네들의靈魂을 쉬토할것이다 大韓政府의爲政者들이여 너이들은 너의들의敵을 미워하거라 너이들의處斷이 甚할수록 人民의抗爭亦是强할것이다 (Q)

府를攻擊하고 李承晩氏는 마츰내 마이크을通해 議員을 밋지말고 나를따르라고 울면서 哀乞했다고한다 아무리「덮어놓고」나를 따르라는것이 李承晩氏의專制特許일정 그염치는 實로天下一品이다 人民을 개만도 못하게 여기기에 그꼴이지만일 티끌만 치라도 사람으로認定한다면 설마 그러지는 못할것이다 이제麗水、太田의判決을 보고 그中에는 아직紅顔의美童子도 있을것이고 꽃같은 아가씨도 있을것이다 그純眞한 불타는 얼굴들이 斷

해방신문(解放新聞) 1948년 12월 3일 / 1면

매국적 무차별 대량 학살
민족의 행복과 생존을 말살
조련(朝連)·반란사건 처단에 성명

매국적 무차별 대량 학살
민족의 행복과 생존을 말살
조련(朝連)·반란사건 처단에 성명

반란사건 군사재판 판결에 대하야 조련 중총(中總) 상임위원회에서는 30일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최근 남조선 일대에 전대미문의 대량 학살이 공연히 감행되고 있다. 이승만 정부 기관의 발표에만 의하여도 여수에서 960여명, 제주에서 890여명, 순천에서 70여명, 광주에서 40여명, 대전에서 200여명의 총살, 혹은 소위 법명(法名) 밑에 사형에 처하였다는대 이외에 발표되지 않고 있는 수를 가한다면 실로 상상할 수 없을 만한 것이다.
과거 일제 강점기에 「불령선인(不逞鮮人)」 혹은 「공산분자」라는 이름 밑에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하야 싸우든 선각자들이 일본 관헌에게 얼마나 학살당하였든가. 우리의 기억에 생생히 남어있으나 현재 남조선에서 살지 못하고 굶주리는 인민이 살기 위하야 또한 가장 조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민족과 국토를 팔아 사욕을 탐하려는 이승만 매국정부에 대하야 봉기한 애국투쟁을 가진 폭력으로서 탄압하고 눈을 가리울만한 대량적 무차별 학살의 강행이야말로 자기 민족의 행복과 생존을 말살하는 역사상으로서나 세계적 사실에서도 보지 못할 공전의 광폭 행위가 아니고 무었일가. 이것이 또한 최후 발악의 팟쇼적 정체가 아니고 무엇일가. 매국노 이승만 정부 일파가 민주주의와 조국애의 이름으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와 같은 행위로서 과연 인민 세력의 약화와 그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할려 하는가.
그러나 이로 말미아마 인민 세력이 약화하기거녕 오히려 강화 확대될 것이다. 분격과 증오에 끌어넘치는 남조선의 전 인민은 이를 계기로 하야 피에 굶주리는 매국노 이승만 정권에 대한 단호한 반대투쟁이 한층 더 격렬화해지고 조국 완전 민주 통일 독립에 대한 혁명적 기운이 급격히 앙양되고 있다.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전 세계 인민에게 놈들의 단말마적 대량 학살의 생생한 사실을 호소함과 동시에 재일 60만 동포도 애국적인 조국 인민의 영웅적 투쟁에 호응하야 전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야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리라는 것을 성명한다.
1948년 11월 30일
재일본 조선인연맹 중앙상임위원회

朝連·反亂事件處斷에聲明

民族의幸福과生存을抹殺

賣國的無差別大量虐殺

反亂事件軍事裁判判決에對하야 조련中總常任委員會서는 卅日、다음과같은 聲明書를發表했다

聲明書 最近南조선一帶에前代未聞의大量虐殺이 公然히敢行되고있다 李承晩政府機關의發表에만依하여도 麗水에서 九百六十餘名、濟州에서八百九十餘名、順天에서七十餘名、光州에서四十餘名、太田에서二百餘名의銃殺、或은所謂法名밑에 死刑에處하였다하는대 이外에發表되지않고있는數를加한다면 實로想像할수없을만한것이다

過去、日帝時代에「不逞鮮人」或은「共産分子」라는이름밑에祖國의解放과獨立을爲하야 싸우든先覺者들이 日本官憲에게 얼마나虐殺當하였든가 우리의記憶에 生々히 남어있으나 現在、南조선에서 살지못하고 굶주리는人民이 살기爲하야 또한 가장祖國을 사랑하기때문에、民族과國土를 팔아 私慾을貪하려는李承晩賣國政府에×對하야 蜂起한愛國鬪爭을 가진暴力으로서彈壓하고 눈을 가리울만한大量的無差別虐殺의强行이야말로自己民族의幸福과生存을抹殺하는 歷史上으로서나 世界的事實에서도 보지못할空前의狂暴行爲아니고 무었일가 이것이 또한最後發惡의 팟쇼的正體가아니고 무엇일가 賣國奴李承晩政府一派가 民主主義와祖國愛의 이름으로서는 到底히容恕할수없는 이와같은行爲로서 果然、人民勢力의弱化와 그政權維持의手段으로 할려하는가

그러나 이로말미아마 人民勢力이弱化하기거녕 오히려强化擴大될것이다 憤激과憎惡에 끓어넘치는 南조선의全人民은 이를契機로하야 피에 굶주리는 賣國奴李承晩政權에對한斷乎한反對鬪爭이 한층더激烈化해지고 祖國完全民主統一獨立에對한革命的氣運이 急激히昂揚되고있다

民主々義를사랑하는全世界人民에게 놈들의斷末魔的大量虐殺의生々한事實을呼訴함과同時에 在日六十萬同胞도 愛國的인祖國人民의英雄的鬪爭에呼應하야 全組織의力量을集中하야 强力한鬪爭을展開하리마는것을聲明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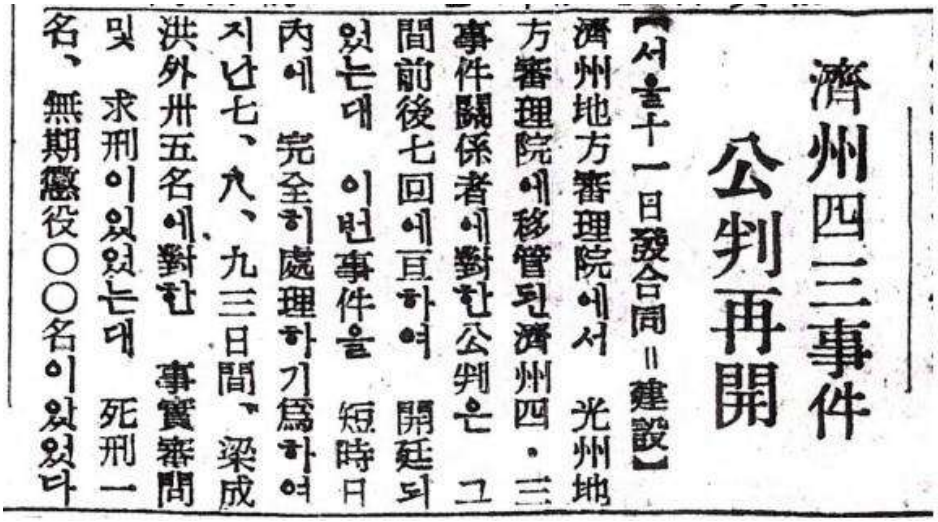
一九四八年十一月卅日

在日本朝鮮人連盟中央常任委員會

제주4·3사건 공판 재개

제주4·3사건 공판 재개

【서울 11일 발 합동=건설】 제주지방심리원에서 광주지방심리원에 이관된 제주4·3사건 관계자에 대한 공판은 그 간 전후 7회에 긍(亘)하여 개정되었는데 이번 사건을 단시일 내에 완전히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7, 8, 9 3일 간 양성홍 외 35명에 대한 사실 심문 및 구형이 있었는데 사형 1명, 무기징역 ○○명이 있었다. 그리고 언도는 오는 14, 6, 7의 3일 간에 있는 모양이다. 또 작(昨) 10일 오후에는 지난 10월 제6회 공판에 있어서 구형이 있은 후 금반 반란사건 발생에 의하여 그 언도를 일시 중지했든 피고 이정생 외 17명에 대한 최후 언도가 있었는데 언도는 최고 5년 징역 1명과 최하 무죄 언도 5명이 있었다.



濟州四三事件
公判再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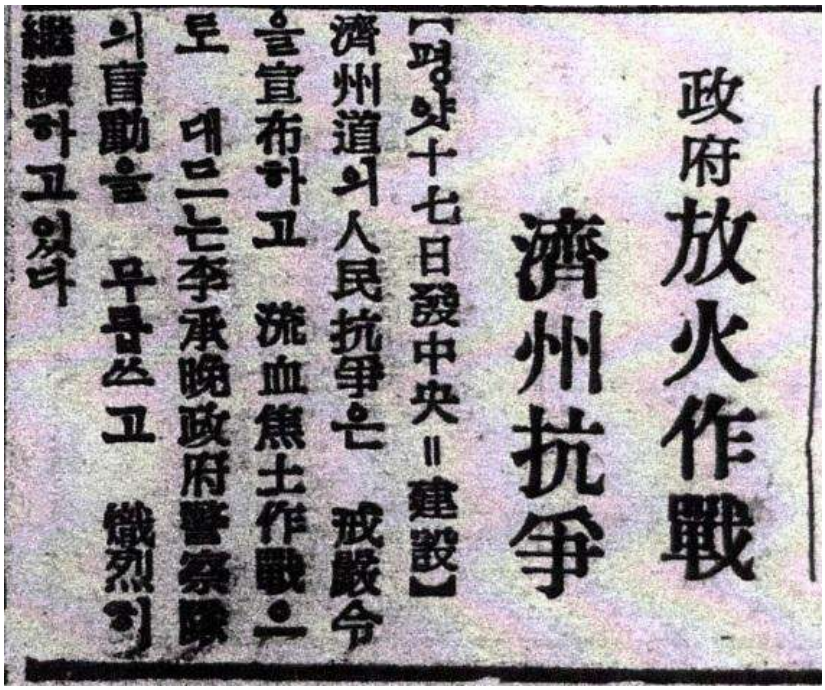
【서울十一日發合同=建設】
濟州地方審理院에서 光州地方審理院에移管된濟州四·三事件關係者에對한公判은 그間前後七回에亘하여 開廷되었는데 이번事件을 短時日內에 完全히處理하기爲하여 지난七、八、九三日間、梁成洪外卅五名에對한 事實審問 및 求刑이있었는데 死刑一名、無期懲役○○名이있었다

해방신문(解放新聞) 1948년 12월 18, 21일 / 2면

정부 방화작전 제주항쟁

정부 방화작전 제주항쟁

【평양 17일 발 중앙=건설】 제주도의 인민항쟁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유혈 초토작전으로 대드는 이승만 정부 경찰대의 맹동(盲動)을 무릅쓰고 치열히 계속하고 있다.


政府放火作戰
濟州抗爭
【평양十七日發中央=建設】
濟州道의人民抗爭은 戒嚴令
을宣布하고 流血焦土作戰으
로 대드는李承晩政府警察隊
의盲動을 무릅쓰고 熾烈히
繼續하고있다

해방신문(解放新聞) 1949년 1월 9일 / 1면

김일성 수상 신년사

공화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구국투쟁에 총궐기하자
김일성 수상 신년사

【평양 1일 발 조선중앙=건설】 1949년을 마지하면서 내각 수상 김일성 장군께서는 1일 오전 8시 평양중앙방송국 마이크를 통하여 전국 인민들에 다음과 같은 신년사를 보내였다.

1949년을 마지하면서
전국 인민에 보내는 신년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 김일성

친애하는 동포들!

1949년 새해를 마지하며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정부의 명의로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지난해 빛나는 업적을 남겨놓은 공화국 인민들에게 새해의 영광과 축복을 드립니다.

1948년은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사상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업적을 남겨놓은 해였음니다. 비록 지난해 우리 민족은 전국적 통일과 완전 자주독립국가를 쟁취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러나 멀지않은 장래에 전국적 통일과 완전 자주독립국가를 쟁취할 수 있는 기초와 조건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중간 생략)

공화국의 남반부 인민들은 가혹한 탄압과 학살이 심한 조건 하에서 공화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남조선 단독 괴뢰정부를 분쇄하는 장엄한 인민항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순천, 구례, 오대산, 지리산, 한라산 일대를 위시하여 남조선 전역에 전개된 『국방군』 폭동사건들은 공화국을 옹호하며 국토의 안정을 위하여 최후의 승리까지 투쟁할 남조선 인민들이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1948년에 우리들은 비록 국가의 안정과 안전한 자주독립국가를 쟁취하지는 못하였으나 그러나 독립국가를 위한 장엄하고 위대한 투쟁으로서 머지않은 장래에 남북통일을 완수하고 유구한 역사를 가진 이 강토 위에 공화국의 기치를 빛나게 할 혁혁한 기초이 딱아노았습니다.

(이하 생략)

解放新聞
第十五號
一九四九年一月一日
發行所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中央人民委員會 內閣直屬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中央人民委員會 內閣直屬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中央人民委員會 內閣直屬
發行人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中央人民委員會 內閣直屬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中央人民委員會 內閣直屬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中央人民委員會 內閣直屬
編輯人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中央人民委員會 內閣直屬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中央人民委員會 內閣直屬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中央人民委員會 內閣直屬
印刷所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中央人民委員會 內閣直屬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中央人民委員會 內閣直屬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中央人民委員會 內閣直屬
電話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中央人民委員會 內閣直屬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中央人民委員會 內閣直屬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中央人民委員會 內閣直屬
社址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中央人民委員會 內閣直屬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中央人民委員會 內閣直屬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中央人民委員會 內閣直屬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中央人民委員會 內閣直屬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中央人民委員會 內閣直屬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中央人民委員會 內閣直屬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中央人民委員會 內閣直屬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中央人民委員會 內閣直屬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中央人民委員會 內閣直屬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中央人民委員會 內閣直屬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中央人民委員會 內閣直屬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中央人民委員會 內閣直屬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國旗勳章授與

南半部는 民主成果를 確固發展시키고 北半部는 賣國的 傀儡政府를 打倒

一九四九年을 마지하면서 全國人民에 보내는 新年辭

金日成 首相 新年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사령부 성명

朝鮮人民軍總司令部 聲明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國旗勳章 授與

南半部는 民主成果를 確固發展시키고 北半部는 賣國的 傀儡政府를 打倒

一九四九年을 마지하면서 全國人民에 보내는 新年辭

金日成 首相 新年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사령부 성명

朝鮮人民軍總司令部 聲明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國旗勳章 授與

南半部는 民主成果를 確固發展시키고 北半部는 賣國的 傀儡政府를 打倒

一九四九年을 마지하면서 全國人民에 보내는 新年辭

金日成 首相 新年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사령부 성명

朝鮮人民軍總司令部 聲明

해방신문(解放新聞) 1949년 1월 15일 / 2면

남조선의 장래와 재류동포의 갈 길(상)

남조선의 장래와 재류동포의 갈 길(상)
이민선

남조선에서도 북조선과 같이 농민에게 토지를 매호 5정보식 무상분배하고 노동자에게 8시간 노동과 최저임금제 등을 실시하며 중소상공업자에게 자금 자재를 원조하고 곤란한 학생은 국가의 급비로 공부시키며 일제 혹은 그 앞제비들이 가지고 있든 중요산업을 전부 몰수하야 국영인민관리로 하였으면 매인당 5천원 이상의 외채를 빌일 필요도 없을 것이며 제주도사건은 물론 순천 여수사건도 잃어나지 않어을 것이다.
그리고 남조선 인민들은 쌍수 들고 이승만 씨에게 최대의 감사를 드렸을 것이며 북조선 인민들 역시 이승만 씨를 거부할 리 없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의 통일, 외군의 철퇴, 자주독립이 일조(一朝)에 해결되고 말 것이며 우리 조국도 국제무대에 진출하야 세계평화에 막대한 공헌을 받칠 수 있었을 것이고 우리 재일동포들도 남부여대하며 어린애들의 손을 끓고 따뜻한 고국의 복음자리로 도라가서 각각이 행복의 꿈을 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조선의 현실은 이와는 정반대이니 농민들은 토지 분배는 고사하고 일제 강점기 이상의 강제공출에 울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물가고와 저임금의 반실업 상태에 빠져 단결권과 파업권이 없는 무권리 노예 상태에 놓여있으며 중소업자들도 파멸의 구렁에서 겨우 외국상품의 암취인(暗取人) 판매인의 역할을 서로 쟁탈하고 있으며 빈한한 학생들은 국가보호는 고사하고 그 사상이 민주주의적인 연유로써 퇴학 투옥 심지어 학살까지 당하고 있다. 일제의 앞제비 소위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재산은 몰수하는 방향이 아니고 오히려 방치 온존한 결과 그들은 완전히 중요산업의 경영권을 장악하야 생활 부흥을 방해할 뿐 아니라 정치권력(관공리)까지 잠식하여 외자(外資)의 주구화(走狗化)하고 말었기 때문에 우리 재일동포도 만리 이역에서 금일까지 고생하고 있는 것이다.
남조선의 소위 인민항쟁은 노동자 농민 시민 학생들의 부득이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를 폭력과 모략으로 압살시키려는 대서 나타난 현상이고 절대로 공산주의자의 선동 운운의 거즛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우리 재일동포가 이승만 씨를 반대하는 이유도 빙해(氷解)될 것이다.
그러면 이승만 정부가 금후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켜 북조선과 같은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가? 그 자신이 있으면 처음부터 남조선에 단독정부를 세울 필요가 없었다. 웨냐하면 토지분배, 노동법령 제정, 중소업자 육성, 민주주의 교육, 중자산업과 무역의 국영 인민관리, 친일파 민족반역자 제외 등을 실행치 안코는 인민의 행복을 위할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이며 또 이상 기본방침은 1945년 9월에 발족한 조선인민공화국 정부의 28개조 정강으로 발표된 것이다. 이것을 실행하면 자기들의 이익과 지위가 허물어지는 그야말로 한주먹

도 못되는 일제파들과 외국에서 도라온 소위 망명 반동정객들이 야합하야 모략과 폭력으로써 압살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이승만 씨에게 이상의 방법을 기대하는 것은 나무 우에 올러가서 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으며 고양이에게 고기 덩어리를 지켜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

공장의 생산이 정지되고 농민들이 작곡(作穀)에 주력치 못하는대 경제가 건전할 수 없으며 모-든 문화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는대 그 발전을 기할 수 없으며 경제와 문화를 토대로 하지 못한 정치가 유지될 리 없지마는 이승만 씨가 실력으로 남조선 민중을 억압할 뿐 아니라 그 여력을 구사하야 북조선까지 점령한다고 꿈같은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이 박사가 항상 장담을 하여 왔으니 일차 해부하여 보는 것도 무의미한 일이 아니나

南朝鮮의將來와
在留同胞의 갈길 〔上〕
李 民 善

- 397 -

해방신문(解放新聞) 1949년 1월 21일 / 1면

참(慘)! 경찰의 초토작전

참(慘)! 경찰의 초토작전
인민 피해 사자(死者) 9천5백 전소(全燒) 7천호
제주도

【평양 13일 발 중앙=건설】 이승만 정부에 반대하는 제주도 인민들의 구국투쟁은 나날이 격화함에 따라 이(李) 정부의 단말마적 만행도 더욱 심하여지고 있다. 그들의 경찰은 소위 계엄령이라는 것을 시행하고 「진압」 또는 「토벌」이라는 명칭 밑에 온것 잔학행위를 다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폭도에게 음식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부녀자에 대하여 집중 총살과 부락 민가에 대한 집중적인 방화가 도처에서 감행하고 있다. 이러한 제주도의 참상은 최근 그들의 소위 「시찰」이라는 것을 통하여 명백히 되었다.
즉, 서울 11일 발 합동통신에 의하면 이(李) 정부의 국회에서 11일 상오부터 제주도 시찰에서 도라온 국회의원 오용국의 보고에 의하면 최근까지의 사망자 수는 9,539명에 달하고 있는대 이 숫자는 그들의 눈에 띠운 것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매일과 같이 행하는 대량 학살자 수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방대(尨大)한 이 숫자는 제주도의 전 인구를 25만명으로 추산한다 해도 실로 전도 인구의 4%에 해당하는 놀라울만한 숫자이다. 한편 소실 가옥은 7천호라는 전도의 호수의 12%에 달하는 상상을 넘치는 (이하 숫자 전문 불명) 그러나 그들의 경찰은 최근까지만 해도 남원리, 위미리 양 부락의 8백여호를 전소시키고 협재리, 삼양리 등 많은 부락에서 집중적 방화 초토작전을 감행하고 있다. 그런대 보고 의원은 사망자에 수배(數倍) 되는 피해 가옥에 대하여는 한마디도 언급치 않고 있다. 동시에 그들은 제주도의 사태 수습은 군대나 경찰의 무력행사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와 대책에는 역시 일언도 없었다. 참다운 대책이 없는대에 참다운 사태 수습이 있을 리가 없다. 정초에 항쟁 인민들은 조천리와 북촌리 양 부락을 습격하여 이(李) 정부 경찰과 전투를 전개하고 3일에는 외도리와 도평리도 습격했다.

慘! 警察의 焦土作戰

人民被害 死者九千五百 全燒七千戶

濟州道

【평양十三日發中央=建設】李承晩政府에反對하는 濟州道人民들의救國鬪爭은 나날이 激化함에 따라李政府의斷末魔的蠻行도 더욱甚하여지고있다 그들의警察은 所謂戒嚴令이라는것을施行하고 「鎭壓」또는「討伐」이라는 名稱밑에 온갖殘虐行爲를 다하고있는대 最近에는暴徒에게飮食을 提供했다는嫌疑로 婦女子에對하여 集中銃殺과部落民家에對한 集中的放火가 到處에서敢行하고있다 이러한濟州道의慘狀은 最近、그들의所謂「觀察」이라는것을通하여 明白히되였다 即、서울十一日發合同通信에依하면 李政府의國會에서 十一日上午부터 濟州道視察에서도마은 國會議員與龍國의報告에依하면 最近까지의

死亡者數는 九、五三九名에 達하고있는대 이數字는 그 늘어 대는것의一部分에不過하고 每日과같이行하는 大量虐殺者數는包含되지 않고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莫大한 이數字는 濟州道의全人口를 廿五萬名으로推算한다해도 實로全道人口의 四%에該當하는 놀라운數字이다 한편燒失家屋은 七千戶라는全道의戶數의十二%에達하는 想像을 넘치는 (以下數字電文不明) 그러나 그들의警察은 最近까지만해도 南元里、爲美里兩部落의 八百餘戶를全燒시키고 陝才里、巨陽里等많은部落에서 集中的放火焦土作戰을 敢行하고있다 그런대 報告議員은 死亡者에數倍되는負傷者와 全燒家屋의數倍되는 被害家屋에對하여는 한마디도言及치않고있다 同時에 그들은 濟州道의事態收拾은 警察의武力行使만으로는 絶對로不可能하다고 말하면서 그理由와 對策에는 亦是、一言도없었다 참다운對策이없는데에 참다운事態收拾이 있을理가 없다

正初에抗爭人民들은 朝天里와 北村里兩部落을襲擊하여 李政府警察과戰鬪를展開하고 三日에는 外都里와都平里도 襲擊했다

신출귀몰하는 무장항쟁대

신출귀몰하는 무장항쟁대

【평양 11일 발 중앙=건설】 서울 5일 발 공립통신에 의하면 지난 2일 제주읍의 도청사가 원인 불명한 방화에 의하여 전소했는대 그 후 입수한 소식에 의하면 동일 우세한 무장항쟁 부대는 ○○ 양 경찰지서를 습격, 악질분자 다수를 숙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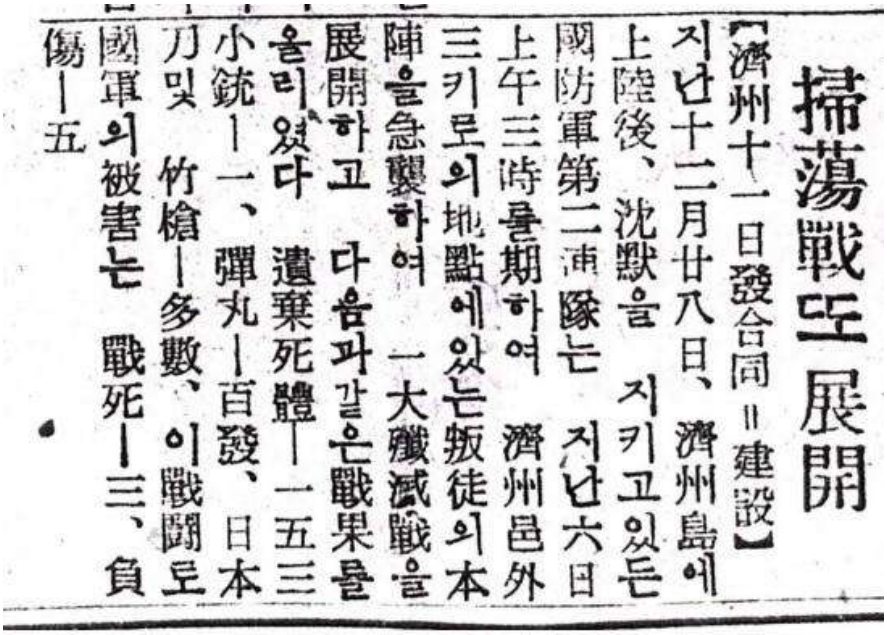
또 동 무장부대는 동도 서방 협재에 진격하여 악질분자의 자택을 공격하고 한편 동도 남방 신흥리에도 같은 사건이 발생했는대 이에 대하여 지난 12월 31일 계엄령을 철폐한다고 언명한 이(李) 정부는 소위 서북청년단원 3백여명을 무장시켜 제주도 토벌에 강제적으로 참가시키고 있다.

神出鬼沒하는
武裝抗爭隊
【平壤十一日發中央=建設】
서울五日發共立通信에依하면
지난二日、濟州邑의道廳舍가
原因不明한放火에依하여 全
燒했는데 그後、入手한消息
에依하면 同日、優勢한武裝
抗爭部隊는 ○○兩警察支署
를襲擊、惡質分子多數를肅淸
했다
또同武裝部隊는 同道西方、
陜才에進擊하여 惡質分子의
自宅을攻擊하고 한편同道南
方、新興里에도 같은事件이
發生했는대 이에對하여 지
난十二月卅一日、戒嚴令을撤
廢한다고言明한 李政府는
所謂、西北靑年團員三百餘名
을武裝시켜 濟州道討伐에强
制的으로參加시키고있다

소탕전 또 전개

소탕전 또 전개

【제주 11일 발 합동=건설】 지난 12월 28일 제주도에 상륙 후 침묵을 지키고 있든 국방군 제2연대는 지난 6일 상호 3시를 기하여 제주읍 외 3키로의 지점에 있는 반도의 본진을 급습하여 일대 섬멸전을 전개하고 다음과 같은 전과를 올리였다. 유기 사체 - 153, 소총 - 1, 탄환 - 백발, 일본도 및 죽창 - 다수, 이 전투로 국군의 피해는 전사 - 3, 부상 - 5.


掃蕩戰또展開
【濟州十一日發合同=建設】
지난十二月廿八日、濟州島에
上陸後、沈默을 지키고있든
國防軍第二連隊는 지난六日
上午三時를期하여 濟州邑外
三키로의地點에있는叛徒의本
陣을急襲하여 一大殲滅戰을
展開하고 다음과같은戰果를
올리였다 遺棄死體一一五三
小銃一一、彈丸一百發、日本
刀및 竹槍一多數、이戰鬪로
國軍의被害는 戰死一三、負
傷一五

해방신문(解放新聞) 1949년 1월 21일 / 2면

남조선의 장래와 재류동포의 갈 길 (중)

남조선의 장래와 재류동포의 갈 길 (중)
이민선

△ 첫재 남조선 인민항쟁을 막을 수 있는가?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희구하는 것이 인민이다. 이를 해결하여 주지 않고 무력으로 강제적 복종에 성공함은 고금동서에 그 예가 없으며 설령, 일시적으로 성공할지라도 그 대신 그의 반발은 참으로 무서운 것을 우리는 독일의 「나치스」 이태리의 「팟쇼」 일제의 운명에서 잘 보았다. 더욱 남조선 인민들이 무장봉기한 오늘날 국군과 경관까지 인민군에게 호응하게 되었으니 전 세계의 살인귀들을 모와다가 남조선 인민 전부를 학살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다. 남조선 군인과 경관은 그 대다수가 인민의 아들이며 아들이다. 자기 부형들의 이익을 배반할 리도 없으며 더욱히 지금 와서는 남조선에서 학살당한 사람들의 자제들이 자기 부형의 원수들과 타협이나 복종을 할 리 만무한 것이다.

둘재 미국의 재정적 파탄은 면치 못할 사실이다. 중국의 장개석 정부를 보면 잘 알 것이지만 무진장한 인민군의 원천에 대하야 경관과 군인의 수를 대량으로 증원시켜야 되며 그 막대한 군비를 인민에게서 짜올림으로써 인민의 원부(怨府)도 전락되고 말 것이니 그리되면 남조선 방방곡곡이 전부 인민군의 기지로 변하고 말 것이다. 현재에도 발서 제주도를 위시하야 전라남북 경북 등의 농촌에서는 이 박사의 위령(威令)이 전연 무시되고 농민들은 자신 인민군을 조직하야 민주 부락을 건설하고 자위 형태를 취하는 방향을 볼 때 금후에 더욱 더욱 항쟁의 발전을 예측할 수 있다.

▽ 둘재 미군의 원조는

1. 미국의 대외원조 중점은 의연 서구이며 조선의 차등한 인도·비루마·인도네샤·안남·샴·비율빈·남미·아불리가 제국 등 부지기수이니 너무 달콤한 희망은 금물이며 대중 원조의 추이를 보면 추측할 수 있나니
2. 장래 회수될 가능성도 없는 남조선에다 무제한하고 투자하는 「바보」는 미국 자본가 중에는 1인도 없다. 그럼으로 만약 투자한다면 그 대상(代償)을 그때그때 회수하여야 되며 남조선에서 그때그때 회수하는 것은 남조선 인민들의 고혈을 짜내는 것이니 인민들은 견디지 못하면 반항하게 될 것이며 또 사실 지금 짜낼 원천도 없는 현상이다.
3. 남조선 진주 미군들은 세계 어느 지역에서보담 고생을 하고 있다. 그것은 남조선 인민들이 미군의 주둔을 필요로 늑이지 않함으로 존경과 신뢰의 념이 없어진 원인이다. 소위 해방군의 사명을 띠우고 와서 철거 요구를 당하는 것은 불명예하기 짝없는 일이며
4. 그들은 미군 내의 근로 인민들의 자제인 만큼 자연 미군 내 인민세력의 반영되는 것과 아울러 이 박사가 기대하는 미군의 무력 원조는 발상에 불과한 것이다. 그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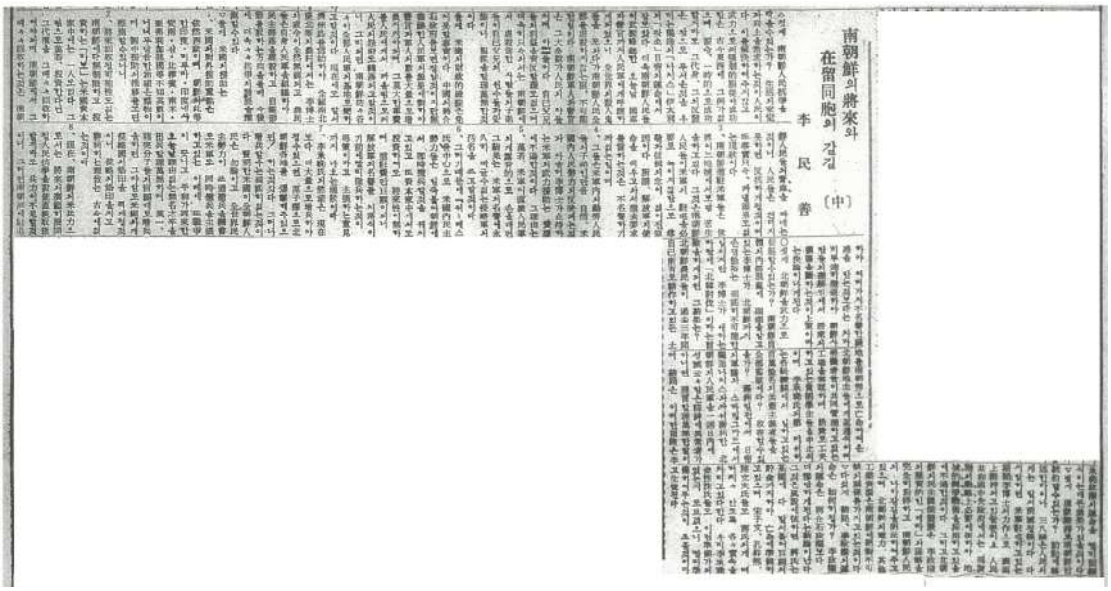
5. 만약 미군이 직접 인민군의게 노골적으로 손을 대면 그 결과는 미군의 명예에 영구히 딱글 수 없는 침략군의 오명을 쓰고 말 것이다.
6. 그러기 때문에 위-데스 씨를 중심으로 미국 내 민주세력들은 일즉붙어 조선에서 즉시 철병할 것을 웨치고 있고 또 자본가 중에서도 투자하여도 장래성이 무하며 진주비만 거액이 되니 해방군의 명예를 치락식이기 전에 빨리 철병하는 것이 득책이라고 주장하는 의견까지 나오는 현상이다.
7. 이승만 씨의 욕망은 현재보다 더 대량으로 증병하야 될 수 있으면 원자탄으로 북조선 각지를 폭격해 주었으면! 하는 것 갓다. 그러나 증병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이다. 현명한 미국이 전 조선 인민은 물론이고 전 세계 민주세력이 쏘련 철병을 기회를 미군도 동시 철병을 주장하고 있는 이때에 또 전쟁이 끗나고 평화가 재래한 오늘날 이유 없는 무명지졸을 출병할 리 만무하며 만일 저돌 분자들의 맹원대로 증병을 하면 그야말로 미국의게 침략국의 낙인을 찍게 될 것이니 침략의 낙인을 지고 승리하는 이치는 고금에 없는 것이다.
8. 현재 남조선의 미 병력으로서는 장래의 광범히 전개될 인민항쟁을 설사 직접 취급할지라도 병력이 부족할 것이니 그러면 남조선에 주둔하야 여러가지 불명예한 의혹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속히 철퇴하야 조선 사람들의 이해 밑에서 장래의 친선을 도(圖)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결론이 나게 된다.

○ 셋재 북조선을 무력으로 정복할 수 있는가? 남조선 자체의 내부 혼란에 두통을 알고 있는 이 박사가 북조선까지 손댈 여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 박사가 애타는 바람에 「북한 토벌」이라는 모험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북조선 농민들이 과거 3년간 자기 소유로 경작하고 있든 토지를 남조선으로 망명하여 온 북조선 지주들에게 반환식이며 노동자들이 공동관리하고 있는 공장을 탈취하며 급비로 공부하고 있는 빈곤 학생들을 중지식이며 이승만 씨의 제일 미워하는 각급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백만여명의 공산주의자들을 전부 감옥에다? 수용할 수 있을가? 만주 벌판에서 일제 군대와 스타린그라드에서 독일 나치스와 싸워 승리한 북조선의 인민군을 일주일 내에 섬멸 운운함은 정신에 이상자가 아니면 발언할 리 만무한 말이며 결국은 이러한 모험은 이승만 정권의 운명을 빨리 단축식이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 넷재 현상 유지로 남조선만 통치할 수 있는가? 전기에 약술한 바이나 38선은 인민의게는 발서 소멸될 선이다. 다시 말하면 미군 주군하고 있는 기간 이 박사의 역작으로 이면상 유지되고 있쓸 뿐이요 인민공화국 중앙정부에서는 현단계의 전략상 필요에 의하야 지역적 투쟁전술을 채용하고 있음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북조선의 민주과업 발전은 이 정권의 악질적인 「대마」의 모략을 완전히 분쇄하고 남조선 인민의 나아갈 길을 명시하여 주고 있으며 북조선의 전력 기타 공업자원은 남조선에 절대 불가결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 다섯재 결국, 이 정권의 운명은 여하히 될가? 이 정권의 운명은 장개석 정권보다 더 참담하게 된다는 결론이 난다. 그것은 풍설에 의하면 장 씨는 모국(某國)에 다 발서붙어 거액의 저금까지 하야 망명에 준비하고 있으며 송자문(宋子文), 공상희(孔祥熙), 진립부

(陳立夫) 씨들도 장씨의게 머러지지 안토록 각각 실속을 차리고 있다 한다. 우리 이승만 김성수 씨들도 이런 준비가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빨리 준비하여 두는 것이 조흔 것이라고 생각된다.


南朝鮮의 將來와 在留同胞의 각오 (中)
李民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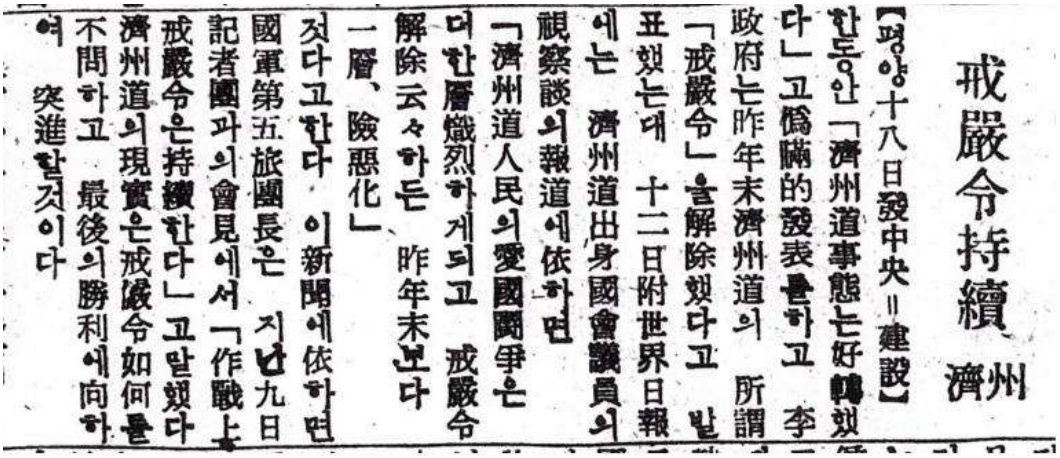
계엄령 지속, 제주

계엄령 지속, 제주

【평양 18일 발 중앙=건설】 한동안 「제주도 사태는 호전했다」고 위만(僞瞞)적 발표를 하고 이(李) 정부는 작년 말 제주도의 소위 「계엄령」을 해제했다고 발표했는대 12일부 세계일보에는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의 시찰담의 보도에 의하면

「제주도 인민의 애국투쟁은 더한층 치열하게 되고 계엄령 해제 운운하든 작년 말보다 일층 험악화」

젓다고 한다. 이 신문에 의하면 국군 제5여단장은 지난 9일 기자단과의 회견에서 「작전상 계엄령은 지속한다」고 말했다. 제주도의 현실은 계엄령 여하를 불문하고 최후의 승리에 향하여 돌진할 것이다.


戒嚴令持續 濟州

【평양十八日發中央=建設】
한동안 「濟州道事態는好轉했다」고 僞瞞的發表를하고 李政府는昨年末濟州道의 所謂 「戒嚴令」을解除했다고 발표했는대 十二日附世界日報에는 濟州道出身國會議員의 視察談의報道에依하면 「濟州道人民의愛國鬪爭은 더한層熾烈하게되고 戒嚴令解除云々하든 昨年末보다 一層、險惡化」 젓다고한다 이新聞에依하면 國軍第五旅團長은 지난九日 記者團과의會見에서 「作戰上 戒嚴令은持續한다」고말했다 濟州道의現實은戒嚴令如何를 不問하고 最後의勝利에向하여 突進할것이다

사설 : 이(李)정권의 데마 본질

사설 : 이(李)정권의 데마 본질

이승만 정권 즉 대한정부는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민들에게 대한 전체적 폭압을 강행하는 외에 온갖 데마를 부절히 맨드러 전파하지 않으면 안될만치 되였다.
이것은 다만 이승만 정권뿐 아니라 과거나 현재 팟씨즘 국가 군국주의 국가는 물론이요 모-든 반민주적이며 반인민적인 국가들은 예외 없이 그러한 것이였고 또한 그러하다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구테여 이승만 정부의 모-든 허위와 기만과 악질 데마 선전을 과장해서 말하기는 싶지 않으나 이제 전해오는 여러 가지 보도를 종합하야 그를 과거의 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 비열한 소위를 그양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미 얼마 전에 해주폭동설을 맨드려내여 세상을 소켜보랴다가 실패한 이승만 정부는 이에 또다시 라디오 방송과 언론기관을 동원하야 북조선 인민군이 불법하게 월남하야 무고한 주민들에게 방화와 살상으로써 온갖 위협과 불안을 준다는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은 세인이 모다 알고 있는 바이다.
이 선전에 대하야 평양방송으로 그 진상의 전말이 발표되기 전에 일본에 있는 일부 대부분의 상식인은 이것은 이승만 정부의 상습적인 데마 방송이라고 추측하고 있는 바이나 이제 정확한 정보에 의하면 그것은 과연 악질적인 데마 선전으로서 그 의도는 다음과 같은 점에 있었다는 것을 다시 확연히 알게 되었다.
그들의 의도한 바는 이미 인민공화국 내무성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첫재는 38선 부근에서 자진하야 무장적 도발과 테로 행위로서 사건을 이르켜 이에 불안한 분위기를 맨드러 놓고 여기에 일반의 주의 특히 남반부 인민들의 관심을 이에 집중하야 부절히 폭발되고 있는 인민항쟁을 일시 마비시켜 보자는 어리석은 술책에서 나온 것이며
둘재는 이러한 조건을 맨드러서 금번 내조(來朝)한 국련(國聯) 신위원단에서 그를 과시 보고하야 그를 이유로서 남조선 미군 장기 주둔을 합리화시키자는 간책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는 이같이 그들의 이면 의도를 구명해 볼 때 다시곰 연상되는 것은 독일 나치쓰가 맨드러낸 의사당 방화사건이오 일 작년 남조선 반동배들이 날조해 내였든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등등이다.
하여튼 위에서도 언급한 바이지만 이승만 정부가 이렇게까지 모험적인 비열 간책을 취하지 않고는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이에 도로혀 그들에게 일도(一掏)의 동정 같은 것을 금할 수 없는 바이다.
보도에 의하면 때로는 5-6백명의 한국 국방군과 경찰로서 월북하야 하로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듯 설친다고 하니 이것으로써 과연 국방군이란 그것이 강력한 존재라는 인상을

일반에게 줄 수 있을가? 제주도 현상은 말할 것도 없고 호남 일대와 영남 지방에서 부절히 일어나고 있는데도 대항해 가지 못하는 그들의 무력이 과연 월북하야 대전할 실력이 있으리라고 그 누가 믿어줄 것일가?

여기에서 새삼스럽게 다시 말 것도 없지만 참으로 인민의 이익을 위하야 인민의 총의로서 구성되는 인민정부는 어데까지던지 정의와 진실에 입각하야 정치를 운행하는 것이 그 본질이 되어 있고 원칙이 되어 있는 것이어늘 그와 반대로 반인민적인 정권을 그 자체가 정의와 진리에 역행하는 만큼 그 원칙을 취하랴 해도 불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제 중요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갓 상업신문 기사나 혹은 라디오 방송을 그대로 소화하야 그를 전파하는 무리들이 항상 인민 대중의 나아갈 길을 저해하는 바 왕왕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일반은 이러한 데마 선전에 속지 않도록 신중히 자기의 판단을 가질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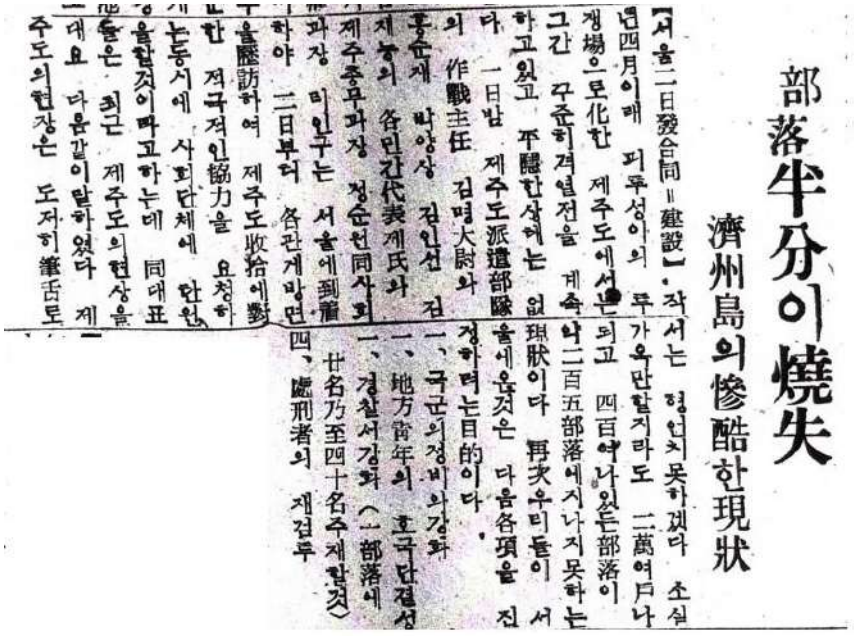
해방신문(解放新聞) 1949년 3월 6일 / 1면

부락 반분(半分)이 소실(燒失)

부락 반분(半分)이 소실(燒失)
제주도의 참혹한 현상

【서울 2일 발 합동=건설】 작년 4월 이래 피투성이의 투쟁장으로 화한 제주도에서는 그간 꾸준히 격열전을 계속하고 있고 평온한 상태는 없다. 1일 발 제주도 파견부대의 작전주임 김명 대위와 홍순재 박양상 김인선 김재능의 각 민간 대표 제씨와 제주총무과장 정순원 동 사회과장 리인구는 서울에 도착하야 2일부터 각 관게 방면을 역방하여 제주도 수습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동시에 사회단체에 탄원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동 대표들은 최근 제주도의 현상을 대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제주도의 현장은 도저히 필설로서는 형언치 못하겠다. 소실 가옥만 할지라도 2만여호나 되고 4백여나 있든 부락이 약 205부락에 지나지 못하는 현상이다. 재차 우리들이 서울에 온 것은 다음 각 항을 진정하려는 목적이다.

1. 국군의 정비와 강화
2. 지방청년의 호국단 결성
3. 경찰서 강화(1부락에 20명 내지 40명 주재할 것)
4. 처형자의 재검투


部落半分이燒失
濟州島의慘酷한現狀

해방신문(解放新聞) 1949년 3월 6일 / 1면

삼일기념 일본국 재류조선인민대회에서 김일성 수상에 올리는 멧세-지

삼일기념 일본국 재류조선인민대회에서 김일성 수상에 올리는 멧세-지

경애하옵신 장군이시여

오늘 우리 조선민족이 강도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착취와 박해 속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으면서 놈들과 영웅적인 민족항쟁을 전개하여 피와 죽음으로서 용감히 싸운 3·1운동 제30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일본에 체류하는 60만 전체 동포들은 우리 민족의 영명한 지도자이시며 우리 민족 역사에 찬란히 빛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상이신 장군에게 새로운 각오와 경의를 아뢰옵는 바입니다.

(중간 생략)

경애하옵신 장군이시여

오늘날 조국 남반부에서 리승만 도당들이 범하고 있는 민족 반역적 죄상은 저 을사보호5조약으로서 조국을 강도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팔아먹고 이래 반세기 동안 3천만 민족으로 하여금 왜적의 천대 밑에 신음하게 한 리완용 등의 매국적 행위에 비하여 더욱 흉측할 뿐만 아니라 천추에 빛날 애국지사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매일과 같이 대량적으로 검거 학살하는 이 자들의 오늘날의 만행은 3·1운동 당시 우리들의 선열들을 무수히 참살한 원수 왜족보다 오히여 더 폭악무도합니다.

경애하옵신 장군이시여

우리 조국을 하로속히 완전통일하고 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먼저 이들 친일파 민족반역자 리승만 도당을 뭇질러버리고 우리 조국을 다시 식민화하려는 외래세력을 우리나라 강토로부터 축출하여야 되겠습니다.

제주도 동포들을 비롯하여 조국 남반부 각지 전체 인민들이 장군이 호소하옵는 국토완정 구국투쟁에 총궐기하여 피와 죽음으로서 최고의 애국심을 발휘하여 싸우고 있는 것은 3·1운동의 진 정신을 참으로 계승한 것이며 우리들의 구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인민항쟁이 가장 격렬히 전개되고 있는 지리산 주위의 광범한 지역에는 인민공화국 국기가 펄펄 날리는 해방지구가 확립되어 인민위원회가 모든 정치를 하며 북반부와 같은 모-든 민주개혁이 실시되고 있다 합니다. 이후 이러한 해방지구가 남반부 각처에 출현하여 그것이 또 차차 커져서 영명하신 장군의 말슴과 같이 조국 완전통일의 날이 불원한 장래에 있다는 것을 재일 60만 동포는 굳게 믿고 있는 바입니다.

(중간 생략)

경애하옵신 장군이시여

이와 반대로 우리 60만 동포가 체류하고 있는 일본의 국제반동세력과 그의 앞자비들은 우리 조국으로부터의 외국군대가 철거하고 리승만 도당의 조선 반동세력이 소탕되고 우리 인민공화국이 통일 발전하는 것을 지극히 두려워하며 조국 남반부 리승만 도당을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직접간접적으로 원조하고 있습니다. 리승만 도당의 괴뢰정권은 일본에 대표를 보내여 일본에 있는 조선인 반동배들과 합력하고 일본 반동세력과 결탁하여 재일 60만 동포의 생활권을 압박 탄압하고 있습니다. 재일 60만 우리들이 자력으로 경영하는 민주주의적인 민족교육을 탄압 방해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일본 각지에서는 천명 이천명이라는 다수의 무장경관을 동원하여 동포들의 생활권을 유린 박탈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1월 14일 이후로는 조선인의 기업 영업 재산취득 소유권 이동 등은 소위 의자위원회의 허가가 없으면 인증 않는다는 법령을 시행하여 조선인의 모든 생업을 일절 박탈하여 버리랴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하 생략)

1949년 3월 1일
(일본국 동경에서)

삼일기념 일본국제류조선인민대회에서
김일성 수상에 올리는 맹세문

해방신문(解放新聞) 1949년 3월 6일 / 2면

조련 17회 중앙위원회 구호 해설

조련 17회 중앙위원회 구호 해설

조련 제17회 중앙위원회에서 내걸은 17 중의 구호는 이것이 곳 금후 일본에 있어서의 조선인 운동에 뚜렸한 구체적 활동 방침으로서 재류동포는 누구 하나 없이 충분이 해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조련 중총의 협력을 얻어 여기에 련재하는 바이다.
(중간 생략)
그 외군의 주둔을 반대하야 철거를 요구하고 이승만 도배들의 민족을 파라먹는 앞재비 노릇을 반대한다고 해서 애국 인민들을 마치 소나 개를 잡드시 학살하고 있으니 이 망국도들의 정권을 하로바삐 처부시지 않고는 또 금후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릴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벌서 그 자들이 공식으로 발표한 것만 보아도 제주도 한 섬만 하여도 2만명이 학살당했다고 합니다. 이 2만명 중에는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형도 있을 것이고 오빠도 있을 것입니다. 대판의 동포들이 가끔 이 학살당한 동포들의 추도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정신을 더욱 살려 이곳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하여 그 자들의 음모를 분쇠하야 대한민국을 타도하고 외군을 철퇴시켜 극토완정을 전취하는 데 힘을 합하지 아느면 안되겠습니다.

조련十七회중앙위원회구호해설

조련第十七회 중앙위원회에서 내걸은 十七중의 구호는 이것이 곳 금후 일본에 있어서의 조선인 운。에 뚜렸한구체적활동방침으로 재류동포는누구하나 없이 충분이 해득하여야 할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조련중총와 협력을 얻어 여기에 련재하는 바이다

（2）

구 호

우리민족의 영명한 지도자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김일성수상을 받들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치아래 굳게결집한 재일六十만 조련맹원은 애국인민을 학살하고 외군의 주둔을 요청하는 이승만 도배들의 망국 매족적 음모를 분쇄하고 국토완정의 승리를 쟁취하기위하여 일본에 최후발광하는 제국주의자들과 그앞자비들의 음모를 폭로하며 반대투쟁을 견결히 전개하자!

★★★★★★★★★★★★★★★★★★★★★★★★

해 설

우리 민족이 이 위대한 령도자를 갖였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는 지금 남반부 동포들이 리승만의 못된 정치를 받고 얼마나울며 목숨까지 빼앗기고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잘 알수가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본국동포들과 함께 김일성장군을 받드러 그 지도하시는 선에서서 우리나라의 국토완정과 부강발전을 위해서 나아갈수있다면 얼마나 영예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김일성장군은 비단 조선의 근로대중을 대표하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의 수상이시니그말씀 그행동은 조선민족의 나아갈길을 항상 그이가 대표하야 집중적으로표현하고있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김일성 장군주위에 둘러뭉처 모두가 그와같은 애국자가 되고 그이를 받드러 나아간다는것은 전조선민족의 통일과 단결을 의미하는것입니다 그리고 현제 김일성수상으로서 대표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에 충성을다하겠다는것을 맹세하는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남반부를 살펴볼때 우리는 참으로 한심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이승만 도배들이 소위 대한민국 이라는 괴뢰정권을 만드러 민족의독립과 로동자 농민의 해방과 여성의 해방운운 꿈에도 꾸지않고 또다시 나라를 팔어먹을야는 원갓 수작을 다하고 있습니다 누구가 무어라고 한들의 군주둔하에 무슨 독립이 있단말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알면서 그주둔을 요청하는것은 그자들이 아무리 번명한들 나라의독립보다는 자기들만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사람이 더중하다는것을 폭로하고 있는데 불과합니다

그 외군의 주둔을 반대하야 철회를 요구하고 이승만 도배들의 민족을 파라먹는 앞재비 노릇을 반대한다고해서 애국인민들을 마치 소나 개를 잡드시 학살하고있으니 이 망국도들의 정권을 하로바삐 처부시지 않고는 또 금후 우리민족이 얼마나 많은 피를흘릴는지 알수없는일입니다 벌서 그자들이 공식으로 발표한것만 보아도 제주도 한섬만하여도 二만명이 학살당했다고 합니다 이 二만명 중에는 일본에있는 우리동포들의 兄도있을것이고 오빠도 있을것입니다 대판의동포들이 가끔 이 학살당한 동포들의 추도회를하고있는데 우리는 그정신을 더욱 살려 이곳에서 할수있는 모든방법을 다하어 그자들의 음모를 분쇄하야 대한민국을 타도하고 외군을철퇴시켜 국토완정을전취하는데힘을합하지아느면안되겠습니다

폭동군의 교묘한 전술

폭동군의 교묘한 전술
토벌 불능은 민중의 비협력
이 한국군 총참모장 담(談)

【서울 14일 발 합동=건설】 한국정부 육군 총참모장「이응준」소장은 제주도 및 호남지구 폭동 토벌 강행에 관하여 14일 요지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제주도는 작년 4·3사건 이래 호남지방은 작년 여수사건 이래 얼마도 되지 않은 폭동을 전멸치 못한 데 대하야 일반이 의혹을 느끼고 있을는지 모른다. 이것은 폭도가「게리라」전술을 쓰고 있는 관계상 그 포획이 지난(至難)한 까닭이다.

「게리라」작전의 기본 원측은 적진아퇴(敵進我退) 적주아요(敵駐我擾) 적피아타(敵避我打)의 16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포획 섬멸할 제 조건은 민중의 협력인 것이다. 그러므로 반민주의 폭동의 행동을 신속히 국경(國警)에 보고하는 한편 군의 이동을 적에게 알리지 말고 또한 식량 기타의 편의를 폭도에게 주지 말 것이다. 민중의 협력을 얻을랴면 군 장병의 비행이 없어야만 한이 이것을 주의하여 계몽운동을 이르켜 민중을 선무하는 것이 긴급조건이다.

暴動軍의 巧妙한 戰術
討伐不能은 民衆의 非協力
李韓國軍總參謀長談

우리쪽 손해는 경미
한국 대본영의 전과 발표

우리쪽 손해는 경미
한국 대본영의 전과 발표

【서울 14일 발 합동=건설】 국무부 보도과에서는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의 3월 1·2주간 전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1. 호남지구
   가. 적의 출몰 회수 29회
   나. 출몰 장소 30개소
   다. 적의 병력 1988명
   라. 아방 병력 국군 2100명 경찰 480명
   마. 전과 사살 42, 포로 18, 총 2, 실탄 133발, 수류탄 2
   바. 아방 손해 경찰 전사 10명 등 부상 24, 국군 부상 8
2. 제주도지구
   가. 적의 출몰 회수 6회
   나. 출몰 개소 6개소
   다. 전과 사살 97명, 부상 10, 포로 64, 무기 나포 14, 철창 13, 장도 1
   라. 아방 손해 국군 전사 8, 부상 4, 경찰 전사 없음
3. 38선지구
   가. 출몰 장소 6개소
   나. 전과 사살 7, 부상 1
   다. 아방 손해 전사 2, 납치 1

微輕는害損方我
表發果戰의營本大國韓

해방신문(解放新聞) 1949년 3월 21일 / 1면

105부락은 한국에서 3백 부락은 인민군에서 제주도의 치안 현상

105부락은 한국에서
3백 부락은 인민군에서
제주도의 치안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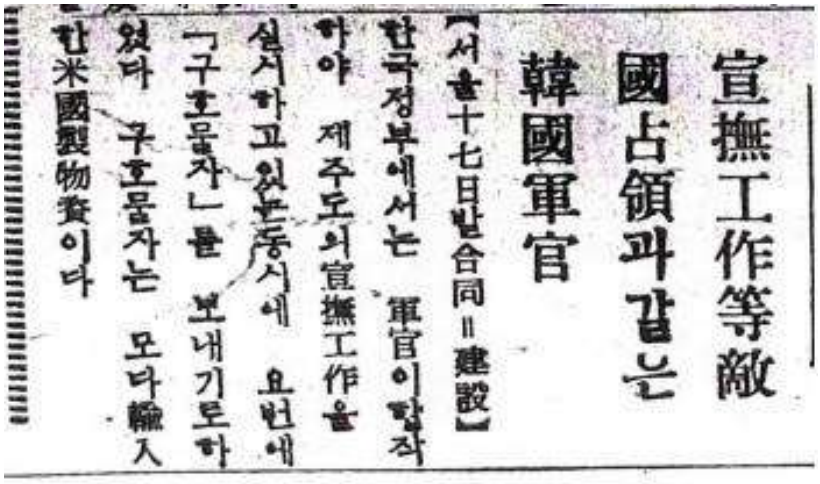
【서울 15일 발 합동=건설】 15일의 공보처 발표에 의하면 제주도 사태에 관하여 〈번-즈〉 박사와 도민 대표와의 회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다.
제주도 출신의 국회의원 및 제주도 보통교육과장 이호성 씨와 민간지도자 홍숙제 씨(※ 홍순재의 오기)는 〈아-터·씨·번즈〉 박사 및 〈라매-트키니〉 박사와 회담하였는데 이들 보고에 의하면 3만호『전 호수의 3분 1』34개의 학교 13 면사무소가 소실되었다.
반도는 약 5백명의 무장폭도와 1만5천명의 민간 동정자가 있어 이들 폭도의 소탕은 지리적 불리한 조건에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도내 4백 부락 중 105 부락만이 보호를 받고 있음으로 공산도당과 량민을 구별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다고 한다. 이씨는 학교 교사(校舍)로 천막을 사용하고 있다는 실예를 들고 아동을 위한 학교 이외에 틈을 타서 이들 폭도는 그들 부모에게 공산주의를 선전 고취시키고 있다고 하였다.

百五部落은韓國에서
三百部落은人民軍에서
濟州道의治安現狀

선무공작 등 적국 점령과 같은 한국 군관

선무공작 등 적국 점령과 같은 한국 군관

【서울 17일 발 합동=건설】 한국정부에서는 군관이 합작하야 제주도의 선무공작을 실시하고 있는 동시에 요번에 「구호물자」를 보내기로 하였다. 구호물자는 모다 수입한 미국제 물자이다.


宣撫工作等敵
國占領과같은
韓國軍官
【서울十七日발合同=建設】
한국정부에서는 軍官이합작
하야 제주도의宣撫工作을
실시하고있는동시에 요번에
「구호물자」를 보내기로하
였다 구호물자는 모다輸入
한米國製物資이다

해방신문(解放新聞) 1949년 3월 24일 / 2면

한라산에 동굴 1만2천

한라산에 동굴 1만2천
비호보다 무서운 인민군
한국 의원의『해방구』시찰기

【서울 18일 발 합동=건설】앞서 제주도를 시찰하고 도라온 한국회의원 주기용 씨는 18일 제주도의 실상을 다음과 같이 말하며 시급한 시책을 세워야 할 것을 요망하였다.

1. 사태 수습에 대하여

제주도는 해방 직후 인민공화국으로 발전하였고 남북한국의 작전기지로서 사상 전략의 중요 거점으로 모략과 선전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만치 남한 공산분자의 진출 기지임이 틀림없는 터임으로 제주도의 사태 수습을 일 지역적 사태 수습에 지대한 관련성을 가진 것을 재인식하여야 될 것이다.

경찰 수뇌부는 파견군 사령부와 긴밀히 악수하여 전승에 적극 노력하여 민심 수습에 활동하고 있다.

한라산에 1만2천 굴이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도 인식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자연동굴로 맨든 동굴 게리라전에 능숙한 폭도가 판 굴 등등 무수의 굴이 처처에 산재하며 설상가상이으로 유명한 제주인인만큼 군 경의 작전상 고심은 형언할 수 없는 것을 국회의원은 명기하여야 될 것이며 폭도는 일본군이 산중에 매장하였든 무기를 파내여 쓸 뿐 아니라 산악지대를 비호처럼 치주하여 폭도의 진압이 용이하지 않은 것을 기억하여야 될 것이다.

2. 리재민의 현상에 대하여

산간벽촌 주가(住家)는 물론 한인(※해안의 오기)지대 부락까지도 이미 남원 북촌 동복 서귀포 등 4·3사건 이후 소실된 가옥 1만6천1백7십7호에 사망자 수 1천1백9십3명, 중상자 수 4백9명 리재자 수 8만6천7백9십7명으로 이 리재민은 식량품을 운반할 틈이 없이 리간하야 도야지와 소와 같이 해초와 산초에 의거하여 그날그날을 연명하고 있으며 노유 할 것 없이 종기에 신음하고 있는 상태이다.

3. 리재민의 주택 건설에 대하여

비행기로서 정찰한 데 의하면 중간지대의 부락은 전무 상태로서 농경지 9만 정보의 대부분은 경작을 하지 않아서 군경 주둔하에 경농 계속을 장려하여 즉시 실시치 않으면 30만 도민의 1년간 식량을 육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으로 도민에게 자력갱생의 힘을 발휘하게 하여야 될 것이올시다.

4. 학교 피해 내용은 초등학교 45동 교실 수 179 중등학교 2동 교실 수 11로서 피해

액은 4억6천여만원의 막대한 금액에 달하는 바 사태 수습과 동시에 교육은 1일이라도 쉬여서는 안될 터임으로 시급히 복구되여야 될 것입니다. 이번 사변에 교사 64% 중등학교 학생 283명이 가담하고 있으며 교통 관계로 초등학교 아동 약 8천명 중등학교 학생 약 반수는 통학을 못하고 2교 이상이 합하여 1교를 사용 2부 3부제로 수업을 계속하고 있는 바이다.

漢拏山에 洞窟一万二千
飛虎보다무서운人民軍
韓國議員의「解放區」視察記

제주도 시찰 : 한위(韓委)

제주도 시찰 : 한위(韓委)

제주도의 실정을 시찰할려고 U· 한위 위원단은 오는 18일 현지로 출발하게 되었는데 공보관 〈샤바-쯔〉 씨는 동 시찰 여행에 관하여 기자단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금반의 시찰 목적은 모-든 방법으로 현지 실정을 잘 알고저 하는 데 있다. 신문에 보도된 것과 청취에 의한 지식으로서는 불충분하여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으로 현지를 시찰할려는 것이다. 동지(同地) 여행 중의 신변상 위험은 정부에서 보장할 것이다. 우리 시찰 여행이 국군의 지기(志氣)를 고무할는지 않을는지는 모르겠다. 사실 한위가 가진 지식은 신문 보도 이하의 것이다. 금번 장기여행으로 말미아마 제3분과 위원회 설치 문제 결정이 지연되지 않을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본 위원단은 모-든 일을 동시에 할 수는 없는 것이다. 5월 10일 제주도선거 감시 문제는 금후 전체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다.

濟州島視察 韓委

제주도 항쟁 희생자 아라카와(荒川)에서 추도회

제주도 항쟁 희생자 아라카와(荒川)에서 추도회

거번의 인민항쟁으로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면 권애리(※ 고내리의 오기)에서 34명의 동포들이 정부군에게 희생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된 권애리 청년단에서는 지난 29일 동경 황천(荒川) 제일소학교에서 추도회를 여러 3백여의 동포들이 참석하였다 한다.

濟州島抗爭犧牲者
荒川에서 追悼會
거번의 人民항쟁으로 濟州
道北濟州郡에월면권애리에서
三十四名의동포들이 정부군
에게 희생당하였다는 소식
을듣게된 권애리청년단에서
는 지난二十九日 東京荒川
第一小學校에서 추도회를여
러 三百餘의동포들이 참석
하였다 한다

해방신문(解放新聞) 1949년 6월 9일 / 1면

제주도 인민 학살의 참상

삼족 몰살을 보통사로
제주도 인민 학살의 참상
피에 주린 매국도당들의 만행을 보라

조선해방구원회본부 위원장 강구범 씨의 맛형 강용범 씨는 이승만 살인도당의 독수에 금년 2월경에 친척 등 일족 전원 10여명이 참살당했다는 확보가 드러와서 6월 3일 강구범 씨 댁에서 성복제(成服祭)를 행하였다.

이번 이 소식과 전해온 바에 의하면 제주도 인민항쟁이 이러난 후 이승만 살인도당의 인민 도살 만행은 세계 인류 역사에서 일즉이 보지 못한 잔인무도한 형언을 초월한 참비(慘鼻)한 것이라는 것이 판명되였다. 벌서 공식보도에서도 9만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였다고 하는데 그 처참한 현상은 눈을 가리우게 한다. 강용범 씨의 일가 참살 상황도 그의 하나로서 가족들 중 12세의 어린이로부터 51세의 용범 씨 부인까지 아들 딸 할 것 없이 8인을 전부 참살하고 그들의 외손 되는 6세 8세 되는 소녀들과 그의 부친에 이르기까지 글자 그대로 삼족을 몰살해 버렸다.

이분들은 제주도 조천면 조천리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은 제주도에서는 보통여사라고 하며 전하는 바에 의하면 여자들을 능욕한 다음에 바다에 실고가서 총살하기 사람을 산채로 파묻기 어부들의 물건을 강탈하여 폭행하기 가택을 략탈한 후 방화해버리기 등등 말로 이를 수 없는 야만 행동이 백주에 공공연하게 횡행하며 그들은 「폭도」를 방어하기 위한다고 하여 돌담(石垣)을 싸으는데 인민들을 노예와 같이 구사하고 인민의 가구 농구 가축은 모조리 빼아서간다. 지금 제주도에는 사람이 먹고 살 곡식도 없고 집도 모다 불살어버리고 농우는 모조리 이승만 도당들이 강탈하여다가 육지로 반출했다가 팔아먹어버리고 닭들 도야지들은 모조리 잡아먹어버려서 산야에 풀도 안돋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친척들도 서로 아귀 같이 상반되여 부자 간에도 믿음이 없어지는 것 같은 생지옥으로 화하고 말었다 한다. 그러나 산부대(山部隊 인민부대)들은 이 초토에도 굴치 않고 인민의 보호와 반동의 숙청에 전력을 다하면서 엄한에도 산 고랑 언덕 속에서 규율을 지키고 한사한 싸움을 전개하면서 있다고 한다.

강구범 씨 댁에서는 전부터 걱정을 하고 있든 바 6월 1일에 우인에게서의 편지로 사실을 알었다는데 3일 성복제를 지낼 때 조련 중총 윤 의장 김 의장 서기장 여맹위원장들의 조문을 받고 강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승만 도당 놈들의 원한은 뼈에 백힌다. 나도 지금까지는 이러한 일에 반신반의의 태도로서 동무들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못하여 왔으나 나의 부족이었다. 이러한 원수를 갚기 위해서는 아므리 하여도 인민들의 세력을 굳게 단결하여 강화하고 그 힘으로

살인 강도 놈들 리승만 도당을 쳐부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러한 결심으로 나가겠다.
이 날 조문차로 강 씨댁에 간 김민화 조련 의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러한 조국의 리승만 도배의 야만 행동은 일본에 있는 우리들도 전력을 다하여 분쇄하기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금년 봄에 대판에서는 각처에서 추도대회를 열고 생야(生野)지부에서도 남선인민 학살반대 희생전사 추도대회가 있었는데 전국적으로는 너무도 관심이 적다. 이런 것을 언론기관 등을 통하여 더욱 철저히 뚜드려야 할 것이다.
(S)

解放新聞 1949年 6月 9日 (水曜日)

三族沒殺을 普通事로
濟州島人民虐殺의 慘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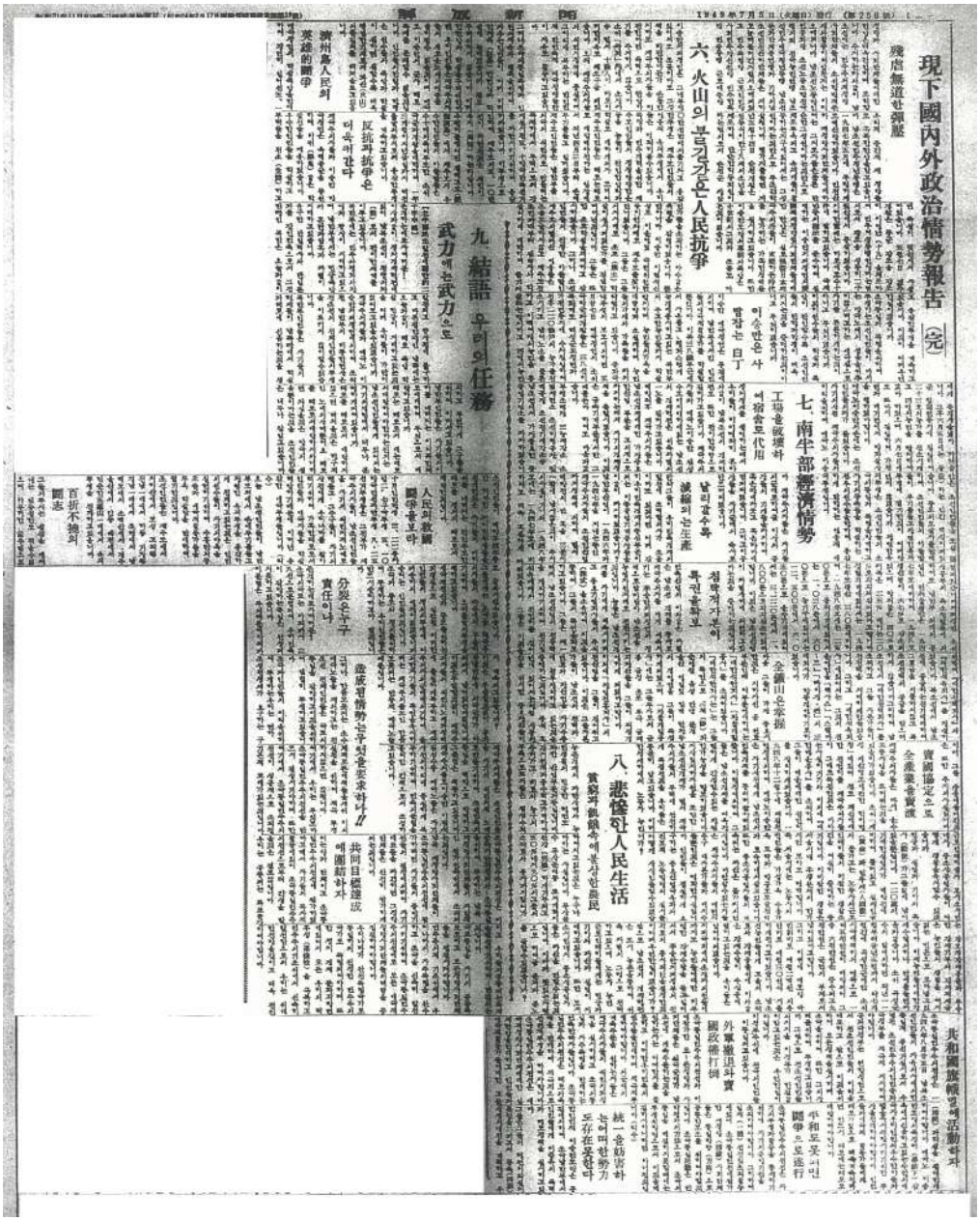
피에주린 賣國徒黨들의 蠻行을 보라

해방신문(解放新聞) **1949년 7월 5일 / 2면**

현하 국내외 정치정세 보고

6. 화산이 불길 같은 인민항쟁
제주도 인민의 영웅적 투쟁

매국정권의 학살 폭압을 반대하여 강연히 일어선 5·10 단선 반대의 줄기차고 용감한 투쟁은 제주도 인민들의 영웅적 유격투쟁에서 우리들은 명확히 볼 수 있읍니다. 독립과 민주개혁을 위한 제주도 인민들의 정정당당한 운동을 놈들이 잔인한 압박과 학살로 대하게 되자 드디어 제주도 인민들은 테로는 테로로 대답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작년 4월 3일부터 손에 무기를 들고 일러섰습니다. 제주도 인민들은 남반부를 외국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목적 하에서 무력으로써 강제 실시된 5·10 망국 단독선거를 파탄시키기 위하여 용감히 싸웠습니다. 이 투쟁으로 인하여 제주도의 5·10 단선이 파탄된 것은 세인이 주지하는 바입니다. 수천리 동떨어진 절해고도에서 제주도의 우수한 인민들의 아들 딸들은 수십배의 폭악무도한 소위 국군과 경찰을 대항하여 1년 3개월이 지난 금일까지 백전불굴의 투지로써 용감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現下國內外政治情勢報告 (完)

殘虐無道한彈壓

六、火山의 불길같은 人民抗爭

七、南半部經濟情勢

八、悲慘한 人民生活

九、結語 우리의 任務

武力에는 武力으로

濟州島人民의 英雄的鬪爭

反抗과 抗爭은 더욱 커간다

人民의 救國鬪爭을 보라

百折不撓의 鬪志

分裂은 누구 責任이냐

共和國旗幟밑에 活動하자

목포형무소 및 무기고를 파괴 1천3백이 탈옥

목포형무소 및 무기고를 파괴
1천3백이 탈옥
전원 군경 상대로 목하(目下) 격전 중

【광주 15일 발 합동=건설】 14일 오후 5시 30분경 전라남도 목포형무소에 수용 중에 있든 1천3백여명의 죄수들이 돌연 폭동을 일으키고 파옥(破獄)과 탈옥을 감행하는 동시에 무기창고를 파괴하고 총기와 탄약을 약탈하여 목하 국방군과 경찰대들을 상대로 격전을 전개 중에 있으나 인명 피해에 관하여서는 아직 정보가 드러오지 않고 있다.
본 사건 발생의 원인은 일부 좌익 죄수들의 연락으로 되는 계획적 폭동이 아닐가 추측되고 있다.

【평양 발 15일=중앙】 광주 15일 발 합동통신에 의하면 14일 오후 5시 30분경 목포형무소 내 1천3백명에 달하는 수감자들은 인민들의 협력 밑에 돌연 폭동을 일어켜 무기창고를 파괴 접수하고 총기, 화약을 탈취한 다음 파옥(破獄), 총출(總出)을 감행하였다. 출옥한 1천3백명의 인사들은 인민들의 열렬한 지지 밑에 현재 군경 부대와 치렬한 교전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확실한 소식에 의하면 탈옥한 인사들은 군경과 격전을 전개하면서 속속 인민유격대와 합류하고 있다 한다. 한편 광주 15일 발 고려통신에 의하면 금번 탈옥한 인사들의 대부분은 제주도 인민항쟁 관계로 수감되어 있던 인사들이라 하며 목포형무소에는 1천5백명이 수감되어 있었다 한다. 이러한 대규모적 탈옥 폭동은 이승만 괴뢰정부 도당이 제 아무리 단말마적 탄압을 한다 하드래도 조국의 완정 자주독립을 갈망하는 남반부 인민들의 강철 같은 단결과 애국심을 깨트릴 수 없다는 것을 강력히 표시하는 것이다.

木浦刑務所 및 武器庫를 破壞

一千三百이 脫獄

全員軍警相對로 目下激戰中

【光州十五日발合同—建設】十四日오후五時三十分경 전라남도木浦刑務所에 수용(收容)중에있든 一千三百여명의 죄수(罪因)들이 돌연 폭동을일어키고 파옥(破獄)과 탈옥(脫獄)을 감행하는동시에 무기창고(武器倉庫)를 파괴하고 중기(銃器)와 한약을 약탈하여 目下국방군과 경찰대들을 상대로 격전(激戰)을 적개중에있으나 人命피해에관하여서는 아직정부가 드러오지않고있다

本事件발생의 원인은 일부 좌익(左翼)죄수들의 연락으로되는 계획적폭동이 아닌가 추측되고있다

【평양발十五일=중앙】光州十五일발 합동통신에 의하며 十四일오후五시三〇분경 木浦현무소내 一천三백명에 달하는 수감자들은 인민들의 협력밑에 돌연 폭동을 일어켜 무기창고(武器倉庫)를 파괴접수하고 중기(銃器), 화약(火藥)을 탈취한 다음 파옥(破獄) 총출(總出)을 감행하였다 출옥한 一천三백명의 인사들은 인민들의 열렬한 지지밑에 현재 군경(軍警)부대와 치렬한 교전을 전개하고있다 그리고 확실한 소식에 의하면 탈옥한 인사들은 군경과 격전을 전개하면서 속속 인민유격대와 합류하고있다한다 한편 光州一五일발 고려통신에 의하면 금번 탈옥한 인사들의 대부분은제주도(濟州島)인민항쟁 관계로 수감되어 있던인사들이라하며 목포(木浦)형무소에는 一천五백명이 수감되어있었다한다 이러한 대규모적 탈옥폭동은 이승만괴뢰정부 도당이 제 아무리단말마적 한약을 한다하드래도 조국의 완정자주독립을 갈망하는 남반부 인민들의 광철같은 단결과 애국심을 깨드릴수없다는 것을 강력히 표시하는것이다

목포 탈옥 항쟁대 유격대에 합류

목포 탈옥 항쟁대 유격대에 합류
일부는 무안서 교전 중

【평양 15일 발 조선중앙=건설】 목포형무소를 탈옥하여 무장항쟁을 이르킨 천여명의 인사들은 현재 유격대와 합류하여 무안 방면에서 행동 중에 있는데 당지에 도달한 소식에 의하면 그의 일부는 이 방면에서 소위 괴뢰정부 해군 육상부대와 교전 중에 있다 한다.

木浦脫獄抗爭隊
遊擊隊에合流
一部는務安서交戰中
【평양十六日발조선中央=建設】목포형무소를 탈옥하여 무장항쟁을이르킨 천여명의 인사들은 현재 유격대와 합류(合流)하여 무안(務安) 방면에서 행동중에 있는데 당지에 도달한 소식에의하면 그의 일부는 이 방면에서 소위 괴뢰정부 해군 육상부대(海軍陸上部隊)와 교전중에있다한다

해방신문(解放新聞) 1949년 9월 23일 / 1면

남선(南鮮) 전 형무소에 비상경계령
이(李) 정부의 당황상(唐慌相)

남선(南鮮) 전 형무소에 비상경계령
이(李) 정부의 당황상(唐慌相)

【평양 16일 발 조선중앙=건설】 광주 15일 발 고려통신은 이승만 괴뢰정부에서 광주형무소에 경계령을 내렸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입수된 또 다른 통신에 의하면 경성, 소록도, 군산, 대전, 청주, 마산, 부산, 개성, 전주, 인천, 공주, 김천, 춘천, 진주, 안동, 대구, 제주도 등 남조선 전 형무소에도 비상경계령이 나렸다 한다.

인천 15일 발 고려통신에 의하면 특히 인천 개성 수원 등 경기도의 각지에서는 이미 지난 1일부터 비상경계가 실시되고 있었다 한다. 그런데 전기 통신들에 의하면 이승만 괴뢰정부가 이같이 남조선 전 형무소에 비상경계령을 나린 것은 목포형무소의 파옥 항쟁과 관련된 것이라는 바 파멸에 직면한 이승만 도당은 여기에서도 자기의 당황상을 여실히 폭로하고 있다.

南鮮全刑務所
에非常警戒令
李政府의唐慌相

【평양十六日발조선中央=建】 광주 光州) 十五日발 고려통신은 이승만 괴뢰정부에서 광주형무소에 경계령(警戒令) 을 내렸다고 보도하고있는데 입수된 또 다른 통신에의하면 경성(京城) 소록도(小鹿島) 군산(郡山) 대전(大田) 청주(淸州) 마산(馬山) 부산(釜山) 개성(開城) 전주(全州) 인천(仁川) 공주(公州) 김천(金泉) 춘천(春川) 진주(晋州) 안동(安東) 대구(大邱) 제주도(濟州島) 등 남조선전형무소에도 비상경계령이나렸다 한다 인천一五日발 고려통신에의하면 특히 인천 개성 수원등 경기도의 각지에서는 이미 지난一日부터 비상경계가 실시되고 있었다한다 그런데 전기 통신들에의하면 이승만 괴뢰정부가 이같이 남조선 전형무소에 비상경계령을 나린것은 목포형무소의 파옥 항쟁과 관련된것이라는바 파멸에직면한 이승만도당은 여기에서도 자기의 당황상(唐慌相) 을 여실히폭로하고있다

■ 신문(新聞)

신세계신문
(新世界新聞)

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8년 7월 27일 / 1면

제주사건대책위원회 결성

제주사건대책위원회 결성

(서울 23일 발=합동) 거(去) 7월 18일 민주독립당(民主獨立黨) 회의실에서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 외 20여 정당 사회단체 참집(參集)하에 제주도사건대책위원 준비회를 구성한 바 있었는데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현하(現下) 제주도에서 계속되고 있는 동족상살(同族相殺)의 비참한 사태의 각종 정보를 종합하여 보면 사건의 원인이 첫재로는 작년 3·1기념행사에서 발단한 민경(民警) 충돌사건의 진압 응원에 수백 명의 경관이 현지에 파견되었는데 현지에 간 경관들이 지방 특색과 민정을 살피지 않고 일방적인 강압만에 꿈인 데에 결함이 있었다. 또 지방 출신 경관을 일시에 관청에서 이탈시킨 것과 지방민의 심정을 너무나 무시한 것이 사태 악화의 이유일 것이다. 최근 당국 발표에 따라서도 사태의 진상을 각지(覺知)하였으나 우리는 사건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급속히 이를 해결키에 노력하려는 바이다.

濟州事件對策
委員會結成
(서울二十三日發=合同)
去七月十八日 民主獨立黨會議室
에서 韓國獨立黨外二十餘政黨
社會團體參集下에 濟州道事件對
策委員 準備會를 構成한바 있
었는데 이에關하여 다음과같은
聲明書를發表하였다 現下 濟州
道에서繼續되고 있는 同族相殺
의悲慘한 事態의 各種情報를
綜合하여보면 事件의 原因이첫
재로는 昨年三一記念行事에서
發端한 民警衝突事件의 鎭壓應
援에 數百名의 警官이 現地에
派遣되었는데 現地에간警官들이
地方特色과 民情을 살피지않고
一方的인 强壓만에 꿈인데에
缺陷이 있었다 또 地方出身警
官을 一時에 官職에서 離脫시
킨것과 地方民의 心情을 너무
나 無視한 것이 事態惡化의
理由일것이다 最近 當局發表에
따라서도 事態의 眞相을 覺知
하였으나 우리는事件對策委員會
를 構成하고 急速히 이를解決
키에 努力하려는 바이다

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8년 7월 29일 / 1면

조국의 위기를 천명

조국의 위기를 천명
조선문화인 330명이 성명

(서울 26일 발=합동) 과반(過般) 108인의 성명으로 남북협상을 지지하든 문화인들은 이순택(李순澤), 설의식(薛의植), 정(鄭)지용, 강진국(姜진國) 씨 등이 다시 참가 그 수를 330인으로 하여 26일 「조국의 위기를 천명함」이라는 제목으로 미국의 대일정책을 경고하는 장문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우리의 조국은 바야흐로 중대한 위기의 간두에 서게 되었다. 「남조선의 선거는 조금도 자유 분위기가 보장되지 않은 세계의 일악례(一惡例)를 제시하였다」고 지적한 중국 대공보(大公報)의 사설은 국제 여론의 일례로 반영된 우리의 숨김없는 시실이였거니와 민족의 명예와 이익과 존엄에 침해되는 사건은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니 전화(戰禍)라는 용어로써 표현되는 제주도의 토벌도 그것의 하나이며 도탄에 빠진 민생 문제 그리고 과반(過般) 중지된 전력 문제도 또렷한 사실이다. 교육 문제로 투쟁하였다는 일본의 재류동포 역시 불행하다. 이러한 때에 설상가상으로 독도 사건과 같은 사건도 우리 민족의 일대 비참사의 하나이였다. 그리고 미국과의 친선에 대하여서는 가능한 최대의 노력을 악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더욱더 미국의 세계정책을 주시하는 것이며 미국의 과오를 우려하는 것이다. 680인이 연서(連署)한 중국문화인의 대일 재무장 반대 선언을 비롯하여 동아 각지의 약소국가가 다 같이 미국의 대일정책을 반대함은 무슨 뜻이 있는가. 아세아의 공장으로 성장시키려는 미국의 대일정책은 필연적으로 일제의 재무장을 실현하는 것이며 미국이 동양의 분공장화(分工場化)를 기도하는 것이니 이는 실로 동아 제국(諸國)의 불행이다. 죄악의 재범(再犯)을 꿈꾸는 일제를 상상함이 과연 우리의 자가적(自家的) 환상일 것인가. 이와 같이 동양 각 민족의 일본에 대한 의혹은 과연 우리의 독단적 억측일 것인가?

자주독립 통일정부 수립의 정로(正路)는 오직 양군(兩軍) 동시 철퇴의 일로(一路)가 있을 뿐이다. 자유와 평화의 수호자로서 건국하였고 진리와 인도의 선창(宣暢)자로서 세계에 자칭하려는 미국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우리는 금일의 인연을 없앨 수 없다고 믿어 의구(疑懼)하지 않는 바이다. 이에 우리는 우리의 총의를 명백히 성명에 자서(自署)하는 바이다.

祖國의危機를闡明

朝鮮文化人三三〇名이聲明

(서울二十六日發=合同) 過般百八人의 聲明으로 南北協商을 支持하든 文化人들은 李순澤 [illegible]의 [illegible] 鄭지용 姜진國氏等이 다시參加 그數를三三〇人으로하여 二十六日「祖國의 危機를 闡明함」이라는 題目으로 美國의 對日政策을 警告하는 長文의 聲明書를 發表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같다

우리의祖國은 바야흐로 重大한 危機의 岸頭에 서게되었다 「朝鮮의 運命은 조곰도 自由獨立이 保障되지않은 世界와 一個例를提示하였다」고 指摘한 中國大公報의 社說은 國際輿論의 一例로 反映된 우리의 [illegible] 숨김없는 事實이었거니와 民族的名譽와 利益과 存亡에 關한 問題는 事件은 날이갈수록 擴大되고 있으니 戰爭이라는 用語로써 表現되는 滿州道의 討伐도 그것의 하나이며 [illegible]에 빠진 民生問題 그리고 過般中止된 電力問題로 뜨렷한 事實이다 敎育問題로 鬪爭하였다는 日本의 在留同胞 亦是 不幸하다 이러한때에 雪上加霜으로 獨島事件과 같은 事件도 우리民族의 一大慘事의 하나이었다 그리고 美國과의 親善에 對하여서는 可能한 最大의努力을 악기지 않을것이다 그러니까 더욱더 美國의 世界政策을 注視하는 것이며 美國의 過誤를 憂慮하는것이다 六八〇人이 連署한 中國文化人의 對日再武裝反對宣言을 비롯하여 東亞各地의 弱少國家가 다같이 美國의 對日政策을 反對함은 무슨 뜻이있는가 亞細亞의工場으로 成長시키려는 美國의 對日政策은 必然的으로 日帝의 再武裝을 實現하는것이며 美國이 東洋의 分工場化를 企圖하는것이니 이는 實로 東亞諸國의 不幸이다 諸國의 再起를 꿈꾸는 日帝를 想像함이 果然 우리의 自家的 妄想일것인가 이와같이 東洋各民族의 日本에對한 疑惑은 果然 우리의 獨斷的 臆測일것인가?

自主獨立 統一政府樹立의 正路는 오직 兩軍同時撤退의 一路가 있을뿐이다 自由와 平和의 愛護者로서 建國하였고 眞理와 人道의 宣揚者로서 世界에 自稱하려는 美國의 一〇〇年大計를 爲하여 우리는 今日의 因緣을 없앨수없다고 믿어 躊躇하지않는바이다 이에우리는 우리의 總意를 明白히 聲明에 自署하는바이다

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8년 8월 27일 / 1면

제주 경계 다시 강화

제주 경계 다시 강화
여행증명제 등도 복구

8·25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 경계는 다시 엄중의 도(度)를 가하였다. 당지 경찰청에서는 통행금지 시간을 연장하는 한편 목포 제주 간 여행증명제도를 다시 복구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8·25 북선(北鮮) 선거에 대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당국자는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 비상경계는 8월말까지는 계속될 것이다.

한편 제주경찰감찰청장 김봉호(金鳳昊)씨는 산중 폭도측 동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확언키는 어려우나 폭도들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는 쓸 만한 것이 50정 가량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찰로서는 만일에 대처하여 만반 태세를 세우고 있다.

또한 당지(當地)에도 지하선거가 실시되었다는 데 대하여 동(同) 청장은 그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하고 불원간 발표하겠다고 말하였다.

(제주발 = 조통)

濟州警戒다시強化
旅行證明制等도復舊

八·二五選擧를 앞두고 濟州島에 施되었다는데 對하여 同警備隊長은 그것은 事實이라고 是認하고 不遠間 發表하겠다고 말하였다
(濟州發=朝通)

八·二五選擧를 앞두고 濟州島의 警戒는 다시 嚴重의 度를 加하였다 當地警察當局에서는 通行禁止時間을 延長하는 한편 本土濟州間旅行證明制度를 다시 復舊實施하고 있는데 이는 八·二五北鮮選擧에 對備한 不得已한 措置라고 當局者는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非常警戒는 八月末까지는 繼續될것이다

한편 濟州警察監察廳長 金鳳昊氏는 山中暴徒側動向에 關하여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確言카는 어려우나 暴徒들이 所持하고있는 銃器는 썰만한 것이五十挺假量으로 보인다 그러나 警察로서는 萬一에 對處하여 萬般體勢를 세우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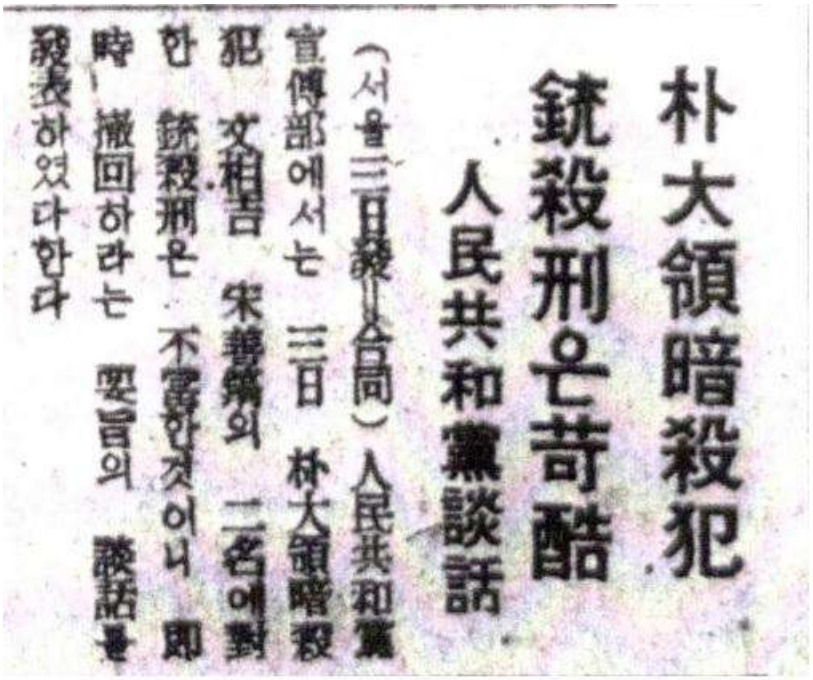
또한 當地에도 地下選擧가 實

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8년 9월 4일 / 1면

박대령 암살범 총살형은 가혹

박대령 암살범 총살형은 가혹
인민공화당 담화

(서울 3일 발=합동) 인민공화당(人民共和黨) 선전부에서는 3일 박대령 암살범 문상길(文相吉) 송선호(宋善鎬 ※ 孫善鎬의 오기) 외 2명에 대한 총살형은 부당한 것이니 즉시 철회하라는 요지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한다.



朴大領暗殺犯
銃殺刑은苛酷
人民共和黨談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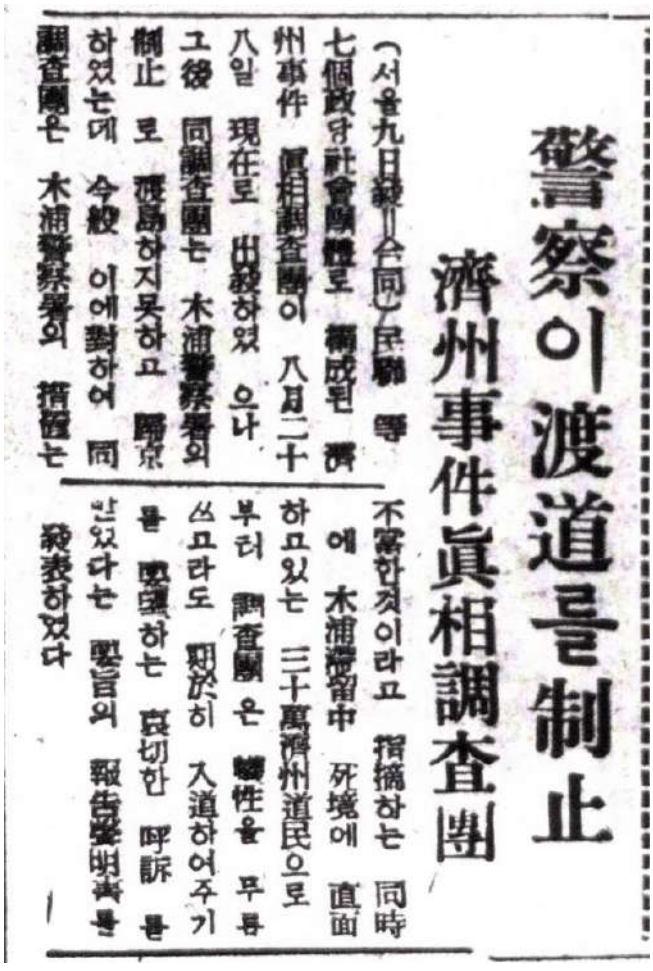
(서울三日發=合同) 人民共和黨
宣傳部에서는 三日 朴大領暗殺
犯 文相吉 宋善鎬외 二名에對
한 銃殺刑은 不當한것이니 即
時 撤回하라는 要旨의 談話를
發表하였다한다

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8년 9월 14일 / 1면

경찰이 도도(渡道)를 제지

경찰이 도도(渡道)를 제지
제주사건 진상조사단

(서울 9일 발=합동) 민련(民聯) 등 7개 정당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사건 진상조사단이 8월 28일 현재로 출발하였으나 그 후 동 조사단은 목포경찰서의 제지로 도도(渡島)하지 못하고 귀경하였는데 금반 이에 대하여 동 조사단은 목포경찰서의 조치는 부당한 것이라고 지적하는 동시에 목포 체류 중 사경에 직면하고 있는 30만 제주도민으로부터 조사단은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기어히 입도하여 주기를 요망하는 애절한 호소를 받었다는 요지의 보고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警察이渡道를制止

濟州事件眞相調査團

(서울九日發=合同)民聯 等 七個政黨社會團體로 構成된 濟州事件 眞相調査團이 八月二十八일 現在로 出發하였 으나 그後 同調査團은 木浦警察署의 制止로 渡島하지못하고 歸京하였는데 今般 이에對하여 同調査團은 木浦警察署의 措置는 不當한것이라고 指摘하는 同時에 木浦滯留中 死境에 直面하고있는 三十萬濟州道民으로부터 調査團은 職性을 무릅쓰고라도 期於히 入道하여주기를 懇望하는 懇切한 呼訴를 받았다는 聲明의 報告聲明書를 發表하였다

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8년 10월 3일 / 1면

제주도에 폭동 재발

제주도에 폭동 재발
민경(民警) 충돌로 사상(死傷) 5백여

(서울 1일 발=공립) 윤 내무장관에 거(據)한 정보에 의하면 10월 1일 오전 7시를 기하여 제주도에 폭동이 재발 사상 550명 이상을 내었다. 동(同) 도에서는 9월 16일 우익계의 대동청년단 단장이 암살된 이래 민중과 경찰 측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었다.

濟州道에暴動再發
民警衝突로死傷五百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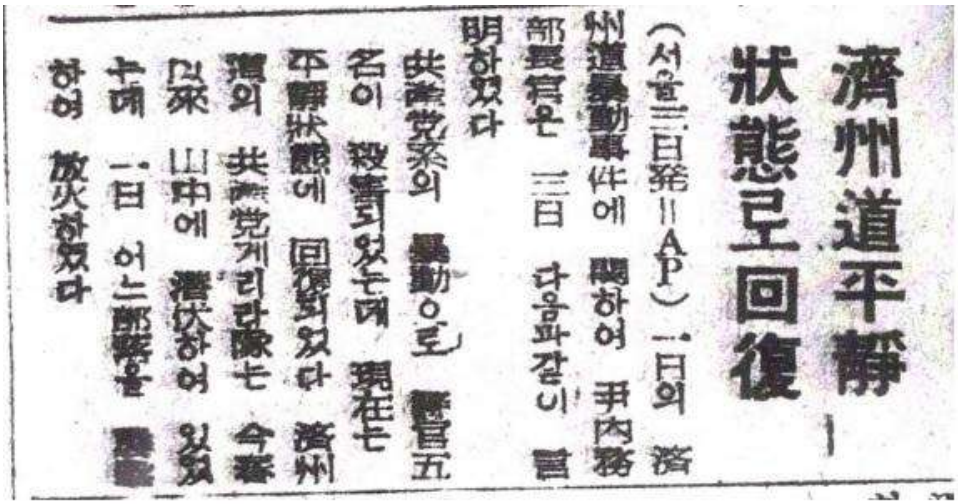
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8년 10월 5일 / 1면

제주도 평정 상태로 회복

제주도 평정 상태로 회복

(서울 3일 발=AP) 1일의 제주도 폭동사건에 관하여 윤 내무부 장관은 3일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공산당계의 폭동으로 경관 5명이 살해되었는데 현재는 평정 상태에 회복되었다. 제주도의 공산당 게릴라 대(隊)는 금번 이래 산중에 잠복하여 있었는데 1일 어느 부락을 습격하여 방화하였다.


濟州道平靜
狀態로回復
(서울三日發=AP) 一日의 濟
州道暴動事件에 關하여 尹內務
部長官은 三日 다음과같이 言
明하였다
共產黨系의 暴動으로 警官五
名이 殺害되었는데 現在는
平靜狀態에 回復되었다 濟州
道의 共產黨게리라隊는 今番
山中에 潛伏하여 있었
는데 一日 어느部落을 襲
하여 放火하였다

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8년 10월 7일

사설 : 동족상살(相殺)은 망족(亡族)행위다

동족상살은 망족행위다

금춘(今春) 이래로 피비린내나는 항쟁을 거듭하여 일반 동포로 하여금 우려를 금치 못하게 하든 제주도의 소요사건은 기(其) 후 한동안 평온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드니 금월 1일로부터 다시 동요되어 민중과 경찰 간의 대립이 격화하는 동시에 5백여명의 사상자까지 발생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민족적으로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사건이 무었 때문에 재발하였으며 또 그것의 내용과 규모가 여하하다는 것에 관하여는 본국으로부터의 상보(祥報)가 없는 까닭에 잠시 논외로 하고 사건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현실성이 조선의 현 단계에 있어 민족적으로 어떠한 발전성을 갖이고 있으며 또 건설적으로 여하한 의의가 있는가에 대하여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

자고로 폭력은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며 현실을 부정하는 곳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의의 폭력과 파괴는 새로운 건설의 토대가 되며 그의 전제적 조건이 될 수 있으나 무의미한 폭력의 행사와 현실에 착오되는 현실의 부정은 그것이 퇴보는 될지언정 현실을 역사적으로 진발(進發)시키고 발전시키는 동기도 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역사가 웅변적으로 증명하는 바이니 불란서의 혁명을 촉성하고 약진시킨 대중의 위력이 전자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면 일본이 백기를 들고 연합군에 굴복하고 독일로 하여금 참담한 말로에 직면하게 한 폭력의 발휘는 후자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면 제주도의 인민항쟁은 그 어느 것에 속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것이 설사 동기에 있어 과연 건설적이고 발전적이라고 할지라도 조선의 현실이 요청하는 역사적 단계에 있어서 조금도 모순이 없는 필연적 사실인 동시에 그로 말미아마 조선민족은 행복스러운 길로 한거름 나아갈 수가 있으며 또 그러한 원동력이 될 수 있을가? 우리는 이 점에 대하여 냉정하게 반성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勝)이라는 말과 같이 시대의 아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시대를 아러야 하며 혁명을 도모하는 자는 칼을 들고 총을 들기 전에 예민한 감각을 갖이고 현실을 통찰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시세와 천운이 부합하고 그에 따라 대중이 움지기여야만 역사와 함께 흘러나갈 수가 있을 것이니 시세에 역행하고 천운에 어긋나는 거사는 무의미한 피를 흘리는 이외에 별다른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어야만 한다. 과연 조선은 지금 쪼각보와 같이 분열되어 있다. 그리고 민족도 천추에 이즐 수 없는 비분과 원한을 먹음고 있다. 이와 같이 가장 불행하고 황량한 환경 속에서 씨근거리고 있는 조선민족이 형호수제(兄呼隨弟)하여 끊어진 강토에 피줄을 맛대어놓고저 기를 쓰는 것은 천리(天理)의 상도(常道)이며 윤리의 공칙(公則)이다. 그러나 우주가 생성한 이래로 지구의 공전은 궤도를 어긋나지 않었으며 음양의 운행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었다. 그러므로

만일에 지구가 궤도를 탈선하면 인류는 멸망할 것이며 태양이 음화(陰化)하면 우주도 소멸될 것이니 우리 민족이 거족적으로 희구하는 통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법도 오로지 한 길밖에 없을 것이며 또 그 길의 선택의 여하에 의하여 민족이 흥망이 분기(分岐)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길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냐? 그것은 무혈항쟁에 의한 통일이다. 우리의 의사에 반하여 분열된 강토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 때문에 동족상살하는 피를 흘릴 필요가 있느냐? 우리는 한 방울의 피일지라도 절대로 흘리면 아니될 것이며 또 객관적 정세에 의하여 그러한 필요가 있다 할지라도 시기(時機)에 따라 귀중한 피를 뿌려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 오인(吾人)은 제주도의 동포에 대하여 좀 더 자중하는 동시에 세계사적 견지에서 조선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깊은 통찰이 있기를 충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이 국무총리와 북선(北鮮) 정부가 이구동성으로 평화리에 통일을 촉성시키고저 하는 용의가 있다고 언명한 이상에는 그들의 흉중에도 성○이 있을 것이며 암암리에 상통하는 그 무엇이 있을 것이니 어시호(於是乎) 경거망동과 골육상쟁은 자중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거듭 말하나니 비단 제주도의 동포에 있어서만 그러할 뿐만 아니라 오늘에 있어 조선민족의 가슴 속에 물결치고 있는 피방울은 그것이 한 사람만을 위하여 돌고 있는 피줄이 아니라 전 겨레의 행복과 평화를 위하여 과거 5천년 동안을 두고 연면(連綿)하게 계승하여 온 겨레의 생명이며 동맥이니 그를 낭비한다는 것은 민족적 총 역량의 소모를 의미하는 불행이며 불찰이라는 것을 깨달어야 한다.

社說

同族相殺은 亡族行爲다

今變以來로 피비린내난 抗爭을 거듭하여 一般同胞로 하여금 無辜를 禁치못하게 하든 濟州道의 騷擾事件은 其後 한층 不穩한狀態를 持續하고있드니 今月一日로부터 다시 擴大되어 暴徒와 警察側의 對立이 激化하는 同時에 五百餘名의 死傷者까지 發生하였다고한다 이와같이 民族的으로 가장 不幸하고 悲慘한 事件이 무었때문에 再發하였으며 또 그것의 內容과 規模가 如何하다는것에 關하여는 本國으로부터의 詳報가 없는까닭에 暫時 論外로하고 事件自体가 內包하고있는 現實性이 朝鮮의 現段階에있어 民族的으로 어떠한 發展性을 갖이고있으며 또 建設的으로 如何한 意義가 있는가에 對하여 檢討하여볼 必要가있다 自古로 暴力은 破壞를 意味하는것이며 現實을 否定하는곳에서 出發하게 되는것이다 그러므로 革命의 暴力과 破壞는 새로운 建設의 土台가 되며 그의 前提的條件이 될수있으나 無意味한 暴力의行使와 現實에 錯誤되는 現實의否定은 그것이 退步는 될지어정 現實을 歷史的으로 前進시키고 發展시키는 如何한 動機도 되지못하는것이다 이러한 事實은 歷史가 雄辯으로 證明하는바이니 佛蘭西의 革命을 促成하고 擴張시킨 大衆의威力이 前者에 屬하는것이라고 치면 日本이 白旗를 들고 聯合軍에 屈服하고 敗逃로 하여금 慘酷한末路에 直面하게한 暴力의發揮는 後者에 屬하는것이다 그러면 濟州道의 人民抗爭은 그어느것에 屬한것일가? 그리고 그것이 설사 動機에있어 果然 建設的이고 愛民的이라고 할지라도 朝鮮의 現實이 要請하는 歷史的 段階에있어서 조금도 矛盾이없는 必然的事實인 同時에 그로 말미아마 朝鮮民族은 幸福스러운 길로 한거름 나아갈수가 있으며 또 그러한 原動力이 될수 있을가? 우리는 이點에 對하여 冷靜하게 反省하지않으면 아니된다

知彼知己면 百戰百勝이라는 말과같이 時代의 아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時代를 알아야하며 革命을 圖謀하는者는 칼을 들고 銃을 들기前에 銳敏한 感覺을갖이고 現實을 洞察하여야한다 그리하여 時勢와 天運에 順應하고 그에따라 大衆이 움지기어야만 歷史와 함께 흘러나갈수가 있을것이니 時勢에 逆行하고 天運에 어긋나는 擧事는 無意味한 피를 흘리는以外에 別다른 價値가 없다는것을 깨달어야만한다 果然 朝鮮은 지금 조각보와 같이 分裂되어있다 그리고 民族도 千秋에 이즐수없는 悲憤과 怨恨을 품고 울고 있다 이와같이 가장 不幸하고 慘酷한 悲劇속에서 서근거리고 있는 朝鮮民族이 兄弟姉妹하여 흩어진 江土에 피ㅅ줄을 맛대어놓고저 애를 쓰는것은 天理의 常道이며 倫理의 公理이다 그러나 宇宙가 生成한 以來로 地球의 公轉은 軌道를 어긋나지 않았으며 陰陽의運行에는 秋毫의變化도 없었다 그러므로 万一에地球가軌道를 脫線하면 人類는滅亡할것이며 太陽이 冷化하면 宇宙도 消滅할것이니 우리民族이 最終的으로 希求하는바 統一의 目的을 達成하기爲한 手段과 方法도 오로지 한 길 밖에 없을것이며 또 그 길의 選擇의 如何에依하여 民族의興亡이 分岐될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길을 選擇하여야 할것이냐? 그것은 無血抗爭에依한 統一이다 우리의 意思에反하여 分斷된 江土를 爲하여 우리가 무엇때문에 同族相殺하는 피를 흘릴必要가 있느냐? 우리는 한방울의 피일지라도 絶對로 흘리면 아니될것이며 또 感情的 態度에 依하여 그러한 必要가 있다 할지라도 時機에따라 貴重한 피를 부러야한다 이러한 意味에있어 吾人은 濟州道의 問題에 對하여 좀 더 自重하는 同時에 世界史的 見地에서 朝鮮이 直面하고있는 現實에 對하여 깊은 洞察이 있기를 衷心으로 바라는바이다 本國政府와 北鮮政府가 異口同聲으로 平和裡에 統一을 促成시키고저 하는 用意가있다고 言明한 以上에는 그들의 胸中에도 誠實이 있을것이며 暗々裡에 相通하는 그 무엇이 있을것이니 於是乎 暴動과 骨肉相爭은 自滅하여야 한다는것을 認識하여야한다 거듭 말하나니 非單 濟州道의 問題에 있어서만 그러할뿐만아니라 오늘에있어 朝鮮民族의 가슴속에 울걱치고 있는 피방울은 그것이 한사람만을 爲하여 울고있는 피울음이 아니라 온겨레의 幸福과 平和를 爲하여 過去 五千年동안을 두고 團結하게 繁榮하여온 겨레의 生命이며 動脈이니 그를 破壞한다는것은 民族的努力의 消耗를 意味하는 不幸이며 不[illegible]이란것을 깨달어야 한다

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8년 10월 15일 / 1면

국군과 폭도 접전

국군과 폭도 접전
남제주에서 쌍방에 손명(損命)

(서울 14일 발=합동) 남제주 관내에서 주둔 경비 중인 국군 제9연대 소속 제2중대 제3분대장이 대원 6명을 인솔하고 10월 6일 하오 2시반경 중문면 색달리 부근 밀림 지대를 순찰 중 50여명의 무장폭도대의 내습을 받어 부득이 이에 대전(對戰) 중 중대본부로부터 응원대원을 얻어 쌍방에 맹렬한 접전이 전개되어 약 30분만에 이를 격퇴시켰다 한다. 그런데 이 전투로 말미아마 동 분대장 금춘수(琴春樹) 이등병사는 전사하였으며 이 외 3명이 중상을 입었다 한다. 그리고 폭도 측의 손해는 사망자 8, 9명 이상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나 상세한 것은 방금 조사 중이라 한다.

國軍과暴徒接戰

南濟州에서 双方에損命

(서귀十四日發=合同) 南濟州管
約三十分만에 이를 擊退시켰다
內에서 駐屯警備中인 國軍第九
한다 그런데 이戰鬪로 말미아
聯隊所屬 第二中隊第三分隊長이
마 同分隊長 琴春樹二等兵士는
隊員六名을 引率하고 十月六日
戰死하였으며 이外三名이 重傷
下午二時半頃 中文面색달里 附
을 입었다한다 그리고 暴徒側
近 密林地帶를 巡察中 五十余
의 損害는 死亡者八 九名以上
名의 武裝暴徒隊의 來襲을 받
인것으로 推測되고 있으나 詳
어不得已 이에對戰中 中隊本部
細한것은 方今 調査中이라 한
로부터 應援隊員을 얻어 双方
다
에 猛烈한 接戰이 展開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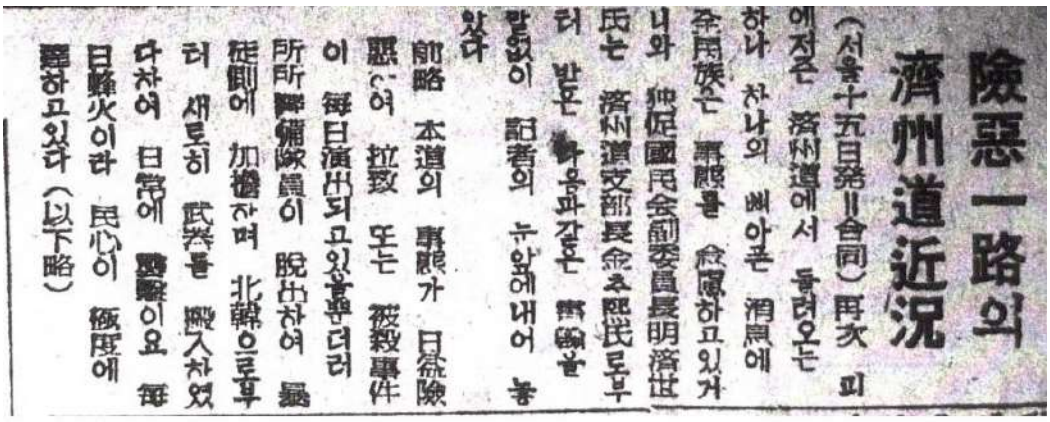
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8년 10월 17일 / 1면

험악 일로(一路)의 제주도 근황

험악 일로(一路)의 제주도 근황

(서울 15일 발=합동) 재차 피에 저즌 제주도에서 들려오는 하나하나의 뼈아픈 소식에 전 민족은 사태를 염려하고 있거니와 독촉국민회(獨促國民會) 부위원장 명제세(明濟世) 씨는 제주도 지부장 김충희(金忠熙) 씨로부터 받은 다음과 같은 서한을 말없이 기자의 눈앞에 내어 놓았다

전략(前略) 본도의 사태가 일익(日益) 험악하여 납치 또는 피살 사건이 매일 연출되고 있을뿐더러 소소(所所) 경비대원이 탈출하여 폭도 측에 가담하며 북한으로부터 새로히 무기를 반입하였다 하여 일상에 습격이요 매일 봉화이라. 민심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 (이하 략)


險惡一路의
濟州道近況
(서울十五日發=合同) 再次 피
에젖은 濟州道에서 들려오는
하나 하나의 뼈아픈 消息에
全民族은 事態를 念慮하고있거
니와 獨促國民會副委員長明濟世
氏는 濟州道支部長金忠熙氏로부
터 받은 左와같은 書翰을
말없이 記者의 눈앞에내어 놓
았다
前略 本道의 事態가 日益險
惡하여 拉致 또는 被殺事件
이 每日演出되고있을뿐더러
所所警備隊員이 脫出하여 暴
徒側에 加擔하며 北韓으로부
터 새로히 武器를 搬入하였
다하여 日常에 警戒이요 每
日烽火이라 民心이 極度에
達하고있다 (以下略)

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8년 10월 17일 / 1면

제주도 소요사건 제3회 공판

제주도 소요사건 제3회 공판

(광주 16일 발=합동) 제주도 소요사건에 대한 제3회 공판은 지난 13일 상오 10시 광주지방법원 법정에서 개정되어 송화식(宋和植) 판사로부터 각각 다음과 같은 언도가 있었다.(괄호 내 구형)

박성선(사형) 무죄, 박남호(사형) 무기징역, 김대원(4년) 3년, 임수혁(3년) 2년, 고태진(단기5년 장기2년 ※7년의 오기) 집행유예 5년, 강한진(6년) 3년, 고정순(10년) 3년, 이정백(5년) 2년, 한진섭(1년) 집행유예 3년, 임진길(2년) 1년 집행유예, 김영필(단기1년 장기7년) 1년 집행유예, 강상수(4년) 무죄, 김태효(전문불명) 현군명(단기2년6개월 장기4년) 무죄, 이하 10여명 생략. 그리고 동 사건에서 양민을 박살(剝殺)한 전 경찰관 2명에 대하여서도 다음과 같은 언도가 있었다. 강중효(15년, ※ 강중우의 오기) 10년징역, 김홍—(전문불명 ※ 김홍식임)(10년) 5년징역

濟州道騷擾事件
第三回公判

(光州十六日発=合同) 濟州道騷擾事件에 對한 第三回公判은 지난十三日 上午十時光州地方法院法廷에서 開廷되어 宋和植判事로부터 各々다음과 같은 言渡가 있었다 (括弧內求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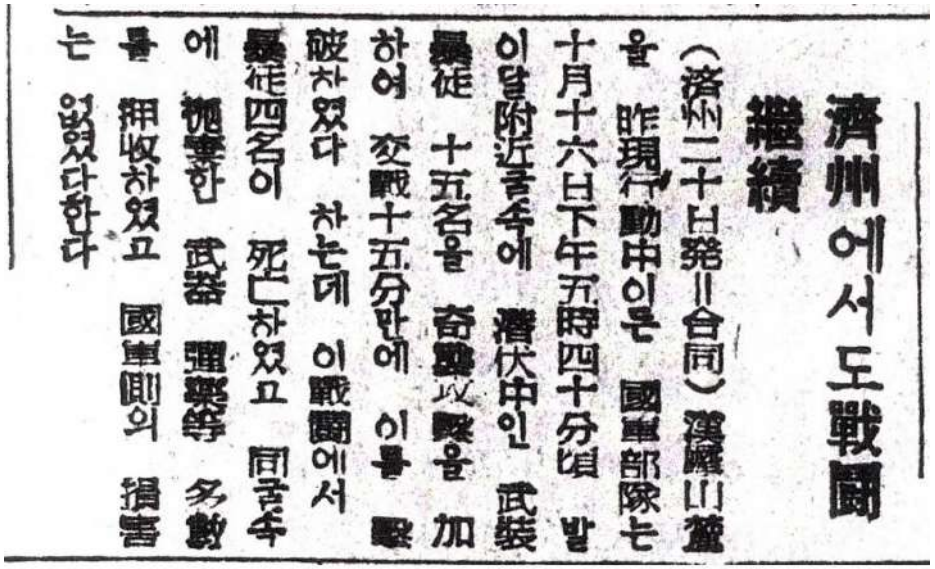
朴성善 (死刑) 無罪朴南호 (死刑) 無期懲役金대元 (四年) 三年任任赫 (三年) 二年高泰진 (短期五年長期二年) 執行猶予五年康淳辰 (六年) 三年高斗順 (十年) 三年李正白 (五年) 二年韓辰燮 (一年) 執行猶予三年任眞吉 二年) 一年執行猶予金革필 (短期一年長期七年) 一年執行猶予姜象壽 (四年) 無罪金泰효 (電文不明) 玄予命 (短期二年六個月長期四年) 無罪以下十余名省略 그리고 同事件에서 良民을 剝殺한 前警察官二名에 對하여서도 다음과 같은 言渡가 있었다 姜重효 (十五年) 十年懲役金홍一 (電文不明) (十年) 五年懲役

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8년 10월 23일 / 1면

제주에서도 전투 계속

제주에서도 전투 계속

(제주 20일 발=합동) 한라산록을 작현(昨現) 행동 중이든 국군부대는 10월 16일 하오 5시 40분경 발이달 부근 굴속에 잠복 중인 무장폭도 15명을 기습 공격을 가하여 교전 15분만에 이를 격파하였다 하는데 이 전투에서 폭도 4명이 사망하였고 동(同) 굴속에 포기(抛棄)한 무기 탄약 등 다수를 압수하였고 국군 측의 손해는 없었다 한다.


濟州에서도戰鬪
繼續
(濟州二十日發=合同) 漢拏山麓
을 昨現行動中이든 國軍部隊는
十月十六日下午五時四十分頃 발
이달附近굴속에 潛伏中인 武裝
暴徒 十五名을 奇襲攻擊을 加
하여 交戰十五分만에 이를 擊
破하였다 하는데 이戰鬪에서
暴徒四名이 死亡하였고 同굴속
에 抛棄한 武器 彈藥等 多數
를 押收하였고 國軍側의 損害
는 없었다한다

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8년 10월 29일 / 1면

제주사건 언도 연기

제주사건 언도 연기

(광주 26일 발=합동) 지난 15일 제주사건은 제5회 공판을 마치고 17명에 대한 판결언도는 23일로 예정되어 있었든 바 금반 돌발한 비상사태(※ 10.19 여순사건을 말함)로 인하여 무기 연기되었다 한다. 그리고 아직도 공판을 받지 못한 피고가 약 60여명이나 있다는데 그들의 공판도 무기연기되어 앞으로 상당한 일(日)이 걸닐 것으로 보인다.

濟州事件 言渡延期
(光州二十六日発=合同)
지난 十五日 濟州事件은 第五回 公判을 마치고 十七名에 対한 判決言渡는 二十三日로 予定되어 있었든바 今般 突発한 非常事態로 因하여 無期延期되었다한다 그리고 아직도 公判을받지못한 被告가 約六十余名이나 있다는데 그들의 公判도 無期延期되어 앞으로 相當한 日이 걸닐것으로 보인다

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8년 10월 31일 / 면

치안회복에 노력 중 이(李)장관 현지시찰 상황 발표

치안회복에 노력 중 이(李)장관 현지시찰 상황 발표

(서울 28일 방송) 전남 반란사건에 관하여 28일 국방부에서는 26일 현지에 급행 진압작전을 직접 지휘하고 27일 귀경한 이 장관의 현지 시찰에 의거 다음과 같은 반란 상황을 발표하였다.(국방부 제5호 발표)

(1) 26일 이범석 장관은 최 참모총장을 비롯 막료를 대동 반란사건 발생의 현지에 급행 27일 귀경하였다. 기간 진압작전을 직접 지휘하여 토벌군 전 장병을 격려 야전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부상병을 위문하는 한편 현지의 주민을 모아 훈시하고 행정 책임자들과 회견하여 보고문을 접수하였다.

(2) 27일 오후 반란군 진압의 여수부대는 해안에서 상륙한 국군부대와 합류하여 여수를 완전히 탈환 방금 치안 확보에 노력 중이다.

(3) 여수의 반란군은 제14연대의 4-5백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측되었는데 일반 시민 여학생 국민학생까지 이에 참가하여 국군작전에 많은 제약을 주었다. 그리고 국군이 동시(同市)를 점령하기 전에 2-3백명의 공산주의자가 북조선인민공화국을 지지하라는 연설을 하였다.

(4) 목하 반란부대의 주력은 백악산 부근에 집결되고 있는데 국군은 이 반란군의 지리산으로의 퇴각을 방지하기 위하여 퇴로를 차단 이를 압박할 ○○을 ○립하고 있다.

(5)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수에서의 반란은 천인공노의 참행(慘行)을 감행하고 이전부터 작전을 준비한 것이고 동시를 반란군이 점령하자 소위 인민재판소를 설치하여 많은 양민의 처형을 실시하였다.

(6) 국방부는 국군 강화의 필요를 느끼고 이를 계기로 국회에 국군 강화의 긴급대책을 요청할 것이다.

(7) 제주도의 반란민 토벌부대는 경찰관의 협력을 얻어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도 자체의 환경에 비추어 이를 근절함에는 상당한 시일을 요할 것으로 보인다.

治安回復에 努力中

李長官現地視察狀況發表

(서울二十八日放送) 全南反亂事件에 關하여 二十八日 國防部에서는 二十六日 現地에 急行 鎭壓作戰을 直接指揮하고 二十七日 歸京한 李長官의 現地視察에 依據 다음과 같은 反亂狀況을 發表하였다 (國防部第五號發表)

(一) 二十六日 李[illegible]長官은 崔參謀總長을비롯 幕僚를帶同 反亂事件發生의 現地에急行 二十七日歸京 하였다 其間鎭壓作戰을 直接指揮하며 討伐軍全將兵을 激勵 野戰病院에收容되어있는 負傷兵을 慰問하는 한편 現地의住民을모아 訓示하고 行政責任者들과 會見하여 報告文을接受하였다

(二) 二十七日午後 反亂軍鎭壓의 麗水部隊는 海岸에서 上陸한 國軍部隊와 合流하여 麗水를 完全히 包圍 方今治安確保에 努力中이다

(三) 麗水의反亂軍은 第十四聯隊의 四五百名에 不過한것으로 編制되었는데 一般市民 女學生 國民學生까지 이에 參加하여 國軍作戰에 많은制約을 주었다 그리고 國軍이 同市를 占領하기前에 二三名의 共產主義者가 北朝鮮人民共和國을 支持하라는 演說을 하였다

(四) 目下反亂部隊의主力은 白雲山附近에 集結되고 있는데 國軍은 이反亂軍의 智異山으로의 退却을 防止하기 爲하여 退路를 遮斷 이를 殲滅할 態勢를 整備하고있다

(五) 調査한바에 依하면 麗水에서의 反亂은 天人共怒의 慘行을 敢行하고以前부터 作戰을 準備한것이고 同市를 反亂軍이 占領하자 所謂 人民裁判所를 設置하여 많은 良民의處刑을 實施하였다

(六) 國防部는 國軍强化의 必要를 느끼고 이를 契機로 國會에 國軍强化의 緊急對策을 要請할것이다

(七) 濟州道의 反亂民討伐部隊는 警察官의 協力을 얻어 그任務를 遂行 하고 있으나 道自体의 環境에 비추어 이를 根絶함에는 相當한 時日을 要할것으로 본다

제주에서도 전투

제주에서도 전투

(제주 29일 발=합동) 지난 25일 밤 12시경 제주읍 관내 오라리 부근을 행동 중이든 국군부대는 동 지역에 잠복 중인 25명의 무장폭도를 기습하여 이에 맹격을 가하였으나 폭도들은 산악지대로 도주함으로 추격하여 큰 타격을 주었다 하는데 이 전투에서 국군 병사 1명이 전사하고 1명은 중상을 입얻다 한다.

10月31日

濟州에서도戰鬪

(濟州二十九日發=合同) 지난二

十五日밤 十二時頃 濟州邑管內

吾羅里附近을 行動中이든 國軍

部隊는 同地域에 潛伏中인 二

十五名의 武裝暴徒를 發見하여

이에 猛擊을 加하였으나 暴徒들

은 山岳地帶로 逃走함으로 追

擊하여 큰打擊을 주었다하는데

이戰鬪에서 國軍兵士一名이 戰

死하고 一名은 重傷을입었다

한다

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8년 10월 31일 / 면

폭도, 빠스를 습격

폭도, 빠스를 습격

(서울 29일 발=합동) 지난 26일 하오 3시경 일반 승객을 만재(滿載)하고 남제주에서 서귀포로 출발한 제주자동차회사 정기빠스는 애월면 수산리와 신암(※신엄의 오기) 사이에서 폭도의 습격을 받어 19세의 소년이 즉사하고 승객이 중상을 입었는데 운전수의 필사적 노력으로 뻐스는 무사히 제주읍에 도착하여 중상자는 방금 도립병원에 입원 가료 중이라 하고 동 뻐스의 승객은 전부 일반주민이였으며 여객뻐스가 폭도에게 습격당한 것은 금반이 처음으로 도민들은 분격하고 있다.

暴徒빠스를襲擊

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8년 11월 2일 / 1면

소란 계속의 제주도 소식

소란 계속의 제주도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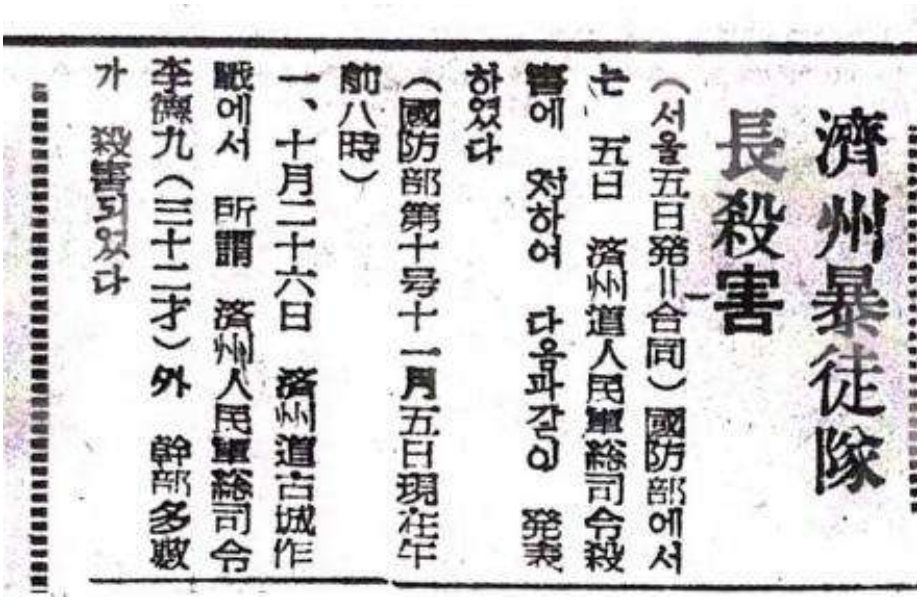
(서울 29일 발=합동) 금반 소요사건 시찰차 전남 지방에 출장 중이든 공보국장 이정순 씨는 지난 27일 비행기로 제주도를 시찰하고 동일 하오 귀경하였든데 동씨(同氏)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지난 27일 남제주(※ 북제주의 오기) 애월면 경찰지서를 폭도들이 내습하여 지서원 측에 2명의 사망자와 중상자 2명을 내었고 또 동일 하오 1시 10분경 제주읍내에 있는 제주세무서에 수류탄을 던진 사건이 있어 이를 엄중 수사 중이라 한다.

騷亂繼續의
濟州道消息

제주 폭도대장 살해

제주 폭도대장 살해

(서울 5일 발=합동) 국방부에서는 5일 제주도인민군 총사령 살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국방부 제10호 11월 5일 현재 오전 8시)
1. 10월 26일 제주도 고성 작전에서 소위 제주인민군 총사령 이덕구(32세) 외 간부 다수가 살해되었다.


濟州暴徒隊
長殺害
(서울五日發=合同) 國防部에서
七、五日 濟州道人民軍總司令殺
害에 對하여 다음과같이 發表
하였다
(國防部第十号十一月五日現在午
前八時)
一、十月二十六日 濟州道古城作
戰에서 所謂 濟州人民軍總司令
李德九(三十二才)外 幹部多數
가 殺害되었다

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8년 11월 12일 / 1면

치안상태 착착 회복

치안상태 착착 회복
신반란의 조후(兆候)도 없다

최 참모장 담(談)
(서울 9일 발=합동) 정읍 전주 등지에서 또다시 반란사건이 발생하였다는 풍설이 저간에 유포되고 있는데 최 참모장은 ○방한 기자에 이를 부인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정읍 전주 등지에서의 반란설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 전남사건에 관하여서 말하면 김지회가 인솔하고 지리산에 들어간 수는 대략 3백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보급○ 등에 봉착한 그들은 10명 20명식 분산하여 각처를 방황하면서 비적 행위를 감행하고 있고 김지회가 직접 인솔하고 있는 수는 약 3십명가량으로 추측된다. 제주도에서는 총사령 이덕구가 살해당한 후로 폭도들은 총집결하여 최후 발악을 기도하고 있는 ○○인데 지난번 서귀포에 내습한 일이 있다.
그런데 요지음 폭도들은 다발총등 무기를 약간 입수한 것 같다.
그리고 최대령은 부언(附言)하여 항간 외에 유포되고 있는 허설(虛說)은 믿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治安狀態着々回復
新反亂의兆候도없다
談長謀參崔

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8년 11월 20일 / 1면

제주도에 계엄령

제주도에 계엄령
오대산 주변에도 신전투

(서울 18일 발 UP=공동) 이승만 대통령은 제주도 전역에 대하여 가급적 속히 반란을 진정하기 위하여 18일 계엄령을 포고하는 동시에 동도(同道)에 주둔 중인 국군 제9연대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하였다. 한편 서울 동방 110K 오대산 주변에서 게리라 부대와 경찰대의 대규모적 전투가 전개되고 있고 경찰당국은 18일 경찰대와 국군의 특별부대가 오대산을 포위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濟州道에 戒嚴令
五台山周邊에도 新戰鬪

(서울十八日發UP=共同) 李承晩大統領은 濟州道全域에 對하여 可及的速히 反亂을 鎭定하기 爲하여 十八日 戒嚴令을 布告하는 同時에 國道에駐屯中인 國軍第九聯隊長을 戒嚴司令官에 任命하였다 한편 서울東方 十K의 五台山周辺에서 게리라部隊와 警察隊의 大規模的戰鬪가 開展되고 있고 警察當局은 十八日 警察隊와 國軍의 特別部隊가 五台山을 包圍하고 있다고 發表하였다

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8년 11월 30일 / 1면

8백여 명을 사살

8백여 명을 사살
제주의 소탕전 계속

(제주 26일 발=합동) 북제주군 산악지대에 있어서 반도의 전멸을 기하고저 소탕전을 전개 중이든 국군 제7연대(※ 9연대의 오기)는 지난 14일 밤 5시경 노형리 월평리 부근에 도피 중의 폭도 집단을 발견하여 이를 포위 공격하여 797명을 사살하고 27명을 포로로 하였는데 사살한 폭도 중에는 중요 간부도 2명이나 있다 하는데 국군 측의 피해는 전연 없다 한다. 한편 남제주군 방면에 있어서의 국군과 경찰대의 귀순 폭동에 대한 대우가 최근 대단히 관대하여진 까닭에 폭동들이 속속 귀순하고 있다 한다. (국방부 검열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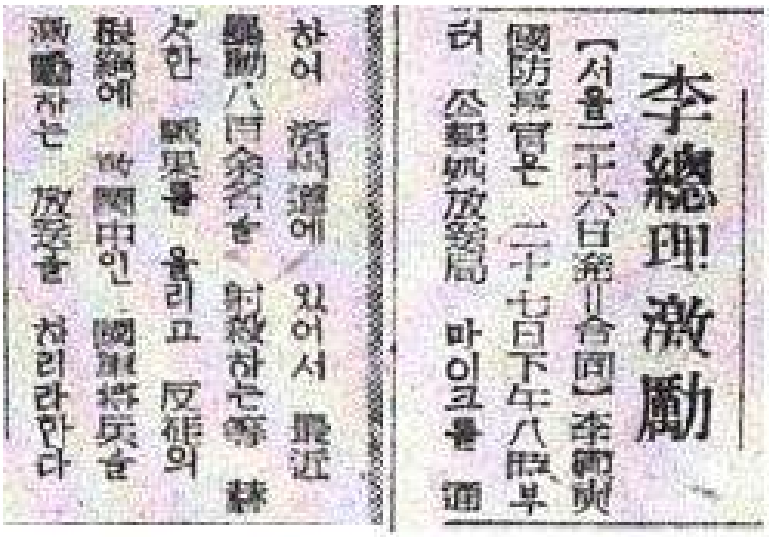
八百餘名을射殺
濟州의掃蕩戰繼續
【濟州二十六日發=合同】北濟州
都山嶽地帶에 있어서 反徒의
全滅을 期하고저 掃蕩戰을 展
開中이든 國軍第七聯隊七 지난
十四日밤 五時頃 老衡里 月坪
里附近에 逃避中의 暴徒集團을
發見하여 이를 包圍 攻擊하여
七百九十七名을 射殺하고二十七
名을 捕虜로 하였는데 射殺한
暴徒中에는 重要幹部도 二名이
나 있다하는데 國軍側의 被害
는 全然없다한다 (濟州郡
方面에 있어서의 國軍과 警察
隊의 歸順暴動에 對한 待遇가
最近 大端히 寬大하여진 까닭
에 暴動들이 續々 歸順하고
있다한다 (國防部檢閱濟)

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8년 11월 30일 / 1면

이총리 격려

이총리 격려

(서울 26일 발=합동) 이범석 국방장관은 27일 하오 8시부터 공보처 방송국 마이크를 통하여 제주도에 있어서 최근 폭동 8백여명을 사살하는 등 혁혁한 전과를 올리고 반도의 근절에 분투 중인 국군 장병을 격려하는 방송을 하리라 한다.


李總理激勵
【서울二十六日発=合同】李範奭
國防長官은 二十七日下午八時부
터 公報処放送局 마이크를 通
하여 濟州道에 있어서 最近
暴動八百余名을 射殺하는等 赫
々한 戰果를 올리고 反軍의
根絶에 敵國中인 國軍將兵을
激勵하는 放送을 하리라한다

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8년 12월 4일 / 1면

폭도 주력은 전멸

폭도 주력은 전멸
계엄령 하의 제주도 근황

(제주 29일 발=공동) 지난 21일 도내 전역에 걸쳐 계엄령이 실시되고 이어 23일에는 계엄령 포고 제1호에 의하여 교통제한 우편 통신 신문 잡지 등의 검열과 부락민의 집회에 관한 제한 기타 세칙이 발표되었다. 한편 군경 부대는 계속하여 잔여 폭도의 소탕전에 분투 중이다. 또 도 당국을 중심으로 하여 군과 관리가 협력 지난 22일부터 일반 민중의 지도를 위한 선무반을 편성하였다. 그리고 폭도는 주력이 전멸된 이후 남어지 소수는 철창 죽창을 소지한 것이 대부분이고 ○총을 갖고 있는 것은 소수이다. 그들의 활동 방법은 분산적으로 야간을 이용하여 산간 부락의 민가에 와서 식량 피복 등을 강탈하여 간다는데 이미 치안이 확보된 부락을 국군이 통과하면 부락민은 사○에 상○한 것과 같이 돌연 태극기를 헌들며 만세를 부르는 광경이 보인다
(국방부 검열 제)

暴徒主力은全滅
戒嚴令下의濟州道近況

4·3사건 공판

4·3사건 공판

(광주 11일 발=합동) 지난 7월 제주지방심리원으로부터 광주지방심리원으로 이관된 제주 4·3사건 관계자에 대한 공판은 그동안 전후 몇 회에 걸쳐 개정되었다 함은 기보(旣報)한 바 있거니와 금반 지연된 동 사건을 단시간에 처리하고저 지난 7, 8, 9일의 3일간에 걸쳐 피고 양성홍 외 35명에 대한 사실심문과 구형이 있었는데 언도는 오는 14, 16, 17의 3일간에 걸쳐 있으리라 한다. 그리고 9일 하오에는 지난 10월 제5회 공판에서 구형이 있은 후 금반 반란사건 발생으로 그 언도를 일시 중지하고 있든 피고 이정생 외 17명에 대한 최후 언도는 최고 5년 징역 1명과 최하 유죄 언도 5명이 있었다.

四·三事件公判
【光州十一日發=合同】지난七月
濟州地方審理院으로부터 光州
地方審理院으로 移管된 濟州四
·三事件 關係者에對한 公判은
그동안 數次延回에 걸쳐 開廷
되었다 함은 旣報한바이 거니
와 今般 遲延된 同事件을 短
時間에 處理하고저 지난七、八
九日의 三日間에 걸쳐 被告
梁成弘外 三千五名에對한 審理
審問과 求刑이 있었는데 그中
死刑一名 無期懲役數名의 求刑
이 있었는데 言渡는 오는十四
十六 十七의 三日間에 걸치있
으리라한다 그리고 九日下午에
는 지난 十月第五回公判에서
求刑이있은後 今般 反亂事件發
生으로 그言渡를 一時中止하고
있은被告 李正生外 十七名에對
한 最後言渡는 最高五年 懲役
一名과 最下有期 言渡五名이
있었다

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8년 12월 22일 / 1면

반정부 게리라 기지
제주도 지리산 오대산

반정부 게리라 기지
제주도 지리산 오대산

(서울 20일 발 UP=공동) 20일 평양방송은 최근 남선(南鮮)에 반○○정부 게리라 기지가 되어 있다고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최근 남선에서의 반정부 저항은 제주도, 전라남도의 지리산, 강원도의 오대산의 3개 처 게리라 기지의 건설에 집중되고 있고 공산주의자는 이들의 기지 확대를 꾀하고 있다.

反政府게리라基地
濟州道智異山五台山
【서울二十日發UP=共同】二十
日 平壤放送은 最近 南鮮에
反動國政府게리라 基地가 되어
있다고 다음과 같이 報道하였
다
最近 南鮮에서의 反政府抵抗
은 濟州道 全羅南道의 智異
山 江原道의 五台山의 三個
處 게리라基地의 確設에 集
中되고있고 共產主義者는 이
들의 基地拡大를 꾀하고있다

폭도, 경관 10여명을 살해

폭도, 경관 10여명을 살해

(서울 20일 발=합동) 내무부 치안국에 들어온 보고에 의하면 19일 전남 광양군 ○○○ (전문 불명) 지서에 18일 밤 폭도 30여명이 내습하여 경찰관 5명을 사살하고 1명을 납치하여 갔다고 한다. 또 한편 이날 북제주군 애월면 신엄지서에는 백여명의 폭도가 내습하여 11명이 피살되고 30여호에 화재가 난 일이 있었는데 방금 군경부대는 이를 진압중이라 한다.

暴徒、警官十
餘名을殺害
【서울二十日發=合同】內務部治
安局에 들어온 報告에 依하면
十九日 全南光陽警察署(電文
不明)에 十八日밤 暴徒三
十余名이 來襲하여 警官 五
名을 射殺하고 一名을 拉致하
여갔다고 한다 또 한편 이날
北濟州警察署 신엄支署에七 日
余名의 暴徒가 來襲하여 十一
名이 被殺되고 三十余戶에 火
災가난 일이 있었는데 方今
警備部隊는 이를 消滅中이라
한다

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9년 1월 8일 / 1면

제주도청사 전소(全燒)

제주도청사 전소(全燒)

(서울 5일 발=공립) 공보처에 들어온 보고에 의하면 3일 하오 8시경 제주도청 본청에서 돌연 발화하여 전소하였다는데 원인 기타는 방금 조사 중이라 한다.

濟州道廳舍全燒

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9년 1월 10일 / 1면

제주 해안에 쏘 잠수함

제주 해안에 쏘 잠수함
3척 출현 지상 유격대에 신호

(서울 7일 라토랏스 UP특파원 발=공동) 한국 정부 대변인은 7일 현지에서의 보고에 의거하여 지난 4일 제주도 북해안 삼양 한림(○○) 양소(兩所)에 쏘 잠수함 합계 3척이 출현하여 동도(同道) 유격부대에게 신호를 하고 이 신호가 있은 즉후 2백여명의 공산 유격부대가 도청 소재지인 제주읍내를 공격하여 다수의 사상자를 내게 하고 건물에도 심대한 손해를 보았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또 현지 보고에 의하면 해안에 쏘련 국기가 명백히 ○○되었다 하며 3척의 잠수함은 해안에서 경비대원이 발사하는 소총 속에서 수 시간 유해(遊海)하고 그 중 1척은 육상에 대하여 발화 신호를 하였다. 그러나 발포치 않고 군수품을 상륙시킨 형적도 없다 한다. 그리고 동 잠수함이 출현한 지점의 산중에는 천여명의 유격부대가 잠복하고 있다 한다.

濟州海岸에 쏘潛水艦
三隻出現 地上遊擊隊에 信號

제주 폭도 소탕전 계속

제주 폭도 소탕전 계속
폭도 무기는 죽창 철창

(제주 11일 발=합동) 지난 12월 18일 본도에 상륙한 이래 침묵을 지키고 오든 국군 제2연대는 지난 6일 상오 3시를 기하여 드듸어 행동을 개시하였는데 이날 상오 6시반경 명덕(제주읍에서 8킬로)에 도착한 국군 부대는 무장폭도 약 70명과 철창 죽창 등을 소지한 폭도 약 250명으로 추산되는 폭도 주력을 발견하여 연대장 직접 지휘하에 지리적 악조건을 극복하며 총전멸을 위하여 폭도를 완전 포위하고 점차 포위망을 압축하는 동시에 적진의 정찰 및 내부 소탕을 목적으로 연대장 자신이 단신 삼엄한 적의 보초선을 돌파 적진에 잠입 교묘히 폭도를 가장하고 폭도의 1인과 상문(相聞)하여 폭도가 쓰는 암호를 사용하였으나 암호가 통하지 않어 결국 위기일발의 경지에서 적진을 탈출하고 치열한 일대 포위작전을 개시하여 폭도들을 거이 전멸 상태에 빠지게 하고 다음과 같은 혁혁한 ○○○ (이하 미확인)

濟州暴徒掃蕩戰繼續
暴徒武器는 竹槍鐵槍

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9년 1월 28일 / 1면

반란 지구의 실정 보고

반란 지구의 실정 보고

(서울 26일 발=합동) 26일의 국회 본회의에서는 앞서 국회 휴회 기간 중 전남 일대 반란 지구에 실○반으로서 파견된 각 의원의 현지 실정 보고를 신 내무, 이 사회, 조 농림, 최 국방(차관) 각 장관 참석 하에 행하였는데 각 의원의 현지 실정 보고 요지는 다음과 같다.

백성들에게 가진 압력
군경, 치안 회복을 구실로

제주도지구(최○○ 의원) 제주도는 작년 12월 내무장관이 한번 시찰한 후로 정부에서는 제주도 사태를 너무 등한시 하는 감이 없지 않다. 작전에 관하여서는 잘 알 바 아니지만 우리가 현지에서 드른 바에 의하면 군은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지 않고 수비 태세만 취하고 있어 일반 민중은 이러한 미온적인 작전 ○○에 불만을 갖이고 있는 것이다. 군대 조직의 ○○로서 만일 민중에게 영향을 준다면 사태 수습을 더욱 곤란할 것이며 특히 제주도는 지리적 특수 관계가 있는 만큼 현지 민중을 총동원하여 군민 합작으로 사태 수습에 대처하여야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하고저 하는 것은 제주도 사태를 등한시한다면 전남 사태는 수습하기 곤란하다.

反亂地區의實情報告

百姓들에가진壓力

軍警、治安回復을口實로

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9년 3월 13일 / 1면

처참한 제주도 사태

처참한 제주도 사태
전도 3분의 1의 인가 소실(燒失)

(서울 11일 발=합동) 방금 처참한 참상을 연출하고 있는 제주도 사태에 관하여 민주국민당 선정부장 함상훈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제주도 사태는 일반이 예측하는 바와는 전연 다른 참상을 연출하고 있다. 전도 내 4백여 부락 6만여호 중 3백 부락 2만여호가 소실되고 도청을 위시하여 각 관공서 소실이 무려 40여개소 살상자 불가승수(不可勝數)다. 도민의 중요 식량인 감저 ○령○는 수확치 못한 채로 지중에서 부패하고 있고 추곡은 수확치 못하여 춘궁기에 먹을 식량이 없다.

군경이 일치협력하여 반도를 숙청하여야 할 것은 가장 급무이거니와 6만5천의 유리민의 거소(居所)와 식량을 해결하는 것은 소탕작전과 불가분의 긴급사다. 제주도민 대표가 방금 상경하여 요로에 진정 중이거니와 정부 국회가 일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노력을 경주하기 바란다.

悽慘한濟州道事態
全道三分一의人家燒失

민심 수습에 관대하라

민심 수습에 관대하라
총리 제주서 연설

(서울 15일 발=합동) 제주도지구 사태를 시찰차 신 내무장관을 대동하고 지난 10일 오후 1시 제주비행장에 도착한 이범석 국무총리는 폭도로 말미아마 무참히도 파괴된 시내 각 방면의 시설을 시찰하는 동시에 육군 병원을 방문하고 부상한 국군장병을 위문한 후 도청 앞 광장에서 개최된 환영대회에서 도내 관공리에 대하여 요지(要旨) 다음과 같은 훈시를 하였다.

군은 강력한 토벌작전을 강행하고 있으니 경찰은 전력을 다하여 치안 확보에 노력하고 관공리는 물질적 정신적 모든 애로를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세계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가 그 창초기에 있어서 모든 악조건을 극복함으로서 목적을 완수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현재 창건기에 있는 만큼 현존해 있는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고 민주국가 건설에 노력한다면 수년 후에는 강력하고도 평화롭고 자유로운 국가가 될 것이니 여러분은 이를 인식하고 분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나는 본도의 각 방면을 시찰한 결과 실정을 파악하였는데 여기서 느끼는 것은 군, 경, 관, 민은 폭도 토벌에 노력하는 한편 민심 수습에 협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토벌을 능률적으로 하는 한편 선무공작을 활발히 전개하여 관대한 태도로서 폭도의 반성을 촉구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발전시켜 국가의 자유를 찾고 세계 평화 건설을 위하여 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도의 식량 부족에 대하여서는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곳 적절한 대책을 세우겠다.

民心收拾에
寬大하라
總理濟州서演說

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9년 3월 19일 / 1면

전쟁화한 동란 제주

전쟁화한 동란 제주
국적 불명의 잠수함도 출몰

(서울 16일 발=합동) 작년 4월부터 전쟁화해버린 동란 제주도를 필두로 지난번의 여수 순천 지구 반란사건의 그 뒤 사태는 아즉도 완전한 소탕이 않되어 한국정부의 당면한 긴급과제로 되어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동란지구의 계엄령을 지난 2월 5일로서 일단 해제하는 한편 무력과 정치의 양면에 의한 수습 방책을 단행하도록 하여 방금 군, 경, 민 일체의 공작이 진행 중에 있다. 이에 이 국무총리와 신 내무장관 그리고 국회의원 주기용 씨 등은 최근 제주도와 전남북 지구의 실정을 두루 살핀 후 15일 하오에 귀경하였다. 그리고 당분간 신 내무장관은 제주도에 머물어 있으며 사태 수습에 힘쓰리라고 하는데 16일 아침 이 총리는 중앙청에서 내외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공산도배의 폭도는 얼마 않되며 박종(迫從)한 자들이고 공산당이 아닌 자가 많은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들 중 대부분은 기왕의 잘못을 말하는 자백서를 받고 관대한 처분을 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지리산 및 각지에서 2만6천명이 자백서를 내놓았다. 그리고 최근 제주도 근해에는 북조선 괴뢰정권 소속의 기선과 국적 불명의 잠수함이 간간히 출몰되고 있다는 등의 사실을 지적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제주도 사태는 점차 회복 = 제주도 한라산을 중심으로 250여명으로 추정되는 무장폭도는 아직도 남어있다. 치안을 문란시키려 하고 있는데 공산도배는 이를 과대선전하여 그들의 전력이 이남에 크며 민국 정부의 행정력이 부족한 것처럼 선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 정부는 단기간에 무장폭도를 섬멸시키고 그들의 추종자를 귀순시켜 공산도배의 지하조직망을 분쇄할 목적으로 행동을 개시한 바 2월 15일 이래 해변에 가까운 부락에서부터 순차로 수색숙청하여 지금은 한라산 봉오리를 중심으로 포위전을 전개하여 폭도 주력을 압박하고 총공세를 하고 있다. 그동안 국군은 지척의 적설지대에서 과감한 행동을 개시하여 260명으로 추산되는 무장폭도의 태반을 섬멸하고 지난 5일 현재로 그 박종(迫從)자 수백명을 연일 하산시키고 있다. 그들은 총 한 자루에 20명의 폭도를 거느리고 다니며 무기는 산골작에 감추어두고 게리라전을 전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산에서 귀순하게 되는 이유는 공산도배들의 거짓말이 점차로 알여진 것이다. (이하 략)

戰爭化한動亂濟州

國籍不明의潛水艦도出沒

【서울十六日發=合同】昨年四月부터 戰爭化해버린 動亂濟州道를 [illegible]로 지난번의 麗水 順天地区反乱事件의 「뒤事態」는 아직도 完全한 掃蕩이 있되어 韓國政府의 当面한 緊急課題로 되어있다 이에 政府에서는 動乱地区의 戒嚴令을 지난 二月五日로서 一段 解除하는한편 武力과 政治의 両面에依한 數拾方策을 施行하도록하여 方今 軍 警 民 一体의 工作이 進行中에있다 이에 李國務總理와 申內務長官 그리고 國會議員 [illegible]氏等은 最近 濟州道와 全南北地区의 実情을 두루살펴 十五日下午에 歸京하였다 一 그리고 当分間 申內務長官은 濟州道에 머물어 있으며 事態收拾에 힘쓰리라고 하는데 十六日 아침 李總理는 中央廳에서 內外記者團과 만나자 리에서 共産徒輩의 暴徒는 얼마안되며 消從한者들이고 共産党이 아닌者가 많은것을 發見하였다 그리고 이들中 大部分은 自白 既往의 잘못을 말하는 自白書를 받고 寬大한 処分을 하도록 指示하였는데 知異山 및 各地에서 二万六千名이 自白書를 내놓았다 그리고 最近濟州道近海에는 北韓傀儡政權所屬의 潛艇과 國籍不明의 潛水艦이 間々히 出沒되고 있다는情報와 事實을 指摘하여 다음과같이 발表하였다 濟州道事態는 漸次回復=濟州道 漢拏山을 中心으로 二五〇余名으로 推定되는 武裝暴徒는 아직도 남어있다 治安을 紊乱시키려 하고있는데 共産徒輩는 이를 過大宣傳하여 그들의 勢力이 以南에 크며 民國政府의 行政力이 不足한것처럼 宣傳하는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 政府는 短期間에 武裝暴徒를 殲滅시키고 그들의 消從者를 歸順시켜 共産徒輩의 地下組織網을 粉碎할 目的으로 行動을 開始한바 二月十五日以來 海辺에 가까운 部落에서부터 順次로 掃蕩擊滅하여 지금은 漢拏山봉우리를 中心으로 包囲戰을 展開하여 暴徒主力을 壓迫하고 総攻擊을 하고있다 그동안 國軍은 数尺의 積雪地帶에서 果敢한 行動을 開始하여 二六〇名으로 推算되는 武裝暴徒의 始半을 殲滅하고 지난 五日現在로 그消從者數百名을 連日 下山시키고있다 그들은 飢寒자루에 二〇名의 暴徒를 거느리고 다니며 武器는 山골작에 감추어두고 게리라戰을 展開하는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山에서 歸順하게되는 理由는 共産徒輩의 거짓말이 漸次로 알어진것이다 (以下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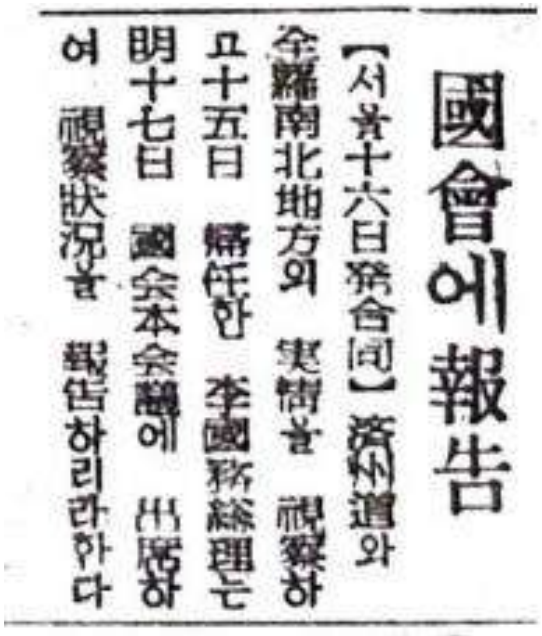
斯界に誇る
富士の光學硝子
富士寫眞フイルム株式會社

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9년 3월 19일 / 1면

국회에 보고

국회에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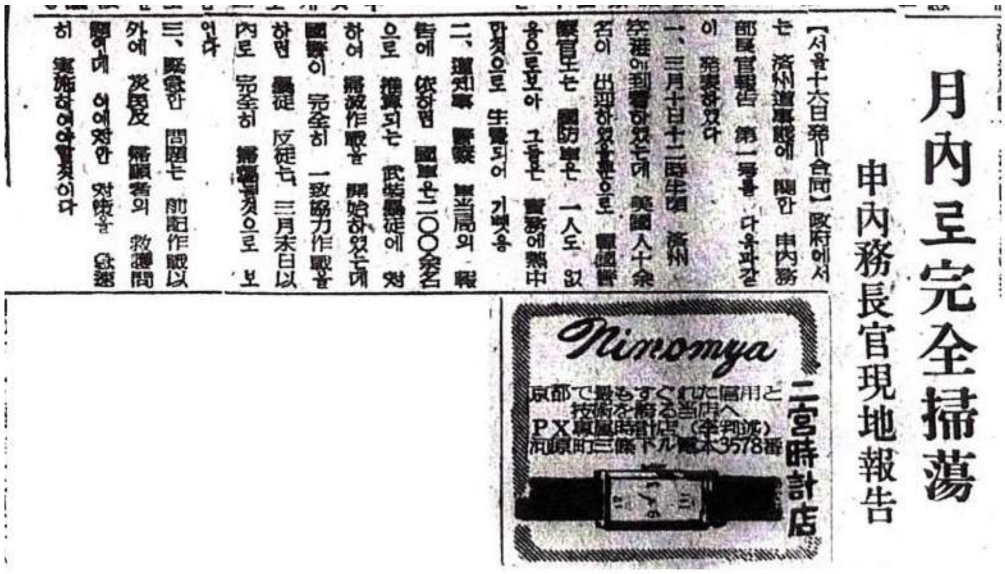
(서울 16일 발=합동) 제주도와 전라남북 지방의 실정을 시찰하고 15일 귀임한 이 국무총리는 명(明) 17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여 시찰 상황을 보고하리라 한다.


國會에報告
【서울十六日發合同】濟州道와
全羅南北地方의 實情을 視察하
고十五日 歸任한 李國務總理는
明十七日 國会本会議에 出席하
여 視察狀況을 報告하리라한다

월내로 완전 소탕

월내로 완전 소탕
신 내무장관 현지 보고

(서울 16일 발=합동) 정부에서는 제주도 사태에 관한 신 내무부장관 보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1. 3월 10일 12시반경 제주공항에 도착하였는데 미국인 10여명이 출영하였을 뿐으로 한국 경찰관 또는 국방군은 1인도 없음으로 보아 그들은 책무에 열중한 것으로 생각되어 기뻤음
2. 도지사 경찰 군 당국의 보고에 의하면 국군은 200여명으로 추산되는 무장폭도에 대하여 소멸작전을 개시하였는데 국경이 완전히 일치협력 작전을 하면 폭도 반도는 3월말 이내로 완전히 소탕될 것으로 보인다.
3. 긴급한 문제는 전기(前記) 작전 이외에 재민(災民) 급 귀순자의 구호문제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급속히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月內로完全掃蕩
申內務長官現地報告

【서울十六日發=合同】政府에서는 濟州道事態에 關한 申內務部長官報告 第一號를 다음과같이 發表하였다
一、三月十日十二時半頃 濟州空港에到着하였는데 美國人十余名이 出迎하였을뿐으로 韓國警官또는 國防軍은 一人도 없음으로보아 그들은 責務에熱中한것으로 生覺되어 기뻤음
二、道知事 警察 軍當局의 報告에 依하면 國軍은二〇〇余名으로 推算되는 武裝暴徒에 對하여 掃滅作戰을 開始하였는데 國警이 完全히 一致協力作戰을 하면 暴徒 反徒는 三月末日以內로 完全히 掃蕩될것으로 보인다
三、緊急한 問題는 前記作戰以外에 災民及 歸順者의 救護問題인데 이에對한 對策을 急速히 實施하여야할것이다

Ninomya
京都で最もすぐれた信用と
技術を誇る当店へ
二宮時計店

제주작전 제3단계

제주작전 제3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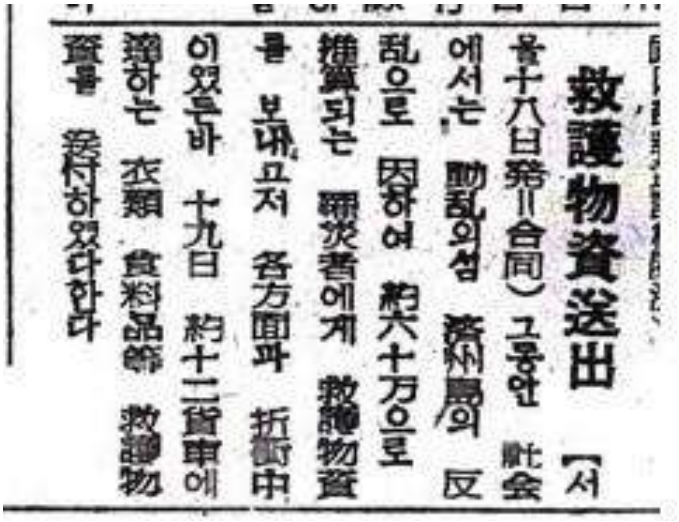
(제주 19일 발=합동) 16일 제주도지구 전투사령부 보도대에서는 국군 제2연대가 제3단계의 작전에 돌입하여 최후의 발악을 하는 폭도들에 대하여 철퇴를 내리고 있는데 3월 10일 이후 동 15일까지의 전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유기 사체 181, 포로 195, 소총 3, 카-빈소총 21, 99식 소총 12, 수류탄 2, 기타 34
(국방부 보도과 검열 제)

濟州作戰 第三段階 【濟州 十九日 發=合同】十六日 濟州島地區戰鬪司令部 報道隊에서는 國軍第二聯隊가 第三段階의 作戰에 突入하여 最後의 發惡하는 暴徒들에 對하여 鐵槌를 내리고있는데 三月十日以後 同十五日까지의 戰果를 다음과같이 發表하였다
遺棄死体百八十一 捕虜百九十五
小銃三 카-빈小銃二十九式
小銃二十二 手榴彈二 其他三四 (
國防部報道課檢閱濟)

구호물자 송출

구호물자 송출

(서울 18일 발=합동) 그동안 사회에서는 동란의 섬 제주도의 반란으로 인하여 약 60만으로 추산되는 이재자에게 구호물자를 보내고저 각 방면과 절충 중이였든 바 19일 약 12화차(貨車)에 달하는 의류 식료품 등 구호물자를 송부하였다 한다.


救護物資送出 【서
울十八日發=合同) 그동안 社会
에서는 動亂의섬 濟州島의 反
亂으로 因하여 約六十万으로
推算되는 罹災者에게 救護物資
를 보내고저 各方面과 折衝中
이였든바 十九日 約十二貨車에
積하는 衣類 食料品等 救護物
資를 發送하였다한다

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9년 3월 28일 / 1면

천인공노할 제주의 참상

천인공노할 제주의 참상
한라산중의 잔비 소탕
3·3작전의 전과 다대

(서울 25일 발=합동) 작년 4월 3일 발발 이후 1년 동안 계속된 제주도지구 반란사태를 단시일 내에 진압하고저 군 당국에서는 지난 3월 3일을 기하여 한라산중에 잠복 중인 폭도군에 대한 일대 소탕전을 전개하여 그동안 다대한 전과를 거두고 동 지구의 반란 완전 진압도 머지않게 되어 있는데 24일 현지에서 들이어 온 바에 의하면 동 지구 전투사령관 유재흥 대령은 동 작전에 관한 담화와 3월 3일부터 동 10일까지의 종합 전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작년 4월 돌발한 소위 4·3사건을 계기로 하여 평화로운 제주도는 폭도 및 그의 부하의 동원한 분자와 도민으로 이반(二半)되어 폭도의 살인 약탈 방화 등 각양각색의 만행은 실로 천인이 공노할 참상을 이루어 전도는 공포와 불안에 싸인 동란지대로 화하여 이 비상사태를 긴급히 진압 평정코저 분연 궐기한 군경의 기민 과감한 용진 분투로 잔비는 한라산중에 도주 잠복하여 군으로서는 지난 3월 3일을 기하여 잔비의 완전 소탕을 감행 주둔군 전군에 대하여 총진격을 명령함과 동시에 일방 폭도의 만행으로 폐허화한 평정지구의 복구와 ○○된 민심을 급속히 수습하여 민생의 안정을 기하며 착(捉)한 부로(浮虜)와 전재 고아를 교화 훈육하여 진실한 대한국민을 만들고저 적절한 시책을 실시하여 명랑한 평화지로 회복하자는 바이니 전 도민은 본관의 의도를 명심하고 열렬한 애족 애인의 정신을 발휘하여 잔비 평정과 재건에 매진하여 주기를 요망하는 바이다. 그리고 진격을 개시한 국군의 사기는 왕성하며 다대한 전과를 거두고 있는 바 3월 3일 이후 10일까지의 전과는 다음과 같다.

1. 전과 = 사살 161, 포로 76, 식량 압수 56입(叭), 의류 2, 철창 53개, M완소총 1개, 무전용발전기 1대, 우 5두, 99식소총 2
2. 아방 손해 = 전사 7, 중상 27, 경상 1 (국방부 보도과 검열 제)

天人共怒할濟州의慘狀

漢拏山中의殘匪 掃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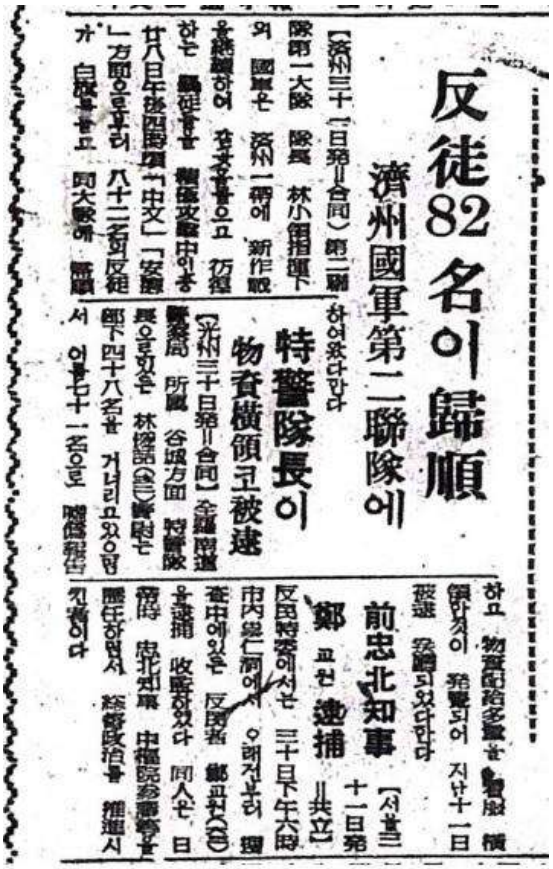
三·三作戰의戰果多大

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9년 4월 3일 / 1면

반도 82명이 귀순
제주 국군 제2연대에

반도 82명이 귀순
제주 국군 제2연대에

(제주 31일 발=합동) 제2연대 제1대대 대장 임(林) 소령 지휘하의 국군은 제주 일대에 신작전을 계속하여 갈 곳을 몰으고 방황하는 폭도들을 적극 공격 중인 28일 오후 4시경 중문 안덕 방면으로부터 82명의 반도가 백기를 들고 동 대대에 귀순하여 왔다 한다.



反徒82名이歸順
濟州國軍第二聯隊에
特警隊長이
物資橫領코被逮
前忠北知事
鄭 교원 逮捕

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9년 4월 9일 / 1면

동족상살(同族相殺)의 참극 미종식

동족상살의 참극 미종식
대구·전주·제주지구의 전투 계속

(서울 7일 발 UP=공동) 한국정부 공보처는 7일 과거 5일간의 정부군과 반란군과의 전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대구 전주지구에서 정부군은 반란군 76인을 사살 36인을 부상시키고 30인을 포로로 하였다. 정부측의 손해는 병 15인과 시민 2명이 살해되었다. 제주도에서는 반란군 50인을 살해하고 187인을 포로하였으며 50인이 항복하였다. 정부군은 사자(死者) 1명

同族相殺의慘劇未終熄

大邱·全州·濟州地區의戰鬪繼續

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9년 4월 15일 / 1면

동족간의 유혈 불망(不望)
이 참모장 한위(韓委) 협의 내용

동족간의 유혈 불망
이 참모장 한위(韓委) 협의 내용

(서울 12일 발=합동) UN한위에서는 지난 8일 육군 참모장 이응준 소장을 초청하여 협의한 바 있었는데 이 소장은 동 협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나와 UN의 협의는 정치면을 떠나 순연히 군사 방면에 관한 것인데 그 문답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문) 38선에서의 충돌사건은 어떠한가?

(답) 세간에서 주시하는 바와 같이 북한 인민군이 불법 월남하여 도전함으로서 야기된 것인데 매일 평균 1회 이상 충돌이 버러지고 있다

(문) 제주도의 현상은 어떠한가

(답) 작년 4월부터 국군은 1년여나 폭도의 소탕전을 전개하고 있는데 더욱 지난 2월 말일부터는 강력한 작전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불일내로 진압될 것이다. 특히 군에서는 폭도의 선무를 위주로 하고 있다.

(문) 제주도와 전남사건의 진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 공산도배들이 게리라전을 전개하고 있어 관민에 대한 영향이 불소함으로 다소간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문) 진실한 공산주의자(비무장폭도)의 수는 얼마나 되는가?

(답) 민주주의 정책상 민중에 대한 계몽이 적었기 때문에 폭도들의 모략과 선동에 유혹된 자가 많고 진실한 공산주의자는 극히 적다. 또한 그들에 대하여는 선무공작을 하여 귀순하는 자는 잘 선도하여 양민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문) 군 내부에도 불순분자가 많이 석겨있다고 하는데

(답) 세간에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모든 부문에 불순분자가 석겨있으며 군 내부에도 약간 석겨있었으나 반란사건 이래 숙청하였고 현재도 숙청하고 있으며 장래도 계속될 것이다.

(문) 군인의 비행 실정은 어떠한가

(답) 각지각처에서 모여든 청년 중 약간 비행을 하는 병사도 있다고 보는데 나는 국군의 근본이념을 철저히 인식시키고 있으며 비행하는 자는 처단하고 있다.

同族間의 流血不望

李參謀長韓委協議內容

【서울十二日發=合同】UN韓委에서는 지난 八日 陸軍參謀長 李應俊少將을 招請하여 協議한 바 있었는데 李少將은 同協議內容을 다음과같이 發表하였다

나와 UN의 協議는 政治面을 떠나 純然히 軍事方面에 關한것인데 그問答內容은 大略다음과같다

問 三八線에서의 衝突事件은 어떻한가?

答 世間에서 注視하는바와같이 北韓人民軍이 不法越南하여 挑戰함으로서 惹起된것인데 每日平均一回以上 衝突이 버러지고있다

問 濟州道의 現狀은 어떠한가

答 昨年四月부터 國軍은 一年余나 暴徒의 掃蕩戰을 展開하고있는데 더욱 지난 二月末日부터는 强力한 作戰을 推進中 에 있으므로 不日內로 鎭压될것이다 特히 軍에서는 暴徒의 宣撫를 爲主로 하고있다

問 濟州道와 全南事件의 鎭压이 遲延되고있는 理由는 무었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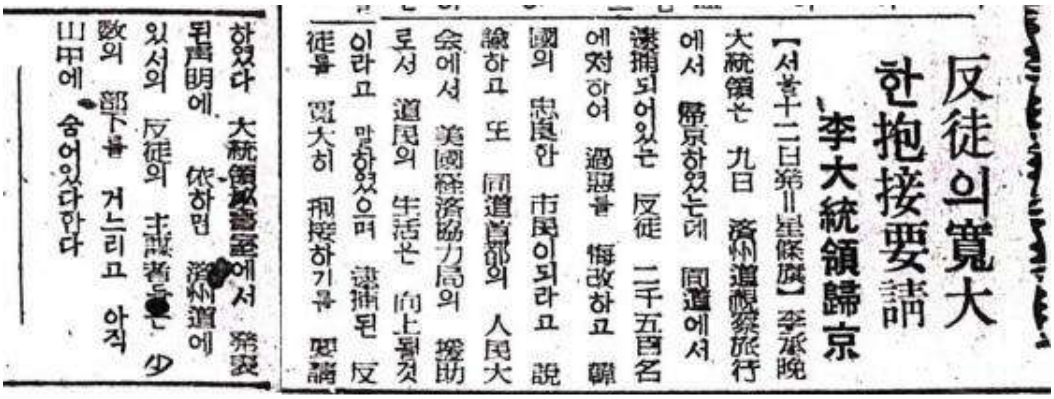
答 共產徒輩들이 게리라戰을 展開하고 있어 官民에 對한 影響이 不少함으로 多少間遲延되고 있는것이다

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9년 4월 15일 / 1면

반도의 관대한 포접(抱接) 요청
이 대통령 귀경

반도의 관대한 포접 요청
이 대통령 귀경

(서울 12일 발=성조기) 이승만 대통령은 9일 제주도 시찰여행에서 귀경하였는데 동도에서 체포되어 있는 반도 2천5백명에 대하여 과오를 회개하고 한국의 충량한 시민이 되라고 설유하고 또 동도 수도의 인민대회에서 미국 경제협력국의 원조로서 도민의 생활은 향상될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체포된 반도를 관대히 포접하기를 요청하였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발표된 성명에 의하면 제주도에 있서의 반도의 주모자들은 소수의 부하를 거느리고 아직 산중에 숨어 있다 한다.


反徒의寬大
한抱接要請
李大統領歸京
【서울十二日發=星條旗】李承晩
大統領은 九日 濟州道視察旅行
에서 歸京하였는데 同道에서
逮捕되어있는 反徒 二千五百名
에對하여 過誤를 悔改하고 韓
國의 忠良한 市民이되라고 說
諭하고 또 同道當部의 人民大
会에서 美國經濟協力局의 援助
로서 道民의 生活은 向上될것
이라고 말하였으며 逮捕된 反
徒를 寬大히 抱接하기를 要請
하였다 大統領秘書室에서 發表
된聲明에 依하면 濟州道에
있서의 反徒의 主謀者들은 少
數의 部下를 거느리고 아직
山中에 숨어있다한다

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9년 4월 17일 / 1면

사자(死者) 1천백93
제주도의 반란 상황 발표

사자 1천백93
제주도의 반란 상황 발표

(서울 15일 발 UP=공동) 김동성 한국정부 공보처장은 15일 제주도의 반란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현재까지에 사자 1천백93명을 내고 3만호 이상의 주택을 소실 약 7만9천5백명의 주민이 집을 잃었다. 그러나 정부군은 현재 동도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반도 3백명 이상을 산중에 포위하여 연락을 단절시키고 있다.

死者一千百九十三
濟州道의反亂狀況發表
【서울十五日發UP=共同】金東成韓國政府公報處長은 十五日 濟州道의 反亂狀況에 對하여 다음과같이 發表하였다
現在까지에 死者一千百九十三名을내고 三万戶以上의 住宅을燒失 約七万九千五百名의 住民이 집을잃었다 그러나 政府軍은現在 同道의 大部分을 掌握하고 反徒三百名以上을 山中에 包圍하여 連絡을 斷絶시키고있다

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9년 5월 13일 / 1면

제주도 선거 실시

제주도 선거 실시

(서울 11일 발=합동) 작년 5·10선거 당시 치안상태 문란으로 지연되었든 제주도 국회의원 선거는 1주년 기념일인 작(昨) 10일 실시되어 동일 오후 5시 무사히 투표를 완료하였다 한다

(서울 11일 발=합동) 제주도의 국회의원 선거는 작년의 불상사에 비하여 극히 호조인데 5월 10일 오후 3시 현재의 투표 성적은 갑구 87% 을구 83%의 호성적이라 한다.

濟州道選擧實施

(서울十一日発=合同) 昨年五、一〇選挙当時 治安狀態紊乱으로 遷延되었든 濟州島國会議員選挙는 一週年記念日인 昨十日実施되어 同日午後五時 無事히 投票를 完了하였다한다

(서울十一日発=合同) 濟州島의國会議員選挙는 昨年의不祥事에比하여 極히 好調인데 五月十日午後三時現在의投票成績은 甲区八七% 乙区 八三%의 好成績이라한다

■ 신문(新聞)

조선신보(朝鮮新報)

조선신보(朝鮮新報) 1947년 3월 5일 / 1면

제주도 미곡 공출
급속도로 증가

제주도 미곡 공출
급속도로 증가

서울방송=남선 각도의 식량이 부족하다는 왜침 속에서 공출량은 나날이 증가되고 있었으나 작년 이래 3개월간을 통하야 고정한 적자로서 언제보아도 1%라는 섭섭한 적자를 보이고 있은 제주도에서도 지난 2월 22일경까지도 공출은 역시 1% 이른 것이 27일 현재로 맞이 어름날 ○○이 오르는듯이 일대 비약적으로 증가하야 갑자기 40%로 증가되어 ○당량 5,000석에 대하야 2000석이 공출되었다. 이로서 평균 공출량은 87%로 증가되어 ○○○량이 3,506,304석이라 되었다.

濟州道米穀供出
急速度로增加

제주도 파업 문제
차차 현상 복귀

제주도 파업 문제
차차 현상 복귀

19일 서울방송= 3·1절 경민간 충돌이 원인이 되어 제주도에서는 전관공서가 일시에 총파업을 단행한 것은 기보한 바이나 그 후 이 경과에 대하야 현지에서 경무부장 조병옥 씨에게 타전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18일 현재로 전도는 위과을 느낄만한 동향은 없고 각 직장 책임자와 경찰당국과 간담 토의한 결과 이미 18일 오후부터는 전매국 무선전신국 우편국 금융조합은 사무소 지방면사무소 측후소 기상관측소 신한공사 식산은행 도청 등은 취업개시 하였다. 또 일방 계속하야 회담과 교섭이 진행 중이며 일반으로 평온하다 한다. 또 현지에 출장하였든 경무부 간부 일행은 비행기로 19일 아침 서울에 도착하였다 한다.

濟州道罷業問題
次々現狀復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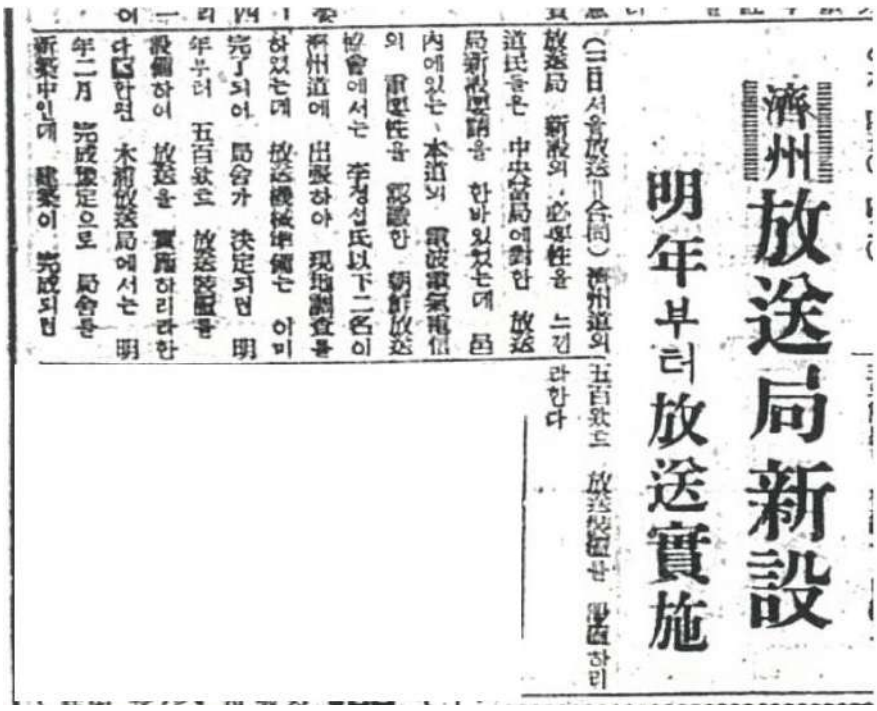
十九日서울放送＝三・一節警民間衝突이原因이되어 濟州道에서는全官公署가一時에總罷業을斷行한것은 既報한바이나 그後이經過에對하야 現地에서 警務部長趙炳玉氏에게打電한바에依하면 다음과같다 十八日現在로 全道는危過을느낄만한動向은없고 各職場責任者와 警察當局과懇談 討議한結果 이미十八日午後부터는專賣局 無線電信局 郵便局 金融組合 은事務所 地方面事務所 測候所 氣象觀測所 新韓公司 殖産銀行 道廳等은 就業開始하였다 또一方繼續하야 會談과交涉이進行中이며 一般으로平穩하다한다 또現地에出張하였든 警務部幹部一行은 飛行機로 十九日아침 서울에到着하였다한다

조선신보(朝鮮新報) 1947년 12월 6일 / 1면

제주방송국 신설
명년부터 방송 실시

제주방송국 신설
명년부터 방송 실시

(2일 서울방송=합동) 제주도의 방송국 신설의 필요성을 느낀 도민들은 중앙당국에 대한 방송국신설 요청을 한 바 있었는데 읍내에 있는 본도의 전파전기전신의 중요성을 인식한 조선방송협회에서는 이정섭 씨 이하 2명이 제주도에 출장하야 현지조사를 하였는데 방송기계 준비는 이미 완료되어 국사(局舍)가 결정되면 명년부터 500왓트 방송장치를 설비하여 방송을 실시하리라한다. 한편 목포방송국에서는 명년 2월 완성예정으로 국사를 신축중인데 건축이 완성되면 500왓트 방송장치를 설치하리라한다.



濟州放送局新設
明年부터放送實施

조선신보(朝鮮新報) 1948년 1월 22일 / 1면

한라산 등산대 조난
제주도청 구호대 급파

한라산 등산대 조난
제주도청 구호대 급파

(서울 20일 방송=제주발) 조선산악회 동계등산대는 제주도 한라산 등산 계획으르 지난 11일 관음사를 향하여 제주를 출발한 후 소식이 두절되어 일행의 동정이 우려되고 있든 바 도중 조난으로 대장 전탁 씨는 애석하게도 사망하고 남은 일행은 간신히 관음사에 도착하였다는 소식이 20일 다음과 같이 전하여 왔다.

우리일행은 11일 관음사를 향하였는데 한라산 중복의 대단한 심설 중에서 험악한 천후하에 전원의 체력이 몹시 쇠약되어 간신히 여명을 유지하든 중 16일 하오 9시경 대장은 드디어 사망하였으며 기타 전원이 중경상을 받고 방금 관음사까지 겨우 도착하였다. 이 급보에 접한 제주도청에서는 구조대를 급파하였다.

漢羅山登山隊遭難

濟州道廳救護隊急派

(서울二十日放送=濟州發) 朝鮮山岳會 冬季登山隊는 濟州島 漢羅山登山計畫으로 지난 十一日 觀音寺를 向하여 濟州를 出發한後 消息이 杜絶되어 一行의 動靜이 憂慮되고 있든바 途中 遭難으로 隊長 田鎭氏는 愛憎하게도 死亡하고 남은 一行은 간신히 觀音寺에 到着하였다는 消息이 二十日다음과 같이 傳하여왔다

우리一行은 十一日 觀音寺를 向하였는데 漢羅山中腹의 大端한 深雪中에서 險惡한 天候下에 全員의 體力이 몹시 衰弱되어 간신히 餘命을 維持하든中 十六日 下午九時頃 隊長은 드디어 死亡하였으며 其他全員이 重輕傷을받고 方今觀音寺까지 겨우到着하였다

이急報에接한 濟州道廳에서는 救助隊를 急派하였다

전투상태화한 제주 국방경비대장 도민군 귀순 권고

전투상태화한 제주 국방경비대장 도민군 귀순 권고

(서울 29일발=합동) 국방경비대제주도 제39연대장은 지난22일 오전9시부터 약2시간에 걸처 비행기로써 한라산 일대의 동굴에 웅거하여 전투상태에 드러간 도민군의 귀순을 권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의 전문(삐라)을 산포하였다 한다.

친애하는 형제제위여! 우리는 반개월에 걸친 형제제위의 투쟁을 몸소 보았다. 이제 우리는 형제제위의 불타는 조국애와 완전자주통일독립에의 불퇴전의 의욕을 그리고 생사를 초월한 형제제위의 혁혁한 진의를 잘 알고 있다 형제제위의 목적은 벌서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본다. 자에 본관은 통분할 동족상살과 단육상쟁은 이이상 유해무득이라고 인정한다. 천년후대까지 원한이 될 피비린내 나는 동족상살을 이이상 확대시키지 않기 위하여 형제제위와 굳은 악수를 하고저 만반의 용의를 갖우고 있으니 우리들 믿으라 무기를 버리고 부모형제의 따뜻한 품안으로 도라오라 본관은 이에대한 형제제위의 회답을 고대한다. 우리가 회담할 수 있는 적당한 시일과 장소를 여하한 방법으로 던지 24일정오까지 제시하여 주기바란다.

戰鬪狀態化한濟州

國防警備隊長島民軍歸順勸告

(서울二十九日發=合同) 國防警備隊濟州道 第三十九聯隊長은 지난二十二日 午前九時부터 約二時間에걸처 飛行機로써 漢拏山 一帶의 洞窟에 潛匿하여 戰鬪狀態에 드러간 島民軍의 歸順을 勸하여 다음과같은 要旨의 傳文(삐라)을 散布하였다 한다

親愛하는 兄弟諸位여! 우리는 半個月에 걸친 兄弟諸位의 鬪爭을 목소보았다 이제 우리는 兄弟諸位의 불타는 祖國愛와 完全自主統一獨立에의 不退轉의 意欲을 그리고 生死를 超越한 兄弟諸位의 赫赫한 偉業을 잘 알고있다 兄弟諸位의 目的은 벌서 어느程度達成되었다고 본다 茲에 本官은 痛憤할 同族相殺과 骨肉相爭은 이以上 有害無益이라고 認定한다 千年後代까지 怨恨이될 피비린내나는 同族相殺을 이以上 擴大시키지 않기爲하여 兄弟諸位와 굳은握手를 하고저 萬般의 用意를 갖우고 있으니 우리를 믿으라 무기를 버리고 父母兄弟의 따뜻한 품안으로 도라오라 本官은 이에對한 兄弟諸位의 回答을 希望한다 우리가 會談할수 있는 適當한 時日과 場所를 如何한 方法으로 던지 二十四日正午까지 提示하여주기바란다

제주도는 전투상태 선거관리 반수 사직

제주도는 전투상태 선거관리 반수 사직

(서울 10발UP=공동) 총선거당일의 10일 남선좌파의 선거방해는 더듸어 격화 제주도에선 심격한 전투가 전개되고 있다. 동도 공산계 게리라부대는 산악지대에서 기거하여 와서 폭행함으로 선거관리의 반수는 사임해 버렷다. 남선의 동남지구일대에 긍해 파괴행동으로 전라도통신이 방해되어있고 14개소에서 ○○이 발생하고 있다.

濟州道는戰鬪狀態 選擧官吏半數辭職

제주는 일부 투표소 개설 불능

제주는 일부 투표소 개설 불능

(서울 11일UP=공동) 십일 총선거당일의 좌익공산파의 폭행으로 의한 사자는 그후의 보도로서 38명에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폭행도 선거를 방해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각지의 선거방해 의도 행동이 가장 격심한 곳은 제주도이고 미군보도에 의하면 다수의 투표소가 개설불능이었다. 또 38도선의 부근 개성에서는 10일밤 3개소의 투표소가 습격당하고 폭도측 2명 경찰관 1명 일반시민2명 계5명의 사자와 4명의 부상자를 내었다 한다.

濟州는一部投票所開設不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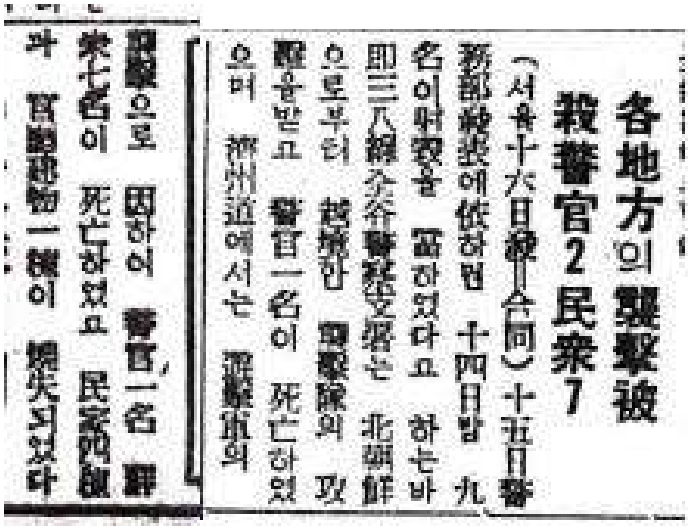
(서울十一日UP發同)

十日總選擧當日의 左翼共產派의 暴行으로依한 死者는 그後의 調査로서 三十八名에 增加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暴行도 選擧를 妨害하는데에는 失敗하였다 各地의 選擧妨害의 暴行中이 가장 猖獗한곳은 濟州道이고 美軍報道에 依하면 多數의 投票所가 開設不能이었다 또 三十八度線의 附近 開城에서는 十日밤 三個所의 投票所가 襲擊當하고 暴徒側 二名 警察官 一名 一般市民二名 計五名의 死者와 四名의 負傷者를 내었다 한다

각 지방의 습격 피해경관은2, 민중7

각 지방의 습격 피해경관은2, 민중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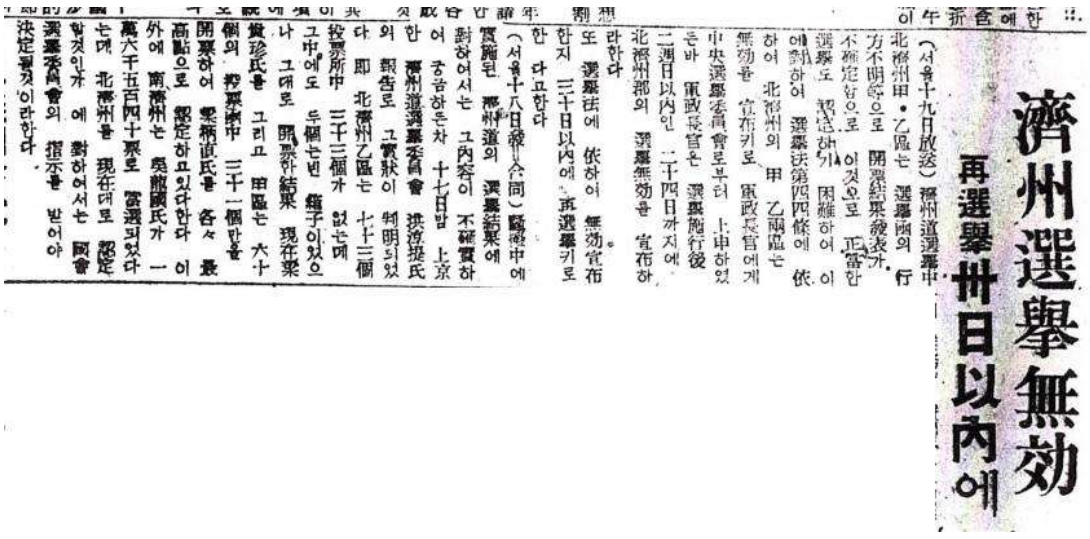
(서울 16일발=합동) 15일 경무부 발표에 의하면 14일밤 9명이 사살을 당하였다고 하는 바 즉 38선 전곡경찰지서는 북조선으로부터 월경한 습격대의 공격을 받고 경관 1명이 사망하였으며 제주도에서는 유격군의 습격으로 인하여 경관 1명 군중 7명이 사망하였고 민가 4동과 관청 건물 1동이 소실되었다.


各地方의 襲擊被
殺警官2民衆7
(서울十六日發=合同) 十五日警
務部發表에依하면 十四日밤 九
名이射殺을 當하였다고 하는바
即三八線交谷警察支署는 北朝鮮
으로부터 越境한 襲擊隊의 攻
擊을받고 警官一名이 死亡하였
으며 濟州道에서는 遊擊隊의
襲擊으로 因하여 警官一名 民
衆七名이 死亡하였고 民家四棟
과 官廳建物一棟이 燒失되었다

제주선거 무효 재선거 30일 이내

제주선거 무효 재선거 30일 이내

(서울 19일 방송) 제주도 선거 중 북제주갑 · 을구는 선거함의 행방불명 등으로 개표결과 발표가 불확정함으로 이것으로 정당한 선거도 인정하기 곤란하여 이에 대하여 선거법 제44조에 의하여 북제주의 갑을 양구는 무효를 선포키로 군정장관에게 중앙선거위원회로부터 상신하였든바 군정장관은 선거시행 후 2주일 이내인 24일까지에 북제주군의 선거무효를 선포하라한다.
또 선거법에 의하여 무효선포한지 30일 이내에 재선거키로 한다고 한다.
(서울 18일발=합동) 소요 중에 실시된 제주도의 선거결과에 대하여서는 그 내용이 불확실하여 궁금하든차 17일밤 상경한 제주도선거위원회 홍순제 씨의 보고로 그 실상이 판명되었다. 즉 북제주을구는 73개 투표소 중 33개가 없는데 그 중에도 두개는 빈상자이었으나 그대로 개표한 결과 현재 양귀진 씨를 그리고 갑구는 60개의 투표함 중 31개만을 개표하여 양병직 씨를 각각 최고점으로 인정하고있다한다. 이외에 남제주는 오용국 씨가 16,540표로 당선되었다는데 북제주를 현재 대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국회선거위원회의 지시를 받어야 결정될 것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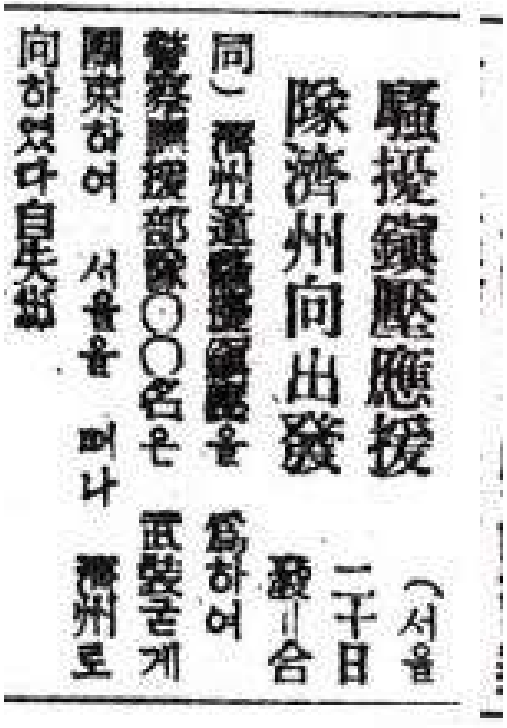

濟州選擧無效
再選擧卅日以內에

조선신보(朝鮮新報) 1948년 5월 21일 / 1면

소요 진압 응원대, 제주로 출발

소요 진압 응원대, 제주로 출발

(서울 20일발=합동) 제주도 소요진압을 위하여 경찰응원부대○○명은 무장 굳게 단속하여 서울을 떠나 제주로 향하였다 자실출


騷擾鎭壓應援
隊濟州向出發
(서울
二十日
發=合
同) 濟州道騷擾鎭壓을
爲하여
警察應援部隊○○名은 武裝굳게
團束하여 서울을 떠나 濟州로
向하였다自실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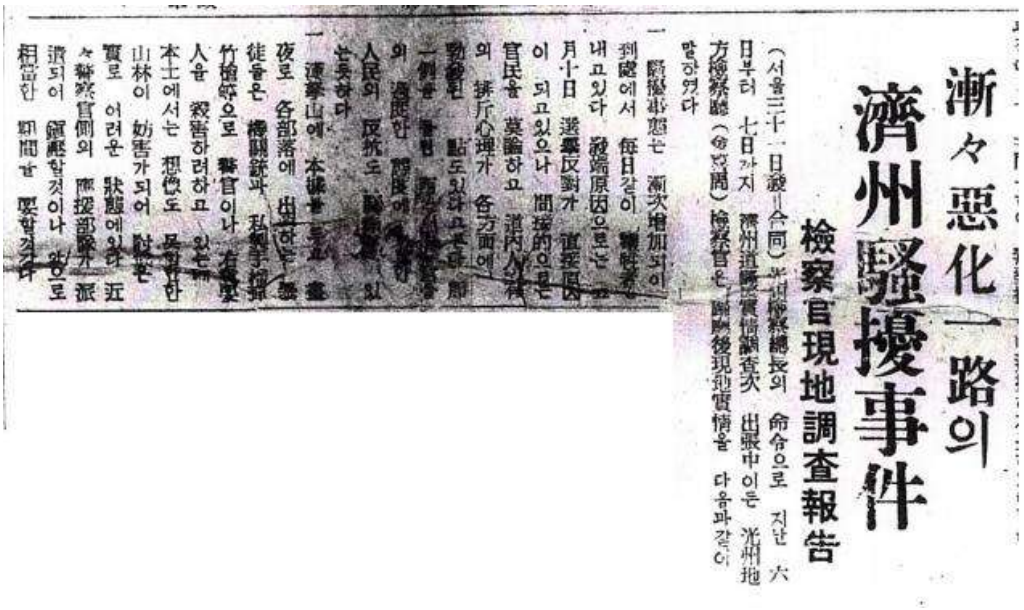
점점 악화일로의 제주소요사건 검찰관 현지조사보고

점점 악화일로의 제주소요사건 검찰관 현지조사보고

(서울 31일발=합동) 광주검찰총장의 명령으로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제주도소요실정조사차 출장중이든 광주지방검찰청 (김○주) 검찰관은 소요후 현지실정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소요사태는 점차 증가 되이 도처에서 매일같이 희생자를 내고 있다. 발단원인으로는 5월10일 선거반대가 직접원인이 되고 있으나 간접적으로는 관민을 막론하고 도내인의 배척심리가 각 방면에 발발된 점도 있다고 본다. 즉 일례를 들면 서북청년단들의 과도한 태도에 ○○한 인민의 반항도 ○○있는 듯하다.

— 한라산에 본거를 두고 주야로 각 부락에 출몰하는 폭도들은 기관총과 사제수류탄 죽창 등으로 경관이나 우익요인을 살해하려하고 있는데 본토에서는 상상도 못할만한 산림이 방해가 되어 토벌은 실로 어려운 상태에 있다. 근근 경찰관측의 응원부대가 파견되어 진압할것이나 앞으로 상당한 기간을 요할 것이다.



漸々惡化一路의
濟州騷擾事件
檢察官現地調査報告

북제주 재선거 6월 22일

북제주 재선거 6월 22일

(서울 26일발=합동) 군정장관디-ㄴ소장은 26일 제주도 북제주군 갑구 을구의 양구의 선거무효로 인한 재선거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사진은 딘군정장관)
1, 1948년 3월17일부로 공포된 국회의원 선거법에 의하여 1948년 5월10일 제주도 북제주군 갑선거구와 을선거구에서 시행한 선거는 자에 무효임을 선포함
2, 국회의원 선거법 제44조에 의하여 국회선거위원회의 지휘감독 하에 1948년 6월23일 전기갑 을양구에서 재선거 실시할 것을 자에 지시함
3, 전기갑 을양투표구의 반수이상이 투표를 행하지 못하여 완전히 민의을 표현시키였다고 볼수 없음으로 국회선거위원회와 협의한 후 해갑 을양선거구의 선거를 무효로 결정한 바이다.

北濟州再選擧
六月二十二日

(서울二十六日發=合同) 軍政長官디-ㄴ
少將은 二十六日 濟州道北濟州郡甲區
乙區의 兩區의 選擧無效로 因한 再選
擧日에 關하여 다음과같이 發表하였다
(寫眞은 딘軍政長官)

一、一九四八年三月十七日附로 公布된 國會議員選擧法에依하여 一九四八年五月十日 濟州道北濟州郡甲選擧區와 乙選擧區에서 施行한 選擧는 玆에 無效임을 宣布함

二、國會議員選擧法第四十四條에依하여 國會選擧委員會의 指揮監督下에 一九四八年六月二十三日 前記甲 乙兩區에서 再選擧實施할것을 玆에指示함

三、前記甲 乙兩投票區의 半數以上이 投票를 行하지못하여 完全히 民意를 表現시키였다고 볼수없음으로 國會選擧委員會와 協議한後 該甲 乙兩選擧區의 選擧를 無效로 決定한바이다

제주행 회피 경관에게 집행유예 언도

제주행 회피 경관에게 집행유예 언도

(서울 27일발=합동) 제주도에 경비응원파견회피로 군정재판에 회부된 철도경찰청 근무 장만호 경사 이외 8명에 대한 미군정재판은 27일 상오9시부터 종로서내군정재판정에서 열었는데 이들8명에 대하여 각각 다음과 같은 언도가 있었다.
정태선(순경) 11년 징역 4년 집행유예 장만호(경사) 심방은(순경) 유시흡(순경) 박봉철(순경) 김강석(순경) 김재환(순경) 김인석(순경) 이상 각각 5년 집행유예

濟州行回避警官들에
執行猶豫言渡

(서울二十七日發=合同) 濟州道에 警備應援派遣回避로 軍政裁判에 回附된 鐵道警察廳勤務張萬鎬警査以外八名에對한 美軍政裁判은 二十七日上午九時부터 鐵路署內軍政裁判廷에서 열었는데 이들八名에 對하여 各々다음과같은 言渡가있었다

鄭泰善(巡警)十一年懲役 四年執行猶豫 張萬鎬(警査) 沈方殷(巡警) 柳時音(巡警) 朴鳳哲(巡警) 金强石(巡警) 金在煥(巡警) 金仁錫(巡警)

以上各々五年執行猶豫

조선신보(朝鮮新報) 1948년 5월 31일 / 1면

제주 치안 여전히 험악
조(趙) 경무부장 현지에 출발

제주 치안 여전히 험악
조(趙) 경무부장 현지에 출발

(서울 28일발UP=공동) 경무부장 조병옥씨는 제주도의 치안회복을 위하여 28일 공로제주도로 향하였는데 미국정보에 의하면 이2주간에 제주도의 유격대는 28회에 긍하여 부락을 진격 사자(死者)는 경관6명 좌익측 43명 우익측 31명에 달하고 경찰대는 경비대와 공동으로 소전투를 수회나 전개하였다.
그리고 미군의 조사에 의하면 10일부터 25일까지의 기간에 미군이 점령하고 있는 남선각 지역에서는 폭동에 의한 사자(死者)수는 142명 교통 통신방해는 17건이라 한다.

濟州治安依然險惡

趙警務部長現地로出發

(서울二十八日發UP=共同)警
務部長 趙炳玉氏는 濟州道의
治安回復을 爲하여 二十八日
空路濟州道로 向하였는데 美國
情報에 依하면 이二週間에 濟
州道의 遊擊隊는 二十八回에
亘하여 部落을 襲擊 死者는
警官六名 左翼側 四十三名 右
翼側 三十一名에 達하고 警察
隊는 警備隊와 共同으로 小戰
鬪를 數回나 展開하였다
그리고 美軍의 調査에 依하면
十日부터 二十五日까지의 期間
에 美軍이 占領하고 있는 南
鮮各地域에서는 暴動에 依한
死者數는 百四十二名 交通 通
信妨害는 十七件이라 한다

조선신보(朝鮮新報) 1948년 6월 4일/ 1면

4·3 사건 공판 시작
검사구형에 사형도 1명

4·3 사건 공판 시작
검사구형에 사형도 1명

(제주 30일발=합동) 4·3사건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난 26일 서울로부터 공로 제주도에 도착한 양원일 황성희의 제심판관 박근영 이주신 안기영 세 감찰관은 31일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개시하였다. 이날 양원일 심판관은 과거에 볼수 없는 초속도로 공판을 진행시켯는데 폭동사건관계 4건의 심리를 맞이고 사형 1명 10년 징역 1명 7년 징역 2명 5년 징역 1명 등 검사측에서 구형이 있었다. 그중 피고 최재철(45)은 절도전과2범으로 지난 4월3일 북제주군의 사건에 있어서 순경2명을 살해하였는것인데 피고는 이를 부인하여 나는 죽창을 들고 파수보았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였으나 검찰관으로 반증을 제출하여 이 부인을 각하시켯다.

다음 김승대는 5월9일 한림면 명월리에서 부락민전부를 모아놓고 자위대를 조직한 다음 그들을 산중으로 인도하고 십일에 이르러 선거를 방해하였고 동14일에는 전기(前記) 부락에 있는 경찰지서를 습격한것이라하며 피고 김리석(23)는 한림면 민간단의 책임자로서 징역 5년의 구형을 받었는데 이는 5월14일 한림면지서를 습격시에 순경1명을 살해한 것이라 한다.

四·三事件公判開始

檢事求刑에死刑도一名

(濟州三日發=合同) 四·三事件을 裁判하기爲하여 지난二十六日 서울로부터 空路 濟州道에 到着한 梁元一 黃聖희 의 諸審判官 朴根榮 李柱臣 安基永 三監察官은 三十一日 公休日임에도 不拘하고 業務를 開始하였다 이날 梁元一 審判官은 過去에 볼수없는 超速度로 公判을 進行시켯는데 暴動事件關係四件의 審理를 맞이고 死刑 一名 十年懲役 一名 七年懲役 二名 五年懲役 一名 檢事側에서 求刑이 있었다 그中 被告 崔在哲(四五)은 朝鮮前科二犯으로 지난四月三日 北濟州郡의 事件에 있어서 巡警二名을 殺害하였는것인데 被告는 이를 否認하여 나는 竹槍을 들고 派守보았을 뿐이다 라고 主張하였으나 檢察官으로 反證을 提出하여 이否認을 却下시켯다 다음 金承大는 五月九日 翰林面 明月里에서 部落民全部를 모아놓고 自衛隊를 組織한다음 그들을 山中으로 引導하고 十日에 이르러 選擧를 妨害하였고 同十四日에는 前記部落에있는 警察支署를 襲擊한것이라하며 被告 金利錫(二三)는 翰林面 民間團의 責任者로서 懲役五年의 求刑을 받었는데 이는 五月十四日 翰林面支署를 襲擊時에 巡警一名을 殺害한것이라 한다

조선신보(朝鮮新報) 1948년 6월 4일 / 1면

경비대 출동 이후의 제주

경비대 출동 이후의 제주

(서울 2일발=합동) 국방경비대제주사령부 발표에 의하면 제주일대의 소요사건에 관한 경비대출동이후의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폭도 중 자수한자 3천2백2십6명 사망자 7명 유기사체 1명이고 폭도 측의 유인 협박 등에 의하여 강제로 가담한 무오의 양민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그대부분은 귀순하였다.
압수품 철모16 죽창12 99식소총 3 수류탄 15 청룡도 5
경찰측 손해=부상5명 그리고 근간항간에서 경비대행동이 소극적이라든가 혹은 좌익에 대하여 동정적이라든가 하는 낭설이 유포되고 있는듯하나 이것은 그간 경비대에서 그 기도 일절을 비밀에 부하기위하여 일절공포를 금지하고 침묵을지켜왔으며 또한 실시행동에 있어서 사살주의보다 오히려 사로잡기 주의를 취하여 왔음으로 여기에서 피상적관찰 또는 일부분 불순자의 모략인 것이다.
또 현지경비진은 합리적 기도에서 충분한 연락하에 양민보호와 소요진압에 노력하고 있음으로 일반은 이에 협력하기 바란다.

警備隊出動
以後의濟州

(서울二日發=合同) 國防警備隊
濟州司令部發表에 依하면 濟州
一帶의 騷擾事件에 關한 警備
隊出動以後의 結果에 對하여
다음과같이 發表하였다.
暴徒中 自首한者 三千二百二
十六名 死亡者 七名 負傷死
體 一名이고 暴動側의 誘引
脅迫等에 依하여 强制로 加
擔한 無垢의 良民이 多數包
含되어 있는데 그大部分은
歸順하였다.
押收品 鐵帽一六 竹槍一二
九九式小銃 三 手榴彈 一五
靑龍刀 五
警察側損害=負傷五名 그리고
近來巷間에서 警備隊行動이 消
極的이라든가 或은 左翼에 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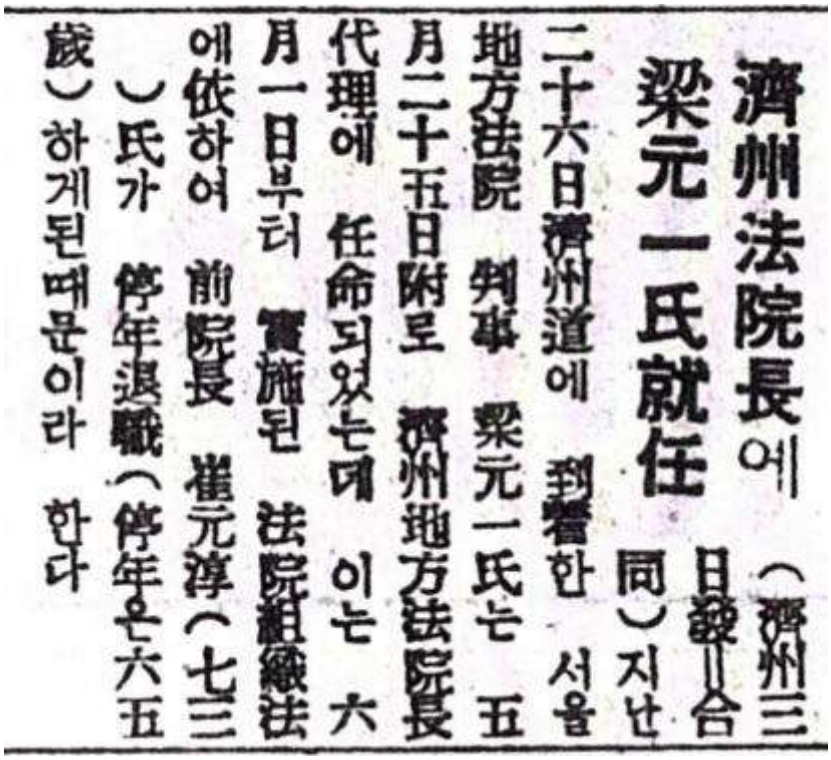
하여 同情的이라든가 하는 浪
說이 流布되고 있는듯하나 이
것은 그間 警備隊에서 그企圖
一切을 秘密에 付하기爲하여
一切公布를 禁止하고 沈默을지
켜왔으며 또한 實施行動에 있
어서 射殺主義보다 오히려 사
로잡기 主義를 取하여 왔음으
로 여기에서 皮相的觀察 또는
一部分不順者의 謀略인것이다
또現地警備陣은 合理的 企圖에
서 充分한 連絡下에良民保護와
騷擾鎭壓에 努力하고 있음으로
一般은 이에 協力하기 바란다

조선신보(朝鮮新報) 1948년 6월 4일 / 1면

제주법원장으로 양원일씨 취임

제주법원장으로 양원일씨 취임

(제주 3일=합동) 지난26일 제주도에 도착한 서울지방법원 판사 양원일씨는 5월25일부로 제주지방법원장 대리에 임명되었는데 이는 6월1일부터 실시된 법원조직법에 의하여 전원장 최원순(73)씨가 정년퇴직(정년은65세) 하게된 때문이라 한다.


濟州法院長에 梁元一氏就任 (濟州三日發=合同) 지난二十六日濟州道에 到着한 서울地方法院 判事 梁元一氏는 五月二十五日附로 濟州地方法院長 代理에 任命되었는데 이는 六月一日부터 實施된 法院組織法에依하여 前院長 崔元淳(七三)氏가 停年退職(停年은六五歲)하게된때문이라 한다

제주 전투상태 계속

제주 전투상태 계속

(서울 4일발=합동) 통위부에서는 3일 다음과 같은 발표를 하였다.
국방경비대는 5월31일 오후8시30분 제주도 대정면 인민군사령부를 공격하여 좌기와 여한 성과을 획득하였다.
포로10명 적사2명 99식소총 죽창 대검 전화기 각종 탄약 중요서류 41건 피복 식사도구 식기다수

濟州戰鬪狀態繼續

(서울四日發=合同) 統衛部에서는 三日 다음과같은 發表를 하였다

國防警備隊는 五月三十一日 午後八時三十分 濟州道 大靜面 人民軍司令部를 攻擊하여 左記와 如한 成果을 獲得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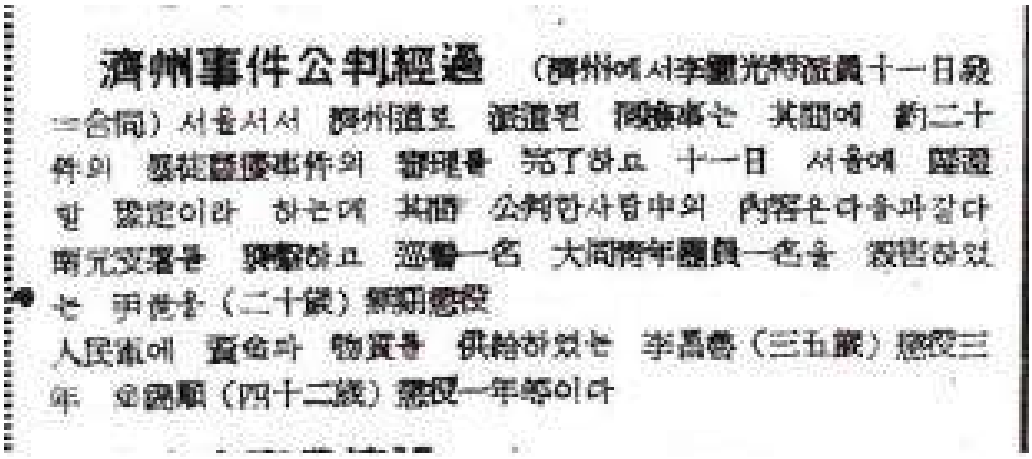
捕虜十名 敵死二名 九九式小銃 竹槍 帶劍 電話機 各種 彈藥 重要書類 四十一件 被服 食糧道具 食器多數

조선신보(朝鮮新報) 1948년 6월 14일 / 2면

제주사건 공판 경과

제주사건 공판 경과

(제주에서 이진광특파원 11일발=합동)서울서서 제주도로 파견된 ○검사는 기간에 약20건의 폭도소요사건의 심리를 완료하고 11일 서울에 귀환할 예정이라 하는데 기간 공판한 사람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원지서를 습격하고 순경1명 대동청년단원 1명을 살해하였는 윤세웅(21세) 무기징역
인민군에 자금과 물질를 공급하였는 이창구(35세) 징역3년 김국순(42세) 징역1년 등이다.


濟州事件公判經過 (濟州에서李麗光特派員十一日發
二合同) 서울서서 濟州道로 派遣된 檢事는 其間에 約二十
件의 騷擾暴動事件의 審理를 完了하고 十一日 서울에 歸還
할 豫定이라 하는데 其間 公判한사람中의 內容은다음과같다
南元支署를 襲擊하고 巡警一名 大同青年團員一名을 殺害하였
는 尹世雄(二十歲) 無期懲役
人民軍에 資金과 物資를 供給하였는 李昌龜(三五歲) 懲役三
年 金國順(四十二歲) 懲役一年等이다

조선신보(朝鮮新報) 1948년 6월 16일 / 1면

만행 계속되는 제주
통위부 폭도진압에 노력

만행 계속되는 제주
통위부 폭도진압에 노력

(서울 15일 방송) 통위부에서는 제주도소요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지난 4월3일 이래 제주도내에서 소요사건이 발생하여 폭도들은 민간 경찰관서 경찰관가족의 살해 습격 통신기관파괴 무기약탈 양민에게 가해 방화등의 비인도적 만행으로서 도저히 묵시불능한 행동을 감행하였다. 폭도들은 한라산에 집결하여 더한층 잔학한 행위를 감행하여 오고 있었다.
이에서 4월27일 경찰은 단연 강경한 태도를 취하여 왔으나 이때 폭도는 각 부락에 잠복하여 항전하고 있다. 그리고 양심들은 그들의 비행을 알게되어 점점 국경의 뜻을 양해하게 되었다.
경찰은 무기를 사용하게 되었으나 폭도를 살해하려는 뜻은 없고 양민을 위하여 이들을 진압하며 비행자를 체포하려 함에 있다. 이것은 3천 수백 명을 검거하였으나 그중 사자가 수십명에 달한 것을 보아도 경찰의 태도를 알 수 있는 것이다.

蠻行繼續되는濟州

統衛部暴徒鎭壓에努力

(서울十五日放送) 統衛部에서는 濟州道騷擾事件에 關하여 다음과같이 發表하였다 지난 四月三日 以來 濟州道內에서 騷擾事件이 發生하여 暴徒들은 民間 警察官署 警察官家族의 殺害 警察 通信機關破壞 武器掠奪 良民에게 加害 放火等의 非人道的 蠻行으로서 到底히 默視不能한行爲를 敢行하였다 暴徒들은 漢拏山에 集結하여 더하며 暴虐한 行爲를 敢行하여오고있었다 이에서 四月二十七日 警察은 斷然 强硬한 態度를 取하여 왔으나 이때 暴徒는 各部落에 潛伏하여 抗戰하고있다 그리고 良心들은 그들의 非行을 알게되어 漸々 國警의 뜻을 諒解하게 되었다 警察은 武器를 使用하게되었으나 暴徒를 殺害하려는 뜻은 없고 良民을 爲하여 이들을 鎭壓하며 非行者를 逮捕하려 함에 있다 이것은 三千數百名을 檢擧하였으나 그中死者가 數十名에 達한것을 보아도 警察의 態度를 알수 있는것이다

제주해안경비대 활약

제주해안경비대 활약

(서울 16일 방송) 통위부 발표에 의하면 해안경비대는 6월1일이후 제주 모슬포해안의 15KM지점에서 제주소요사건에 관련되어 행동하는 선박을 추격하여 다음의 전과를 내었다.
살상 2명 포로 3명 미식총 1정 99식총 2정

濟州海岸警備隊活躍

(서울十六日發送) 統衛部發表에 依하면 海岸警備隊는 六月一日以後 濟州島疎浦海岸의 十五KM地點에서 濟州暴擧事件에 關聯되어 行動하는 船舶을 追擊하여 다음의 戰果를 내었다
殺傷二名 捕虜三名
美式銃 一挺 九九式銃 二挺

조선신보(朝鮮新報) 1948년 6월 20일 / 2면

군정장관 급거 제주행
경비대장 암살사건 조사차

군정장관 급거 제주행
경비대장 암살사건 조사차

(서울 18일=합동) 공보부 발표-조선경비대 제11연대장 박진경(○○)대령은 6월16일 3시 15분 제주연대본부에서 취침중 암살당하였는데 범인은 판명되어 있고 군정장관 띈소장은 급거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경찰의 체포권위자 2명을 대동하고 18일 공로로 제주로 행하였다.

軍政長官急遽濟州行
備隊長暗殺事件調査次
(서울十八日=合同) 公報部發表 朝鮮警備隊 第十一聯隊長
朴鎭景(君讀) 大領은 六月十六日三時十五分 濟州聯隊本部에서 就寢中 暗殺當하였는데 犯人은 判明되어있고 軍政長官 띈少將은 急遽이事件을 調査하기爲하여 警察의 逮捕權威者 二名을 帶同하고 十八日 空路로 濟州로 行하였다

조선신보(朝鮮新報) 1948년 6월 20일 / 2면

폭도진압을 가장해서 경찰지서를 습격!
제주국방경비대의 반역사건

폭도진압을 가장해서 경찰지서를 습격!
제주국방경비대의 반역사건

(서울 16일발=합동) (제주도에서 이진광특파원기) 지난 5월21일 제주 대정지서를 습격하고 경찰관9명을 살해한 국방경비대 9연대원 40여명중 32명은 이미 체포되어 임시군사구치장에 수용되고 있는바 그들은 수일내로 현지에서 제주 주재 11연대 정보관 김종평 중령을 재판장으로한 특별군법회의에 회부되리라고 한다.
동사건의 진상을 경무부 특별조사대의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한다.
지난 5월11일 하오5시40분경 모슬포주재의 제9연대소속 최병환을 주측으로한 40여명의 대원은 폭도토벌을 목적으로 99식소총 40정과 실탄수천발 수류탄수백개 기타 무기 다수를 화물자동차에 실고 모슬포쪽의 공중을 향하여 공포수백발을 발사하여 모슬포경비관계로 하여끔 놀라게한후 동시지점에서 500M되는 동경찰지서에 이르러 동서원(同署員)에 향하여 「경찰대원이 우리에 내습하여 강렬히 저항함으로 우리대원들은 부득이 응진하여 보았으나 못당하게되어 부득이 후퇴하여 이곳에 왔는데 경찰이 우리를 습격하고 있으니 어든이유냐 우리들은 경찰이니 국방경비대니 하고갈릴것없시 공동으로 방위함이 어떻한가」하며 최○모는 전기 자기부하40여명을 각각 적당히 배치한 다음 최는 고지에 올나가 명령하자 전대원은 일제히 경찰관에 대하여 발사하였다. 이로 인하여 순경 김문희 김태하 급사 이군수는 부상을 입고 1명은 행방불명 순경수명은 살해되었다. 이를 곳본청에 보고하게 되었든 것이다. 전기 국방경비대원들은 이후 즉시로 도중에 두었든 자동차로 본대에 돌라와서 다시 폭도진압을 가장하고 군수물자 다량를 갖인채 전원 밀림지에 잠복하여 버렷든 것이다.
그러나 수일이 경과한 5월23일 서귀포방면에 출동하였든 국방경비대 제5연대가 전기 반란병41명 중 32명을 발견 체포하였든 것이다.

暴徒鎭壓을假裝하고
警察支署를襲擊!
濟州國防警備隊의叛逆事件

(서울十六日發 合同)(濟州道에서李鍾光特派員記) 지난 五月二十一日 濟州 大靜支署를 襲擊하고 警察官五名을 殺害한 國防警備隊 九聯隊員 四十餘名中 三十二名은 이마 逮捕되어 臨時軍事裁判場에 收容되고 있는바 그들은 數日內로 現地에서 濟州駐在十一聯隊情報官 金宗平 中領을 裁判長으로한 特別軍法會議에 回附되리라고 한다

同事件의 眞相을 警務部 特別調査隊의 調査한 바에 依하면 大略다음과 같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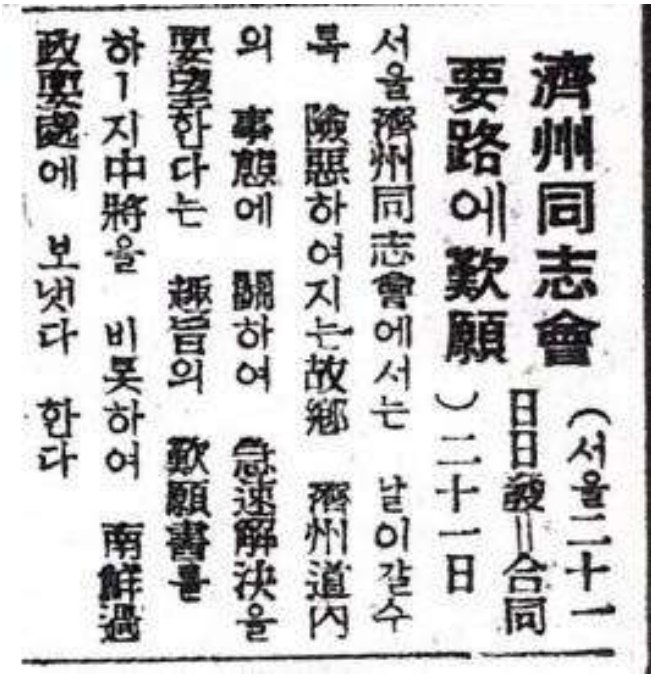
지난 五月十一日 下午五時四○分頃 大靜浦駐在의 第九聯隊所屬 崔炳模等 主班으로한 四○餘名의 隊員은 暴徒討伐을 目的으로 九九式小銃四十挺과 實彈藥千發 手榴彈數百個 其他武器 多數를 貨物自動車에 싣고 大靜浦주의空中을 向하여 空砲數百發을 發射하여 大靜浦警備關係로 하여금 놀라게한後 同時地點에서 五○○M되는 同警察支署에이르러 同署員에 向하여 「警察隊員이 우리에 來襲하여 亂射히 挑戰함으로 우리隊員들은 不得已 應戰하여 보았으나 못당하게되어不得已 後退하여 이곳에 왔는데 警察이 우리를 襲擊하고 있으니 어떤理由냐 우리들은 警察이니 國防警備隊니 하고 갈릴것없이 共同으로 防衛함이 어떠한가」하며 崔炳模는 前記自己部下四○餘名을 各各適當히 配置한다음 崔는 高地에 올나가 命令하자 全隊員은 一齊히 警察官에 對하어 發射하였다 이로因하여 巡警 金文熙 金太河 林化 李君洙는 重傷을 입고 一名은 行方不明 巡警數名은 殺害되었다 이를 于本廳에 報告하게되었든것이다 前記 國防警備隊員들은 이後 卽時로 途中에 두었든 自動車로 本隊에 들아와서 다시 暴徒鎭壓을 假裝하고 軍需物資多量을갖인채 全員潛伏地에 潛伏하여버렸든 것이다 그러나 數日이經過한 五月二十三日 西歸浦方面에 出動하였든 國防警備隊 第十一聯隊가 前記反亂兵四十二名中 三十二名을 發見 逮捕하였든 것이다

조선신보(朝鮮新報) 1948년 6월 22일 / 1면

제주동지회 요로에 탄원

제주동지회 요로에 탄원

(서울 21일일발=합동) 21일 서울제주동지회에서 날이갈수록 험악하여지는 고향 제주도내의 사태에 관하여 급속해결을 요망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하-지중장을 비롯하여 남선과 정요처에 보냇다 한다.


濟州同志會 要路에 歎願

(서울二十一日日發=合同) 서울濟州同志會에서는 날이갈수록 險惡하여지는 故鄕 濟州道內의 事態에 關하여 急速解決을 要望한다는 趣旨의 歎願書를 하-지中將을 비롯하여 南鮮過政要處에 보냇다 한다

조선신보(朝鮮新報) 1948년 6월 26일 / 1면

제주 치안문란의 근본원인 공산당의 신정부반대 조병옥 경무부장 담화 발표

제주 치안문란의 근본원인 공산당의 신정부반대 조병옥 경무부장 담화 발표

(서울 23일발=합동) 경무부장 조병옥씨는 23일 제주치안수습에 관하여 다음과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제주도치안에 관하여 과정의 책임자 또는 정치 사회단체 혹은 언론기관에서 그 의견을 발표함에 있어서 폭동이 발발하고 치안이 소란하게된 원인을 행정 사법 기관의 민사행정의 편화 혹은 처사의 원만성결함등에 대한 불평 불만 및 경찰관의 비민주주의적 과오 등에 밀우고 추상적이고 값산 동포애를 고조하며 인정론을 부르짓는바 있으나 이것은 부당한 언사이고 판단의 착오급 피상적관찰에 기인하는 것이다. 물론 이론은 폭도에 간접적으로 원조함을 지적함에 족할 것이다.

제주도의 역사적 특수성과 도민의 배타심과 그리고 경찰말단의 민주주의원리에 대하여 범한 과오도 그원인의 일부로 지적할수없는바는 아니다. 그러나 이 근본원인은 신국가수립을 반대하는 공산당의 북조선파의 반대공작으로 총선거반대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이 폭동에 있어서 규모가 광대하고 치밀하다.

북조선을 그 세력하에 두고 남조선을 감시하고 있는 쏘련이 그 야심과 정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제주도에 국한되지 않고 남조선일대에 전개하고 있음으로 당분간 남조선에는 정상적 치안의 복구를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다.

그러므로 치안수습책은 바야호로 무지한 살인 방화 파괴 만행 등에 의하여 정부를 전몰하고 독립을 방해하는자들 엄중처단하고 무지맹목으로 인하여 부화뇌동한 자는 선무선도하는 방침이외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법을 범한자나? 선동에 의하여 본의아닌 행동자에는 사법당국에서 그 진상을 조사하여 처형을 관대히할 것이다. 국립경찰은 이 원칙에 의하여 제주도경찰의 강화 인사의 공정과 경찰의 민주화를 도모하여 인권유린을 방지하고 민경의 협력을 도읍기 위하여 경찰강화의 원만한 처치에 노력할 것이고 제주폭동만행수습의 근본방침은 종전과 조끔도 다를이 없다는 것을 재차 성명하는 바이다.

濟州治安紊亂의 根本原因

共産黨의 新政府反對

趙炳玉警務部長談話發表

(서울二十三日發=合同) 警務部長 趙炳玉氏는 二十三日 濟州治安收拾에 關하여 다음과 같은 談話를 發表하였다

濟州道治安에 關하여 過政의 責任者 또는 政治 社會團體 或은 言論機關에서 그 意見을 發表함에 있어서 暴動이 勃發하고 治安이 紊亂하게된 原因을 行政 司法 機關의 民事行政의 偏化 或은 處事의 圓滿性 缺陷等에 對한 不平不滿 및 警察官의 非民主主義的 過誤等에 밀우고 抽象的이고 값싼 同胞愛를 高調하며 人情論을 부르짓는바 있으나 이것은 不當한 言辭이고 判斷의 錯誤及 皮相的觀察에 起因하는 것이다 勿論이 論은 暴徒에 間接的으로 援助함을 指摘함에 足할것이다 濟州道의 歷史的 特殊性과 島民의 排他心과 그리고 警察末端의 民主主義原理에 對하여 犯한 過誤도 그原因의 一部로 指摘할수없는바는 아니다 그러나 이根本原因은 新國家樹立을 反對하는 共産黨의 北朝鮮派의 反對工作으로 總選擧反對에 不過한것이다 그러나 이暴動에 있어서 規模가 擴大하고 緻密하다 北朝鮮을 그勢力下에 두고 南朝鮮을 監視하고 있는 쏘聯이 그野心과 政策을 抛棄하지 않는것은 濟州道에 局限되지 않고 南朝鮮一帶에 展開하고 있음으로 當分間 南朝鮮에는 正常的 治安의 復舊를 期待할수없는 事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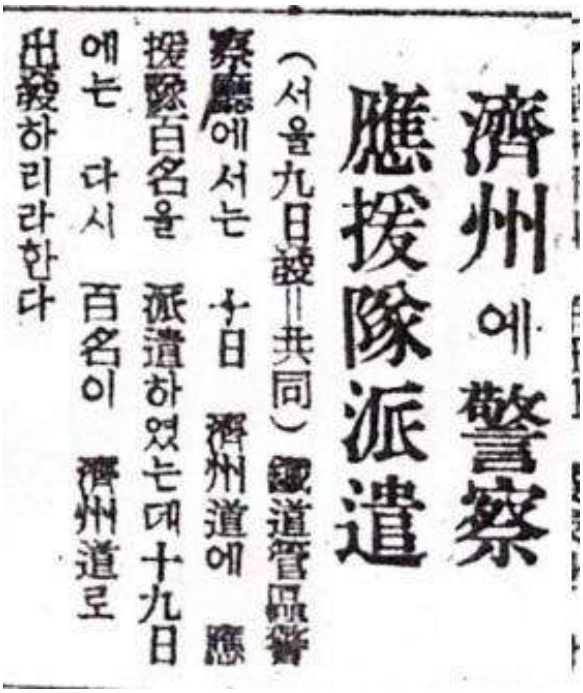
그러므로 治安收拾策은 바야흐로 無知한 殺人 放火 破壞 蠻行等에 依하여 政府를 轉覆하고 獨立을 妨害하는者는 嚴重處斷하고 無知盲目으로 因하여 附和雷同한 者는 宣撫善導하는 方針以外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無意識的으로 法을 犯한者나? 煽動에依하여 本意아닌 行動者에는 司法當局에서 그眞相을 調査하여 處刑을 寬大히할것이다. 國立警察은 이原則에 依하여 濟州道警察의 强化 人事의 公正과 警察의 民主化를 圖謀하여 人權蹂躪을 防止하고 民警의 協力을 도웁기 爲하여 警察强化의 圓滿한 處置에 努力할것이고 濟州暴動鎭行收拾의 根本方針은 從前과 조곰도 다름이 없다는것을 再次 聲明하는 바이다

조선신보(朝鮮新報) 1948년 7월 10일 / 2면

제주에 경찰응원대 파견

제주에 경찰응원대 파견

(서울 9일발=공동) 철도관구경찰청에서는 10일 제주도에 응원대100명을 파견하였는데19일에는 다시 100명이 제주도로 출발하리라한다.


濟州에 警察
應援隊派遣
(서울九日發=共同) 鐵道管理局警
察廳에서는 十日 濟州道에 應
援隊百名을 派遣하였는데 十九日
에는 다시 百名이 濟州道로
出發하리라한다

조선신보(朝鮮新報) 1948년 7월 16일 / 1면

남로당 전라도지구에 제2 제주화 기도
조(趙) 경무부장 담화 발표

남로당 전라도지구에 제2 제주화 기도
조(趙) 경무부장 담화 발표

(서울 13일발=합동) 조경무부장은 13일 전라도지구에서의 소탕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사진은 조병옥부장)
남조선의 질서를 소란 파괴하려는 남로당은 지리적으로 비교적 경비가 약한 전라도지구에서 약동하여 남조선을 제2제주도화할려는 음모를 동지구에서 기도 활약하고 있었다. 이에 경찰은 그본거인 조선구국인민유격대사령부를 완전소탕하고 다대한 성과를 올릿다.

南勞黨全羅道地區에
第二濟州道化企圖
趙警務部長談話發表

(서울十三日發=合同) 趙警務部長은 十三日 全羅道地區에서의 騷擾事件에 關하여 다음과같은 談話를 發表하였다 (寫眞은 趙炳玉部長)

南朝鮮의 秩序를 紊亂 破壞하려는 南勞黨은 地理的으로 比較的 警備가 弱한 全羅道地區에서 暗躍하여 南朝鮮을 第二濟州道化할려는 陰謀를 同地區에서 企圖、活躍하고있었다 이에 警察은 그本據인 朝鮮救國人民遊擊隊司令部를 完全掃蕩하고 多大한 戰果를 올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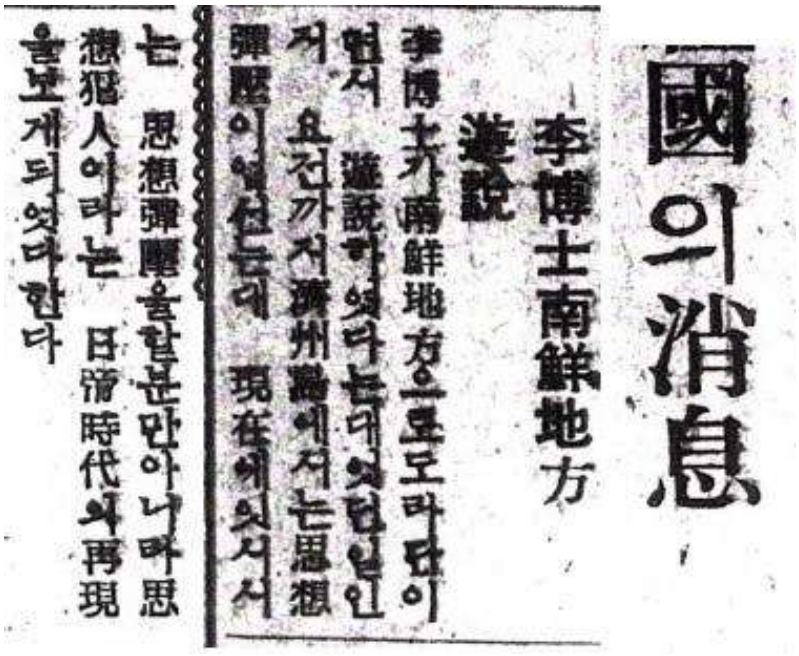
■ 신문(新聞)

대중신문(大衆新聞)

조국의 소식 이(李) 박사 남선지방 유세

조국의 소식
이(李) 박사 남선지방 유세

이 박사가 남선 지방으로 도라단이면서 유세하엿다는대 엇던 일인지 요전까지 제주도에서는 사상 탄압이 업섯는대 현재에 잇서서는 사상 탄압을 할 분만 아니라 사상범인이라는 일제시대의 재현을 보게 되엇다 한다.


國의消息
李博士南鮮地方
遊說
李博士가南鮮地方으로도라단이
면서 遊說하엿다는데엇던일인
지 요전까지濟州島에서는思想
彈壓이엇섯는데 現在에잇서서
는 思想彈壓을할분만아니라思
想犯人이라는 日帝時代의再現
을보게되엇다한다

재류동포에게 드리는 인사말

재류동포에게 드리는 인사말

재일본 조선인 동포의 건투와 도민(島民) 형제자매의 건강을 축복이오며 8월 15일 해방의 종소리를 들은 재경 도민 유지들은 일상 향토문화 사업의 빈약함을 유감이든 바 이 자유와 해방을 어든 우리들은 향토문화 사업 건설의 급선무임을 인식하야 국내 재외 도민 제현의 성의와 총역량을 집중하여 과거 36년간의 일본제국주의의 봉건적 노예 교육을 퇴치할 바와 신조선 건설을 올은 노선인 민주주의적 계몽운동과 일반 노동자 농민의 의도를 대표할 신문 발간, 서적 출판, 육영사업 등 목적을 기하야 제주문화사업협회를 창립하여 지방별로 기금 조달에 활력 중이오니 재일본 도민 유지 제현이여. 향토를 사랑하고 조국 건설에 희생적 노력을 요하는 동시에 의식적으로 찬조하며 물질적으로 동정하야 긴급한 사업이 실천화 식혀주시기를 바라며 약속하는 바이다.

제주문화사업협회
일본지방 사무국
위원 대표 김민화
강재경

在留同胞에게 드리는 人事말

在日本朝鮮人同胞의健鬪와 島民兄弟姉妹의健康을祝賀 이오며八月十五日解放의종 소리를들은在京島民有志들 은日常鄕土文化事業의貧弱 함을遺憾이든바 이自由와 解放을어든우리들은鄕土文 化事業建設의急先務임을認 識하야 國內在外島民諸賢 의誠意와總力量을集中하여 過去三十六年間의日本帝國 主義의封建的奴隸敎育을退 治할바와新朝鮮建設을期코 路線인民主々義的啓蒙運動 과一般勞働者農民의意圖를 代表한新聞發刊 書籍出版 育英事業等目的을期하야濟 州文化事業協會를創立하여 地方別로基金助成에活力中 이오니在日本島民有志諸賢 이여鄕土를사랑하고祖國建 設에犧牲的勞力을要하는同 時에意識的으로貴助하며物 質的으로同情하야緊急한事 業의實踐化식혀주시기를바 라며約束하는바이다

濟州文化事業協會
日本地方事務局
委員代表 金民化
姜才景

대중신문(大衆新聞) **1946년 6월 20일**

재일본 제주도 인사 제군에게 고함

재일본 제주도 인사 제군에게 고함

건국지추(建國之秋)
존체 건안하심을 앙축(仰祝)하나이다.
40년간 일제의 쇠사슬 밑에서 우리의 국토는 ○진하였고 경제와 문화는 완전히 퇴화와 역행을 하였으며 민족성은 비굴과 누열(陋劣)로서 노예가 되여 그 상태로 압으로 수년을 경과한다면 고유한 우리 문화도 민족성도 최후 1분까지 약탈되었을 것입니다. 하나 오날에 있어서는 빼았긴 문화를 부흥식히고 유린되있는 민족성을 바로잡기 위하야 3천만 동포들은 자기의 역량에 따라 재간으로 기술로 재물로 힘으로 건국에 총돌진을 하고 있음니다. 멀지않니 우리의 정부는 수립될 것이고 따라서 일시적 현상인 모-든 혼란과 착종도 완전히 청탁(淸濁)되여 새봄을 마지하는 명랑과 희망이 우리의 강토에 충일(充溢)할 것을 확신함니다. 제주도인민위원회는 해방 직후 30만 도민의 총의에 의하야 각층각계의 민주주의자로서 선출 조직되여 도내 치안의 임(任)에 당하였고 경제 문화 건설에 공헌을 하며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적 의식 계몽에 주력을 다하여 국제노선에 부합식히는 등 압으로 수립되는 임시정부의 모체의 일환으로서 불굴의 혈투를 감행하고 있음니다.
금반 본 위원회 재정부장 강재경 씨를 귀지에 파견하여 도내 상태를 피력하는 동시 동향 인사들의 활동 상황과 실정을 파악하여 건국의 일조에 공(供)할 기도이오니 다대한 원호(援護)와 편달이 있기를 경원(敬願)하야 마지않습니다.
1946년 4월 20일
제주도인민위원회
위원장 오대진

在日本濟州島人士
諸君에게告함
建國之秋
尊體健安하심을仰祝하나이다
四十年間日帝의쇠사슬밑에서
우리의國土는衰盡하였고經濟와
文化는完全히退化와逆行을하였
으며民族性은卑屈과陋劣로서奴
隸가되여 그狀態로압으로數年
을經過한다면固有한우리文化도
民族性도最後一分까지약탈되었
을것입니다 하나 오날에있어
서는빼았긴文化를復興식히고蹂
躪되었든民族性을바로잡기爲하
야 三千萬同胞들은自己의力量
에따라 才幹으로技術로財物로
힘으로建國에總突進을하고있음
니다 멀지않니 우리의政府는
樹立될것이고따라서一時的現象
인모-든混亂과錯綜도完全히淸
掃되여새봄을마지하는明朗과希
望이우리의疆土에充溢할것을確
信합니다 濟州島人民委員會는
解放直後三十萬島民의總意에依
하야各層各界의民主々義者로서
選出組織되여 島內治安의任에
當하였고經濟 文化建設에貢獻
을하며政治的으로는民主々義的
意識啓蒙에主力을다하여國際路
線에符合식히는等 압으로樹立
되는臨時政府의母體의一環으로
서不撓의血鬪을敢行하고있음니
다
今般本委員會財政部長姜才景氏
를貴地에派遣하여島內狀勢를披
瀝하는同時 同鄕人士들의活動
狀況과實情을把握하여 建國의
一助에供할企圖이오나多大한援
護와鞭撻이있기를敬願하야마지
않습니다
一九四六年四月二十日
濟州島人民委員會
委員長 吳 大 進

대중신문(大衆新聞) 1949년 2월 5일

남조선 인민학살 반대 인민대회

남조선 인민학살 반대 인민대회
인민도살 반대 구국투쟁의 봉화
이승만 괴뢰정부의 초토 만행에
희생된 해방전사 추도 인민대회
조련(朝聯) 대판 생야(生野)지부 선편(先鞭)!

작년 5월 10일의 남조선 단선과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야 이러난 세칭 4·3투쟁 이후 남조선 일대에는 건설적으로 인민항쟁이 계속되여 이승만 괴뢰정부의 가진 악독한 압살정책에도 불구하고 점점 집중화의 일로(一路)를 거러왔고 특히 제주도에서는 5·10단선을 철저이 저지하고 남북조선을 통한 8·25총선거를 승리적으로 수행하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에 대한 기초를 닥가왔는대 10월 19일 여수를 중심으로 한 소위 국군반란을 계기로 하야 이승만 매국노 도당은 소위 계엄령을 내고 천인공노할 인민의 무차별 도살을 자행하고 있음은 이미 세인이 다 아는 바이다. 최근 이승만 괴뢰정부의 학살행위는 날로 포악성을 거듭하야 제주도 등지에서는 살인 방화 폭행 등 전도가 갱토(坑土)로 화하고 인민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살육의 고통 속에 생사를 모르는 지경이라는데 이것은 소위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시찰 보고에서만 보아도 전도 인구의 4%가 도살당하고 전 가옥의 12%가 소실되었다 하니 그 얼마나 처참한 현상임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참상을 전하야 듯는 재류동포들은 각각 자기 고향의 안위에 마음을 졸흐리고 있음은 누구나 다름이 없는 바이나 지난 1월 3일 제주도 대정면 출신 동포들 사이에는 자연발생적으로 「인민을 위하야 싸워서 죽은 동무의 영」을 추도하는 추도회가 열이였다. 이것이 단서가 되여 동도(同島) 각 구역 - 화북 조천 북촌 신촌 함덕 한림 삼양 구좌 등 각 부락부락의 동포들 사이에서 뒤를 이어 추도회가 개최되고 이승만 괴뢰정권의 포악한 인민 도살에 대하야 한없는 분노의 피를 끌이고 오든 중 금반 생야(生野)지부에서는 이러한 동포들의 애국열과 악독한 반동의 흉수에 니?진 희생 전사의 추도회는 오직 일지역적인 것에 한할 것이 아니라 전 동포들의 누구나 한가지로 늣기는 문제이며 반다시 전 동포의 문제로써 취급하여야 될 것이라는 취지하에 상임위원회에서 누차 논의를 거듭하야 오다가 지난 1월 25일 조련(朝聯) 생야(生野)지부 민청(民靑) 여동(女同) 합동 확대집행위원회에서 의제로 상정 토의한 결과 래(來) 2월 6일에 「구국투쟁 희생전사 추도 인민대회」 조련(朝聯) 동부(東部)소학교 운동장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전국 조직에 선편(先鞭)을 드러 준비위원 25명을 선정하야 제반 준비에 착수하였다 한다. 이 추도회는 지난 12월 중순부터 전국적으로 행하야오든 남조선 인민학살 반대 서명 운동과 결부하야

일대 민족운동으로 발전시킬 첫 봉화가 되리라고 하며 이에 대하야 조련 생야(生野)지부 위원장 강원범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人民屠殺反對救國斗爭의烽火

李承晩傀儡政府의焦土蠻行에

犧牲된解放戰士追悼人民大會

朝聯大阪生野支部先鞭!

南朝鮮人民虐殺反對人民大會

1949年3月5日(土)

新聞

大衆

대중신문(大衆新聞) 1949년 2월 5일

국제 반동 모략 분쇄 일대 민족운동으로

국제 반동 모략 분쇄
일대 민족운동으로
세계 인민세력에 호소

제주도 출신 동무들의 자연발생적 운동에 맷긴 것은 우리들이 벌서 취급할 문제를 방임하야 시기를 잃은 감이 있다. 남조선 동포들의 처참한 상황은 해방신문이나 조련중앙시보 해방통신을 통하야 일반이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피에 주린 ○○귀 이승만 괴뢰정부 놈들의 만행은 말만 들려도 이가 갈니고 몸이 떨닌다. 1907년에 매국노 이완용 도배가 우리나라를 팔아먹을여고 할 때에도 전국에서 동포들이 의병을 일으키어 놈들과 싸워서 죽은 열사들은 1만6천7백여 인에 달하야 우리 민족의 분격은 지금도 역적 이완용의 일음과 함께 우리들의 원한을 새롭게 하여 왔으며 3·1운동 당시에도 주근 사람은 수천인에 불과하였거늘 우리 민족이 해방되고 민주주의를 운운하는 오날에 있어서 남조선 일대의 ○○은 제주도만도 그들의 공식 숫자만 9천5백3십9인이나 되며 최근의 여수 순천 지역에만 하여도 실로 3만5천8백6십4명의 시체가 거(去) 12월말까지에 처분되였다 하며 방화 폭행 등 온갓 야만행동을 다하야 부녀 아동들까지 학살한다니 이것이 조선 민족으로써 참을 수가 있겠는가. 이승만 도당 놈들은 외래 세력에 아부하야 민주주의니 자유니 하는 일음으로 인민을 죽이고 가옥을 불살으고 물품을 약탈하고 가지각색의 포악무도한 야만행동을 맘대로 하고 있는대 이러케하여도 국련(國聯)에서는 「조선 인민의 대표정권이라」고 하여 위원단을 파견한다느니 「승인」을 운운하니 우리는 이게 무슨 되지 못한 수작인지 몰으겟다. 우리들은 이제 우리 민족의 벗과 적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에게 예속과 족엄을 강요하는 자와 그 세력을 용서할 수 없다. 해외에 있는 우리는 이와 같은 본국 동포의 참상과 국○반동의 모략을 일대 민족운동으로서 세계 인민세력에 호소하며 본국 동포를 격려하여 또 직접 일본 반동세력과의 싸움에 동포들을 결집시켜야 하겟다.

이번 추도회를 가지게 되는 것도 단지 희생전사의 추도 그것이 최종 목적이어서는 않될 것이며 그것은 일 구역에 국한하여서도 않될 것으로 실로 자연발생적으로 일 구역에서 이러난 우리의 부르지즘을 전 대판(大阪)적으로 전 일본적으로 요원의 불길과 같이 이르켜야 할 것이다. 그래서 매국노 집당(集黨)인 대한민국 괴뢰정부를 조각조각이 뿌서버리고 역적놈을 철저이 단죄하며 인민공화국의 기빨 아래 우리 민족과 국토를 완정(完整)할 때까지 싸워야 할 것이다. 이제 이 순간에도 수천만 동포가 도살당하고 있을 것이니 재류동포는 시기를 일치말고 급속 분기하야 일대 구국투쟁으로 나가기를 요망하는 바이다.

國際反動謀略紛碎
一大民族運動으로
世界人民勢力에呼訴

제주도 인민항쟁부대 각 경찰지서를 습격

제주도 인민항쟁부대 각 경찰지서를 습격

(평양 1일 발 방송)
이승만 정부를 반대하는 남조선 무장항쟁은 망국 괴뢰정부를 타도하는 ○○한 투쟁을 전개하고 잇는대 제주도 인민무장부대는 16·7 양일간에 격렬한 전투를 전개하엿는대 표선면 표선리 경찰지서를 습격하고 인민군을 토벌하기 위하야 산중에 집결하고 잇는 소위 국방군을 포위 공격을 가하엿고 한편 16일 대정면 경찰지서에서는 인민부대를 토벌하겟다고 출동한 경찰부대는 노상에서 인민군을 맛나서 전멸되었다. 이와 동시에 인민부대는 모슬포를 습격하야 테로단과 악질분자를 숙청하였으며 15일 표선면 세리(※세화리)에서도 악질분자와 테로단을 숙청하였다. 21일에는 애월면 곽지리를 습격하고 악질지주 4명과 테로단 5명을 숙청하고 경관과 테로단 3명을 포로하고 대청과 한민당사무소를 전소시켰다. 그리고 애월면 하가리에서도 인민무장부대는 한민당과 대청 사무소에 불부치고 이에 대항할려는 경찰부대를 추격하야 이를 도주케 하였다.

濟州島人民抗爭部隊
各警察支署를襲擊

민보단을 선두에 세워 자기의 피해를 방지하는 이(李) 정부 제주도 경찰

민보단을 선두에 세워
자기의 피해를 방지하는
이(李) 정부 제주도 경찰

(평양 7일 발 중앙) 미군 철거를 요구하고 이승만 괴뢰정부를 반대하는 제주도 인민들의 무장항쟁은 계속하여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나산록 녹림지대에서는 1월 하순 이래 무장 인민들과 토벌에 출몰하는 괴뢰정부 경찰과의 사이에 연일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고 있다 한다. 더욱 지난 27일에는 안덕면 일대에서 맹렬한 전투가 있었는대 동 전투에서 많은 피해를 당한 경찰들은 보복적으로 수십 호의 민가옥 대량의 식량을 방화 소각하는 초토(焦土)작전을 감행하였다 한다. 31일에는 제주읍 노형리 부근 산악지대에서 격전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경찰은 민가로부터 다량의 물품을 탈취하여 소각하는 잔인한 행동을 취하였다 한다. 한편 소식에 의하면 애월면 금덕리 부근과 한림면 일대에서도 괴뢰정부 경찰들은 민보단(民保團) 학련(學聯) 등의 강제 반동조직 등을 통하야 일반 청년 학생들을 일제 동원하고 이를 전투의 최선두에 새움으로서 인민무장대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잔악한 수단을 취하였다 한다. 이승만 괴뢰정부 경찰은 이러한 수단을 광범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더욱 중문리 방면 전투에서는 이를 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로서 그들은 자체의 손실을 막아내고 민중을 다량으로 살해함과 동시에 무장 인민들과 도내 일반 인민의 단결을 파괴할여는 양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民保團을先頭에세워
自己의被害를防止하는
李政府濟州島警察

(平壤七日發中央) 米軍撤去를要求하고 李承晩傀儡政府를反對하는 濟州島人民들의武裝抗爭은 계속하여熾烈하게展開되고있다漢나山록 綠林地帶에서는一月下旬以來 武裝人民들과 討伐에出沒하는괴뢰政府警察과의 사이에連日熾烈한戰鬪가 展開되고있다한다 더욱 지난二十七日에는安德面 一帶에서猛烈한戰鬪가있었는데동戰鬪에서 당은 被害를當한경찰들은 報復的으로數十戶의民家를 대量의食糧을防火燒却하는 焦土作戰을敢行하였다한다 三十一日에는濟州邑老衡里附近山岳地帶에서激戰이있었는데 여기서도警察은民家로부터 多量의物品을奪取하여燒却하는殘忍한行動을取하였다한다 한편消息에依하면涯月面今德里附近과 翰林面一帶에서도괴뢰政府警察들은民保團學聯等의强制反動組織等을通하야一般青年學生들을 動員하고 이를戰鬪의 最先頭에세움으로서人民武裝隊들의攻擊을막아내는 殘惡한手段을取하였다한다 李承晩괴뢰政府警察은이러한手段을廣泛하게利用하고있으며 더욱 中文里方面戰鬪에서는 이를全的으로使用하고있다 이로서 그들은自体의 損失을막아내고 民衆을 多量으로殺害함과同時에 武裝人民들과 島內一般人民의團結을破壞할여는 兩面手段으로利用하고있다

대중신문(大衆新聞) 1949년 2월 10일

추도 인민대회(대판)

추도 인민대회(대판)
6개조의 대회선언을 채택하고
구국투쟁을 전국에 호소

6일 11시 기보(旣報)한 바와 가치 구국투쟁 희생자 추도 생야(生野) 인민대회는 조련(朝聯) 동부(東部)소학교 운동장에서 재류동포 5천여명 참가 하에 엄숙히 개최되었다. 연맹중총(聯盟中總) 원용덕 씨를 비롯한 각계 대표의 추도문과 추도사가 있었고 대회는 다만 추도하기 위한 추도회가 아니고 애국인민을 학살하는 이승만 김성수 이범석 도당의 괴뢰 매국정권을 타도하고 이 도당의 주구로서 동포의 생활권을 위협하는 건청 민단을 철저히 분쇄할 것을 결의하고 난동(暖冬) 이변인 춘 바람이 부러오는대도 불구하고 노인 부인 어리니 할 것 없이 최후까지 질서정연히 시위행렬까지 참가하였다.
오후 2시반 동부학교 광장을 떠난 행렬은 삼조통(三條通)으로 소개도로(疏開道路) 승산통(勝山通)으로 또 삼조통을 도라서 4시경 전도(田島)소학교에서 해산하였는대 동 대회의 선언은 여좌하며 전국 동포의 분기(奮起)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선언문(요지)

1. 1948년 5월 10일의 남조선 단독선거는 전 민족의 반대를 무시하야 날조된 것을 강조하며 그 선거에 입각한 소위 대한민국은 조선민족의 의사를 무시한 일개의 외래세력의 괴뢰정권임을 확인하야 이에 대한 철저한 반대와 타도를 위하야 최후까지 싸운다.
2. 대한민국의 일홈으로 발(發)한 여하한 법령 조약도 이는 조선민족의 본의를 무시한 것임으로 이들 법령 급 조약은 무효이며 그를 토대로 한 모-든 시책의 분쇄를 위하야 철저히 싸운다.
3. 매국노 괴뢰정권의 인민 학살을 절대 반대하며 구국투쟁에 분투하는 조국의 애국자와 일본에 있어서의 모든 희생자들을 고무 격려하며 그의 구호에 대하여 가능한 일체의 활동을 전개한다.
4. 북부조선에서 쏘련 군대가 1948년 12월 26일에 완전히 철거한 것을 확인하고 남조선에 진주하고 있는 미국 군대가 계속 주둔할 필요가 소멸되었음을 강조하며 그의 즉시 철거를 강력히 요구한다.

第三種郵便物認可 大衆新聞 (購讀料 月50圓)

追悼人民大會 (大阪)

六個條의 大會宣言을 採擇하고 救國斗爭을 全國에 呼訴

六日十一時既報한바와가치救國鬪爭犧牲者追悼生野人民大會는朝聯東部小學校運動場에서在留同胞五千余名參加下에嚴肅히開催되였다 聯盟中總元容德氏을비롯한各界代表의追悼文 과追悼辭가있었고大會는다만追悼하기爲한追悼會가아니고 愛國人民을虐殺하는 李承晩徐性洙李範奭徒黨이가지實國政權을打倒하고 이徒黨의走狗로서同胞의生活權을威脅하는綜青民團을徹底히粉碎할것을結議하고 暖多與變인준바람이부러오는데도不拘하고老人 婦人어린이할것없이最後까지秩序整然히示威行列까지參加하였다

午后二時半東部學校廣場을떠난行列은三條通으로疏開道路勝山通으로또三條通을도라서四時頃田島小學校에서解散하였는데同大會의宣言은如左하며 全國同胞의奮起를要請하는呼訴文을發表하였다

宣文言(要旨)

一 一九四八年五月十日의南朝鮮單獨選擧는全民族의反對를無視하야捏造된것을强調하며 그選擧에立脚한所謂大韓民國은朝鮮民族의意思를無視한一介의外來勢力의괴뢰政權임을確認하야 이에對한徹底한反對와打倒를爲하야最后까지싸운다

二 大韓民國의일홈으로發한如何한法令條約도이는朝鮮民族의本意를無視한것임으로 이들法令及條約은無効이며 그를土台로한 모-든施策의粉碎를爲하야徹底히싸운다

三 賣國奴괴뢰政權의人民虐殺을絶對反對하며救國鬪爭에奮鬪하는祖國의愛國者와日本에있서의모든犧牲者들을鼓舞激勵하며 그의救護에對하여可能한一切의活動을展開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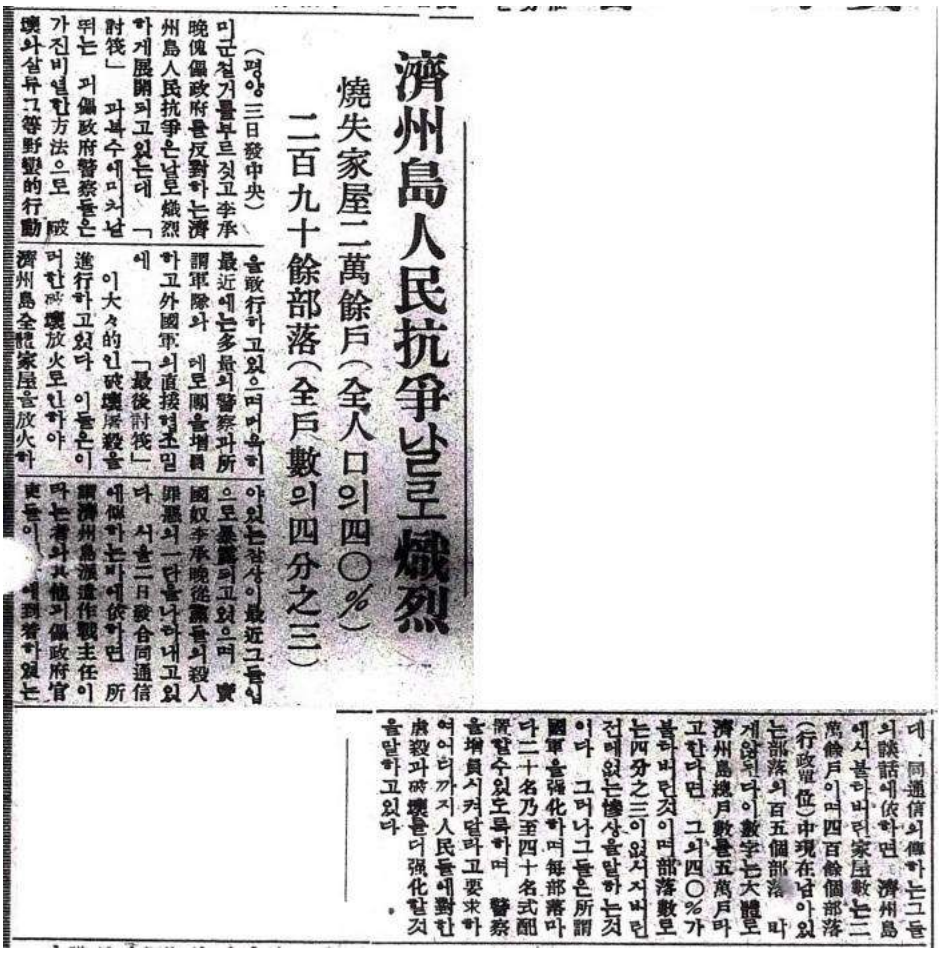
四 北部朝鮮에서 쏘련軍隊가一九四八年十二月二十六日에完全히撤去한것을確認하고南朝鮮에進駐하고있는米國軍隊가繼續駐屯할必要가消滅되였음을强調하며그의即時撤去를强力히要求한다

대중신문(大衆新聞) 1949년 3월 6일

제주도 인민항쟁 날로 치열

제주도 인민항쟁 날로 치열
소실 가옥 2만여호(전 인구의 40%)
290여 부락(전 호수의 4분지 3)

(평양 3일 발 중앙) 미군 철거를 부르짖고 이승만 괴뢰정부를 반대하는 제주도 인민항쟁은 날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토벌」과 복수에 미처 날뛰는 괴뢰정부 경찰들은 가진 비열한 방법으로 파괴와 살육 등 야만적 행동을 감행하고 있으며 더욱히 최근에는 다량의 경찰과 소위 군대와 테로단을 증원하고 외국군의 직접 협조 밑에 「최후 토벌」이 대대적인 파괴 도살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파괴 방화로 인하야 제주도 전체 가옥을 방화하야 있는 참상이 최근 그들 입으로 폭로되고 있으며 매국노 이승만 도당들의 살인죄악의 일단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 2일 발 합동통신에 전하는 바에 의하면 소위 제주도 파견 작전 주임이라는 자와 기타의 괴뢰정부 관리들이 제주에 도착하였는데 동 통신의 전하는 그들의 담화에 의하면 제주도에서 불타버린 가옥 수는 2만여 호이며 4백여개 부락(행정단위) 중 현재 남아 있는 부락의 백5개 부락박게 않된다. 이 숫자는 대체로 제주도 총 호수를 5만 호라고 한다면 그의 40%가 불타버린 것이며 부락 수로는 4분지 3이 없서저버린 전례 없는 참상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소위 국군을 강화하며 매 부락마다 20명 내지 40명식 배치할 수 있도록 하며 경찰을 증원시켜 달라고 요구하여 어디까지 인민들에 대한 학살과 파괴를 더 강화할 것을 말하고 있다.



濟州島人民抗爭날로熾烈

燒失家屋二萬餘戶(全人口의四〇%)

二百九十餘部落(全戶數의四分之三)

(평양三日發中央)

미군철거를부르짖고李承晩傀儡政府를反對하는濟州島人民抗爭은날로熾烈하게展開되고있는데 「討筏」 과복수에미처날뛰는 괴儡政府警察들은 가진비열한方法으로 破壞와살류그等野蠻的行動을敢行하고있으며 더욱히 最近에는多量의警察과所謂軍隊와 테로團을增員하고外國軍의直接협조밑에 「最後討筏」 이大々的인破壞屠殺을進行하고있다 이들은이러한破壞放火로인하야 濟州島全體家屋을放火하야있는참상이最近그들입으로暴露되고있으며 賣國奴李承晩從黨들의殺人罪惡의一단을나타내고있다 서울二日發合同通信에傳하는바에依하면 所謂濟州島派遣作戰主任이라는者와其他괴儡政府官吏들이 [illegible]에到着하였는데 同通信의傳하는그들의談話에依하면 濟州島에서불타버린家屋數는二萬餘戶이며四百餘個部落(行政單位)中現在남아있는部落의百五個部落 바게않된다이數字는大體로 濟州島總戶數를五萬戶라고한다면 그의四〇%가불타버린것이며部落數로는四分之三이없서지버린전례없는慘상을말하는것이다 그러나그들은所謂國軍을强化하며每部落마다二十名乃至四十名式配置할수있도록하며 警察을增員시켜달라고要求하여어디까지人民들에對한虐殺과破壞를더强化할것을말하고있다

반민(反民) 제주지부 개설

반민(反民) 제주지부 개설

(서울 2일 방송) 반민특위 제주지부에서는 그동안 특위 중앙사무국에 의한 사무를 진행하여 오던 중 지금까지 작성한 반민자 명부에 의하면 90여명에 달할 것이라 한다.

反民濟州支部開設
(서울二日放送) 反民特委 濟州支部에서는 그동안 特委中央事務局에依한事務를進行하여오던중 至今까지作成한 反民者名簿에依하면 九〇餘명에달할것이라한다

대중신문(大衆新聞) 1949년 3월 6일

사설 : 재일조선민청 결성 2주년 기념

사설
재일조선민청 결성 2주년 기념
전국대회의 의의와 청년의 임무

과거 3년간의 재일본조선민주청년동맹의 발전은 거대한 족적을 남기었다. 조국의 구국투쟁과 민주건설 사업에 있어서 남북조선민청의 인민을 위한 영웅적 투쟁을 찬양함과 동시에 재일본조선민청이 조국의 청년에 호응하야 재류동포의 정치적 자각을 높이고 조련(朝聯)에 총력을 결집하야 민주주의민족전선을 확대 강화하고 민족문화를 직히고 그것을 발전식히는 대다한 노력과 재류동포의 생활권 방위 투쟁에 있어서 교육투쟁에 있어서의 모여진 영웅적 투쟁을 높히 평가하지 안흘 수 없다.
이제 민청 결성 2주년을 제회(際會)하고 특히 대판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더욱 의의가 크다고 본다.
조국의 정세는 우리가 갈망하든 통일국가의 수립이 목전에 절박함을 말하고 있다.
북반부에 있어서는 민주개혁과 민주건설 사업의 발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조선 인민의 갈 방향을 명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인민군대의 수호 밋헤 승리의 선물을 직히고 그것을 견고캐 하고 발전식힘과 동시에 공화국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토대을 싸는 건국운동을 전개하야 인민경제계획이 초과 달성을 목표하야 인민의 승리를 기록하면서 있다.
반면에 남조선 인민은 가혹한 탄압과 학살이 나날이 심하여저가는 조건하에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기을 놉이 들고 남조선의 이승만 괴뢰정권을 분쇄하는 인민항쟁을 전개하면서 있다. 제주도 인민군을 선두로 여수 순천 구례 대구 포항 오대산 태백산 지리산 급 남조선 전역에 버러지는 인민항쟁과 국방군의 반란 등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수하고 국토의 안정을 도(圖)하야 조국의 독립을 직히고 민족의 멸망을 막으려는 조선 인민의 거룩한 결의을 표명하는 것이다.
이러케 남북조선의 정세는 각가운 장래에 완전 자주독립국가의 전취을 가능케 하는 기초와 제 조건이 구비케 된 것이다.
조국 청년들은 인민공화국과 그 헌법을 수호하는 사업과 민주주의 건설에 가장 선봉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그 애국적 순정과 헌신적인 행동은 민족의 정화이며 건국에 꼿다운 초석을 이루우고 있다.
이런 정세하에 청년의 임무는 더욱 크다.
일본의 제국주의 ○○○○ 금회의 총선거○○○○○ 그 세력이 수습 ○○○○ 완료하고 과반수 ○○의 ○회 내 세력을 이용○○ 일본의 민주화를 막○ 또다시 일본을 침략국가로

서 재편성하려고 하면서 있다.
헌법의 개정과 노동법의 개악 비일활동위원회(非日活動委員會)의 조직 등으로서 그 독아(毒牙)를 나타내면서 있고 경찰력의 강화로서 비무장의 약점을 보충하면서 있다.
일본이 침략국가로서의 재편성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위협이며 동아의 평화를 교란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우리 조선 인민은 이에 큰 경각심을 높히지 안흐면 안되며 일본의 민주세력을 원조하고 공동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호가 되는 것이다.
특히 재류동포의 생활권을 박탈하기 위하야 외국인재산취득정령(政令)의 적용 등을 책(策)하고 불법탄압을 강행함으로서 재류동포의 범죄를 날조하고 밀무역 밀입국 등의 과대선전으로서 경찰력의 강화를 도(圖)하는 등 온갓 중상 모략과 심지어 악법률을 제정함으로서 공공연히 재류동포를 박해하면서 있다.
여사(如斯)한 조건하에 노혀 있는 재류동포의 문제는 실로 청년으로 하여금 더욱 굳은 결심과 각오가 요청되는 바이다.
재일본조선민청의 과업은 이중 삼중적으로 부담이 크다.
첫제 조국의 구국투쟁을 원조하여야 하며 둘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청년으로서의 임무를 다하여야 하며 셋제 재류동포의 생활권을 방위하는 투쟁의 선봉적 역할을 다하지 안해서는 안된다.
여기에서
첫제 조국의 구국투쟁은 이승만 괴뢰정권을 분쇄하는 투쟁을 조직하여야 하며 재일건청(在日建靑) 민단(民團)의 반동단체에 대한 투쟁을 적극 전개함과 동시에 민청과 조련(朝聯)의 조직을 강화하고 민전(民戰)의 확대를 도(圖)하여야 한다.
둘제 재일조련은 투쟁조직임과 동시에 조선인의 자치기관이다. 조련을 통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청년으로서 임무를 다하여야 한다. 김일성 수상의 연두사에 청년과 학생에게 준 말은 앞흐로의 재일민전 사업의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안해서는 안된다.
「선진국의 과학과 기술을 습득하고 연마함과 동시에 조국과 인민에 충실한 애국적 민주사상으로서 무장하고 훌늉한 민족간부가 되고 조국의 주인공이 되지 안흐면 안된다.」
민족간부의 양성이 민청의 주요한 사업임을 잊어서는 안되며 성인교육 문맹퇴치 등은 중요한 사업임을 인식하지 안해서는 안된다.
셋제 일본의 반동세력에 대한 투쟁을 일본 민주세력과 공동투쟁함으로서 민족문화를 직히고 재류동포의 생활권을 방위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초를 견고히 하여야 한다.
여사한 곤란한 환경과 허다한 과업에 대해서 헌신적인 투쟁을 전개해 온 민청 동무들에게 인민적 경의와 동지적 악수를 올님과 동시에 판신(阪神) 지방에 중앙기관을 이전하고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데 대해서 끝으로 두어 마디 요청코저 한다.
판신(阪神) 지방은 재류동포의 밀집지대임과 동시에 허다한 재류동포의 문제는 여기에서 발단을 보게 되는 중추신경이다.
특히 재류동포에 대한 일본 반동내각의 강압이 반다시 판신 지방에서 발단을 보게 되는 것은 교육투쟁만 보아도 적이 가장 적극적이며 총역량을 집중한 것이 판신 지방이다. 더욱 외국인재산취득령의 적용이 미치는 영향을 보아서도 조선인의 생활권이 극도로 파괴될

것은 판신 지방이다.
판신 지방은 직업별로도 중소상공업자가 많으며 영향도 또한 클 뿐 안이라 이해가 가장 큰 판신 지방의 동포가 적극적으로 이 투쟁에 궐기하지 안해서는 안된다.
이 대회를 기회로 판신 지방 투쟁조직에 민청의 전 역량을 경주하고 승리의 기초인 주체적 조건의 확립을 도(圖)하고 중소상공업자를 조련에도 포섭하도록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社說

在日朝鮮民靑結成二週年記念

全國大會의 意義와 靑年의 任務

대중신문(大衆新聞) **1949년 3월 20일**

사설 : 상업신문의 허위보도에 경각심을 높이라

사설
상업신문의 허위보도에 경각심을 높이라

(이전 생략)
3월 17일부 석간 대판신문 제1면에 보면 「제주도의 공산당 테로」라는 기사가 크게 취급되고 있는데 기사에는 제주도를 탈출한 동도 재주(在住)의 3유력자는 15일 경성에서 「동도 6만5천의 주민은 공산당의 테로에 의하야 가옥과 식량에 결핍하고 있다」고 말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공산당원은 작년 이래 2만 호의 가옥과 34개의 학교를 소각하고 14의 정부 건물을 파괴하고 제주도 30만 인구 중 공산당원은 3백명 그의 동정자가 약 1만5천명이라고 기재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얼마나 무책임한 허위보도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으나 일본 인민대중에게 이러케 선전함으로서 전자의 목적을 달성시킬여는 것이다.
우리는 또 한 번 이 신문의 의도를 구명하여 볼 필요가 있다.
공산당 운운이라는데 현재 조선에 공산당이 있는가. 제주도를 탈출한 유력자이라면 조선에는 1946년 11월 23일에 공산당 인민당 신민당의 3당 합동으로 남조선노동당이 되였다는 사실을 몰을이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공산당원 300명이 2만호의 가옥을 소실시켯다고 말하고 있는데 적어도 2만호라면 제주도 총 호수 5만호의 40%나 되는데 이는 상식으로 판단하여도 그네들의 얼토당토않은 보도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그러면 그녀들의 의도는 내변(奈邊)에 있는가.
첫제 이(李) 정부의 악독한 만행을 합리화할여는 데 있다.
서울 2일 발 합동통신에서 전하여 온 그들의 담화 즉 제주도에서 불타버린 가옥 수는 2만여호(5만여호 중)이며 4백여개 부락 중 현재 남어있는 부락이 105개 부락박게 않된다는 전례 없는 참상을 음폐하고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것이다.
둘제 공산당 테로라는 반공의 유일한 상투 수단으로 민주세력을 억압하고 대중을 분리시키고 민족의 빛나는 독립을 방기하고 나라를 팔이랴는데 목적이 있으나 일체의 일상 투쟁을 통하야 인민의 나날이 성장하고 체험하고 있고 사태의 발전에 따라 반공 세력의 쇠퇴약하고 있는 것은 아모리 매일의 상업신문이 모든 데마를 한다드래도 움지길 수 없는 세계적 사실이다.
지금 우리 조국의 남반부 전역에 버러지고 있는 인민항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수하고 국토를 완정시켜 조국의 독립을 지키고 민족의 멸망을 막으려는 조선 인민의 거룩한 구국투쟁임을 또 한 번 잘 알고 확고한 신념 밑에 이와 같은 허위 보도에 대한 경각성을 높히며 그의 반동성과 음모를 분쇄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社說

商業新聞의虛僞報道에 警覺心을높이라

新聞을自由로發行할수있고 모든사람들이集團이 活潑히 때때에이러나는 問題를正確히人民大衆에게 아리킬수있느냐 없느냐하는데서 그나라의 民主主義發展의程度를알수있는것이다

現在新聞은人民大衆에對하야없어서는않될存在이다 그는現代生活에뿌리를심고있기때문에 반다시新聞은必要한것이다 이것은알기爲한 基本的人人權이하나이다 그러나알기爲한權利라는것은 말할수있는權利가 곳말하자면 言論이自由가結付되는데서만이 말하기爲한權利가保持되는것이다

그러나新聞이人民大衆에게주는影響은大端이크다 資本主義가高度로發展하야 獨占의段階가進行됨에따라 新聞의獨占의段階에따라가는傾向에있고 小新聞이大新聞에게買收되고있는現狀이다

이는모든階級의意思를自由로發言할수없고 다만獨占資本의走狗가되어 人民大衆을獨占資本家의意圖하는方向으로이끄러가고 過去聖戰이란 美名下에侵略戰爭을敢行하야 人民大衆에게는 每日과같이戰鬪에이겼다는虛僞報道에依하야 日本人民들을敗戰의窮地에呻吟시키고있는事[illegible]實히證明하고있다

이는日本의팟쇼化와世界的인一部의反動的인獨占資本에依한 帝國主義戰爭準備에步調를마추는데있다 特히全世界의民主勢力은 나날이成長强大하여가고 中國에서의迅速하고 廣汎한民主主義勢力이發展하는狀態에이르러서는 온갖手段을다하여 最後의發惡을다하고있는것을能히상상할수있다

三月十七日付夕刊大阪新聞第一面에보면「濟州島의共産黨테로」라는記事가크게取扱되고있는데 記事에는濟州島를脫出한同島在住의三有力者는 十五日京城에서「同島六萬五千의住民은共産黨의테로에依하야家屋과食糧에欠乏하고있다」고말하[illegible]發表하였다

그리고共産黨員은昨年以來二萬戶의家屋과 三十四個의學校를燒却하고 十四의政府建物을破壞하고 濟州島三十萬人口中 共産黨員은三百名 그의同情者가約一萬五千名이라고記載되고있는것을볼때 그얼마나無責任한虛僞報道임을 우리는잘알수있으나 日本人民大衆에게이러케宣傳함으로서 前者의目的을達成시킬여는것이다

우리는또한번 이新聞의意圖를 究明하여볼必要가있다

共産黨云々이라는데現在朝鮮에共産黨이있는가 濟州島를脫出한有力者이라면朝鮮에는一・九四六年十一月二十三日에共産黨人民黨 新民黨의三黨合同으로南朝鮮勞働黨이되였다는事實을몰을이가없을것이다

그리고共産黨員三百名이二萬戶의家屋을燒失시켰다고말하고있는데 적어도二萬戶라면濟州島總戶數五萬戶의四〇%나되는데 이는常識으로判斷하여도 그네들의 열로당도않은報道이라는것을잘알수있다

그러면 그네들의意圖는奈邊에있는가 첫제 李政府의惡辣한蠻行을合理化할여는데있다

서울二日發合同通信에서傳하여온그들의談話即濟州島에서 불타버린家屋數는二萬餘戶(五萬餘戶中)이며 四百餘個部落中現在남어있는部落이百五個部落바께않진다는前例없는慘狀을 陰慘하고責任을轉嫁시키려는것이다 둘제 共産黨테로라는反共의唯一한常套手段으로民主勢力을抑壓하고大衆을分離시키고 民族의빛나는獨立을放棄하고 나라를팔이마는데目的이있으나 一切의日常鬪爭을通하야 人民의나날이成長하고 體驗하고있고 事態의發展에따라反共세력의衰退弱하고있는것은아모리每日의商業新聞이모든데마를한다드래도이는숨길수없는世界的事實이다

지금우리祖國의南半部全域에버러지고있는人民抗爭은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을死守하고 國土를完整시켜 祖國의獨立을지키고 民族의滅亡을막으려는朝鮮人民의거룩한救國鬪爭임을 또한번잘알고 確固한信念밑에이와같은虛僞報道에對한警覺性을높히며 그의反動性과陰謀를粉碎하지않으면、안된다

인민군 대책에 피로 곤비(困憊)하는 이(李) 정부 국군

인민군 대책에 피로 곤비(困憊)하는 이(李) 정부 국군

(서울 14일 발 합동=건설) 한국 육군 총참모장 이응준 소장은 제주도 급 호남지구의 「폭동토벌」 강행에 대해서 14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했다.

군 당국은 제주도와 호남지구의 군부 진용을 강화하고 일대 소탕작전을 강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작년도의 4·3사건 이래 호남지방은 작년 여수사건 이래 반란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폭도를 지금까지 섬멸하지 못한 데 대하여 일반은 적지 않은 의혹을 갖고 있는 모양이나마 이것은 폭도들이 게리라 전술를 이용하고 있는 관계상 그 섬멸을 기한다는 것은 특히 지난(至難)한 것이다. 게리라 작전의 기본 원칙은 「적진아퇴(敵進我退)」 「적퇴아진(敵退我進)」 「적주아속(敵躊駐續)」 「적피아타(敵避我打)」이다. 그럼으로 이것을 섬멸함에는 일반의 협력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은 재언을 요치 않은다.

일반 민중은 적의 행동을 신속히 군경 당국에 보고함과 동시에 군의 행동을 절대로 적측에 알려서는 안 된다. 또 식량 의류 기타의 편의를 폭도 측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 민중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군 측의 비행을 엄중히 취체하고 행정관청 급 민족진영의 민중조직 계몽운동 선무공작 이재민의 구호대책 등이 긴급 조건이다. 고로 현 작전지구의 관공리은 이상의 요지에 빛우워 군의 행동에 절대 협력해서 제주도 급 호남 지구를 하루 밥비 평정해서 도탄에 신음하는 지방 주민을 구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人民軍對策에
疲勞困憊하는
李政府國軍

4·3투쟁 이후 (제주도)

4·3투쟁 이후 (제주도)
남원 북촌 동복 서귀포만 하여도
1만6천1백77호 소실(燒失)

이전 제주도를 시찰한 이(李) 정부 국회의원 주기용 씨는 제주도의 실상을 다음과 가치 말하였다.

(1) 제주도는 해방직후 인민공화국으로서 발전하였고 조선의 작전기지 급 사상전략의 중요 거점으로 모략과 선전 공격을 계속하여 왔기 때문에 제주도의 사태 수습을 일 지역의 문제 해결로서 취급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제주도의 수습은 전국적 사태 수습 중에서도 지중지대(至重至大)의 긴급 문제이다. 그러기 때문에 경찰 수뇌부는 파견군사령부와의 긴밀한 연락하에 전승에 적극 협력하야 민심 수습에 노력하고 있다.

한라산에는 일만이천의 동굴이 있고 자연동굴하고 일본군의 판 호, 게리라전에 숙달한 사럼들이 판 잔호 등 무수의 호가 처처에 산재하고 있다.

그리고 도민은 일본군이 매장하여 놓은 무기를 파서 사용하고 있고 산악지대를 경쾌하게 다니는 폭도의 진압에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2) 남원 북촌 동복 서귀포 등은 4·3사건 후 소실 가옥 16,177호, 인민 사망자 1,193명, 중상자 409명, 이재자 수 86,797명인대 이 이재민들은 식량품이 없기 때문에 해초 산초 등으로 날을 보내고 있고 풀 우에서 기거하고 있다.

(3) 이재민의 주택 건설에 대하야 비행기로 정찰한 바에 의하면 중간지대의 부락은 개무(皆無) 상태이고 농경지 9만 정보의 대부분은 종자를 뿌리지 않기 때문에 식량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난점이 있고 국회의원은 크달한 관심을 갖을 것을 절망(切望)함과 동시에 정부도 여기에 대하야 급속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4) 학교 피해의 내용은 초등학교 45 교실 수 179 중등학교 2 교실 수 11 고 상기 피해액은 4억 6천여원의 방대(尨大)한 금액에 달하고 있다. 금반의 사건에 교사 64명 중등학생 283명이 가담하고 있다 고 말하고 있다 한다.

四·二三鬪爭以後(濟州島)

南元 北村 東福 西歸浦

만 하여도

一萬六千一百七十七戶燒失

한위(韓委) 제주도 시찰

한위(韓委) 제주도 시찰

(서울 5일 발 합동) U·N신한국위원회 제2분위에서는 제주도 진상을 시찰하고 5월 10일 시행되는 국회의원 선거 감시 차로 8일 오후 제주도로 출발하리라 한다.

韓委濟州島 視察

(서울五日發合同) U·N新韓國委員會第二分委에서는 濟州島眞相을視察하고 五月十日施行되는國會議員選擧監視次로 八日午後濟州島로 出發하리라한다

대중신문(大衆新聞) 1949년 5월 22일

사설 :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 결성에 대하야

사설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 결성에 대하야

남조선노동당을 위시하야 8개 정당단체로부터 전국의 정당사회단체에 대하야 조속한 시일에 미군을 철퇴시키고 조국의 완전 자주독립을 위해서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에 총집결할 것을 호소하며 북조선 민전 중앙위원회에 서한이 도착되자 동 중앙위원회는 2차에 걸쳐 신중히 토의를 거듭하고 이를 절대 지지 찬동하고 각계각층의 대표를 선출하야 5월 25일에는 평양특별시에서 제1차 준비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제의하면서 회한(回翰)을 보내였다고 14일 평양방송은 전하여 왔다.

해방 후 4년간에 우리 민족은 조국의 완전 자주독립을 위하야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 정책과 그 주구의 매국멸족 정책에 반대하여 남반부 인민들은 놈들의 대량검거 투옥 학살을 박차고 영웅적인 투쟁을 전개해 왔으며 북반부의 인민들은 민주개혁과 민주건설의 승리의 결과로 완전 자주독립의 초석을 싸왔으며 남반부 인민들에게 크나큰 희망과 자신을 주게 하였다. 38선을 경계로 한 이 두 가지 형태의 싸움은 모다 조국의 완전 자주독립에로의 성전이였다.

이 결과가 작년 8·25 총선거에 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의 역사적 승리를 기록하게 된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은 제국주의 국가 급 그 주구들의 음모와 간책을 여지없이 분쇄하는 우리 민족의 결의의 표시이며 피나는 투쟁의 승리의 기록이다. 해방 후의 조국은 38선을 경계로 한 소미 양군의 각기 진주한 남반부의 인민과 북반부의 인민은 각각이 노여 있는 조건 밑에 그 투쟁 형태도 달렀었다.

남반부 인민은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 정책에 반대하며 그 주구인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소탕하고 민주개혁을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을 창건하기 위한 싸움이였으며 북반부의 인민들은 위대한 쏘련 군대의 지도와 원조 밑에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소탕하여 그들의 부흥을 막고 제반 민주개혁의 철저한 실시와 인민경제 건설이 당면한 목표였다.

이러한 당면한 투쟁조건 속에서 남·북 민전은 인민의 절대한 지지와 피투성의 투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게 된 것이며 이 남·북 민전의 빛나는 승리는 필연적으로 조국 완전통일 민주주의전선으로 발전케되는 결정적인 단계에 돌진된 것이다.

남반부 인민의 결정적 승리가 제주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및 강원도 일대에 해방지구로서 기록되면서 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15차 내각회의는 공화국 남반부의 토지개혁 실시를 위한 법령초안위원를 조직하야 미구(未久)에 토지개혁법을 실시할 각오와 결의를 명시하여 남반부 인민의 승리를 법적으로 보장할여고 하고 있다.

이 토지개혁을 실시하려는 의의는 북반부 인민의 승리가 직접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의 물질적 기초이며 이 위에서 남반부 인민의 가열한 구국투쟁의 최후 승리를 보장할 물질적인 힘을 보지하게 되는 것이다. 남북의 인민은 오로지 외군을 강토 내에서 모라내고 완전 자주독립을 위한 싸움에로 온갖 정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금회의 남반부 토지개혁의 실시와 남북 민전의 통일로서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을 제창하는 것은 가장 시의에 적절한 조치이며 멀지않은 장래에 외군을 철퇴시키고 완전 자주독립 전취하는 정치적 전제임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은 북조선 민전의 민주개혁과 민주건설에 있어서 남조선 민전의 제국주의 및 그 주구의 식민지 정책에 대한 투쟁의 승리의 결정이라면 전자는 건설을 통해서 제국주의 및 그 주구의 준동을 막는 물질적 기초를 쌓음으로서 인민권력을 확립함으로서의 제국주의 및 그 주구에 대한 투쟁이며 후자는 직접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 정책과 그 주구의 망국멸족 정책에 대한 투쟁 즉 이승만 괴뢰정권을 타도하여 인민권력을 새우려는 투쟁이였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남반부의 인민의 혁명적 앙양과 북반부의 인민의 승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과 그의 발전에 있어서 남북통일의 가능한 조건이 완전히 성숙되였다. 남북의 인민은 무엇보다도 국가적 통일을 희망하고 있다.

여기에서 남북 민전의 통일롯서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하는 것은 남북조선 인민의 요구에 수응(酬應)하는 적절한 조치이라고 본다. 이승만 괴뢰전권은 완전히 고립하야 내부로부터 붕괴하면서 있다.

특히 근로인민당 사회민주당 민주독립당 등등의 완전히 이 정권을 반대하야 적 삼고 통일전선에 집결된 것은 의의가 깊다.

한줌도 못되는 이승만 김성수 이범석 신성모 임병목 살인매국도당으로 된 제국주의 주구인 괴뢰정권 타도에 전 조선 인민은 최후의 싸움에로 집결되였다.

3천만이 갈망하든 남·북 통일과 완전 자주독립의 서광은 비추어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빨이 삼천리 강산 방방곡에 휘날리는 날은 닥쳐왔다. 형제들아 일어나서자.

(1949년 5월 20일)

社說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結成에 對하야

南朝鮮勞働黨을爲始하야八個政黨團體로부터 全國의政黨社會團體에對하야 조속한時日에米軍을撤退시키고 祖國의完全自主獨立을爲해서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에 總集結할것을呼訴하며 北朝鮮民戰中央委員會에書翰이到着되자 同中央委員會는二次에걸처愼重히討議를거듭하고 이를絕對支持贊同하고各界各層의代表를選出하야 五月二十五日에는平壤特別市에서第一次準備委員會를開催할것을提議하면서 回翰을보내였다고十四日평양放送은傳하여왔다

解放後四年間에우리民族은祖國의完全自主獨立을爲하야帝國主義國家의殖民地政策과 그走狗의賣國滅族政策에反對하여南半部人民들은 놈들의大量檢擧 投獄 虐殺을박차고英雄的인鬪爭을展開해왔으며 北半部의人民들은民主改革과民主建設의勝利의結果로完全自主獨立의礎石을싸왔으며 南半部人民들에게 크나큰希望과自信을주게하였다

三八線을境界로한 이두가지形態의싸움은 모다祖國의完全自主獨立에로의聖戰이였다

이結果가昨年八·二五總選擧에依한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樹立의歷史的勝利를記錄하게된것이다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樹立은帝國主義國家及그走狗들의陰謀와奸策을餘地없이粉碎하는 우리民族의決意의表示이며피나는鬪爭의勝利의記錄이다

解放後의祖國은三八線을境界로한 蘇米兩軍의各其進駐한南半部의人民과北半部의人民은各各이노여있는條件밑에 그鬪爭形態도달렀였다

南半部人民은帝國主義國家의殖民地政策에反對하며 그走狗인親日派民族反逆者를掃蕩하고民主改革을實施할수있는條件을創建하기爲한싸움이였으며北半部의人民들은偉大한쏘련軍隊의指導와援助밑에親日派民族反逆者를掃蕩하여그들의復興을막고諸般民主改革의徹底한實施와人民經濟建設이當面한目標였다

이러한當面한鬪爭條件속에서南·北民戰은人民의絕對한支持와피투성의鬪爭에서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을樹立하게된것이며 이南·北民戰의빛나는勝利는必然的으로祖國完全統一民主主義戰線으로發展케되는決定的인段階에突進된것이다

南半部人民의決定的勝利가濟州島 全羅南北道慶尙南北道및江原道一帶에解放地區로서記錄되면서있고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第十五次內閣會議는共和國南半部의土地改革實施를爲한法令草案委員를組織하야 未久에土地改革法을實施할覺悟와決意를明示하여 南半部人民의勝利를法的으로保障할려고하고있다

이土地改革을實施하려는意義는北半部人民의勝利가直接으로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物質的基礎이며 이위에서南半部人民이苛烈한救國鬪爭의最後勝利를保障할物質的인힘을保持하게되는것이다

南北의人民은오로지外軍을疆土內에서모라네고完全自主獨立을爲한싸움에로 온갖精力을傾注하지않으면안되게되였다

今回의南半部土地改革의實施와南北民戰의統一로서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을提唱하는것은 가장時宜에適切한措置이며멀지않은將來에外軍을撤退시키고完全自主獨立戰取하는政治的前提임을認識하지않으면안된다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樹立은北朝鮮民戰의民主改革과民主建設에있어서 南朝鮮民戰의帝國主義및그走狗의殖民地政策에對한鬪爭의勝利의結晶이라면 前者는建設을通해서帝國主義및그走狗의策動을막는物質的基礎를싸움으로서 人民權力을樹立함으로서의帝國主義및그走狗에對한鬪爭이며後者는直接帝國主義國家의殖民地政策과그走狗의亡國滅族政策에對한鬪爭即 李承晩괴뢰政權을打倒하여人民權力을새우려는鬪爭이였다

그러나오늘날에있어서는南半部의人民의革命的昂揚과北半部의人民의勝利는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樹立과그의發展에있어서南北統一의可能한條件이完全히成熟되였다

南北의人民은무엇보다도國家的統一을希望하고있다

여기에서南北民戰의統一로써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을結成하는것은 南北朝鮮人民의要求에酬應하는適切한措置이라고본다 李承晩괴뢰政權은完全히고립하야內部로부터崩壞하면서있다

特히勤勞人民黨 社會民主黨 民主獨立黨等々의完全히李政權을反對하야敵삼고 統一戰線에集結된것은意義가깊다

한줌도못되는李承晩 金性洙 李範奭 申性模 林炳稷 殺人賣國徒黨으로된帝國主義走狗인괴뢰政權打倒에全朝鮮人民은最後의싸움에로集結되였다

三千万이渴望하든南·北統一과完全自主獨立의曙光은비추어왔다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旗빨이三千里江山坊々谷에휘날리는날은닥쳐왔다

兄弟들아! 일어나서자

(一九四九年五月二十日)

대중신문(大衆新聞) 1949년 6월 12일

제주도인민군 이덕구 사령관 전사설

제주도인민군 이덕구 사령관 전사설

(제주 9일 발 합동) 제주도인민군 총사령관 이덕구 씨는 지난 7일 경찰부대와 교전 끝에 전사하였다. 즉 제주경찰 화북지서 정영주 경사가 지휘하는 경찰부대는 지난 7일 오후 4시경 「작은가으리」 부근 「양굴」 속에서 인민군 사령관 이덕구 씨 부대와 교전한 것이라 하며 이덕구 씨의 시체는 방금 제주경찰서에 보관하고 있다 한다.

濟州島人民軍 李德九司令官戰死說

(濟州九日發合同) 濟州島人民軍總司令官李德九氏는 지난七日警察部隊와交戰들에戰死하였다 即濟州警察하北支署鄭英柱警士가指揮하는警察部隊는 지난七日午後四時頃「작은가으리」附近「양굴」속에서 人民軍司令官李德九氏部隊와交戰한것이라하며 李德九氏의屍體는方今濟州警察署에保管하고있다한다

只今까지 〃男女七歲도 더同席을하지말라 〃는 子의말을引用해서 學들에게說敎하든 紙中에는六月三日男女共學을 言하였다 이에 生徒은 아모런 報告도없고 父兄會에서決定도아니 것을一方的으로敢行할 는것을抗議하자 敎務任은어제까지의 講義는 한채도아니하고「男女學을한다는것을諸君들 알고있을것이다」고對 하였다는데 이背後에 建中內에있는 進步的敎 을逐出하자는陰謀가있 것이며 一方的으로獨 的으로學生의自治權을 害하는데反對한生徒들 六日一齊히

一 男女共學制를延期 야學生과民主的으로 檢討하라

一 社會科學硏究會를 建시키하라

一 反動先生을追放하 는스로간들들고 祀 에突入 이에庚惰한 員들은九日學父兄會 催할것을前提로그날 지延期하기로함으로 生徒들은罷業은一時

대중신문(大衆新聞) 1949년 6월 27일

이덕구 씨의 전사설에 대한 의견

이덕구 씨의 전사설에 대한 의견

이승만 괴뢰정부가 7월에 종료될 미군의 철퇴와 남조선 5시 1도 80여 군에 긍한 인민무장부대의 영웅적 투쟁에 자신의 몰락될 것을 깨닷고 단말마적 발광을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다.
과거 동조(東條)나 히틀어 식으로 인민을 기만하기 위한 역선전을 다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해주폭동설이라든지 원산항 등의 조차라든지 그들의 생명을 하로라도 더 연장할여는 흉악한 음모로서 가진 허위보도를 그들의 아방궁에서 박조(迫造)하고 있다. 특히 알여지는 말에 의하면 제주도에서는 이승만 군경들이 선전하기를 「지금 평양에까지 국방군이 들어갓다」고 선전을 하고 있다고 하며 소위 국방장관 신성모가 자기 부하들이 의거를 일으키고 인민군에 투항하는 것에 못이겨 「이북 인민군도 투항을 하였다」는 사실무근의 허위선전은 속아넘을 인민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제주도 인민군 사령관 이덕구 씨가 전사하였다는 발표는 작년 9월에도 있었고 또 지난 9일에도 발표하였다.
이는 불꽃가치 일어나는 인민들의 항쟁에 겁낸 그들의 허위보도라는 것은 우리들은 그들의 보도의 본질로 보아 명백히 알 수 있는 문제이다.
홍길동이와 가치 죽여도 또 홍길동이가 나타나는 식으로 전사하였다 전사하였다 하다 보아도 이덕구 씨는 아즉 건투를 하고 있을 것이며 머지않은 장래에 또 전재하였다는 보도가 있을 것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보도의 부정확보담도 기만보도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깨닷고 그들의 여명의 멀지않은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猪飼野 윤상호)

李德九氏의 戰死說에 對한 意見

★李承晩괴儡政府가 七月에終了될米軍의撤退와 南朝鮮五市一島八十餘郡에亘한人民武裝部隊의英雄的鬪爭에自身의沒落될것을깨닷고斷末魔的發狂을하고있다는것은누구나 다아는것이다

★過去 東條나 히틀어式으로人民을欺瞞하기爲한 逆宣傳을다하고있다 例를들면 海州暴動說이라든지 元山港等의租借라든지 그들의生命을하로라도더延長할여는兇惡한陰謀로서가진虛僞報道를 그들의阿房宮에서迫造하고있다 特히알여지는말에依하면 濟州島에서는李承晩軍警들이宣傳하기를「只今平壤에까지國防軍이들어갓다」고宣傳을하고있다고하며所謂國防長官 申性模가自己部下들이義擧를일으키고 人民軍에投降하는것에모ᄒᆞ이겨「以北人民軍도投降을하였다」는事實無根의虛僞宣傳은 속아넘을人民은없는것이다

★그런데濟州島人民軍司令官 李德九氏가戰死하였다는發表는 昨年九月에도있었고 또지난九日에도發表하였다

★이는 불꽃가치 일어나는人民들의抗爭에겁내ᄂᆞ그들의虛僞報道라는것을우리들은 그들의報道의本質로보아明白히알수있는問題이다

★洪吉童이와가치 죽여도 또洪吉童이가나타나는式으로 戰死하였다 戰死하였다 하다보아도李德九氏는아즉健鬪를하고있을것이며 머지않은將來에 또健在하였다는報道가있을것을豫測할수있을것이다 그들의報道의不正確보담도 欺瞞報道라는것을우리는다시한번더깨닷고그들의餘命의멀지않은것을짐작할수가있는것이라고생각한다(猪飼野尹相昊)

■ 신문(新聞)

국제타임스
(國際タイム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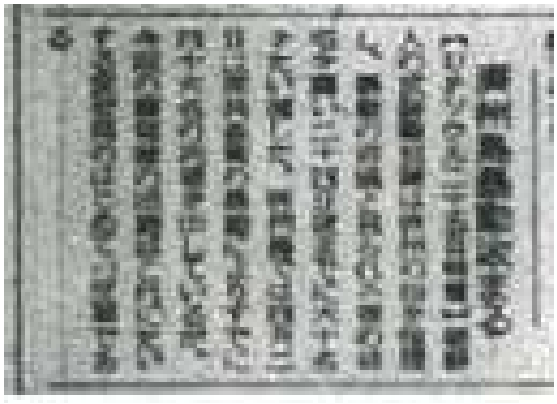
국제타임스(國際タイムス) 1948년 4월 26일 / 1면

제주도 폭동 수습

제주도 폭동 수습

(UP서울 25일 특전)

〈판독불가〉



제주도 보고

제주도 보고

〈판독불가〉

국제타임스(國際タイムス) 1948년 10월 22일 / 1면

한국에 반란 발발
공산분자 지도 제5사단의 제14여단

한국에 반란 발발
공산분자 지도 제5사단의 제14여단

(서울 20일발AFP=공동) 남조선에서의 한국군의 반란은 ○○에 중대화되고, 정부국의 성명에 의하면 반란군은 제5사단의 제14여단, 이 부대는 공산분자 반란 중심지인 제주도에서 이동을 해서 여수로 집결 중이었다. 반란은 40명의 공산분자에 의해 지도 받고, 2천5백 명이 이에 따른 것이었다. 여전히 ○○○○○○○○하고 있는데, 일부의 보도에 의하면 대○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한다.

韓國に反亂勃發す
共產分子指導 第五師團の第十四旅團

국제타임스(國際タイムス) 1948년 10월 23일 / 1면

한국 정부의 일대 시련
반란 오래 끌면 전국에 파급 우려

한국 정부의 일대 시련
반란 오래 끌면 전국에 파급 우려

〈판독불가〉

韓國政府の一大試煉
反亂永びけば
全國に波及の恐れ

[사설] 한국군 반란의 교훈

[사설] 한국군 반란의 교훈

북조선 인민군의 환○○○○○○○○○○○○○○○○○○○○○○○○○○○○○○○○○○○ ○○○○○○○○○〈판독불가〉
그 국방군 가운데 일부이지만 반란군을 냈다는 것은 한국에서는 일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게다가 반란군은 ○○한 여수, 순천, 구례 등 가는 곳 ○○○○을 외치고, 한국 인민공화의 ○○을 걸쳐서 그 보다 나은 정치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국군의 이러한 반란은 이제야 시작된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는 있었고, 특히 제주도에서의 국방경비대의 이러한 경향은 ○○한 것이 있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군이라 해도 내란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무력적 강점에는 응할 수 없다는 민족적 양심이었다. 그 대규모 반란까지 일어난 데는 외부로부터의 ○○의 간섭이지만, 그것보다 남조선의 사태가 끝까지 서두르게 한 것이다.
국군의 반란은 일반인민○○○○○○가 되어, 무장한 본격적 전투○○이고, 지금까지 산악에 숨어 있는 ○○ 없는 해방군은 물론 지하에 숨어 있는 혁명세력에 미치는 반군의 ○○는 예상보다 훨씬 크다. 반란군은 여수를 지점으로 하여 북상, 21일은 부산 방면으로 크게 우회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남북, 경상남북의 4개의 도는 좌익세력의 ○○한 활동이 있는 지역으로 1946년 10월 인민항쟁과 그 후 ○○을 통해 이 지역 일대의 인민의 정치사상은 ○○하다. 반란 부대는 이 지역을 일일이 통과하면서 마침내 ○○로 성공할 것이다. ○○○○○○○○○○○○○○○○○○○○○○○○○○○○○○○
원래 남북의 평화적 통일책은 미소 협조의 ○○○○○. 모스크바 3상 회의의 완전○○○에 의해서만 가능하였다. 남조선의 단독선거에 의한 대한민국의 수립은 남북 평화적 통일책을 전혀 ○○○하지 않았다. 북에 조선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는 것은 마침내 쌍방에 대한 빌미는 결정적 이유가 되어 쌍방의 지도자가 "내란은 일으키지 않는다" 라고 약속하더라도 사태는 역으로 심각함이 더해 갔다. 이번 반란은 그 위험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여수가 ○○○의 지역으로서 ○○○은 제주도행을 하려는 두 사람 중 누구를 부르는가의 결정적 ○○에 직면하고 있는 것, 무장이 ○○를 견디는○○○ 구비한 것, 혁명계통이 ○○○○○○○○○것 등 그 주요한 이유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출혈에는 ○○○○○○○○○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곧 남조선 일체가 동란장으로 만들면 ○○○○ 하는 것은 위험하다.
○○○○○○○○○○○○○○○○○○○○ 남조선의 사태는 미군이 주둔하는 한 이러한 만성적 ○○대로 사태는 당분간 계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쿠데타까지 발전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반란이 지닌 중대한 특징은 ○○, 제주도의 독립된 인민항쟁이

본토의 반란에 의해 일거○○을 비추어 온 것이다. 좌익은 「제주도의 인민을 무력적 진압에서 구조하라」고 남조선 일체에 미치기 시작했다. 그것이 여러 번 정부군의 반란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제주도에 더해진 집중적 공격은 본토에서 분산되어 이 반년은 ○항해 온 제주도의 인민해방군에도 ○○○○○○○○○○

한편 한국정부는 이번 반란군에 대한 수습책을 제주도 ○○○○○○○○ 맡기려고 하고 있다. 그 방법을 한 발 나가기까지 사태는 지금○○○○○○. 남조선을 동란장으로 만들 것인지, 아닌지는 정부의 진압 방법에 달려 있다. 한국 정부는 이 시련을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

社說

韓國軍反亂の教ゆるもの

우주선

우주선

〈판독불가〉

국제타임스(國際タイムス) 1948년 10월 29일 / 1면

여수에서 시가전
제주도에서도 반란 계속

여수에서 시가전
제주도에서도 반란 계속

(UP서울(경성) 28일 특전) 여수에서는 시가전이 격렬하게 전개되고 있다.
〈판독불가〉
또한 제주도에서는 ○○○○○○사건이 일어나 24일 경관과 민중 3명의 사상자를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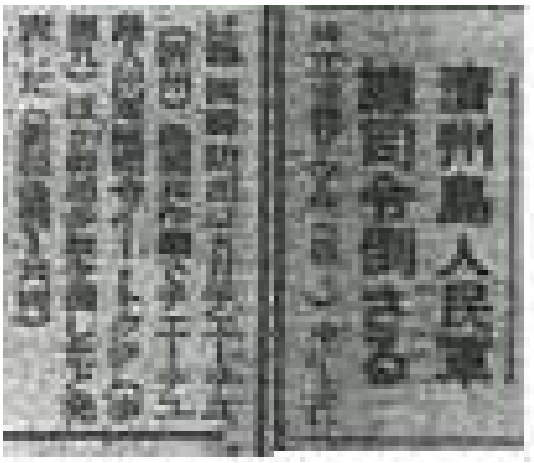
麗水で市街戰
濟州島でも反亂續く

국제타임스(國際タイムス) 1948년 11월 7일 / 1면

제주도 인민군 총사령 쓰러지다

제주도 인민군 총사령 쓰러지다

○○서울(경성) ○○○, 한국국방부는 5일 제주 ○○○작전에서 제주도 인민군 총사령 이덕구 외 간부 다수를 쓰러뜨렸다고 발표했다. (신아통신=공동)



제주도 계엄령

제주도 계엄령

(UP서울(경성)19일 특전) 이승만 한국 대통령은 제주도 전역에 대해 가능한 신속하게 반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18일 계엄령을 포고하고, 제주도에 있는 국군 제7연대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다. 한편 서울(경성) 동방 110K 오대산 부근에서 게릴라 부대와 경찰대의 대규모의 전투가 행해지고 있고, 경찰당국은 18일 경찰대와 국군의 특별 부대가 오대산을 포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済州島戒厳令

■ 신문(新聞)

신조선신보
(新朝鮮新報)

신조선신보(新朝鮮新報) 1949년 5월 11일 / 1면

한위(韓委)의 지방시찰연기

한위(韓委)의 지방시찰연기

(서울 21일발 고려)
국련신한국위원회공보관인 자버트는 21일 덕수궁에서 기자단과 회견을 갖고 공보 제10호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분과위원회는 제14차 회의에서 일반 정세 및 피해상황을 시찰하기 위해 제주도는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전남지방은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하여 지난 18일 비행기로 출발했는데, 제주도 지방의 기후악화로 인해 불가능하여 이는 5월로 연기하게 되었다. 제1분과위원회는 4월 25일, 기차로 전남지방으로 출발하여 구례, 순천, 여수, 광주 방면을 시찰할 예정인데 시간관계상 주로 주요목적에 활동을 집중하게 될 것이다.

韓委の地方視察延期
(ソウル二十一日発高麗)

신조선신보(新朝鮮新報) 1949년 5월 11일 / 2면

사상 9만 손해 15억
제주도 사건의 피해 판명
[4월의 족적]

사상 9만 손해 15억
제주도 사건의 피해 판명
[4월의 족적]

남(南)

1일 ▽한위 제1분과위원회는 31일 사회당 당수 조○앙씨를 초청해서 면담
▽한위 엘살바도르 대표 마가나씨는 30일 중앙청에 이 국무총리를 방문, 신임 인사를 말함과 동시에 환담
2일 ▽이승만 대통령은 1일 오전 10시 30분 내외기자단을 회견, 북한과 소련과의 협정은 주종 간의 약속이다. 일본에 대한 미곡 수출은 ○려 없음이라고 말했다.

썸머타임 실시
3일 ▽내무장관 김녕○, 미부인 살해사건 진상 발표
▽암흑에 휩싸인 서울 시가지에 1천○7십5개의 가로등을 설치한다
▽국무총리 직속하에 방○국 설치
4일 ▽남북교통정지전력을 이용하여 생산증가에 주력
▽언론의 ○○에 정부와 협력하여야한다는 이유로 서울 시내 신문통신사장 회의 개최
▽원조물자대행기관으로 한미공사개설
▽국산비료판매가격 책정
1, ○실료 6천원 2, 과석 5백원 3, 명반석가리 2백5십원 4, 골분 1천2백원 5, 비○자유 5백5십원 6, 배합비료 1천원 7, 석회질소 1천원 이하
5일 ▽71차 국회에서 정광호가 제의한 썸머타임 실시중에는 국회 개회 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가결
6일 5일의 독금○ 식목일 식전 거행, 전국 각 지역에서 성대히 거행

미국으로 유학생 10명 파견
9일 ▽관공리 부정 적발 범위를 이 대통령 기자에게 말하다
▽사회부에서는 계획중이었던 미국 유학생을 보건, 위생, 노동 3개부문부터 10명을 파견하기로 결정

13일 ▽재일동포의 강압에는 상당의 조치를 취한다고 임 외무장관 언명
14일 ▽국가예산에 남북통일을 협의하기 위해 한위 1분위가 김 재무장관을 초청해서 협의
15일 ▽외무부 직원들이 서울 시내 ○남동에 1만 그루 식수
▽식량중점배급은 관리우선배급이 아니라고 정부대변인 말하다

하와이 동포로부터 구제물자
17일 ▽식량임시조치안수정안을 가결
▽서울 15일발 고려지의 보도에 따르면 제주도사건에 대한 피해액은 '사상 9만, 가옥, 가축 등 포함해서 15억원'
▽미원조○○취급대행기관은 기존 8곳을 폐지하고 새롭게 4곳을 설정했다
▽하와이동포로부터 구제물자 8천5백톤 도착
19일 ▽수개월 이내에 미군이 철수한다고 이 대통령특별담화 발표
▽금년중에 전력을 1십2만8천 KIV로 생산한다고 상공부 당국 당면의 문제를 말하다
21일 ▽양국 친○발전에 전력을 다한다며 무츠초 대사 〈판독불가〉
22일 ▽ECA미국회에 대해 한국 부흥에 2억달러 지출을 요구
23일 ▽특히 이재민의 구제에 관심을 보인다며 이 대통령 지방시찰에 대해 이 국무총리 말하다

일본에 수출 1호 배 출범
24일 ▽한,일통상협정식 조인
▽한,일무역협정에 따른 수출 1호 배 출발
25일 ▽지방시찰을 위해 출발한 이 대통령 대구 들어가다

死傷九万損害十五億

済州島事件の被害判る

四・月・の・足・跡

南

一日 ▽[illegible]

一日 ▽[illegible]

二日 ▽[illegible]

三日 ▽[illegible]

四日 ▽[illegible]

五日 ▽[illegible]

六日 ▽[illegible]

米國へ留学生十名を派遣

九日 ▽[illegible]

十日 ▽[illegible]

十一日 ▽[illegible]

十二日 ▽[illegible]

十三日 ▽[illegible]

十四日 ▽[illegible]

十五日 ▽[illegible]

ハワイ同胞から救済物資

十七日 ▽[illegible]

十八日 ▽[illegible]

十九日 ▽[illegible]

廿一日 ▽[illegible]

廿二日 ▽[illegible]

廿三日 ▽[illegible]

日本へ輸出第一船出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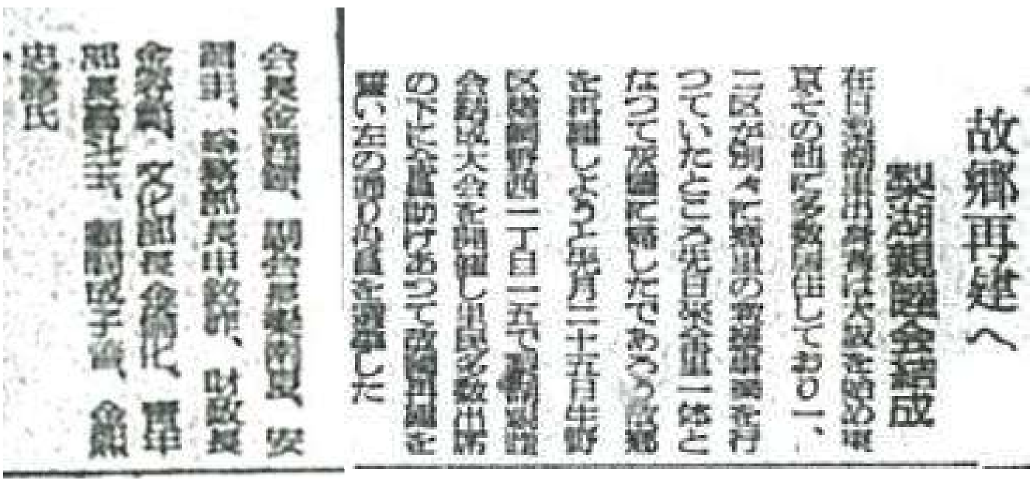
廿四日 ▽[illegible]

廿五日 ▽[illegible]

고향재건을 위해 이호친목회 결성

고향재건을 위해 이호친목회 결성

재일 이호 출신자는 오사카를 시작으로 도쿄7 외에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1,2구가 별도로 향리의 구제사업을 실행하고 있던 차에 얼마전 마을이 하나가 되어 잿더미로 변했을 고향을 재건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생야구 저사야 서2정목 15에서 이호친목회결성대회를 개최하여 리민 다수 출석 하에 마을을 서로 도와 고향을 재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임원을 선거했다.
회장 김상○, 부회장 양남○, 안○규, 총무부장 신명조, 재정장 김○○, 문화부장 김윤화, 청년부장 고두옥, ○○○○, 김희충 등


故鄕再建へ
梨湖親睦会結成

신조선신보(新朝鮮新報) 1949년 5월 18일 / 2면

제주도의 이재민을 구하라
본사의 외침

제주도의 이재민을 구하라
본사의 외침

[사설] 제주도의 참상에 통곡하다

[사설] 제주도의 참상에 통곡하다

제주도는 꿈의 나라이며 전설과 시의 나라이다. 동백꽃이 피고 오렌지 향기가 감돌며 풀 뽑는 노래가 한여름 푸른 하늘을 흐르고 여행객의 가슴에 달콤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평화의 고향이다.
그것이 지금 사상 9만, 가옥과 가축 등의 손해가 15억이라는 수라장이 되었다고 한다. 아마도 이재민은 제주 총인구의 절반을 넘을 것이다.
먹을 음식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살 집도 없는 우리 동포를 대체 누가 구할까?
재류동포여! 한 되의 쌀, 한 장의 셔츠, 1원의 돈을 모아서 우리들의 형제를 구하라!

평화로운 고향 제주도
태평양의 파도가 조용히 절벽을 씻고 수려한 한라산이 청공 높이 솟아 있으며 산허리에는 방목하는 우마가 유유히 풀을 먹고 있다. 해변에는 어부가 그물을 던지고, 산촌부락에서는 풀을 뽑는 노래가 흐르고 실로 이것이 조선의 최남단 태평양의 파도 속에 누워 있는 제주도의 모습이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조건에 제약을 받고 농민에게는 혜택받은 토지는 아니었다. 돌이 많고 바람이 강하고 게다가 논이 아주 적다.
그러나 도민은 묵묵히 일하며 생활을 영위하며 제주 독특의 체제를 일궈냈다. 이는 제주도에는 지주라고 칭할 정도의 지주는 없고, 거지라고 할 정도의 거지는 없다는 것이다. 모두가 성실히 일하면 일단 먹을 수 있는 매우 합리적인 체제가 보편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섬이라는 지정학적 입장으로 도민은 스스로 원심적으로 발전하지 않을 수 없고, 젊은 청년들은 경쟁하듯 향관을 떠나 타국에 타지벌이 대성을 꿈꾸게 되는 것이다.
이들 향관을 떠난 사람들은 타향에서 성공하더라도 평화롭고 소박한 고향에 대한 어릴적 향수가 늘 가슴에서 떠나지 않는다. 섬은 평화의 고향이었다.

처참한 생지옥
4월 15일의 서울고려통신에 의하면 한국정부의 발표로
인명사상 총수 8천7백9백9십명
  사망 1천6백6십8명
  중상 6백2십3명
  경상 1천2백3십1명
  행방불명 3십9명

가옥 피해 총수 1억7천4십9만원
가축 손해 총수 1십2억8천1천5십1만원
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는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숫자로 판단해도 사상자가 제주 총인구의 3분의 1이며 가옥 가축 손해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 대부분이 잿더미로 변한 것은 상상된다.
또한 사상자가 인구의 3분의 1이라고 하면 이재민은 도민의 절반 이상이라기보다 그 대부분이 재난을 당한 것으로 해석하는 편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3월 18일의 서울 합동통신에 의하면 제주도를 시찰한 주 국회의원의 담화로 다음과 같이 전했다.
1, 남원, 북촌, 동복, 서귀포 등은 4·3사건 후에 소실가옥 1만6천1백7십7호 인민사망 1천1백9십3명, 중상자 4백9명, 이재자 8만6천7백9십7명으로 이들 이재민은 식량이 없어서 해초, 산초 등으로 그날 그날을 보내며 풀 위에서 기거하고 있다.
2, 이 이재민 주택건설에 대해 비행기에서 정찰한 바에 의하면 중간지대의 부락은 아무것도 안 남았으며 농경지 9만 정보 대부분은 종자를 뿌리지 않았다.
이상은 모두 통계와 같은 정확한 숫자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병화(兵火) 중의 집계이므로 다른 날 다시 상세한 조사를 한다면 숫자는 바뀔 것으로 생각된다. 어찌됐든 제주도민의 대부분이 재난을 당하고 그 대부분이 길거리에서 헤매이며 기아에 직면해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도민은 극도의 영양실조로 인해 눈이 보이지 않고 걷기조차 힘들어 기어서 움직인다는 실로 생지옥 양상을 띠고 있다고 한다.
집은 부락마다 불태워지고 나무라는 나무는 모두 쓰러지고 만목처량, 시체가 곳곳에 쌓여 있다고 한다. 실로 무시무시한 기운이 돈다. 필자는 이 이상 형용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상상과 추찰(推察)에 의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잔인한 참상이 전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듯하다.

구제에 분기(奮起)하라
우리는 일제 강점기에 고국의 동포가 홍수 피해를 입었을 때 약간의 빵과 의류와 금전을 모아서 보낸 기억을 갖고 있다. 이는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가 국내의 동포의 불행에 대한 최소한의 마음이었다. 지금 제주도의 참상을 언어로 다 할 수 있을까.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재일동포 사이에서도 도처에서 추도회를 열고 혼을 위로하고 결의를 새롭게 하고 있다지만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다. 현재 제주도의 생지옥 속에 허덕이고 있는 많은 무고한 동포를 위해 최소한 한 조각의 빵이라도 한 장의 셔츠라도 보내려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제주도의 이재민을 구제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일은 동포로서의 의무의 일단을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인류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교통과 통신의 단절로 인해 제주도의 실정이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러나 이것이 적나라하게 보도된다면 세계는 그 비인도성에 눈을 뺏길뿐만 아니라 반드시 대

대적 구제의 손길을 뻗칠 것이다. 나는 여기에 제창한다. 빨리 이재민 구제기관을 만들어 당장 사업에 착수할 것을.

한 장의 셔츠, 한 줌의 쌀, 비록 1원이라도 희사하여 이를 제주도에 보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계획은 반드시 연합군에도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주도의 이재민은 풀뿌리를 씹으며 우리의 구제를 기다리고 있다.

(一) 第385号

社說

濟州島の慘狀に慟哭す

平和郡濟州島

慟！生き地獄

救濟に奮起せよ

신조선신보(新朝鮮新報) 1949년 5월 25일 / 1면

‘두 개의 조선’ 현지보고(3)
피에르 프랑스 통신특파원의 기록

‘두 개의 조선’ 현지보고(3)
피에르 프랑스 통신특파원의 기록

두 개의 정부 개점 /너무 서두른 모병 /어수선한 남선

군정이 끝나고 국회 개원

1948년 8월 15일 의사당 정면 앞에 맥아더 원수와 이 대통령이 해를 향해 무○하게 서서 조선의 국기가 깃대에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있다.

3년 동안 그곳에 펄럭이고 있던 한국기는 ○○깊은 침묵 속에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만세가 시작되고 메아리쳐 간다. 임명받은 지 아직 10일도 안된 한국정부 전원이 참석했다. 중국전쟁의 ○장이며 동시에 청년대의 대장인 총리 이○○, ○경성경찰대장, 외무대신 장택상, ‘한민당’의 집행위원이면서 전 이 대통령 ○○관 내무대신 김치홍, 그 외 9명의 대신, 2백명의 의원과 기념일에 모인 거대한 군대가 그것이었다. 미국 군정부 하지 장군은 이 박사와 3년간의 성급한 나머지 대단할 것 없는 논쟁에도 드디어 이별을 고하고 수일 후에는 합중국을 향해 ○상의 사람이 될 것이다.

헌법의 규정과 정부의 조직은 용이한 것이 아니었다. 매우 ○○이 있는 이 대통령과 책임있는 정부와 상당히 상징적인 대통령의 여당 ‘한민당’과의 관계는 재미있게 되었다.

국민의회는 어느 역류를 인정했다.

그런데 1국을 성장시켜 가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일일까. 우선 관계 진척 없는 5월 14일 북조선의 공산당원은 스위치를 끄고 남조선에 대한 전류의 모든 공급을 끊었다. 남조선은 전력의 통상 소비의 30~40%밖에 자급할 수 없었다. 다음은 민족의 동요를 맞이하는 일이다. 인플레이션은 격화되어 간다. 농민은 쌀을 암시장에 내다파는 것을 선호하고 경찰대의 총성에만 종종 양보하는데 불과하다. 그리고 특히 군대를 조직하는 것이다. 1십만 혹은 2십만의 북조선의 침입, 또는 내란을 저지하는 것은 3만의 경찰대원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다. 2개월 동안 모병사무소는 무휴로 운영되고 있다. 군대는 2만에서 5만으로 증원되었다. 미군이 ○○를 실시하여 소련군이 북한에서 한 것처럼 〈판독불가〉 그러나 남부에서는 너무 빨리 병사를 모집한 듯 하다.

소련군 북선 철수 선언

남조선에서 정부의 조직에 대항해서 북조선도 정부를 ○○한다는 선언으로 답했다.

그것은 전형적으로 소비에트적인 성격의 정부이다.

8월 25일 시민에 ○○의 명부에 대해 찬반을 투표했다. 인민위원은 물론 찬성투표이지만

남조선의 상당수 조선인이 그 ○를 보내왔다고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은 9월 9일에 선언되었다. 총리 김일성이 주반이며 2명의 부총리가 있다. 이는 ○남선공○당서기장 박헌영 및 김○식과 함께 4월에 평양에 온 좌파 철학자 홍명○이다.
그러나 8월 25일 이래 남조선에서 '분○파'이면서 극우적 정부의 조직에 대해 격하게 항○한 김○식과 김구는 그들에게는 국○의 분열이라고 보이는 북조선 정부의 조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격하게 항○했다.
'인민최고회의'는 5백7십2의 의석중 3백6십개를 남조선인에게 충당했다. 2천만의 인구대 1천만 인구 비율에서이다.
이는 왜냐하면 신정부가 전국을 대표하고 언젠가 붉은 별의 신국기를 전 조선에 펄럭이게 한다고 하여 칭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헌법'에서는 수도를 잠정적으로 평양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가능해지면 바로 서울로 이동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9월 19일 모스크바는 1월 1일까지 소련은 한 명의 병사도 조선에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방송했다. 그러나 미국 병사는 남아 있다.

잇따른 테러 사건

남조선에서 징병이 완전히 너무 서둘러서 실시되었다.
10월 19일 제주도에 출범할 예정인 보병 제14연대의 4십명의 군인이 여수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2일 후에 반도의 최남단은 총화(銃火)와 유혈의 바다가 되었다.
4월 이래로 제주도는 내전의 무대가 되었다. 공산당 소동에 대한 경찰대의 잔인한 진압이 도내에 폭동을 일으켰다. 군대에 구원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제14연대는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거부했다.
경찰대원이 무자비하게 ○○ 인민의 증오가 용솟음친다. 6일 후에 정부군이 ○○ 포함된 2개 도시를 ○회했을 때 백색 테러, 적색테러가 행해졌다. 지난번 수를 넘지 않았다고 해도 비슷한 정도의 희생자가 총형 집행반의 탄환 아래 쓰러지는 죽음을 공포를 외치면서 몇 백명이나 ○○된 경찰대원, 남자, 부인, 노인, 아이의 공포스러운 사진을 우리는 ○○나 볼 것이다. 이는 만약 미군이 철수하는 일이 있었다면 그 후에 일어날 잔학의 날의 모습이다.

「二つの朝鮮」現地報告 (三)

ピエール・フランス
通信特派員の記録

二つの政府店開き

慌て過ぎた募兵、騒々しき南鮮

軍政終り國会開く

一九四八年八月十五日朝鮮軍政の正式の日にマッカーサー元帥と李大統領が日本に同時で立って朝鮮の歴史に上ってゆくのを見ている

三年来そこになびいていた韓國旗は地面に沈黙の中に引き上げられてゆく、それから万歳が四度と三度してゆく、任命されてまた十日と経っていない韓國政府の全員が出席している、中國政府の前途でかつ青年隊の隊長の前途を勘定し、[illegible]

[illegible]

ソ軍北鮮撤退宣言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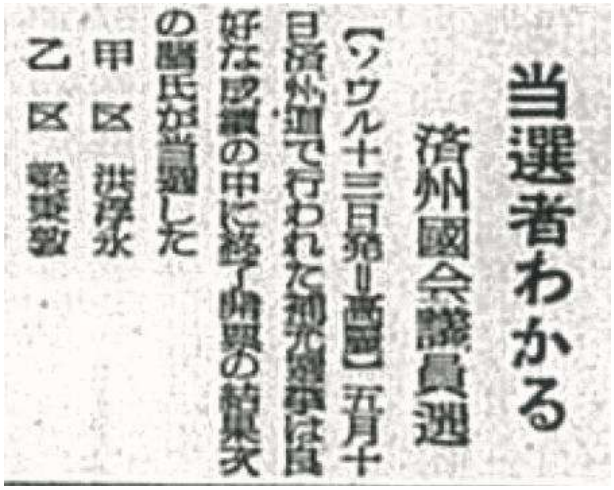
相次ぐテロ事件

[illegible]

당선자 판명
제주 국회의원선거

당선자 판명
제주 국회의원선거

(서울 13일발=고려)
5월 10일 제주도에서 치러진 보충선거는 양호한 성적 가운데 종료, 개표 결과는 다음의 사람들이 당선했다.
갑구 홍순영
을구 양병돈


当選者わかる
済州國会議員選
【ソウル十三日発=高聖】五月十
日済州道で行われた補充選挙は良
好な成績の中に終了開票の結果次
の諸氏が当選した
甲区 洪淳永
乙区 梁濬敦

귀순 6천, 사살 5백
제주도의 전화(戰火) 일단 숨돌리다

귀순 6천, 사살 5백
제주도의 전화(戰火) 일단 숨돌리다

(서울 21일발=합동)
내무부에서는 2월 19일 제주도에 경찰○원대 5백5명을 파견하여 육해군 및 현지경찰과 협력하여 반○○○에 노력한 결과 절대적인 성과를 거두고 지난 18일에 만 3개월째에 귀환했다. 이에 관해 장 내무차관은 20일 파견대장 김○일의 보고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3월 5일부터 9월 13일까지 6천1십4명(남자 2천9백7십4명, 여자 3천4십명)을 ○○했는데, 그 중 1백6십3명을 석방하여 1천8백5십1명은 조사를 마쳤다.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의 전과는 다음과 같다.
사살 4백9십5명, 포로 1천5백2십4명, 미국제기관총 1정과 기타 무기 5십정 압수, 의류 1천3십4점 압수, 식량 다수 압수, 경찰 측 피해는 중상 5명, 자동차 2대 파손

歸順六千、射殺五百
濟州島の
戰火一應熄む

신조선신보(新朝鮮新報) 1949년 6월 8일 / 2면

주간 움직임:
남(南) 5월 19일 제주도파견 경찰부대 귀환 환영식 중앙청○당에서 거행한다

주간 움직임:
남(南) 5월 19일: 제주도파견 경찰부대 귀환 환영식 중앙청○당에서 거행한다

남(南) 5월 19일: 제주도파견 경찰부대 귀환 환영식 중앙청○당에서 거행한다 ▽선박이양 협정조인식을 거행한다 ▽수입절단의 사고에 대한 허위선전에 이 국무총리 경고를 발하다
20일: '미군은 책무를 다하고 철퇴해야'한다며 이무, 국방 두 장간이 공동 성명을 발하다 ▽군사고문○○○는 자유라며 한위 쟈버트씨 기자단에게 답하다 ▽중앙학도○○대결성식에서 배재, 중앙, ○○ 각 중학을 표창
21일: 상해 재류 동포의 귀환은 항공기로 ○○○○
22일: 남북협정은 불가능, 신 국회의장 기자단에게 발표하다 ▽군산 해양대학에 예산 1억엔, 당국 해○양성에 본격화 ▽밀수입 일소를 목표로 정부에서 연석회의
23일: 제3차 국회 개회 ▽민간의 단파교신 금지 ▽장 내무차관○○ 일체를 ○○
24일: 육군사관학교졸업식 거행 ▽대북방송진에 감사장 ▽육군간호학교졸업식 거행 ▽○○시찰○일행 항로로 출발했지만 김○○씨 선박 〈판독불가〉
26일: 무혈통일이 ○○, 미군의 〈판독불가〉 ▽제3차 본회의에서 본년도 추가예산안 상○ ▽ECA의 에스폴 여사 조만간 방미하기로 결정 ▽중○학교민주교육연구회 열린다
27일: 국회에서 제4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재○안 결정한다 ▽방미○○○○○폴란드에 도착 ▽38선 ○○대에 대규모 방문 〈판독불가〉

週間の動き

南

五月十九日 [illegible]

[illegible]

中央[illegible]で行う▼[illegible]

[illegible]式行う▼[illegible]

してデマ宣傳に[illegible]

発す

二十日 「米軍は賃務を果して撤退すべし」と外務、國防両長官共同声明発す▼[illegible]は自由だと[illegible]シヤバツド氏記者團に答う▼中央学徒護國隊結成式における培材、中央、徽文各中学を表彰

廿一日 上海在留同胞の帰還は航空機でと許長官明る

廿二日 南北協定は不可能、申國会議長記者團に語る▼郡山海洋大学に予算一億円、当局海員養成に本腰▼密輸入一掃を目さして政府で連席会議

廿三日 第三次國会開く▼民間の短波受信禁止▼張内務次官[illegible]一体を賛美

廿四日 陸軍士官学校卒業式挙行▼対北放送[illegible]に感謝状▼陸軍看護学校[illegible]式挙行▼[illegible]一行[illegible]で出発したが金龍海氏[illegible]返還交渉のため残る

廿六日 無血統一が原則、米軍の[illegible]を希望すと申[illegible]明る▼第三次本会議にて本年度追加予算案上程▼ECAのエスポール女史近く[illegible]する事を決定▼中等学校民主教育研究会開かる

廿七日國会に第四次本会議で地方自治法再議案[illegible]める▼訪米[illegible]ポーランドへ到着▼三八[illegible]警備隊に大規模な[illegible]で[illegible]▼[illegible]山四百名が[illegible]申請▼[illegible]大規模な[illegible]で[illegible]発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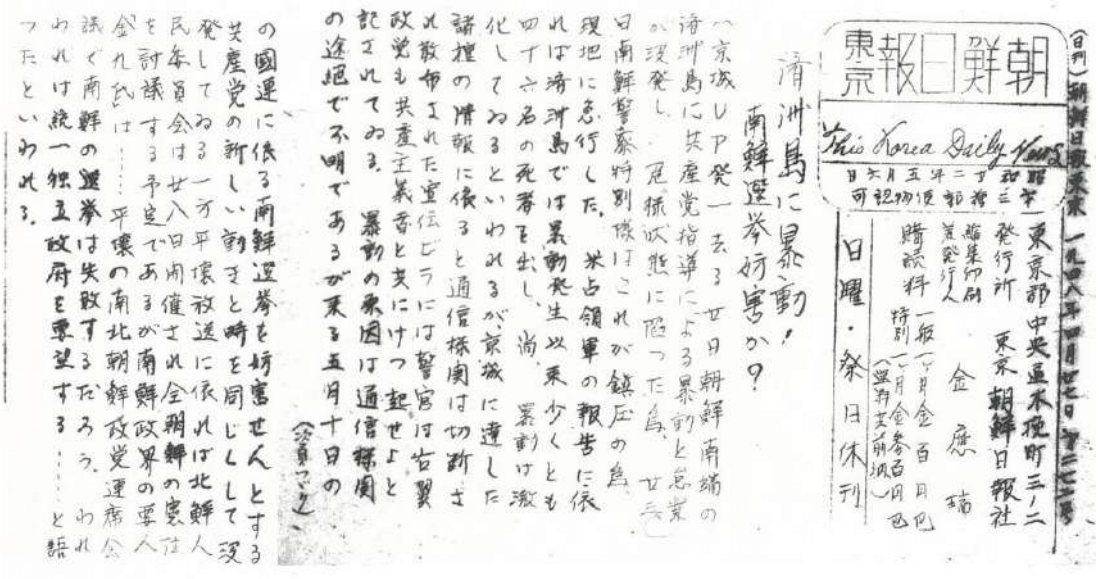
■ 신문(新聞)

조선일보동경
(朝鮮日報東京)

제주도에서 폭동! 남선 선거 방해인가?

제주도에서 폭동! 남선 선거 방해인가?

(경성 UP발) 지난 2일 조선 남단의 제주도에서 공산당 지도에 의한 폭동과 태업이 발발하고 위기 상태에 빠져 있어서 23일 남선경찰특별대는 이것의 진압을 위해 현지에 급행했다. 미점령군의 보고에 의하면 제주도에서 폭동 발생 이래 적어도 46명의 사망자를 내고, 또 폭동은 격화되고 있다고 말한다. 경성에 닿은 모든 정보에 의하면 통신기관은 절단되고 산포된 전단 삐라에는 경관은 우익 정당도 공산주의자와 함께 궐기하라고 게재되어 있다. 폭동의 원인은 통신기관의 두절로 불명하지만 오는 5월 10일 국운에 의한 남선 선거를 방해하려는 공산당의 새로운 움직임과 시간을 같이하여 발발하고 있다. 한편 평양방송에 의하면 북선인민위원회는 28일 개최되어 전조선의 헌법을 토의할 예정이다. 「김구 씨」는……평양의 남북조선정당 연석회의에서 남선의 선거는 실패할 것이다. 우리들은 통일독립정부를 요망한다……고 말했다고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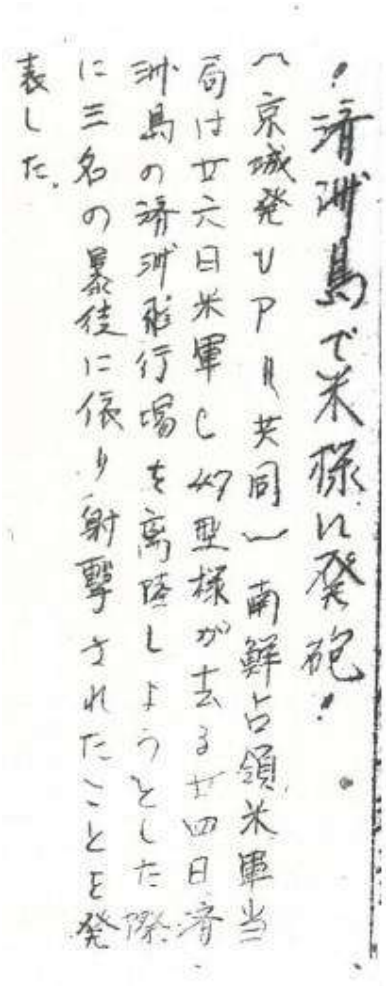


조선일보동경(朝鮮日報東京) 1948년 4월 28일

제주도에서 미군기에 발포

제주도에서 미군기에 발포

(경성발 UP=공동) 남선 점령 미군 당국은 26일 미군 D47형기가 지난 24일 제주도의 제주비행장을 이륙하려고 할 때 3명의 폭도에 의해 사격 당한 것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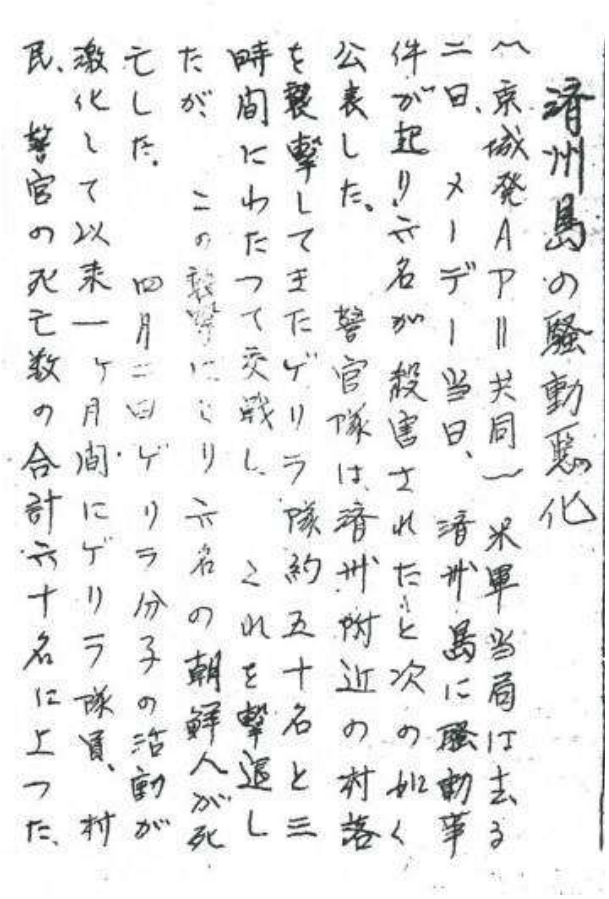

！済洲島で米様に発砲！
（京城発UP＝共同）南鮮占領米軍当局は廿六日米軍C47型様が去る廿四日済洲島の済洲飛行場を離陸しようとした際に三名の暴徒に依り射撃されたことを発表した。

조선일보동경(朝鮮日報東京) 1948년 5월 4일

제주도의 소동 악화

제주도의 소동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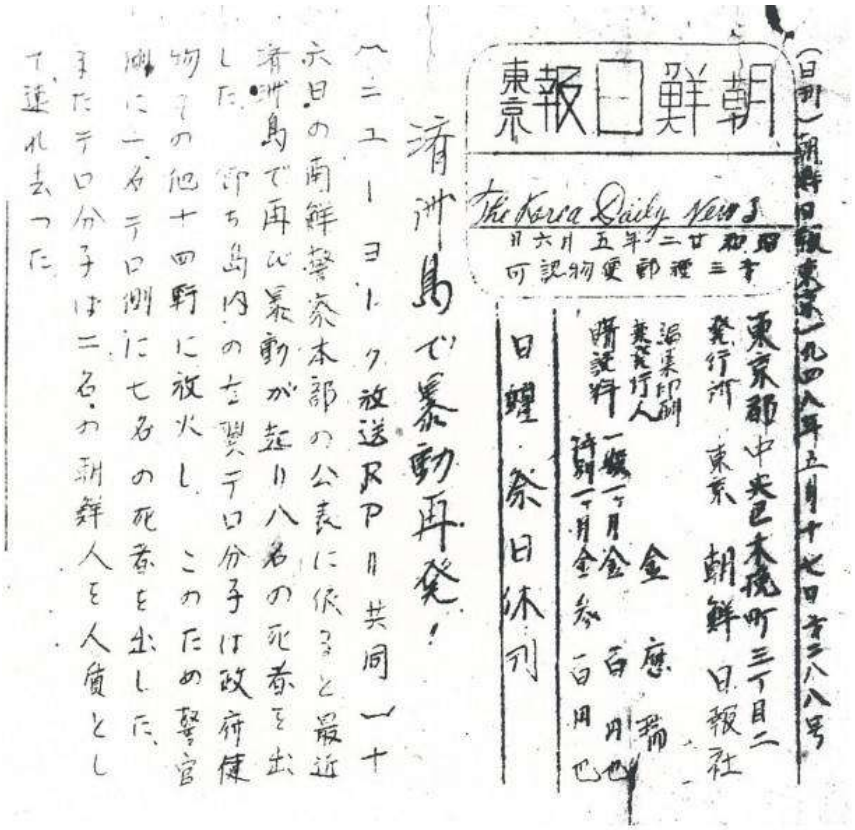
(경성발 AP=공동) 미군 당국은 지난 2일 메이데이 당일, 제주도에 폭동사건이 일어나 6명이 살해당했다고 다음과 같이 공표했다. 경관대는 제주 부근의 촌락을 습격해 온 게릴라대 약 50명과 3시간에 걸쳐 교전하고 이를 격퇴했다. 이 습격에 의해 6명의 조선인이 사망했다. 4월 2일 게릴라 분자의 활동이 격화한 이래 1개월간에 게릴라 부원, 촌민, 경관의 사망수 합계 60명으로 올랐다.



제주도에서 폭동 재발

제주도에서 폭동 재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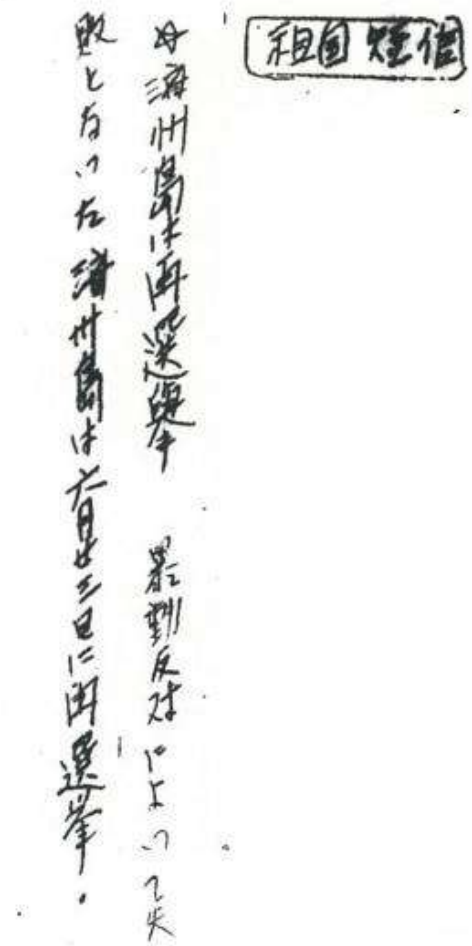
(뉴욕방송 RP=공동) 16일 남선경찰본부의 공표에 의하면 최근 제주도에서 다시 폭동이 일어나 8명의 사망자가 생겼다. 말하자면 도내의 좌익 테러분자는 정부건물 기타 14채에 방화하고, 이로 인해 경찰 측 1명, 테러 측 7명의 사망자가 생겼다. 또 테러 분자는 2명의 조선인을 인질로 데리고 사라졌다.



[조국단신] 제주도는 재선거

[조국단신] 제주도는 재선거

☆ 제주도는 재선거. 폭동 반대로 실패한 제주도는 6월 23일 재선거



■ 신문(新聞)

국제일일신문
(國際日日新聞)

국제일일신문(國際日日新聞) 1948년 10월 7일 / 1면

[사설] 통일방해자 단호 청소

[사설] 통일방해자 단호 청소

서울 AP통신에 따르면 2십명의 부정 분자가 대한민국정부의 전복 음모를 기도했지만, 4일 교전하여 체포된 관계자 중에는 과도정부 경무부 수사국장 최용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겨우 독립하여 발족한지 얼마 안 된 대한민국에서 지금도 발생한 불상(不祥)사건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일에는 제주도에서 폭동이 발생하여 사상자 4백5십명 이상이 나왔으며, 지금도 국가 전복을 기도하는 자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중대 문제이다. 제주도의 폭동에 대해 3일, 내무부 장관 윤치영은 공산당의 폭동으로 경관 5명이 살해당했는데 현재는 평정을 회복했다고 했다. 제주도의 공산게릴라대는 올해 봄 이래 산중으로 도망쳤고, 지난 1일 어느 부락을 습격하여 이를 불태웠다고 언명했는데, 공산주의자의 테러행위는 지금도 끝난 것은 아니라 해도 조선인민공화국 정부라는 괴뢰정권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에 대항하기 위한 향후의 그들의 테러는 한층 악질의 도를 높여갈 것이다.

유엔 방식에 따라 3천만 동포의 기반 위에 선 대한민국의 개국을 통해 폭동에 의한 권력 부식을 기도하는 급진적 반동분자는 열심히 파멸에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분자로 인해 국가 재건의 ○조건이 현실로 악화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북한으로부터의 침략은 보고 있지 않지만 남한노동당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의 공산분자에 대해서는 이 단호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미 한미안보협정도 성립했기 때문에 미국의 강력한 원조를 요청하고 객관정세에 비추어 국가의 전도가 잘못되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북한의 공산세력은 4년 후의 기성 사실에 뿌리내리고 있고 그 청소는 좀처럼 힘든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를 완수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를 청소하지 않는 한 전한(全韓)의 민주혁명의 실현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남북을 통일하여 완전히 독립하는 문제는 현재 개최하고 있는 유엔총회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유엔한국위원회의 보고에 근거해서 결정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관자여서는 안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유엔의 결정은 강제력을 갖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한국인의 자○가 필요하다. 남북 통일도 완전 독립도 모두 우리의 손으로 이뤄내야만 한다. 북한의 소련군은 명년 1월 1일까지는 철병을 완료하고 남한의 미군은 소련과 동시 철병은 하지 않지만 유엔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독자적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점점 더 우리의 ○○는 중대성을 더해갈 뿐이다.

한국에서는 어떤 문제에도 미소는 협정에 ○○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상식이다. 특히 철병 문제에서 미국의 보장회의가 조기철병을 가결하고 유엔의 결정과는 별도로 미군의 철병을 결정했다는 사실은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다는다는 한 증좌이며, 미국

의 국무, 국방 두 곳의 정책입안자는 필시 이승만 대통령의 정부는 그 독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럴듯하게 주장하고 있는 자가 상당히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군의 철병은 예상보다도 빨리 실현되겠지만, 그 때까지 우리는 국방군의 확립을 흔들림없는 것으로 해야 한다. 어쨌든 대한민국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손으로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소련군은 철병해도 그 뒤에 ○○된 인민군이 남는다. 이 인민군에 저항할 수 있는 국방군의 편성이 급무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력 강화도 또한 긴급한 일이다. 즉 현실의 국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생활불안에 근거한 사회불안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공산주의자의 파괴를 방지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한국의 남북대립이라는 험악한 공기는 당분간 완화되지 않겠지만, 우리는 단호히 공산주의자의 테러행위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자칫하면 이는 한국을 다시 외국 손에 넘기려는 음모에 바탕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력의 강화와 국방군의 확립, 이것이 공산주의자의 ○○○ 분쇄하기 위해 대한민국정부에 요청되는 2대 정책이어야 한다.

社說
統一妨害者
斷乎淸掃

국제일일신문(國際日日新聞) 1948년 10월 30일 / 1면

여수 치안 회복 중
반란군 상황 공표

여수 치안 회복 중
반란군 상황 공표

공립통신의 서울○○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반란 ○○ 이범석 ○○ 장관은 27일 서울에 귀경했는데, ○○ 반란상황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판독불가〉

ヨース治安恢復中
反亂軍狀況公表

국제일일신문(國際日日新聞) 1948년 11월 20일 / 면

제주도에 계엄령
반란군 진정을 위해 발령하다

제주도에 계엄령
반란군 진정을 위해 발령하다

[서울(경성) 18일발 UPI공동] 이승만 한국대통령은 제주도 전역에 대해 가능한 신속하게 반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18일 계엄령을 발령하고 제주도에 있는 국군 제7연대장을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했다. 한편 서울(경성) 동방 1백1십킬로 오대산 주변에서 게릴라대와 경찰대와의 대규모 전투가 치러지고 있으며 경찰당국은 18일, 경찰대와 국군의 특별 부대가 오대산을 포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濟州島に戒嚴令
反亂軍鎭定のため發す

국제일일신문(國際日日新聞) 1949년 5월 7일 / 1면

제주도의 국회의원 선거 5월 10일 실시하기로 결정

제주도의 국회의원 선거 5월 10일 실시하기로 결정

[서울-KIP] 대통령령 제70호를 통해 제주도국회의원선거령이 공포되었지만 이는 작년 5월 10일자 ○○정부행정령 제21호에 의거한 제주도선거의 연기에 관한 법령을 폐지하고 작년의 총선거와 날짜도 같은 5월 10일, 선거를 실시하기로 된 것이다.

濟州道の國議選擧
五月十日實施に決定

국제일일신문(國際日日新聞) 1949년 5월 7일 / 1면

제주도의 선거 중시
유엔한국위원회가 감시

제주도의 선거 중시
유엔한국위원회가 감시

[서울-KIP] 유엔한국위원회에서 4월 23일 제27차 회의를 열었지만 이에 관해 베르토프 아임○○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발설.
"LN한국위원회는 제27차회의의 결정에 따라 5월 8일 제주도에 가게 된 것은 5월 10일에 치러질 제주도 갑을 지구의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서이다. 좀 전에 한국정부의 외무부 장관으로부터 제주도의 선거를 감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감시라기보다도 투표일에 ○○할 생각이다.

濟州道の選擧重視
國連韓國委員團が監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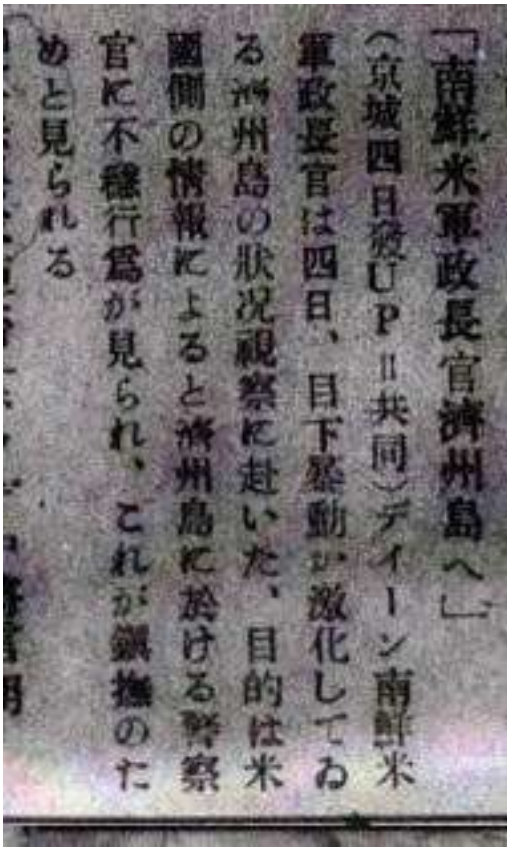
■ 신문(新聞)

해방신문(대판)
(解放新聞)(大阪)

남선 미군정 장관 제주도에

남선 미군정 장관 제주도에

(경성 4일발 UP=공동) 딘 남선 미군정 장관은 4일, 현재 폭동이 격화하고 있는 제주도의 상황시찰을 행했다. 목적은 미국 측의 정보에 의하면 제주도에서의 경찰관에게 불온행위가 보여 이것을 진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南鮮米軍政長官濟州島へ」
(京城四日發UP＝共同)デイーン南鮮米軍政長官は四日、目下暴動が激化してゐる濟州島の狀況視察に赴いた、目的は米國側の情報によると濟州島に於ける警察官に不穩行爲が見られ、これが鎭撫のためと見られ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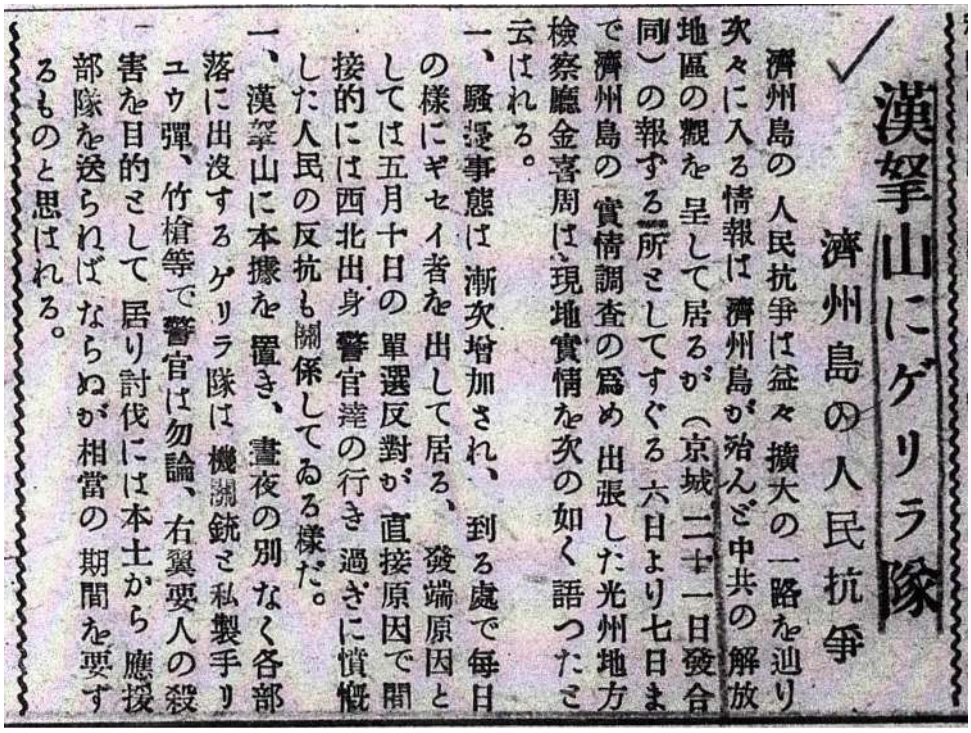
한라산에 게릴라대-제주도의 인민항쟁

한라산에 게릴라대-제주도의 인민항쟁

제주도의 인민항쟁은 점점 확대의 일로를 가고, 계속 들어오는 정보는 제주도가 대부분 중공의 해방지구의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경성 21일발 합동)의 보도로서 탁월하다. 6일부터 7일까지 제주도의 실정조사를 위해 출장 간 광주지방 검찰청 김희주는 현지 실정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전한다.

1. 소요 사태는 점차 증가되어 도처에서 매일 같이 희생자를 내고 있다. 발단 원인으로서는 5월 10일의 단독 반대가 직접 원인으로 간접적으로는 서북 출신 경관들의 과도함에 분개한 인민의 반항도 관계하고 있는 것 같다.

1. 한라산에 본거를 두고, 주야를 가리지 않고 각 부락에 출몰하는 게릴라대는 기관총과 직접 만든 유탄, 대창 등으로 경찰은 물론 좌익요인의 살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토벌에는 본토에서 응원부대를 보내지 않으면 상당의 기간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漢拏山にゲリラ隊

濟州島の人民抗爭

濟州島の人民抗爭は益々擴大の一路を辿り次々に入る情報は濟州島が殆んど中共の解放地區の觀を呈して居るが（京城二十一日發合同）の報ずる所としてすぐる六日より七日まで濟州島の實情調査の爲め出張した光州地方檢察廳金喜周は現地實情を次の如く語つたと云はれる。

一、騷擾事態は漸次增加され、到る處で毎日の様にギセイ者を出して居る、發端原因としては五月十日の單選反對が直接原因で間接的には西北出身警官達の行き過ぎに憤慨した人民の反抗も關係してゐる様だ。

一、漢拏山に本據を置き、晝夜の別なく各部落に出沒するゲリラ隊は機關銃と私製手りユウ彈、竹槍等で警官は勿論、右翼要人の殺害を目的として居り討伐には本土から應援部隊を送られればならぬが相當の期間を要するものと思はれる。

연구진

자 문 위 원 村上尚子(무라카미 나오코, Tsuda University 국제관계연구소 연구원)

연구책임자 임승희(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공동연구원 강경희(제주역사문화진흥원 연구원)

김순임(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특별연구원)

박찬식(제주4·3평화재단 비상임연구원)

제주역사 자료총서 14

프란게문고 제주기사 자료집 - 재일조선인 미디어(II)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51, 3층

Tel. 064-726-5623

발행인 김순자

제작처 한그루 onetreebook.com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로1길 21

Tel. 064-723-758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밝혀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ISBN 979-11-90482-64-6(93090)

비매품